

한국언어과학회 · 언어과학회 공동 주최
2014 여름학술대회

언어연구에서의 새로운 연구방법론 모색

The Search for a New Methodology
in Language Research



2014년 8월 21일(목) 오전 9시 ~ 오후 6시 **일시**

부산대학교 인문관 4층 **장소**

K^A_LS 한국언어과학회 · LSS 언어과학회 **주최**

부산대학교 불어교육과 **주관**

한국연구재단 **후원**



전체 일정표

시간	내용				
09:00 ~ 09:30	등록 [인문관 407]				
09:30 ~ 09:40	[인문관 412] 사회자: 홍신철 (부산외대) 환영사 (김신호, 영산대, 한국언어과학회 회장) 개회사 (김주식, 동양대, 언어과학회 회장)				
09:40 ~ 10:50	초청강연 Dr. Mike Scott (Aston University, UK) Keywords as a Way into Comprehending Text 사회자: 장세은 (한국해양대)				
10:50 ~ 11:00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0분)				
논문발표					
11:00 ~ 12:00	세션 1	세션 2	세션 3	세션 4	세션 5
점심 (90')	음운론/인지론	통사론	의미론/화용론	담화/코퍼스	교육/번역
13:30 - 14:30	(Phonology/ Cognitive)	(Syntax)	(Semantics/ Pragmatics)	(Discourse/ Corpus)	(Education/ Translation)
휴식 (15')	좌장: 임지룡	좌장: 김동국	좌장: 권연진	좌장: 김두식	좌장: 김재운
14:45 - 16:15	(경북대)	(영산대)	(부산대)	(경상대)	(신라대)
휴식 (15')	[인문관 407]	[인문관 408]	[인문관 409]	[인문관 410]	[인문관 411]
16:30 ~ 18:00					
18:00 ~ 18:30	총회 [인문관 412]				
18:30 ~ 20:00	리셉션 [상남국제회관 1층 레스토랑]				

세션별 발표

세션(Session) 1 ▶ 음운론/인지론 (Phonology/Cognitive) [인문관 407]

시간	논문발표	좌장: 임지룡 (경북대)
11:00 - 12:00	<p style="text-align: right;">사회자: 김희경 (동서대)</p> <p>박시윤·김수정 (창원대): 비능격 및 비대격 자동사 구문의 문장강세 구현 토론자: 신승훈 (영남대)</p> <p>임규홍 (경상대): 국어 모음의 음상과 의미 -원순모음 /ɯ/를 중심으로- 토론자: 이문규 (경북대)</p>	
12:00 - 13:30	점 심 (90분)	
13:30 - 14:30	<p style="text-align: right;">사회자: 박희현 (진주교대)</p> <p>김지향·김기호 (고려대): 영어 단어경계에 따른 인지 양상 연구: 한국인 청자와 영어 원어민 청자 비교 분석 토론자: 이예식 (경북대)</p> <p>송지미 (부산외대): 영어 모문동사와 보충어의 일치 토론자: 손일권 (경북대)</p>	
14:30 - 14:45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14:45 - 16:15	<p style="text-align: right;">사회자: 송현주 (계명대)</p> <p>이미영 (경북대):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비유적 합성어의 의미구조 탐색 토론자: 나익주 (전남대)</p> <p>정지윤·임성출 (경북대):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of Spatial Location between Objects in English and Korean 토론자: 육준철 (영남사이버대)</p> <p>장연루·임성출 (경북대): Linguistic Expressions of RESULT and Its Realization in Force Dynamics between English and Chinese 토론자: 송지미 (부산외대)</p>	
16:15 - 16:30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16:30 - 18:00	<p style="text-align: right;">사회자: 이미영 (경북대)</p> <p>임효상 (경희대): 속담의 교훈성과 비교육성의 Paradox에 관한 연구 -스페인어 속담을 중심으로- 토론자: 임보영 (선문대)</p> <p>유정숙 (경상대): 경동사구문과 구체화(reification)현상 토론자: 김경환 (경기대)</p> <p>이도경 (인제대): The Influences of Musical Aptitude and Musical Training on EFL/ESL Phonetic Learning 토론자: 홍광희 (영남대)</p>	

세션(Session) 2 ▶ 통사론 (Syntax) [인문관 408]

시간	논문발표	좌장: 김동국 (영산대)
11:00 - 12:00	<p>권기양 (영산대): From Phrase Structure Rules to Label Algorithm 토론자: 황규홍 (동아대)</p> <p>배주원 (부산대): 영어와 한국어 장소구 도치 구문에 관한 연구 - 비대격동사와 비능격동사 중심으로 - 토론자: 김동국 (영산대)</p>	사회자: 이은석 (대구대)
12:00 - 13:30	점 심 (90분)	
13:30 - 14:30	<p>김대익·김재윤 (영산대·신라대): 국민인식과 관련된 최소주의 문제점 토론자: 권기양 (영산대)</p> <p>박상수 (부산외대): 북부방언 주어규칙과 구어 There-구문의 자질일치 토론자: 남미영 (계명대)</p>	사회자: 박순혁 (부경대)
14:30 - 14:45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14:45 - 16:15	<p>최용환 (안동대): 이른바 국어 동격 명사구에 대하여 토론자: 정수진 (대구한의대)</p> <p>제갈덕주 (경북대): 부정극성의 통사-의미적 연구: '아무'를 중심으로 토론자: 홍수민 (서울시립대)</p> <p>김신호 (영산대): 현대/고대 프랑스어 전치사구-도치구문의 비교연구 토론자: 백미혜리 (부산외대)</p>	사회자: 김수태 (신라대)
16:15 - 16:30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16:30 - 18:00	<p>양용준 (제주대):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의 차이 -제주방언을 중심으로- 토론자: 김동환 (해군사관학교)</p> <p>황병순 (경상대): 부름말 '어이'의 문법화 토론자: 장요한 (계명대)</p> <p>황현미 (부산대): 영어와 한국어 탈어휘동사구문의 쌍방향 대응관계 연구 토론자: 김대익 (영산대)</p>	사회자: 장요한 (계명대)

세션(Session) 3 ▶ 의미론/화용론 (Semantics/Pragmatics) [인문관 409]

시간	논문발표	좌장: 권연진 (부산대)
11:00 - 12:00	<p>정경숙 (부산대): 한국어 종결어미 '-네'와 단언화행 토론자: 김수태 (신라대)</p> <p>송효원 (부산외대): Referential Density in the Korean Narratives of "Frog, where are you?" 토론자: 전부미 (영산대)</p>	사회자: 김진해 (경희대)
12:00 - 13:30	점 심 (90분)	
13:30 - 14:30	<p>백주현 (부산교대): Interactional Metadiscourse in L1 and L2 Research Articles: Writer Identity and Social Interaction 토론자: 임성출 (경북대)</p> <p>임수진 (영남대): Orientational Metaphors in Political Speech 토론자: 권미분 (신라대)</p>	사회자: 김은일 (부경대)
14:30 - 14:45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14:45 - 16:15	<p>최은순 (한국해양대): 지중해연안의 링구아프랑카의 접축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고찰 토론자: 송경숙 (동의대)</p> <p>박인진 (부산외대): 영어 명령에 대한 완곡어법의 정도성 토론자: 오명기 (강원대)</p> <p>김준홍 (경북대): 법률어의 화용론적 의미구조 토론자: 박수정 (한양사이버대)</p>	사회자: 임수진 (영남대)
16:15 - 16:30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16:30 - 18:00	<p>조은정 (경상대): 영어 합성 명사 nose candy의 의미 구성 분석: 개념적 혼성 이론을 중심으로 토론자: 류혜경 (대구대)</p> <p>황순희 (부산대): 분리동사의 의미 분석과 의미 확장- {빠다}, {뿔다}를 중심으로 토론자: 원유상 (원광대)</p> <p>안병길 (경남과기대): Marked Constructions and GbF Model 토론자: 김신혜 (계명대)</p>	사회자: 박기성 (부산대)

세션(Session) 4 ▶ 담화/코퍼스 (Discourse/Corpus) [인문관 410]

시간	논문발표	좌장: 김두식 (경상대)
11:00 - 12:00	<p>이성민·장세은 (한국해양대): Correlation between Reference and Non-reference Approaches to Identifying Significant Technical Vocabulary 토론자: 홍신철 (부산외대)</p> <p>장세은·이성민 (한국해양대): A Corpus Approach to Stylistic Analysis in <i>Moby Dick</i> 토론자: 남대현 (UNIST)</p>	사회자: 김준기 (동서대)
12:00 - 13:30	점 심 (90분)	
13:30 - 14:30	<p>류미립 (한국해양대): Text Analysis with R: with <i>Moby Dick</i> 토론자: 김철규 (경성대)</p> <p>강현지·오명기 (경북대·강원대): The Arbitrariness of Metaphor: Viewed from Vagueness 토론자: 전영옥 (상명대)</p>	사회자: 김소영 (동명대)
14:30 - 14:45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14:45 - 16:15	<p>이한숙 (고려대): 해운대의 도시 기호 토론자: 장은숙 (한국복지대)</p> <p>김두식 (경상대): A corpus-based Comparison of Uses in Context between <i>safe(ty)</i> and <i>secur(-ity)</i> by Means of 'Binary Opposition Strategy' 토론자: 강현지 (경북대)</p> <p>김경숙 (송실대): '푸른 하늘' 은하수인가 '파란 하늘' 은하수인가? 토론자: 윤석연 (원광디지털대)</p>	사회자: 이성민 (한국해양대)
16:15 - 16:30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16:30 - 18:00	<p>박혜선 (계명대):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부사 사용: Actually와 in fact를 중심으로 토론자: 박분주 (대구가톨릭대)</p> <p>이정민·현태덕 (안동대):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코퍼스 기반 어휘기준 비교분석 토론자: 김은정 (경상대)</p> <p>신진원 (부산대): 한·미 신문사설의 평가어 비교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토론자: 백수진 (경상대)</p>	사회자: 이한숙 (고려대)

세션(Session) 5 ▶ 교육/번역 (Education/Translation) [인문관 411]

시간	논문발표	좌장: 김재운 (신라대)
11:00 - 12:00	<p>송경숙 (동의대): 표준어에 대한 언어교육 및 사회언어학적 접근 토론자: 최은순 (한국해양대)</p> <p>배대권 (경남과기대): 아시아 성인 영어학습자들의 학습동기 요인 토론자: 양재석 (인디아나대)</p>	사회자: 김재운 (신라대)
12:00 - 13:30	점 심 (90분)	
13:30 - 14:30	<p>이영화 (선문대): The Interface between Input and Output in an English Writing Course 토론자: 홍선영 (경남대)</p> <p>서중훈 (대구가톨릭대): 문단을 활용한 모둠 글쓰기 지도 방안 토론자: 김태진 (배재대)</p>	사회자: 이미향 (영남대)
14:30 - 14:45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14:45 - 16:15	<p>장종득 (경북대): Relationship between Korean EFL Learners' Anxiety and Brain Dominance 토론자: 임수진 (영남대)</p> <p>김태진·이희숙 (배재대·대구가톨릭대): 외국어 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활용 연구 토론자: 구경연 (경북대)</p> <p>양재석 (인디아나대): Metacognitive Approach to Task-based Vocabulary Learning Strategy Use in Reading 토론자: 김영숙 (대구교대)</p>	사회자: 우길주 (부산교대)
16:15 - 16:30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16:30 - 18:00	<p>김영숙 (대구교대): 초등영어 영재교육의 두 사례 토론자: 이희숙 (대구가톨릭대)</p> <p>김동국·이상률 (영산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토론자: 하명호 (신라대)</p> <p>주미진 (강원대): 채점자 특징이 구술 인터뷰와 컴퓨터 구술시험 상에서의 채점자 신뢰성과 편향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 토론자: 남정미 (신라대)</p>	사회자: 전지현 (부산대)

PNU Campus Guide



- 306 학술대회장(인문대학 4층)
- 419 점심장소(금정회관 2층)
- 209 저녁만찬(상남국제회관 1층)

목 차

Ⅰ 특강

Dr. Mike Scott (Aston University, UK)	Keywords as a Way into Comprehending Text 1
--	---

Ⅰ 제1발표

박시윤·김수정(창원대)	비능격 및 비대격 자동사 구문의 문장강세 구현 23
임규홍(경상대)	국어 모음의 음상과 의미 -원순모음 /ㄱ/를 중심으로- 31
김지향·김기호 (고려대)	영어 단어경계에 따른 인지 양상 연구: 한국인 청자와 영어 원어민 청자 비교 분석 43
송지미(부산외대)	영어 모문동사와 보충어의 일치 51
이미영(경북대)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비유적 합성어의 의미구조 탐색 59
정지윤·임성출 (경북대)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of Spatial Location between Objects in English and Korean 65
장엔루·임성출 (경북대)	Linguistic Expressions of RESULT and Its Realization in Force Dynamics between English and Chinese 71
임효상(경희대)	속담의 교훈성과 비교육성의 Paradox 에 관한 연구 -스페인어 속담을 중심으로- 73
유정숙(경상대)	경동사구문과 구체화(reification)현상 75
이도경(인제대)	The Influences of Musical Aptitude and Musical Training on EFL/ESL Phonetic Learning 83

Ⅰ 제2발표

권기양(영산대)	From Phrase Structure Rules to Label Algorithm 93
배주원(부산대)	영어와 한국어 장소구 도치 구문에 관한 연구 - 비대격동사와 비능격동사 중심으로 - 109
김대익·김재운 (영산대·신라대)	국면인식과 관련된 최소주의 문제점 117
박상수(부산외대)	북부방언 주어규칙과 구어 There-구문의 자질일치 123
최용환(안동대)	이른바 국어 동격 명사구에 대하여 131
제갈덕주(경북대)	부정극성의 통사-의미적 연구: ‘아무’를 중심으로 139
김신호(영산대)	현대/고대 프랑스어 전치사구 -도치구문의 비교연구 145
양용준(제주대)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의 차이 -제주 방언을 중심으로- 153
황병순(경상대)	부름말 ‘어이’의 문법화 165
황현미(부산대)	영어와 한국어 탈어휘동사구문의 쌍방향 대응관계 연구 173

Ⅰ 제3발표

정경숙(부산대)	한국어 종결어미 '-네'와 단언화행 185
송효원(부산외대)	Referential Density in the Korean Narratives of “Frog, where are you?” 193
백주현(부산교대)	Interactional Metadiscourse in L1 and L2 Research Articles: Writer Identity and Social Interaction 203
임수진(영남대)	Oriental Metaphors in Political Speech 205
최은순(한국해양대)	지중해연안의 링구아프랑카의 접촉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고찰 213
박인진(부산외대)	영어 명령에 대한 완곡어법의 정도성 221
김준홍(경북대)	법률어의 화용론적 의미구조 227
조은정(경상대)	영어 합성 명사 nose candy의 의미 구성 분석: 개념적 혼성 이론을 중심으로 235
황순희(부산대)	분리동사의 의미 분석과 의미 확장 -{빼다}, {뽑다}를 중심으로 247
안병길(경남과기대)	Marked Constructions and GbF Model 257

Ⅰ 제4발표

이성민·장세은 (한국해양대)	Correlation between Reference and Non-reference Approaches to Identifying Significant Technical Vocabulary	265
장세은·이성민 (한국해양대)	A Corpus Approach to Stylistic Analysis in <i>Moby Dick</i>	281
류미림(한국해양대)	Text Analysis with R: with <i>Moby Dick</i>	297
강현지·오명기 (경북대·강원대)	The Arbitrariness of Metaphor: Viewed from Vagueness	305
이한숙(고려대)	해운대의 도시 기호	307
김두식(경상대)	A Corpus-based Comparison of Uses in Context between <i>safe(ty)</i> and <i>secur(-ity)</i> by Means of 'Binary Opposition Strategy'	321
김경숙(숭실대)	'푸른 하늘' 은하수인가 '파란 하늘' 은하수인가?	329
박혜선(계명대)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부사 사용: Actually와 in fact를 중심으로	337
이정민·현태덕 (안동대)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코퍼스 기반 어휘기준 비교분석	345
신진원(부산대)	한·미 신문사설의 평가어 비교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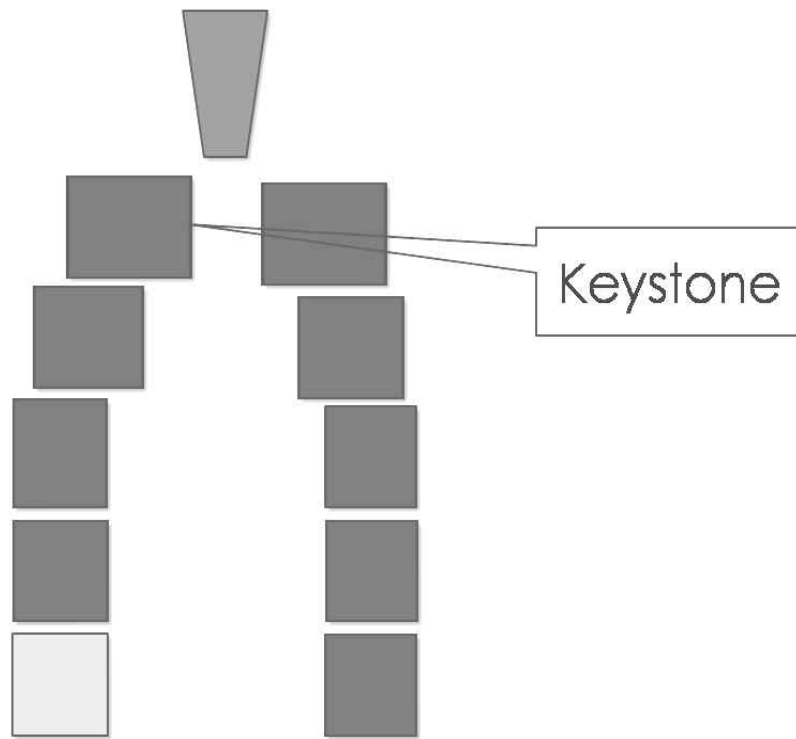
Ⅰ 제5발표

송경숙(동의대)	표준어에 대한 언어교육 및 사회언어학적 접근	365
배대권(경남과기대)	아시아 성인 영어학습자들의 학습동기 요인	367
이영화(선문대)	The Interface between Input and Output in an English Writing Course	371
서종훈(대구가톨릭대)	문단을 활용한 모둠 글쓰기 지도 방안	379
장종득(경북대)	Relationship between Korean EFL Learners' Anxiety and Brain Dominance ...	387
김태진·이희숙 (배재대·대구가톨릭대)	외국어 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활용 연구	401
양재석(인디애나대)	Metacognitive Approach to Task-based Vocabulary Learning Strategy Use in Reading	411
김영숙(대구교대)	초등영어 영재교육의 두 사례	417
김동국·이상률 (영산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423
주미진(강원대)	채점자 특징이 구술 인터뷰와 컴퓨터 구술시험 상에서의 채점자 신뢰성과 편향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	431

특강

Keywords as a Way into Comprehending Text

- Mike Scott
- Aston University
- Lexical Analysis Software Ltd



What do we mean by Keynes?

► Importance

- a lot depends on a key
 - stone
 - person
 - word



Keyness: a textual category

- synonymy
- antonymy
- hyponymy
- meronymy
- etc.

- lexical characteristics in the language



Keyness: a textual categ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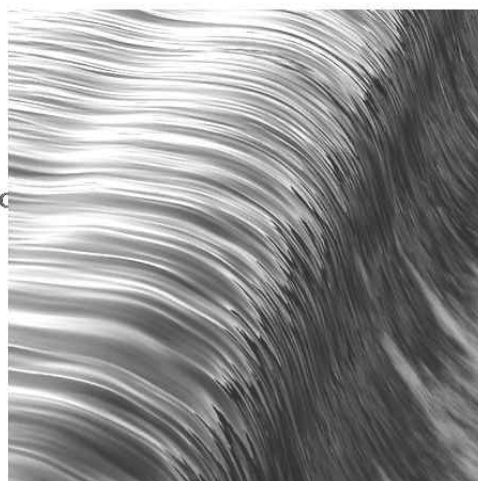
- alliteration
- rhyme
- rhythm
- etc.

- literary characteristics



textual categories

- coherence
- cohesion
- order (e.g. episodic)
- keyness
- etc.



Keyness for the language user

- ▶ seeking meaning
- ▶ finding the gist
- ▶ understanding the text organisation
- ▶ making good sense
- ▶ writing coherently



Keyness for the language teacher

- ▶ Problem
- ▶ lots of data
- ▶ hidden meaning



Comprehension

- In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is the problem
- lack of vocabulary?
- reading strategies?
- fear? stress?



Keyness for the language teacher

- Solution
- much of the meaning is in the KWs



Identifying Keyness

- ▶ repetition
- ▶ repetition
- ▶ repetition
- ▶ repetition
- ▶ repetition
- ▶ repetition
- ▶ repetition
- ▶ repetition



Identification by human readers

- ▶ repetition of id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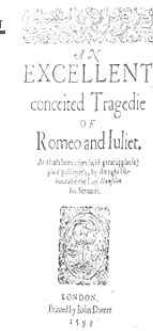
Computer identification of KWs

- verbatim repetition
- threshold
- comparison with a reference
- usually single-word KWs
- ordered by outstandingness
- (= keyness)



KWs of *Romeo and Juliet*

- back, banished, cell, churchyard, dead, death, early, kinsman, light, lips, love, married, monument, night, poison, slain, Thursday, torch, vault, watch
- art, she, thee, thou, thy, will
- Benvolio, Capulet, Capulets, Capulet's, County, Friar, Juliet, Juliet's, Lady, Lawrence, Mantua, Montague, Nurse, Paris, Romeo, Romeo's, Tybalt, Tybalt's, Verona
- ah, o



"aboutness"
(Phillips 1989)

How it is done

- A word which is key occurs more often than would be expected by chance in comparison with a reference corpus.
- Computed by comparing a word-list of the text we are interested in with a word-list of a reference corpus.
- "Reference corpus" is all of Shakespeare's plays in this case.

Example from tourism

Figure 8 shows a keyword list generated when a list of 270 TC-BI is the study corpus and a list of 2-word clusters from earlier, some of the obvious proper nouns have been deleted from

N	Key word	Freq	RC Freq	Keyness
18	HORSE RIDING	80	0	112.68
19	CAR PARK	79	0	111.27
20	CENTRE OF	77	0	108.45
21	LEISURE ACTIVITIES	77	0	108.45
22	COUNTRY PARK	76	0	107.04
23	TOWN CENTRE	76	0	107.04
24	SET IN	105	7	105.07
25	THE ISLAND'S	72	0	101.41
26	LEISURE CENTRE	70	0	98.59

Figure 8 shows a keyword list generated when a list of 270 TC-BI is the study corpus and a list of 2-word clusters from earlier, some of the obvious proper nouns have been deleted from the TC-US for occurrences cluster city clusters list and not at concordance produces of that where US tourist centre p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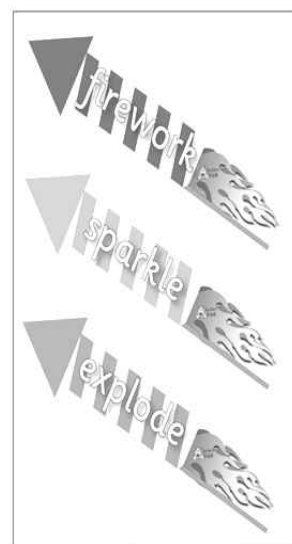
Wilkinson, M. 2014

Figure 8. Two-word key-clusters of TC-BI when compared with TC-US.

In their course-feedback, many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Eastern Finland have reported that they find keyword-related assignments rewarding and fun. In general, the use of corpus analysis tools,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final product” (i.e. the text produced), enhances the learning experience by enabling students to be less teacher-dependent. This type of approach is often referred to as “discovery learning” or “data-driven learning” (DDL) – by interrogating and manipulating corpora and analysing data, students can make their own discoveries and deductions, and need not rely on the teacher’s knowledge and intuition. In fact, through careful and critical analysis of results generated by corpus searching, combined with information obtained from other sources such as the Internet, students can often challenge and refute the teacher’s suggestions. The teacher, rather than being an information provider, is more of a facilitator in the learning process, provid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learn through discovery and giving them hints and nudges in the right direction only when necessary.

- Wilkinson, M. 2014, Using the Keyword Tool to Explore Lexical Differences between British and American English in Specialised Corpora. *CALL-EJ* 15(1), 21-38. Online at http://callej.org/journal/15-1/Wilkinson_2014.pdf

Teacher's Pet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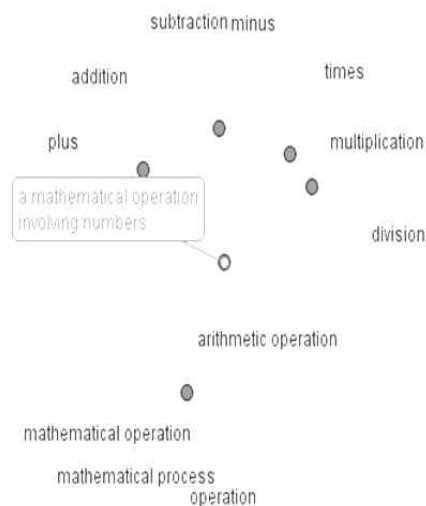
- <http://displays.ipet.co.uk/?resource=475#/ViewResource/id475>

Health Service Advice

Key words

These are the words which are central to a child's understanding of the topic or subject. This could be words for objects (things), verbs (actions) and also more abstract concepts and processes (words which describe size, weight, position, emotion, time etc).

- http://www.cht.nhs.uk/fileadmin/documents/Childrens_Therapy/Speech__Language_Therapy/Teaching_Vocabulary_in_the_Classroom_advice_sheet.pdf



- <http://www.visualthesaurus.com/cm/lessons/using-key-words-to-unlock-math-word-probl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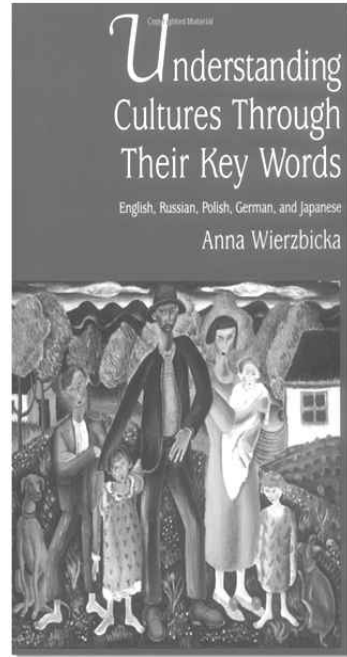
Mathematical Operations and Key Words

<u>Addition</u>	<u>Subtraction</u>
add(ed) to all together both combined in all increase by more than perimeter plus sum total	decreased by difference fewer than how many more left less less than minus remaining take away
<u>Multiplication</u>	<u>Division</u>
a area multiplied by of per product of rate times triple twice	divided half how many each out of percent quarter quotient of percent

► <http://www.visualthesaurus.com/cm/lessons/using-key-words-to-unlock-math-word-probl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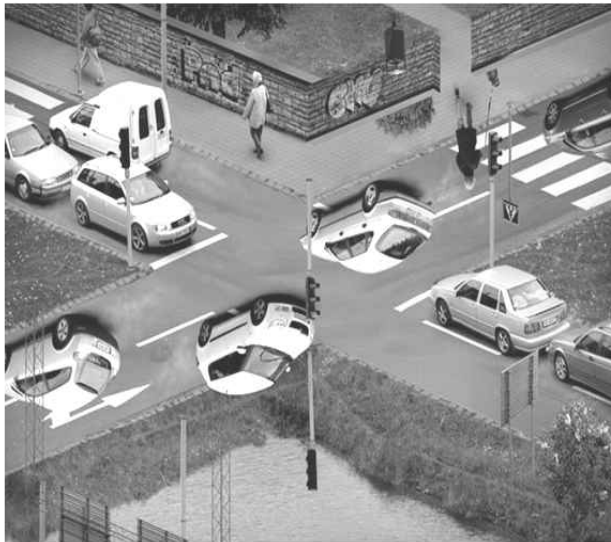
► <https://itunes.apple.com/gb/app/keywords-english/id558204098?mt=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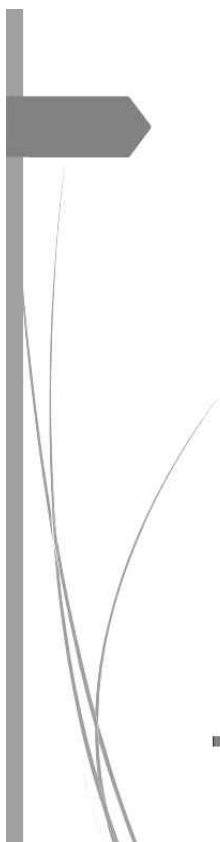
▶ <http://www.amazon.co.uk/Understanding-Cultures-Through-Their-Words/dp/0195088360>

Key words, teaching versus learning

▶ unteac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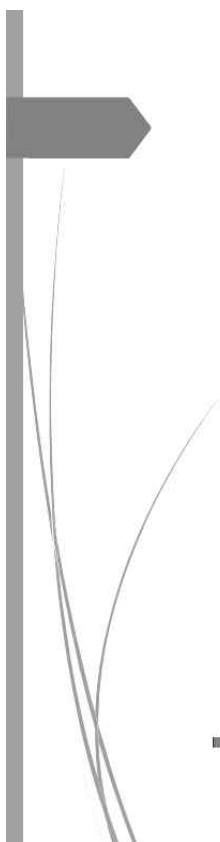
www.Puzzle.com



Key words

Patient
appointment
Receptionist
scheduled
file
office
maiden
apolog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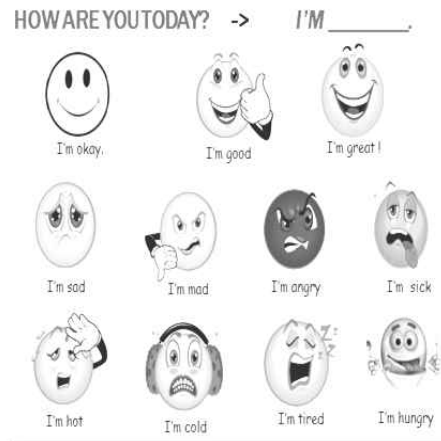
► <https://www.youtube.com/watch?v=WNHsgYFDxiM>



► <http://fizzleblog.scholastic.com/post/be-wary-using-key-words-your-math-instruction>



Potential EFL activities



28

Activities (1)

- teacher supplies KWs, students predict/guess at the text
- rationale*: boosts confidence & reduces tension of reading the text; variant on old un-pedagogical supplying of a glossary prior to rea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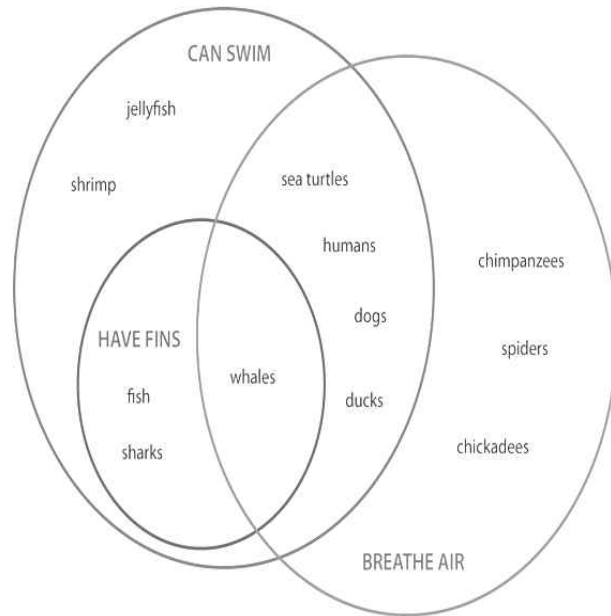
Making a Prediction
is when we use
clues in the story
to make a guess
about what will
happen next.

29

Activities (2)

- students sort KWs into categories (people, places, processes etc.)

- rationale*: leads to Critical Reading: what was said and what was downplayed and what omit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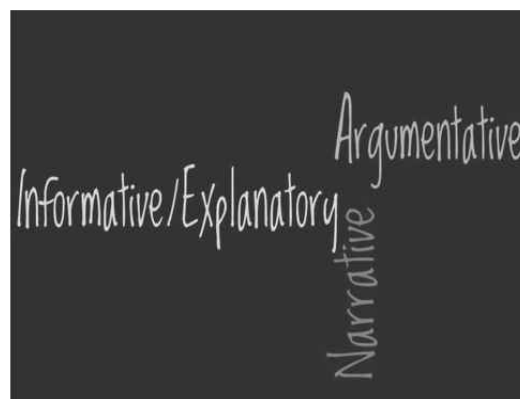


30

Activities (3)

- Students predict which other text-types would typically contain those KWs

- rationale*: focus on notion of the colony, text-types, intertextuality



31

Activities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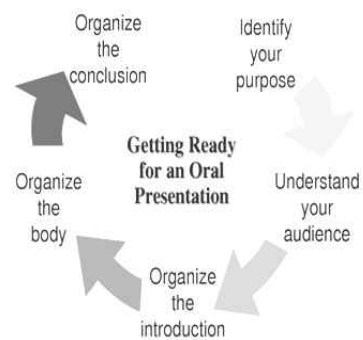
- KWs as a basis for writing tasks
 - *rationale*: students start from their own KWs and generate a text; reduces tension of writing a well-formed text, provides a basis for brain-storming



32

Activities (5)

- Students use KWs as a basis for oral presentations
 - *rationale*: helps prepare the audience, prior to or immediately following outline summary of the presentation; helps focus the presenter's mind towards the audience (away from the teacher) and increase likelihood of awareness of difficulties audience might face, as well as focus on the essential as opposed to incidental



33

Activities (6)

- Students read or listen and note down the KWs
 - *rationale*: preparation for note-taking but less stressful



34

Language Awareness and KWs: realisation that ...

- Vocabulary items are not all equally important
- It's better to concentrate on the KWs
- KWs provide a text "skeleton"
- KWs are closely related to notes because they focus on aboutness



references

- ▶ Phillips, M., 1989, *Lexical Structure of Text*. *Discourse Analysis Monographs* 12, Birmingham: University of Birmingham.
- ▶ http://www.chilnhs.uk/fileadmin/documents/Childrens_Therapy/Speech_Language_Therapy/Teaching_Vocabulary_in_the_Classroom_advice_sheet.pdf
- ▶ Culpeper, J. 2002. Computers, Language and characterisation: an analysis of six characters in *Romeo and Juliet*. In U. Melander-Marittala, C. Östman and M. Kylö (eds.), *Conversation in Life and in Literature: Papers from the ASLA Symposium*, Association Suedoise de Linguistique Appliquée (ASLA), 15. Universitetstryckeriet: Uppsala, pp.11-30. Electronic copy available via http://www.lexically.net/wordsmith/corpus_linguistics_links/papers_using_wordsmith.htm
- ▶ Scott, M. & C. Tribble, 2006. *Textual Patterns: key words and corpus analysis in language education*. Amsterdam: Benjamins. Ch. 4. S.JL: P53.28.S42
- ▶ Wilkinson, M. 2014. Using the Keyword Tool to Explore Lexical Differences between British and American English in Specialised Corpora. *CALL-EJ* 15(1), 21-38. Online at http://caliej.org/journal/15-1/Wilkinson_2014.pdf

제1 발표

비능격 및 비대격 자동사 구문의 문장강세 구현

박 시 윤 · 김 수 정

(창원대학교)

Abstract

Since Perlmutter's "Impersonal Passives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1978), it has been accepted that intransitive verbs fall into two subclasses- unergative verbs and unaccusative verbs, each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argument structure. The unaccusative-unergative dichotomy has also been linked to differences in the phonetic constructions in which they appear. Some linguistic analyses (Iwrin 2010, Selkirk 1995) claim that the placement of pitch accents is determined by the verb-argument structure of the intransitive sentences in a broad focus context. Hirsch & Wagner(2011), on the other hand, claim that once information structure is controlled, the argument structure does not in itself influence prominence in intransitive sentenc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ntonational realization of sentences including the two types of intransitive verbs, comparing native speakers of English and Korean learners of English who were divided into two groups-an advanced group and a beginner group-according to a grammaticality judgment test on intransitive verbs. In this study, two approaches were applied to the experiments: the argument structure approach, and the information structure approach. When the argument structure was controlled, the prosodic and acoustic analyses showed that English native speakers produced similar intonation patterns to previous studies(Hoskins 1996). Meanwhile, when the sentences were both semantically and phonetically matched, the patterns were contrary to the previous study. Therefore, the argument structure approach is insufficient for the explanation of accentuation of intransitive sentences in broad contexts. The results also support Hirsch & Wagner's proposal(2011), topicality: the animacy of argument and the lexical meaning of appearance/disappearance have influence on the intonation patterns in intransitive sentences. Consequently the subject-accent patterns in the sentences which include human subjects or verbs of appearance were relatively stronger than in sentences with non-human subjects or the verb of disappearance. In the case of the two groups of Korean learners of English, however, they both had a tendency to produce the pitch accent on subjects regardless of the type of intransitive verbs. Furthermore, their syntactic knowledge of English intransitive verbs did not seem to directly influence the intonational realization once they fully understood the meaning of the sentences at the time of utterance. From the view of information structure, Korean speakers could, to some degree, differentiate the prosodic pattern in the sentences which were controlled by animacy. Interestingly, the beginner group was

more likely to produce the pitch accent similar to native speakers than the advanced group in those intransitive sentences, particularly in the sentence including an unaccusative verb.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occurred a conflict between syntactic knowledge of the intransitive sentence of L2 and lexical information of L1 when the sentences were being produced. Although Korean speakers seemed to be able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human and non-human, unlike native speakers of English they failed to differentiate the prosodic patterns of appearance and disappearanc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for the effective teaching of intonation for Korean learners of English, developing teaching models based on the information status-for instance, thematic role, animacy, new-given information-will be more helpful and efficient than those based on the syntactic structure.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원어민과 한국인의 영어 비능격, 비대격 자동사 문장의 문장강세 실현양상을 비교하여 발화시 자동사의 통사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보구조가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히고 정보구조에 따른 억양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통사와 음운구조의 상관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논항구조에 따라 운율구조가 다르다고 하였다(Hoskins 1996, Iwrin 2011, Selkirk 1995). 이와 달리 Hirsch & Wagner(2011a, 2011b)는 정보구조가 자동사문장의 강세실현에 영향을 주며 주어가 화제성을 띠 경우 듣 들림이 주어에서 동사로 이동한다고 주장하였다. Hoskins(1996)를 비롯한 기존의 연구는 두 자동사의 음성적, 의미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험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문장강세의 차이를 통사구조의 차이로 단정 짓기 어렵다. 또한 자동사의 문법적 지식정도에 따른 피험자 발화를 구분하지 않아 통사적 지식과 발화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음성적, 의미적 조건을 갖춘 두 자동사 문장에 대한 원어민화자의 강세 실현을 기존 연구와 비교해 보고, 한국인의 자동사 문법지식 정도와 억양실현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나아가 Hirsch & Wagner의 견해를 따라 원어민과 한국인 화자의 화제성에 따른 자동사 문장의 억양실현 양상을 비교하여 정보구조에 따른 억양교육의 필요성을 논한다.

2. 실험 1

2.1 실험목적 및 실험문장

원어민과 한국인 상, 하 그룹의 초점 영역에 따른 비능격, 비대격 자동사 문장의 억양 실현 양상을 기존 연구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표 1> Hoskins(1996)의 실험문장(문장1)

초점	비능격 문장1	비대격 문장1
광의초점	His daughter walked.	His dinner burned.

<표 2> P&K 비능격, 비대격 실험문장(문장2)

초점	비능격 문장2	비대격 문장2
광의초점	A spy lied.	A spy died.
주어협의초점	A spy lied.	A spy died.
동사협의초점	A spy lied.	A spy died.

2.2 실험 결과

2.2.1 원어민 화자

Hoskins(1996)의 실험문장을 발화한 원어민 피험자들의 억양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기존의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3> Hoskins(1996)의 비능격, 비대격 문장1의 억양유형 발화빈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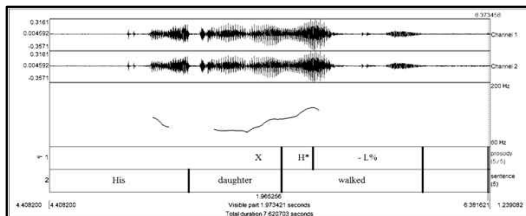
유형(주어, 동사)	비능격 문장 1	비대격 문장 1
H*, L-L%	0	100
H*, H*-L%	60	0
X, H*L-L%	40	0

문장의 음성적, 의미적 조건이 동일하게 맞춘 경우 Hoskins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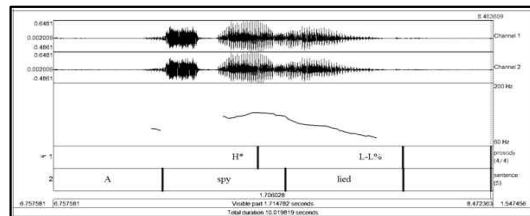
<표 4> 비능격, 비대격 문장2의 원어민 억양유형 발화빈도 (단위%)

유형(주어, 동사)	비능격 문장 2	비대격 문장 2
H*, L-L%	60	20
H*, H*-L%	40	60
X, H*L-L%	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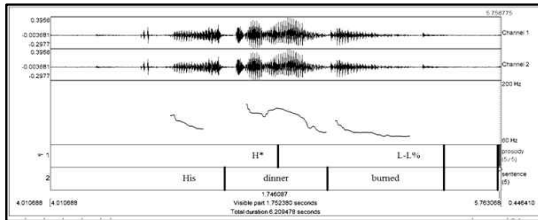
<그림 1> Native-Unergativ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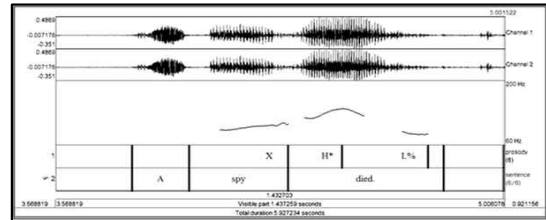
<그림 2> Native-Unergative 2



<그림 3> Native-Unaccusative 1



<그림4> Native-Unaccusative 2



2.2.2 한국인 화자

<표 5> 한국인 화자의 비능격 문장 억양유형 발화빈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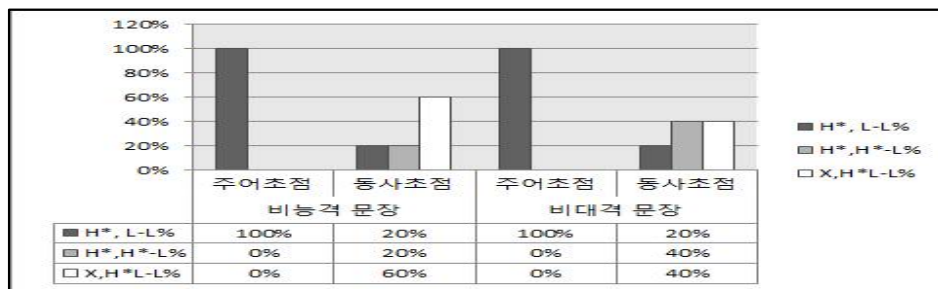
억양 유형	상위 그룹		하위 그룹	
	비능격 문장1	비능격 문장2	비능격 문장 1	비능격 문장 2
주어, 동사				
H*, L-L%	33	100	83	83
H*, H*-L%	50	0	17	17
X, H*L-L%	17	0	0	0

<표 6> 한국인 화자의 비대격 문장 억양유형 발화빈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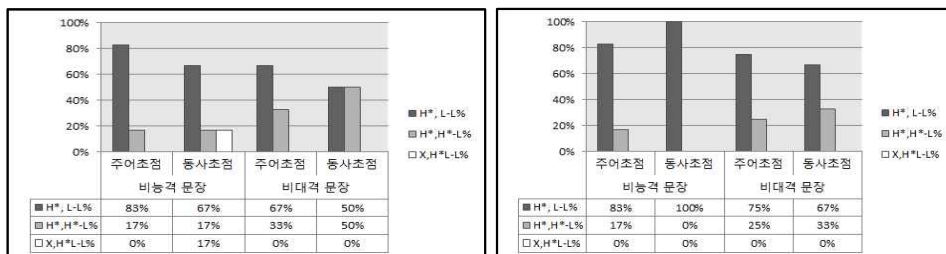
억양 유형	상위 그룹		하위 그룹	
	비대격 문장 1	비대격 문장 2	비대격 문장 1	비대격문장 2
주어, 동사				
H*, L-L%	50	100	100	67
H*, H*-L%	50	0	0	33
X, H*L-L%	0	0	0	0

2.2.3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화자의 자동사 문장의 협의초점 실현양상

<그림 5> 원어민 협의초점 실현양상



<그림 6> 한국인 화자의 협의초점 실현양상(상위 그룹 vs. 하위그룹)



3. 실험 2

3.1 실험 목적 및 실험문장

자동사 문장의 강세실현에 화제성(topicality)이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동사 문장 강세실현에 논항구조의 차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능격, 비대격으로 구분한 자동사 문장을 생물성(animacy)과 출현성(appearance)으로 세분하였다.

<표 7> 주어의 생물성 실험문장

자동사	생물	무생물
비능격	Knights are fighting.	Kites are fighting.
비대격	A boy is falling.	A ball is falling.

<표 8> 동사의 출현성 실험문장

자동사	출현	사라짐
비대격	A rash formed.	A rash faded.

3.2 실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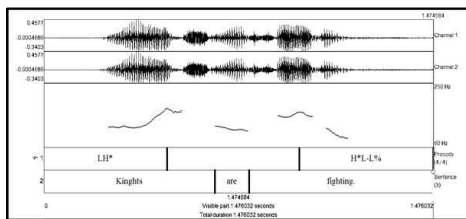
3.2.1 주어의 생물성에 따른 문장강세

3.2.1.1 원어민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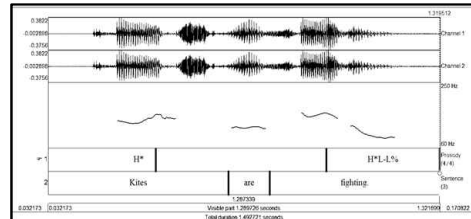
<표 9> 주어의 생물성에 따른 원어민화자의 억양유형 발화빈도 (단위 %)

자동사	주어, 동사	생물	무생물
비능격 문장	H*, L-L%	0	20
	H*, H*-L%	80	60
	X, H*L-L%	20	20
비대격 문장	H*, L-L%	20	40
	H*, H*-L%	80	60
	X, H*L-L%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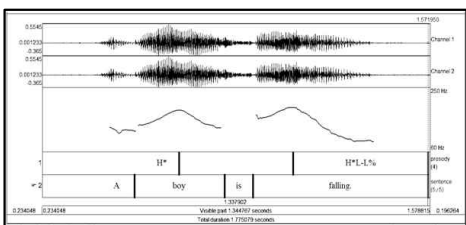
<그림 7> Native-Unergative-Animacy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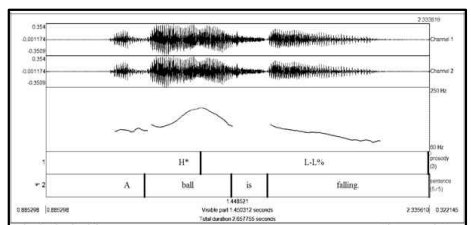
<그림 8> Native-Unergative-Animacy 2



<그림 9> Native-Unaccusative-Animacy 1



<그림 10> Native-Unaccusative-Animacy 2



3.2.1.2 한국인 화자

<표 10> 주어의 생물성에 따른 상위그룹 화자의 억양유형 발화빈도(단위 %)

억양 패턴	상위 그룹			
	비능격 생물	비능격 무생물	비대격 생물	비대격 무생물
H*, L-L%	67	83	0	17
H*, H*-L%	17	0	83	83
X, H*L-L%	17	17	17	0

<표 11> 주어의 생물성에 따른 하위그룹 화자의 억양유형 발화빈도(단위 %)

억양 패턴	하위그룹			
	비능격 생물	비능격 무생물	비대격 생물	비대격 무생물
H*, L-L%	33	33	0	33
H*, H*-L%	67	67	83	67
X, H*L-L%	0	0	17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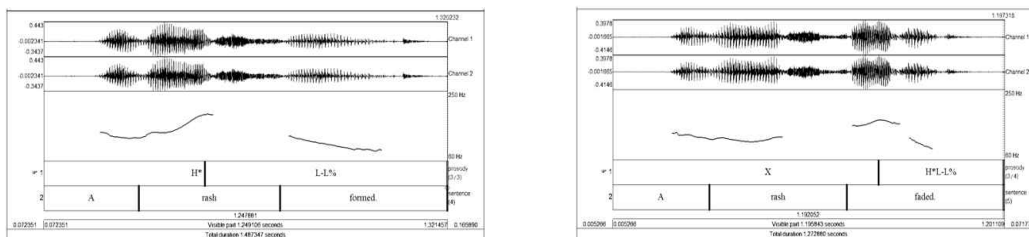
3.2.2 동사의 출현성에 따른 문장강세

3.2.2.1 원어민 화자

<표 12> 동사의 출현성에 따른 원어민 화자의 억양유형 발화빈도 (단위 %)

주어, 동사	출현	사라짐
H*, L-L%	100	0
H*, H*-L%	0	40
X, H*L-L%	0	60

<그림 7> Native-Unaccusative-Appearance 1 <그림 8> Native-Unaccusative-Disappearance 2



3.2.2.2 한국인 화자

<표 13> 동사의 출현성에 따른 한국인 화자의 억양유형 발화빈도 (단위 %)

억양 패턴	상위 그룹		하위그룹	
	출현	사라짐	출현	사라짐
H*, L-L%	33	50	33	33
H*, H*-L%	67	50	67	50
X, H*L-L%	0	0	0	17

4. 결론

첫째, 원어민은 광의초점일 경우 두 자동사 문장의 강세유형이 다르다는 기존연구와 달리 일관된 유형으로 발화하지 않아 자동사의 통사구조만으로 운율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협의초점 발화에서는 초점화 되는 요소에 따라 뚜렷이 억양을 달리 하여 초점 영역 따른 억양실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보구조적 관점에서 자동사 구문의 주어를 명시된 화제로 볼 수는 없으나 논항과 술어의 의미정보 관계에 따른 화제성(topicality)이 문장강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인 상.하 두 그룹 모두 주어에만 강세를 두는 경향이 높아 원어민과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자동사의 문법적 지식이 발화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한국인 화자는 대체로 주어의 생물성에 따라 강세 패턴을 달리 구현할 수 있지만 동사의 출현성에 따라서는 억양 유형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참고문헌

- Hirsch, A. & Wagner, M. (2011a). Patterns of prosodic prominence in English intransitive sentences. In *Generative Linguistics in the Old World Colloquium*, 34, 28-30.
- _____. (2011b). Prosodic effects of topicality 1. McSIRG Workshop.
- Hoskins, S. (1996). A phonetic study of focus in intransitive verb sentences. In *Spoken Language, 1996. ICSLP 96. Proceedings.,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ol. 3*, 1632-1635.
- Irwin, P. (2011). Intransitive sentences, argument structure, and the syntax prosody interface. In *Proceedings of the 28th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WCCFL)*, ed. Mary Byram, Washburn, Katherine McKinney-Bock, Erika Varis, Ann Sawyer, and Barbara Tomaszewicz, 275-284.
- Perlmutter, D. (1978). Impersonal passives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In *Proceedings of the Berkely Linguistics Society*, 157-189.
- Selkirk, E. (1995). Sentence prosody: Intonation, stress, and phrasing. In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ed. John A. Goldsmith, 550-569. London: Blackwell.

국어 모음의 음상과 의미

-원순모음 /ㅜ/를 중심으로-

임 규 홍
(경상대학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conic relationship between Korean round vowel /ㅜ/ and its meaning from the perspective of phonemic iconicity. From the study, we obtained the result that the phoneme /ㅜ/ often indicates semantic properties of 'moving upward, downward, or inward', 'being humid', and 'being great'.

1. 들머리

인간의 언어가 어떤 형태로 시작되었는지는 지금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초 인간의 언어는 입말로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견이 없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가 인간이 발성하는 소리로 되어있기에 언어와 소리가 완전하게 독립된 상태로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일찍이 언어 연구자들은 인간이 언어로서 발화하는 소리의 특성과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와 모종의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거나 적어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까지도 그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동일한 지시물이나 의미에 대한 나라말 마다 다른 것이라든가, 한 지시물에 여러 가지 말이 있다든가, 말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든가 하는 현상으로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자의적이라는 현상을 반박할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세계는 단순하게 완전한 자의적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면 어떤 말이 생겨나는 것도 그 깊은 기저에는 생성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언어 생성에 많은 요소들이 개입이 될 수 있지만 언어가 소리라는 실체의 실현이라고 본다면 언어가 소리와 어떤 형태로든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일찍이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도입한 개념이 '음성상징(sound symbolism)¹⁾'이다. 이것을 음상이라고도 한다.

1) 음상(sound symbolism)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뜻매김하고 있다. 상징(symbolic)의 기본적 개념은 대상과 언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한다'고 할 때 비둘기와 평화라는 것은 직접적인 개연성이 없다. 피어스(1995)가 말한 iconic, indexical, symbolic의 상징은 언어를 '상징적 기호체계'라고 했을 때 상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음성상징을 사용하는 연구에서는 일반적 상징의 개념과는 반대로 음성과 의미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음상(音象)을 소리의 모습(자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sound image, sound iconicity, phonetic iconicity의 개념과 가깝게 사용

이 연구에서는 언어가 소리의 실현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소리가 의미 형성에 어떻게 관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이것은 언어가 소리와는 자의적 관계라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언어관이 아니라 소리와 의미가 유연적이거나 필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음성 언어의 일반적인 구조는 모음과 자음으로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모음의 음상, 그 가운데 원순모음인 /ʊ/의 음상과 이로 이루어진 낱말의 의미와 어떤 유관성을 가지며 그 까닭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의는 모음 /ʊ/의 발성 기관의 형상과 소리의 자질과 /ʊ/로 이루어진 어휘의 의미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비교함으로써 소리와 의미가 전적으로 자의적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밝히려고 한다.

2. 음상 연구

소리의 자질과 의미가 상호 유관성을 가진다는 것은 소리의 여러 가지 자질을 통해 설명하려고 하고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소리의 주파수나 소리의 강약과 장단, 고저에 의해서도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러한 자질을 일찍이 초분절음(super-segmental) 또는 얹힘형태소라 하여 언어의 의미에 관여하는 형태소의 하나로 보았던 것이다.

- (1)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주었다.
- (2) 철수가 공을 멀리 던졌다.
- (3) 철수가 밥을 먹었어 ↗ ↘ ↓

(1)-(3)은 모두 소리에 의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보기이다. (1)은 강세가 철수와 영희, 돈, 주었다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즉, 어느 한 정보에 강세가 놓이면 그 정보에 강한 한정 의미의 의미가 드러나고 배타적 의미가 함축된다.

(2)는 소리를 길게 뱉으로써 그 정도가 강해지는 의미를 드러내고 (3)은 고저에 따라 의문, 놀람, 경고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양태기능인 다양한 서법을 나타낸다.

이것은 결국 소리가 의미에 직접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리가 문장의 의미나 양태적 의미가 아니라 개념적 의미에도 관여하는가가 문제이다. 모든 언어에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음운자질(phonetic feature)을 가지고 있다. 이 음운 자질에 의해 의미를 변별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음운자질에 의해 음상이 각기 다르게 생기게 된다. 그리고 소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음향적 자질(acoustic feature)에 의해서도 의미를 변별하게 된다. 따라서 음상은 음운 자질과 음향 자질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음상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에스퍼선(1921)은 ‘음성 이미지’(phonethemes)를 음성 상징(sound symbolism)의 한 단위로 보면서 음성이 이미지 형성에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²⁾. 나라 안에서 음상에 대한 관심은 언어의 음향적 특성을 제시한 훈민정음에서도 보인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우리말의 소리를 모음 ·는 소리가 깊고(聲深) /ㅡ/는 깊지도 얕지도 않고(不深不淺)하고 /ㅣ/는 소리가 얕다(聲淺)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음, 초성은 /ㄱㄷㅂㅅㅈㅊ/는 아주 맑은 소리(爲全淸)이고, /ㅋㅌㅍㅊㅎ/은

하고 있다.

2) 음성상징 연구의 흐름은 채완(2003)참조.

그 다음 맑은 소리(爲次淸)이며, /ㅍㅍㅍㅍㅍㅍㅍㅍ/ 소리는 아주 탁한 소리(爲全濁)이고, /ㅇ
ㄴㅇㅇㅇㅇㅇㅇㅇ/소리는 맑지도 탁하지도 않는 소리(爲不淸不濁)라고 하여 소리를 음향적 특성을
말하고 있다.

정인승(1938)에서는 ‘말맛’, 이희승(1955: 290-293)에서는 음상으로 인해 어의 상에 수반
되는 감정상의 인상의 차를 ‘어감’이라고 하여 주로 모음의 음상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김종택(1969)에서는 ‘상징소’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자음에 대한 음상은 울만(1967:83)도 유음 /l/의 값은 이 단어 속에 있는 유음과 그 부
류의 소리의 함축적 효과에 있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음의 음성 상징에 대한 논의는 마르틴(1962)에서 어말 자음 -l, -ng, -k, -s, -n, -m의
상징의미를 제시한 것이 있고 남풍현(1965:56)은 중세 국어의 모음을 경박(輕薄) 계열과
심중(深重) 계열로 나누어 논의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김형규(1977:81)는 우리말 끝소리에
따라 움직임과 이동, 습함과 건조함, 파괴와 무거움 등의 의미를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조석중(1980:93)에서 어떤 행위를 그만 두게 할 경우 우리말 ‘섯’과 ‘뚝’했을 때 끝소리
[ㄷ]나 [기]소리가 영어의 stop의 [p]와 같이 입을 닫는 폐쇄음과 유관하다고 하였다. 그는
그 외 다양한 모음 음성 상징과 자음 음성 상징을 영어와 비교하였다.³⁾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에서 언어가 소리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 내지 유연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과 주장은 하였지만 그것이 왜 그러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는 설명하기
가 어려웠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어의 소리와 의미를 관련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수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음성상징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음향적 이미지에만 천착해 왔기 때
문에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소리는 음향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소리가 생성되는 방법과 주파수, 어조, 강세, 이미지 등 복합적인 음상자질을 면밀히 분석
해야 소리와 의미의 관계를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상성의 개
념을 시각적 형태에서 보이지 않지만 음파나 소리의 성질까지도 싸안아 더 넓은 개념으
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발성기관의 모양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엄
격하게는 소리의 성질과 소리를 내는 발성기관의 도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어의 소리와 의미의 연구도 예사소리와 거센소리 된소리가 의미와 같은 음향
적 특성과 터짐소리(파열음)와 같이소리(마찰음)와 터지고 가는 소리(파찰음)와 같이 소리
내는 조음적 특성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규홍(2006)에서는 /ㅍ/과 /ㅂ/의 발성 방법에 의한 음상자질이 의미에 관여함을 분
석하였다. 국어 고유어의 동사와 형용사, 상징어를 중심으로 첫소리가 /ㅍ/과 /ㅂ/으로
된 낱말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음상자질과 의미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성을 발견하였다.
소리가 입을 막고 구강에서 울려서 나는 음상자질을 가지고 있는 /ㅍ/은 ‘ㅍ’으로 된 낱
말의 의미 또한 [안]과 [막힘]의 의미와 관련이 있고 소리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소리인
/ㅂ/은 그 소리로 된 낱말의 의미도 [밖]과 [열림]의 의미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게 된다.

다음은 임규홍(2005)의 결과의 일부분이다.

3) 임규홍(2005)참조.

<표 1>

	안(아래)		밖(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ㅁ	40	95.2	3	3.7
ㅂ	2	4.8	79	96.3

	멈춤		움직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ㅁ	35	94.6	8	11.1
ㅂ	2	5.4	64	88.9

그리고 임규홍(2007)에서도 국어 거센소리의 음상자질과 거센소리로 이루어진 고유어의 의미 사이에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발견하였다. 임규홍(2013)에서는 국어 상징어가 부사로 전이되면서 국어 상징어의 음상이 부사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음상에 대한 대부분 연구들은 모음의 음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모음의 양성과 음성이라는 음향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연구는 김철규(2005)가 있다.

김철규(2005)는 구강구조의 도상성으로 모음의 음상을 논의한 것으로 매우 흥미롭다. 구강의 공간이 넓으면 큰 의미 작으면 작은 의미와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3. 국어 모음의 음상과 의미

모음의 음상은 양성과 음성이라는 음상자질 상 보편성을 가진다. 따라서 양성 모음으로 이루어진 어휘와 음성 모음으로 이루어진 어휘와의 의미의 대립적 관계가 드러나고 특히 상징어에서는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금까지 대부분 모음의 음상에 대한 연구들은 상징어에서 나타나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교체에 대한 것들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모음의 음상에 대한 논의를 상징어가 아닌 개념어(일반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우리 모음을 음향적 특성 즉, 어감으로 분류한 것이다.

<표 2> 정인승(1938) 모음 상대법칙표

광협상대/대소상대	넓은 어감(전설음류)				좁은 어감(후설음류)			
저모음류(작은 어감)	ㅏ	ㅓ	ㅗ	ㅜ	ㅘ	ㅙ	ㅚ	ㅛ
고모음류(큰 어감)	ㅑ	ㅕ	ㅓ	ㅜ	ㅘ	ㅙ	ㅚ	ㅛ
	ㅓ	ㅗ	ㅜ					

(4) 이승녕(1958) 홀소리 대응 말맛 비교

양성의 홀소리 계열 : 밝음 가벼움 작음 예리함 얇음 빠름 강함 맑음
음성이 홀소리 계열: 어두움 무거움 큼 둔함 두터움 더딤 약함 탁함

이전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상징어의 음양 모음 교체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 (5) 의태어; 사랑사랑:설렁설렁/오순도순: 오순도순
 의성어: 졸졸: 졸졸 / 깡충깡충:깡충깡충
 맛 어휘: 달달하다:덜덜하다
 색깔어휘: 빨갳다:빨갳다/까맣다:꺼멩다/ 파랗다:퍼렇다

그러나 모음의 음상이 상징어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시작이다. 모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음상은 개념어 형성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어 모음의 음상적 특성을 훈민정음에서 어떻게 보고 그러한 특성을 어떻게 글자에 반영하였는지 알아보자.

국어 모음의 소리 특성은 훈민정음의 중성자 제자해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중성의 기본자는 천(天)· 지(地)· 인(人) 삼재를 상형하여 기본모음자 · ㅡ ㅣ를 만들었다. 이 세 모음의 음상적 특성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6) 훈민정음 해례 자형 상형내용 발음상태 소리(聲)

- : 天圓 혀를 움츠림(舌縮) 깊음(深)
 ㅡ : 地平 혀를 조금 움츠림(舌小縮) 깊지도 얕지도 않음(不深不淺)
 ㅣ : 人立 혀를 움츠리지 않음(舌不縮) 얕음(淺)

이것은 혀의 모습과 혀의 전후를 나타내고 있다. · 모음은 후설 모음이며 ㅡ 는 중설, ㅣ는 전설모임임을 말한다. 음향적 특성으로 소리가 깊다는 것은 뒤 후강에서 나는 소리이고 ㅡ 는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음을 말한다. 즉, 구강 가운데에서 나는 소리이고 ㅣ 는 소리가 얇게 가늘게 나는 소리이다. 이 세 소리를 기본으로 모음을 만들어 가는데 이것을 기본으로 가자법을 사용해서 초출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말 모음을 표기하는 한글 초출자는 그 소리와 글자의 모양이 매우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 우리말 기본 모음은 글자 아래아·를 ㅡ 위에 쓰면 ㅏ가 되고 아래에 쓰면 ㅑ가 된다. 그리고 ㅣ의 안에 쓰면 ㅓ가 되고 밖에 쓰면 ㅕ가 된다. 여기에서 ·의 위치는 곧 소리의 특성을 나타내며 그것은 또 말의 의미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한글이 자음뿐만 아니라 모음의 자형도 소리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우수성이다. ·를 ㅡ [위]에 쓴 것은 소리가 고음인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위][오름]의 음상적 특성은 자연스럽게 [밝음] ‘양성(陽性)’이라는 음상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ㅏ/의 음상 자질도 [위][오름][밝음]을 가지게 된다. /ㅑ/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 ㅡ [아래]에 쓴다. 따라서 음상적 특성은 [아래][낮음]을 나타내며 [아래][낮음]은 [어둠]의 음상 ‘음성(陰性)’을 나타낸다. 따라서 /ㅑ/는 [아래][낮음][내림][어둠]의 음상자질을 가지게 된다. /ㅓ/와 /ㅕ/도 마찬가지이다. /ㅓ/는 ·의 자리가 /ㅣ/ [밖]에 [나감]의 모양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 소리도 [밖]은 [밝음]으로 을 나타내면서 음상자질도 [밖][나감][밝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ㅕ/도 ·가 /ㅣ/의 [안]에 쓰여 음상도 [안][들어옴]을 나타내고 이것은 곧 [어둠]의 자질을 가나타내게 된다. 한글 창제에서 자음을 발성방법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면 모음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바탕으로 소리의 자질로 창제한 것이다. 하늘인 ·가 소리의 기준이 된 것이다. 다음은 우리

말의 기본 동사의 모음 음상과 의미의 관계를 보인 것이다. 동사는 동작성을 가지고 있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형용사는 [상태성]을 가지고 있어 양성과 음성의 음향적 특성을 반영한다.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기본 동사의 음상과 의미

- ㅏ : 가다, 갈다, 나누다, 가르다, 나다, 낳다, 날다
- ㅑ : 넣다, 먹다, 벌다
- ㅓ : 오르·다, 솟다, 돌다, 놀다
- ㅕ : 누다, 눕다, 두다, 누르다, 묻다, 붓다, 줍다, 푸다

(8) 기본 형용사의 음상과 의미

양성	음성	양성	음성
기쁘다	슬퍼다	좁다	넓다
좋다	싫다(밉다)	술다	너르다
가볍다	무겁다	가늘다	굵다
얕다	두껍다	가깝다	멀다
작다	크다	깨끗하다	더럽다
얕다	깊다	맑다	흐리다
밝다	어둡다	있다	없다
뽀족하다	둥글다	차갑다	뜨겁다
빠르다	느리다	짧다	길다
촉촉하다	성글다	날씬하다	똥똥하다
젓다	땀하다/뜨다/드물다	날카롭다	무디다

이것을 보면 한글을 창제한 세종은 오늘날 음성 상징이나 음소 도상성(phonetic iconicity)이라는 개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자음을 발성기관을 본떠서 만든 것이나 모음을 소리의 특성에 기반해서 만든 것으로 알 수가 있다.

Kim Gong-on(1977)에서는 모음을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그리고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으로 나누면서 수직의 3계열로 나누었다. 1계열은 전설모음계열, 2계열은 후설 평순모음, 3계열은 후설 원순모음의 계열로 나누고, 음성상징에서 수직 계열의 높은 계열은 큰소리(Aug), 낮은 계열은 낮은 작은 소리(Dim)를 나타낸다고 하였다⁴⁾.

국어 모음의 도상성을 발성기관인 구강의 형태와 의미의 연관성을 밝힌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철규(2005)에서 왈라스(1982)의 모습-바탕(Figure-Ground) 이론을 원용하여 도상적으로 큰 형식을 큰 의미(Augmentative)로 작은 형식을 작은 의미(Diminutive)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음상적 차이를 나타내는 근거를 공명장인 구강과 인강, 후두강의 크기로 밝혔다. 이 연구에서 모음의 크고 작음을 인후강의 넓고 좁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후강의 공간 넓이가 소리의 크고 작음을 결정짓는 공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음의 크고 작음 양성(양성)과 음성의 대립적 관계인 음향적 자질의 근거는 밝혔다고 할 수 있으나 어휘의 개념적 의미 자질과 관계는

4)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철규(2005)참조.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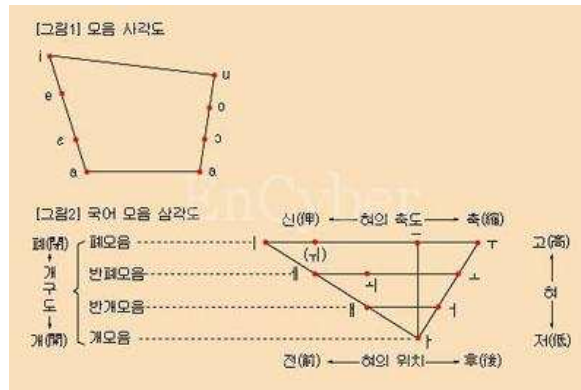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모음 /ɯ/에 집중하여 이 소리의 특성과 구강의 모양과 의미가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4. 국어 원순모음 /ɯ/의 음상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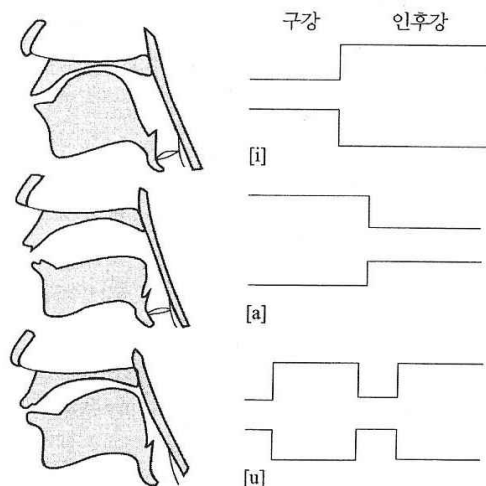
모음 /ɯ/의 음상자질과 구강 도상이 의미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모음 /ɯ/를 내는 방법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이 소리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혀가 뒤로 당겨져서 후설 모음이며 혀가 둥글게 말려들어 올려지는 고모음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입술이 둥글게 되는 원순모음이라는 것이다. 원순모음은 입술을 원처럼 둥글게 해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ɯ/ 소리는 구강은 구조가 긴 원통의 모양을 이루면서 소리가 그 원통에서 울려 밖으로 나오는 소리이다. 입술이 둥글게 되어 소리가 곧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후강과 구강 안에서 원통 모양의 공간을 울려 나오는 소리이다. 그래서 폐모음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그림1]에서도 알 수 있다.

<표 3>



<그림 1> /i/, /ɨ/, /ɯ/, /ɤ/를 발성 시 구강과 인후강의 상대적 크기(김철규2005: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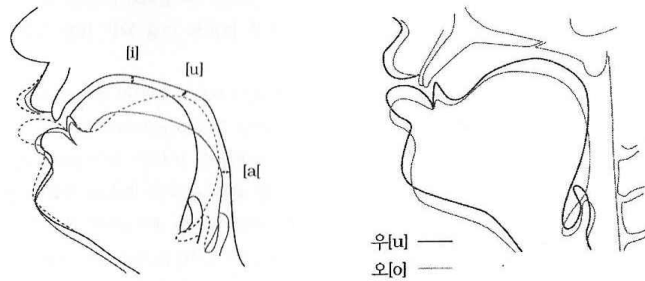
위 <그림 1>에서 /ɯ/는 구강의 크기가 둥글게 되어 있고 인후강도 구강과 같이 공간

이 넓게 되어 있다. /l/모음은 구강은 좁고 인후강은 넓다. 반대로 /r/는 구강이 넓고 인후강이 좁게 되어 있다. 그리고 /r/는 구강과 인후강의 모습이 원통처럼 되어 있어 소리가 울려서 나오게 된다. 더구나 /r/ 소리는 입술의 모양 또한 원순으로 둥글게 되어 원통과 같은 모양을 나타낸다. 따라서 /r/소리는 긴 원통에서 빠져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모음 /r/로 된 어휘의 의미 또한 소리의 자질에 의해 폐쇄된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의미를 가지며 [수직]의 공간적 [이동]이라는 음상자질을 가지고 있다. /l/는 인후강의 넓고 혀가 높게 올라가서(고모음)

구강이 좁아지면서 나는 소리이다. 따라서 소리가 밖으로 크게 울려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갇혀 펼쳐져 소리가 작게 난다. 뒤에서 나는 소리인 [r]나 [r]와 대조적으로 [앞]이나 심리적으로 [가까움]의 음상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시대명사의 ‘이’는 ‘그’나 ‘저’보다 화자와 가까운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그>저’처럼 소리 나는 곳과 지시 거리와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 영어의 this와 that의 관계도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한다.

/r/는 인후강이 좁고 구강이 넓으며 구개도가 커서 입을 크게 벌리기 때문에 다른 발성 기관의 장애를 덜 받아서 [앞으로], [밖으로] 트인 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r/로 이루어진 어휘의 의미 또한 [밖]이나 [나아감] [밝음]의 의미자질을 가지게 된다.

<그림 2> 모음 /l/,/r/를 발성할 때 구강과 인후강의 상대적 크기(김영송 1996:2)



<표 4> 상징어의 의미자질(임규홍,2013)

의미	대상	ㄱ계		ㄷ계		ㅅ계		ㅈ계	
		꾹/꾹	딱/떡	뚝/뚝	씩/씩	쭉/쭉	쩍/쩍	쭉/쭉	
동작성	[순간성]	o/o	o/o	o/o	x/x	x/x	o/o	o/o	
	[이동성]	x/x	x/x	x/x	o/o	o/o	o/o	o/o	
	[마찰성]	x/x	x/x	x/x	o/o	o/o	o/o	o/o	
	[수직성]	o/o	x/x	o/o	x/x	o/o	x/x	o/o	
의미전이	일반부사	o/x	o/x	o/x	o/o	o/o	o/o	o/o	
	정도부사	o/x	o/x	o/x	x/o	o/o	x/x	x/x	

- (10) “꾹꾹” 소리가 났다-->짐을 꾹 눌렀다/화를 꾹 참았다.
- (11) 사과가 “뚝” 하고 떨어졌다-->성적이 뚝 떨어지다
- (12) 발이 펄에 “쭉” 하고 들어가다-->깊은 물에 쭉 내려갔다.
- (13) 낙지가 펄에서 “쭉” 빠졌다-->뭇에 물이 쭉 빠졌다.

Otto Jespersen(1922)은 전설, 고모음이며 비원순모음인 /i/는 작음, 사소함, 무의미, 약함 등을 자주 나타낸다고 했다. 헝가리의 성인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한 조사에 의하면 [i]와 [u]에 대한 느낌이 아래와 같이 조사되기도 했다.

- (14) [i]가 [u] 보다 작다(smaller) --- 88%
- [i]가 [u] 보다 빠르다(quicker) --- 94%
- [i]가 [u] 보다 친절하다(friendlier) --- 82%
- [i]가 [u] 보다 단단하다(harder) --- 71%
- [u]가 [i]보다 두텁다 --- 98%
- [u]가 [i]보다 어둡다 --- 97%
- [u]가 [i]보다 슬프다/둔감하다 --- 92%
- [u]가 [i]보다 강하다 --- 80%

<표 5> ɪ모음으로 된 국어 동사와 형용사, 부사

초성	어휘
ㄱ	구기다, 구무럭거리다, 구물구물, 구박지르다, 구부러지다, 구시렁거리다, 구어박다, 구지레하다, 굶다, 구르다, 굶다, 굶다, 굶슬굶슬, 굶어보다, 굶히다, 굶다, 꺾, 꺾꺾
ㄴ	누다, 누르다, 누리다, 눅눅하다, 눅다, 눅지다, 눅진하다, 누르다, 눅다, 눅히다
ㄷ	두껍다, 두다, 두둑하다, 두둥실, 두드러지다, 두드리다, 두텁다, 둔덕지다, 둥실둥실, 뒤집다, 뒤틀다, 뚝, 뚝뚝
ㅁ	무겁다, 무너지다, 무너뜨리다, 무디다, 무뚝뚝하다, 묵다, 묵직하다, 묵다, 묻다, 물다, 물려서다, 물렁물렁, 물려주다, 물씬거리다, 물씬물씬, 물렁물렁, 뭍다, 뭉개다, 뭉그러뜨리다, 뭉뚱거리다, 뭉치다, 뭉클뭉클
ㅂ	부끄럽다.부둑하다.부드럽다.부르다.부비다.부서지다.부석거리다.부슬부슬,부풀다,복돋우다,복적거리다,복끈거리다,복쑥복쑥,부르다,복록거리다,복통하다,복비다,붓다,붙다
ㅅ	수군거리다.수그러지다.들다.수두룩하다.수둑하다.수북하다.술렁거리다.숨다다, 쑥,쑥쑥
ㅇ	우그러들다,우글우글,우글대다,우기다,우두둑,우뚝,우람하다,우러르다,우렁차다,우르르,우무러들다,우수수,우쫄대다,우지직,웁신거리다,웁적거리다,웁쑥복쑥,웁컹거리다,웁찼거리다,웁츠려들다,웁푹,웁덩이,웁성거리다,웁그적거리다,우러거덕거리다,웁컹대다
ㅈ	주다,주리다,주무럭거리다,주적거리다,주접대다,죽다,죽치다,줄다,중얼거리다,취다,취어박다,죽, 쑥쑥
ㅊ	추근거리다,추다,추레하다,추씩이다,추접스럽다,추키다,축,축이다,축축하다,출렁거리다,출씩거리다,출출하다,충충거리다
ㅋ	쿡,쿡쿡,쿨렁쿨렁,쿵덕,쿵광,쿵쿵
ㅌ	투갈스러다,투딴거리다,투덜대다,투박스럽다,툭,툭툭,툭툭,툭툭,툭,튀다
ㅍ	푸드덕,푸시시,푸푸하다,푹,푹푹,푹신하다,풀다,풀떡거리다,풀렁거리다,풀썩,풀썩거리다,푼푼하다,푹푹푹푹
ㅎ	후끈거리다,후다다,후덥지근하다,후두두,후들후들,후딱,후려잡다,후루룩거리다,후비적거리다,후덥지근하다,후딱,후렁,후렁거리다,후다,후치다,휘-,휘어지다, 휘청거리다

/ɾ/는 다음과 같은 음상 자질을 가지고 있다.

(15) [+상하[아래]] [막힘][+습(濕)][+이동][+큼]

4. 마무리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아무런 까닭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를 뿐이다. 말 또한 마찬가지이다. 어떤 말이 생겨났다면 그 생겨난 까닭이 있다. 언어가 완전히 자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말 모음 음상이 어휘 의미 형성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말 입술소리(원순모음) ɾ의 음상과 음상자질과 이 음상과 ɾ로 이루어진 낱말의 의미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알아보았다. /ɾ/모음의 음상은 [수직성][아래][막힘][이동][안][습(濕)][큼]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아직 소리와 의미 사이에 숨은 진실을 끊임 없이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헌규. 1968. 음성상징과 sense 및 meaning 분화에 의한 어휘확장 연구, 「국어교육」 11, 124-150.
- 김두식. 1990. 영어 통사 현상의 기능적 요인에 대하여. 「언어논총」 8, 111-174.
- 김두식 외. 2013. 「현대언어학의 흐름」, 동인.
- 김영송. 1996. 홀소리의 분류-헛자리와 좁힘의 의미. 언어학회발표요지.
- 김종택. 1969. 상징어에 관한 일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3, 77-87.
- 김진우. 1988. 언어, 탐출판사.
- 김철규. 2005. 「단어형성과 도상성에 대한 연구」. 박이정.
- 박동근. 2007. 한국어 화자의 음성상징에 대한 인지 실험. 「한말연구」 21, 67-86.
- 이승녕. 1954. 음성상징론 -어감의 연구-. 「서울대문리대학보」 2.2.
- 이승녕. 1978. 국어 음성상징론에 대하여 - 특히 중세어 모음의 음색 순위의 재구와 대립의 체계를 주로하여-, 언어3-1,1-18.한국언어학회.
- 정인승. 1938. 모음 상대법칙과 자음 가세법칙, 한글6.9,10-25
- 이영길. 2001. 음성상징어 연구. 「인문논총」 8.1, 56-67.
- 임규홍. 2006. 한국어 첫소리 [ㄱ]과 [ㅂ] 낱말의 의미 특성. 「우리말글」 37, 197-227.
- 임규홍. 2007. 한국어 낱말의 소리와 의미. 「경상어문」 13, 19-60.
- 임규홍, 2013, 국어 상징어의 의미전이 양상, 언어과학연구 67집, 223-250, 언어과학회.
- 임지룡. 2004. 국어에 내재한 도상성의 양상과 의미 특성. 「한글」 226, 169-205.
- 채 완. 1990. 國語 研究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 출판부.
- 채 완. 2003.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범훈. 1985. 言語의 起源과 象徴語, 「겨레어문학」 9, 869-885.
- 훈민정음 해례본.
- Bolinger, D. 1977. *Meaning and Form*, London, Longman.
- Jackendoff, R. 1993. "Patterns in the Mind-Language and Nature", Harvester

Wheatsheaf(NY).

Martin, S.E. 1962. "Phonetic Symbolism in Korean", *American Studies in Altaic Linguistics*13.

Rhodes, R. 1994. "Aural images, in Sound Symbolism", Leanne Hinton, Johanna Nichols and John J. Ohala (eds.), 276-292. Cambridge, University Press.

Rhodes, R.A. and J.M. Lawler. 1981. Athematic metaphors, **Chicago Linguistics Society**17:318-342.

Jespersen, O(1922),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 London:Allen and Unwin.

영어 단어경계에 따른 인지 양상 연구: 한국인 청자와 영어 원어민 청자 비교 분석

김 지 향 · 김 기 호

(고려대학교)

This paper is mainly concerned with investigating how the pattern of the perception of sequence of two words in word boundary is related to the main characteristics that are shown in their production. If the duration of the closure of consonants, the lengthening of VOT, and vowel duration are said to function as clues as to distinguishing each sequence of two words in their production, as was discussed in Jjhyang Kim and Keeho Kim(2013), then it will be examined in this paper how the three factors play a role in the perception of those sequences of two words.

1. 서론

본 논문은 연속된 두 영어 단어의 경계(boundary)에서 무성 폐쇄음(voiceless stop) /p/, /t/, /k/가 포함된 단어 쌍(예를 들어, wipe pink, wipe ink, why pink 등)의 인지 에 있어서 한국인 청자와 영어 원어민 청자(미국인)의 인지 양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지향, 김기호(2013)의 발화 논문에 따르면 /p/, /t/, /k/가 연속된 두 영어 단어의 경계에 있는 환경에서 무성폐쇄음의 폐쇄구간 길이, VOT 길이, 그리고 모음 길이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발화 양상은 원어민 화자의 것보다 한국인 화자의 것이 더 길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인지 패턴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실험

2-1 실험 자료 및 절차

실험 자료는 단어경계에서 무성 폐쇄음(voiceless stop) /p/, /t/, /k/가 있는 환경과 모음이 있는 환경의 네 가지 유형(C#C유형, C#V유형, V#C유형, V#V유형)의 단어 쌍을 사용하였다.¹⁾

피실험자는 총 45명이며 이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즉 첫 번째 그룹인 영어 원어민 청자는 15명(미국인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인 청자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본 논문의 실험 자료는 총 36개의 단어 쌍(Sandra Schwab, Joanne L. Miller, François Grosjean, & Michèle Mondini. 2008)이므로 이 모든 단어 쌍에 대한 실험 결과 분석은 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논문의 편의상 단어경계에서 /p/를 포함한 각 단어 쌍을 대표로 wipe pink(C#C유형), wipe ink (C#V유형), why pink(V#C유형), why ink(V#V유형)를, /t/를 포함한 각 단어 쌍을 대표로 neat tape, neat ape, knee tape, knee ape를, /k/를 포함한 각 단어 쌍을 대표로 make coat, make oat, may coat, may oat를 논의하겠다.

영어 능력 상급인 한국인 남성 청자 15명(TOEIC 점수 900점 이상, 이하 영어 상급 청자)을 두 번째 그룹으로, 영어 능력 하급인 한국인 남성 청자 15명(TOEIC 점수 500-600점, 이하 영어 하급 청자)을 세 번째 그룹으로 정하였다(한국인은 해외 거주 경험이 없으며 최초로 영어에 노출된 시기는 중학교 때이다). 인지실험 자료를 위한 원어민 화자의 음성은 다이내믹형 마이크(Shure SM58, USA)를 사용하여 TASCAM DR1(Digital Recorder)에 녹음하였다. 이 녹음 자료를 컴퓨터에 옮겨 저장하여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을 통하여 피실험자에게 각각 들려주고 주어진 4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의 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인지실험은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졌는데, <인지실험 1>은 영어 단어경계에서 한국인 청자와 원어민 청자의 인지 양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 <인지실험 2>는 <인지실험 1>의 실험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음성 합성(synthesis) 실험을 한 것이다.

2.2 연구 과제 및 가설

본 논문은 김지향, 김기호(2013)의 발화 논문에서 제시된 단어경계에서 발화 양상 패턴을 바탕으로 인지 패턴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발화 양상의 특징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원어민 화자는 두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환경에서 그 두 단어를 일반적으로 하나의 말뭉치(cluster)로 간주하여 단어경계에서 연음시켜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흔히 재음절화(resyllabification)가 일어나는 반면에 한국인 화자는 두 단어를 각각의 독립된 단어로 인지하여 단어경계를 구분하면서 휴지(pause)를 취하거나, 철자에 맞추어서 발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인 화자의 발화 양상과 비교하였을 때 원어민 화자는 단어경계에서 주로 자음(폐쇄음)의 폐쇄구간 길이, VOT 길이, 그리고 모음 길이라는 세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²⁾ 이 차이가 각 단어 쌍을 구별하여서 발화하는데 주요한 단서가 되었다면 역으로 그 발화를 인지할 때도 이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과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과제

1. 영어 단어경계에서 원어민 청자의 인지 양상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가?
2. 한국인 영어 상급 청자와 한국인 영어 하급 청자의 영어 단어경계 인지는 어떤 양상을 보이며 원어민 청자의 것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가설

1. 원어민의 발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어경계에서 연음되어지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인지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 한국인은 원어민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단어경계에서 연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발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인지에서도 그와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이다.

2) 원어민 화자의 발화 양상은 영어의 음절화 과정에서 분절음 배열 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자음군을 음절전부에 오도록 하는 원칙인 음절 초 자음 최대 원칙(Onset Maximal Principle, Pulgram(1970), Kahn(1976), Selkirk(1982), Clements & Keyser(1983), Itô(1989))에 근거한 것이다.

위 가설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발화 차이를 보여주었던 세 가지 단서(자음의 폐쇄구간 길이, VOT 길이, 그리고 모음 길이)가 인지에서도 인지 양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들 단서를 중심으로 음성을 합성하여 다음과 같이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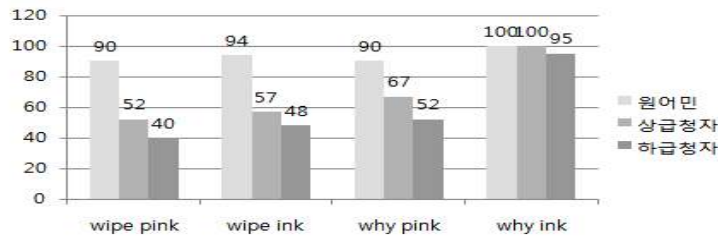
하위가설

1. C#C 유형의 단어경계에서 각 폐쇄음의 VOT를 삭제하면, C#V 유형으로 인지할 것이다.
2. C#C 유형의 단어경계에서 각 폐쇄음의 폐쇄구간(closure)을 삭제하면 V#C 유형으로 인지할 것이다.
3. C#C 유형의 단어경계에서 각 폐쇄음의 VOT와 폐쇄구간을 삭제하면 V#V 유형으로 인지할 것이다.
4. C#V 유형의 단어경계에서 각 폐쇄음의 VOT를 삭제하면, C#V 유형으로 인지할 것이다.
5. C#V 유형의 단어경계에서 각 폐쇄음의 폐쇄구간을 삭제하면, V#C 유형으로 인지할 것이다.
6. C#V 유형의 단어경계에서 각 폐쇄음의 VOT와 폐쇄구간을 삭제하면, V#V 유형으로 인지할 것이다.
7. V#C 유형의 단어경계에서 각 폐쇄음의 VOT를 삭제하면, V#V 유형으로 인지할 것이다.
8. V#C 유형의 단어경계에서 각 폐쇄음의 폐쇄구간을 삭제하면, V#V 유형으로 인지할 것이다.
9. V#C 유형의 단어경계에서 각 폐쇄음의 VOT와 폐쇄구간을 삭제하면, V#V 유형으로 인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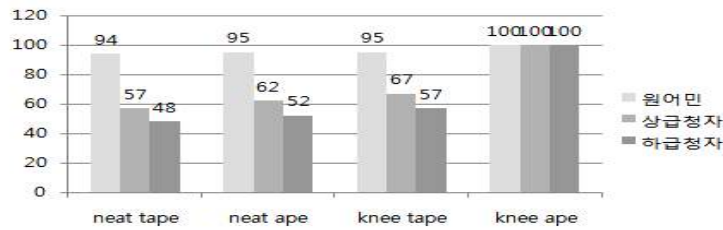
위의 하위가설은 김지향, 김기호(2013)의 발화 논문에서 논의한 발화 특징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다. 이는 네 가지 유형 단어 쌍의 두드러진 특성을 – 즉 C#C유형은 단어경계에 있는 폐쇄음의 폐쇄구간 길이가 가장 길다. C#V유형은 단어경계에서 VOT 길이가 가장 짧다. V#C유형은 단어경계에서 모음이 개방음절(open syllable)이어서 모음 길이가 가장 길다 등 – 고려하여 각 단어 쌍의 단어경계에서 폐쇄구간만 삭제한 경우, VOT만 삭제한 경우, 폐쇄구간과 VOT를 동시에 삭제한 경우와 같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하여 합성한 자료이다. 모음 길이는 모음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음절말음(coda)이 없는 개방음절의 환경에서는 모음 길이가 길어지고 음절말음이 있는 폐쇄음절(closed syllable)의 환경에서는 모음 길이가 짧아진다. 폐쇄음절에서는 모음 길이가 바로 뒤따라 나오는 자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짧아진다. 따라서 모음 길이를 짧게 혹은 길게 만드는 그 자음을 모음 길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면, 모음 뒤에 자음이 바로 뒤따르는 C#C 유형인 wipe pink에서는 폐쇄음절이 되어서 모음 길이가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모음 뒤에 자음이 없는 V#C 유형인 why pink에서는 개방음절이 되어서 모음 길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음길이에 대한 단서는 자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의 하위가설에서도 자음의 폐쇄구간과 VOT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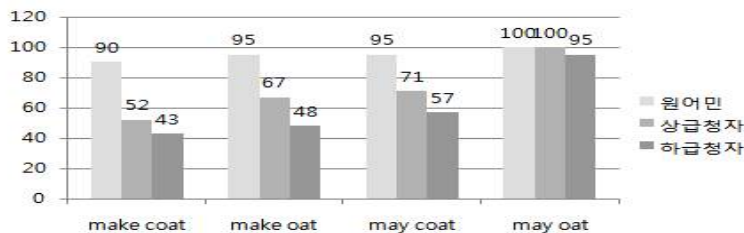
<인지실험 1>의 결과에서 원어민 청자는 높은 단어 쌍 인지율(평균 93%)을 보인 반면에 한국인 청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율(영어 상급 청자 평균 61%, 하급 청자 평균 49%)을 보였다. 다음 <그림 1>~<그림 3>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원어민 청자의 단어 쌍 인지율을 높은 순서로 정리하면 V#V(평균100%) >C#V(평균95%)>V#C(평균93%) >C#C(평균91%)이고 한국인 청자(영어 상급 청자와 영어 하급 청자의 평균값)의 단어 쌍 인지율을 높은 순서로 정리하면 V#V(평균99%)>V#C(평균62%)>C#V(평균56%)>C#C(평균49%)이다. 한국인 청자와 원어민 청자의 각 단어 쌍 인지에 대한 오류 유형은 동일하였다. 즉 C#C 유형은 V#C유형으로, C#V유형은 V#V유형으로, V#C유형은 C#C유형으로, V#V유형은 C#V유형으로 잘못 인지하였다.



<그림 1> 단어경계 /p/의 인지 평균(단위:%)



<그림 2> 단어경계 /t/의 인지 평균(단위:%)



<그림 3> 단어경계 /k/의 인지 평균(단위:%)

<인지실험 1>의 결과에서 한국인 청자가 낮은 인지율을 보인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단어 쌍의 음성을 합성하여 <인지실험 2>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실험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 <표 1>을 보자.

<표 1> 단어경계에서 폐쇄구간, VOT 삭제의 상관관계에 따른 인지 양상(단위 %)

자료 유형	응답 유형	단어경계 폐쇄구간 삭제			단어경계 VOT 삭제			단어경계 폐쇄구간 삭제 + 단어경계 VOT 삭제		
		원어민	상급청자	하급청자	원어민	상급청자	하급청자	원어민	상급청자	하급청자
wipe pink (1)	wipe pink		14	29						
	wipe ink				100	100	100			
	why pink	100	86	71						
	why ink							100	100	100
wipe ink (40)	wipe pink		29	43						
	wipe ink	14	14	14	86	64	57		14	29
	why pink	86	57	43						
	why ink				14	36	43	100	86	71
why pink (29)	wipe pink		43	57						
	wipe ink		14	14		14	29		29	43
	why pink	100	43	29						
	why ink				100	86	71	100	71	57
why ink (23)	wipe pink									
	wipe ink									
	why pink									
	why ink									

<표 1>에서 보듯이 단어경계에서 폐쇄구간과 VOT를 삭제한 환경에서 한국인 청자와 원어민 청자의 인지 양상을 관찰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폐쇄구간만을 모두 삭제하였을 때는 폐쇄구간(-)로 표기하고, VOT만을 모두 삭제하였을 때는 VOT(-)로 표기하고, 폐쇄구간과 VOT,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삭제하였을 때는 폐쇄구간(-), VOT(-)로 표기하여 설명하겠다. 먼저 C#V 유형인 wipe pink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폐쇄구간(-) 경우에는 원어민 청자의 100%가 why pink로 인지하였고 VOT(-) 경우에는 원어민 청자의 100%가 wipe ink로 인지하였다. 이는 폐쇄구간과 VOT가 단어 쌍 wipe pink를 인지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단서(primary cue)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쇄구간(-), VOT(-) 경우에는 원어민 청자의 100%가 why ink로 인지하였다. 반면에 한국인 청자는 전반적으로 원어민 청자보다 낮은 인지율을 보였으며 상급청자보다 하급청자가 더 낮은 인지율을 보였다. wipe pink에서 보듯이 폐쇄구간(-) 경우에는 상급청자의 86%가 why pink로, 14%가 wipe pink로 인지하였고 하급청자의 71%가 why pink로, 29%가 wipe pink로 인지하였다. VOT(-) 경우에는 상급청자의 100%가 wipe ink로 인지하였고 하급청자의 100%가 wipe ink로 인지하였다. 한국인 청자의 경우에도 폐쇄구간과 VOT가 단어 쌍 wipe pink를 인지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쇄구간(-), VOT(-) 경우에는 상급청자, 하급청자 모두 why ink로 100% 인지하였다.

다음으로 C#V 유형인 wipe ink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폐쇄구간(-) 경우에는 원어민 청자의 86%가 why pink로, 14%가 wipe ink로 인지한 반면에 VOT(-) 경우에는 원어민 청자의 86%가 wipe ink로 인지하였고 14%가 why ink로 인지하였다. 이는 폐쇄구간이 단어 쌍 wipe ink를 인지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쇄구간(-), VOT(-) 경우에는 원어민 청자의 100%가 why ink로 인지하였다. 반면에 한국인

청자는 전반적으로 원어민 청자보다 낮은 인지율을 보였으며 상급청자보다 하급청자가 더 낮은 인지율을 보였다. wipe ink에서 보듯이 단어경계에서 폐쇄구간(-) 경우에는 상급청자의 57%가 why pink로, 29%가 wipe pink로, 14%가 wipe ink로 인지하였다. 하급청자의 43%가 wipe pink로, 43%가 why pink로, 14%가 wipe ink로 인지하였다. VOT(-) 경우에는 상급청자의 64%가 wipe ink로, 36%가 why ink로 인지하였고 하급청자의 57%가 wipe ink로, 43%가 why ink로 인지하였다. 한국인 청자의 경우에도 폐쇄구간이 단어 쌍을 인지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쇄구간(-), VOT(-) 경우에는 상급청자의 84%가 why ink로, 14%가 wipe ink로 인지하였다. 하급청자의 경우에는 71%가 why ink로, 29%가 wipe ink로 인지하였다. 따라서 한 가지 단서를 삭제하는 것보다 이들 두 가지 단서를 모두 삭제하였을 경우에 본래 단어 wipe ink로 인지할 비율은 더 낮아진다는 점에서는 원어민 청자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V#C 유형인 why pink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폐쇄구간(-) 경우에는 원어민 청자의 100%가 why pink로 인지하였다. VOT(-) 경우에도 원어민 청자의 100%가 why ink로 인지하였다. 이는 VOT가 단어 쌍을 인지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쇄구간(-), VOT(-) 경우에는 원어민 청자의 100%가 why ink로 인지하였다. 반면에 한국인 청자는 전반적으로 원어민 청자보다 낮은 인지율을 보였으며 상급청자보다 하급청자가 더 낮은 인지율을 보였다. 즉 폐쇄구간(-) 경우에는 상급청자의 43%가 wipe pink로, 43%가 why pink로, 14%가 wipe ink로 인지하였다. 하급청자의 57%가 wipe pink로, 29%가 why pink로, 14%가 wipe ink로 인지하였다. VOT(-) 경우에는 상급청자의 86%가 why ink로, 14%가 wipe ink로 인지하였고 하급청자의 71%가 why ink로, 29%가 wipe ink로 인지하였다. 이는 VOT가 각 단어 쌍을 구별하여 인식하는데 주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폐쇄구간(-), VOT(-) 경우에는 상급청자의 71%가 why ink로, 29%가 wipe ink로 인지하였다. 하급청자의 경우에는 57%가 why ink로, 43%가 wipe ink로 인지하였다.

위의 논의에 근거하여 원어민 청자가 각 단어 쌍을 구별하여 인지하는 주요한 단서는 VOT이며 부수적인 단서는 폐쇄구간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인 청자가 원어민 청자에 비하여 낮은 인지율을 보이기에는 하였지만 VOT와 폐쇄구간이 각 단어 쌍을 인지하는데 단서가 된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청자 간의 인지 단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청자의 인지율이 낮은 원인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의 논의에서 보듯이 단어경계를 분절(segmentation)하여 각 단어 쌍을 구별하는데 있어서 폐쇄구간보다 VOT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영어 무성 기식폐쇄음(voiceless aspirated stop)의 VOT 평균값은 58ms~80ms이며(Lisker, & Abramson, 1964; Klatt, 1975), 한국어 무성 기식폐쇄음의 VOT 평균값은 90ms~103ms이다(Lisker, & Abramson, 1964; Shimizu, 1996). 여기서 한국어와 영어의 VOT 평균값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단어 쌍 인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즉, 모국어(이하 L1)의 VOT가 외국어(이하 L2)의 단어경계 인지에 영향을 미쳐서 단어경계를 분절하여 인지하는 패턴 방식에서 원어민 청자와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는 선행연구(Nakatani & Duke, 1977; Altenberg, E. P., 2005; Kikuyo Ito & Winifred strange, 2009)에서도 볼 수 있다. 그 예로서 Altenberg, E. P.(2005)는 keeps talking vs keep stalking, grape in vs grey pin 등과 같이 두 영어 단어가 연결(juncture)되어 있는 환경의 단어경계에 위치해 있는 영어 무성폐쇄음에 대한 영어 원어민 청자와 영어를 L2로 사용하는 일본어 L1 청자의 인지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결과에서 청자들이 각 단어 쌍을 구별하여 인지하는 주요한 단서는 VOT라고 하였다. 특히 원어민 청자보다 일본인 청자의 VOT 인지율이 낮았는데 그 원인을 L1이 L2 학습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즉 일본어 VOT와 영어 VOT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인하여 일본인 청자들의 인지율이 낮았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도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논의에 근거하여 김지향, 김기호(2013)의 발화 논문을 바탕으로 각 단어 쌍을 음성 합성하여 실험한 결과, 하위가설에서 제시한 양상으로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하위가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영어 원어민 청자와는 차이를 보이는 한국인 청자의 영어 단어경계 인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Borden Gloria, Adele Gerber, & Gary Milsark, 1983; Sheldon Amy, 1985; Bohn, Ocke-Schwen, & Flege J. E., 1990; Rochet Bernard, 1995; Flege., Bohn., & Jang., 1997; Ingram., & Park, S-G., 1997; Kang, H. S., 1999; Joh, J. S., & Lee, S. H., 2001; Lee, S. H., 2010)에서도 인지에 관련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실험 자료가 한 단어 내에서 일어나는 인지에 관련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된 두 단어의 단어경계에서 나오는 음에 관한 인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작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지향, 김기호(2013)의 발화 논문에서 영어 하급화자는 L1에 근접한 영어 발화를 하였으며 영어 상급화자는 원어민 화자에 근접한 영어 발화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인지 논문에서도 상급청자가 하급청자보다 원어민 청자에 가까운 인지율을 보임으로서 발화와 인지의 관련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영어교육에서는 단어경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보여지는 영어 무성 폐쇄음 VOT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근본적인 영어 발음교육에 대한 변화가 현장학습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김지향, 김기호(2013). 영어 단어경계에 따른 자음구현에서의 발화 양상 연구: 한국인 화자와 원어민 화자 비교 분석. 한국 언어학회 봄 학술대회 논문집. p. 33-34.
- Altenberg, E. P.(2005). The perception of word boundaries in a second language. *Second Lang. Res.* 21, p. 325-358.
- Bohn, Ocke-Schwen, & Flege J. E.(1990). Interlingual identification and the role of foreign language experience in L2 vowel perception. *Applied Psycholinguistics*, 11, p. 303-328.
- Borden Gloria, Adele Gerber. & Gary Milsark. (1983). Production and perception of the contrast in Korean adults learning English. *Language Learning*, 33. 3, p. 499-526.
- Flege., Bohn., & Jang. (1997). Effect of experience on non-native speakers' production and perception vowels. *Journal of phonetics*, 25, p. 437-470.
- Flege J. E., & Eefting, W.(1987). Production and perception of English stops by native

- Spanish speakers. *Journal of phonetics*, 15, p. 67-83.
- Flege J. E., & J. Hillenbrand.(1987). A differential effect of release bursts on the stop voicing judgments of native French and English listeners. *Journal of phonetics*, 15, p. 203-208.
- Ingram., & Park, S-G. (1997). Cross-language vowel perception and production by Japanese and Korean learners of English. *Journal of phonetics*, 25, p. 343-370.
- Joh, J. S., & Lee, S. H.(2001). Relationships between sound perception and production in L2 phonology acquisition. *Journal of the Applied Linguistics*, 17. 2, p. 127-145.
- Kang, H. S.(1999). Production and perception of English /r/ and /l/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an experimental study. *Speech sciences*, 6. 1, p. 21-38.
- Kikuyo Ito., & Winifred strange(2009). Perception of allophonic cues to English word boundaries by Japanese second language learners of English.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p. 2348-2360.
- Klatt D.H. (1975). Voice onset time, fraction and aspiration in word-initial consonant clusters. *Journal of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8, p. 686-705.
- Lee, S. H. (2010). Perception and production of English fricative sounds by advanced Korean EFL learners. Korea University Grant of 2010.
- Lisker L., & A. S. Abramson. (1964). A Cross-language Study of Voicing initial stops: acoustical measurement. *Word*, 20: p. 384-422.
- Mattys, S., & Melhorn, J, F.(2007). Sentential, lexical, and acoustic effects on the perception of word boundaries. *J. Acoustic. Soc. Am*, 122, p. 554-567.
- Nakatani, L. H., & Dukes, K. D.(1977). Locus of segmental cues for word junction. *J. Acoust. Soc. Am*, p. 714-719.
- Rochet Bernard. (1995). Perception and production of L2 speech sounds by adults. In Winifred Strange(ed). *Speech perception and linguistic experience: Issues in cross-language research*. Timonium, MD: York Press. p. 233-277.
- Sandra Schwab, Joanne L. Miller, François Grosjean, & Michèle Mondini. (2008). Effect of Speaking Rate on the Identification of Word Boundaries. *phonetica*, 68, p. 173-186.
- Sheldon Amy.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on and perception of the /r/-/l/ contrast in Korean adults learning English. A reply to Borden, Gerber, and Milsark. *Language and learning*, 35. 1, p.107-113.
- Shimizu K. (1996). *A Cross-Language Study of Voicing Contrast of Stop Consonants in Asian Language*. Seibido Publishing Co. Tokyo, Japan.

영어 모문동사와 보충어의 일치

송 지 미

(부산외국어대학교)

Jimi Song. 2014. The Feature Agreement between the Matrix Verb and Its Complement in Eng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emantic feature agreement between the matrix verb and its complement in the English SVO sentences. As a complement, the forms of objects are various such as DP, that-clause, to-infinitive clause, and gerund clause. Every matrix verb, however, can't select these kinds of objects freely as its complement. In other words, there are formal and selectional restrictions according to syntactic-semantic properties of each verb and complement when verbs select their objects as a complement. That is called 'internal semantic feature agreement'. So as to understand the concord patterns of the feature agreement, I attempted to verify them by using a corpus. The results show that DP is selected with the verbs whose semantic properties have the 'reference-feature', that-clause 'proposition feature', to-infinitive clause 'future feature' and gerund clause 'past feature'. This study shows that the internal semantic feature agree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when the matrix verb selects its complement.

1. 서론

보편적으로 영어의 진술문은 어휘동사를 핵으로 하여 주어+동사+보충어(complement)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동사의 의미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주면서 통사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보충어는 목적어(object), 보어(complement), 필수부사어(obligatory adverbial), 부가어인 선택부사어(optional adverbial)로 구성된다. 이때 모문동사(matrix verb)가 선택하는 보충어의 형식에 따라 문장유형이 결정되는데, 이 중에서 SVO는 목적어를 모문동사의 보충어로 선택하는 유형이다. 또한, 이와 같은 SVO 유형에서 선택되는 보충어의 형태는 DP, that-절, to-부정사절, 동명사절처럼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모문동사가 보충어로서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목적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여, 모문동사가 선택하는 목적어의 형태는 다음 예문 (1)-(2)에서 알 수 있듯이 모문의 통사-의미특성과 보충어 절의 통사-의미특성에 따라 형태제약과 선택제약이 적용된다.

- (1) a. Do you like *spaghetti*?
 b. Do you like *eating spaghetti*?
 c. Do you like *to eat spaghetti*?
 d. *Do you like *that you will eat spaghetti*?
- (2) a. Do you want *a cup of coffee*?

- b. Do you want *to drink a cup of coffee*?
 c. *Do you want *drinking a cup of coffee*?
 d. *Do you want *that you will drink a cup of coffee*?

문장 (1)처럼 모문동사 like는 DP, to-부정사절, 동명사절을 목적어로 선택할 수 있지만, (2)처럼 want는 DP와 to-부정사절 만을 목적어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want가 예문 (2c)와 같이 목적어로서 동명사절을 선택한다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또한, (1d)와 (2d)에서 보듯이 like와 want는 양쪽 다 that-절을 보충어로 선택할 수 없다.

위의 like와 want가 사용된 예문의 문법성에서 알 수 있듯이 모문동사가 특정한 형태의 보충어를 선택하는 이유는 모문동사와 보충어 사이에 내재 의미자질일치(internal semantic feature agreement)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예시처럼 대부분의 모문동사는 하나 이상의 특정한 보충어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VO 영어 진술문에서 모문동사와 보충어 사이에 적용되는 내재의미 자질일치를 살펴보고, 내재의미 자질일치가 실질적으로 적용된다면 어떤 유형의 내재의미 자질일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한다. 이에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코퍼스 분석을 통해서 관련 동사와 보충어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안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Chomsky의 최소주의 문법론(Minimalist Program)(2000, 2001, 2008)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며, 동사에 따른 보충어의 내재의미 자질일치를 코퍼스를 통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보충어를 선택하는 모문동사의 내재의미 자질특성을 고찰하고, 특정한 형태의 보충어를 선택하는 모문동사의 의미특성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코퍼스 분석을 통하여 모문동사와 DP, that-절, to-부정사절, 동명사절과 같은 보충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논의한 후, 마지막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보충어를 선택하는 모문동사의 내재의미 자질

모든 영어 문장유형에서 그러하듯이 SVO에서도 특정한 형태의 보충어를 선택하는 모문동사와 보충어로 선택되는 DP, that-절, to-부정사절, 동명사절 사이에는 통사자질 일치뿐만 아니라, 내재의미 자질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재의미 자질일치 요소로는 지시성 자질(\pm reference feature), 명제성 자질(\pm proposition feature), 미래성 자질(\pm future feature)/과거성 자질(\pm past feature) 등이다.

먼저, 지시성 자질이란 ‘가리켜 보임’을 나타낼 수 있는 지시대상을 의미한다. 또한, 지시(reference)의 영어사전 의미인 ‘a remark that calls attention to something or someone’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시는 다음 예문 (3)처럼 지시대상을 전제한다.

- (3) a. I saw *him*.
 b. I like *your sister*, not *you*.

(3a)처럼 see와 같은 동사는 ‘~를 보다’라는 내재의미에 따라 ‘~를’에 해당하는 지시대상이 필요한 지시동사(reference verb)이다. 즉, see는 [+reference]- 자질이 있으므로 지시대상인 DP를 보충어로 선택해야 한다. 이와 같이 see가 지시성 의미의 DP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see

와 보충어 DP가 내재의미 자질일치를 충족시킨 결과이다. 초기 생성 문법에서는 이와 같은 자질일치를 의미 선택(semantic selection)이라 하였다(Chomsky 1986: 86-87). 본 논문에서는 어휘동사와 이 동사가 선택하는 이와 같은 자질특성을 내재의미선택 자질로 본다.

다음으로 명제성 자질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참이나 거짓을 가리기 위해 어떤 논리적 판단의 내용을 언어, 기호, 공식 등으로 나타낸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명제(proposition)의 영어사전 의미인 ‘a statement that affirms or denies something and is either true or false’에서 알 수 있듯이, 명제성 의미자질을 지닌 대표적인 보충어는 (4)와 같은 that-절이다.

- (4) a. She comprehended *that this would mean a big change in her lifestyle*.
 b. [?]She comprehended *this would mean a big change in her lifestyle*.

예문 (4a)와는 달리 (4b)처럼 that-절의 보문소(complementizer)인 that이 삭제될 때 몇몇 모국어 화자들은 모문동사 comprehend의 보충어가 명제구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문장이다(Cowan 2008: 495). 이런 사실은 보문소 that이 정형 명제성 자질을 나타내는 기능표지(functional marker)라는 점을 말해준다.

순수한 정형 명제성 자질(finite proposition feature)을 that-절이 지니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to-부정사절과 동명사절은 비정형 명제성 의미자질(non-finite proposition feature)을 가지고 있다. 다음 예문 (5)를 살펴보자.

- (5) a. John believes (*that*) *Mary is intelligent*.
 b. John believes *Mary to be intelligent*.

통사구조 (5a)와 (5b)에서 알 수 있듯이 believe와 같은 동사는 ‘~라고 생각하다’라는 내재의미에 따라 생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서술내용이 필요한 명제동사(proposition verb)이다. 즉, believe는 [+proposition]-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명제내용인 that-절이나 to-부정사절을 보충어로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일부의 모문동사가 that-절이나 to-부정사절을 다 같이 보충어로 선택한다는 사실이다. 일부 모문동사의 이러한 내재의미 자질특성은 that-절이나 to-부정사절을 유도하는 정형 보문소 that이나 비정형 동사표지 to가 특정 의미자질 속성을 공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자질속성이 모문동사의 자질속성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실제로 believe, think, propose와 같은 서술 명제동사는 비특정 미래의미의 진술완화 서법성(epistemic modality)으로 특정되고(Park 2010: 200), 영어사에서 to-부정사절로 대체된 that-절이 주로 가정법 의미를 전달하던 that-절의 that이었으며, 비정형 동사표지 to가 비명시 미래시제 표지(unspecified future tense marker)라는 점에서 서로 내재의미 자질일치가 이루어진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송 2013a, 박 2012).

이번에는 미래성 자질을 가진 모문동사가 주로 to-부정사절을 보충어로 선택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자. 미래성 자질을 가진 모문동사가 to-부정사절과 공기하는 것은 to-부정사절이 비정형 명제성 자질과 더불어 미래성 자질이 있기 때문이다. to-부정사절에 미래성 자질이 있다는 증거는 to-부정사의 통시적 발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to-부정사절의 to는 원래 미래/방향의 의미자질이 있는 전치사 to로부터 to-부정사절의 to로 문법범주가 바뀌는 과정을 겪었다. 이처럼 문법범주가 바뀌었지만 전치사였던 to의 미래/방향의 의미자질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to-부정사절의 to는 비명시 미래시제 표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다음 예문 (6)에서처럼 want와 같은 [+future]-자질을 지닌 미래동사(future verb)는 미래의미인 to-부정사절을 목적어로 선택한다.

- (6) She wanted *to move to a new apartment*.
 (7) a. She demanded *to be included*
 b. She demanded *that we (should) include her*.

통사구조 (6)에서 알 수 있듯이 want와 같은 동사는 ‘~(하기)를 원하다’라는 내재의미에 따라 발화시점이나 발화시점 이후에 원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서술내용이 필요한 미래동사이다. 즉, want는 [+future]-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하는 미래의미인 to-부정사절을 보충어로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예문 (7)에서 보듯이 내재 의미자질 가운데서 [+proposition]-자질과 [+future]-자질이다 있는 demand와 같은 동사는 to-부정사절과 that-절의 문장 변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to-부정사절과 that-절이 교체될 수 있는 것은 that-절에도 미래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that-절에 미래의미가 있다는 증거는 (7b)처럼 that-절이 가정법 현재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that-절의 미래의미를 보문소 that이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문소 that은 정형 명제성 표지어일뿐만 아니라, 명령가정을 선도하는 미래의미 속성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예문 (8)처럼 [-future, +past]-자질을 지닌 모문의 과거 경험동사(experience verb)가 보충어로서 동명사절로 특정화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 (8) a. We finished *discussing the matter at hand*
 b. They enjoy *talking to you*.

통사구조 (8a)에서 알 수 있듯이 finish와 같은 동사는 ‘~(하던 것)을 끝마쳤다’라는 내재의미에 따라 발화시점이나 발화시점 이전에 종료된 행위나 완료된 상황에 대한 서술내용이 필요한 과거 경험동사이다. 즉, finish는 [-future, +past]-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료된 과거 경험의미인 동명사절을 보충어로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future, +past]-자질로 특정화된 모문동사가 동명사절을 보충어로 선택하여 내재 의미 자질일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동명사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 즉, 동명사는 본질적으로 V-ing 형태로 현재분사와 동일하다. 여기서 -ing는 진행상을 표시하는 굴절어미 형태이며, 진행상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시작된 동작이나 상태가 미완료된 상황으로 현재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된다는 의미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ing가 현재에도 계속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과거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문 (8)의 finish나 enjoy와 같은 [-future, +past]-자질특성을 지닌 과거 경험동사가 보충어로서 동명사절을 선택하는 것은 내재의미 자질일치가 이루어진 결과인 것이다.

이번에는 서로 상반되는 시제관련 의미자질을 가진 to-부정사와 동명사 양쪽 다를 보충어를 취하는 try, like와 같은 동사의 용법을 검토해보자.

예문 (9)처럼 try 가 to-부정사절과 동명사절 양쪽 다를 보충어로 선택한다는 것은 try의 내재 의미가 ‘(~하려고) 시도하다’라는 [+future]-자질과 ‘(~하는 것)을 시도하다(해보다)’라는 [+past]-자질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9) a. The little girl tried *to move the heavy box*.

b. The little girl tried *moving the heavy box*.

그러므로 (9a)처럼 [+future]-자질이 있는 to-부정사를 보충어로 선택할 때는 '실제로는 어린 소녀가 무거운 상자를 옮기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애썼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반면에 (9b)처럼 [+past]-자질이 있는 동명사를 선택할 때는 '어린 소녀가 무거운 상자를 옮겼다'라는 의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to-부정사의 미래성은 어떤 행동을 수행하려고 하는 '잠재성(potentiality)'을 나타내며 반면에 동명사는 어떤 행동이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수행성(performance)' 의미 자질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Quirk, Greenbaum, Leech & Svartvik 1985: 1191).

- (10) a. I like *to dance*
b. I like *dancing*.

하지만 (10)의 예문은 보충어로서 동명사절과 to-부정사절이 양쪽 다 쓰였지만 의미차이가 없는 경우이다. 이것은 비정형절의 동시적 발달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형 that-절을 대신하여 비정형절인 to-부정사절이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중세영어에 들어와서는 이번에는 비정형절인 동명사절이 to-부정사절을 대신하여 쓰이기 시작한다. 그 후 17-18세기에 동사의 유형별로 더 많은 동사의 보충어로 동명사절이 확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try처럼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like와 같이 의미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앞서 (3b)에서 언급했듯이 like는 지시동사이기도 하므로 'I like *your sister*, not *you*.'처럼 DP를 보충어로 선택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 모문동사의 의미속성과 보충어 DP, that-절, to-부정사절, 동명사절의 의미양상 사이에는 내재의미 자질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코퍼스 언어자료에서 DP, that-절, to-부정사절, 동명사절을 보충어로 선택하는 동사의 빈도수를 찾아보고, 빈도수가 높은 동사들을 유형별로 하나의 집합으로 정리하면 그 동사들의 의미속성이 드러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왜 지시동사는 DP를, 명제동사는 that-절을, 미래동사는 to-부정사절을, 과거동사는 동명사절을 선택하는가를 코퍼스 분석자료를 통하여 검증하려 한다.

3. 언어자료 분석

이번 장에서는 2장에서 제안한 것처럼 어떤 모문동사가 보충어로서 DP, that-절, to-부정사절, 동명사절을 선택하는 가를 실제 언어사용을 통한 경험적 증거를 검증하기 위하여 코퍼스 자료를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DP, that-절, to-부정사절, 동명사절을 선택하는 각각의 동사들의 출현빈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각의 보충어를 형태별로 범주화한다. 그리고 코퍼스 자료에서 빈도수가 높은 상위 20개의 동사를 선택하여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의미특성을 점검한다. 본 논문에 사용하는 분석 자료는 구어영어, 소설, 잡지, 신문, 논문의 5개의 사용역으로 구성된 COCA의 N-gram데이터이다. COCA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비모국어 영어사용 화자가 모국어 영어사용 화자인 미국인들이 동사에 따른 보충어를 선택할 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지식을 이해하고, 그 유형을 분석하여 영어학습과 영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3장의 언어자료 분석결과 2장의 제안이 전부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영어 SVO 문장 유형에서 모문동사의 보충어는 DP, that-절, to-부정사절, 동명사절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모문동사가 보충어로서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목적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여, 모문동사가 선택하는 목적어의 형태는 모문의 통사-의미특성과 보충어절의 통사-의미특성에 따라 형태제약과 선택제약이 적용된다. 즉, see와 같은 동사는 [+reference]-자질이 있으므로 지시대상인 DP를 보충어로 선택해야 하며, believe와 같은 동사는 ‘~라고 생각하다’라는 내재의미에 따라 생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서술내용이 필요한 [+proposition]-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명제내용인 that-절이나 to-부정사절을 보충어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want와 같은 [+future]-자질을 지닌 미래동사(future verb)는 미래의미인 to-부정사절을 목적어로 선택하는 반면에 finish나 enjoy와 같은 [-future, +past]-자질특성을 지닌 과거 경험동사가 보충어로서 동명사절을 선택하는 것은 모문 동사와 보충어 사이에 내재 의미자질일치가 이루어진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언어습득이 내재적으로 언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영어 모문동사가 보충어를 선택할 때 모문동사와 보충어사이에 통사자질 일치뿐만 아니라 내재 의미자질일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상수. 2012. 『영어 to-부정사절과 내부 통사구조의 통시적 변화. 『언어과학』 19(4), 141-162.
- 송지미. 2013a. 영어 to-부정사절과 동명사절의 통시적 발달. 박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 송지미. 2013b. 의사전달 동사 say와 tell의 언어 관계의 통사-의미 특성과 코퍼스 검증. 『현대 문법연구』 74, 135-154.
- Biber, D., S. Johansson, G. Leech, S. Conrad and E. Finegan.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don: Longman.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Martin, R., D. Michaels and J. Uriagereka (eds). *Step by Step*, 89-156.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1. Derivation by Phase. In Kenstovicz, M.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8. On Phases. In Freidin R., C. P. Otero and M. L. Zubizarreta (eds). *Foundational Issues in Linguistic Theory: Essays in Honor of Jean Roger Vergnaud*, 133-166. Cambridge, Mass.: MIT Press.
- Cowan, R. 2008.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nego, T. 1996. The Development of Gerunds as Objects of Subject-control Verbs in English (1400-1760). *Diachronica* 13(1), 29-62.

- Fanego, T. 2006. The Role of Language Standardization in the Loss of Hybrid Gerunds in Modern English. In Breivik, L. E., S. Halverson, K. E. Haugland (eds.). *'These Things Write I Vnto Thee...':Essays in Honour of Bjørg Bækken*, 930110. Oslo: Novus Press.
- Fanego, T. 2007. Drift and the Development of Sentential Complements in British and American English from 1700 to Present-day. In Javier Pérez-Guerra D. González-Álvarez, J. L. Bueno-Alonso & E. Rama-Martínez (eds.). *Of Varying Language and Opposing Creed: New Insights into Late Modern English*, 161-235. Bern: Peter Lang.
- Huddleston, R. and G. K.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S. 2010. An Analysis of the Mandative Subjunctive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17-1, 189-206.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 New York: Longman.
- Wurff, W. van der. 1993. Gerunds Their Objects in the Modern English Period. In J. van Marle (ed.). *Historical Linguistics 1991*, 363-375.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Wurff, W. van der. 1997. Gerunds in the Mordern English Period: Structure Change. *History of English* (Seoul) 3, 163-196. Special Issue for Professor I-S. Kim.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비유적 합성어의 의미구조 탐색

이 미 영

(경북대학교)

Miyoung Lee (2014), *Investigations into the Semantic Structure of Figurative Compounds Based on the Interaction of Metaphor and Metonymy*.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18(2), 00-00. This paper will reveal the process in which metaphor and metonymy interact with each other in one compound despite the fact that they can also function differently when used for language and action, as Lakoff & Turner (1989) claim. For this purpose, in Chapter 2 Theoretical Backgrou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metaphor and metonymy will be first examined, and their properties will be later suggested with a focus on their interactive expressions. Also, in this paper, the meaning of English compounds will be analyzed based on the conceptual blending theory, and therefore, this theory will be included in one section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chapter. In Chapter 3, among figurative compounds, semantic structures of compounds based on metaphor and metonymy will be analyzed. These figurative compounds a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patterns: compounds whose modifiers are based on metonymy and whose semantic relation between the constituents is metaphorical, compounds whose heads are based on metonymy and whose semantic relation between the constituents is metaphorical, compounds whose heads are based on metaphor and whose semantic relation between the constituents is metonymical, compounds whose modifiers are based on metaphor and whose semantic relation between the constituents is metonymical, compounds whose modifiers are based on metaphor and heads on metonymy, and compounds whose modifiers are based on metonymy and heads on metaph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figurative compounds, conceptual blending, metaphor, metonymy, head, modifier

1. 서론

인지언어학자들은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가 우리의 행동에서도 쉽게 발견되며, 이러한 개념은 우리 일상의 신체적 경험과 세계와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다고 강조한다. 이 논문에서는 은유적·환유적 합성어가 작용하는 합성어를 비유적 합성어로 부를 것이며, 합성어에 은유와 환유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합성어의 의미를 여섯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개념적 혼성 이론으로 분석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은유와 환유

우선 인지언어학에서 바라본 은유와 더불어 환유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Barcelona(2000)에 따르면 은유는 하나의 경험적 영역이 다른 경험적 영역으로 '사상되어' 후자의 영역이 전자의 영역에 의해 이해되는 인지적 기제라고 정의한다. 이때 사상되는 영역은 근원영역(source domain)이나 기증자 영역(donor domain)이라고 불리고, 근원영역이 사상되는 영역은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나 수령자 영역(recipient domain)이라고 불린다. 이런 두 영역들 간의 대응을 개념적 사상이라고 부른다. 사랑은 여행이다라는 예에서, 사랑의 경험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상들이 여행의 경험적 영역으로 사상된다. 이성간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여행자와 대응되고, 그 사랑의 끝은 여정의 끝과 대응된다.

이에 반해 환유는 한 개념(매체)을 이용해서 다른 개념(목표)를 가리키는 인지 과정이다. 이때 이 두 개념은 동일한 개념적 영역에 존재하고 그 영역 내에서 개념적으로 투사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따라서 환유적 사상에 참여하는 영역을 하위영역이라고 한다. Bierwaczzonek(2013)의 예 She introduced me to the biggest brain of their department에서 brain은 사람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뇌는 전체 사람이라는 상위영역의 하위영역에 속한다.

2.2.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

Barcelona(2000), Radden(2000), Ruiz de Mendoza(2000), Goossens(2002), Taylor(2002b)와 같은 학자들은 은유와 환유의 연속체 개념을 제기한다. 즉 은유와 환유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한쪽 끝에는 개념적 은유가 존재하고 다른 쪽 끝은 개념적 환유가 존재하며 이 선 상의 중간 부분에는 두 현상의 덜 대표적인 형태가 존재하거나 두 현상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환유 기반적 은유의 예는 Goossens(2002)에서 분석된다.

(1) "Oh dear," she giggled, "I'd quite forgotten."

Goossens(2002)는 (1)의 문장이 she said this as if giggling이라고 해석될 경우에는 은유적이며, she said this while giggling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환유적이라고 설명한다. 이유는 은유적으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말하기 영역과 킁킁 웃기 영역이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환유적으로 해석이 될 경우는 킁킁 웃는 것과 말하는 것을 한 영역 내의 행동으로 보며, 이것은 부분은 전체를 대표한다 환유로 해석한다. Goossens(2002)는 개념적으로 은유적 해석이 환유적 해석으로 연계되어 쾌활함을 신체적 특징인 킁킁 웃기와 공유하는 것으로 지목하고 따라서 (1)에서 제시한 발화를 환유를 기반한 은유인 것으로 주장한다.

다음은 Goossens(2002)에서 분석한 은유 기반적 환유의 예이다.

(2) She caught the minister's ear and persuaded him to accept her plan.

(2)에서 the minister's ear는 근원영역으로 목표영역인 수상의 주의(attention)를 환기시킨다. 이 예는 은유 주의를 이동하는 물리적 실체이다에 의해 인가되는데, 이 은유에 따르면 주의를 잡혀야 하는 이동하는 실체(수상의 귀)에 의해 이해된다. 이 은유 내에는 또한 환유 귀는 주의를 대표한다가 있는데, 여기서 귀는 이 은유에서 주의의 개념에 대한 매체로 기능하는 신체부위이다. catch someone's ear로 환기되는 사냥 장면이 비유적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이런 예는 은유적이다. 그러나 이런 은유 내에서 구성소 ear는 그 사람의 청각 주의를 대표하기 때문에 환유적 해석을 받는다.

2.3. 개념적 혼성

Coulson(2001: 115)의 개념적 혼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념적 혼성은 일련의 비합성적인 개념적 통합의 과정으로서, 그 과정 속에서 발현구조를 생산하기 위해 의미구성을 위한 상상의 능력이 발휘되는 과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개념적 혼성은 주어진 표현에서 먼저 입력공간을 구축하고, 그 입력공간들 간의 공간횡단 사상이 발생하고 그 입력공간에서부터 혼성공간으로의 의미 투사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인지 과정이라는 것이다.

3. 은유와 환유 상호작용 합성어의 분석

이 장에서는 영어의 명사-명사 합성어 중에서 은유와 환유가 상호작용하여 생성되는 비유적 합성어를 분석할 것이다.

3.1. 수식어는 은유이고 핵어는 환유인 합성어

구성소의 첫 번째 명사인 수식어에는 은유가 작용하고 두 번째 구성소인 핵어에는 환유에 기반을 두는 합성어의 표현이다. 합성어 garbage mouth의 의미는 언제나 야비하고 외설스러운 말을 입에 담은 사람이다. 수식어 garbage는 보통 못쓰게 되어 내다 버릴 물건이나 내다 버린 물건이다. 이 쓸모없는 물건과 도덕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부패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 개념적 은유로 사상된다. 이 합성어는 수도권 은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에 담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의사소통을 한다. 하지만 이 합성어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쓰레기를 말에 담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런 쓰레기가 비유적으로 야비하고 외설스러운 말이 되는 것이다. 핵어 mouth는 사람 신체의 한 부분이다. 신체의 한 부분이 사람을 나타내므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환유가 작용하며, 의미가 외설스러운 말을 입에 담은 사람이므로 참조점이 입에 있다.

3.2. 수식어는 환유이고 핵어는 은유인 합성어

이 절에서는 첫 번째 명사인 수식어는 환유에 기반을 두고, 핵어는 은유에 기반을 두는 합성어이다. 이 합성어의 대표적인 예는 cancer stick이다. 이 합성어에서 수식어 cancer가 환유적 의미로 사용되고 핵어 stick이 은유적으로 이해된다. cancer stick은 담배를 의미한

다. 수식어인 cancer는 인체 조직 내에서 질서를 무시하고 무제한 증식하는 미분화 세포로 구성된 병균 덩어리인 암을 가리킨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암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폐암이다. 따라서 이 합성어에서 수식어 cancer는 폐암을 나타내는 것으로 환유가 작용하고 있다. 즉 수식어 cancer는 병명을 가리키지만 그 합성어 전체의 의미는 암을 유발하는 원인을 가진 막대기 모양의 사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담배를 피었을 때 나오는 연기를 통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 합성어는 원인은 결과를 대표한다라는 개념적 환유를 환기시킨다. 핵어 stick은 가늘고 기다란 모양의 막대를 가리키며, 이는 영상은 유로 이해된다.

3.3. 의미 관계는 은유이고 핵어는 환유인 합성어

이 절에서는 수식어와 핵어 간에 관계가 은유적이며, 핵어가 환유적으로 작용하는 합성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합성어의 예는 birdbrain(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합성어의 수식어는 bird이며 이 합성어 역시 동물은유에 기인한다. 새는 대체로 머리에 비해 눈알이 크고, 망막의 시신경이 발달해 있어 시력이 예민한 동물이다. 새의 머리가 작다는 것은 곧 그 속에 들어있는 뇌가 작다는 것을 암시하며, 뇌 부분이 참조점이 되어 작음은 적음이다라는 개념적 은유가 작용하고 있다. birdbrain의 핵어는 뇌이다. 일상생활에서의 뇌의 역할은 생각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부각되며 뇌는 머릿속에 있는 장치로 머리로 일차적 환유가 일어나고 머리는 다시 사람 전체로 이차적 환유가 일어난다. 따라서 핵어 brain은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개념적 환유를 유발시킨다.

3.4. 의미 관계는 은유이고 수식어는 환유인 합성어

alpha girl(알파걸)은 이 합성어 패턴의 예이다. 첫째로 girl이라는 인간과 그리스 알파벳의 첫글자에 비유되는 geek이 있다. 전체 합성어의 의미는 그룹에서 첫째인 소녀와 전문가를 가리킨다. 이런 “첫 번째 위치”는 알파라는 글자의 개념으로 나타내진다. 형태는 개념을 대표한다라는 환유가 alpha geek과 alpha girl의 첫 번째 구성소에서 작동한다. 형태 a 는 그것이 표현하는 개념을 대표한다. 즉, 그것은 그리스 알파벳의 첫글자이다. 첫째 성이라는 개념은 alpha와 girl 사이에서 존재하는 공통된 유사성이다.

3.5. 의미 관계는 환유이고 핵어는 은유인 합성어

이 절에서는 수식어와 핵어 간에 관계가 환유적이며, 핵어가 은유적으로 작용하는 합성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합성어 hawk eye의 의미는 다양하다. 가령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구기 스포츠의 심판 보조 시스템(골 판독기)을 의미하기도 한다. hawk eye가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이 될 때는 의미관계가 은유이며 핵어가 환유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합성어의 경우에는 핵어인 eye가 먼저 눈은 사람을 대표한다라는 개념화를 통하여 사람을 환유적으로 대표한다. 이 절에서는 hawk eye의 의미를 골 판독기에 초점을 둘 것이다. 같은 단어로 구성된 합성어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골 판독기를 의미하는 hawk eye에서 수식어 hawk와 핵어 eye의 의미관계는 전체와 부분관계인 환유에 기인한다. 구기종목 테니스 경기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심판은 가히 hawk eye이다. 테니스 경기에서 사용되는 hawk eye는 2001년 영국에서 코

트 하나에 카메라 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초당 60프레임의 속도로 볼을 관찰하는 첨단 장치이다. 이 첨단 장치는 볼이 지면에 닿을 때의 찌그러짐까지 관찰할 수 있으며 오차범위는 3mm까지 판독해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감지 못한 부분은 전적으로 hawk eye의 판독으로 해결된다. 이런 골 판독장치의 신뢰도는 현재 당구나, 크리켓, 축구 경기에까지도 확장되었다. hawk eye에서 핵어 eye는 매의 눈과 예리하고 날카로운 기계의 유사성이 기인한다. 즉 핵어 eye는 개념적 은유에 기인하는 합성어이다.

3.6. 의미 관계는 환유이고 수식어는 은유인 합성어

이 절에서는 수식어와 핵어 간에 관계가 환유적이며, 수식어가 은유적으로 작용하는 합성어의 분석이다. 합성어 song bird는 일차적 의미는 우는 새이며, 이차적 의미는 정보제공자 혹은 밀고자의 의미가 생성된다. 수식어 song과 핵어 bird 간에 환유적 관계가 있다. 즉 새의 결정적 특성은 범주를 대표한다라는 환유에 기인한다. 수식어 song이 전달하는 내용은 마치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와 같다는 유사성에 기초를 두는 개념적 은유가 작용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 양상을 탐구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비유적 합성어에 작용하는 방식을 탐구하고자 했다. Benczes(2006)는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가 다양한 방식으로 명사-명사 합성어의 의미에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이는 구성소들의 의미관계는 은유이고 수식어는 환유인 합성어, 구성소들의 의미관계는 은유이고 핵어는 환유인 합성어, 수식어는 환유이고 핵어는 은유인 합성어, 수식어는 은유이고 핵어는 환유인 합성어가 그런 방식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Benczes(2006)의 네 가지 방식에 구성소들의 관계가 환유인 합성어의 종류 두 가지 방식을 더하여 모두 여섯 가지의 방식으로 은유와 환유가 상호작용하는 합성어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두 가지 방식은 구성소들의 의미관계가 환유이고 수식어가 은유인 합성어와 구성소들의 의미관계가 환유이고 핵어가 은유인 합성어이다.

참고문헌

- Barcelona, A. (2000), "Introduction: The cognitive theory of metaphor and metonymy", In A. Barcelona (ed.), *Metaphor and Metonymy at the Crossroads: A Cognitive Perspective*.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1-28.
- Barcelona, A. (2003), "Clarifying and applying the notions of metaphor and metonymy within Cognitive Linguistics: an update", In Dirven, R. and R. Pörings (eds.), *Metaphor and Metonymy in Comparison and Contrast*.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207-278.
- Benczes, R. 2006. *Creative Compounding in English*,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ierwiazczonek, B. (2013), *Metonymy in Language, Thought and Brain*. Equinox Publishing Ltd.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and M.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and M. Turner. (1989),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dden, G. and Z. Kövecses. (1999), "Towards a theory of metonymy", In Panther, K-U. and G. Radden (eds.), *Metonymy and in Language and Thought*.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7-59.
- Ruiz de Mendoza Ibáñez, F. J. (2007), "High-level cognitive models: In search of a unified framework for inferential and grammatical behavior", In Kosecki, K. (ed.), *Perspectives on Metonym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Perspectives on metonymy'*.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1-30.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of Spatial Location between Objects in English and Korean

Jiyoon Chung · Sungchool Im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본 논문은 영어와 한국어에 나타나는 사물들 간의 공간 위치 인식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Talmy(1975, 2000a) 의 Figure and Ground Organization과 Levinson (2003) 의 Frames of Reference 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English native speakers 96 and 150 Korean native speakers 실증적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서는 각각의 Figure 와 Ground의 ontological properties and geometrical properties 달리하는 물체들로 이루어진 123장의 사진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제시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rst, when the Ground does not have its intrinsic orientation, the orientation of the geometric properties of the Figure as well as the geometrical proprieties of the observer is the crucial factor in which the determination of the location of the Figure. Second, When the ground has its intrinsic orientation, the geometric properties of the Ground are primarily considered in English and Korean. Third, the distinctions between left and right are neutralized.

1. Introduction

Construal is a method which is used to understand the world around us including an event as well as an object (Kövecses 2006: 227).



...김 위원장 오른쪽은 마원춘, 마 부부장 오른쪽 뒤편은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다. / 노동신문 (조선일보 2013/12/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linguistic conceptualization of the relative locations between objects in English and Korean.

2. Theoretical Background

2.1 Linguistic Construal Operations

© **Perspective** (Croft and Cruse 2004:41, Langacker 1987: 122-6, 2008: 55, 73-6, Talmy 2000a: 68-76)

- (1) a. The tree (tr) is *in front of* the rock (lm).
b. The rock (tr) is behind the tree (lm).

(Langacker 2008: 76)

◎ **Figure- Ground Segregation** (Talmy 1975, 1983, 2000 a, b, Im 2004)

- (2) a. The pen (F) rolled off the table (G).
b. The pen (F) lay on the table (G).

(Talmy 2000b: 26)

◎ **Frames of Reference** (Levinson 1996: 138, 2003: 24-56, Majid, Bowerman, Kita, Haun & Levinson 2004, Levelt 1996)

• Intrinsic Frame of Reference

- (3) He (F) is *in front of* the house (G). (Levinson 2003: 47)

• Relative Frame of Reference

- (4) He (F) is *to the left of* the house (G). (Levinson 2003: 47)

• Absolute Frame of Reference

- (5) He (F) is *the north of* the house (G). (Levinson 2003: 50)

3. Method

3.1 Participants

English: 96 speakers (44 males and 52 females), the age ranged from 18 to 83.
Korean: 150 speakers (54 males and 96 females), the age ranged from 18 to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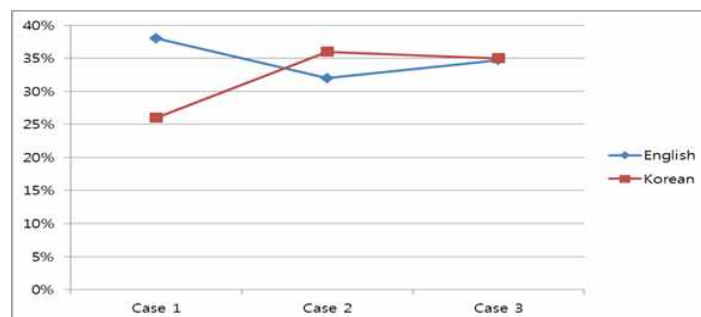
3.2 Experiment Instrument and Procedure

The participants in each language are asked to describe the location of the object (F) in relation to another object (G), based on the pictures distributed to them in advance. The experiments for each language consist of 123 questionnaires. Each questionnaires is provided with a picture of a scene with two objects made with Lego. The experiments for each language are designed to be divided into 9 cases, based on the **geometrical properties** [\pm ORIENTATION] and the **ontological properties** [\pm ANIMACY].

<Table 1> The Properties of the Figure and the Ground in the 9 Cases

	Figure	Ground
Case 1	[-ORIENTATION] [-ANMACY] Flowerpot	[-ORIENTATION] [-ANMACY] Tree
Case 2	[+ORIENTATION: functional] [-ANMACY] Chair	[-ORIENTATION] [-ANMACY] Tree
Case 3	[+ORIENTATION: inherent] [+ANMACY] Girl	[- ORIENTATION] [-ANMACY] Tree
Case 4	[-ORIENTATION] [-ANMACY] Flowerpot	[+ORIENTATION: functional] [-ANMACY] Car
Case 5	[+ORIENTATION: functional] [-ANMACY] Chair	[+ORIENTATION: functional] [-ANMACY] Car
Case 6	[+ORIENTATION: inherent] [+ANMACY] Girl	[+ORIENTATION: functional] [-ANMACY] Car
Case 7	[-ORIENTATION] [-ANMACY] Flowerpot	[+ORIENTATION: inherent] [+ANMACY] Boy
Case 8	[+ORIENTATION: functional] [-ANMACY] Chair	[+ORIENTATION: inherent] [+ANMACY] Boy
Case 9	[+ORIENTATION: inherent] [+ANMACY] Girl	[+ORIENTATION: inherent] [+ANMACY] Boy

4. 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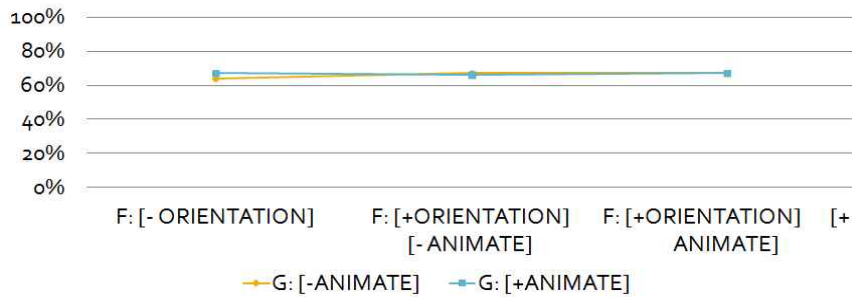
<Chart 1>The Neutralization of the Distinction between *left* and *right* in Case 1 to Case 3

√ The neutralization of the distinction between *left* and *right* is found more frequently when the Figure displays its *side* to the observer in English and Korean.

<Table 2>The Proportion of the Intrinsic Frame of Reference in Case 4 to Cas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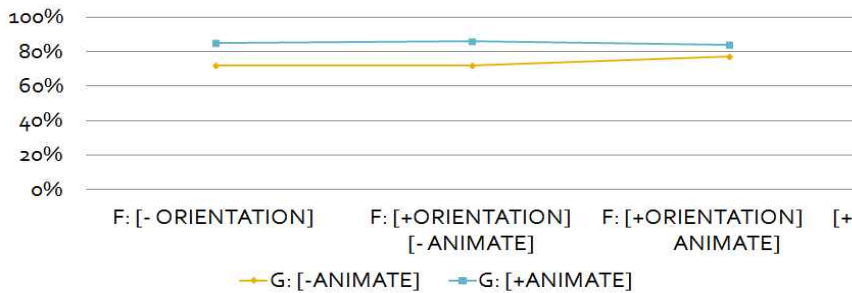
		English speakers	Korean speakers
Inanimate Ground	Case 4	64%	72%
	Case 5	67%	72%
	Case 6	67%	77%
Animate Ground	Case 7	67%	85%
	Case 8	66%	86%
	Case 9	67%	84%

✓ Korean speakers (the average of 79%) use the orientation of the Ground to conceptualize the location of the Figure more than English speakers (the average of 66%)



<Chart 2> The Difference due to the Ontological Properties of the Ground in English

✓ The ontological properties of the Ground does not influence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Figure in English.



<Chart 3> The Difference due to the Ontological Properties of the Ground in Korean

✓ The ontological properties of the Ground influence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Figure in Korean.

<Table 3> Neutralization of the Distinction between *left* and *right* of the Ground

		English speakers	Korean speakers
Inanimate Ground	Case 4	28%	28%
	Case 5	31%	33%
	Case 6	33%	28%
Animate Ground	Case 7	37%	25%
	Case 8	34%	23%
	Case 9	37%	28%

✓ The distinction of *left* and *right* is neutralized in English and Korean.

✓ English speakers (the average of 33%) tend to neutralize the distinction *left* and *right* more than Korean speakers (the average of 28%).

- √ English speakers (the average of 36%) neutralize it more frequently when the Ground has its animacy. However, Koreans speakers (the average of 25%) neutralize it more often when the Ground does not have animacy.

5. Conclusion

- ◎ When the Ground does not have its intrinsic orientation:
 - √ The geometrical properties of the observer are a crucial factor in which the determination of the location of the Figure
 - √ In addition, the geometrical properties of the Figure also influence the localization of the Figure.
 - √ In this situation, some English and Korean speakers make an alternative vantage point or map the orientation of the Figure onto the Ground.

- ◎ When the Ground has its intrinsic orientation:
 - √ The geometrical properties of the Ground are primarily considered in English and Korean- the intrinsic Frame of Reference.
 - √ The geometrical properties of the Figure are also considered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e relative Frame of Reference.
 - √ English speakers and Korean speakers tend to neutralize the distinction between *left* and *right* when the Figure is located on the side of the Ground.

- ◎ The geometrical properties of the Figure affect in hiring the intrinsic Frame of Reference and the relative Frame of Reference.

- ◎ The ontological properties of the Figure have effect on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Figure. However, they are not a crucial factor.

- ◎ The ontological properties of the Ground have influence on the localization of the Figure. Korean speakers tend to consider the orientation of the Ground more when the Ground is an animate entity ([-ANIMATE]:74% vs. [+ANIMATE]: 85%). However, English speakers do not show much difference according to the ontological properties of the Ground in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location of the Figure ([-ANIMATE]: 66% vs. [+ANIMATE]: 67%).

◆ Selected References

- Croft, William and D. Alan Cruse 2004.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m, S. (2004) a Linguistic construal: With Reference to Figure and Ground Organization. *Studies in Modern Grammar* 38. 99-121

- Kövecses, Z. 2006. *Language, mind and culture: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Theoretical prerequisites* (Vol.1).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8.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velt, W. J. 1996. Perspective taking and ellipsis in spatial descriptions. *Language and space*, 77-107.
- Levinson, S.C. 1996. Frames of Reference and Molyneux's Question: Crosslinguistic Evidence. In P. Bloom, M. A. Peterson, L. Nadel and M. F. Garrett (Eds.), *Language and Space*, 109-69. Cambridge, MA: MIT Press.
- _____ 2003. *Space in language and cognition: Explorations in cognitive diversity* (Vol. 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nson, S. C., & Wilkins, D. P. (Eds.). 2006. *Grammars of space: Explorations in cognitive diversity* (No. 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jid, A., M. Bowerman, S. Kita, D. B. M. Haun & S. C. Levinson 2004. Can language restructure cognition? The case for spa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Vol.8, No.3 108-114.
- Talmy, L. 1975. Semantics and syntax of motion, In J. Kimball (Ed.), *syntax and semantics* 4, 181-238.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83. How language structures space. *Spatial orient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ed. herbert L. Pick, Jr. and Linda p. Acredolo, 225-282. New York: Plenum Press
- _____ 2000a.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1: Concept structuring systems*. The MIT Press.
- _____ 2000b.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2: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The MIT Press.
- <websit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6/2013121600167.html

Linguistic Expressions of RESULT and Its Realization in Force Dynamics between English and Chinese

Yanlu Zhang · Sungchool 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is a comparative study on force-dynamic expressions between English and Chinese. Although English and Chinese share a seemingly uniform surface structure in expressing force dynamics, they differ greatly in encoding the realization of RESULT. In English, the successful realization of the RESULT is unambiguously lexicalized in the matrix verb. On the other hand, in Chinese, the realization of the RESULT is often left unspecified from the lexical meaning of the verb. Instead, this language turns to collocations, such as aspect marker, complements, and auxiliaries to create a specific context in which the realization of the RESULT is interpreted. The difference between English and Chinese in encoding the realization of RESULT is traceable to the different cognitive patterns used by English and Chinese speakers. English speakers are analytic, paying attention primarily to the objects and using rules which are independent of context to understand the behavior of the objects. In contrast, Chinese speakers are holistic, attending to the entire field and preferring to explain the behavior of objects as context-dependent.

속담의 교훈성과 비교육성의 Paradox에 관한 연구 - 스페인어 속담을 중심으로 -

임 효 상

(경희대학교)

속담은 일반적으로 교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속담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간단한 표현이면서도 매우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속담의 종류에는 보편적인 경우도 있지만 언어개별적인 속담도 매우 다양하다. 로망스 언어의 하나인 스페인어의 경우에도 스페인적인 속담이 매우 많다. 스페인어 사용권이 매우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베리아 반도에서 사용하는 속담과 중남미에서 사용하는 속담간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지역차이에 따른 차이점이 많이 존재한다. 심지어 로망스어간의 속담표현에도 내용과 표현의 측면을 고려할 때 상당한 차이점이 보인다.

속담의 언어학적인 특징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통사적인 과과를 비롯해서 문장내에서의 중요한 동사가 생략되는 것을 비롯해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경우도 자주 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표현방식의 차이점을 고려하면 한국어 학습자가 스페인어를 배울 때 매우 어려운 학습내용중의 하나가 관용어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속담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학에서 Chmosky가 주장하는 보편문법이 있듯이 상당수의 보편적인 속담이 존재하는 반면에 전혀 이질적인 속담이 스페인어와 프랑스에서도 나타난다. 엘름슬레의 주장에 따르면 표현의 양식의 내용의 양식차이에 따른 언어적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국어의 경우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표현이 있는 반면에 일본어의 경우에는 하나요리 단꼬라는 표현이 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표현은 보편적인 속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스페인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1) A buen hambre, no hay pan duro.

1)의 속담을 직역하면 배고프면 딱딱한 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어의 음식문화가 포함되어 있는 속담중 빵이 포함되어 있는 속담이 백여개 이상이 존재한다. 한국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김치 떡 쌀이라고 간주할 때 과연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속담간에 공통점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볼 때 우리는 매우 이질적이라고 생각한다. 속담의 유래를 추적하다보면 매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매우 힘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속담의 비교육성을 논할 때 우리는 스페인어나 국어의 경우에 매우 여성차별적인 속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에서 과연 이러한 여성 차별적인 속담

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가를 생각할 때 오히려 유고적인 전통의 우리나라 문화와 비교해 볼 때 별 차이가 없을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속담의 양면성을 분석하면서 과연 대학교 제2외국어 과정에서 속담의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중에는 한국속담만을 다루고 있는 교재도 있지만 외국어 교재의 경우에는 부록이나 일부 속담만이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속담교육을 통해서 상당한 외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어의 경우에는 속담의 빈도수에 관한 연구도 있지만 스페인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속담에 관한 친근감에 관한 연구도 아직 스페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속담에 관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학습내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위한 전략을 강구하고자 한다.

경동사구문과 구체화(reification)현상

유 정 숙

(경상대학교)

1. 도입

경동사(light verb)구문이란 기능적으로 술어역할을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아주 가벼운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have, take, give 그리고 make’ 등의 구문을 일컫는 표현으로 Jespersen(1954)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경동사구문은 보문으로 주로 ‘사건(event)’이나 ‘행위(action)’를 지칭하는 탈동사 명사(deverbal noun)를 취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보문은 그 형태에 따라 경동사구문의 선택에서 제한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1) a. John had a walk/*wakling/*walks/*the walk in the garden.
 b. Mary gave him a hug/*hugging/*hugs/*the hug.
 c. We took a dive/*diving/*dives/*the dive.
 d. He made an inspection/inspections/the inspection/*inspecting of the factory.

위의 예문에서 경동사구문의 보문에 대한 허용여부를 살펴보면 -ing형태의 명사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든 경동사 구문이 동일하지만 have, give, take 경동사구문에는 ‘a + 탈동사명사(a walk, a hug, a dive)’의 형태만 허용되고 복수형(walks, dives, hugs)과 ‘the + 탈동사명사(the walks, the hug, the dive)’의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 반면에 make 경동사구문에서는 ‘a +명사(an inspection)’ 형태뿐 아니라 복수형(inspections), ‘the +명사(the inspection)’의 형태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이미 많은 학자들이 설득력 있는 주장들을 제기해 왔다. 특히 Wiersbicka(1982)는 HAVE A구문에서 그리고 Dixon(1990)은 ‘HAVE/TAKE/GIVE A+탈동사명사’ 구문에서 각각 보문에 대한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부정관사 a는 일회성의 행위, 짧지만 반복 가능한 행위를 의미하며 둘째 목적이 없는 행위에 잘 어울리며 셋째 HAVE와 TAKE 구문에서는 행위자 지향적 의미를 함축한다는 점이 그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이들의 분석은 이러한 구문의 특징들이 예문 (1)에서 나타나는 보문의 제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주지 않는다. 한편 Kearns(1988)는 수동화, 의문사이동현상, 대명사화 그리고 정관사 공기 여부를 통해 경동사구문을 진정경동사구문과 모호경동사구문으로 구분하면서 보문에 대한 특징을 서술하고 있지만 그러한 특징의 발생동기나 원인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경동사 구문에서의 공통적인 견해를 정리해보면 보문으로 오는 탈동사 명사는 완전한 명사나 동사도 아닌 중간 지점의 어디엔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HAVE/ TAKE/GIVE A+행위명사’구문(이하 진정경동사구문 TLV)은 행위명사가 좀 더 동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MAKE 경동사구문(이하 모호경동사구문 VLV)은 뒤의 보문이 명사의 특징을 더 많이 보인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행위동사와 행위명사와의 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HUG - HUGGING - A HUG - HUGS - THE HUG

예문(2)의 과정은 추상적인 행위인 HUG가 구체명사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실제로 각 단어가 각각의 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확인하면 이러한 경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the hug** has become the favorite social greeting when teenagers meet or part these days" in the United States.[3] A number of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have issued bans on **hugs**, which in some cases have resulted in student-led protests against these bans. In the Roman Catholic rite of the Holy Mass **a hug** may be substituted for a kiss or handshake during the kiss of peace ritual. Some cultures[citation needed] do not embrace hugging as a sign of affection or love, such as the Himba in Namibia. **Hugging** has been proven to have health benefits. One study has shown that **hugs** increase levels of oxytocin and reduce blood pressure.

위의 예에서 HUG의 다양한 형태(hugging, a hug, the hug, hugs)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행위동사 hug가 어떤 과정을 거쳐 명사로 변환되어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위 예문의 다양한 hug의 형태는 행위동사가 명사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위동사가 행위명사로 전환하는 과정을 구체화(reification)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구체화는 각각의 단계가 존재하는데 각 단계에서 보통명사로 구체화되는 과정이 정도(gradual)개념으로 특징 지워진다는 점으로 인해 각 구문에서의 독립성과 의존성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한다. 또한 경동사구문의 보문이 각각의 경동사와 공기하는 과정에 구체화의 이러한 특징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밝혀내고자 한다.

2. 구체화(Reification)

2.1 선행연구와 문제점

언어학에서의 구체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 않다. 인지언어학에서 Langacker(1987)와 Radden & Dirven(2007)이 약간의 언급과 정의를 내리고 있을 뿐이다. Langacker는 구체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This capacity to manipulate a group as a unitary entity for higher-order cognitive purposes is what I refer to as reification. Thus each emergent line in figure 4.5 (b) is reified by virtue of being treated as a single element in the perception of parallelism, and in any other conception invoking them as such.

반면에 Radden & Dirven(이하 R&D로 표기)은 좀 더 세부적인 정의와 함께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구체화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Reification involves a metaphorical shift from a relational entity into a thing..

위의 언급에서 관계표현(relational entity)은 형용사(married), 동사(marry) 그리고 전치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의미하는 행위나 상태 또는 상황등이 하나의 물체(thing)로 전환하는 것을 구체화(reification)라고 정의하였다. 구체화의 영어표현 'reification'은 라틴어 'res(thing)'에서 유래하였는데 추상적인 관념적 표현이 물체(thing)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이러한 구체화현상을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be married'라는 관계표현이 'marriage'로 전환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thing'으로 전환된 'marriage'는 명사로써 여러 가지 지칭표현(referring expression)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데 수식어(new marriage), 양화사(many marriages), 소유격(my marriage) 그리고 지시표현(this marriage)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칭표현들과 함께 오는 경우 완전한 보통명사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R&D는 주로 상황(situation)이 'thing'으로 전환된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episodic situation'과 'steady situation'을 각각 'event'와 'state'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¹⁾ 그들이 분류한 각 구체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Episodic events	Episodic states	Steady events	Steady states
(un)bounded	bounded	bounded	unbounded	unbounded
internal component	heterogeneous	heterogeneous	homogeneous	homogeneous
temporal usage	+ limited time	+ (transient state)	-	- (permanent attributes)
countability	+	+	- (mass/substance)	- (substance)
examples	attack, protest, objection, flight, instruction, crime ₁	disease, idea, doubt, marriage, war ₁ , pain ₁	information, help, advice, permission, crime ₂	knowledge, happiness, love, wisdom, peace, war ₂ , pain ₂

위의 분류에서 그들은 상황이 'thing'으로 전환되었을 때 명사로서 물질명사인지 또는 보통 명사로 사용가능한지에 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episodic situation(이후 ESR로 표기)'은 보통명사화 되어 사용될 수 있는 반면 'steady situation(이후 SSR로 표기)'은 물질명사화 되어 사용된다는 점이 이들의 분류를 통해 확인된다. 한편 이들 두 종류의 구체화현상에서 한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 구체화된 대상은 모두 완전 명사로서 어디에나 자유롭게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예를 보자.

1) Cognitive grammar(2007) p.82

- (4) a. He gave her the help which was really helpful for her.
 b. The help was given to her.
 c. What he gave to her was a good help.
 d. He took help from them and he was deserved to it.
- (5) a. *He gave her a hug which was not expected at all.
 b. *A hug was given to her.
 c. *What he gave to her was a hug.
 d. *He gave her a surprising hug and it

위의 예문(4)에서 EER의 대표적인 예인 'help'는 명사가 올 수 있는 모든 위치에 자리할 수 있다. 관계대명사의 수식(4a), 수동태(4b), what- cleft 구문(4c) 그리고 대명사화(4d) 등 모든 구문에서 자유롭게 올 수 있는 반면에 예문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동사 구문의 탈동사명사 보문은 이들 기능 중 어느 것도 수행하지 못한다. 바로 이점이 경동사구문의 보문에 나타나는 탈동사명사와 R&D의 구체화명사들이 차별되는 점인데 이는 R&D가 분류한 구체화현상으로는 경동사구문의 탈동사명사의 제약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동사구문의 탈동사명사 보문과 같이 명사로서 완전한 기능은 하지 못하지만 제한적으로 명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체화의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하도록 한다.

2.2 탈동사 명사의 구체화

진정경동사구문의 탈동사명사 보문은 행위라는 관계적 표현이 명사로 전환된 것으로서 부정관사 'a'가 사용되어 'bounded'된다는 점에서는 ESR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내적인 구성(internal composition)이 'homogeneous'하다는 점, 그리고 시간적인 면에서 한정되지 않고 자유롭다는 점에서 SSR의 특징을 갖는다. 또한 부정관사 'a'만을 취할 뿐 복수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체명사의 특징을 가진 EER과 물질명사의 특징을 보이는 SSR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6) a. He had a walk/*walk in the garden.
 b. Give a try/*tries.
 c. Mary took a kick/*two kicks.

더군다나 경동사 구문의 탈동사명사 보문은 다른 구체화 명사와는 다르게 각각 형태와 의미가 상응하는 대응 동사구문을 가진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7) a.a quick drink/drink quickly
 b.a long walk/ walk for a distance
 c. *a good help/ help well
 d. ...*a brief advice/advice briefly

대부분의 탈동사명사²⁾는 형태의 변화가 거의 없이(-ing를 제외하고) 예문 (3)의 경우와 같이 여러 가지 지칭표현과 함께 쓰이면서 추상적인 관계표현에서 구체명사로 전환하는 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구분된다.

- (8) a. Joey used to take walks around in Little Italy, Manhattan in New York, but now he's in Sicily. A place literally in Italy! Looks like Joey's starting to live out his dreams as he mentioned this in Birds Eye View.
- b. We had some walk through the Kiasma and some more city centre, first impressions for the city were staring at the old and new buildings in harmony with lots of sculptures in the middle of streets.
- c. Don't worry, it's got no kick to it at all. Remember, don't point that gun at anything you don't intend to fire at.
- d. We still have some swims and the message to the team is that we need to swim 16 sessions - so 14 down, two to go. We have important swims tomorrow morning, that's 15, and we have important swims tomorrow night,...
- e. We had great looks at Yellow Warblers chasing each other and setting up nesting territories...
- f. we spent thanksgiving this year with mr. happy stuff's family. on thanksgiving day, after all the food was consumed and a walk was taken, we did christmas-related crafts (i must take this tradition to all my future thanksgiving get-togethers.

따라서 구체화의 분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구체화의 재분류

3.1 구체화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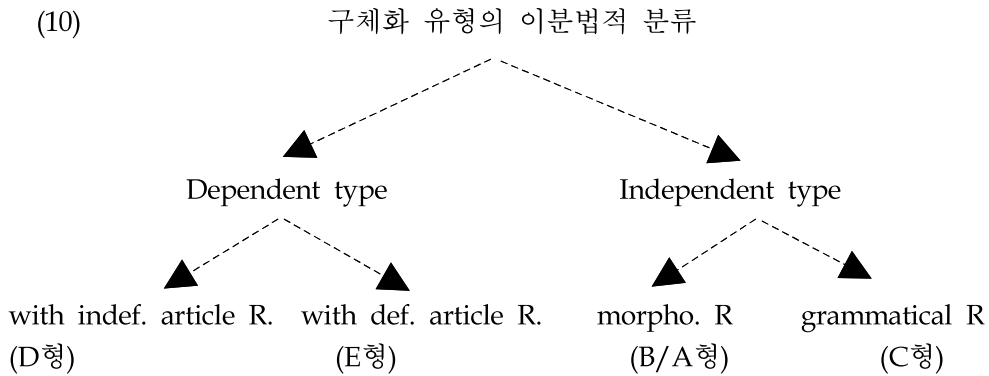
경동사구문의 탈동사 명사 보문이 행위라는 추상적인 관계표현에서 'thing'으로 전환되는 구체화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존의 구체화의 범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인다는 점 또한 지적하면서 구체화의 새로운 분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음은 구체화를 거쳐 'thing'으로 전환되는 명사들의 유형을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 (9) a. A형: adjective/verb ⇔ N 예) help
- b. B형: adjective +s ⇔ N 예) chemicals
- c. C형: a + verb/verb -sion ⇔ a divide/ division
- d. D형: a + pure verb(light verb 구문) ⇔ a walk

2) 경동사구문의 탈동사명사 보문과는 구분되는 특징이지만 구체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특징이다.

e. E형: the +adjective ⇔ the rich

위의 유형들을 이분법적 접근³⁾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구체화의 유형이 명사가 구문에 올 수 있는 환경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2 명사 발생환경

- 1) Referring expression
 - a. the/a + N
 - b. this/that + N
 - c. possessive + N
- 2) countability
 - a. one + N
 - b. N +s
- 3) Modifying expression
 - a. ADJ +N
 - b. N + relative clause
- 4) Quantifying expression
 - a. some/any/no +N
 - b. many/much + N

4. 결론

위의 구체화유형은 경동사구문(have, take 그리고 give)의 탈동사명사 보문과 같이 한정된 형태로만 명사기능을 하는 제한적 명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유형의 탈동사명사보문은 지칭표현으로 부정관사 'a'만을 가질 수 있고 수식어로는 대응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탈동사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상응하는 의미를 가질 경우에만 가능하며 양화사와는 기본적으로 공기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의존적 구체화(dependent

3) 김두식(2014) Binary English Grammar.

reification)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또 다른 경동사구문(make등)의 탈동사 보문은 명사선호환경의 모든 표현과 공기 가능하므로 완전한 명사형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독립형 구체화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의 경동사의 탈동사명사 보문이 추상적인 행위동사와 구체명사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는 점과 두 번째 경동사구문의 보문인 탈동사명사는 완전한 명사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위에 열거한 여러 명사선호 환경과의 공기여부에 따라 구체화의 정도성이 존재한다고 보면 위 두 경동사 구문의 탈동사명사 보문의 차이는 명사의 구체화의 정도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두식, 2014. 『Binary English Grammar』. 종합출판ENG.
- Cattell, R. 1984. *Composite Predicates in English*. North Ryde, Australia: Academic Press.
- Dixon, R. M. W. 1991. *A New Approach to English Grammar, on Semantic Principles*. Oxford: Clarendon Press.
- Dirven, Rene and Gunter Radden, 2007. *Cognitive Grammar*.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 Kearns, K. 2002. Light verbs in English. *Journal of Linguistics* 34, 53-72.
- Langacker, R. W. 1987. *Foundation of Cognitive Grammar, I,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Yespersen, Otto. 1954. *A Modern English Grammar*, vol. 4, New York: Barnes and Noble.

영문초록 요약

Some abstract relational entities can change their category into a noun, including 'a walk' in the light verb construction. The verb 'walk' is converted into the noun with 'a' for the light verb construction. This can be called as REIFIACATION just as Radden & Dirven(2007) says. But there is something different in the construction from the kind of reification type made by Radden & Dirven. That's why we need to make new types of reification for the converted noun in the light verb construction.

The Influences of Musical Aptitude and Musical Training on EFL/ESL Phonetic Learning

Yi, Do Kyong

(Inj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music, in particular musical aptitude and music training, as factors which are relevant to the prediction of success in second or foreign language phonetic learning: music and language, music in language classes, music training and second or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musical aptitude and second or foreign language learning. Many studies show that there is indeed a correlation between music and second or foreign language phonetic learning. This correlation between music training and second language phonetic learning appears to be lower for adults than for children; the playing of a musical instrument does not appear to modify an adult's second or foreign language phonetic learning (Eterno 1961, Harrison 1979, Lowe 1998). Conversely, listening and singing in the language studies appear to promote the learning of pronunciation in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for both adults and children (Anton1990, Tomatis 1991). Therefore, not only is there a possible relationship between musical aptitude and second or foreign language phonetic learning, but also between musical training and second or foreign language phonetic learning. On the basis of this study, it is evident that musical aptitude and musical training are important factors in second or foreign language pronunciation success, especially for children.

1. Introduction

While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for the past 20 years, the author has observed a great difference among students in the same classroom on their phonetic production. Some of these students had very little previous contact with native English speakers, had never lived in an English environment and yet seemed to have a facility for speaking English with little or no Korean accent. Alternatively, other students had studied English abroad and practiced speaking regularly, yet retained a strong Korean accent. Even after many hours of listening laboratory and teamwork practice during the course of one semester, this latter group of students improved only slightly. As expected, the first group of students not only had little difficulty at the outset, but apparently improved with ease. Why would one group of students struggle with the accent of their L1, while the other group learned EFL/ESL pronunciation with apparently very little effort?

This study examines the correlation of music and language and the effect of music, in particular musical aptitude and music training, as factors relevant to the prediction of success in EFL/ESL learning. The author will review 1) previous and ongoing research pertaining to music and language, 2) the role of music in language classes, 3) music training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musical aptitude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2. Music and Language

2.1. Similar Characteristics in Music and Spoken Language

Music and spoken language are aural phenomena and thus have some similar characteristics that can be used in teaching EFL/ESL; the rhythm and melody of the music can be compared to stress and intonation (Arleo 2000). Music and language can be divided into a hierarchical structure; for music, this structure proceeds from the larger constituent of a musical composition to the individual note, and for language, from large discourse units to phonemes. Another similarity, suggested by Arleo, is that they follow a time line. The temporality of music, spoken language and other kinds of performances, such as plays, poetry readings and dance, provides social cohesion by tying the participants together in a bounded collective experience (Arleo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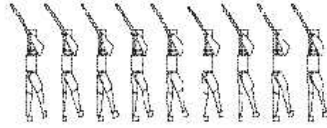
Arleo (2000) explains tha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language there is a speech-song continuum. This continuum starts with speech, then moves on to heightened speech (storytelling, poetry recitation), then to chants (chants, children's rhymes), and finally to songs that he describes as a hybrid between language and music.

Mora (2000) also believes that music and language have several characteristics in common, such as sounds, messages, and exposure. Mora (2000) states that music and language share several features. Both stem from the processing of sounds; on the other, both are used by their authors/speakers to convey a message. On another level, music and language have intrinsic features in common, such as pitch, volume, prominence, stress, tone, rhythm, and pause. No language can be acquired without oral or written input, and in a similar fashion we acquire our notions of music from what we hear around us.

2.2. Stressed-timed Languages vs. Syllable-timed Languages

There are approximately 6800 languages in the world. Many of them are syllable-timed, which means each syllable has the same length. Examples of syllable-timed languages are French, Spanish, Chinese, Japanese, Vietnamese and Korean. Each syllable is more or less the same length as other syllables. The more syllables there are, the longer it takes to utter. The rhythm of a syllable-timed language can be as be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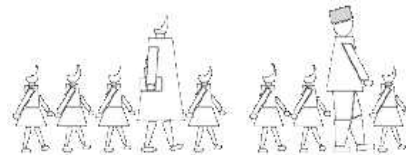
duh - duh - duh - duh - duh - duh



Many of the people who use those syllable-timed languages believe that they need to pronounce each word fully and clearly in order to be well-understood. In English that is actually not the case.

English is a stress-timed language. The syllables are not similar in length or duration; some are very short while others are very long. The rhythm of English can be described as below:

duh - DUH - duh - DUUUH - duh
 or duh - duh - DUUUH
 or duh - DUUUH - duh



In English, the amount of time it takes to speak something does not depend on the number of syllables while Korean, a syllable-timed language, depends on the number of syllables.

For example:

- Dogs chase cats.(1)
- The dog chases cats.(2)
- The dog chases the cats.(3)
- The dog will chase the cats.(4)
- The dog will be chasing the cats.(5)

The first sentence (1) is consisted with three syllables and they get longer as they add more syllables. However, the amount of time each sentence takes to utter is the same because all of the sentences have three stressed syllables. Making a nice shape in stressed syllables is giving the meaning of the sentence. This means that other syllables need to be unstressed - flatter, quicker - so that the stressed syllables are what the ear goes to. This is why it's so important to reduce function words that can reduce in American English. This is why stress is very important in American English

3. The Role of Music in The Language Classes

Although most teachers make an attempt to introduce some variety in the language class, nevertheless many consist of drill, short dialogues and repetition. EFL/ESL instruction involves a great deal of drill and repetition. Because music allows repetition in a pleasant manner for the student, it has a great importance in a language class (Gulielmino 1986). According to Gulielmino, not only does music alleviate the boredom of drills and repetitions, it also accommodates the different learning styles of many of the students. Music allows students, even those with no musical aptitude, to learn vocabulary in a pleasant manner. Students, children as well as adults, after learning a new and popular song, can continue to practice their vocabulary by singing the song in or out of the classroom.

Pinel (1990) agrees with Foster (1993) and Arleo (2000) that music is a motivational factor. In order to motivate anyone, child or adult, to want to learn a new skill, one starts with a known element. Music is an ideal vehicle since hearing is the first of the senses to develop, and a child is naturally interested in rhythm and musical sounds (Pinel 1990). Pinel also explains that songs can relieve the tedium associated with repetitive skill, since students often continue singing or humming a song even after school. This will, according to Pinel, develop aural and oral skills, and after a certain time, this repetition will generate "auditory retention". Music also develops "auditory perception and discrimination", vocabulary and cultural enrichment. By listening to a song, children will become acquainted with the pronunciation and rhythm of the singer; they will be encouraged to learn a new vocabulary and, if the songs are well chosen, a new culture.

4. Music Training and EFL/ESL Learning

If, as stated by Pinel (1990), listening to songs in a EFL/ESL class facilitates the improving of auditory discrimination, it could be assumed that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or singing in a choir also enhances auditory discrimination by improving the acuity of the student's ear.

Lowe (1998) studies two classes of Grade 2 French-immersion students, one class with music lessons integrated into the second-language course and the other class without integrated music lessons. The group receiving the music lessons performed significantly better in music, as would be expected, as well as in oral grammar and reading comprehension tests of French.

Harrison (1979) tests 83 Grade 8th students in her French clas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erformance of students who were practicing music and students who were not practicing music in the acquisition of French as a second-language. The results show that the students who had music training were generally more successful French pronunciation-discrimination and pronunciation-

performance than those students who had not.

The studies by Lowe (1998), Harrison (1997), and Etrno (1961) show that musical training has a correlation with second-language acquisition for children. Nevertheless, the findings by Stokes (2001) show this not to be the case for adults.

The discrepancy in the correlation between music training and ESL/EFL learning for children and adults requires further investigation. Perhaps at a younger age musical training might have a greater influence on a developing auditory system, whereas for adults this capacity has already been developed, if this training was received when they were already adults.

5. Musical Aptitude and EFL/ESL Learning

Purcell & Suter (1981) study 20 variables for predicting the acquisition for English pronunciation by non-native speakers. Four factors were correlated with pronunciation accuracy: L1, aptitude for oral mimicry, residency, and the extent to which the speaker was concerned with L2 pronunciation. Among these four factors, oral mimicry is the most relevant to this study. Aptitude for oral mimicry seems beyond the control of the instructor; it is doubtful that one can make a good mimic out of a naturally poor one. This seems to match the common view that some people simply have a better "ear" for pronouncing languages, and that there is not a great deal language teachers or learners can do about it. (Purcell & Suter 1981).

Although musical training appears to be related to success in ESL/EFL learning, it is of the utmost importance to discriminate between musical aptitude and musical training, since, as stated by Jacobsen and Imhoof (1974), musical training is not always related to musical aptitude. Some people might study music for a very long time, improve their musical achievement, and yet remain interior to others who have never studied music but who have a greater aptitude for musical perception, discrimination and production. Jacobsen & Imhoof (1974) tested certain factors that might help predict the success that a student learning Japanese as a second language will achieve. Six hundred missionaries who were in Japan, and had studied Japanese intensively for at least two years, were evaluated on the basis of six extra-linguistic factors: multi-linguality, semantic space sensitivity, adaptation to Japan, formal education, musical training and the introduction of *kanji*. The results show that musical training is a factor that was not found to be a correlate to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Jacobsen & Imhoof (1974) remind us that "musical background is not necessarily to be equated to musical ability". In their study it was also suggested that pitch discrimination might not be a significant factor for all languages; it might not be overly important for the acquisition of Japanese, but could be of greater importance for another "more musical" language. Japanese is one of those syllable-timed languages.

In 1961, Etrno tests students in the 6th, 7th, and 8th grades to determine if a relationship exists between musical aptitude and ESL/EFL learning. Using the Conn

Musical Aptitude Test, which tests rhythm chords, vision and mathematics; the students were tested by a music teacher and were awarded points from 1 to 5. The students were then trained in Spanish pronunciation and subsequently asked to repeat sound pronounced by the teacher and to read certain words. Again, they were graded from 1 to 5. The scores for music and Spanish were then compared; they revealed that 59.6% of 6th graders, 60% of 7th graders and 76.7% of 8th graders had equivalent scores for music and Spanish. Furthermore, of the 6th graders who had an above average Spanish score, 57.2% had played a musical instrument for a year or more. The equivalent percentages for the 7th and 8th graders were 71.4% and 90%, respectively. Therefore, not only is there a possible relationship between musical *aptitude* and ESL/EFL learning, but also between musical *training* and second-language acquisition. On the basis of this study, it is evident that musical aptitude and musical training are important factor in foreign language pronunciation success.

6. Conclus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musical aptitude in relating to musical training is the reason why some students learn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easily whereas other students struggle while learning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and achieve little success. The studies reviewed reveal that there is indeed a correlation between music and EFL/ESL phonetic learning as they share similar characteristics. Many researchers and teachers agree that music in the classroom will improve auditory skills, which could be relevant to learning proficiency (Pinel 1990), and that musical training improves the auditory capacity of children, and thus their second or foreign language phonetic learning (Tomatis 1991). This correlation between music training and ESL/EFL learning appears to be lower for adults than for children; the playing of a musical instrument does not appear to modify an adult's second or foreign language learning (Lowe 1998, Harrison 1979, Eterno 1961). Conversely, listening and singing in the language studies appear to promote the learning of pronunciation in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learning for both adults and children (Tomatis 1991, Anton1990).

REFERENCES

- Anton, R. (1990). "Combining singing and psychology." *Hispania* 73: 1160-1170.
- Arelo, A. (2000). "Music, song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Les Cahiersdel 'APLIUT* 19:5-19.
- Bancroft, W. (1982). "The Tomatis method and Suggistopedia: A comparative study."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Accelerative Learning and Teaching, 7th*, Colorado, April 30-May2.
- Besson, M. (1998). "Meaning, structure and time in language and music." *Cahier de*

Psychologie Cognitive 17:921-950.

- Deutsch, D. (1991). "The tritone paradox: an influence of language on music perception." *Music Perception* 8: 335-347.
- Eterno, J. (1961). "Foreign Language Pronunciation and Musical Aptitude" *Modern Language Journal* 45: 168-170
- Foster, M. (1993) "Suivez le rythme." *Le Francais dans le Monde*. 261: 58-63.
- Guglielmino, L. (1986). "The affective edge: using songs and music in ESL instruction". *Adult literacy and basic education*. 10: 19-26.
- Harrison, N. (1979). "A study to find out if a correlation exists between the study of music and aural-oral ability in French." *M.A.T. of F. Simon Fraser U*.
- Jacosen, M. & Imhoof, M. (1974). "Predicting success in learning a second language." *Modern Language Journal*, 58: 329-336.
- Karimer, L. (1984). "Can southeast Asian students learn to discriminate between English phonemes more quickly with the aid of music and rhythm?" *Language Key to Learning* 5: 41-48.
- Lowe, A. (1998). "L'enseignement de la musique et de la langue seconde: pistes d'integration et consequences sur les apprentissages".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4: 218-238.
- Palmer, C. & Kelly, M. (1992). "Linguistic prosody and musical meter in song."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 525-542.
- Peretz, I., Pate, A. Tramo, M. & Labreque, R. (1998). "Processing prosodic and musical patterns: a neuropsychological investigation." *Brain and Language* 61: 123-144.
- Pinel, S. (1990). *Learning French through music*. Ottawa: Canadian parents for French.
- Purcell, E. & Suter, R. (1981). "Predictor of pronunciation accuracy: a reexamination". *Language Learning* 30: 271-287.
- Stokes, J. (2001). "Factors in the acquisition of Spanish pronunci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31-132: 63-84.
- Tomatis, A. (1991). *Nous sommnes tous nes polyglottes*. Paris: Fixot. 1991.

제2발표

From Phrase Structure Rules to Label Algorithm

Kiyang Kwon

(Youngsan University)

I . Introduction

Traditionally, the concept of labeled phrase structure has been developed from the theory of phrase structure grammar (PSR). Later, PSR is reduced to the X-bar theory (Chomsky 1970, 1981, 1986a,b, Jackendoff 1977). Phrase structure properties in the X-bar theory capture the followings: linear order, categorial information including labeling and projection, hierarchical relations, and category distinctions (Chomsky 1986a). The compositional structure of human-language expressions evolves into Merge under early Minimalism (Chomsky 1995a,b). Chomsky (2000, 2001, 2004, 2005) assumes that determination of the head of a set-theoretic object $\{X, Y\}$ correlates with selectional or probe-goal dependency between X and Y . Chomsky (2008) puts forward the labeling algorithm¹⁾ in order to detect the headedness. Furthermore, Chomsky (2013) suggests that labeling is the process of finding the relevant information of $\{X, Y\}$ generated by simplest Merge and labeling is just minimal search.

In this paper, we will consider the properties of two types of labeling. One is labeling through movement in Chomsky (2013), and the other is labeling through Transfer in Narita (2011) and Takita (2014). Pointing out the flaws of two types of labeling, we will suggest the interactive approach between two types of labeling as follows: First, following Chomsky (2013), Narita (2011), and Takita (2014), we will assume that there is no merger of two phrasal SOs, that is $\{XP, YP\}$. Second, we assume a strict spell-out by each labeling operation, not a cyclic spell-out by phase in Chomsky (2000). Finally, following Narita (2011) and Takita (2014), labeling makes elements within the interior of the labeled phrase inaccessible to further syntactic operations. Under our proposals we will show that the motivation of the possessor-raising in an Inalienable Possessor Constructions (IPC) in Korean can be explained by labeling through movement and the object scrambling cannot be allowed in IPC, due to a strict spell-out labeling of the object.

1) Chomsky (2008:145) states the labeling algorithm as follows:

- a. In $\{H, \alpha\}$, H an LI, H is the head.
- b. If α is internally merged to β , forming $\{\alpha, \beta\}$ then the head of β is the head of $\{\alpha, \beta\}$.

II. Two Types of Labeling

1. Labeling through Movement

In this section, we will review the Merge-based system with labeling through movement in Chomsky (2013) and its problems. Chomsky (2013) argues that Merge is an elementary operation that combines two syntactic objects(SOs) into a set as in (1). Chomsky (2013) calls this simplest Mer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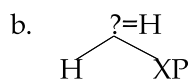
$$(1) \text{ Merge}(X, Y) = \{X, Y\}$$

In (1), if neither X nor Y is part of the other, it is called External Merge(EM), and if either X or Y is part of the other, it is called Internal Merge(IM). Outputs of Merge are simply sets with no label or order. Thus, we may face the following question under the simplest Merge-based system. How can syntactic objects be labeled or ordered?

As for this question, Chomsky (2013:45) suggests four assumptions. First, all SOs that reach the interfaces must be labeled. Second, a label is required for interpretation at the interface. Third, for SOs to be labeled, there is a fixed labeling algorithm(LA) that licensed SOs so that they can be interpreted at the interfaces. Fourth, LA is just minimal search as in Agree and the relevant information about SO is provided by a single designated element within a lexical item(LI), a head. Thus, given $SO = \{X, Y\}$, H a head and XP not a head, the label of the SO is the label of H, because H is a single designated element within it, as shown in (2).

(2) Labeling by minimal 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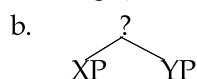
a. Merge(H, XP)



One potential problem with LA is that it cannot determine a label of $SO = \{XP, YP\}$. Neither is a head, and minimal search is ambiguous, so the label of the SO is not determined, as in (3).

(3) Undetermined Labeling by minimal search

a. Merge(XP, YP)



In order to solve this labeling problem, Chomsky (2013:43) proposes two ways in which the SO can be labeled:

- (4) a. {XP, YP} can be labeled by **raising** either XP or YP so that there is only one visible head.
 b. {XP, YP} can be labeled by **sharing prominent features** of XP and YP.

Under (4a), the relevant SO is labeled as follows:

- (5) Labeling through movement
 a. [_? XP, YP] → b. XP_i ... [_? t_i YP] → c. XP_i ... [Y t_i YP]

Given that the lower copy of XP is “invisible” to minimal search, the label of the only visible element YP counts as the label of the SO. Under (4b), on the other hand, the SO is labeled as follows:

- (6) Labeling through feature-sharing
 a. [_? XP_[F], YP_[F]] → b. [_F XP_[F] YP_[F]]

If XP and YP share a prominent feature F as in (6a), then LA can take it to be the label of the SO: hence the SO is labeled F as in (6b). Chomsky (2013:45-46) suggests that this option operates on final landing sites of movement or criterial positions in the sense of Rizzi (2006), giving rise to Q-feature agreement and ϕ -feature agreement.

Now, we will consider the advantages of labeling through movement in Chomsky (2013). First, note that (4a) operates on {XP, YP} structures involving obligatory IM of one of XP or YP, as noted in Chomsky (2013:45-47). Thus (4a)’s relevant constructions are given in (7).

- (7) a. small clauses: {XP_i, BE {t_i, YP}}
 b. the predicate-internal subject construction: {Suj_i, T, {t_i, vP}}
 c. successive-cyclic wh-movement: {Wh_i, C, {t_i, CP}}
 d. ECM constructions: {ECM-Subj_i, ECM-V, {t_i, TP}}
 (quoted from Goto 2013:103)

First, we will consider how minimal search finds the label in the subject raising construction in (7b)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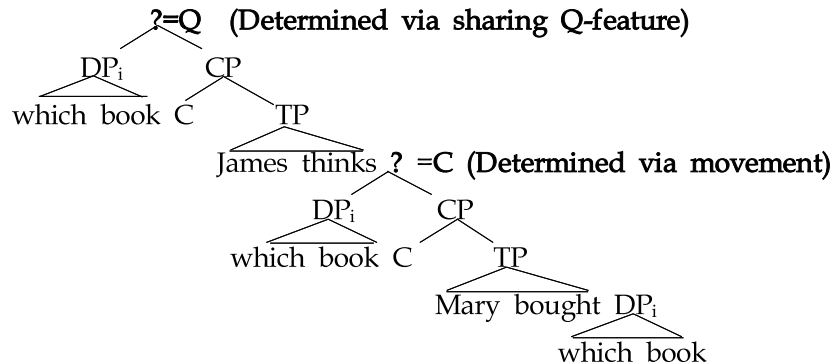
- (8) a. The boy likes the girl.
 b.
-
- $?$ = ϕ (Determined via sharing ϕ -feature)
 DP_i TP
 the boy T $?$ = v (Determined via movement)
 DP_i vP
 the boy v VP
 likes the girl

In the case of $SO_i = \{DP, \{v, VP\}\}$ of (8b), minimal search is ambiguous, locating two relevant heads, N and v . Left as it is, labeling fails and Full Interpretation is violated at CI. One way to label SO_i is to raise NP to a higher position, which yields $SO_j = \{NP, \{T, \{DP, \{v, VP\}\}\}\}$. Since the lower copy of DP is invisible when minimal search conducts a search for the label of $\{DP, \{v, VP\}\}$, it sees only $\{v, VP\}$. Thus, minimal search finds the only visible head v as the label of SO_i . Turning to SO_j , it is the form of $\{XP, YP\}$. Chomsky (2013) assumes that the ϕ -feature shared by the two relevant heads N and T can be the label of SO_j under the (4b).

Second, we will consider how minimal search finds the label in the successive-cyclic wh-movement in (7c) as follows:

(9) a. I wonder which book James thinks Mary bought.

b.



In (9b), after wh-DP is internally merged to the Spec of the embedded C, the embedded clause is the form of $\{XP, YP\}$. The embedded C bears no Q-feature, there is no prominent feature shared by the embedded CP and wh-DP. If wh-DP remains in the intermediate position, minimal search cannot find the label of $\{\text{the embedded CP, wh-DP}\}$. If the wh-DP raises to a higher position, then minimal search can find a visible head, namely C as the label of $\{\text{the embedded CP, wh-DP}\}$. Notice that the matrix clause is also a form of $\{XP, YP\}$. However there is a sharing Q-feature between the matrix C and wh-DP, hence, Q-feature can be the label of $\{\text{the matrix CP, wh-DP}\}$.

Third, Epstein, Kitahara & Seely (2013) argue Merge over Move phenomena (MoM) can be explained by labeling through movement as follows:

(10) a. *There is likely [$_{\alpha}$ a man $_i$ to be t_i in the room].

b. There $_i$ is likely [$_{\alpha}$ t_i to be a man in the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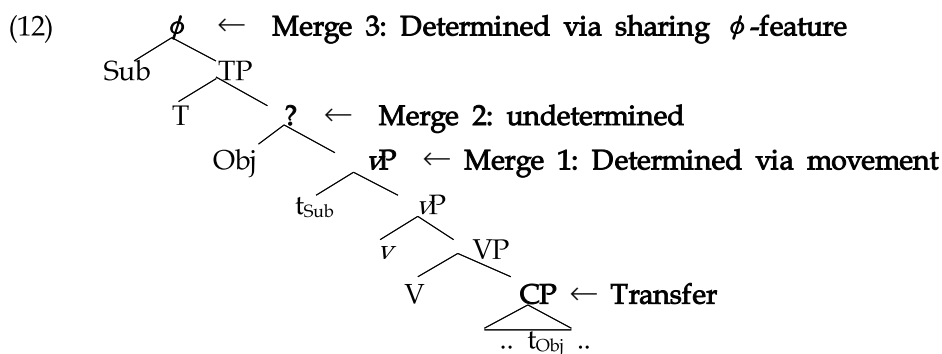
If *a man* in (10a) raises to form the embedded clause α and remains there at CI, then minimal search cannot find the label of α , because α is of the form $\{XP, YP\}$, and there is no prominent feature, shared by X and Y. If *there* is inserted to form the embedded clause α as in (10b), then α is a unlabeled $\{XP, YP\}$ because *there* is XP and *there* and infinitival raising T do not share ϕ -features. Thus, if *there* undergoes

further movement, then minimal search finds the only visible head T as the label of α . Thus, Epstein, Kitahara & Seely (2013) assume that MoM can be eliminated under labeling through movement.

Fourth, Goto (2013) argues that labeling through movement can explain the scrambling phenomena in Japanese. According to Goto (2013), unlabelable {XP, YP} can explain the ban on long-distance scrambling to a sentence-medial position. Consider the following examples.

- (11) a. Taroo-ga minna-ni [_{CP} Hanako-ga sono hon-o mottei-ru to] it-ta.
 Taroo-nom all-to Hanako-nom that book-acc have-pres that say-past
 ‘Taroo said to all [that Hanako has that book]’
- b. Sono hon-o_i Taroo-ga minna-ni [_{CP} Hanako-ga t_i mottei-ru to] t-ta.
 that book-acc Taroo-nom all-to Hanako-nom have-pres that say-past
 ‘That book_i, Taroo said to all [that Hanako has t_i]’
- c. ??Taroo-ga *sono hon-o* minna-ni [_{CP} Hanako-ga t_i mottei-ru to] t-ta.
 Taroo-nom that book-acc all-to Hanako-nom have-pres that say-past
 ‘Taroo, that book_i, said to all [that Hanako has t_i]’
- (Saito 1985:267, quoted from Goto 2013:106)

(11b) is derived from (11a) by long-distance scrambling of the embedded object *sono hon-o* ‘that book’ to the sentence-initial position. Saito (1985) observes that the sentence becomes marginal if a phrase has undergone long-distance scrambling to a sentence-medial position, as in (11c). Goto (2013) suggests that the marginality of (11c)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intermediate step is of the form of {XP, YP}, yielding an unlabelable {XP, YP} structure that cannot be interpreted at the interfaces. To be concrete, we will consider the derivation of (11c), as follows:²



In (12), the embedded finite CP undergoes Transfer in terms of a phase theory of Cyclic Transfer upon Merge with the matrix *v* head. Merge 1 and 3 yield the unlabelable {XP, YP} structures, i.e., {t_{Sub}, vP} and {Sub, TP}, but they are eventually labeled vP and φ-feature through Sub-raising and φ-feature agreement, respectively.

2) Sub = *Taroo-ga*, OBJ = *sono hon-o* ‘that book’

Hence, the SOs created by Merge 1 and 3 are unproblematic for labeling. The problematic structure is the one given by Merge 2. Here, the form of $\{\text{Obj}, \nu\text{P}\}$ is created, but it won't be able to receive a label, because Obj is stuck in the edge of the ν head, a position in which neither movement nor Agree can participate; hence the SO remains to be invisible to LA, ruled out at the interfaces as an unlabeled structure without interpretation: $*\{\text{Obj}, \nu\text{P}\}$. Thus (11c) is marginal. If Obj raises as in (14b), then the SO is labeled νP . This is exactly for the grammatical example in (11b), where IM of Obj is forced by the need to label the SO.

2. Problems of Labeling through Movement

Now we will consider the problems of labeling through movement in Chomsky (2013). First, according to Chomsky (2013: 46), the idea of labeling through movement provides a motivation for apparently unmotivated movements, for instance, raising from a predicate-internal subject in (7b) and successive-cyclic wh-movement in (7c). However, Takita (2014:9-10) argues that there must be another requirement regarding the motivation of the initial step of movement, as shown in (13).

- (13) a. Which book did James buy?
 b. $[_{\text{CP}} \text{which book } C [_{\text{TP}} \text{John}_i T [_{\nu\text{P}} \text{which book } t_i \nu [_{\text{VP}} \text{buy which book}]]]]$

In (13b), what motivates the movement of *which book* to the νP -edge from the base position? The label of $\{\text{buy}, \{\text{which book}\}\}$ can be determined via minimal search because *buy* is a head, hence the labeling problem cannot motivate the movement. This means that movement of *which book* to νP -edge requires a motivation other than labeling. Thus, since we must need other principles for the motivation of the movement of *which book* to the νP -edge. Chomsky's (2013) idea that labeling triggers movement requires the additional condition.

Second, as suggested in Takita (2014:10-11), it is not clear exactly how the idea that movement is motivated by labeling accommodates to the copy theory of movement. Consider the small construction in (14).

- (14) a. The student_i seems $[_{\text{SC}} t_i \text{good at math}]$
 b. $[_? \text{XP YP}] \rightarrow \text{XP}_i \dots [_{\text{Y}} t_i \text{YP}]$
 c. $[_? \text{XP YP}] \rightarrow \text{XP} \quad [_{\text{Y}} \langle \text{XP} \rangle \text{Y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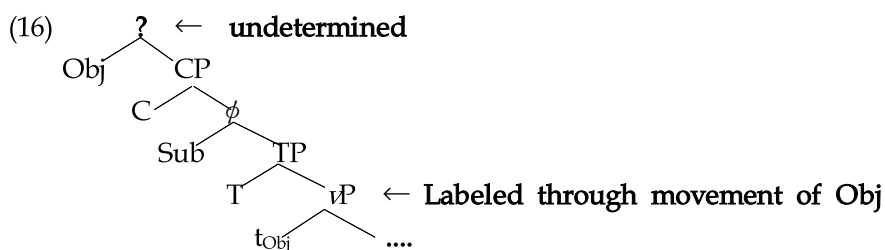
The label of small clause in (14a) is determined via movement of DP, *the student*. Considering the relation between labeling through movement and the copy theory, the trace t_i in (14b) is in fact a copy of XP under the copy theory of movement. Even though XP has moved out of the SO, some additional assumption is required so as to render the lower copy invisible to labeling. Therefore, we must need the additional assumption that the lower copy is invisible to minimal search. However, we can find

the evidence for visibility of lower copies to agreement in Icelandic dative subject constructions in (15).

- (15) a. Mér virðast t_{NP} [hestarnir vera seinir]
 me.Dat seem.Pl the.horses.Nom be slow
 ‘It seems to me that the horses are slow’
- b. Þæ virðist/*virðast **einhverjum manni** [hestarnir vera seinir]
 Expl seem.3Sg/seem.Pl some man.Dat the.horses.Nom be slow
 ‘It seems to some man that the horses are slow’
- c. Hvaða manni veist Þú að virðist/*virðast t_{wh} [hestarnir
 which man.Dat know you that seem.3Sg seem.Pl the.horses
 vera seinir]
 be slow
 ‘To which man do you know that the horses seem to be slow’
- (Holmberg and Hróarsdóttir 2003:998)

Following the observation in Holmberg and Hróarsdóttir (2003), the contrast between (15a) and (15b) indicates that when the dative subject is raised, the matrix verb and the embedded nominative subject can agree, while agreement is blocked if the dative subject remains in-situ. (15c) indicates that a trace of wh-movement blocks the relevant agreement relation, unlike that of NP-movement. There are thus certain cases where a trace is visible to agreement. Hence, we may point out that the system of labeling through movement must have the distinguished device to exclude the visibility of copy or trace to agreement, as shown in (15).

Third, Goto (2013:109) points out a potential problem in Chomsky (2013), suggesting the following question: how can $\{XP, YP\}$ in (12) at the edge of root CP be labeled? That is, how should the whole structure be treated under the situation where neither IM nor Agree can apply anymore, as shown in (16)?



Fourth, Goto (2013:109) wonders why intermediate $\{XP, YP\}$ in (17) can circumvent the labeling problem in the following scrambling in Japanese?

- (17) Taroo-ga **sono hon-o**_i Hanako-ni t_i watasita.
 Taroo-nom that book-acc Hanako-to handed
 ‘Taroo, that book_i, handed t_i to Hanako.’

In (17), the bold-faced intermediate SO resides in the position in which neither movement nor Agree applies. Hence, LA is not invoked and the SO is not labeled. Thus, (17) is wrongly expected to be ungrammatical since unlabeled intermediate {XP, YP} structures cause problems for interpretation, contrary to the fact.

Fifth, according to labeling through feature-sharing in (6), the ϕ -features between the raised subject and T are visible to minimal search for labeling. However, the sharing ϕ -features on T constitute uninterpretable features, receiving no legitimate interpretation at SEM and violating Full Interpretation (FI). Typically, it is assumed that unvalued features are uninterpretable and should be deleted immediately upon valuation by Agree (Richard 2007, Chomsky 2007, Narita 2011). Thus, if minimal search is conducted before Agree, then ϕ -features on T are unvalued, and hence they are unable to determine the label, violating FI. On the other hand, if minimal search is induced after Agree, the ϕ -features on T are deleted upon valuation, and hence they are invisible to labeling. Thus we face the question: how can minimal search find the valued ϕ -features between the raised subject and T at any point of derivation?

Finally, as noted in Chomsky (2013:fn 36), when minimal search finds the label of {XP, YP} in (7), we may open the question of determinacy of IM: why XP must raise, while YP does not. According to Ott's (2012:29-30) observation, movement of NP from {DP, NP} yields a standard split topic configuration of German, while fronting of DP from {DP, NP} induces ungrammaticality, as shown in (18).

- (18) a. *zwei Eichhörnchen hat Peter nur [~~zwei Eichhörnchen~~ Nagetiere] gesehen.
 two squirrels has Peter only rodents seen
 b. Nagetiere hat Peter nur [zwei Eichhörnchen ~~Nagetiere~~] gesehen.
 rodents has Peter only two squirrels seen
 'As for two squirrels, Peter has only seen two squirrels o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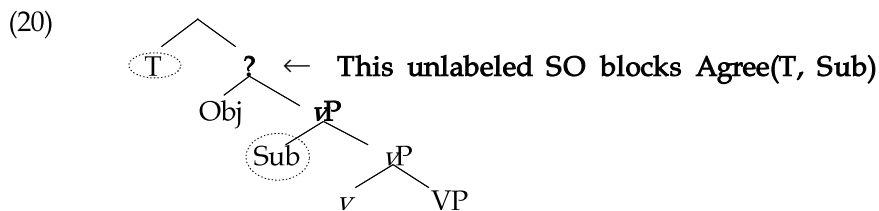
According to Chomsky (2013), since the SO={*zwei Eichhörnchen, Nagetiere*} 'two squirrels, rodents' is the form of {XP, YP}, the XP *zwei Eichhörnchen* 'two squirrels' must raise to a higher position in order for minimal search to find a visible head, as noted in (7). However, note that while the raising of XP *zwei Eichhörnchen* 'two squirrels' is ungrammatical as in (18b), that of YP *Nagetiere* 'rodents' is grammatical as in (18a). Thus, we are required to find another explanation of the obligatory movement of XP, when minimal search finds the label of {XP, YP} in (7), since there is a case that the movement YP may occur such as split topic construction in German.

3. Labeling through Transfe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labeling through movement in Chomsky (2013), Goto (2013) suggests the following assumptions.

- (19) a. Labels are necessary for {XP, YP} structures at intermediate positions, but unnecessary for ones at the edge of root CP.
 b. Labels are not required for interpretation at the interface; instead they are required for Agree.
 c. Merge is an unconstrained operation that can apply to any SOs, but Agree is constrained.

Given this, Goto (2013) argues that this proposal can remove the potential flaws in Chomsky (2013). The unlabeled {XP, YP} structures in (11c) do not cause problems for interpretation, because a label is not required for interpretation. Instead, unlabeled {XP, YP} structures cause problems for Agree. Under Goto's proposal, reconsider the derivation of (11c)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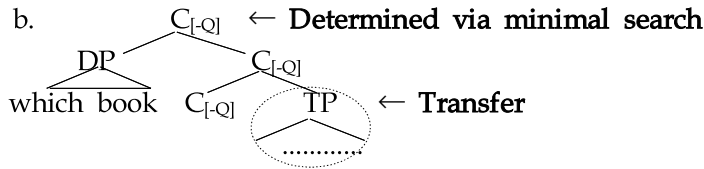


In (20), the unlabeled {Obj, vP } structure blocks Agree between the finite T head and the in-situ Sub at SPEC- v , and hence the sentence becomes marginal since uninterpretable ϕ -features on T and the uninterpretable Case feature on Sub remain unchecked. Thus, Goto (2013) argues that adapting (19) removes the flaws in Chomsky (2013) and provides a principle explanation to the facts. However, we can note that Goto's (2013) strategy in (20) involves the problem in that Sub stays in situ. In this case, we wonder how the {Sub, vP } structure is labeled without recourse to Sub-raising.

Following Narita (2011), Goto (2013:113) argues that the Transfer operation can have the key to solving this question. Given this proposal, we will reconsider the derivation in (20). By transferring the complement of the v head (VP), it follows that only the v head and Sub at the edge remain in the derivational space: SO={Sub, v }. Since this is an instance of {H, XP}, LA can select v as the label of the SO. Hence, under the Transfer, the {Sub, vP } structure can be labeled without appealing to labeling through movement. Thus, Goto (2013:113) concludes that SO={Sub, v } is labeled v appropriately through VP-Transfer, and it does not block Agree between T and Sub, maintaining that it is the intermediate unlabeled {Obj, vP } structure that causes problems for the relevant Agree. This indicates that Transfer can reduce at least one of XPs to a simple SO, as suggested in Narita (2011).

Interestingly, Takita (2014) proposes that Transfer provides a novel way of determining a label of unlabeled syntactic objects, eliminating unnecessary complications in Chomsky (2013). Consider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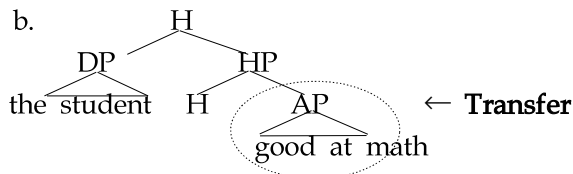
(21) a. Which book did James buy?



Extending Narita (2011) and Goto (2013), Takita (2014) assumes that the SO $\{C_{[-Q]}, TP\}$ is changed into a single head $C_{[-Q]}$ as a result of the Transfer applying to TP as in (21b). Then, the label of the resulting SO $\{C_{[-Q]}, TP\}$ can be determined in the same way as in $\{H, XP\}$ structure. Given this, Takita (2014:13) extends labeling through Transfer to structures of small clauses and *there*-constructions.

First let's consider small clauses constructions in (22). Under the analysis of several researchers (Kitagawa 1985, Bowers 1993), Takita (2014:14) assumes that there must be a functional head in small clauses that introduces a small clause predicate and its subject, as in (2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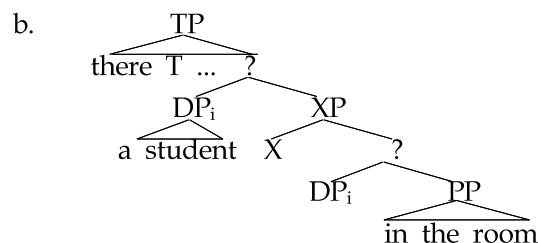
(22) a. The student seems $[t_i$ good at math]



According to Chomsky (2013), the label of small clause can be determined by movement of *the student*. However, since Takita (2014) does not assume labeling through movement, the label of small clause seems to be undetermined. If the head H in (22b) is a phase, the label of small clause can be determined as H, because the $SO=\{H, AP\}$ is changed into a single head H, as a result of Transfer process applying to AP as in (22b). Furthermore, Takita (2014:15) argues that his proposal offers the reason why H in small clause is a phase-head; otherwise Transfer is not possible, and hence the label of the small clause remains undetermined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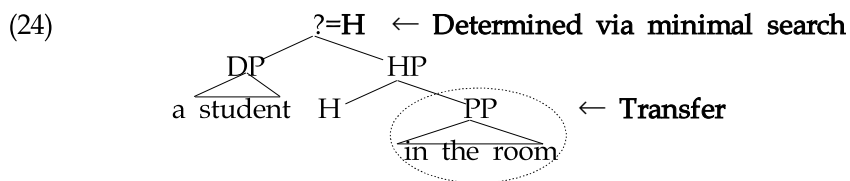
Second, we will consider *there*-constructions in (23).

(23) a. There is $[[DP$ a student] $[PP$ in the room]]



3) For Chomsky (2013), note that movement offers a way of determining the label of the small clause in (22b), no matter whether H is present or not.

Under the labeling through movement, the label of {DP, PP} in (23a) cannot be determined unless the DP moves. If so, how can the subject remain in-situ in *there*-constructions like (23a)? Suppose that the subject undergoes the movement as in (23b). The labeling problem for {DP_i, PP} can be resolved, but there must occur feature-sharing between the DP *a student* and XP in order for the label of {DP, XP} to be determined, but it is not unclear what is shared. Therefore, the labeling through movement cannot explain the label of {DP, PP} in (23a). However, the label of {DP, PP} in (23b) can be determined by the labeling through Transfer,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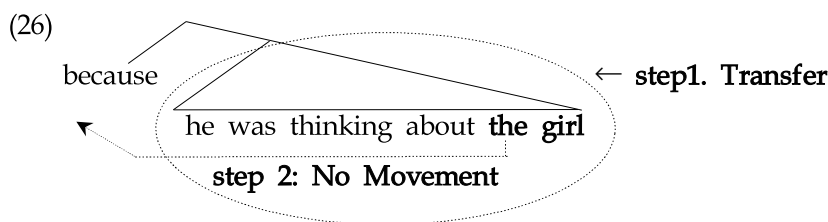


In (24), Transfer is triggered by H, and hence the label of SO {DP, PP} can be determined as H, because the SO {DP, PP} is changed into a single head H as a result of Transfer process applying to PP as in (24). Following these explanations, Takita (2014:18) argues that since labeling through Transfer is a case of labeling by minimal search, it follows that labels of SOs can be determined by feature-sharing in (4b) and minimal search in (2), not by the movement in (4a).

According to Narita (2011, 2012, 2013), labeling through Transfer can explain the island effect for adjuncts (see Huang 1982, Chomsky 1986, Uriagereka 1999)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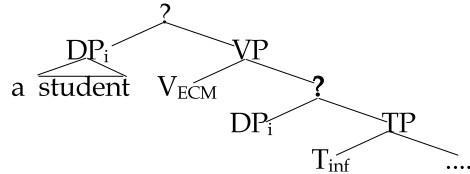
- (25) a. *This is the girl_i that John failed the test [because he was thinking about t_i].
 b. *I know what_i the man criticized Mary [after she said t_i].

Following the assumption that *because* is the relevant phase head, Narita (2011) argues that adverbial clauses are phrasal, so external merger of an adverbial clause and the main clausal spine would count as an instance of the unlabeled {XP, YP} structure. Thus, labeling through Transfer makes this unlabeled {XP, YP} transfer YP, and the adverbial *because*-clause is reduced to an LI. The idea that all movements from the transferred YP are illegal supports the adjunct island effect of (25), as follows:



However, the labeling through Transfer in Goto (2013) and Takita (2014) can not explain ECM-constructions without the idea of labeling through movement, because that infinitival T in ECM-constructions is not a phase-head as follows:

- (27) a. John believes the student to be smart.
 b.



In (27b), since T in ECM-constructions is not a phase-head under the standard assumption, the SO={DP, TP} can not be changed into a single H under the labeling through Transfer in Takita (2014). Thus we have cases where labeling through movement is considered to be required in ECM-constructions as in (27b).

III. Strict Spell-Out by Labe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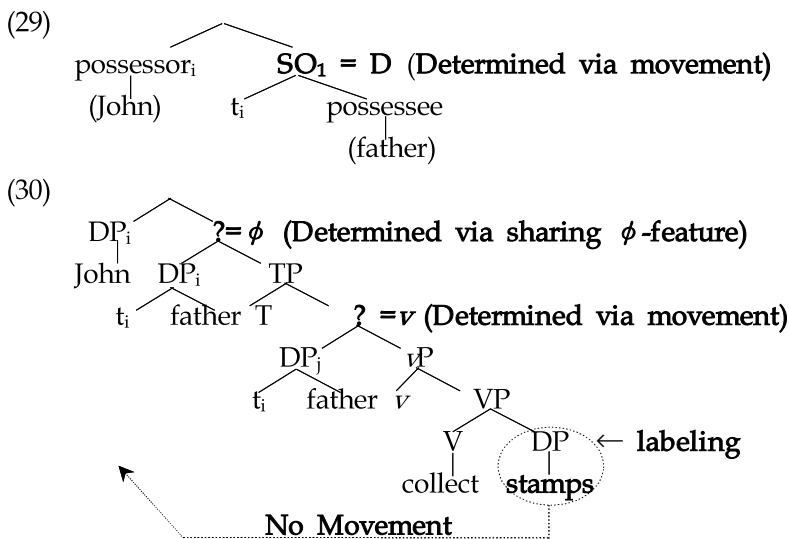
In section 2, we have considered the properties of the labeling through movement in Chomsky (2013), and the labeling through Transfer in Narita (2011) and Takita (2014). In this section, we will propose the interactive approach between two types of labeling. To ensure it, we will suggest three assumptions. First, following Uriagereka (1999), Chomsky (2013), Narita (2011), and Takita (2014), we will assume there can be no merger of two phrasal SOs, that is $*\{XP, YP\}$. Second, we assume a strict spell-out by each labeling operation, not a cyclic spell-out by phase in Chomsky (2000). Cyclic spell-out by phase means that Transfer is an interfacing operation which cyclically strips off the interior of the phase and send it to SEM and PHON, leaving only the edge of the phase in the derivational workspace for further computation. Instead, we assume that spell-out is strictly derived by each labeling. Finally, following Narita (2011) and Takita (2014), labeling renders elements within the interior of the labeled phrase inaccessible to further syntactic operations.

Given these assumptions, we will extend our proposals to analyze the possessor-raising⁴) in an Inalienable Possessor Constructions (IPC) in Korean. According to Ura (1996), Kwon (1997), and Cho (2000), the possessor is a direct argument of the possessee and is extracted from a DP containing the possessee for Case reasons, as shown in (28a). On the other hand, when the object intervenes between the possessor and the possessee in IPC, the sentence becomes ungrammatical, as shown in (28b).

4) Possessor-raising is an operation by which a DP contained within another DP is moved out of the host DP (Ura 1994). The DP to be raised out of the host DP typically bears a kind of possessor-relation to the host DP. See Ura(1994) and Kwon (1997) for details.

- (28) a. **John-i** **apeci-ka** wupyo-lul mou-si-n-ta
 John-Nom father-Nom stamp-Acc collect-Hon-Pres-Dec
 'John's father collects stamps'
- b. * **John-i_j** wupyo-lul_i t_j **apeci-ka** t_i mou-si-n-ta
 John-Nom stamp-Acc father-Nom collect-Hon-Pres-Dec
 'John's father collects stamps'

If the possessor DP and the possessee DP are merged as a constituent under the analysis of Ura (1996), Kwon (1997) and Cho (2000), the distribution of (28a-b) can be explained by a strict spell-out by each labeling as follows:



In the case of $SO_1 = \{\text{possessor DP}, \text{possessee DP}\}$ in (29), minimal search can not find the relevant head as the label of SO_1 , since it is the form of $\{XP, YP\}$. Thus, possessor DP raises to a higher position in order to label SO_1 . Minimal search finds the only visible head D as the label of SO_1 . Since the other processes of labeling are similar to those of (8), we omit it here. Thus, we can explain the motivation of possessor-raising under labeling through movement without allowing another principle. As for the ungrammaticality of (28b), we can analyze it under a strict spell-out by each labeling. Since labeling of $\{V, DP\}$ makes elements within the interior of the labeled phrase inaccessible to further syntactic operations, the DP *wupyo* 'stamps' cannot be raised to a higher position, after the labeling of $\{V, DP\}$. Thus, (28b) involving object raising from the labeled $\{V, DP\}$ is ungrammatical.

IV. Conclusion

References

- Bowers, J. (1993). The Syntax of Predication. *LI* 24, 591-656.
- Cho, S-E. 2000. *Three Forms of Case Agreement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Chomsky, N.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R. Jacobs and P.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Ginn and Company, Waltham, MA, 184-221.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Chomsky, N. 1986a.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Praeger, New York.
- Chomsky, N. 1986b. *Barriers*. MIT Press, Cambridge, MA.
-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e and S.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MIT Press, Cambridge, MA, 1-52.
- Chomsky, N. 1995a. Bare Phrase Structure. In G. Webelhuth (ed.),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and the Minimalist Program: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Syntactic Theory*, Blackwell, Oxford, 385-439.
- Chomsky, N. 1995b. *The Minimalist Program*. MIT Press, Cambridge, MA.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R. Martin, D. Michaels, and J. Uriagereka (eds.), *Step by Step*. Cambridge, Mass.: MIT Press, 89-155.
- Chomsky, N. 2001. Derivation by Phase. In M.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MIT Press, Cambridge, MA, 1-52.
- Chomsky, N. 2008. On Phases. In R. Freidin, C. P. Otero and M. L. Zubizarreta (eds.), *Foundational Issues in Linguistic Theory: Essays in Honor of Jean-Roger Vergnaud*, MIT Press, Cambridge, MA., 133-166.
- Chomsky, N. 2013. Problems of Projection. *Lingua* 130, 33-49.
- Epstein, D., H. Kitahara, & D. Seely. 2013. Labeling by Minimal Search: Implications for Successive Cyclic A-Movement and the Conception of the Postulate "Phase." Unpublished manuscript.
- Goto, N. 2011. *Feature-Inheritance: Its Effects on Agree, Move, and Delete*. Ph.D. dissertation, Tohoku Gakuin University.
- Goto, N. 2013. Toward Unconstrained Merge, in *Proceedings of the 15th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Grammar (SICOGG 15)*.
- Holmberg, A & T. Hróarsdóttir. (2003) Agreement and Movement in Icelandic Raising Constructions. *Lingua* 113,997-1019.
- Jackendoff, R. 1977. *X-Bar Syntax*. MIT Press, Cambridge, MA.
- Kitagawa, Y. (1985). Small but Clausal. In W. H. Eilfort, P. D. Kroeber, K. L. Peterson (eds.), *CLS 21*, 210-220.
- Kwon, K-Y. 1997. *Independent Feature Checking and Multiple Spec Constructions*. Doctoral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 Narita, H. 2011. *Phasing in Full Interpretation*.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Narita, H. 2013. $\{XP, YP\}$, the Independence of the LCA and Antisymmetry, and the LCA-free Phase-based Account of the CED Effect. m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Minimalist Approaches to Syntactic Locality.
- Ott, D. 2012. Symmetric Merge and Local Instability: Evidence from Split Topics.
- Rizzi, L. 2006. On the form of chains: criterial positions and ECP effect. In Lisa Cheng and Norbert Corver (eds.), *Wh-Movement: oving on*, 97-133. Cambridge, MA: MIT Press.
- Saito, M. 1985. *Some asymmetries in Japanese and their theoretical implications*. Doctoral dissertation. MIT.
- Takita, K. 2014. Phrase Structure Properties and Transfer/Spell-Out. ms. Keio Linguistics Colloquium, Keio University.
- Ura, H. 1996. *Multiple feature-checking: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splitting*.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distributed by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Cambridge, Mass.

영어와 한국어 장소구 도치 구문에 관한 연구 - 비대격동사와 비능격동사 중심으로 -

배 주 원

(부산대학교)

Bae Joo Won(2014) A Study of Locative Inversion Construction in English and Korean, Focusing on Unaccusative and Unergative Verb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locative inversion construction in unaccusative verbs and unergative verbs in English and Korean and to see if the features of the locative inversion in Korean have the same derivation as those of English in the syntax. Generally unergative verbs are not allowed to invert locative PP construction. But in some cases they are allowed to invert locative PP constructions. The inverted locative PP constructions with unergative verbs go through the change of the meaning of unaccusative verbs. If unergative verbs are used with PP representing location or direction, they can experience the change of the meaning of unaccusative verbs. And we argue the locative inversion in Korean is derived in the same way as an English counterparts.

I. 서론

주어가 동사나 조동사 앞에 오는 어순에서 동사와 주어가 뒤바뀐 형태의 어순을 도치(inversion)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구문 중에서도 특히 비대격동사와 비능격동사를 중심으로 도치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치 구문에서 문두로 이동하는 요소가 관련 기능 범주인 확대 투사 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동인지를 영어의 비대격동사와 비능격동사의 장소구 도치 구문을 Chomsky (2000, 2001)의 「최소주의 이론(Minimalism Program)」의 틀 안에서 분석해보고, Levin & Rappaport(1995) 이론을 중심으로 비대격동사와 비능격동사의 장소구 도치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에 나타나고 있는 장소구 도치 현상은 Coopmans(1989), Hoekstra & Mulder(1990), Bresnan(1994) 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첫째, 장소구 도치 구문은 선택적이다.

- (1) a. Mary rolled down the hill.
- b. Down the hill rolled Mary.

(1a,b)는 영어의 표준 어순 [NP V PP]에서 장소 PP가 앞으로 이동하여 [PP V NP]로 도치 되어 있다.

둘째, 장소구 도치 구문은 단순시제 구문에서 일어난다는 시제의 제약을 받는다.

- (2) a. *Down the hill may roll the stone.
- b. *Down the stairs has fallen the baby.
- c. *Out of the house was strolling the baby carriage.

(2a)의 조동사가 있는 문장, (2b)의 완료형 asn장, (2c)의 과거 진행형의 문장에서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장소구 도치구문은 주절에서만 일어난다. (3)의 예문처럼 내포절에서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 (3) a. *She denied that down the hill rolled the baby carriage.
- b. *She regretted that down the stairs fell the baby.
- c. *He wondered that at no time did they pass the exam.

넷째, Bresnan(1994)에 따르면, 보충어 장소 PP는 이동하여 도치를 일으키지만 부가어 장소 PP는 이동하지 않는다.

- (4) a. Onto the ground fall a few leaves.
- b. *Onto the ground spit a few students.

(4a)에서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장소가 필수적으로 서술되어야 하지만 (4b)에서는 학생들이 침을 뱉는 장소로 꼭 땅을 서술할 필요가 없다. 다시말하자면 (4a)는 장소를 나타내는 보충어 PP인 반면에 (4b)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묘사하지 않는 몇 명의 학생들에 걸리는 부가어 PP이므로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섯째, 장소구 도치는 타동사구문에서 일어나지 않고 비대격동사 구문에서 일어난다.

- (5) a. Through the wedding band *shot* a bullet.
- b. *Through the wedding band *shot* a marksman.

(5a)에서 'a marksman'은 'shot'의 행위자(agent)이다. (5b)에서 'a bullet'은 'shot'의 대상(theme)이며 'shot'은 비대격동사이다.

다음은 한국어 도치 구문을 살펴보자.

- (6) a. 사람이 서울에 많다.
- a'. 서울에 사람이 많다.
- b. 철이가 그 논문을 읽었다.
- b'. 그 논문을 철이가 읽었다.
- c. 돈이 영희에게 필요하다.

c'. 영희에게 돈이 필요하다.

O'Grady(1991), Yim(2006, 2009), 이상호(2005)는 위의 예문들 중에서 6a', 6b', 6c' 문장을 도치구문으로 분석했다.

장소구 도치 구문에서 장소구 PP가 이동해 간 최종위치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Yim은 문두에 나타난 (6a')서울에가 A-이동에 의한 주어라고 정의하였다. 그 동안 도치에 관해서 문장들이 이동하였을 때 이동한 성분의 최종 도착지점이 A-이동에 의한 것인지 A'-이동인지, 왜 이런 이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II. 본론

2. 비대격동사와 비능격동사

2.1 비대격동사

장소구 도치 구문이 모든 동사의 유형에서 나타나지 않고 일부 제한된 동사의 구문에 서만 나타난다. Levin(1983), Cooperman(1989), Hoestra & Mulder(1990), Bresnan(1994) & Watanabe(1994)등은 장소구 도치 구문이 아래 예문 (8)처럼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비대격 동사일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주장하였다.

- (8) a. In each hallway hangs a large picture of hero.
 b. Downstairs lies all the wine I brought from Italy.

위 (8)의 예문은 비대격동사 구문에서 도치가 일어나는 예이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은 비대격동사이지만 장소구 도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예이다.

- (9) a. *On the third floor of the skyscraper broke many windows.
 b. *On the street of Newyork melted a lot of snow.

(9a,b)의 'break'와 'melt'는 비대격동사인데 장소구 도치 구문이 도출 될 경우에 비문이 되고 있다. 비대격 동사는 [Spec, VP]에서 주어가 생성된다.

반면에 비능격동사의 경우는 주어의 초기 생성 위치는 [Spec, vP]이므로 명사구와 전치사구는 같은 최소 영역에 속하지 않게 되고 항상 명사구만이 [Spec, TP]로 이동하여, EPP 자질을 점검할 수 있는 인접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국부적 이동 규칙에 의해 장소구 도치 구문은 도출 될 수 없다.

장소구 도치 구문에 있어서 Smallwood(1998)는 EPP의 일치와 분리현상을 주장하고 있다. 장소구 도치 구문에 나타나는 동사가 비대격동사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Freeze(1992)는 조재구문이나 장소구 도치구문에 있어서 동사에는 [+Loc]자질이 표시되어 있다는 제안을 수용하면서 장소구 도치 구문과 존재 There 구문에는 소수의 비대격동사에만 의존하는 [+Loc]자질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장소구 도치현상이 비대격동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예문이다.

- (10) a. Out of the class strolled my friend's best friend.
 b. Under the table lay the key to the room.
 c. In front of her appeared a wonderful sight.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장소구 도치구문에서 동사는 동사 뒤의 명사와 수의 일치
 치를 이루고 비대격동사와 함께 나타난다. 장소구 도치구문에서 probe T와 일치를 형성
 하는 goal은 동사 뒤의 명사구이고, T의 EPP자질을 충족하기 위해 이동하는 요소는 장소
 PP이다.

2.2. 비능격동사

Bowers(2002)는 비능격동사와 비대격동사의 위치로 Spec vP 위치를 제안함으로써 비대
 격동사와 비능격동사가 갖는 구조적 차이를 없애준다고 하였다. 비능격동사들이 장소구
 도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예문을 살펴보자.

- (11) a. Into the room waltzed the roll.
 b. Out of the barn ran a horse.
- (12) On the third floor *worked* two young women called
 Maryanne Thomas and Ava Brent, who ran the audio
 library and print room.

(Levin & Hovav 1995)

일반적으로 비능격동사 구문은 장소구 도치 현상을 허용하지 않지만, (11)의 비능격동
 사 구문에서 장소구 도치구문을 허용하고 있다. Hoekstra & Mulder(1990)에 따르면, 비능
 격동사들이 방향성(directional) 또는 장소(location) PP와 결합하면 장소구 도치를 허용하
 며, 이때에는 비대격동사의 특성을 띤다고 주장한다.

특히 (12)의 문장에서 *worked*는 의지적 행위를 가지는 비능격동사 이며 문장의 주어가
 길다. 이를 중명사구전(Heavy NP Shift) 문장인지 아님 장소어구 도치문장인지에 관한 의
 구심이 든다.

3. 장소구 도치구문

3.1 영어 장소구 도치구문의 논항구조와 특성

다음은 영어 장소구 도치구문의 예이다.

- (13) a. A lamp was in the corner.
 a'. In the corner was a lamp.
 b. A picture of Leonard Pabbs will be hung on the wall

I expect.

b'. On the wall I expect will be hung a picture of Leonard Pabbs.

(13)의 예문에서 In the corner, on the wall가 문두에 위치하고 문장의 주어 명사구인 a lamp, A picture of Leonard Pabbs 앞으로 동사들이 이동하여 문장성분이 자리바꿈을 하였다. 넓은 범주의 공간적인 위치나 경로들, 방향들 그리고 거기에 더 확장된 시간적이고 추상적인 위치영역까지 포괄하는 장소구가 동사 앞으로 이동하고 동사 뒤에 주어 명사구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은 장소어구의 위치나 주어 논항은 동사의 의미적 역할구조의 변화없이 이동한다는 점이다. (13)의 예문에서 보이는 동사를 살펴 보면 주로 연결동사(linking verb)나 비대격동사(unaccusative)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동사의 의미역할의 변화 없이 장소구가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반으로 Coopmans(1989)은 장소구 도치구문에서 동사의 통사적 성질을 비대격으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기저 구조를 제시하였다.

- (14) a. D-structure: [[_{VP} V NP PP]]
 b. A bullet shot through the weeding band.
 c. Through the weeding band shot a bullet.

(14)에서 동사 shot뒤에 위치하는 a bullet은 동사의 행위자가 아니라 대상인 비대격 구문의 문장이다. 비대격동사와 같이 대격을 NP에 주지 못한다면 NP가 주어자리로 올라가야 하지만 위의 구조에서 다른 이유로 PP가 주어자리 또는 주어자리 앞의 어떤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장소구 도치구문을 담화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장면이나 장소가 설정되어지고 그 지시물이 장면 안에서 도입되면 초점을 가진다. 이때 장면은 장소로 표현되고 장소에서 보여주는 지시물은 주제 혹은 대상이 된다. VP-구 안에 있는 PP는 문두로 이동하고 뒤에 남아있는 NP에게 어떤 장면 안에서 지시 대상물을 소개하는 효과를 보인다. (Bresnan (1994), Rochement & Culicoveer (1990)). 일반적인 주제란 무표적 대화의 중심으로 다루어지며 구정보이다. 장소나 위치가 하나의 장면이고 또한 가능적으로 주제의 특질에 의해 만족되어지면 장소나 위치어구는 문장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문두로 이동해 갈 수 있으며 이때 장소구는 주제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15) a. S-structure
 [_{τ_{ic}} PP [_{TP} [_T V [_{VP} NP]]]]
 b. Verb (theme, location)
 theme: subject-focus
 location: topic element or pseudo-subject

그러면 문장의 구성성분은 왜 이동을 하고 이동한 전 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 (16) A: Child was found in the swamp.

- a: but not an adult
- b: but not in the forest
- B: In the swamp was found a child.
- a: but not an adult.
- b: *but not in the forest.

(Schachter (1992))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16A)문장에서는 NP와 PP 둘 다 초점을 보이지만 도치된 (16B)의 문장에서는 오직 NP만이 초점의 특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Haegeman, L. & Zanuttini, R. (1991), Haegeman & Guerin (1999), 그리고 Culicover (1991:35)는 도치된 문장을 초점화로, 문장성분의 이동 후 도치되지 않은 문장을 화제화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Bresnan(1994)과 Rochement & Culicover (1990)는 문두로 이동한 장소어구 도치구문이 화제화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17)의 예문을 살펴보자.

- (17) a. Do you remember?
- *Did on the wall hang a Mexican picture?
- b. *Is in the garden a man?

(Bresnan (1994: 108))

- c. Under the bed's a great place to hide.
- d. Down through the hills and into the forest
- *flow/flows the little brook.

(Levin (1989: 1015))

위의 예문에서 장소어구가 동사 앞에 위치하지만 주어가 아니라는 증거는 도치된 장소어구는 Yes-No 의문문에서 조동사 다음으로 이동할 수 없고, 그 착지점이 주어자리인 [Spec, TP]자리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 Kaisee (1985)에 의하면 is가 화제화에 의한 요소에 첨가될 때는 유성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과 도치된 장소어구가 복수 동사와 일치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17)의 영어 예문은 장소구가 문두로 이동하고 주어와 동사의 어순의 변화가 있지만 문두로 이동한 장소구는 주어자리가 아닌 화제화 자리로 이동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문두로 이동한 장소구가 화제화 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약교차(weak crossover)현상이다. 장소구 PP는 A'-이동되기 때문에 주어 위치에서 결속되어야 할 대명사가 A'-이동되면 다음과 같이 비문임을 보인다.

- (18) a. *Into the every dog_i's cage its_i owner peered.
- b. Into the every dog_i's cage peered its_i owner.

화제어 위치에 나타난 전치사구에 있는 명사구 the every dog가 대명사 its를 결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약교차 조건을 위반하여 비문이 되는 것이다.

3.2 한국어 장소구 도치구문의 논항구조와 특성

O'Grady(1991)는 한국어 도치구문의 경우 주어자리에 오는 명사구는 구 의미역할이 행위자나 경험자인 경우 문법적으로 여격(dative)을 취하고 동사 앞에 오는 명사는 그 의미역할이 대상(theme)의 의미를 지니며 주격 표시를 지닌다고 분석하였다.

- (19) a. 돈이 영희에게 필요하다.
 b. 영희에게 돈이 필요하다.
 c. 필요하다 IV-(NP exp) (NP theme)

(O'Grady (1991: 100))

그는 한국어 도치구문에 주로 나타나는 술어동사는 두 가지 의미적 역할 즉 경험자와 대상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필요하다*는 (19)에서 보는 것처럼 대상과 선택적 두 번째 논항을 가진다고 분석한다. 대상역 NP 돈에 있는 주격표시 -이는 명사구(NP)와 자동사(IV)범주와 결합함으로써 인가되어진다. 그 이후 *영희에게*는 다른 허가 조건 사항 없이 이후에 결합되어 문장을 이룬다고 분석한다.

III. 결론

본 논문은 도치구문에 관하여 살펴보고 특히 한국어와 영어의 장소구의 이동현상을 비대격동사와 비능격동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해보았다. 한국어의 장소구 도치는 영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Bowers(2002)의 가정 하에 PP는 v와 T에 있는 EPP 자질에 의해서 vP의 Spec자리로 이동되고 이어서 TP의 Spec자리로 이동되어 도출됨을 보았다. 한국어와 영어의 비대격동사는 장소구 도치 구문을 형성하는데 비능격동사의 경우엔 장소구 도치 구문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영어의 (11)와(12) 그리고 한국어의 (31) 예문들에서는 비대격동사임에도 장소구 도치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점으로 영어에서는 동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접근을 사용하여 문장을 분석해야 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적으로 가벼운 동사일 경우에는 비록 비능격동사라도 장소구 도치를 허용하며, 비능격동사가 방향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비대격동사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비대격동사와 비능격동사를 분석하는데는 정보의 가벼움과 무거움의 정도로 장소구 도치 구문을 분석 할 수 없으므로 장소구 PP 도치 구문을 분석할 때, 의미적인 분석과 아울러 통사적인 분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다.

국면인식과 관련된 최소주의 문제점

김 대 익 · 김 재 윤

(영산대학교 · 신라대학교)

A central goal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new account of the long-standing observations which have been unanswered in the development in the minimalist theory(Chomsky 1995, 2000, 2001, 2006, 2013): (a) how to interpret/evaluate the English matrix clause under the conception that a phase is interpreted/evaluated at the next(high) strong phase (Chomsky 2000), (b) how to value the uninterpretable ([uF]) ϕ -features of C and T in the derivations without resorting to interpretability in that the valued [uF] features are indistinguishable from inherently interpretable features after turning into interpretable features. (c) how T-to-C movement undergoes under syntactic implementation of the Chomsky(2013)'s labeling system. In this presentation we claim that the GP phase recognition algorithm can answer these questions, which says that the Spell-Out applies at the relevant phase level if all labels of projections are encoded and some prominent features(ϕ -features, force features)are shared by the [uF] ϕ -features of CP and TP. Thus the Spell-Out applies in the TP level of the English matrix clause through ϕ -feature sharing between Subject and TP after CP deletion. In wh-clauses or inversion clauses the Spell Out applies at the CP level in which T-to-C movement is obligatory in order for [uF] ϕ -features to share the prominent features between two lexical catego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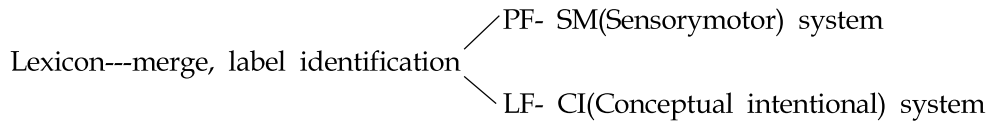
1. 서론

- Syntactic Structure(Chomsky (1957))에서 On Phase(Chomsky 2005)까지 D-구조, S-구조, X-이론, AGR등의 개념이 사라지고 최근의 Problems of Projection(Chomsky(2013))의 통사부에서 어순(linear order)개념이 사라져 이동의 개념도 이전의 자질유인이나 자질점검(feature checking)의 개념이 아닌 병합(merge)된 두 어휘간의 명찰(label)을 결정하는 개념으로 바뀐다.
- Problems of Projection (Chomsky 2013)에서 이동하는 범주의 구별이 사라져 그 동안 배척되었던 동사이동도 통사부에서 발생하는 개념으로 부활한다. 즉 동사도 DP이동처럼 명찰을 결정하려고 이동하므로 통사적 운용으로 본다. 그렇다면 통사부에서 동사이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동사이동이 되는지의 최소주의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Chomsky(2013)를 비롯한 이전 최소주의연구에서 주절의 문자화(spell-out)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본 발표는 이러한 점들을 논의하여 Chomsky (2013)에서 설명하지 못한 주절의 문자화 문제, 비해석성 자질 ϕ -자질의 해석성 인식문제, 동사이

동과 관련하여 그동안 최소주의가 설명 못하는 문제들을 통사부에서 국면(phase)을 인식하는 알고리즘(algorithm)이 GP¹⁾(C_{HL})에 존재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이 알고리즘을 규명하여 제 최소주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2. 최소주의의 문제점

2.1. 최소주의의 구조



(1) Ph1 I interpreted/evaluated at the next relevant phase Ph2. (Chomsky(2000: 13))

(2) [CP(Ph2) C [TP T [_{vP}(Ph 1) V ...]]]

2.2. 비해석성 자질 ϕ

□ 현 최소주의 개념에서 만약 주절이 다음 국면이 완성되는 개념 없이 해당 국면 CP에서 문자화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다.

- (3) a. [TP John loves Mary]
 b. [CP What does he see]
 c. [CP Never did I dream a such dream]

□ 영어평서문 주절에서 CP분석

- (4) a. John loves Mary.
 b. [TP John [_{vP} loves Mary]]
 c. [CP C [TP John _s [love Mary]]] (Chomsky (2013:47)²⁾

□ 문제점 종래에는 당연히 CP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 TP구문으로 분석해왔다.

- a. [TP John _s [love Mary]]--> CP가 없음
 b. [CP C [John _s [love Mary]]] -CP의 ϕ -자질의 비해석성을 없앨 수 없다.
 c. Chomsky(2013: 각주47)는 C의 비해석성 자질인 ϕ -자질은 생략되어 그 다음 국면에서 안 보인다고 설명

- (5) a. Who saw John?
 b. What did John see?

1) GP란 General Process(or Procedure)로 이전의 C_{HL}의 새로운 이름이다. Chomsky(2013)에서 이전의 C_{HL}대신 GP로 표현하므로 본 연구도 GP로 한다.

2) Chomsky (2013: 47)에서 C에도 ϕ -자질이 남아있어야 C의 명칭(label)을 결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C에서 T로 자질전승은 복사로 전승된다고 한다.

2.3 국면의 해석성여부

- Chomsky(2000: 106)는 국면 CP와 νP 가 LF와 PF라는 공유부분에 있다고 한 국면개념의 모순 점-Epstein & Seely (2002: 78)는 이 국면개념설정은 모순이라고 한다. Chomsky (2000: 106)에서 CP와 νP 는 공유부분에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며 그 당위성을 의미적인 개념인 명제성(proposition)여부에 따라 설정한다. 즉 국면이란 공유부분에서 νP 와 CP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모든 의미역을 부가하거나 시제나 문장유형(force)을 포함하는 명제성에 따라 설정된다. 하지만 최소주의 개념 상 공유부분에 νP 와 CP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문자화이후에 나타나는 개념이므로 문자화 이전인 통사부에서 νP 와 CP가 국면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만약 통사부에서 νP 와 CP를 국면으로 지정하면, 이것은 일종의 기술(stipulation)이므로 최소의 효과로 최대를 설명하는 최소주의에서 피해야 한다. 또한 명제성의 개념도 적절하지 않다. Epstein & Seely(2002: 78)가 논의하듯, 명제성은 각 어휘들이 모여 의미단위를 이루는 성격이고 이 의미를 담당하는 것은 LF 개념이다. 최소주의는 통사부에서 문자화를 거친 다음 LF에서 의미해석을 하는데 LF에 도달하기 전의 통사부에서 어떻게 각 어휘들이 의미단위를 이루는지 설명할 수 없고 이런 명제성의 단위를 인식하는 곳은 LF이고 최소주의에서 LF와 통사부는 각기 다른 부문이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기에 과연 어떻게 명제성이 통사부에서 인식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그 다음 문자화 적용의 시점도 불명확하다. 최소주의(Chomsky 2001: 5)에서 비해석자질은 공유부분에서 해석이 안 되는 자질이므로 도출 중에 자질점검으로 해석자질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해석성 여부는 전적으로 LF부문에서 발생하여 통사부에서 어휘범주의 해석성을 검증할 길이 없다. 따라서 Chomsky(2001: 5)는 통사부에서 다룰 수 있는 값(value)의 개념을 도입하여 비해석자질이나 해석자질은 다 값을 받게 한다. 그런데 원래부터 값을 가진 해석자질은 LF의 해석을 받지만 값을 가진 비해석자질(EPP, T의 ϕ 자질 등등)은 의미가 없으므로 LF에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PF에서 해석되어 T의 ϕ 자질은 $_s$ 의 형태로 나타나던지 명사의 비해석자질인 격 자질은 'him'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문자화란 병합과 점검이후의 LF로 해석 받는 어휘범주들의 음성자질을 뽑아내어 PF에서 해석 받게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Chomsky(2001: 12)에 따르면, 비해석자질이 값을 받아서 해석자질을 가진 일반 명사와 똑 같이 값을 보유하면 국면이 완성되어 문자화가 진행된다. 그런데 비해석자질이 해석자질로 바뀌면 해석성 판별여부는 LF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통사부에서는 해석성여부를 판별 못하여 언제 국면이 완성되는지 여전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최소주의개념에서 언제 통사부에서 국면으로 인식하는지 문제가 된다.

3. 통사부에서의 국면인식

3.1 Chomsky(2013)

(6) Merge (α, β) \rightarrow { α, β } or { β, α }

(6)과 같은 병합에서 이전에 (α, β)가 병합하여 ($\delta(\alpha, \beta)$)식의 명찰 δ 가 생기는 방식이 아니고 (α, β) 상호간에 어순도 나타나지 않는 가장 간단한 병합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병합체 $\{\alpha, \beta\}$ 가 구문 상에서 해석되기 위해서는 그 명찰(label)이 결정되어야 GP가 통사적 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이 명찰은 최소수색(minimal search)을 통해 결정된다고 한다. 통사부에서 병합을 할 때 간주되는 병합유형은 다음 $\{H, XP\}$ 와 $\{XP, YP\}$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 병합은 (7)과 (8)와 같은 명찰알고리즘으로 결정된다고 한다(Chomsky 2013: 44).

- (7) Suppose $SO=\{H, XP\}$, H a head and XP not s head. Then minimal search will select H as the label, and the usual procedures of interpretation at the interfaces can proceed.
- (8) Suppose $SO=\{XP, YP\}$, neither a head. Here minimal search is ambiguous, locating the heads X,Y of XP, YP, respectively. There are , then, two ways in which SO can be labeled : (A) modify SO so that there is only one visible head, or (B) X and Y are identical in a relevant respect, providing the same label, which can be taken as the label of the SO.

□ 그러나 이러한 Chomsky(2013)의 최소주의개념에서 여전히 주절의 문자화가 언제 진행되는지의 문제는 대두되며 또한 영어의 wh-어 목적어 구문이나 도치(inversion)구문, 또는 V2언어에서의 T-to-C동사이동의 문제가 나타난다..

3.2 국면인식알고리즘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homsky(2013)에서 당면한 문제는 주절에서 언제 문자화가 적용되는지 문제와 C와 T의 ϕ -자질의 비해석성문제와 동사이동의 문제가 대두된다.

- (9) Chomsky(2013)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
 - a. 주절에서의 문자화 시점
 - b. C와 T의 ϕ -자질의 비해석성문제
 - c. 동사이동의 문제

- (10) a. What did he see?
 - b. $[V, DP] \rightarrow VP$
 - c. $[\alpha DP VP] \rightarrow DP$ 이동
 - d. $[\alpha DP TP] \rightarrow$
 - e. $[\alpha wh did]$

- (11) 국면의 완성
 - a. 해당 국면 안의 모든 범주들의 명찰결정
 - b. C와 T의 비해석성 자질 ϕ 의 제거

- (12) GP의 비해석성 자질 ϕ 의 제거의 인식

GP는 통사부에서 C와 T의 ϕ 자질이 두 어휘범주의 특정자질(ϕ -자질, Force자질)을 공유시키면 비해석성은 제거되어 해석성자질로 바뀐다고 인식한다.

(13) GP의 주절 국면인식

비해석성 자질 ϕ 자질이 모두 제거되고 모든 명찰이 확정되면 해당국면이 완성된 것으로 인식하여 문자화를 진행한다.

3.2. 국면인식알고리즘 적용

(14) a. Who saw John?

- b. $[CP_{(\phi)} C [TP_{(\phi)} T [vP \text{ who see John }]]$
- c. $[CP_{(\phi)} C [TP_{(\phi)} \text{ who saw } [vP \text{ John }]]$

(15) a. What did he see?

- b. $[CP_{(\phi)} C [TP_{(\phi)} T [vP \text{ he see what }]]$

(16) a. At no time will Sam relax.

- b. Never has Jim tried that.

3.3 V2언어와 국면인식알고리즘

(17) a. Peter wollte dem Jungen das Buch schenken.

Peter want the boy the book give

b. Dem Jungen wollte Peter das Buch schenken.

the boy want Peter the book g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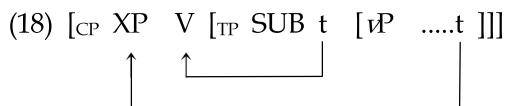
c. Das Buch wollte Peter dem Jungen schenken.

the book want Peter the boy give

d. Schenken wollte Peter dem Jungen das Buch.

give want Peter the boy the book

'Peter wanted to give the book to the boy.' German (Wetta 2012: 1)



4. 결 론

참고문헌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 The Hague: Mouton.
-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s. MIT.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MIT Press.
- Chomsky, Noam.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Roger. Martin et al, (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89-157.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oam. 2001. Derivation by Phrase. M.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 1-53.
- Chomsky, Noam. 2005. On Phase. ms. MIT.
- Chomsky, N. 2006. Approaching UG from Below. ms. MIT.
- Chomsky, N. 2013. Problems of projection. *Lingua* 130. 33-49.
- Epstein, S. D. & T. D. Seely. 2002. Rule Applications as Cycle in a Level-Free Syntax. S. D. Epstein & T. D. Seely. (eds.), *Derivation and Explanations in the Minimalist Program*. Oxford: Blackwell. 65-89.
- Wetta, C. A. 2012. A Construction-Based Cross-Linguistic Analysis of V2 Word Order. ms. University of Buffalo.

북부방언 주어규칙과 구어 There-구문의 자질일치

박 상 수

(부산외국어대학교)

Sangsoo Park. The Northern Subject Rule and Feature Agree in the Spoken *There*-Construction. The Northern Subject Rule is a grammatical pattern that occurred in Northern English and Scots dialects in the ME period. According to the Northern Subject Rule, present-tense verbs may take the verbal *-s* suffix, except when they are directly adjacent to one of the personal pronouns *I, you, we, or they* as their subject. In the spoken expletive *there*-construction, the third person singular form of the verb *is/was>-s* may be used with a plural associate subject in declarative sentences with adverbials. This implies that there are two ϕ -feature Agree options in English. One is that the subject triggers agreement on the finite verb. The other is that the subject does not trigger agreement on the finite verb, but on default 3rd person singular verb. The realization of such properties as in the two different structures in the process of ϕ -feature Agree seems to be triggered by the feature application hierarchy among [\pm present-tense], [\pm 3rd person] and [\pm singular].

1. 북부방언 주어규칙

영어의 통시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중세영어의 북부방언에 적용되던 북부방언 주어규칙(Northern Subject Rule; Northern Middle English/Older Scots Personal Pronoun Rule)을 들 수 있다. 보편적인 주어-시제동사 일치와 달리 북부방언 주어규칙에서는 주어의 유형과 주어의 위치에 따라 시제동사의 굴절어미가 결정되고 있었다. 북부방언 주어규칙 (1)에 따르면(Pietsch 2005, Bergs & Brinton 2012, Childs 2012), 예문 (2)처럼 직설법 현재시제 통사구조에서 대명사 주어 *I, we, you, they*와 시제동사가 인접하는 어순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유형의 주어와 시제동사의 인접여부와 관계없이 시제동사 굴절어미 *-s*로 문자화 되고 있었다.

(1) Northern Subject Rule

- a. All third (person) singular subjects (and, where preserved, the old second singular *thou*) always take verbal *-s*.
- b. Types-of-Subject Constraint: All other subjects except the personal pronouns *I, we, you, they* (and where it exists, *youse*) take verbal *-s* variably.
- c. Position-of-Subject Constraint: Non-adjacency of subject and verb favours verbal *-s*.

(2) a. *They eat* (something). (from Pietsch 2005:264)

- b. And *animals looks* down, you know. (from Childs 2012:320)

c. *They never sleeps* inside doors. (from Childs 2012:320)

북부방언 주어규칙은 당대에 북부방언 지역에서 출간된 문헌자료나 당대의 스코틀랜드 영어 문헌자료 뿐만 아니라, 전기현대영어 시대의 아일랜드 영어(Hiberno English) 문헌자료나 현대영어에서 비표준 용법의 영국어나 미국어나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북부방언 주어규칙에 따라 실현되던 시제동사의 굴절어미 형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고대영어 노섬브리아 지역방언과 다른 지역방언의 동사어형을 비교하고, 중세영어 북부방언과 다른 지역방언의 동사어형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Northumbrian: OE		Non-northern OE	North: NSR: ME		West Midlands: ME	East Midlands: ME	South: ME
		conservative	innovative		adjacent ProS	Non-adjacent NPS			
SG	1	-o/-e	-o/-e	-e	-e/φ	-e/φ/(-es)	-e	-e	-e
	2	-s(t)	-as	-(e)st/-e(st)	-es	-es	-es(t)	-est	-est
	3	-eþ/-aþ	-es/-as	-eþ	-es	-es	-eth/-es	-eth/-es	-eth
PL		-eþ/-aþ	-es/-as/(-e)	-aþ/(-e)	-e/φ	-es	-en/-es/(-e)	-en/-es/(-e)	-eth/(-e)

어원론의 시각에서 보면, 고대영어의 노섬브리아 지역방언>중세영어 북부방언에서 3인칭 단수 현재시제 동사 굴절어미가 -eþ/-es>-es로 변하고, 복수 현재시제 동사 굴절어미가 -eþ/-es>-e/φ 또는 -eþ/-es>-es로 변해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고유하고 순전하다. 그런데 중세영어 북부방언에서 대명사 주어 *I, we, you, they*와 시제동사가 인접한 통사구조에서는 주어-동사 호응표지로 굴절어미 -e/φ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북부방언 주어규칙은 당시에 굴절어미 소실이 이루어지던 속도보다 더 빠른 개혁적인 환경에서 시제동사 형태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동시에 중세영어 북부방언에서 모든 명사구 주어와 현재시제 동사의 통사구조, 또는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 주어나 복수 주어와 현재시제 동사가 인접하지 않는 통사구조에서는 주어-동사 호응표지로 기정동사 굴절어미(default verbal inflection) -es/-s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또한 북부방언 주어규칙은 동시대의 중부방언이나 남부방언보다 더 보수적인 환경에서 시제동사 형태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주어의 유형과 주어와 시제동사의 인접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굴절어미 -e/φ나 기정동사 굴절어미 -es/-s를 통하여 φ-자질일치나 주어-동사 호응을 점검하던 통사작용을 북부방언 주어규칙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북부방언 주어규칙의 기원에 대한 분석으로는 언어내적인 조건과 언어외적인 환경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먼저, 고대영어 지역방언에서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의 굴절어미가 시제동사+대명사 복수주어...’ 연쇄체에서는 -ø/-e/(-e)n)으로 일반화 되었는데, 여기에 북부방언에서는 보편화된 굴절어미 -eþ/-es>-es -s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주어-동사 일치과정에서 -ø/-e/(-e)n)와 -es는 서로 불안정한 경쟁상태를 지속하고 있었고, 중세영어 북부방언의 주어-동사 일치과정에서는 인칭과 수를 평가하는 φ-자질일치 교점 C와 시제자질 일치교점 T가 T로 통합되지 않은 통사구조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주어의 유형과 주어와 동사의 인접조건에 따라 대부분의 통사구조에서 -es 굴절어미로 유표화된 결과가 북부방언 주어규칙이 되었다(Pietsch 2005, Haas 2011). 그러므로 북부방언 주어규칙에서는 대명사 주어와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가 인접하는 통사구조에서만 주어-시제동사 사이에 -ø/-e/(-e)n) 굴절어미를 통하여 인칭과 수의 φ-자질일치가 점검되고, 모든 명사구 주어나 동사와 인접하지 않는 대명사 주어가 결합되는 통사

구조의 주어-시제동사의 일치에서는 -es 굴절어미를 통하여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자질을 평가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언어접촉을 들 수 있다. 고대영어의 노덤브리아 지역방언은 브리튼 섬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브리튼켈트족(Brythonic Celts)이 많이 살았고, 이에 따라 고대영어에 켈트어가 영향을 주었다. VSO 어순인 켈트어에서 시제동사에 전접되는 대명사 주어가 3인칭 단수형 *se*, 2인칭 복수형 *sibh*, 3인칭 복수형 *sibh*이었기 때문에 노섬브리아 지역방언>중세영어 북부방언이 켈트어의 전접 대명사 주어를 시제동사 굴절어미 -s로 인식했을 개연성은 매우 크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인접한 노덤브리아 지역방언>중세영어 북부방언과 켈트어가 언어접촉한 점을 전제하면, 노덤브리아 지역의 북부방언이 다른 지역의 영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이에 따라 북부방언 주어규칙이 형성되는 외적인 동인으로 작용했으리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Klemola 2000).

최소주의 문법론의 형태-통사론적인 관점에서 후기 중세영어의 북부방언 주어규칙이 적용되어 연산체계를 통과하는 도출과정에 적용되던 당시의 보편적인 통사작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즉, 초점지향/화제지향(focus/topic-oriented)의 C-중심 통사구조가 주어지향(subject-oriented)의 T-중심 통사구조로 바뀌는 전이기에 (S)OV 어순이 SVO 어순으로 재분석되면서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V2이 적용되고, C의 ϕ -자질이 T로 완전하게 유전된 상태가 아니며, 주어유형에 따라서 형태격과 구조격이 혼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언어환경에서 먼저, 대명사 주어의 주격은 가시적으로 결정되는 형태격이므로 현재시제 동사와 엄정한 ϕ -자질일치를 점검받아야 하고, 시제동사는 V2에 따라 C에서 - \emptyset /-e/(-(e)n)의 현재시제 굴절어미 형태로 문자화된다. 즉, 통사자질의 위치와 점검에 따르면, 대명사 주어 통사구조에서는 비해석성 ϕ -자질과 시제자질이 C에 있기 때문에 TP로 내부이동한 대명사 주어의 해석성 일치자질은 C에 있는 ϕ -자질과 일치되면서 대명사 주어의 주격을 평가받는다. 이때 대명사 주어는 C에 있는 외각 지정어 자질(edge feature)에 따라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거나, TP의 지정어 자리에 머물면서 도치구문이 도거나, 시제동사에 전접되는 형태로 실현된다. 다음, 명사구 주어는 주로 3인칭 단/복수형이라는 점과 곡용어미의 약화>소실로 추상격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주어지향의 문법주어로 빠르게 재분석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사구 주어 통사구조에서는 C의 ϕ -자질이 T로 완전하게 유전되지 못한 상태에서 C의 ϕ -자질보다 먼저 T의 시제자질을 점검하게 된다.¹⁾ 결과적으로 명사구 주어가 외부결합되면 *tP*에 있는 명사구 주어가 C의 ϕ -자질보다 더 가까이 있는 T의 현재시제와 자질일치를 점검받아 구조적인 주격으로 평가되고, 이 현재시제 동사는 T에서 기본 굴절어미인 -s로 문자화 되어 도출이 종료되기도 한다. 이때 명사구 주어는 T에 있는 외각 지정어 자질(edge feature)인 EPP에 따라 T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다.

2. There-구문에서 단수 동사의 선택

허사 there-구문의 통사특성과 관련하여, 간단한 명사구 주어보다 복잡하고 무겁고 긴 신정보 주어가 -s 굴절어미가 첨가된 시제동사와 호응하는 구어표현이 많다는 분석결과(Schendl 2000)는 주어와 시제동사의 연쇄간격이 멀면 멀수록 ϕ -자질일치가 약화되고

1) ϕ -자질과 시제자질이 모두 C에서 T로 유전되는 것으로 분석하는 가설에서는 ϕ -자질보다 시제자질이 먼저 T로 전이된 것으로 본다.

무표적인 단수 시제동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구어표현의 there-구문에서 -s 굴절어미의 시제동사가 많이 사용(Tagliamonte 1998, Britain 2002, Henry 2002, McCafferty 2003)될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북부방언 주어규칙에서 명사구 주어는 수자질만 있고, 대명사 주어는 수자질과 인칭자질이 다 있으므로 ϕ -자질특성이 강한 대명사 주어보다 ϕ -자질특성이 약한 명사구 주어가 -s 굴절어미가 첨가된 시제동사와 ϕ -자질일치에서 더 쉽게 -s 굴절어미를 선택할 수 있다(Hudson 1999)는 주장이나, 북부방언 주어규칙에서 단수주어와 -s 굴절어미가 첨가된 시제동사 사이의 ϕ -자질일치에서 주어-동사 호응은 일치표지라기보다는 시제표지다(Childs 2012)라는 주장 역시 구어표현의 there-구문에서 논리주어와 시제동사의 ϕ -일치자질 점검과정에서 단수형을 선택하는 경향성과 연관된다 하겠다.

고대영어에서 there는 비인칭동사 구문의 영주어(null subject)가 쇠퇴하면서 문두위치에 대역화제 요소로 결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there의 결합은 $V \rightarrow v \rightarrow T$ 로 이동해온 시제동사가 C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통사구조 변화를 초래하였다. 한편, 초기 there의 대역화제 기능은 15세기말 V2의 약화>중단에 따라 모든 there-구문에서 TP의 지정어 자리에서 결합하는 통사규칙으로 정립되었다(Ingham 2001, Light 2011). 북부방언 주어규칙에 따라 일반 어휘동사의 시제 굴절어미 -es에 대한 유추와 확대적용으로 3인칭 단수가 아닌 주어의 be-동사구문에도 is/was가 선택적으로 문자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주장(Pietsch 2005)을 인정하면, 북부방언 주어규칙은 be-동사인 was/were와 is/are의 선택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세영어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Grohmann & Ingham 2006, Nevalainen & Tieken-Boon van Ostade 2006) 구어현대영어에서 there's가 하나의 불변단위로 인식되면서 'There is/was+복수 논리주어...' 연쇄체가 연산과정에서 'There's+복수 논리주어...'로 문자화 되고(Nathan 1981, Quirk et al 1985, Sobin 1997, Biber et al 1999, Huddleston & Pullum 2002, Leech & Svartvik 2002, Cowan 2008) 있기 때문이다.²⁾ Schütze(1999)는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there나 PP와 같은 비명사구 통사주어(non-NP syntactic subject)인 비전형적인 주어와 시제동사 사이의 ϕ -자질일치를 허가하지 않거나, 제휴어인 논리주어와 시제동사 사이의 ϕ -자질일치를 회피하거나, 기본 ϕ -자질일치로 3인칭 단수동사 형태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Sparks (1984)는 there-구문에서 이루어지는 be-동사의 수중립 일반화(generalization of number neutralization)를 논리적으로 제안하고 있다.³⁾

한편, 완화표현(hedging expression)인 'There seems/appears+to be+논리주어...' 구조에서도 단수형의 seems/appears 등이 개념적/관념적 단수속성의 논리주어는 물론 복수

2) 통시언어학의 관점에서 볼 때, 'There+과거형 be+복수 논리주어...'연쇄체가 연산과정에서 'There was+ 복수 논리주어...'구조처럼 was로 발음되는 경향성도 단순히 단수-복수의 구별이라기보다는 s-어간과 r-어간의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Trudgill 2008). 베르너의 법칙과 r-음화에 따른 /s/~/z/ 변이와 /z/~/r/ 교체의 연속변화는 게르만어 시대를 거쳐 고대영어 시대와 중세영어 시대에도 be-동사의 직설법 1인칭/3인칭 과거 단수 형태 s-어간인 was>was가 대표적인 존재의미의 be-동사로 인식되었다.

3) The third person singular form of the verb *be* may be used with a plural subject

- a. in wh-questions with where, when, how, and what,
- b. in declarative sentences with adverbials corresponding to where, when, how, and what,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 a. The verb *be* must be the copula, not an auxiliary.
 - b. The singular verb *is* must be contracted to *'s*.
 - c. The question-word or corresponding adverbial must appear before the copula.
 - d. The subject of the sentence must not be a personal pronoun.

명사 논리주어와 ϕ -자질일치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완화표현의 there-구문에서 논리주어는 seems/appears와 같은 시제동사 영역 밖에 있어서 이 논리주어가 시제동사와 ϕ -자질의 수일치를 점검하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치자질 점검 환경에서 논리주어의 ϕ -자질이 허사주어 there에게 유전(inheritance)된다 하더라도 상위 절의 시제동사인 seems/appears 등은 협의의 통사층위에서 3인칭 단수형으로 인식되는 there를 목표요소로 하여 ϕ -자질일치를 점검하게 된다(Huddleston & Pullum 2002).

최소주의 문법론(Minimalist Program)의 관점에서 볼 때, 'There+be+논리주어...' 구조에서 논리주어-동사 호응이 이루어질 때 ϕ -자질일치를 일탈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통사 특성은 어순을 결정하는 문자화 층위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there-구문의 형태-통사 특성을 감각-운동 체계와 접속(interface)하는 조음-청취의 음성형식 층위에서 논리주어와 시제동사가 어순에 따라 문자화될 때, 시제동사의 수를 기정동사 굴절어미 값으로 연산하여 주어-동사 일치결과를 발성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와 같이 주어-동사 수일치를 점검하는 연산과정에서 단순성 원리와 단수우선 원리가 적용되는 음운기제를 발화언어의 일치속성으로 해석하면, 'There+be+논리주어...' 구조에서 논리주어-동사 사이의 ϕ -자질일치에 대한 설명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최소주의 문법론의 ϕ -자질일치 분석과 점검에 따르면, there-구문에서 there은 완전한 ϕ -자질이 없는 상태로 3인칭 단수의 자질정보를 가지고 외부결합 되거나, ϕ -자질값을 평가받지 못한 상태로 외부결합 된다. 그러므로 탐침요소인 시제동사 be가 ϕ -자질값을 점검받기 위해서 목표요소를 찾을 때, 그 대상인 there은 3인칭 단수 ϕ -자질값 밖에 없으므로(Chomsky 2000, 2001, 2008) be는 is/was로 문자화되기가 쉽다(Hazout 2004, Hartmann 2008:31). 이러한 분석은 동사의 ϕ -자질정보인 수자질이 감각-운동 체계의 접속층위에 선행하는 협의의 통사구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과 부합된다(Bock & Cutting 1992). 또한, 심리언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구어표현에서는 경제성 원리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원형에 가까운 간단하고 무표적인 어근형태를 선택하려는 발화 충족조건이 강하게 요구된다(Tagliamonte 2008, Tagliamonte & Baayen 2012). 그 전형적인 한 가지 예로서 there-구문에서 무표의 단수형인 is/was를 사용하려는 경향성을 들 수 있다. 또한, 발화언어의 산출과 청취가 이루어지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에서 문장의 논리주어로 확인된 주어의 형태-통사 자질을 개념-의도 체계와 감각-운동 체계의 접속층위에서 주어-동사 ϕ -자질일치의 검색신호로 사용할 때, 형태-음운 정보, 어순, 의미관계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Mirković & MacDonald 2013). 이와 같은 순간적인 통합 연산과정에서 there-구문의 논리주어-시제동사 사이의 ϕ -자질일치도 통사구조 특성상 무표적이고 중립적인 기본단수값인 is/was으로 계산하는 것이 인식론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Bergs, A. and L. J. Brinton. 2012. *English Historical Linguis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Volume 1. Mouton: De Gruyter.
- Biber, D., S. Johansson, G. Leech, S. Conrad and E. Finegan.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Harlow, Essex: Pierson Education.
- Britain, D. 2002. Diffusion, Levelling, Simplification and Reallocation in Past Tense BE in the English Fens. *Journal of Sociolinguistics* 6. 16-43.

- Childs, C. 2012. Verbal -s and the Northern Subject Rule: Spatial Variation in Linguistic and Social linguistic Constraint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Limits and Areas in Dialectology*, 319-344.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Martin, R., D. Michaels and J. Uriagereka (eds.), *Step by Step*, 89-156. Cambridge, MA: The MIT Press.
- Chomsky, N. 2001. Derivation by Phase. In Kenstovicz, M.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1-52. Cambridge, MA: The MIT Press.
- Chomsky, N. 2008. On Phases. In Freidin R., C. P. Otero and M. L. Zubizarreta (eds.), *Foundational Issues in Linguistic Theory: Essays in Honor of Jean-Roger Vergnaud*, 133-166. Cambridge, MA: The MIT Press.
- Cowan, R. 2008.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ohmann, K. K. and R. Ingham. 2006. Tracking Agreement Mismatches in Middle English. ms. University of Cyprus & University of Central England.
- Haas, N. K. de. 2011. *Morphosyntactic Variation in Northern English: The Northern Subject Rule, Its Origins and Early History*. Utrecht: LOT Publication.
- Hartmann, J. M. 2008. *Expletives in Existentials: English there and German da*. Utrecht: LOT Publication.
- Hazout, I. 2004. The Syntax of Existential Constructions. *Linguistic Inquiry* 35, 393-430.
- Huddleston, R. and G. K.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dson, R. 1999. Subject-Verb Agreement in English.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3, 173-207.
- Ingham, R. 2001.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expletive *there* in premodern English. *Reading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5, 231-249.
- Klemola, J. 2000. The Origins of the Northern Subject Rule: A Case of Early Contact. In Hildegard, L. and C. Tristram (eds.), *Celtic languages II*, 329-346. Heidelberg: Winter.
- Leech, G. and J. Svartvik. 2002.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Harlow: Longman.
- Light, C. 2011. Expletive *There* in West Germanic. ms. *University of Pennsylvania*.
- McCafferty, K. 2003. The Northern Subject Rule in Ulster: How Scots, How English?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15. 105-139.
- Mirković, J. and M. C. MacDonald. 2013. When Singular and Plural Are both Grammatical: Semantic and Morphophonological Effects in Agreement.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69, 277-298.
- Nathan, G. S. 1981. What's These Facts About? *Linguistic Inquiry* 12, 151-153.
- Nevalainen, T. and I. Tieken-Boon van Ostade. 2006. Standardisation. In Hogg, R. and D. Denison. (eds.),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271-31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etsch, L. 2005. *Variable Grammars: Verbal Agreement in Northern Dialects of English*. Tübingen: Niemeyer.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Schendl. H. 2000. The Third Person Present Plural in Shakespeare's First Folio: A Casre Interaction of Morphology and Syntax? In Dalton-Puffer, C and N. Ritt (eds.), *Words: Structure, Meaning, Function*, 263-276. Berlin: Mouton de Gruyter.
- Schütze, C. T. 1999. English Expletive Constructions Are Not Infected. *Linguistic Inquiry* 30, 467-484.
- Sobin, N. 1997. Agreement, Default Rules, and Grammatical Viruses. *Linguistic Inquiry* 28, 318-343.
- Sparks, R. B. 1984. Here's a Few More Facts. *Linguistic Inquiry* 15, 179-183.
- Tagliamonte, S. 1998. Was/Were Variation cross the generations: View from the City of York.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10. 153-191.
- Tagliamonte, S. 2008. There *Was* Universals; Then There *Weren't*: A Comparative Sociolinguistic Perspective on 'Default Singulars.' In Filppula, M., J. Klemola and H. Paulasto (eds.), *Vernacular Universals and Language Contacts: Evidence from Varieties of English and Beyond*, 103-131.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Tagliamonte, S. A. and R. H. Baayen. 2012. Models, Forests, and Trees of York English: *Was/Were* Variation as a Case Study for Statistical Practice.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24, 135-178.
- Trudgill, P. 2008. English Dialect "Default Singulars," *Was* versus *Were*, Verner's Law, and Germanic Dialects.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36, 341-353.

이른바 국어 동격 명사구에 대하여

최 응 환

(안동대학교)

Choi, Ung-hwan. 2014. A study on appositive NP in Korean. This paper reviewed previous studies of appositive NP in Korean. This study has three themes: First,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appositive NP in Korean. Second, types of appositive NP in Korean. Third, critical understanding for syntactic construction of appositive NP in Korean.

1. 서론

본 발표는 국어 동격 명사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선행 단계로서,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어 온, 소위 ‘국어 동격 명사구’에 대한 기술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명사구는 동사구와 더불어 두 큰 주요 통사 범주 중 하나이다. 두 범주가 갖는 동형성과 이질성에 대한 탐색은 통사론 연구의 주된 쟁점이었다. 두 범주의 동형성에 연구 지향점을 두는 추세이기는 하나, 동사구에 비해 명사구는 보편적 구조로 일반화하기 힘든 또는 구성의 실체에 대한 구명이 쉽지 않은 다양한 개별적 유형들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 중 명사구의 주변적 현상으로 여겨져 아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명사구 유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격 명사구(Appositive NP)’이다.

- (1) a. [그의 민족 연구]는
b. [새 책]은, [어제 사온 책]은
c. [국제 회담]이
- (2) a. [울곡 이이]NP는
b. [저들 번역자]NP는
- (3) a. [영희, 민희, 순이]는
b. [철수와 영희]는

대체적으로 (1)은 ‘논항-핵 명사’ 구조나 핵 명사에 선행 요소로 부가어, 관형 명사 등을 관형 요소로 갖는 구조 유형들로 다루어져 온 것들이다. (3)은 대개 병렬적 명사구 유형들로 다루어져 온 것들이다. ‘동격 명사구’를 다룬 많은 논의에서, 고유명사 구성과 대명사 구성 유형으로 대체적 합일점을 보이는 동격 명사구(‘NP1+ NP2’)의 전형적인 예가 (2)이다. 이 동격 명사구는 여타 명사구 구성의 각 구성 단위와 달리, 예에서 확인되듯이, 의미적으로 두 명사구는 동일한 개체를 지시하는 ‘동지시성’을 가지며, 동일한 통사 범주 ‘NP’로서 각 요소는 문장 내에서 동일한 통사적 (격 또는) 자격을 갖는 것으로 기술된다. 한편, 각각의 명사구는 모문장의 개별적 요구 성분이 아니라, 두 명사구가 하나의 ‘복합적 명사구’를 형성하는데 그 구조는 (1)과 관련한 것(김인균 2005, 2009)으로도, (3)과 관련한 것(이선웅 2005, 2007)으로도, 또는 기존의 논의와 다소 다른 관점에서 구조적 특성을 갖

는 것(홍용철 2014)으로1) 다루어지기도 하였다.2)

일견 명사구의 동격 구성에 대한 다양한 기술 방법론이 모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으로 합일되지 못하는 분석 방식은 동격 명사구의 실체성이 아직은 불투명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어 동격 명사구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의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들을 통해 더 구체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발표는 그 일환으로서 기존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동격 명사구 구성이 어떻게 이해돼 왔는지를 논점별로 살펴 보려 한다.

2. 동격 명사구의 개념(및 특징)

동격 명사구의 개념을 세우고 그것을 특징화하는 데 있어서, 언어학사적으로, ‘형태정보(4) -> 통사정보(5) ->(+의미정보(6) + 화용정보(7)’ 등과 같은 준거들이 언어학사적으로 거론되거나 요구돼 왔다. 이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라틴문법 : the city *of*(*appositional*) Rome

(5) a. Bloomfield(1993)

: 병렬적으로 결합된 형태들이 문법적으로 동등한 경우

b. 최현배(1937/1961)

: 한 율 가운데에서 한 가지의 조각이 여럿이 같은 자격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여 나란히 서는 것(同位, 同格)

c. 김영희(1998)³⁾

: 동일 형태범주, 동일 의미 기능 및 동일 통사 기능을 가진 성분들이 나란히 나타나는 구성(동격 구성)

(6) a. Quirk et al.(1985)

: 명사구 사이의 관계, *지시적 동일성*

b. 서정수(1995: 576-581)

- 1) 김인균(2005)에서는 관형 구성 중 ‘가난뱅이 아버지’ 등을 예로 하는 동격 명사구 유형을 두었다가, 김인균(2009)에서 이전 논의를 비판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동격 명사구 유형들을 좀 더 명세적으로 정리하면서 통사적으로 관형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선웅(2005, 2007)에서는 명사구의 유형 중 병렬 구성으로서 접속 명사구, 환인명사구 등과 함께 동격 명사구를 두었다. 최근 홍용철(2014)에서는 (3)과 유사한 유형의 동격 명사구를 대상으로 이들이 하나의 복합 명사구를 이루며, 내적으로 ‘술어-주어’의 부가어 구조 또는 ‘NP1-별칭어’구조를 갖는 것으로 기술하기도 하였다.
- 2) 이 구분은 곧 동격 명사구에서 선행 요소가 핵 명사의 의미역 논항이 될 수 없으며, 두 명사구의 병치가 대등이나 접속, 또는 나열 구성과도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3) 해당 논의에서 제시된 유형은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익섭(1973)에서 언급한 동격 명사구로서의 셈술말을 하나의 동격 명사구 유형으로 잡았다는 것과 선,후행 명사구에 격조사가 실현된 비명세-명세구성을 하나의 동격 명사구로 보았다는 점이다.

유형	격조사 실현 유무	휴지	예문
비명세-명세구성	선,후행 NP에 필수	없음	[꽃이 노란 것이] 활짝 피었다.
성분제시어-조용사 구성	후행 NP만	있음	[철수, 그 애가] 그 소식을 알려 왔다.
고유명사 구성	후행 NP만	없음	[순이의 친구 명이가] 은밀히 나를 찾아 왔다.
대명사 구성	후행 NP만	없음	[나 백수가] 도대체 그런 돈을 가지고 있겠느냐?
셈술말 구성	선행명사(격조사) 후행명사+격조사	없음	[손님 모두가] 일찌감치 갔다.

: 일반적으로 한 명사구가 동일 지시 관계에 있는 만 명사구를 한정하는 것

c. 김인균(2009)

나란히 나타나는 동일한 두 형태(통사) 범주 명사구가 하나의 개체를 지시하거나 동일한 의미를 지니면서 같은 자격(appositive)을 가진 구성

(7) 이선웅(2007)

a. 동격 : 언어 외적으로 동시지시적인 둘 이상의 명사구가 각 명사구의 중간에 아무런 언어 형식을 개입시키지 않는 (순수하게) 병렬적으로 구성되는 현상

b. 동격 구성(=동격명사구) : 동격을 통해 이루어진 명사구 성분

c. 동격어 : 동격 구성 내부에 있는 각 명사구

d. 동지시의 화용론적 고려, 문맥을 고려한 동지시의 유형화⁴⁾

(8) 서반석(2012)⁵⁾

a. 동격은 둘 이상의 NP가 갖는 관계이다.

b. 동격 관계에 있는 NP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동격 구성은 문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 각 요소는 동일한 통사적 기능을 나타내며 이들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동격 구성 역시 이들과 동일한 기능을 나타낸다.

c. 동격 관계에 있는 NP들은 동일한 지시를 갖는 동시에 서로 다른 의의를 갖는다.

d. 동격 확인 요소를 가질 수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에서 보이는 견해들을 통해 국어 동격 명사구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추이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4)에서의 선, 후행 명사구의 동격성은 'of'이 부여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후 통사적 동격성을 중시한 개념 규정에서, 의미적 정보를 주요 내용으로 담는 개념 규정 단계를 거쳐, 최근에 이르러 동격어 간의 화용적 의미 관계까지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대체적으로 동격 명사구는 두 (개 이상의) 명사구의 동지시성이라는 의미적 관계를 갖는 통사적 구성체이다.

3. 동격 명사구의 유형 및 범위

기존 논의에서 거론되는 동격 명사구의 유형과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유형	김영희 (1998)	서정수 (1995)	이선웅 (2007)	김인균 (2005,2009)	서반석 (2012)
(일반명사 간 구성) ■ 대학생 아버지 ■ 시인 친구			× (보충어-핵어) ○	×(보충어-핵)	
■ 친구 순이(고유명사) ■ 명기 황진이	○	○	■ 선행 명사구의 '지시적 해석' '속성적 해석' (비동격, 수식)에 따라 구분	○	○

4) 괄호 내용은 해당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표자가 따로 채워 넣은 것이다.

5) 동격 명사구만을 대상으로 한 처음의 학위논문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김인균(2009), 이선웅(2007)의 관점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나, 동지시 관계를 좀 더 명세화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논의에서 배제하는 동격 확인 요소들을 동격 명사구가 가질 수 있다는 논점을 취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해당 논의에서는 명사구로서, 명사구 내에서의 동격 명사구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 '문장 범위 내', '통사적 기능이 개별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동격 명사구의 범위를 좀 더 명세화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백수(대명사) 나 김영삼, 저들 반역자, ■ 나 자신, 그 물건 자체, 할아버지 당신 	○	○	○ (다만, '나 자신, 그 물건 자체, 할아버지 당신' 류는 '보충어+핵명사'의 수식구성으로 보아 배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영달 선생 (고유명사+호/지칭) ->선생 정영달 ■ 이승만 대통령 (호/지칭 +고유명사) ->대통령 이승만 		○	○ (다만'보충어+호/지칭어 핵 명사' 구성은 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친 시, 백두 산 (지명, 행정) 		○	× (보충어+핵 명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님 모두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이, 그애가 ■ 해장국, 그것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의 형 죽/곧/ 다 시 말해/말하자면/ 일명 시인 ■ 화가 겸/ 및 시인 ■ 철수 혹은/또는 영수 		○	× (후보충의 부가어 처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은, 아주 밝은] ■ [천천히, 아주 천천히] ■ 꽃이 노란 것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게 요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수 자기는 					×

대체적으로 서정수(1995), 김인균(2009), 서반석(2012)은 동격 명사구의 유형과 범위를 다소 폭넓게 두고 있으며, 이선웅(2007)은 해당 논의에서 보인 동격 명사구의 개념이 갖는 엄밀성에 근거해 그 유형이나 범위가 제한되는 경향⁶⁾을 보인다.⁷⁾ 논자들 간에 동지시성의 이해, 동격 요소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의 차이로 인해 유형과 범위에서 불합치 되는 점이 아직 커 보인다.

4. 동격 명사구의 (통사적) 구조

동격 명사구의 개념 규정이 동지시라는 의미적 정보에 초점을 두고 명세화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격 명사구의 통사적 특성 또는 그 구조와 관련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거나 불투명한 상태이다. 김영희(1998)과 홍용철(2014) 정도에서 선, 후행 명사구가 각기 문장의 서술어와 관련되는 개별적인 성분이 아니라 하나의 명사구([NP1 NP2]NP)를 구성하여 성분성⁸⁾을 갖는 단위임을 확인하고, 그 내적 구조의 통사적 근거나 이론적 가정을 제

- 6) 유형란에는 대표적인 예를 제시한 것이다. 각 논자들마다 각 유형별로도 동격 명사구 판단에 차이가 있고 감각이 있다.
- 7) 대체적으로 빈칸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에 해당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유형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다만 김영희(1998)은 다섯 가지 유형에 집중한 논의이므로 빈칸에 대한 판단은 유보적이며, 서반석(2012)의 논의는 말뭉치를 중심으로 실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유형들을 다루고 있어, 빈칸의 유형에 대한 판단은 마찬가지로 유보적이다.
- 8) 관형형 머리어 되기, 다른 주요 성분의 개입 가능성 등의 진단이 가능하다.

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된다.⁹⁾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른바 국어에서의 동격 명사구를 어떠한 구조로 보아야 할지¹⁰⁾에 대한 판단에는 이론내적인 한계점이 있다는 점이다. 그 한계점은 바로 동격 명사구의 개념적 사실들은 그 구성체의 통사적 기술에 특이적 사항이 되거나 배치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개 동격명사구는 관형 수식(부가) 구조나 병렬 구조로 처리된다. 동격 명사구를 핵 명사에 대한 논항의 구조로 볼 수 없다면 현재 적용 가능한 대안은 부가 구조나 병렬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다소 임시적인 조치일 수 있다.

국어 부가 구조의 전형은 핵적 단위로서의 후행 명사구에 대한 선행 명사구의 의미적 첨가나 제한 기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동격 명사구의 개념에서 볼 때, 선행 명사구가 후행 명사구에 대해 의미적 수식어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속성적 의미 특성은 지시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¹¹⁾ 또한 동격 명사구에서 후행 명사구를 핵적 단위([NP1 NP2]NP2)로 볼 수 있는지도 확정적이지 않다. 각각 지시성을 갖는 명사구로서의 동지시성 관계라면 두 명사구는 모두 '동격어'로 보는 것([NP1 NP2]NP3)이 더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 명사구 부가 구조에 대한 새로운 기술 체계를 기대하지 않는 한 동격 명사구를 부가 구조로 처리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물론 이선웅(2007)에서처럼 화용적 정보를 좀 더 명세화 하거나, 서반석(2012)에서처럼 두 명사구의 (동지시성과 함께) 의미적 특성(의미적 차이)를 좀 더 개념화 하는 방법을 통해 수식적 부가 구조를 확대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동격 명사구의 동지시성을 상황적 해석에 기대는 것으로 보게 한다는 난점이 있다. 남은 대안은 병렬 구조 기술이다. 사실상 동격 명사구의 개념적 사실들을 가장 잘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병렬 구조로 보인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현재의 이분지적 구조 기술 방식에서 병렬 구조는 아직까지 충분히 보장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동격 명사구의 개념과 특징으로 거론되는 사실들을 합당한 것으로 전제하는 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통사적 구조는 특이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¹²⁾ 극단적으로는 '동격 구성'이 통사적인 구조에 대한 성격화가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동격 구성이란 몇 가지의 이질적인 구성을 의미론적으로 유형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흥빈 1987)이라 견해를 차단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¹³⁾

이상의 문제는 결국 동격 명사구를 두 명사구의 의미적 관계 정보로 바라 본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통사적 격(표지 실현)을 준거로 하는 개념 인식에서 벗어나 동일한 통사적 자격(또는 기능이)라는 준거를 통해 동격 명사구의 문법적 특성을 현재 견지하

-
- 9) 물론 본 발표에서 언급하는 여타의 논의에서도 동격 명사구의 구조를 병렬 구조나 관형/부가수식 구조로 기술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선언적이라고 할 수 있다.
- 10) 주지하다시피, 서구어의 동격 구성은 (비)제한성, 의미 관계에 따른 휴지의 사용, 후행 요소의 삼입어적 특성 등에 따라 느슨한 동격과 긴밀한 동격으로 구분된다. 또한 선, 후행 명사구의 한정성도 각 동격에 따라 차별적인 현상을 보인다. 홍용철(2014)에서 살펴보고 있듯이 국어 동격 구성도 그러한 특성에 어느 정도 일치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개별 언어적인 차이 또한 적지 않다.
- 11) 이러한 이유로, 초기 의미적 관점에서 동격 명사구로 보았던 '대학생 아버지'에서 '대학생'은 지시성을 갖지 못하며, 핵 명사 아버지에 대한 속성적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동격 명사구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낳기도 했다.
- 12) 영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영어의 경우 동격 명사구는 그 형식과 의미적 기능에서 불일치되는 (mismatch), 다소 이론적 설명이 난해한 문법 단위 중 하나로 여긴다. 두 명사구가 일정한 연쇄를 형성하지만 그 연쇄가 통사적이기보다는 의미적/지시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임채경 2011 :47). 즉 동격은 그 구조에 있어서 뚜렷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애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김용성 1982, 551)인식되기도 하였다.
- 13) 김인균(2009)에서 동격 명사구의 유형 및 범위와 구조를 깊이 있게 천착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관형 명사구의 하나로 국어 문법 내적으로 독자적인 명사구 구성체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론내적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고는 있지만, 그것이 두 명사구의 동일한 격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선행 명사구가 격을 드러낼 수 있는 단위이며, 국어의 일반적인 명사구 구성의 통사 정보를 고려할 때, 그것을 한 성분으로 하는 명사구는 특이성을 갖는 명사구 구성체가 된다는 점에서 그 해명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통해 국어 동격 명사구의 통사적 이해의 깊이가 깊어져야 할 것이다.

5. 마무리

이제까지 기존의 논의에서 국어 동격 명사구가 어떻게 이해되고 다루어져 왔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동격 명사구의 개념을 보장하는 구조적 특성을 기술해 내기 어렵다는 극단적 비판에 이르면 국어 동격 명사구는 두 명사구 간의 특이한 의미적 관계의 산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동지시적인 두 명사구가 하나의 성분 단위적 구성체를 이루고 있으며, 그러한 실현형이 적지 않게 국어 언어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면 결코 주변적인 언어 현상으로 여길 수 없어 보인다.

그 동안 최현배(1937)에서 보인 동위 병치적 현상이나 특정 성분이나 통사단위의 반복적 실현과 관련된 명사구 유형들과 동격 명사구를 하위적으로는 구분하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자는 동지시성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동위적 문법 기능이라는 점에서 동격 구성과 닮아 있다. 후자는 단순 반복 나열에 그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으나 동지시성은 도리어 더욱 강하게 가질 수 있다. 동격 명사구는 어쩌면 그 경계의 의미적, 구조적 구성체일 수 있다. 이들을 아우르거나 그들 간의 관계성을 보장하는 구조적 병렬성을 새롭게나마 이론적 가정을 통해 제시할 수 있다면, 국어 동격 명사구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희. 1998. “명사구 동격 구성의 한 유형”, 「한국어 통사론을 위한 논의」. 서울:한국문화사. 329-353.
- 김용성. 1982. “동격의 문법적 고찰”. 「영어영문」 28-3. 551-579.
- 김인균. 2009. “동격 명사구의 유형 및 범위와 구조”. 「우리말 연구」 24. 59-84.
- 서반석. 2012. “한국어 명사구 동격 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정수. 1995. 「국어 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 이선웅. 2005. 「국어 명사의 논항 구조」. 서울: 월인.
- 이선웅. 2007. “국어 동격 명사구의 개념과 유형”. 「어문학」 98. 159-185.
- 이익섭. 1973. “국어 수량사구의 통사 기능에 대하여”, 「어학연구」 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회. 47-63.
- 임홍빈. 1987. “국어의 명사구 확장 규칙에 대하여”. 「국어학」 16. 379-430.
- 최재희. 2000. “국어 중복 표현의 유형과 의미 구조의 특성”, 「국어학」 36, 401-426.
- 최현배. 1937/1961.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 홍용철. 2014. “두 가지 유형의 소위 한국어 동격 구문”. 「현대문법 연구」 24-1. 281-306.
- Chegyong Im. 2011. “Merge of Topic and Pronominal Apposition Construction in AAVE. Linguistic Research 28(1), 37-51.

부정극성의 통사·의미적 연구: '아무'를 중심으로

제 갈 덕 주

(경북대학교)

Jegal, Deok-Ju. 2014. The syntax and semantics of negative polarity property in Korean.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0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yntactic structure and semantic property of negative polarity items. They could only combine with Negative marks. 아무(amu) has been dealing with a kind of negative polarity items.

However I think that 아무 does not have negative polarity property. thus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some facts. First, 아무도 is a negative polarity item in Korean. Second, 아무도 is a kind of DP(determine prase) in Korean. Third, 아무 has a polarity property and 도(do) has a negative property.(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이 연구는 극성 표현의 통사 구조와 의미 특징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any'의 대역어로 통용되고 있는 '아무'를 중심으로 '아무도', '아무라도', '아무나', '아무리' 등의 극성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이 본고의 핵심 과제이다. '아무-도', '아무-라도', '아무-나'는 '아무'라는 명사(N) 뒤에 특수조사(D)가 결합된 조사구의 일종²⁾이고, '아무리'는 부사(A)의 일종이다.

지금까지 '아무(any)'에 관한 연구는 부정극어 연구의 일환으로 다루어져 왔다. 부정극어에 관한 연구는 이기종(1989), 시정곤(2003), 국지연(2005), 구종남(2007) 등이 있으며, 국외 연구로는 Ladusaw(1979), Zwarts(1993), Kifka(1995), van Rooy, R.(2003) 등이 있다.

선행연구의 주요 논의는, 'any'에는 부정극성(negative polarity)이 있어서 부정 문맥 속에서만 분포할 수 있으며, 그 허가자로서 부정문 형성의 통사적 증거인 'not'과 같은 부정 표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부정역이 미치는 범위와 정도에 따라 함수적 유형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 등이 함께 논의되어 왔다. 한국어 '아무'도 이와 유사한 성질을 보임에 따라 선행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부정극어'의 일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허가자로는 단형부정문의 통사적 부정표지인 '안/못'과 장형부정문의 통사적 부정표지인 '-지 않/못하/말-' 등이 다루어져 왔다. 이 외에 특수한 부정표지의 사

1)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아무'의 뜻풀이

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르는 인칭 대명사. 흔히 부정의 뜻을 가진 서술어와 호응하나, '나', '라도'와 같은 조사와 함께 쓰일 때는 긍정의 뜻을 가진 서술어와 호응하기도 한다.

나. ((성(姓) 다음에 쓰여)) 어떤 사람을 구체적인 이름 대신 이르는 인칭 대명사.

2) 명사와 조사의 결합된 범주를 명사구로 볼 것인가 조사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사가 핵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임동훈(1991, 2008)과 한정환(2003, 2010)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격조사의 경우 두 견해 사이에 입장의 차이가 극명하나 특수조사의 경우에는 핵성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받아드려 '아무도', '아무나', '아무라도'를 조사구로 다루고자 한다.

례로서 ‘없다’, ‘모르다’ 등의 부정성을 지닌 형용사들도 함께 다루어져 왔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서 대역어 또는 한국어만의 특수한 부정극어를 발굴하고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반면, 본고에서는 ‘아무’가 포함된 문장 분석을 통해 부정극성이 생성되는 원리를 밝혀 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부정극어의 양면성

부정극어는 부정문이나 부정 표현처럼 매우 한정적인 문맥 속에서만 출현할 수 있는 분포제약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any의 경우 부정표지인 ‘not’이 출현하는 환경에 분포할 수 있으므로 부정극어의 일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표지와 통사적 결합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다음은 영어 문장에서 anything이 부정조동사 won’t 또는 hasn’t와 결합한 양상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 (1) a. The fact that he has reigned won’t change anything
 b. *The fact that he hasn’t reigned will change anything

이때 (1a)은 통사적으로 적격한 문장이고, (1b)는 부적격한 문장이 된다. won’t와 hasn’t는 모두 not이라는 부정표지를 공유하고 있지만, anything과의 결합에 있어서 통사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이는 not의 부정역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때 부정역의 영향 범위를 통사적으로 환원시켜 주는 장치가 성분통어라고 할 수 있다. (1a)에서 won’t change anything은 I’의 지배를 받는데, won’t는 I로서 핵어가 되고, change anything은 VP로서 I의 보충어가 된다. 또한 change는 V로서 VP의 핵어가 되고 PRN인 anything은 V의 보충어가 된다. 따라서 I’의 관할을 받는 I가 그 자매의 딸인 PRN을 성분통어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1b)에서 han’t는 I’가 아닌 IP의 몇 단계 아래에 존재하고 있어 anything을 성분통어할 수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Andrew Radford 1999).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일차적으로 ‘any’는 부정표지가 존재하는 부정문에서만 출현한다는 점에서 부정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any’의 부정극성[+neg]은 그 허가자의 성분통어를 받는다.

이상의 두 가지 사실은 부정극어 any의 존재 양식이 ‘부정[+neg]’이라고 하는 ‘의미 영역’과 ‘성분통어[+C-command]’라고 하는 ‘통사 영역’에 걸쳐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때 any가 지닌 통사의미적 양면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부정[+neg]은 논리형식부에서, 성분통어는 통사부에서 각각 점검받는다.

둘째, 부정[+neg]은 통사자질과 의미자질로 이원화되어 있고, 부정극어의 자질 점검은 성분통어와 함께 통사부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부정[+neg]은 원칙적으로 의미자질이지만, 부정극어의 경우 특수한 어휘성을 지니고 있어 통사부의 점검 과정에 영향을 준다.

이상의 논의는, ‘통사부와 논리형식부(의미해석부)는 이원화되어 있고 통사부의 조작 과정이 논리형식부에 선행한다.’라고 보는 문법관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는 이러한 가설을 엄격히 해석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셋째는 이러한 가설에도 예외가 존재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는 이러한 문법 가설을 지키면서 부정의 통사성에 대해 일부 여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절충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문법의 본질과 더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는 본고의 연구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별도의 논의를 요구하는 부분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아무'의 부정극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양면성 문제가 남아 있음을 밝히고, 통사의미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아무'의 부정극성

'아무'는 영어의 'any' 또는 'anything'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부정극어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때 '부정극어'란 부정극성을 지닌 '단어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한국어에 있어서 '아무'를 부정극어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아래의 보기에서와 같이 '아무'가 독자적으로 부정극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이 다소 발견된다.

- (2) a. 그 돌은 철수도 든다.
 b. 그 돌은 철수도 들지 못한다.
 c. 그 돌은 철수라도 든다.
 d. 그 돌은 철수라도 들지 못한다.
- (3) a. *그 돌은 아무도 든다.
 b. 그 돌은 아무도 들지 못한다.
 c. 그 돌은 아무라도 든다.
 d. *그 돌은 아무라도 들지 못한다.

(2)~(3)은 특수조사(D)와 그 피접항인 '철수', '아무'의 결합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보기에서와 같이 이들의 결합에는 일정한 결합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피접항의 성질을 볼 때, (2)의 '철수'에 비해 (3)의 '아무'가 부정에 대한 어떤 유효성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철수'는 어떠한 특수조사와 결합해도 '긍정문'과 '부정문'을 모두 생성해 낼 수 있다. 반면, (3a, 3d)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무'는 '긍정문'에서 출현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으로 보았을 때 '아무'가 일반적인 명사에 비해 '부정[+neg]'과 어떠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어 보인다. (3a, 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조사 '도'와 결합할 때에는 '부정[+neg]'의 극성을 띠지만, 반대로 (3c, 3d)와 같이 특수조사 '라도'와 결합할 때에는 '긍정[-neg]'의 극성을 띠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자유로운 분포를 보이는 결합 경우도 있다.

- (4) a. 그 돌은 아무나 든다.
 b. 그 돌은 아무나 들지 못한다.

만약 '아무'가 독자적으로 '부정극성'을 띠고 있는 부정극어라면, '아무'가 속한 조사구

(DP)와 부정표지 사이에 아무런 결합 제약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의 사례와 같이 ‘도’, ‘라도’, ‘나’의 경우가 각각 달리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어에 있어서 부정극어는 ‘단어’ 단위가 아니라 ‘구’ 단위로 존재한다.³⁾

둘째, 부정극어의 단위가 한국어와 영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부정극어의 기본 단위가 의미단위라는 것을 암시한다.

셋째, 한국어에 있어서 ‘아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부정극어는 ‘아무-도’이다.

넷째, 조사구 ‘아무-도’에서 ‘아무’는 극성[+pol]을 형성하는 요소이며, ‘도’는 부정[+neg]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다섯째, 조사구 ‘아무-도’는 통사적 과정을 통해 결합된 두 형태 단위의 성질 합성으로 ‘부정극성’을 형성한다.

4. 결론

<생략>

참고문헌

- 구종남(2003), “국어 부정극어의 유형”, 『국어문학』 38, 국어문학회.
 구종남(2007), “화용론적 가정과 부정극어”, 『한국언어문학』 60, 한국언어문학회.
 국지연(2005), “부정 극성에 대한 인지 화용론적 접근”, 『영어학』 5, 한국영어학회.
 김미자(2002), “비진언성 이론에 입각한 부정극어 연구”, 『영어학』 2, 한국영어학회.
 김종현(2004), “영어 수사의문문에서의 형식, 의미, 언어적 추론”, 『어문연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남기심·고영근(2009),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시정곤(2003), “국어의 부정극어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오명기(1996), “반의문에서의 부정극어 인허”, 『커뮤니케이션학연구』 4,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이기중(1989), “국어 부정구문에 관한 연구-부정극어를 중심으로”, 『한남어문학』,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이성범(1999), 『언어와 의미』, 태학사.
 이흥배 역(1999), 『최소주의 통사이론과 영어』, 한신문화사.
 홍민표(2010), “부정극어와 의문문의 의미와 화용”, 『언어연구』 27, 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
 홍사만(2002), 『국어 특수조사 신연구』, 역락.
 임흥빈(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 국어연구소.
 Chungmin Lee(1999b), Types of NPIs and Nonveridicality, UCLA Working Papers in

3) 본고에서는 ‘아무리[+neg] 밥을 먹어도[+pol], 배가 부르지 않았다.’와 같이 선행절에 있어서 부정극성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때도 마찬가지로 선행절이 하나의 ‘구 단위’로서 전체 문장의 의미 형성에 관여한다는 원리를 상정하고 있다.

- Linguistics, 3: Syntax at sunset 2, ed. by G. Storto, 96-132 Dept. of Linguistics, UCLA.
- Giannakidou, A.(1998). Polarity Sensitivity as (Non)veridical Dependency. John Benjamins, Amsterdam.
- Krifka, M.(1994),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Weak and Strong Polarity Items in assertions. Proceedings of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IV.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195-220.
- Krifka, M.(1995),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olarity Items. Linguistic Analysis 25:209-257.
- Ladusaw, W.(1979), Polarity Sensitivity as Inherent Scope Relation. Ph.D. Diss., Univ. of Texas at austin; distributed by IULC.
- Ladusaw, W.(1980a). Affective or Factive Verbs, And Negative Polarity Items. Chicago Linguistic Society 16.
- Progovac, L.(1993), Negative Polarity: Entailment and Binding. Linguistic & Philosophy 16:149-180.
- van Rooy, R.(2003), Negative Polarity Items in Questions: Strength as Relevance. journal of semantics 20, 239-273.
- Zwarts, F.(1993), Three Types of Polarity, Unpublished ms. Univ. of Groningen.
- Zwarts. F.(1994), Polarity Items,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6:3201-3205.
- Zwarts, F.(1995), Nonveridical Contexts. Linguistic Analysis 25: 286-312.
- Zwarts, F.(1998), Three Types of Polarity, Plurality and Quantification, Fritz Hamm and Erhard Hinrich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77-238.

현대/고대 프랑스어 전치사구-도치구문의 비교연구

김 신 호

(영산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고대 프랑스어(12c-13c 이하: OF)에 나타난 장소구 도치(Locative Inversion, 이하; LI) 현상을 Chomsky(2008: 133-166)의 자질계승이론과 Goto(2008: 1-28)의 수정-자질계승을 통합하고, 프랑스어 구조의 분석에 맞도록 다시 수정-제안하면서, 현대 프랑스어(이하: MF)의 분석을 위한 공시적 관점에서, 시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통사적 도출을 통하여 OF의 LI구문이 생성되는지 비교-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Coté(1995: 20)에 따르면 MF의 구조는 OF의 구조와 비교하여 두 가지 변화를 겪는다고 제안한다. 첫째는 동사의 C로의 인상과 XP의 Spec-CP로의 인상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화는 주격의 할당을 책임지는 매개변인의 가치가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고려된다. 둘째는 Spec-TP로 주어가 의무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이위치는 다른 구성요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도 주격의 할당이 기저위치가 아니라 반드시 Spec-TP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OF 뿐만 아니라 MF에서도 도치구문이 관찰되는데, 바로 LI구문이 그 중 하나이다. Fuchs(2006: 1)에 따르면 MF에서 문의 구성요소들의 어순은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제약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규칙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규칙의 적용이 어떤 형태의 제약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MF에서 LI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은데, 주어가 동사 주위에서 전치사적 형태가 아니라 단일 명사구형태를 취하고, 동사가 자동사 유형일 때 대부분 LI형태를 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이 OF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며, 또는 다른 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밝히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구조의 선형순서(linear order)는 매개변인(parametric variation)의 지배를 받아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이러한 어순의 다양화는 종종 통사적 도출에서의 차이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 왔다. 특히 동사의 위치와 관계되는 어순의 차이점들은 한편으로는 기능 범주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국면인 CP(보문자 최대투사)의 내부 구조의 계층화와 특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V2현상을 나타내는 OF에서는 C(보문자)가 일종의 정형성 자질(finiteness feature)을 내포하기 때문에, 정형동사를 C의 위치로 이동시킨다고 가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프랑스어에 적용하면, LI구문에서 장소구가 Spec-CP(보문자 최대투사의 지정어)에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도치된 정형동사도 반드시 C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Chomsky(2008: 148-152)의 자질계승이론과 병렬식 이동으로 더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으며, MF 뿐만 아니라, OF 도치구문의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어와 영어의 구조에서는 동사 이동의 착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프랑스어의 구조에 맞는 자질계승 이론을 정립하고, 다시 보완하여 프랑스어의 구조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

을 전제로 하면서 분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의 세 가지 매개변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약된다. 첫째, OF에서 LI는 MF에서의 LI와 같은 제약을 받는가? 둘째, 무엇이 장소구를 Spec-CP로 이동시키는가? 셋째, OF에서 영주어 구조의 LI구문과 어휘주어(명사/접사)의 LI구문은 같은 통사적 절차를 갖는가, 아니면 서로 분리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과제들을 밝힘으로써, La Chanson de Roland(1090)과 약 1세기 후의 Le Chevalier de la Charrete(1179-1181)에 나타난 OF의 LI구문의 구조가 별개의 규칙이나 가설에 의해서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 구성된 것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2. 현대 프랑스어의 장소구 도치와 자질계승

이 장에서는 필자가 Kim(2013: 83-86)에서 다룬 Chomsky(2008)의 자질계승의 문제점과 Goto(2008)의 수정제안을 다시 검토해보고, Kim(2010)에서 분석한 MF의 LI와 병렬이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다룬 OF 구조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EPP를 삭제하고 대신 EF를 도입하려는 타당성은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1) a. De là venait son malaise effaré.

‘From that came his scared discomfort.’

- b. Actuellement se développe à Hanoï une école anthropologique dont le but est double.

‘Actually REFL develops in Hanoï an anthropological school of which the object is double.’

- c. Tenez, hier après-midi, est venu à ma table Urbain Réveillat.

‘Well, yesterday afternoon, came to my table Urbain Réveillat.’

(Togoby 1985: 153)

위의 예문에서 주어(Spec-TP)의 위치는 각각 장소구, 양태부사, 시간부사로 채워져 있으며, LI나 중량명사구 도치로 분석되는데, 이 주어 위치들은 EPP에서 요구하는 주어가 아니라, XP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EPP 보다 Spec-CP 또는 Spec-TP로 수반-이동(Pied-piping)을 담당하는 EF의 설정이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문절과 내포문절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안할 것이다.

- (2) a. C_{[EF][Agree][Tense]} T_[IEF] (Matrix Clause)

- b. C_[EF] T_{[Agree][Tense][IEF]} (Embedded Clause)

이러한 필자의 제안을 MF의 LI 구조에 적용해보자. Kim(2010: 131-2)에서도 언급하였듯이, LI구문에서는 주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구가 이동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장소구가 화제화 되어 전치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그리고 LI구문에서 동사 뒤의 주어의 위치는 *vP*의 지정어(Spec-*vP*)위치로 분석되어야 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이 양화사 *tous*를 포함한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a. Dans cette cave étaient cachés tous les diamands volés.
 'In this cave had-been put all the diamonds stolen.'
 b. *Dans cette cave tous étaient cachés les diamands volés.
 c. *Dans cette cave étaient tous cachés les diamands volés.

(4) Dans cette cave étaient cachés [_{VP} tous les diamands volés.....]

(3b, c)가 비문인 이유는 (4)의 구조에서 국면인 *vP*로부터 핵의 요소가 아닌 보충어 요소 *tous*가 국면 밖으로 이동을 하여, Chomsky(2000: 108)가 제시한 국면 불침투 조건(PIC)¹⁾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Chomsky(2008: 150)는 영어의 의문문 구조에서, 병렬식 이동의 개념을 도입하는데, 자질계승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자.

- (5) a. C [T [qui [*v** voit Jean]]]].
 b. qui_i [C [qui_j [T [qui_k *v** voit Jean]]]]].
 c. qui voit Jean? 'who sees John?'

- (6) a. C [T [*v* [arrive qui]]]].
 b. qui_i [C [qui_j [T [*v* arrive qui_k]]]]].
 c. qui arrive? 'who arrives?'

(5)의 *v**-국면에서는 *v**-Jean의 일치가 모든 비해석성 자질들을 평가한다. C-국면에서는, C의 외곽-자질(EF: edge-feature)과 일치-자질(*agree*(φ)-feature)이 Spec-*v**P에 있는 목표 *qui*를 찾아 Spec-CP로 인상시킨다. 동시에, C에서 T로 물려받은 일치-자질은 이 *qui*를 Spec-TP로 인상한다. 그 결과가 (5b)이다. (6b)에서는 더 낮은 *v**-국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C의 외곽-자질들과 일치-자질들에 대한 병렬식 적용을 통해서 (6a)로부터 (6b)가 도출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논항/비논항의 위치들이 그들의 구조적인 위치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출되는 방법에 의해서 구별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병렬이동이 LI구문에서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장소구도 논항(A)과 비논항(A')의 속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우선 장소구 이동을 A'-이동으로 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전치된 장소구의 위치에 의문사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 (7) a. Où étaient rangées les chaussures?
 'where were arranged the shoes?'
 b. ??Dans l'armoire étaient rangées les chaussures?
 'In the closet were arranged the shoes?' (Muller 2007: 2)

1) Phase-Impenetrability Condition

In Phase α with head H, the domain of H is not accessible to operations outside α , only H and its edge are accessible to such operation. (Chomsky 2000: 108)

(7)에서 où(where)와 dans l'armoire(in the closet)는 CP 층위로 인상되어 의문사 구문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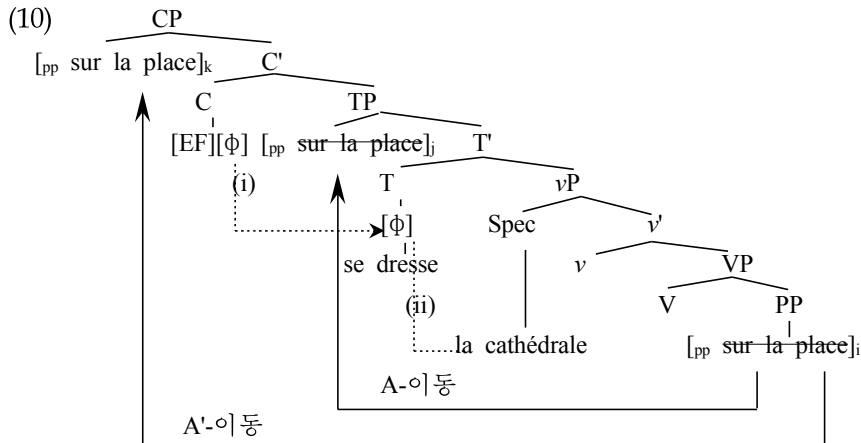
한편 장소구가 A-이동의 특성을 내포하는 구문은 인상구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8) a. Dans le jardin semblaient danser des statues de pierre.
 'In the garden seemed to dance the statues of stone.'
 b. Sur la place semblait se dresser une cathédrale.
 'On the square seemed to stand a cathedral.' (Bonami et al. 1999: 37)

(8)에서 장소구 dans le jardin과 sur la place는 각각 danser와 se dresser의 주어위치 (Spec-TP)에서 sembler동사의 주어위치로 이동한 구조이다.

위의 분석에 근거를 두고, LI구문에 Chomsky(2008: 149)의 병렬식 이동을 도입하여 분석해보자.

- (9) a. Sur la place se dresse la cathédrale.
 "On the square stands the cathedral."
 b. [TP T [_{vP} la cathédrale se dresse sur la place]]
 c. [CP [sur la place]_i C [TP se dresse_v T [_{vP} la cathédrale t_v t_i]]]



(11)의 수형도는 (10a)의 LI구문이 생성되는 과정을 vP-패각구조와 함께 수형도로 나타낸 것이다. (i)의 과정은 C에 있는 일치자질(\emptyset)이 T로 계승되는 것을 나타내며, (ii)의 과정은 이 계승된 일치자질과 DP가 일치되는 것을 가리킨다. 동사 se dresser동사가 비능격이나, 비대격 동사로 고려되든지에 관계없이 vP구조를 취해야 하며,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 만약 장소구의 이동이 없다면, 주어인 la cathédrale은 C로부터 T로 계승된 일치자질에 의해서 Spec-TP로 이동하고 동사는 T로 이동하여 la cathédrale se dresse sur la place라는 문장이 도출된다. 반면에, V-to-T 인상과 함께, PP인 sur la place가 인상될 경우, 장소구의 논항의 특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Spec-TP로 A-이동을 하는 경우와 화제(비논항)의 특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CP의 층위(엄밀하게는 TopP)로 A'-이동을 할 수 있다. 즉, 국면의 핵인 C가 T를 선택하고 T에 일치자질이 계승되면, T는 탐침으로서 Spec-vP인 la

cathédrale과 일치되고, 이 DP는 주격을 부여받는다. 이때 PP인 *sur la place*가 Spec-TP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경우 *vP*는 강 국면(v^*P)이 아니기 때문에 DP인 *la cathédrale*을 넘어 이동해도 국부성(localité)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외곽자질(EF)을 보유한 국면 CP의 핵인 C도 장소구인 *sur la place*를 Spec-CP로 이동시키는데, Spec-TP로의 이동이 A(논항)-이동이며, Spec-CP로의 이동이 A'(비논항)-이동으로 실현된다. 이 때, 상위의 $[_{pp} \text{ sur la place}]_k$ 만 음운적으로 실현되고 나머지 이동과정의 PP들은 복사체로 남게 된다. 이러한 병렬식 이동의 적용은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었던 논항→비논항→논항위치로의 이동 후에 나타나는 연쇄의 비밀률성을 해결하고, 장소구의 논항적 특성과 비논항적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러한 이동이 OF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3. 고대 프랑스어의 장소구 도치와 매개변인

일반적으로 OF는 SVO어순을 근간으로 하면서 V2어순을 준수하는 것으로 고려되는데, 주어의 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확인할 수 있다. 즉, Lahousse (2003: 378)는, Kayne & Pollock (2001)의 주장을 받아들여, OF에서 SV어순의 도출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11) a. OF에서 SV어순은 VS어순에서 주어전치(Subject Fronting)에 의해서 구성된다
 b. OF에서 주어의 전형적인 위치는 동사 뒤이며, 주어는 단지 화제화될 때, 동사 앞의 위치로 이동만 한다.

위의 내용은 주어의 위치가 원래 동사보다 뒤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주어의 이동 전후에 구성된 OF구조의 기본 형태는 “XP V ...”인데, 이때 동사 앞의 XP의 위치에는 다양한 형태의 문의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주어, 목적어 명사(구)전치사구, 부사어 등이 주류를 이룬다.

OF에서 XP의 위치와 관련된 다양한 통사적 운용에 대하여, Roberts(1993: 124, 135)는 이러한 현상들을 문체적 전위(Stylistic Fronting: 이하 SF)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모문절에서 SF현상이 나타나면 모문절은 반드시 영주어로 실현되어야 하지만, 내포절에서는 SF가 나타나도 영주어는 수의적이다.

- (12) *Tresqu'en la mer cunquist la terre altaigne.*
 'To the see has conquered the land haughty.' (CDR: 3)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문절의 SF현상에서는 어떤 요소가 반드시 현시적으로 이동해야만 영주어가 인허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SF현상은 명백히 LI와는 명백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다음의 LI구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13) a. *Vers dulce France chevalchet l'emperere.*
 'Toward fair France is riding the Emperor.' (CDR: 706)

- b. En la citet nen ad remené paien.
'In the city remains not a single pagan.' (CDR: 101)
- c. Sur palies blancs siedent cil cevaler.
'On cloths white are sitting the knights.' (CDR: 110)

(13)은 장소구 PP가 문장의 첫 위치에 나타난 구조인데, 모두 현시적으로 실현된 주어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13b)의 구조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즉 비인칭-ii 구조에서 허사 ii의 탈락으로 분석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OF에 나타난 가장 전형적인 LI구문은 명사적 주어를 갖는 경우이며, 반면에 대명사 주어를 취하는 경우는 MF에서는 비문으로 다루어진다. 후자의 경우에도 병렬이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 (14) a. Par le camp vait Turpin, ... (CDR 1562)
'Through the battlefield goes Turpin.'
- b. Ver Engleterre passat il la mer salse. (CDR 372)
'Toward England crossed he the see salt.'

(14a)는 MF의 LI구문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것 같지만, MF와는 달리 시제동사인 vait는 OF의 V2-특성에 의하여 C까지 이동한다.

반면에, (14b)는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구조로서, Larson(1988: 384)의 패각구조 분석을 도입하고 병렬이동의 적용을 통해서 이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즉, vers Engleterre는 최초 Spec-VP에서 Spec-vP의 외곽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여기서부터 각각 Spec-TP와 Spec-CP로 각각 A/A'-병렬이동을 실시하고, MF에서와는 달리 시제 동사인 passat는 C로 이동한다. 따라서 병렬이동과 자질계승을 통해서 OF의 LI구문도 효과적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분석과 함께, Chanson de Roland(1090)(이하; CDR)과 Chevalier de la Charrette (1176-1181)에서 관찰된 LI구문의 분포를 확인하고, MF에서와는 달리 다양하게 나타나는 매개변인적 특성들을 살펴보자. 특히 본 연구에서는 SF현상도 주어가 실현되지 않은 LI의 한 범례로 다룰 것이다. 두 문헌에 나타난 LI구문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구조로 분류된다.²⁾

- (23) I. LocP-Verb-Ø-(XP)
- II. LocP-Verb-Nominal Subject-(XP)
- III. LocP-Verb-Pronominal Subject-(XP)
- IV. LocP-Subject-V-(XP)

2) 앞에서 언급된 SF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제거한다면, 엄밀하게 II와 III의 구조가 MF의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LI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OF의 장소구 도치구문의 구조를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 매개변인의 차이를 도출하여, OF 장소구 도치구문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고 다양한 구조적 특성들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Chomsky(2008)와 Goto(2008)에서 제시된 자질계승에 대한 분석을 다루면서, 우리는 EPP의 개념을 EF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 MF의 장소구 도치구문의 분석에서 Chomsky(2008)의 병렬이동과 수정된 자질계승이론을 적용하여, 서론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 MF의 장소구 도치구문에 적용된 위의 분석 방법들을 OF의 장소구 도치구문의 분석에 적용하면서, 매개변인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약 1세기 후에 출판된 텍스트의 OF의 장소구 도치구문과의 구조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대 프랑스어가 La Chanson de Roland(1090)이후 약 1세기 동안 그 구조에서 다소 진화하고, MF의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취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영주어, 명사 목적어와 목적어 접사의 위치 등은 V2를 준수하기 위하여 MF의 구조와 구별되는 매개변인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 변천에 대한 연구 결과는 13세기 이후의 텍스트에서도 다시 적용되어 차기 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Bonami, O, D. Godard and J-M. Marandin. 1999. Constituency and word order in French subject inversion. In Gosse Bouma, Erhard Hinrichs, Geert-Jan Kruijff and Richard T. Oehrle (eds.), *Constraints and resources in natural language semantics, Studies in constraint -based lexicalism* 21-40. Stanford: CSLI Publications.
- Bresnan, J. 1977. Variables in the Theory of Transformations. P. W. Culicover et al. (eds.). *Formal Syntax*. New York: Academic Press. 157-196.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R. Martin et al. (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Mass.: MIT Press. 89-155.
- Chomsky, N. 2007. Approaching UG from Below. U. Sauerland et al. (eds.). *Interfaces + Recursion = Language?* Berlin, New York: Gruyter. 1-29.
- Chomsky, N. 2008. "On Phases," in R. Freidin et alii, eds., *Foundational Issues in Linguistic Theory: Essays in Honor of Jean-Roger Vergnaud*, 133-166. Cambridge, MA: MIT Press.
- Côté, M-H. 1995. Concurrence structurale, conditions d'appréhensibilité et changement syntaxique: la chute de la structure v2 en français. *Revue canadienne de linguistique* 40(2). 165-200.
- Culicover, P. W. 1993. Evidence Against ECP Accounts of the that-t Effect. *Linguistic Inquiry* 24(3). 557-561.
- Fuchs, C. 2006. La place du sujet nominal en français: de la syntaxe à l'énonciation. Ms.
- Goto, N. 2008. Some Consequences of Feature Inheritance. Ms. Tohoku Gakuin

- University. 1-28.
- Kandybowicz, J. 2008. On Edge Features and Perfect Extraction. In Charles B. Chang and Hannah J. Haynie (eds.). *Proceedings of the 26th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288-296.
- Kayne, R-S., J.-Y. Pollock. 2001. New thoughts on stylistic inversion. In A. Hulk & J.-Y. Pollock (eds). *Subject inversion in Romance and the theory of Universal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07-161.
- Kim, S. H. 2010. Etude de l'inversion locative en français. *Enseignement de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s*. 34. 123-140.
- Kim, S. H. 2013. A Study of Feature Inheritance and Parametric Variation in Old French Interrogatives.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20(2). 79-102.
- Lahousse, K. 2003. *The distribution of postverbal nominal subjects in French* Ph. D. Thesis. Université de Paris VIII.
- Larson, R.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 335-391.
- Le Goffic, P. 1993. *Grammaire de la Phrase Française* Paris: Hachette.
- Levin, B., M. Rappaport Hovav. 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x -Lexical Semantics Interface*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26. Cambridge, Mass.: MIT Press.
- Mathieu, E. 2006. On the Germanic properties of Old French. *Ms*. 1-17.
- Muller, C. 2007. Les inversions du sujet et la structure de la proposition en français. *Ms*.
- Richards, M. 2007. On feature Inheritance: An Argument from the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Linguistic inquiry* 38(3). 563-572.
- Roberts, I. 1993. Verbs and Diachronic Syntax: A Comparative History of English and French. Dordrecht, Boston, London: Kluwer.
- Ross, J. R. 1968.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Indiana: IULC.
- Togoby, K., M. berg, G. Merad, E. Spang-Hanssen. 1985. Grammaire française. vol. 5: La Structure de la Proposition. Copenhague: Akademisk Forlag.
- La Chanson de Roland(1090). 1984. Student Edition. G. J. Brault. (e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Le Chevalier de la Charrete(1179-1181). 1967. M. Roques. (ed.). Paris: Librairie Honoré Champion.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의 차이

-제주방언을 중심으로-

양 용 준

(제주대학교)

1. 서론

다의성과 중의성은 그 용어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용어라 볼 수 있다. 어휘에서 나타나는 다의성과 중의성이 있는가 하면 문장에서 나타나는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도 또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휘 선택이라든가 문장을 선택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인 청자와 화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방언들에서도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을 제주방언에서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청자와 화자는 어떻게 극복하면서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언어도 많이 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이므로 본 논문은 언어를 사용하는 실제 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2. 선행연구

다의성은 polysemy라 하는데 또한 polysemia라고도 한다. 하나의 단어 혹은 문장이나 어구가 둘 이상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이는 용어이다. Monysemy는 단의성과 대립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Lyons(1977)은 다의성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 즉, 통사론적인 측면, 형태론적인 측면, 그리고 음운론적인 측면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반영되는 경우에 다의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Kempson(1980)에 의하면 다의성을 갖는 동음이의어를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empson의 주장은 Lyons의 주장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다의성의 개념을 확대시킨 경우라 할 수 있다.

Lakoff(1987:416)는 ‘관련된 의미들의 가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휘항목이 있는 경우(There is one lexical item with a family of related senses.)’로 다의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반면에 Taylor(1989:99)는 ‘하나의 언어 형태에 둘 혹은 그 이상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것(association of two or more related senses with a single linguistic form)’으로 다의성을 정의하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에 임지룡(1992:211)은 ‘하나의 어휘소에 유연성을 지닌 둘 이상의 복합적 의미관계’라고 다의성을 정의하고 있다.

김주식(2013)은 ‘long’이라는 어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예를 들면서 다의성에 대해

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¹⁾

- (1) a. a *long* distance
b. The days are getting *longer*.

'long'이라는 어휘가 갖는 의미는 '길다', '오래다' 등이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a)에서 쓰인 '*long*'은 공간상의 의미로 반면에 (1b)에 쓰인 '*longer*'는 시간상의 의미로 쓰였다고 한다. 이처럼 하나의 어휘 속에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다의성의 기본이자 특징이다.

- (2) a. The *mouth* of whale is big and sharp.
b. The *mouth* of river is curve and long.

위의 예문 (2a)에 쓰인 *mouth*와 (2b)에 쓰인 *mouth*는 철자는 똑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또한 쓰임이나 용법에 있어서도 너무나 유사하지만 의미가 다른 것이 다의어의 특징이다. *plane* 다의어로 쓰이는 예를 보도록 하자.

- (4) a. The classrooms of this school are very *plane*.
b. The simple, *plane* cloth is hand woven and irregular.
c. The effect of this action is *plane*.
d. *Plane* is the short of airplane.

위의 (4a)에 쓰인 *plane*은 'clear'의 의미로, (4b)에 쓰인 *plane*은 'unadorned'의 의미로, (4c)에 쓰인 *plane*은 'obvious'의 의미로, (4d)에 쓰인 *plane*은 'airplane'와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에 다의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학자들도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승녕(1962), 남성우(1969), 천시권(1977), 김태자(1984), 박용주(1984), 강기진(1985, 1986, 1987), 김태곤(1989) 등이다.

임지룡(1992)은 다의어는 기본의미와 파생의미의 다발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기본 의미란 한 어휘소가 지니고 있는 중심되는 의미이며, 파생의미란 기본의미에서 번져 나온 주변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 (5) a. 밥을 먹다.
b. 담배를 먹다.
c. 뇌물을 먹다.
d. 옥을 먹다.
e. 마음을 굳게 먹다.
f. 겁을 먹다.
g. 나이를 먹다.

1) 김주식(2013)은 은유를 통해서 다의성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은유에 의하면 다의성은 본래 기본적인 의미보다 더 진보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h. 더위를 먹다.
- i. 한 골 먹다.
- j. 종이가 물을 먹다.
- k. 두 섬 먹다.
- l. 녹(祿)을 먹다.

(임지룡, 1992:212)

위의 예문 (5)에 쓰인 ‘먹다’라는 동사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다양한 지를 보여주는 예이며 한국어에서 다의어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 가를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위의 예문 (5)에서 (5a)는 중심의미가 되고, 나머지인 (5b~l)까지는 파생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어휘의 기본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에 의해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다의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라 하겠다.

3.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

3.1 다의성의 개념

다의성(polysemy)은 한 낱말이 서로 관련된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언어 현상으로 인간 언어에서 근본적인 특징이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겨난다. Ullmann(1962)은 다의성을 이야기하면서 다의성의 발생요인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적용상의 전이다. 어떤 낱말이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한 낱말이 다른 낱말들과 어울릴 경우에 다른 의미가 발생한다. 적용상의 전이에 의한 다의성은 형용사에서 주로 발생하고, 그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에 따라 의미가 여러 가지로 발생한다.

- (6) a. <형용사 + 명사>의 문장 구조: 명사구
 - b. a *good* man
 - c. a *good* computer
 - d. a *good* manner

적용상의 전이는 위의 (6a)의 문장 구조인 명사구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경우이다. ‘good’이라는 형용사를 간단하게 예로 들어 (6b~d)에 쓰인 경우를 보면 (6b)에서 쓰인 ‘good’의 의미는 ‘착한’, ‘친절한’이라는 의미로, (6c)에서는 ‘좋은’, ‘우수한’이라는 의미로, (6d)는 ‘상냥한’, ‘진실한’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위의 예문 (6)에서 쓰인 ‘good’이라는 형용사가 다음에 오는 명사에 따라 의미가 전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환경에 의한 전문화이다. 같은 낱말이 여러 사회 환경에 따라 전문화된 여러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 (7) A. *action*
 - a. Lawyer: legal action
 - b. Soldier: military operation

- B. *paper*
 a. legal or documents
 b. a newspaper
 c. a set of examination questions
 d. a communication read or sent to a learned society

(김주식, 2003:71)

위 (7)의 예문에서 보듯이 ‘action’, ‘paper’가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비유어이다. 비유어는 말 그대로 하나의 낱말이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고 둘 이상의 비유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비유적인 방법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가 은유와 환유라 할 수 있다. 많은 주변적인 의미가 그 중심적인 의미에서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를 은유적인 표현이라 한다.

- (8) a. the *bank* of Korea
 b. the *bank* of a river
 c. a *bank* of machines

위의 예문 (8)에 쓰인 ‘bank’는 본래 ‘은행’이라는 의미가 중심 의미인데 이 중심 의미를 토대로 해서 주변 의미로 확장된 경우이다. 김주식(2003)의 다음 예문(9)에서도 보면, 은유에 의해서 다의성은 더욱 확장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 (9) a. the bed of a river
 b. the boot of a car
 c. the cock of a gun
 d. a saddle in the mountains
 e. a sheet of a paper, iron, water

(김주식, 2003:72)

위의 예문에서 볼 때 (9a)인 경우에 ‘bed’는 본래 중심 의미가 ‘침대’라는 의미인데 ‘강의 침대’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유는 낱말의 의미를 더욱 확장시켜준다는 점은 틀림없다. 환유인 경우도 다의성을 나타내는 요소인데 환유는 두 대상간의 비유가 아닌 인접성에 기반을 두고 나타내는 의미를 말한다.

- (10) a. board
 b. surgery

위의 (10a)의 ‘board’는 ‘회의용 탁자에 둘러앉은 사람들’ 이외에도 ‘탁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10b)의 ‘surgery’는 ‘수술’ 이외에도 ‘수술실’, ‘조제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그런 의미로 쓰인 예문을 보면 다음 (11)과 같다.

- (11) a. *Board* of education comes here.

b. Meat is on the *board*.

위의 예문 (11a)에 쓰인 'board'는 '회의용 탁자에 둘러앉은 사람들'로 교육위원회가 되며, (11b)는 '탁자'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외래어의 영향이다.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로부터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영향을 줄 때 의미를 변화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의미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의어가 생겨나게 되는 한 원인이 된다. 인접한 국가나 언어에서 이런 현상은 많이 나타나게 된다. 김주식(2003:73)의 예에서 불어의 'parlement'는 본래는 speaking을 의미 하다가 judicial court를 의미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영어 'parliament'의 영향을 받아서 legislative assembly라는 지금의 의미로 굳어지게 되었다.

다섯째, 동음이의어에 대한 재해석이다. 동음이의어라는 말은 동일한 낱말이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낱말로 동음이의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심리적인 이유로 두 의미 사이에 관련성을 인식하여 다의어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

- (12) a. Breathing in the fresh morning *air* is good for our health.
 b. He jumped into the *air*.
 c. There was an *air* or excitement at the meeting.

위의 예문 (12a)에 쓰인 'air'는 '공기, 대기'라는 본래의 의미지만, (12b)에 쓰인 'air'는 '하늘, 공간, 공중'의 의미로, (12c)에 쓰인 'air'는 '분위기'라는 의미로 쓰였다. 동일한 낱말이어서 동음이의어로 간주되지만 어원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근거로 위의 세 의미 사이에 관련성을 인식하여 위의 (12)에 쓰인 'air'를 다의어로 간주하게 된다.

3.2 구조적 중의성의 개념

구조적 중의성이라는 말은 어휘적인 측면이 아닌 통사론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조적 중의성은 낱말의 일반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모호성을 말한다.

- (13) a. Yuna has good *legs* (and arms).
 b. Yuna has healthy *legs*.
 c. Yuna has beautiful *legs*.
 d. Yuna has *legs* which function well.

위의 예문 (13a)는 (13b~d)의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고 모호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위의 (13a)의 의미가 (13b~d)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good'이라는 낱말이 갖는 의미 때문에 생겨난 중의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중의성으로 볼 수도 있다.

- (14) Yuna has good legs and arms.

위의 (14)의 예문은 (13b~d)의 의미를 모두 포함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중의성을 나타내게 된다. 왜냐하면 다음 (15)와 같이 통사론적인 구조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5) a. Yuna has [NP good legs and arms].
 b. Yuna has [NP good legs] and [NP arms].

구조적 중의성은 하나의 표현에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Chomsky(1965)는 구조적 중의성을 표층구조(Surface Structure)는 하나인데 심층구조(Deep Structure)가 둘 이상인 경우라 하였다.

다음 예문 (14)인 경우도 구조적 중의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14) a. The boy saw the man with the telescope.
 b. The boy saw [NP the man] [PP with the telescope].
 c. The boy saw [NP the man with the telescope].

위의 예문 (14a)는 (14b)와 (14c)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즉, (14b)는 ‘소년은 망원경을 가지고 그 남자를 보았다’는 의미로, (14c)는 ‘그 소년은 망원경을 가진 남자를 보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중의성은 어휘적인 경우도 크지만 구조적인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 (15)의 예문도 구조적 중의성을 나타내는 예라 할 수 있다.

- (15) a. The chicken is ready to eat.
 b. [S₁ Someone_i is ready [S' [S₂ PRO_i to eat the chicken].
 c. [S₁ The chicken_i is ready [S' for [S₂ PRO_i to eat something].

위의 (15a)의 예문은 (15b)와 (15c)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15b)인 경우는 ‘누군가가 닭고기를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15c)는 ‘닭고기가 누군가가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구조적 중의성은 문장의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3.3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의 공통점과 다른 점

다의성과 중의성은 혼동하기 쉬우며 또한 일부 학자들은 다의성과 중의성 그리고 모호성을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의성과 중의성은 절대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물론 유사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의성은 의미가 다양하다는 말로 즉 의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중의성은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난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6) a. I'm in the insurance *business*.
 b. "How's business?" "Business is good."

c. It's a teacher's *business* to help children learn.

위 (16)에 쓰인 문장에서 'business'라는 낱말이 의미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a)에 쓰인 business는 '일, 직업'의 의미, (16b)에서는 '상업, 상거래, 경기'의 의미, (16c)에서는 '작무, 일'의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볼 때 business라는 하나의 낱말이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다의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조적인 중의성이라는 말은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라 다의성과 다르게 볼 수 있다.

- (17) a. This is small girls' school.
 b. This is [_{AP} small girls'] [_{NP} school].
 c. This is [_{AP} small] [_{NP} girls' school].

위의 (17a)의 문장은 구조적 중의성을 나타내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7b)의 '작은 소녀들을 위한 학교'라는 의미로, (17c)의 '작은 여학교'라는 의미로 파악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언 뜻 파악하기에 이런 경우에 둘 다 '여학교'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나 정말 나타내는 의미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구조적인 중의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영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에서는 다의성의 개념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언어는 무한정하다고 하지만 한정된 어휘로 사용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어휘들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그것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어휘 낱말이 생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휘 속에 유사한 의미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새로운 의미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되풀이 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 다의성의 본질적인 생성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구조적인 중의성은 다의성의 개념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결정적인 차이점은 통사론적인 즉, 구조적인 차이에서 생겨나는 의미를 다룬다는 점이다.

- (18) a. *Heart* is a organization of the body.
 b. He seems rather mean, but he has a kind *heart*.
 c. Let's get to the *heart* of the matter.

위의 예문 (18)에서 'heart'라는 어휘가 쓰임에 있어서 다의성을 가진 어휘라는 것을 볼 수 있다. (18a)에 쓰인 'heart'는 본래의 의미인 '심장, 신체의 일부분'을 (18b)에서는 '인정, 동정심'이라는 의미로, (18c)에서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9) a. Old men and women are dancing in the hall.
 b. [_{NP} Old men] and [_{NP} women] are dancing in the hall.
 c. [_{NP} Old men and women] are dancing in the hall.

위 (19)의 예문은 어휘적인 측면의 다의성이라는 것으로 다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men이나 women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19a)의 문장을 이해해야 함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중의성이 나타나게 된다. (19b)에서처럼 “나이든 남자 분들’과 여자들은 홀에서 춤을 추고 있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19c)인 경우에는 “나이든 남자와 여자분들’은 홀에서 춤을 추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제주방언의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

4.1 제주방언의 다의성

다의성에 대한 개념을 제주방언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제주방언에서도 다의성은 나타나고 있다.

- (20) a. 땀도 배설 샘나.
b. 그놈 배설 한번 잊져.

위의 예문 (20a)는 ‘땀치도 내장이 있다’는 의미로 ‘배설’이라는 말은 본래 제주방언에서 내장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런데 (20b)는 ‘그놈 성질머리가 있다’는 의미로 여기서 쓰인 ‘배설’은 ‘성질, 성깔’등을 의미하는 말이다.

- (21) a. 공꺼옴 헝민 눈도 별경, 코도 별경.
b. 이 자리 물회는 국물이 별경헝게.

위의 예문 (21a)에 쓰인 ‘별경’이라는 말은 ‘아주 좋아서 날뛰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21b)에 쓰인 ‘별경헝게’에서는 본래의 의미인 ‘빨강다’는 의미로 쓰였다.

- (22) a. 백브름도 귀가 샘져.
b. 백브름드레 얘기헝주.

위의 (22a)에 쓰인 말은 ‘바람벽도 귀가 있다’는 말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과 유사한 제주의 속담 표현이다. 여기서 ‘백브름’은 ‘바람벽’이라는 말로 본래의 의미인 ‘벽’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반면에 (22b)는 남편이나 자식들 중에 말을 듣지 않고 걱정만 끼치는 경우에 말을 해도 해도 안되는 경우에 차라리 혼잣말로 답답해하는 심정을 나타낸 말이다.

위의 예문 (20~23)에서 보았듯이 제주방언에서도 하나의 어휘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제주방언의 구조적 중의성

제주방언의 구조적 중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4) a. 나 차비 내불라.
 b. 나 차비도 내라.
 c. 나 차비는 내지 말라.

위의 (24a)인 경우에 제주에서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먼저 내리는 학생에게 뒤에 내리는 학생이 할 수 있는 말인데 만약 먼저 내린 학생이 차비를 뒤에 내리는 학생 몫까지 낸다면 (24b)의 의미로, 그렇지 않고 먼저 내리는 학생이 뒤에 내리는 학생의 차비를 내지 않게 되면 (24c)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경우는 어휘적인 의미로 다의성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게 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상황과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구조적 애매성으로 판단해야 옳을 것이다.

- (25) a. 삼촌들 놀ampus광.
 b. 삼촌, 어디 감수광.

위의 예문 (25a)에서 볼 때, 단순히 이 문장만으로 유추할 수 있는 의미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25a)의 예문 속에는 안부 인사의 의미도 있다. 삼촌들에게 안부 인사로 하는 경우로 ‘삼촌들, 안녕하십니까?’라는 의미도 숨어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25b)인 경우에도 (25a)와 전혀 다른 문장으로 쓰이고 있으나 (25b)에도 안부 인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길을 가다가 만난 삼촌에게 ‘삼촌, 안녕하십니까?’라는 의미를 (25b)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방언에는 낱말들이 다의적인 의미로도 쓰이지만 구조적인 중의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제주방언의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 분석

제주방언에서 다의어로 쓰이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자.

- (26) a. 자인 양지도 춤 곱다.
 b. 그 아인 양지도 뚜꺼워라.
 c. 양지쪽이 뜻뜻혼다.

위의 (26)의 예문에 쓰인 ‘양지’라는 말은 제주방언에서는 일반적으로 ‘얼굴’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 ‘양지’라는 말이 다의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26b)와 (26c)에서 찾아볼 수 있다. (26b)에 쓰인 ‘양지’는 ‘양심, 낯짝, 배포, 뻔뻔스러움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도리인데 (26b)와 같은 경우는 ‘뻔뻔스럽다’는 의미로 쓰였다. 또한 (26b)의 경우에는 ‘그 아인 낯도 두꺼운게’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양지’와 ‘낯’도 같은 의미로 나타낼 수 있다. (26c)인 경우는 다소 다르게 볼 수도 있으나 같은 형태와 소리를 나타내는 낱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다루었다. (26c)의 경우는 ‘양지바른 곳’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7) a. 흑교 땡겨오민 손을 씻으라.

- b. 가이랑은 손을 끊으라.
- c. 제주에서 굴 수확철에는 손이 흔참 모자라주.

위의 (27a)에 쓰인 '손'은 그 낱말 본래의 의미로 쓰였다. '팔목아랫부분'을 나타내는 본래의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7b)인 경우는 '관계, 사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또한 (27c)에서는 '노동력'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 (267)의 경우를 예로 보더라도 다의어는 본래의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주방언도 마찬가지로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확장되어 가면서 다의어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제주방언에서 구조적 중의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영어와 표준어 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영어의 경우에 구조적 중의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전치사의 유무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다음 영어의 구조적 중의성을 나타내는 예문 (28)을 보도록 하자.

- (28) a. The boy saw the man with a telescope.
- b. 소년은 망원경을 가지고 그 남자를 보았다.
- c. 소년은 망원경을 가진 그 남자를 보았다.

위의 (28a)의 예문은 구조적 중의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문인데 (28b)와 (28c)의 경우처럼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이다. 제주방언에서도 이런 경우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 (29) a. 가인 요세 *뵤* 하영 먹어.
- b. *뵤* 먹어시냐?

위의 예문 (29a)에서 쓰인 '밥'의 의미와 (29b)에 쓰인 '밥'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9a)에 쓰인 '밥'은 '우리가 먹는 밥'을 의미하지만 (29b)에 쓰인 '밥'은 안부인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다. 실제로 '밥'을 먹었느냐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중의성을 나타내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방언에서는 안부인사를 나타내는 표현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 또한 구조적 중의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영어나 표준어, 또는 제주방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은 서로 분리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연관성이 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은 받아들이기 나뉘어졌지만 어떤 학자들은 같은 의미로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다의성이라는 의미는 낱말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에서 연구를 확장해 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구조적 중의성은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의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또한 그 개념을 확실하게 하였다.

- (30) a. I caught her *hands*.
- b. Can you give me a *hand*?

- (31) a. 밖에 나갈때랑 늦 싯영 땡기라.
 b. 가인 늦이 두꺼워라.

위의 예문 (30~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방언에서도 다의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조적 중의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구조적 중의성의 개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립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하였다.

- (32) a. *Old men and women* are having lunch at a geriatrics hospital.
 b. 나 차비는 내불라.

위의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적 중의성은 담화상에서 상황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 문화적인 측면도 이해를 해야 하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은 모든 언어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요소인데 본 논문에서는 제주방언에서도 이런 요소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제주방언에서도 중의성은 낱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구조적 중의성은 통사론적인 측면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점을 토대로 언어 사용에서 영어이든 표준어이든 제주방언이든 간에 나타나는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을 이해하면서 사용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기회에는 제주 속담을 이용한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한다.

부름말 ‘어이’의 문법화

황 병 순

(경상대학교)

1. 들머리

- (1) 야, 내가 니보고 이거 해라더나? <경남 진주>
- (2) 우리도 야 젊을 때는 야 메칠 밤을 세아도 꺼떡없었다 야. <경남 진주>
- (3) 어이, 거기 잔 좀 줘. <표준국어대사전>
- (4) ㄱ. 그전에는 어이 가면 응, 손뼉을 치고 웃던 기 그만 [강원 영월]
 ㄴ. 자네 혼자만 알게 에이 절대로 우리 집에 오만(오면) 살림 좀 가져와야 되네.
 [경남 거창]
 ㄷ. 신문외이(신문왕이) 참 이견대(利見臺)를 짓고 이이 참 부자 상봉할라꼬, 저
 이래 있일 때에[경북 경주]
- (5) 아이구 순자야, 순자야, 많지도 늙었대이. [경북 영덕]

부름말 ‘어이’가 (4)-(5)에서와 같이 변이된 형태로 실현되는 것은 모두 문법화와 관련되어 있다. 입말인 방언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문법화 현상은 부름말 ‘어이’만의 현상이 아니다. 입말의 이러한 문법화 현상은 국어 입말 문법화의 보편적 특성으로 보인다.

이 글은 부름말 ‘어이’의 (4)-(5)과 같은 변이 양상을 문법화와 관련지어 알아봄으로써 입말인 방언의 문법화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부름말 ‘어이’의 문법화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부름말의 문법화를 둘러싼 문법을 기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말 문법화의 보편적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입말인 국어 방언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 데도 매우 큰 의의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2. 부름말의 담화표지화

우리가 주고받는 입말을 보면, 이인칭 대명사나 부름말이 담화표지로 문법화되어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인칭 대명사나 부름말이 담화표지로 문법화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은 말할이가 담화 속에서 담화 참여자인 들을이에게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라거나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담화표지로 부름말이 적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인칭 대명사나 부름말이 모두 담화표지로 문법화되어 쓰이지 않는다. 실제 이인칭 대명사나 부름말 가운데 담화표지로 문법화되어 쓰이는 말은 대개 아래 (6)-(9)에서와 같이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 (6) 요새는 니 촌에도 니 외제차가 많대이. <경남 진주>

- (7) ㄱ. 바램이 얌 오늘 제법 쌀쌀하이 얌 춡드라 얌. <경남 진주>
 ㄴ. 요즘에는 애 시골에도 애 자가용 승용차가 많아 애.
 (8) 그래 이기 고마 임마 그거 팔아뿔다. [대구]
 (9) 너 짜샤 까불지 마 짜샤.

담화표지로 문법화되어 쓰이는 부름말에는 ‘어이₁’도 있다. 부름말 ‘어이₁’는 (10)에서와 같이 동료나 아랫사람을 부를 때 사용한다.

- (10) ㄱ. 어이, 자네 나 좀 도와주게. <표준국어대사전>
 ㄴ. 어이, 거기 잔 좀 줘. <표준국어대사전>
 (11) ㄱ. 어이(구), 니 졸업식에 아무도 안 갔다 말이가?
 ㄴ. 어이(구), 우리 애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10)의 부름말 ‘어이₁’는 감탄사 ‘어이(구)₀’에서 기원한 말로 보인다. 감탄사 ‘어이₀’가 부름말 ‘어이₁’로 쓰이게 된 것은 (12)에서와 같이 감탄사 ‘어이₀’가 부름말과 함께 쓰이게 되면서부터가 아닌가 싶다.

- (12) ㄱ. 어이, 일어나 보오. 누가 찾아왔어. <표준국어대사전>
 ㄴ. 어이, 학생, 거기다 쓰레길 버리면 되나?
 ㄷ. 어이, 김서방, 자네가 이런 일 한번 해 보게.

부름말 ‘어이₁’의 위와 같은 형성 과정은 경남 방언의 부름말 ‘아요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3) ㄱ. 아요 김선생, 이거 썸 바 주라(봐 다오). <경남 진주>
 ㄴ. 아요, 오이 가네(어디 가니)? <경남 진주>

부름말 ‘어이₁’나 ‘아요₁’는 문법화되면 부름 기능을 잃고 담화표지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점도 있다. (4)의 ‘어이₂’, ‘에이₂’, ‘이이₁’는 부름말 ‘어이₁’가 담화표지로 문법화되어 쓰인 것이고, (14)의 ‘아요₂’는 부름말 ‘아요₁’가 담화표지로 문법화되어 쓰인 것이다.

- (14) ㄱ. 우리도 아요 한 일박 이일쯤 해서 등산 한번 가자. <경남 진주>
 ㄴ. 입이 엽서 말로 안 한다 아요. <경남 진주>

부름말 ‘어이₁’는 (5)에서와 같이 더 문법화되면서 어말어미에 통합되기도 한다. 부름말 ‘어이₁’의 이러한 변이는 문법화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 부름말 ‘어이₁’의 문법화를 문법화 정도와 관련해 두 단계로 나눠 알아보기로 한다.

1) 담화표지 ‘에이₂’는 감탄사 ‘에이₁’와 구분된다. 담화표지 ‘에이₂’는 부름말 ‘어이₁’가 문법화된 말이지만, 감탄사 ‘에이₁’는 ‘실망하여 단념할 때 내는 소리’나 ‘속이 상하거나 마음이 달갑지 아니할 때 내는 소리’이다. 황병순 (2012 : 25) 참조.

3. 부름말 '어이'의 담화표지화

부름말은 가운데 높은 빈도로 문법화되어 쓰이는 말은 부름말 '어이₁'로 보인다. 부름말 '어이₁'가 문법화를 잘 겪는 이유는 '어이₁'가 동료나 아랫사람인 들을이를 부르는 말로 쓰이는 의미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법화를 겪기에 적절한 음운·형태적 특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부름말 '어이₁'가 담화표지로 문법화되면 '어이₂', '에이₂', '이이₁'로 실현된다.

- (15) ㄱ. 그러이 어이 저 그럴 것 없이 그 때 그라모 아홉 살, 열 살, 열 한 살인데.
[경북 경주]
- (16) ㄱ. 인자 빌린 돈 다 가똥다(갸았다) 에이 이저뿌지(잊어 버리지) 마라 에이. [경남 진주]
- (17) ㄱ. 신문외이(신문왕이) 참 이견대(利見臺)를 짓고 이이 참 부자 상봉할라꼬, 저 이래 있일 때에 [경북 경주]

(15)의 '어이₂'는 부름말 '어이₁'가 형태 변화 없이 담화표지로 문법화되어 쓰인 것이고, (16)의 '에이₂'는 담화표지 '어이₂'가 '에이₂'로 변이되어 쓰인 것이며, (17)의 '이이₁'는 담화표지 '에이₂'의 '에'가 후행음 '이'에 완전 동화되어 쓰인 것이다.

부름말 '어이₁'가 담화표지 '어이₂/에이₂/이이₁'로 문법화되어 쓰임은 이들 담화표지 대신 다른 부름말이 문법화된 담화표지를 대체해 보면 알 수 있다.

- (18) 그러이 임마 저 그럴 것 없이 그 때 그라모 아홉 살, 열 살, 열 한 살인데.[경북 경주]
- (19) 인자 빌린 돈 다 가똥다(갸았다) 임마 이저뿌지(잊어 버리지) 마라 임마. [경남 진주]
- (20) 신문외이(신문왕이) 참 이견대(利見臺)를 짓고 임마 참 부자 상봉할라꼬, 저 이래 있일 때에 [경북 경주]

부름말 '어이₁'가 담화표지 '어이₂/에이₂/이이₁'로 문법화된 담화표지 '어이₂/에이₂/이이₁'가 부름말 '어이₁'와 유사한 화용적 의미 제약을 지닌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도 있다. 부름말 '어이₁'와 담화표지 '어이₂', '에이₂', '이이₁'가 이와 같이 동일한 '들을이 위상 제약'을 지닌다. 부름말 '어이₁'와 담화표지 '어이₂', '에이₂', '이이₁'가 동일한 '들을이 위상 제약'을 지녔음은 담화표지 '어이₂', '에이₂', '이이₁'가 부름말 '어이₁'와 공기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이는 곧 담화표지 '어이₂', '에이₂', '이이₁'가 부름말 '어이₁'의 문법화 산물임을 가리킨다.

- (21) 어이, 그러이 어이 저 그럴 것 없이 그 때 그라모 아홉 살, 열 살, 열 한 살인데.[경북 경주]
- (22) 어이, 인자 빌린 돈 다 가똥다(갸았다) 에이 이저뿌지(잊어 버리지) 마라 에이. [경남 진주]
- (23) 어이, 신문외이(신문왕이) 참 이견대(利見臺)를 짓고 이이 참 부자 상봉할라꼬, 저 이래 있일 때에 [경북 경주]

담화표지 ‘이이₁’는 (24)이나 (25)에서와 같이 어말어미 뒤에서 장음 ‘이’로 실현되어 기원형과의 형태적 관련성이 더욱 멀어진다. 이는 장음 ‘이’로 실현되는 담화표지 ‘이이₁’가 ‘어이₂’나 ‘에이₂’보다 상대적으로 더 문법화되었음을 가리킨다.

- (24) ㄱ. 그러인께 나라에서 말이여, 그래가이고서 인 큰 일 났거든 [경남 하동]
 ㄴ. 야, 마구 내 주머(주면) 인 있는대로 주고 가게 [경북 영덕]
 (25) ㄱ. 니 딱 안 오면 딱 내한테 매 맞는다 인. <경남 진주>
 ㄴ. 그때는 시아바이가 새 가수나 물어 줄라 쿠데 인 <경남 진주>

장음 ‘이’로 실현되는 담화표지 ‘이이₁’는 기원형인 부름말 ‘어이₁’와의 의미적 관련성도 약화되어 실현된다. 담화표지 ‘이이₁’의 이러한 의미 약화(의미 탈색화)는 아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6) ㄱ. 어디 뛰나가는가 단단이 보이소 인. <경남 진주>
 ㄴ. 지가 먼지 목심미더 인. <경남 진주>
 (27) ㄱ. *어이, 어디 뛰나가는가 단단이 보이소 인. <경남 진주>
 ㄴ. *어이, 지가 먼지 목심미더 인. <경남 진주>

(26)은 담화표지 ‘이이₁(장음 ‘이’)'가 ‘들율이 위상 제약’을 벗어난 표현이다. 담화표지 ‘어이₂’나 ‘에이₂’, ‘이이₁’가 “말할이가 동료나 아랫사람인 들율에게 ‘어이₂’나 ‘에이₂’, ‘이이₁’에 선행하는 표현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라는 태도”를 드러내는 기능으로 쓰였다면, 장음 ‘이’로 실현되는 (26)의 담화표지 ‘이이₁’는 더 문법화되어(의미가 탈색화되어) “말할이가 친근하게 지내면서 허물없는 사이가 된 들율에게 ‘이이₁’에 선행하는 표현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라는 태도”를 드러내는 기능으로도 쓰였음을 뜻한다.

4. 담화표지 ‘이이’의 문법화

양태 기능을 수행하는 담화표지 ‘이이₁’는 대개 억양 단위 뒤에 실현된다. 이러한 담화표지 ‘이이₁’는 장음 ‘이’로 실현되다 보니 관용화되면서 선행 형태에 쉽게 통합되기도 한다. 담화표지 ‘이이₁’가 통합된 형태는 어휘 형태와 문법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담화표지에 선행하는 형태인 억양 단위가 대개 감탄사이거나 ‘조사가 결합된 어절’, ‘어말어미가 실현된 어절’이고 보면, 담화표지 ‘이이₁’가 통합된 형태는 감탄사, 조사, 어말어미라 할 수 있다. 담화표지 ‘이이₁’가 감탄사에 통합되면 새로운 감탄사를 형성하고, 담화표지 ‘이이₁’가 ‘조사가 결합된 어절’에 통합되면 새로운 조사를 형성하며, 담화표지 ‘이이₁’가 어말어미에 통합되면 새로운 어말어미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방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담화표지 ‘이이₁’ 통합 형태는 어말어미(접속어미와 종결어미)이다.

방언에는 접속어미에 담화표지가 통합된 형태가 많다.

- (28) ㄱ. 저승에 가설라든 인정으로서, 인정이란 말하자면 요새로 말하면 통행료(通行料)라고 할는지[경기 여주]

- ㄴ. 그래 가설라른 에 아버지 제사를, 인제 한밤중이 됐는데 제사를 올려서 [경기 여주]
 ㄷ. 한 사람이 나이두 많이 먹구 돈은 없구 장가 못 가설라무네 노총각인데,[인천]

(28ㄷ)의 '-아설라무네'는 (28ㄴ)의 '-아설라른 에'로 보아 (28ㄱ)의 '-아설라른([아서+을람]+은])'에 담화표지 '에'가 통합되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께나'는 '-이께느+아', '-이께네'는 '-이께느+에', 같은 원리로 '-이께니'도 '-이께느+이'

- (29) ㄱ. {아, *에} 그러이께나 내일 오후에 갑시다. <경남 진주>
 ㄴ. {*(?)아, 에} 그러이께네 내일 오후에 갑시다.
 (30) ㄱ. 그러이께나 {아, *에} 내일 오후에 갑시다. <경남 진주>
 ㄴ. 그러이께네 {*(?)아, 에} 내일 오후에 갑시다.
 (31)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께느 참 효성이 장하거든 [충북 충주]
 (32) ㄱ. 그래 뭇시든지 내가 약을 해주이께니 자식 죽인다는 소린 안하고 [경북 선산]

장음 '이'로 실현되는 담화표지 '이이₁'가 방언 접속어미에 통합됨은 '-는디'의 실현 양상이나 '-어서리'의 실현 양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33) ㄱ. 그거 사는 사램이 장에 갔다 오는디, 밤에 혼자, 이넘우 도깨비가 자꾸 씨름 허자쌍아 귀찮애 죽겠다 말이라[경남 하동]
 ㄴ. 한 사람이 사는디 시아버니를 모시구 살어, 시아버니를. 그런디 그 동네 그 뒤에 크은 고개가 있어. [충남 부여]
 (34) ㄱ. 쑥대밭이 됐는디이, 참 그으 가봉개는 그 지탈허구 그 반달레가 나오, 나오면 서 [충남 부여]
 ㄴ. 도망갔는디이 인지 워디가 살다가, 살다가 인지 참 가서 마누라 을어서 사는 디[충남 부여]
 (35) ㄱ. 이 분이 우리집에 올 리가 만무한데이 우짤 일이고. [경남 거창]
 ㄴ. 근데이 통지게 장사, 새우젓 장산 알었다 이런말여. [경기 여주]
 (36) 그 남자가. 몬 가서리 돌아오고, 가다가 돌아온다. [경남 김해]
 (37) ㄱ. 밤중이나 꼭 자정이 넘어가서로 그라는데 밤중이나 되니까네 [경남 거제]
 ㄴ. 오쭈 누렵제? 다 가 간다. 우리 집에 가서리 오쭈 누라이. [경남 김해]
 (38) 어디 집에 가서러 보자. 집에 가서러이이 그양 안들기다만.

방언 접속어미 가운데 끝음절이 '이'로 실현된 접속어미는 대개 위와 같이 담화표지 '이이₁'가 더 문법화된 '이이₂'가 선행 접속어미에 화석화되면서 형성된 방언형(담화표지 화석형)이라 할 수 있다. 끝음절의 음운이 '이'로 실현되는 접속어미에는 '-고서리', '-으면서리', '-다가서리', '-어설라무니', '-고설라무니' 등도 있는데, 이들 접속어미도 위 접속어미와 같이 담화표지 '이이₂'가 화석화된 방언 접속어미라 할 수 있을 듯하다.²⁾

2) '이이₂'가 통합된 방언 접속어미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는디'는 충청 방언이나 전라 방언에 더 많이 쓰인다. 동남 방언에서는 경남 서부 방언에 많이 쓰인다. 황대화(1986)를 보면 함경도 방언에도 '이이₂' 화석화된 방언형이 많이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9) ㄱ. 청용을 들고 투기철갑을 하고서리 방을 썩 들어온단 말야. [강원 양양]
 ㄴ. 저녁을 먹고서로 나목신을 신고 뒷간에 가 앉아서 [경북 상주]
- (40) ㄱ. 살면서리 애기를 하나 놓고, 둘 놓고, 서이 놓그던. [경북 경주]
 ㄴ. 친지 사방을 다 댕기면서로 어마이(어머니) 구경을 시겼다 말이다. [경남 김해]
- (41) ㄱ. 자꾸 찾아 가다가서리 어느 한 고을에 들어가니까 [강원 속초]
 ㄴ. 또 한 놈은 있다가서로, “그거 낫자리, 저거 자리 떨어진 것 그거를 거머쥐고…”[울산]

장음 ‘이’로 실현되는 담화표지 ‘이이₂’는 종결어미 뒤에도 첨가되어 실현된다.

- (42) ㄱ. 니 딱 안 오면 딱 내한테 매 맞는다이. <경남 진주>
 ㄴ. 쫘 조용히 하자이 <경남 진주>
 ㄷ. 오냐, 네 이눔 가기는 가되 조심해라이. [경남 진주]
- (43) ㄱ. 옛날 삼성 버선 신은 데, 꼬랑내 데기 난대이. [대구]
 ㄴ. 그거 네 함부로 판 데 말하지 마래이. 큰일 난다. [경남 밀양]
 ㄷ. 앉아라 보자 이눔아이눔아 앉아라 보제이. [경북 봉화]

담화표지 ‘이이₂’가 종결어미에 결합된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42)에서와 같이 담화표지 ‘이이₂’가 종결어미 뒤에서 장음 ‘이’로 실현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43)에서와 같이 담화표지 ‘이이₂’의 선행음 ‘이’가 선행 종결어미의 말음과 복합된 채 통합되어 실현되는 경우이다. 대부분 지역 방언에서는 (42)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동남 방언에서는 (42)과 함께 (43)과 같은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 (44) ㄱ. *아버지, 우리도 갑시대이.
 ㄴ. ^[*2]선생님, 저희 먼저 갑시대이.
- (45) ㄱ. 여어 안지입시더이 <경남 진주, 정영주:129>
 ㄴ. 어디 뛰나가는가 단다이 보이소이 <경남 진주>
 ㄷ. 술 마이 자시지 마세이, 어이? [경북 안동]

(45)는 종결어미에 결합된 담화표지 ‘이이₂’가 (26)에서와 같이 들을이가 윗사람인 경우에도 사용됨을 보여 준다. 이는 곧 ‘이이₁’의 의미가 추상화되어(의미 제약이 약화되어) 들을이가 ‘동료나 아랫사람’이 아닌 ‘윗사람’이라도 친근하게 지내면서 허물없는 사이가 되면 (49)에서와 같이 담화표지 ‘이이₂’가 결합되어 쓰임을 보여 준다.

종결어미에 결합된 담화표지 ‘이이₂’가 부름말 ‘어이₁’에서 기원한 말임은 ‘이이₂’ 실현된 구문의 형태론적 특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담화표지 ‘어이₂’나 ‘에이₂’, ‘이이₁’가 더 문법화된 ‘이이₂’는 의문형 종결어미에 첨가되지 않는다. ‘이이₂’의 이러한 형태적 특성은 부름말 ‘어이₁’가 문법화된 담화표지 ‘어이₂’나 ‘에이₂’, ‘이이₁’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 부름말 ‘어이₁’가 담화표지 ‘어이₂’나 ‘에이₂’, ‘이이₁’로 문법화되면 들을이에게 선행하는 억양 단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라거나 관심을 갖기 바라는 태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담화표지 ‘어이₂’나 ‘에이₂’, ‘이이₁’의 이러한 의미 기능이 의문형 종결어미 제약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말할이가 모르는 것을 들을이에게 물으면서 예의에 벗어나게 들을이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자신과 뜻에 관심을 가

져 주길 당부하는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름말 ‘어이₁’와 유사한 문법화 과정을 겪는 부름말에는 ‘야’도 있다. 부름말 ‘야’는 ‘이 아이>이 아>야’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부름말인데,³⁾ 부름말 ‘어이₁’와 같이 문법화되어 담화표지로 사용된다.

- (46) ㄱ. 야, 꼬마야!/ 야, 나 좀 보자./ 야, 같이 가자. <표준국어대사전>
 ㄴ. 야, 내가 니보고 이거 해라더나? <경남 진주>
- (47) ㄱ. 바램이 야 오늘 제법 쌀쌀하이 야 춥드라 야. <경남 진주>
 ㄴ. 그래 얼릉 주 야(주어 야). [충남 대덕]
 ㄷ. 근게 죽을 죄가 졌은게 어찌. 허란 대로 허지야. [전북 정읍]
 ㄹ. 진작 가 뵈이야(=진작 가 버렸어). (이기갑 2004:251) <서남>

5. 마무리

The grammaticalization of summons ‘eoi’

Hwang, Byung Sun

All of the grammaticalized summons as a discourse marker are used in one’s juniors. Among these discourse markers, ‘eoi₁’ is a one of the most grammaticalized summons. The summons ‘eoi₁’ has the different functions in conformity with the degree of the grammaticalization. First, the summons ‘eoi₁’ is grammaticalized into a discourse marker. Second, as ‘eoi₂’/‘ei’/‘ii₁’ grammaticalized as a discourse marker are frequently used after the conjunctive endings or the sentence endings, they are more grammaticalized into a discourse marker, ‘ii₂’. Third, when a discourse marker ‘ii₂’ is most grammaticalized, it was fossilized at a precedent endings and then forms dialectic endings.

3) 공용어에서는 ‘야’가 ‘애’로 실현된다. ‘애’ ‘이 아이>이 애>애’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말이다.

영어와 한국어 탈어휘동사구문의 쌍방향 대응관계 연구

황 현 미

(부산대학교)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some aspects of the bidirectional correspondences of delexical verb constructions in English and Korean. Eighty one delexical verb construction samples from my collected corpus data in English were selected and tested. The following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First, the Korean equivalents in Oxford dictionary of the base verb forms and their corresponding delexical verb constructions in English are mostly word defined in the same way. The important semantic features such as oneness in English delexical verb constructions are not shown in the Korean dictionary definitions. Second, the head nouns combined with the verb ‘-hada’ in Korean delexical verb constructions are dynamic and non-substantial in their source verb meanings. The dynamic meanings of the head nouns are reflected in the corresponding English delexical verb constructions, while the non-substantial property of the nouns is not shown.

1. 서론

탈어휘동사(delexical verb)¹⁾란 have a rest, take a sneak, give a sigh와 같은 구조에서 have, take, give와 같은 동사를 말하며, 본동사로써의 의미를 벗어나 탈어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뒤를 따르는 명사와 결합하여 형성되는 구조를 탈어휘구문(delexical structure)라고 한다(Collins, 1990:147).

탈어휘동사구문의 관한 기존연구는 탈어휘동사의 의미적 속성과 뒤따르는 목적의 의미적 속성으로 나누어 연구되어왔다. 탈어휘동사 자체의 의미속성을 연구한 대표적 학자인 Dixon(1991) 등이 있다. Dixon(1991)은 have, take, give 탈어휘동사구문의 의미적 속성은 뒤따르는 탈동사형명사를 결정한다고 보고 탈어휘동사의 의미적 속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뒤따르는 탈동사형 명사를 크게 ‘이동’, ‘영향’, ‘수여’, 그리고 ‘신체’의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위의 3가지 탈어휘동사와의 결합가능여부를 밝히고 있다. 두 번째 뒤따르는 목적어의 의미적 속성을 연구한 대표적 학자는 Cattell(1984)과 Wierzbicka(1982)등이 있다. Cattell(1984)은 탈어휘동사에 뒤따르는 명사를 타동사(transitive verb)와 자동사(intransitive verb)로 구분

1) Jespersen(1965:117)은 이를 경동사(light verb)라고 부른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사-보충어 구조이지만, 동사 take, give, have는 완전한 술어라고 볼 수 없다. take a plunge구조에서 사실상 a plunge를 물리적으로 take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take a bath, give a bath는 의미적으로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문에서 동사는 완전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의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경동사라고 부른다.

하여 통사적, 의미적 차이점을 설명하였고 Wierzbicka(1982)는 탈어휘동사 have와 결합하는 탈동사형명사(verbal noun)를 10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여 각각의 통사적·의미적 틀을 제시하였고, have와 take 탈어휘동사구문과의 의미적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한편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에 상응하는 개념을 한국어에도 찾을 수 있는데 명사+“하다”의 형태로 실현된다. 채희락(1996)과 서정수(1991)는 “하다”에 선행하는 명사의 속성에 관한 연구를 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채희락(1996)은 ‘-하다’에 선행하는 명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성 명사만이 결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정수(1991)는 명사를 실체적 명사와 비실체적 명사로 나누고 비실체적 명사 중에서 비상태성, 동작성, 작용성을 지닌 명사만이 탈어휘동사구문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영어와 한국어의 탈어휘동사구문에 관한 기존의 의미적 속성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영어에서 한국어,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대응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탈어휘동사구문의 몇 가지 특성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연구에서는 영어 기본형동사구문과 탈어휘동사구문의 한국어 대응형을 비교분석하고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의 의미적 속성이 한국어 대응구문에 반영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연구에서는 ‘-하다’로 번역되는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어 탈어휘동사구문의 역동성과 비실체성의 자질이 영어 상응구문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코퍼스 분석을 통해 도출한 81개의 구문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본 논문은 1장은 서론, 2장은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대응관계, 3장은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대응관계, 마지막 4장은 결론으로 구성된다.

2.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대응관계

이 장에서는 영어 기본형동사와 탈어휘동사구문의 한국어 대응형을 비교 분석하여 나타나는 특성을 알아보고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의 의미적 속성이 한국어 대응형에 반영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코퍼스²⁾를 이용하여 영어 탈어휘동사구문 81개를 도출하였고, 영어 기본형 동사구문과 탈어휘동사구문의 한국어 대응형을 위해 옥스퍼드 영한사전³⁾을 이용하여 검색하였다(<부록>참조).

2.1. 영어 두 구문과 한국어의 대응관계

영어 코퍼스를 이용하여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을 추출하였는데, HAVE A (N/V) 구문이 8개, TAKE A (N/V) 구문이 22개, MAKE A (N/V)구문이 29개, GIVE A (N/V) 구문이 14개, 그리고 DO A (N/V) 구문이 8개를 각각 도출하였다.

HAVE A (N/V) 구문 8개 중에서 6개 구문, TAKE A (N/V) 구문 22개 중에서 17개 구문, MAKE A (N/V)구문 29개와 GIVE A (N/V) 구문 14개는 모두 기본형동사의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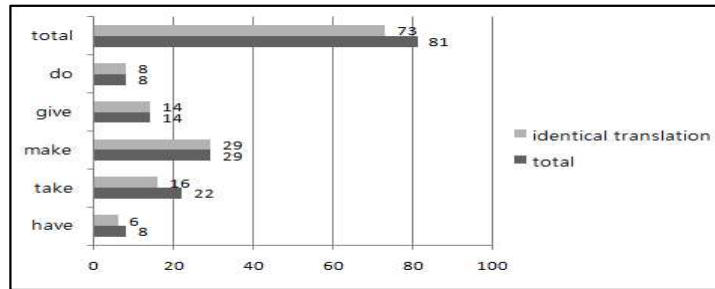
2) 코퍼스 분석을 위해 COCA(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와 BYU-BNC(British National Corpus)을 활용하였다.

3) 본 논문의 한국어 대응형은 옥스퍼드 영한사전(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을 참고하였다. 기존 영한사전에 비해 한국어 대응형 방식을 보다 정교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정영국(2010)에 따르면, 옥스퍼드 영한사전은 정확한 단어의 의미 제시,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우리말 제시, 외래어에 해당하는 적절한 우리말 제시, 단어 뜻의 명쾌한 구분, 적절한 대응형이 없는 경우는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설명적인 어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

대응형과 일치율을 보인다. DO A (N/V) 구문 8개는 모두 기본형동사와 동일하게 번역된다.

한편, 81개 구문 중에서 7개구문 have a look, have a drink, take a break, take a step, take a bite, take a drink, take a sip는 각각 ‘한번 보다, 한 모금 마시다, 잠시 쉬다, 한 발자국 내딛다, 한입 베어 물다, 한잔 마시다, 한 모금 마시다’의 한국어 대응형으로 나타내면 기본형동사의 한국어 대응형과 일치하는 않는다. 다음 <그림1>은 위의 5개의 탈어휘동사구문과 기본형동사와 동일한 한국어 대응형을 갖는 구문을 나타낸다.

<그림 1> 두 구문간의 동일한 한국어 대응형 비율



따라서 기본형동사와 탈어휘동사구문의 한국어 대응형간의 차이는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 같다.

2.2. 행위의 일회성 자질의 대응관계

본 절에서는 영어의 탈어휘동사구문의 행위의 일회성 특성이 영한사전에 나타나는 한국어 대응형에 반영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앞의 2.1절에서 영어 기본형동사구문과 탈어휘동사구문의 한국어 대응형 81개중에서 7개의 구문 have a look, have a drink, take a break, take a step, take a bite, take a drink, take a sip는 각각 “한번, 한 모금, 잠시, 한 발자국, 한입, 한잔, 한 모금”의 표현이 추가되는 것은 탈어휘동사구문의 행위의 일회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데이터 중에서 약 10%만이 행위의 일회성이 나타나므로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의 의미적 속성은 한국어 대응형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이러한 대응형이 실제 번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다음 예문 (2)은 이러한 의미적 속성이 나타나는 예문들이다. 실제 다른 문맥에서도 탈어휘동사구문의 의미적 속성인 행위의 일회성이 나타내는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2) a. Please have(take) a look at it for yourself.
당신이 직접 한 번 보시지요.
- b. Have a look at these journals for your reference.
참고로 이 잡지들을 한 번 보아라.
- c. Would you like to have a drink?
한 잔 하실래요?
- d. Let's take a break under a tree.
나무 밑에서 잠시 쉬자.
- e. Let's take it one step at a time

한 번에 한 걸음만 내딛자.

- f. Once you take a bite, you will be begging your parents to buy you one more.

이 아이스크림을 한 입 깨물면 여러분은 부모님께 하나 더 사달라고 조를 거예요.

- g. Those who feel thirsty during a meal should just take a sip of water instead.

식사중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물을 한 모금만 마셔라.

(출처: 능률교육, YBM, 옥스퍼드, 타임즈코어)

따라서 일회성이란 의미 특성은 문맥과 무관한 사전적 정의에서나 잘 구현되지 않지만, 문맥 의존적인 실제 문장에서의 탈어휘구문에서는 일회성의 특성이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된다.

3.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대응관계

이 장에서는 한국어의 전형적인 탈어휘동사구문인 ‘-하다’에 대응하는 영어 기본형동사구문과 탈어휘동사구문의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 탈어휘동사구문의 역동성과 비실체성 자질 중 비상태성, 동작성, 작용성이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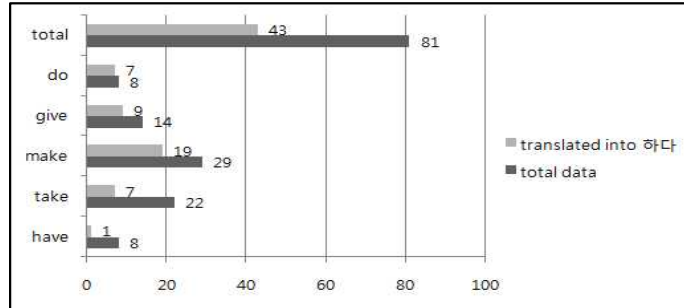
3.1. ‘-하다’ 구문의 대응관계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에 상응하는 한국어 탈어휘동사구문은 ‘-하다’이다. ‘-하다’는 동사의 속성을 가진 동작성명사와 결합하여 탈어휘구문을 이루며 의미는 전적으로 선행하는 명사에 의해 결정된다.

전체 81개의 영어 탈어휘동사구문 샘플 중에서 한국어 ‘-하다’의 대응형⁴⁾을 갖는 구문은 43개이다. 탈어휘동사별로 각각 살펴보면, have 탈어휘동사구문 8개 중에서 1개 구문인 a report의 한국어 대응형은 ‘보고하다’이고, 22개의 take 탈어휘동사구문중에서 7개 구문인 a walk, a shower, a bath, a risk, a guess, a bow, a stroll, 또한 29개의 make 탈어휘동사구문 중에서 19개 구문인 a change, a commitment, a contribution, a decision, a mistake, a deal, a statement, a choice, a comment, a joke, a determination, a speech, a connection, a plan, a record, a donation, a purchase, a reservation, a prediction은 각각 ‘변경하다, 노력하다, 공헌하다, 결정하다, 실수하다, 거래하다, 진술하다, 선택하다, 논평하다, 농담을 하다, 결정하다, 연설하다, 연결하다, 계획하다, 기록하다, 기부하다, 구매를 하다(구매하다), 예약하다, 예측하다’로 한국어 탈어휘구조를 형성한다. give구문 14개중에서 9개인 a speech, a talk, a lecture, a boost, a statement, a thought, a description, a report, a picture가 ‘-하다’로, 마지막으로 8개의 do구문 중에서 1개 a dance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다’의 대응형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부록1참조). 아래 <그림 3>은 영어탈어휘동사구문 81개 중 각 탈어휘동사별 ‘-하다’의 대응형을 나타낸 것이다.

4) 데이터 중에서 한국어 대응형이 두개 이상이 경우에는 두 개 중에 하나가 ‘-하다’이면 ‘-하다’의 대응형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림 3> '-하다'의 영어 대응형 비율



다음 <표1>은 위의 수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하다'의 한국어 대응형을 갖는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의 비율을 살펴보면 탈어휘동사 have가 12.5%이고, take 31.9%, make 65.5%, give 64.3%, 그리고 do는 87.5%으로 나타난다. 전체 영어 탈어휘동사구문 중에서 53%가 한국어 탈어휘동사구문 '-하다'로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하다'의 영어 대응형 비율

	have	take	make	give	do	총계
영어 총계	8	22	29	14	8	81
'-하다' 대응	1	7	19	9	7	43

<표 1>에서 '하다'에 대응하는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에서 사용되는 동사 중 make가 가장 높은 비율이고 그 다음이 give, 그 다음 do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은 보였다. 이 점은 한국어 '-하다' 탈어휘동사구문이 역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역동성 자질이 영어의 대응 탈어휘동사구문 선택에 전이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2. 비실체성과 역동성 대응관계

이 절에서 한국어 탈어휘동사구문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특성이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어 '-하다' 탈어휘동사구문에서 '-하다'에 선행하는 명사는 비실체성과 역동성의 의미속성을 갖는다. '-하다'의 대응형을 갖는 영어 탈어휘동사구문 43개를 대상으로 이러한 의미속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채희락(1996:409-410)에 따르면, 한국어 '-하다'는 분포적/형태적 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쓰이는 '하다'와 'VP+하다', 'NP+하다', 'AdvP+하다'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NP+하다' 형태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성명사와 결합하여 탈어휘동사구문을 이룬다.

또한 서정수(1991:175)는 '-하다' 복합체 중 탈어휘동사구문을 이루는 '-하다'는 선행명사와 결합을 하는데, 이 선행명사는 아무것이나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실체성(substantial)명사는 '-하다'와 결합하지 못하며 비실체성(non-substantial)명사만 결합할 수 있다. 비실체성 명사는 비상태성, 동작성, 작용성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과 상대성, 비동작성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동사성 선행명사라고 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명사만이 '-하다'와 결합하여 탈어휘동사구문을 형성한다. 따라서 한국어 '-하다' 구문의 선행명사는 비실체적이며 비상태적이고 동태적인

즉, 역동성을 가진다.

한국어 '-하다'의 선행명사는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의 목적어에 해당하므로 목적어의 역동성과 비실체성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역동성의 의미 속성에 대해 검토해 보자.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의 목적어는 동사성 명사로 나타나므로 이를 위해 동사의 역동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영어동사는 행동, 행위 그리고 일시적이거나 변화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되는데 이를 동태동사(dynamic verb), 그와 상응하는 동사는 상태동사(stative verb)라고 한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태동사는 진행상과 결합할 수 없다. 상태동사는 본질적으로 행위의 지속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상태동사는 명령문을 만들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상태동사는 유사분열문을 만들지 못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다"의 한국어 표현에 대응하는 영어에서 수집된 43개 구문은 동사 have를 제외하고 모두 역동성을 갖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따라서 한국어 탈어휘동사구문에서 나타나는 역동성의 특성은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에서도 나타나는 하나의 경향성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두 번째, 한국어구문은 실체성명사가 아닌 비실체성명사와 결합하는 경향을 갖는다(서정수 1996). 실체성 명사는 물체나 물질 따위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명사를 의미하며, 동작성이나 상태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사물만을 가리키는 것들이다. 반면에 비실체성 명사는 동작성이나 상태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사건이나 사태 또는 성질이나 상태 따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운동, 공부, 진행, 정직' 등은 형태로는 명사이지만 의미로는 동사나 형용사와 유사하다(서정수:1996:456). 서정수(1996)가 지적한 대로 한국어 탈어휘동사구문에서 '-하다'와 결합하는 명사는 실체성명사가 아닌 비실체성명사이다.

이러한 한국어 '-하다' 탈어휘동사구문에서의 실체성의 특성이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에도 유지되는지를 검토해보자. 본 연구에서는 영어에서 이러한 실체성 부여의 표시 장치가 부정관사 사용 여부와 관련된다고 가정한다. 같은 맥락에서 Jespersen(1965:422-424)도 부정관사를 갖는 명사의 의미 속성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어느 개체를 지시하지 않지만 어떤 부류의 특정한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도입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두 번째, 한 부류의 한 구성원을 막연하게 가리키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명시한다. 마지막으로 명사가 부정관사와 함께 사용될 때 그 명사의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총칭적 의미를 갖는다. 명사가 부정관사와 함께 사용될 때 명사를 도입하거나 총칭적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에서 사용되는 부정관사는 도입이나 총칭성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막연하게 명시하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어 '-하다' 탈어휘동사구문에 대응하는 전체 43개의 샘플 중 명사구에 부정관사를 모두 포함하고, 무관사를 취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어의 '-하다' 탈어휘동사구문의 실체성 특성이 대응하는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에는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실체성이 특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탈어휘동사구문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대응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어 기본형동사구문과 탈어휘동사구문의 한국어 사전 대응형을 비교했는데 전체에서 약 90%는 한국어 대응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하지 않는 약 10%의 구문들은 have a drink,

take a step 등 있는데 이들은 각각 ‘한잔 마시다, 한 발자국 내딛다’ 등 행위의 일회성의 의미 속성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약 10%의 구문이 행위의 일회성을 통해 의미의 명시성을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특성은 실제 번역문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데이터의 양이 적어 이를 일반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탈어휘동사구문의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대응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탈어휘동사구문은 ‘-하다’ 구문으로 좁혀 논의하였으며, ‘-하다’ 구문에 대한 영어 대응형은 81개 구문 예 중에 43개로 나타나며, 53%에 해당한다. 한국어구문에서 ‘-하다’의 선행명사의 역동성과 비실체성의 의미 속성이 영어구문의 목적어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다. 영어구문의 목적어는 동사성 명사이므로 역동성을 갖는다. 하지만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에서 모두 부정관사 a가 동반되며, 이 부정관사 포함 목적어 명사는 Jespersen(1965)이 지적한 대로 실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어구문이 실체성 명사가 아닌 비실체성명사와 결합한다는 것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영어의 탈어휘동사구문과 한국어와는 많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에서는 행위의 일회성을 강조하지만 영한 사전상에서의 한국어 대응형은 이러한 일회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어 탈어휘동사구문에서는 역동성과 비실체성의 의미 속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대응하는 영어 탈어휘동사구문에서는 역동성은 보이지만, 비실체성의 특성은 부정관사의 사용으로 인해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서정수. 1991. 「현대 한국어문법연구의 개관」. 서울: 한국문화사.
- 서정수. 1996.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정영국. 2010. 옥스퍼드 영한사전 편찬 작업 및 본 사전의 특징. 「한국사전학」 제 16호. 269-295.
- 채희락. 1996. “하-”의 특성과 경술어구문. 「언어연구」 제 32권 제3호. 409-476.
- Cattell, R. 1984. *Syntax and Semantics Composite Predicates in English*. New York: Academic Press.
- Dixon, R. 1991. *A New Approach to English Grammar on Semantics Principl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espersen, O. 1965.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Wierzbicka, A. 1982. Why Can You Have A Drink When You Can't Have An Eat. *Language* 58, 753-799.

<부록>

1. HAVE A (N/V)구문

기본형동사	의미	탈어휘동사구문	의미
choose	선택하다, 고르다	have a choice	선택권이 있다
plan	계획을 세우다, 계획하다	have a plan	계획이 있다
look	보다, 바라보다	have a look	(한 번) 보다
tend	경향이 있다	have a tendency	경향이 있다
report	알리다, 발표하다	have a report	보고하다
converse	대화를 나누다	have a conversation	대화를 나누다
dream	꿈을 꾸다	have a dream	꿈을 꾸다
drink	마시다, 술을 마시다	have a drink	한 잔 마시다

2. TAKE A (N/V)구문

기본형동사	의미	탈어휘동사구문	의미
look	보다, 바라보다	take a look	(한 번)보다
break	쉬다, 휴식하다	take a break	잠시 휴식을 취하다
walk	걷다, 걸어가다, 산책하다	take a walk	산책하다
step	(발걸음을 떼어) 움직이다	take a step	한 발자국 내딛다
stand	(특정한)입장에 있다	take a stand	태도를 취하다
shower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
listen	듣다, 귀 기울이다	take a listen	듣다, 귀 기울이다
nap	낮잠을 자다	take a nap	낮잠을 자다
sit	앉다, 앉아있다	take a seat	자리에 앉다
bath	목욕시키다, 목욕하다	take a bath	목욕하다
breathe	호흡하다, 숨을 쉬다	take a breath	숨을 쉬다
bite	물다	take a bite	한 입 베어 물다
risk	위험을 무릎 쓰다	take a risk	모험을 하다
guess	추측하다	take a guess	어림짐작하다, 추측하다
vote	의사표시하다, 투표하다	take a vote	투표를 실시하다
ride	타다	take a ride	타고가다
drink	마시다, 술을 마시다	take a drink	한 잔 마시다
sip	홀짝이다, 조금씩 마시다	take a sip	한 모금 마시다
test	시험(테스트)하다	take a test	시험을 보다
bow	절하다, (고개를) 숙이다	take a bow	고개숙여 인사하다, 절하다
stroll	거닐다, 산책하다	take a stroll	산책하다
rest	쉬다, 휴식을 취하다	take a rest	쉬다, 자다

3. MAKE A (N/V)구문

기본형동사	의미	탈어휘동사구문	의미
change	변하다, 달라지다	make a change	변경하다
count	세다	make a count	세다
commit	전념하다, 헌신하다	make a commitment	노력하다, 헌신하다
contribute	기부하다, 기여하다	make a contribution	공헌하다
decide	결정하다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mistake	오해하다, 잘못 판단하다	make a mistake	실수하다
deal	거래하다	make a deal	거래하다
state	말하다, 진술하다	make a statement	진술하다

profit	이득(이익)을 얻다(주다)	make a profit	이윤을 내다
choose	선택하다, 고르다	make a choice	선택하다
move	움직이다, 움직이게 하다	make a move	움직이다
judge	판단하다	make a judgement	판단을 내리다
comment	논평하다, 견해를 밝히다	make a comment	논평하다
call	전화하다	make a call	전화를 걸다
joke	농담하다	make a joke	농담을 하다
mess	엉망으로 만들다	make a mess	엉망으로 만들다
determine	결정하다	make a determination	결정하다
speak	이야기하다, 연설하다	make a speech	연설하다
wish	원하다, 바라다	make a wish	소원을 빌다
connect	잇다, 연결하다	make a connection	연결하다
fuss	법석을 떨다	make a fuss	소란피우다
stand	(특정)입장에 있다	make a stand	태도를 취하다
plan	계획하다	make a plan	계획하다
record	기록하다	make a record	기록하다
splash	침범거리다	make a splash	침범거리다
donate	기부하다, 기증하다	make a donation	기부하다, 기증하다
purchase	구입하다, 구매하다	make a purchase	구매를 하다
reserve	예약하다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predict	예측하다	make a prediction	예측하다

4. GIVE A (N/V)구문

기본형동사	의미	탈어휘동사구문	의미
speak	이야기하다, 연설하다	give a speech	연설하다
talk	말하다, 이야기하다	give a talk	연설하다, 강연하다
lecture	강의(강연)하다	give a lecture	강연하다
boost	신장시키다, 북돋우다	give a boost	후원하다, 활력을 불어넣다
name	이름을 지어주다	give a name	명칭(이름)을 붙이다
state	말하다, 진술하다	give a statement	진술하다, 상술하다
shout	외치다, 소리치다	give a shout	외치다, 환호하다
glimpse	잠깐보다, 언뜻 보다	give a glimpse	슬쩍 들여다보다
message	메시지를 보내다	give a message	메시지를 보내다
think	생각하다	give a thought	염두에 두다, 생각하다
describe	묘사하다, 설명하다	give a description	묘사하다
report	알리다, 발표하다	give a report	보고하다
picture	상상하다	give a picture	상상하다
listen	듣다, 귀 기울이다	give a listen	듣다, 귀 기울이다

5. DO A (N/V)구문

기본형동사	의미	탈어휘동사구문	의미
deal	거래하다	do a deal	거래하다
study	공부하다, 조사하다	do a study	연구하다
research	연구하다	do a research	연구하다, 조사하다
play	연기하다	do a play	연극을 하다
project	계획하다, 투영하다	do a project	작업을 하다
test	시험(테스트)하다	do a test	테스트를 하다
survey	조사하다	do a survey	조사하다, 측량하다
dance	춤을 추다	do a dance	춤을 추다

제3발표

한국어 종결어미 '-네'와 단언화행

정 경 숙

(부산대학교)

Chung, Kyung-Sook. 2014. *The Korean Sentence-Final Suffix -ney and the Assertive Speech Act*. This paper shows that the Korean sentence-final suffix *-ney* should not be treated as an epistemic modal like the English modal *must*, nor as an evidential or mirative. Instead, the paper argues that, like the declarative suffix *-ta*, *-ney* should be a sentence mood that basically expresses an assertive speech act, a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that *-ta* is a sentence mood that requires that the described proposition be 'informative to the hearer', whereas *-ney* is a mood that requires that the proposition be 'informative to the speaker'. Thus the proposed analysis suggests that the assertive speech act can be at least two subtypes, the assertion for informativeness and the assertion for the speaker's own knowledge. (Pusa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Korean sentence-final suffixes, epistemic modality, evidentiality, mirativity, sentence mood, assertive speech acts

1. 서론

한국어 종결어미 '-네'는 주로 인식양태(epistemic modal) 표지로 분석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증거법(evidential) 또는 의외성(mirative) 표지 등으로 분석되어 왔다. 박진호(2011)는 '-네'를 의외성 표지로 분석한데 비해, J.-M. Song(2011)은 '-네'가 주어진 명제에 대한 화자의 '직접적으로 입수한 감각증거(firsthand sensory evidence)'의 의미를 가진 직접증거법(그의 용어로는 'sensory evidential') 형태소라고 주장하고 부수적으로 의외성의미도 가진다고 했다. 이와 유사하게 Strauss(2005)도 '-네'가 증거법표지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몰랐던 것을 새로이 알게 되었다는(shift from not knowing preciously knowing now)'의 의미를 전달하며 놀라운 사실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동화되지 않은(unassimilated)' 정보를 나타내는 의외성 형태소라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정경숙(2012)은 '-네'가 그자체로 증거법 표지는 아니지만 '증거 입수 및 제시'와 '화자의 객관화'의 의미를 동반한 의외성 표지라고 분석했다.

인식양태 표지로서의 분석에서도 다양하지만 위와 유사한 개념으로 '-네'를 정의하고 있다. 먼저 화자에게 새롭거나 예상치 못한 또는 예상과 반대되는 명제를 표현한다는 의외성적 인식양태라는 견해가 있고(C. Lee 1993; K.-D. Lee 1993; H.-S. Lee 1993; 권익수 2013), '사실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 (information based on factual evidence)'를 표현하는 증거성적 인식양태 (Choi 1995: 173)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 다른 견해로는 '-네'를 '새로 앎'이라는 문장이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화자의 인식상태 또는 정보의 상태를 나타내는

인식양태 표지로의 분석을(장경희 1985; 박재연1999, 2006)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권익수는 ‘-네’가 의외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주어진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인식양태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결어미‘-네’는 학자마다 다양한 문법범주로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범주로 분석되어도 그 정의에 사용된 개념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종합하면 ‘증거성’과‘의외성(비예상성)’;‘새로 읽’;‘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강한 확신’이라는 네 가지가‘-네’에 대한 의미로 이제까지 제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의외성(비예상성)’개념이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네’를 단언화행을 표현하는‘-다’와 동일한 문장서법 표지로 분석하고,‘-다’의 핵심의미로 전달되는 명제가 청자에게 신정보’인 것에 반해‘-네’의 핵심개념은 전달되는 명제가 화자에게 신정보’이며,‘의외성(비예상성)’개념은 바로 이‘화자 신정보’라는 개념에서 파생된 개념임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는 단언화행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 즉‘정보전달적’단언화행과‘화자인식적’단언화행으로 구분되어야 하며,‘-다’가 정보전달적’단언화행 개념을 표현하는 문장서법(sentence mood) 형태임에 반해‘-네’는‘화자인식적’단언화행 개념을 표현하는 문장서법형태임을 주장한다.

2. 권익수(2013)의 견해: 의외성을 띤 인식양태 표지

권익수(2013:57)는‘-네’가 화자가 이야기 되고 있는 사건이나 상태에 대하여 발화시점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지만 사실이라 판단하고 단언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인식양태 표지로 화자의 강한 확신과 단언이라는 의미를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네’가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확신의 정도를 표현하는 영어의 ‘must’같은 인식양태의 의미기능이 있다는 주장에 권익수는 세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근거로 ‘-네’가 아래 (3)에서처럼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표형과 비교했을 때 어색한 이유는‘거리두기’현상 때문이고 이 거리두기는 인식양태나 증거법 표현에서 흔히 수반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3) (자신의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ㄱ. 집에 불이 났다/불이야.

ㄴ. ??집에 불이 났네/불이네. (정경숙 2012: 1011)

하지만‘-네’가 보이는 거리두기와 인식양태‘must’가 보이는 거리두기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10)의 경우 권익수의 말대로 거리두기 때문에‘-네’문장과 ‘must’문장이 어색하다면, (11)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must’문장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네’ 문장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는 단순한 거리두기 개념으로 (11) 문장들의 적절성과 비적절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며, 게다가 (11)의 두 문장은 양태의미에 있어서도 동일하지 않다.‘must’문장은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표현보다는 화자의 강한 추측의 개념이 강조된 반면‘-네’문장은 추측의 개념이 없고 화자의 느낌을 그대로 묘사한, 즉 사실성을 표현한 문장이다.

(10) ㄱ. ?내가 아침을 먹고 있네.

ㄴ. ?I must be eating breakfast.

- (11) ㄱ. 나는 이 커피가 좋네.
 ㄴ. (?)I must like this coffee.

3. 단언화행과 문장서법

Portner(2009: 258-263)는 서법(mood)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 (24) 서법 유형
 ㄱ. 동사적 서법(verbal mood):
 ㄴ. 개념적 서법(notional mood):
 ㄷ. 문장 서법(sentence mood)

문장서법은 문장유형(sentence type)과 문장화행(sentential /illocutionary force)의 관습적인 연관성을 표현하는 서법형태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문장유형으로 평서문(declarative), 의문문(interrogative)과 명령문(imperative)을 들 수 있고 각각 문장유형에 단언(assertion)과 질문(asking), 요구(requiring)의 화행 의미가 기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Portner 2004, 2009: 263). 한국어도 몇 가지 문장유형이 문법형태적으로 명시화되어 있고 각각 특정 화행과의 관련성이 제시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종결어미'-다'는 평서문 문장유형 표지로 기본적으로 단언 화행과 관습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문장서법 형태로 볼 수 있다.

4. '-네'와 화자 신정보'

형태소'-다'와'-네'는 둘 다 종결어미(어말어미)이고 진술문형태에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서로 상보적 분포만 허용한다. 먼저'-다'문장과 달리'-네' 문장의 경우 화자가 직접 지각이나 간접 추론 등 어떤 유형이든지 주어진 명제를 입수하게된 증거유형을 명시화한다는 점에서'-네'와 차이를 보인다.

- (15) 철이가 지금자리에 없네. (정경숙 2012: 1001)
 (16) ㄱ. (마당에 쌓인 눈을 보고) 밤새 눈이 왔네. (정경숙 2012: 1002)
 ㄴ. (철이가 어제 맥주 한 박스를 샀으니) 밤새도록 술을 마셨겠네.
 (정경숙 2012: 1004)

'-네'와 평서형 종결어미 '-다'의 또 다른 차이점으로 (17)에서처럼 '-네'는 반드시 주어진 명제가 화자에게 '의외'이거나 새로운 명제일 때 사용된다는 것과 (18) 경우처럼 명제에 대해 화자가 '객관적'관점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 (17) (철이가 새 핸드폰을 가진 것을 보고)
 ㄱ. *너 핸드폰 새로 샀다.
 ㄴ. 너 핸드폰 새로 샀네. (정경숙 2012: 1001)

(18) (자신의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ㄱ. 집에 불이 났다.

ㄴ. ??집에 불이 났네. (정경숙 2012: 1011)

본 논문은 이런 차이점들의 기저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단언화행이 가지는 정보성에서의 차이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즉 비록 같은 진술형이라고 하더라도 '-다'의 경우 반드시 주어인 명제가 '청자에게 신정보'이어야 하고 '-네'의 경우 반드시 '화자에게 신정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다음 예시들에서 찾을 수 있다.

(31) 가: 민아 공부하니?

나: ㄱ. 응, 공부한다/공부해.

ㄴ. 응, 공부하네.

(30) ㄱ. (고양이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다.

ㄴ. *(고양이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네.

(32) 가: 존이 미국인이니?

나: ㄱ. 그래 (내가 알기로) 미국인이다/미국인이야.

ㄴ. *그래 (내가 알기로) 미국인이네.

청자에게 구정보인 경우:

(33) (상대방이 머리 자른 것을 보고)

ㄱ. ??너 머리 잘랐다.

ㄴ. 너 머리 잘랐네.

정보전달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급박한 청자 신정보 경우:

(34) ㄱ. 내 가방이 없어 졌다/없어 졌어.

ㄴ. ?내 가방이 없어 졌네.

(35) ㄱ. 우리 아이가 없어 졌어요. (빨리 찾아 주세요.)

ㄴ. ?우리 아이가 없어졌네요. (빨리 찾아 주세요.)

(36) (달려오는 토끼를 보고)

ㄱ. 저기 토끼가 있다

ㄴ. 저기 토끼가 있네.¹⁾

(37) (달려오는 사자를 보고)

ㄱ. 저기 사자가 있다.

ㄴ. ??저기 사자가 있네.

1) 예문 (36)-(40)은 E.-J. Noh(2002: 593-594)의 예문들을 수정한 것이다. Noh(2002: 593)는 관련성이론(Relevance Theory)을 바탕으로 '-네'를 '관련정보에 의해 산출된 화자의 새로운 인지효과를 의미하는 표지(a marker of the speaker's new cognitive effect yield by relevant information)'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인지 효과의 하나로 맥락적 함의(contextual implication)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위의 (36)-(39) 예문들의 경우, E.-J. Noh에 의하면 맥락적 함의보다는 정보 그자체가 중요하기에 굳이 처리노력이 더 요구되는 '-네'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화자에게 새로운 정보라는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왜 '-네'만 맥락적 함의를 도출시키고 처리노력이 더 요구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 (38)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ㄱ. 불이다/불이야!
 ㄴ. ??불이네.
- (39) ㄱ. 불이 났다/불이 났어.
 ㄴ. ??불이 났네.

5. 정보전달 단언화행과 화자인식 단언화행

이러한 정보성에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다'와'-네' 둘 다 같은 진술형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 말은 두 형태소 모두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가 세상의 현상을 기술하고 묘사한다는 것이며, 이를 Searle (1969)의 화행이론으로 설명하면 두 형태소 모두 단언화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Searle에 의하면, 단언화행의 본질적 특징은 주어진 명제가 정보전달보다는 '실제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represents an actual state of affair)'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단언화행의 적절조건(felicity condition)을 제시했다.

- (41) Searle's(1969: 154) characterization of assertion

Preparatory Condition: S has evidence for the truth of P.²⁾

Sincerity Condition: S believes P.

Essential Condition: Count as an undertaking to the effect that P represents an actual state of affairs

Searle의 화행이론에 따른다면 근본적으로 한국어의 종결어미 '-다'와'-네' 두 형태소 모두 현실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단언발행으로 취급될 수 있고 동시에 두 형태소는 단언화행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즉 정보전달 단언화행과 화자인식 단언화행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는 정보전달 화행을 수행하는 문장서법형태로 '-네'는 화자인식 화행을 수행하는 문장서법형태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각각의 적절조건을 제안한다.

- (42) '-다': 정보전달 단언화행

ㄱ. 예비조건(Preparatory Condition):

화자는 명제 P에 대한 증거가 있다.³⁾

P가 청자에게 기지정보인지에 대해 화자가 확신이 없다.

ㄴ. 성실성 조건(Sincerity Condition):

화자가 P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ㄷ. 본질조건(Essential Condition):

P가 현실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취지의 공언으로 간주된다.

2) Searle(1969)에서는 예비조건(Preparatory condition)에 'It is not obvious to both S and H that H know that P'라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 되어 있지만 이후 Searle and Vanderveken(1985)에서는 'the speaker has reasons or evidence for he truth of the proposition'예비조건 하나만을 제시하고 있다.

3) 이때 P는, Searle(1969)에서도 시사했듯이, 사실을 나타내는 명제뿐만 아니라 양태 표현이 포함된 비사실적 명제도 포함한다.

(43) ‘-네’: 화자인식 단언화행

ㄱ. 예비조건(Preparatory Condition):

화자는 명제 P에 대한 증거가 있다.

P가 화자에게 기지정보인지에 대해 화자가 확신이 없다.

ㄴ. 성실성 조건(Sincerity Condition):

화자가 P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ㄷ. 본질조건(Essential Condition):

P가 현실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취지의 공언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보성에서 차이점이 이제까지의 예시들이 보여준 차이점들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의외성 개념은 바로 화자가 전혀 새로운 정보를 인식할 때 그 중에서도 화자의 생각이나 예상에 벗어날 때 생겨나는 개념으로 ‘화자 신정보’에서 파생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네’문장이 전달하는 명제가 항상 화자의 예상과 다른 의외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사실 또한 화자에게 신정보라는 개념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화자에게 새로운 정보는 화자에게 의외적 정보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비의외적인 정보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경숙(2012)에서 제시한 ‘화자의 객관화’라는 의미 또한 바로 ‘-네’가 가지는 ‘화자에게 신정보’라는 개념에서 파생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자에게 미지의 정보인 경우는 화자의 주관이 개입이 되기 이전의 정보라고 할 수 있기에 화자가 객관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해 ‘-다’의 경우 명제가 화자에게 신정보일 수도 구정보일 수도 있기에 화자의 객관화 개념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제까지 논의를 요약하면, 먼저 증거성에서 ‘-다’와 ‘-네’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네’는 화자가 주어진 명제에 대해 증거유형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즉 화자 자신의 지각 또는 내성을 통해 직접적으로 명제를 인식했는지 아니면 추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식했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비해, ‘-다’는 비록 화자가 자신의 단언에 대한 증거가 어떤 유형으로든 존재하지만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기에 증거유형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한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다’와 ‘-네’는 명제의 정보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의 경우 명제가 청자에게 정보적이고 ‘-네’의 경우 화자에게 명제가 정보적이라는 것이다.

(44) ‘-다’와 ‘-네’의 의미상차이:

	‘-다’	‘-네’
증거성	증거의 비명시성 (증거유형의 중립성)	증거의 명시성
정보성	청자에게 정보적 (청자에게 신정보)	화자에게 정보적 (화자에게 신정보)

실제로 증거성과 정보성 두 개념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의 경우 청자에게 정보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는 화자가 주어진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입수했는지 보다는(예를 들면 직접지각에 의한 것이든 전문에 의한 것이든) 화자의 판단에 그 정보가 정당한 근거가 있고 믿을 만한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에, 정보전

달을 수행하는 단언화행에 있어서는 증거 명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겠다. 반대로 '-네' 문장의 경우 주어진 정보에 대한 화자 자신의 인식이 중요하기에 자신의 인식과정이 자신의 직접 지각/내성을 통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론을 통한 것에 대한 것인지(때로는 제 삼자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인지)를 밝혀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동시에 이를 통해 전달하는 명제로부터 화자가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제까지 '-네'가 영어의 'must' 처럼 주어진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확신의 정도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인식양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없음을 보였고 그 외 제기된 증거성 및 의외성(비/반예상적 정보), '새로 앎' 등의 의미들이 '화자에게 신정보'라는 개념으로 모두 설명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문법범주 측면에서도 '-네'가 단언화행을 표현하는 '-다'와 동일한 문장서법 표지임을 주장하였고, 두 형태소의 차이점은 '-다'는 전달되는 명제가 '청자에게 신정보'이어야 하는 것에 반해 '-네'는 전달되는 명제가 '화자에게 신정보'이라는 예비조건을 포함함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서는 단언화행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 즉 '정보전달적' 단언화행과 '화자인식적' 단언화행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다'가 '정보전달적' 단언화행 개념을 표현하는 문장서법(sentence mood) 형태임에 반해 '-네'는 '화자인식적' 단언화행 개념을 표현하는 문장서법 형태임을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는 다른 종결어미들, 예를 들어 '-지' 같은 종결어미도 '화자 구정보'라는 정보성 개념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김차균. 1980. "국어 시제 형태소의 의미," 한글 169, 45-116.
- 박진호. 2011. "한국어(韓國語)에서 증거성(證據性)이나 의외성(意外性)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사회 15, 1-25.
- 박재연. 1998. "현대국어 반말체 종결어미 연구," 국어연구 158.
- 박재연. 1999. "국어 양태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인식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199-225.
- 박재연. 2006. 한국어 양태 어미의 의미 연구, 국어학총서 66. 태학사.
- 박재연. 2013. "한국어 인식론적 범주와 관련한 몇 문제," 국어학 66, 79-107.
- 권익수. 2013. "한국어 종결어미 '-네'의 의미 재고찰: 정경숙(2012)에 대한 다른 생각," 언어 38, 53-66.
- 임동훈. 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211-249.
- 임동훈. 2011. "체계적인, 너무나도 체계적인 -박재연(2006)을 중심으로," 형태론 13, 107-123.
- 장경희. 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 정경숙. 2012. "한국어 종결어미 '-네'의 의미: 증거성 및 의외성과 관련해서," 언어 37, 995-1016.
- Choi, Soon-Ja. 1995. "The Development of Epistemic Sentence-Ending Modal Forms and Functions in Korean Children," in Joan Bybee and Suzanne Fleischman, eds.,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165-204. Amsterdam: John Benjamins.

- De Haan, F. 1999. "Evidentiality and Epistemic Modality: Setting Boundaries," *Southwest Journal of Linguistics* 18, 83-101.
- DeLancey, Scott. 2001. "The Mirative and Evidentiality," *Journal of Pragmatics* 33, 369-382.
- Dummett, Michael. 1993. "Mood, force, and convention," in *The Seas of Language* 202-2232. Oxford: Clarendon Press.
- Lee, Chungmin. 1993. "The Acquisition of Mood Indicators in Korean," in Susumu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ol.5*, 41-56.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Lee, Hyo-Sang. 1993. "Cognitive Constraints on Expressing Newly Perceived Information: with Reference to Epistemic Modal Suffixes in Korean," *Cognitive Linguistics* 4, 135-167.
- Lee, Kee-Dong. 1993 *A Korean Grammar on Semantic-Pragmatic Principles*. Seoul: Hankook Mwonhwasa.
- Levinson.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h, Eun-Joo. 2002. "The Korean Sentence-Ending Suffix *-ney*: Epistemicity vs. Cognitive effect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7:4, 581-599.
- Song, Jae-Mog. 2011. "Evidentiality in Korean. Modals and Evidentials in Korean," the 2011 J-K Preconference Workshop. Seoul National University.
- Portner, Paul. 2009. *Mod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earle, John. R. 1969. "The structure of illocutionary acts," in A. P. Martinich ed. *The Philosophy of Language*, 146- 156.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reprinted in 2008).
- Searle, John. R. 1975. "Indirect speech acts," in A. P. Martinich ed. *The Philosophy of Language*, 182- 195.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reprinted in 2008).
- Searle, John. R. and Vanderveken, Daniel. 1985. *Foundations of Illocutionary Log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auss, Susan. 2005. "Cognitive Realization Markers in Korean: A Discourse-Pragmatic Study of the Sentence-Ending Particles *-kwun*, *-ney* and *-tela*," *Language Sciences* 27, 437-480.
- Vanderveken, Daniel. 1990. *Meaning and speech act vol.1: principles of language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on Stechow, Kai and Anthony S. Gillies. 2010. "Must... Stay... Strong!" *Natural Language Semantics* 18, 351-383.

Referential Density in the Korean Narratives of “Frog, where are you?”

Hyowon Song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 Introduction

This study attempts to calculate referential density of the Korean narratives of the ‘Frog Story’. It is threefold: first, referential density and some studies where referential density was initiatively used will be introduced; some guidelines of the Noonan’s RD handbook will be presented with some examples for Korean structure; and the last section will show the results of the Korean referential density values of the “Frog Story” narratives.

2. Terminology

2.1 Referential density (RD)

The term *referential density* is firstly adopted to linguistic typology by Bickel (2003). It refers to “the ratio of overt to possible argumental NPs” (Bickel 2003: 708); and “the percentage of overtly expressed arguments to possible arguments is referred to as *referential density* (RD) (Noonan 2003: 3). The purpose of the RD value study is to presents the degrees of its values of different pro-drop languages; and to show that the differences in the RD values are relevant to the differences of morphosyntactic features (e.g. case features) of the languages (Bickel 2003: 708).

Bickel investigates three different languages of the Nepalese Himalayas: Belhare, Nepali, and Maithili (2003). The RD values of the three languages reveal different results: the lowest RD among the three is of Belhare, followed by Nepali and Maithili in order (Bickel 2003). Bickel explains these differences as the degree to the morphosyntactic features of NPs (e.g., case features): Belhare is the least case-sensitive; Nepali is after Belhare; and Maithili is the most case-sensitive language of the three (2003: 727). Through RD, Bickel further approaches to fundamental cognitive strategies, *i.e.* speakers’ attempts to balance their attention “to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event and to the participants involved in this event”: the lower RD of the speakers means more focus on the event; the higher RD refers to more focus on the participants (2003: 732).

2.2 The RD handbook by Noonan (2003)

The RD handbook by Noonan presents many detailed things that must be considered to determine how to calculate the RD values (2003: 3). The RD values of a language are calculated through determining the possible arguments of the narratives given and counting the overtly expressed arguments. Some of the rules and techniques in the handbook are introduced in this study. Some Korean morph-syntactic features that occur in the narratives but are not precisely determined by the guidelines of the Noonan's handbook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section 2.3.

(1) Two modes of the argument types: **RD1/RD2** vs. **RD1+/RD2+**

① RD1/RD2

- a. **RD1**: the ratio of the overt argument NPs to the available NP argument slots
 - ▶ Calculation method: ACT-ARG ÷ POSS-ARG
- b. **RD2**: the ratio of the overt arguments to verbs in the text
 - ▶ Calculation method: ACT-ARG ÷ ~Ø-VERBAL

② RD1+/RD2+

- a. **RD1+**: the ratio of all overt references to (whether as overt NPs or as concord markers on verbs) to the available NP argument slots in agreement phenomena (*i.e.* verb-argument concord markers indicating the absence of an overt noun/pronoun)
 - ▶ Calculation method: ACT-ARG + V-AGR-Ø-ARG) ÷ POSS-ARG
- b. **RD2+**: the ratio of all overt references to arguments to verbs in the text (*i.e.* a measure of verbs to any overt reference to arguments); a number below 1.00 means that verbs outnumber overt nominal argument references in discourse; and a number above 1.00 indicates that overt nominal argument references outnumber verbs in discourse
 - ▶ Calculation method: ACT-ARG + V-AGR-Ø-ARG) ÷ ~Ø-VERBAL

(2) Procedure to calculate RD

① Divide the text into clauses

- a. Clauses are defined by the presence of a predicate and its arguments: either the predicate or at least one argument must be overt.

② Identify the predicate within each clause

- a. finite verbs, non-finite verbals, adjectives, etc. → counted
- b. auxiliary verbs → not counted
- c. lack of overt predicate → not counted

③ Determine the available/potential NP slots: the possible arguments to the predicate.

- a. Possible arguments to the predicates in both main and subordinate clauses
- b. Verb complexes (lexical verbs + auxiliaries) → single units

- c. Complement-taking predicates treated as auxiliaries: **phrasal** predicates (e.g., *begin, finish*), **achievement** predicates (e.g., *manage, fail, try*), **modal** predicates (e.g., *can, must, ought to*), **negative** predicates (negatives rendered as verbs), and **conjunctive** predicates (clause changing morphology rendered as verbs)
 - d. Lexicalized complex predicates like noun-verb or verb-verb → single predicates
 - e. Verbs in serial verbs → counted separately
 - f. Null predicates → not counted
- ④ Determine the number of overt NPs filling the available NP slots
- a. Nominals
 - Ⓐ Nominals: adpositional phrases
 - Ⓑ Overt nouns and pronouns: equally counted
 - Ⓒ Coordinated NPs: counted as one
 - Ⓓ The arguments for serial verbs: counted separately for each verb
 - Ⓔ Shared arguments in conjoined predicate constructions: counted once
 - b. Arguments
 - Ⓐ Available NP slots are determined notionally (conceptually): accurate translations are required
 - Ⓑ Core arguments: agent, patient, and experiencer arguments, and goal and source arguments with verbs of literal and metaphorical movement. With causative predicates, the superagent is also counted.
 - c. Some examples of the points above
 - Ⓐ locative phrases, time expressions: not counted
 - Ⓑ goal or source of motion verbs: counted (e.g. *he went to Seoul* has two available slots and two overt arguments)
 - Ⓒ position verbs (*sit, stand, lie*): potential locative arguments are counted (e.g. *she sat in a sofa* has two slots and two overt arguments)
 - Ⓓ confluations of motion and manner (*walk, fly, run, crawl*): two arguments
 - Ⓔ *cause/make, put/bring*: three arguments
 - Ⓕ verbs of transfer (*give, receive, say, tell, explain, teach*): three arguments
 - Ⓖ predicate nominal constructions (e.g. *this is a bird*): one argument
 - Ⓗ true equational clauses (e.g. *Bruce Wayne is Batman*): two arguments
 - Ⓖ metapragmatic comments (e.g. *Did you understand?, Listen to me!, That's the end of the story*, etc.): false strats are not counted
 - Ⓖ complement clauses: treated as ordinary clauses but not counted as arguments (just like complement-taking predicate) (e.g. in *John wanted to hit Tom*, the argument array for *wanted* consists of only one argument *John*; the subordinate predicate *hit* has two available slots but only one of the two is filled)
 - Ⓖ raised arguments: for *John wanted Nill to hit Tom*, the subordinate predicate *hit* has two arguments for two available slots
 - Ⓖ relative clauses: belonged to an NP slots with their heads, the relative clause itself is disregarded

- two exceptions: i) in existential clauses, where the relative clause constitutes the main body of the assertion: *hitting* in *there were two guys (who were) hitting James* has two argument slots; ii) adverbial subordination constructions taking the form of relatives clauses like *in the time that Megan left (=when Megan left)*
- Ⓜ serial verbs meaning concatenations of verbs which form part of a single: counted separately
- Ⓝ Shared arguments (conjoined predicate constructions): counted only once to each overt verb (e.g. for *Jake broke the doorknob, opened the door and took the dog* the subject argument *Jake* has three available subject argument slots, but it is filled for *broke*, but not for *opened* and *took*)
- Ⓞ arguments of null predicates: counted (e.g. in *John ate calamari and James fish*, there are 4 argument slots filled)
- Ⓟ conjoined NPs: as single arguments (e.g. in *John and James hit Tom*, the predicate *hit* two available arguments)
- Ⓠ null predicates: in languages where there are no copular verbs or where copular verbs are sometimes not expressed, the predicate is considered to the predicate adjective or predicate noun
- Ⓡ element repetitions for emphasis: counted only once
- Ⓢ compounded pronominal arguments (free-standing): counted separately
- Ⓣ passives: agents expressed overtly as obliques counted not as overt arguments but as non-arguments (*agentful passives* in Irish *progressiv passives* are not considered passives)
- Ⓤ conversational ellipsis: e.g. *Who's that? Mike*, the answer *Mike* is the elliptical version of *That's Mike*, so that two possible arguments and one overt argument
- Ⓥ emphatics (e.g. *He himself knew what would happened*), vocatives (e.g. *John, shut up!*): not counted
- Ⓦ overt subjects of imperatives: e.g. *You get out!*
- Ⓧ free-standing subjects and pronouns: counted as such

(3) Scoring conventions for the scoresheet

- ① ~Ø-VERBAL non-zero verbs (or predicates): possible values are 1 and 0 (0 for a gapped verb or an equational clause without a copula).
- ② POSS-ARG possible arguments: possible values are 1, 2, 3 since the only possibilities for verba valence are 1, 2, or 3 arguments.
- ③ ACT-ARG actual arguments, *i.e.* those that are overtly present in the clause: possible values are 0, 1, 2, 3.
- ④ NON-ARG non-argument (referential) NPs and PPs: possible values are 0 on up, since there is no theoretical limit
- ⑤ V-AGR-Ø-ARG verb agreement in the presence of a non-occurring argument: possible values are 1, 2, 3, and possible higher in the case of verbs that can

agree with non-arguments

2.3 Examples for the Korean narrative RD values (2003)

Regarding Korean structure, most of them follow the Noonan's handbook, but some are different from what is translated in the glosses. The following examples are representatively brought up for Korean structural issues. The romanization is the Yale system.

(4) "개가 개구리가 있었던 항아리를 뒤집어 썼네요."

Kay-ka [*kaykwuri-ka iss-ess-te-n*] *hangari-lul twicip-e*
ssess-ney-ya

dog-NM [frog-NM exist-PST-RT-RL] vase-ACC
turn upside down-INF wear-FML-POL

'The dog pulled the vase in which the frog was over his head.'

(FS2)

In (4), *hangari* 'the vase' is the object modified by the relative clause *kaykwuri-ka iss-ess-te-n* 'in which the frog was', and as in c-① in the Noonan's handbook, the relative clause itself is disregarded, therefore, *kaykwuri-ka iss-ess-te-n hangari* 'the vase in which the frog was' all together is just for the object of the clause. This example is just as in the Noonan's handbook, however, the following example should be understood as a structural issue of Korean.

(5) "부엉이에게 쫓김을 당했죠."

pwuengi-eykey ccochkim-ul tangha-i-ess-ci-yo
owl-DAT chasing-ACC undergo-VL-PST-SUPP-POL

'(The boy) was chased by the owl.'

(FS5)

In the translation, this example looks like a passive in English, thus, as in c-① above, the overtly expressed agent 'by the owl' should be disregarded. However, *tangha-ta* 'undergo' in (5) is a causative functioning as a ditransitive (Sohn 1999: 367): *i.e.* it must take three arguments such as i) the person (animate) who suffers (subject), ii) the person (animate) who give the suffering (goal), and iii) the nominalized suffering form (object), respectively. All of these arguments are the necessary slots for the ditransitive structure, thus, (5) has three possible argument slots and is filled by two.

3. Methods

3.1 Subjects

10 native speakers of Korean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three adults between ages 40 and 50, one kid at the age 10, and six college students.

3.2 Material and procedure

The resource of the narratives is the picture book “Frog, where are you?” Either Frog Story or Pear Story narratives are often used for discourse analysis, and for this study the Frog Story is chosen since it is considered to be easier to elicit (Noonan 2003: 2). The picture book, “Frog, where are you?” consists of 29 pages of pictures with no written language.

All participants individually had a meeting once with the researcher for recording their narratives. In each one-to-one meeting, the subject’s description of the pictures is recorded with either a ipod touch or smart phone with a voice recording system. The number of clauses is from 37 up to 74, and this discrepancy may be because of each speaker’s speech style to describe the pictures (e.g., more specific or simpler descriptions). All recorded narratives are transcribed and code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the Noonan’s handbook.

3.3 Results

After some example clauses of the narratives, the RD values of the shortest transcript will be presented in Table 1.

(6) Example clauses

1. “소년이랑 개랑 개구리를 가져서”

<i>sonyen-i-rang</i>	<i>kay-rang</i>	<i>kaykwuri-lul</i>	<i>kaci-e-se</i>
boy-VL-and	dog-and	frog-ACC	have-INF-CAS
‘because the boy and the dog have the frog’			

2. “행복한 것 같아요”

<i>hayngpok-ha-nkes</i>	<i>kat-a-yo</i>
happiness-be-RL	DEF seem-VL-POL
‘(They) seem happy.’	

3. “신기하고”

<i>sinki-ha-ko</i>
amazement-be-CNJ
‘(It is) amazing’

4. "소년이랑 개가 잘 때"

sonyen-i-rang kay-ka ca-l ttay
 boy-VL-and dog-NM sleep-CNI-when
 'when the boy and the dog slept'

...

34. "새끼 개구리는 자기랑 살아야 하니까"

saykki kaykwuri-nun caki-rang sal-a-ya ha-nikka
 baby frog-TOP self-and live-VL-must do-CAS
 'cause the baby frog must live with (him)self'

35. "새끼 개구리는 데리고"

saykki kaykwuri-nun teyri-ko
 baby frog-TOP take-CNJ
 'took the baby frog'

36. "집으로 가요"

cip-uro ka-yo
 house-DR go-POL
 'went home'

<Table 1 - RD scoresheet of the shortest narratives>

Clauses	~Ø-VERBAL	POSS-ARG	ACT-ARG	NON-ARG	V-AGR-Ø-ARG
1.	1	2	2	0	0
2.	1	1	0	0	0
3.	1	1	0	0	0
4.	1	1	1	0	0
5.	1	2	2	0	0
6.	1	2	2	0	0
7.	1	2	1	0	0
8.	1	2	0	1	0
9.	1	2	1	0	0
10.	1	1	1	0	0
11.	1	2	2	0	0
12.	1	1	1	0	0
13.	1	2	1	1	0
14.	1	1	0	1	0
15.	1	2	1	0	0
16.	1	2	1	0	0
17.	1	1	1	0	0
18.	1	2	1	0	0
19.	1	2	1	0	0
20.	1	2	1	0	0
21.	1	2	1	1	0
22.	1	1	0	0	0
23.	1	2	0	0	0
24.	1	2	1	0	0
25.	1	1	0	0	0
26.	1	1	0	0	0
27.	1	1	0	0	0
28.	1	2	1	0	0
29.	1	2	1	0	0
30.	1	2	1	0	0
31.	1	2	2	0	0
32.	1	1	0	0	0
33.	1	2	1	0	0

34.	1	2	1	0	0
35.	1	2	1	0	0
36.	1	2	1	0	0
37.	1	1	1	0	0
Totals:	37	61	32	4	0

Here are the RD1 and RD2 results of the shortest narratives.

(7) The RD values of Korean Frog Story 1

a. **RD1:** ACT-ARG ÷ POSS-ARG = 32 ÷ 61 = 0.52459... → 0.52

b. **RD2:** ACT-ARG ÷ ~Ø-VERBAL = 32 ÷ 37 = 0.864864... → 0.86

What this means is that the RD1 value is the moderate level of its ranking (*i.e.* <0.50=low, 0.50-0.70=moderate, 0.70>=high), and the RD2 number means that “verbs outnumber overt nominal arguments in discourse”, *i.e.* The English RD2 value is over 1.50 ((Noonan 2003a: 3-11).

4. Results

All the results of the ten speakers’ narratives are shown in the following tables. In the data, the value of V-AGR-Ø-ARG (verb agreement in the presence of a non-occurring argument) is always zero because verb agreement can hardly occur in this narrative case (*i.e.* Korean does have verb agreement, but it occurs only the honorifics). Therefore, this study shows RD1 and RD2 only.

<Table 2 – Raw scores of RD1/RD2 and averages>

	FS1	FS2	FS3	FS4	FS5	FS6	FS7	FS8	FS9	FS10	Averages
RD1	0.52	0.57	0.46	0.71	0.6	0.71	0.73	0.70	0.75	0.69	0.64
RD2	0.86	0.94	0.75	1.23	1.06	1.37	1.30	1.33	1.38	1.30	1.15

Among all the Frog Story narratives, regarding RD1, FS3 shows below 0.50 meaning the low level; FS4, FS6, FS7, and FS9 belong to the high level because they are above 0.70; and the remaining five narratives are from 0.50 to 0.70 indicating the moderate level of the RD value. On the contrary to RD1, RD2 shows somewhat regular: only the first three narratives are below 1.00, while the rest of the narratives are all between 1.00 and 1.40 unlike English. The averages of RD1 and RD2 are 0.64 (moderate) and 1.15 (lower than English).

What these results can contribute to the future study is that numerical indications can show how much a so-called pro-drop language is pro-dropped in discourse, compared to other pro-drop languages or to non-drop languages; and as in Bickel’s studies (2003; 2008), it can also suggest the connection between the RD values and some factors (e.g., case sensitiveness) for the covertness of arguments of the language investigated.

Abbreviations

ACC	accusative case particle
CAS	causative suffix
CNJ	conjunctive suffix
CNS	consonant insertion
DAT	dative case particle
DEF	defective noun
DR	directional particle
ENDER	sentence ender
FML	familiar suffix
INF	infinitive suffix
NM	nominative case particle
RL	relative modifier
OBJ	objective marker
POL	polite suffix
RT	retrospective mood suffix
SUB	subject marker
SUPP	suppositive
TOP	topic marker
VL	vowel insertion

References

- Bickel, Balthasar. 2003. Referential density in discourse and syntactic typology. *Language* Vol. 79, No. 4, 708-36.
- Bickel, Balthasar. 2008. How deep are differences in referential density? In Guo et al. (eds.), *Crosslinguistic approaches to the psychology of language: research in the tradition of Dan Isaacs Slobin*.
- Noonan, Michael. 2003a. A crosslinguistic investigation of referential density. Handout of the paper presented at the 5th Bi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Linguistic Typology, Cagliari.
- Noonan, Michael. 2003b. The RD handbook.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 Sohn, Ho-Min. 1999.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teractional Metadiscourse in L1 and L2 Research Articles: Writer Identity and Social Interaction

Juhyun Back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mong many studies on the social contexts of use of academic texts and linguistic choices, special attention has recently been paid on the issues of presentation of writer's identity and communicative engagement between writer and reader in written discourse. In the past several decades, analyses of large corpora of published written texts in English have allowed for new insights into the use of a range of interpersonal metadiscourse markers that express a writer's voice toward both the propositional information and the readers themselves: 'hedges' (Dudley-Evans 1992, Milton and Hyland 1999, Choi & Ko 2005), 'personal pronouns' (Hinkel 1999, Helms-Park, & Stapleton. 2003, Hyland 2002). In academic writing, the use of interpersonal metadiscourse markers may thus contribute to determining a 'writer-reader relationship and anticipating the subjective negatability of statements' (Hyland 1998:443). However, lack of attention to individual variations in discourse practices across different genres and cultures is still problematic. This paper explores in what ways interactional metadiscourse characterize L2 academic discourse by Korean postgraduates and how the Korean L2 writers construct their writer identities through the use of these metadiscourse markers. It thus focuses on answering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what is the distribution of interpersonal metadiscourse markers across four different sections in both L1 and L2 texts? 2) what are the (possible) writer identities that the Korean postgraduate students construct through their use of interactional metadiscourse markers? 3) what are the salient patterns of interactional metadiscourse to develop social interaction between writers and readers in both L1 and L2 texts? and how can these can be explained by their L1 transfer or other developmental factors? Among various ways of categorizing metadiscourse markers, Hyland (2005)'s taxonomy of metadiscourse is adopted and modified as an analytical framework in this study: attitude markers, boosters, self-mention, engagement markers, and hedges. With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the results normalised per 1000 words to are compared across corpora of different sizes, and metadiscousal functions of all the instances are thus identified. The corpus-based study primarily compares the use of a range of metadiscourse markers across four different sections (IMRD) of research articles from both corpora. Noteworthy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rose from the cross-sectional and corpus-based analysis. The Korean student corpus showed overuse of

engagement markers, and attitude markers, and boosters in the four sections, but under-use of personal markers. This may indicate that Korean L2 writers rely on employing these metadiscourse strategies to express an authoritative voice toward the assertion. The qualitative results showed that the Korean students tend to show a more powerful authorial identity and personalize their claims in results and conclusion section by using self-mention markers. These may indicate two possible assumptions: their over-generalization of the directness and explicitness of English academic texts in terms of the degree of certainty and objectivity with which the writers make assertion may have affected their avoidance of self-mentions and their preferences of boosters. However, a higher frequency of self-mentions functioning as expressing in conclusion section than other sections can be explained by cultural transfer from L1 to L2 in developing organizational patterns, which may similarly occurs with inductive way of making an argumentation. This suggests that Korean L2 writers at postgraduate level have not established L2 writer's identity in academic discourse which is still unstable and confusing. The findings thus can contribute to giving some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teaching alternative strategies to raise both culture and genre-specific awareness of linguistic and rhetorical choices in second language writing.

References

- Helms-Park, R., & P. Stapleton. 2003. "Questioning the Importance of Individualized Voice in Undergraduate L2 Argumentative Writing: an Empirical Study with Pedagogical Implications",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12(3), 245-265.
- Hinkel, E. 2002. *Second Language Writers' Text*.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ahwah, NJ.
- Hoey, M. 1991. *Patterns of Lexis in Text*.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Hyland, K. 2002. "Authority and Invisibility: Authorial Identity in Academic Writing". *Journal of Pragmatics*, 34, 1091-1112.
- Choi, Y-H. and M-S. Koh. 2005. Hedging in EFL academic writing of Korean Postgraduates. *English Teaching* 60, 1, 3-27.
- Dudley-Evans, A. 1992. Socialisation into the academic community: Linguistic and stylistic expectations of a PhD thesis as revealed by supervisor comments. *Socio-cultural issues in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Review of ELT* 1(2).
- Hyland, K. 1998. Persuasion and context: The pragmatics of academic metadiscourse. *Journal of Pragmatics* 30, 437-455.
- Milton, J. and K. Hyland. 1999. Assertions in students' academic essays: a comparison of L1 and L2 writers. In R. Berry, B. Asker, K. Hyland and M. Lam (eds.) *Language Analysis, Description and Pedagogy*. Hong Kong: HKUST, 147-161.

Orientational Metaphors in Political Speech

Lim, Su-Jin

(Yeungnam University)

Lim, Su-Jin. Orientational Metaphors in Political Speech. This paper studies conceptual metaphors with reference to 'orientation' in political speech, especially American and Korean presidents' inaugural addresses. Only two kinds of spatial orientation for the metaphors in the presidents' inaugural addresses are found: vertical and horizontal orientation, and there exist 11 types of orientational metaphor in total. Depending on the types, this paper analyzes metaphorical linguistic expressions and figures out the connotation of them. Besides, the rationale behind each type of orientational metaphors is explored. In this way, this study shows how the orientational metaphors are applied to political speech and finds out what their characteristics are, from the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Yeungnam University)

1. Introduction

Conceptualization in connection with spatial orientation is a universal language phenomenon; therefore, it is found that orientational metaphors are used in political speech as we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the orientational metaphors are applied to political speech and find out what their characteristics are, by analyzing connotation of the metaphorical linguistic expressions and the rationale behind each type of orientational metaphors from the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The followings are explored in this paper: Section 2 handles conceptual metaphor including its definition and orientational metaphor as a theoretical background. Section 3 analyzes the metaphorical linguistic expressions employed by American and Korean presidents based on orientational metaphor and figures out the connotation of them. Finally, section 4 presents findings and concludes this study.

2. Conceptual metaphor

2.1 The definition of conceptual metaphor

Conceptual metaphor is not a merely linguistic phenomenon but is rather a part of a cognitive system which affects all human thought and action (Lakoff and Johnson 1980/2003; Lakoff and Turner 1989; Ungerer and Schmid 1996; Kövecses 2002; Barcelona 2000; Lim 2006).

In cognitive linguistics, conceptual metaphor is composed of two conceptual domains; the two domains are termed *target domain* and *source domain*. Thus, the abstract concept of the target domain is understood through the more concrete concept of the source domain by mappings between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source and the target domain (Lakoff and Johnson 1980/2003; Gibbs 1994; Fauconnier 1997; Kövecses 2002; Knowles and Moon 2006).¹⁾

2.2 Orientational metaphor

Orientational metaphor is a way of organizing concepts by spatial orientation, such as up-down, in-out, front-back, on-off, deep-shallow, central-peripheral (Lakoff and Johnson 1980/2003: 14).

- (1) a. Inflation is *up* this year. **MORE IS UP; LESS IS DOWN**
 b. Wake *up*. **CONSCIOUS IS UP; UNCONSCIOUS IS DOWN**
 c. She *fell* in status. **HIGH STATUS IS UP; LOW STATUS IS DOWN**

3. Data and analysis

The data for this study are restricted to the metaphorical linguistic expressions which are used in political speech, especially American and Korean presidents' inaugural addresses.²⁾ Analyzing the data, I could find that there are only two kinds of spatial orientation for the metaphors in them - vertical and horizontal orientation, and the orientational metaphors are classified into 11 types in total.³⁾

3.1 Metaphors of vertical orientation

- **MORE IS UP; LESS IS DOWN**

- (2) a. It has not been the path for the faint-hearted, for those who *prefer leisure over work* or seek only the pleasures of riches and fame. (Obama)
 b.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Dae-Jung Kim)
 'Incomes will drop and corporate bankruptcies will occur.'

- **HAPPY IS UP; SAD IS DOWN**

1) The conceptual mappings are also referred to as 'correspondences' (Kövecses 2002: 6).

2) The data selected for this study are from the eight inaugural addresses delivered by the three latest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respectively: Barak Obama (2009), George W. Bush (2005, 2001), William J. Clinton (1997, 1993), Myung-Bak Lee (2008), Moo-Hyun Rho (2003) and Dae-Jung Kim (1998).

3) Upon the detailed examination of the data, out of a total of 816 figurative expressions, 65 of them were found to include orientational metaphor; I could find the result like this.

- (3) a. And *all of us are diminished when any are hopeless*. (Bush)
 b. 여기서 주저앉을수도 없지 않습니까? (Myung-Bak Lee)
 ‘we can not drop down here, can we?’

• GOOD IS UP; BAD IS DOWN

- (4) a. An idea infused with the conviction that American’s long heroic *journey must go forever upward* (Clinton)
 b.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Myung-Bak Lee)
 ‘Jobs are the highest welfare.’

• HIGH STATUS IS UP; LOW STATUS IS DOWN

- (5) a. Powerful people maneuver for position and worry endlessly about who is in and who is out, *who is up and who is down*, forgetting those people whose toil and sweat sends us here and pays our way. (Clinton)
 b.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 (Myung-Bak Lee)
 ‘... so that more women can be raised to the position of decision-making.’

So far, we have seen the 4 orientational metaphors which occur in common in American and Korean presidents’ inaugural addresses: MORE IS UP; LESS IS DOWN, HAPPY IS UP; SAD IS DOWN, GOOD IS UP; BAD IS DOWN, HIGH STATUS IS UP; LOW STATUS IS DOWN. However, the following orientational metaphor HAVING CONTROL IS UP; BEING SUBJECT TO CONTROL IS DOWN is shown in American presidents’ addresses only.

• HAVING CONTROL IS UP; BEING SUBJECT TO CONTROL IS DOWN

- (6) a. We are bound by *ideals that move us beyond our backgrounds, lift us above our interests* and teach us what it means to be citizen. (Bush)
 b. On this day, we gather because we have chosen *hope over fear, unity of purpose over conflict and discord* (Obama)

The following metaphors are observed in Korean presidents’ addresses only.

• PROGRESSION IS UP; RETROGRESSION IS DOWN

- (7) a. ...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Dae-Jung Kim)
 ‘(This) is a way for our economy to jump up again.’
 b. 6·25의 폐허에서 일어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Dae-Jung Kim)
 ‘The history standing up from the ruins of the Korean war demonstrates it.’

• VIRTUE IS UP; DEPRAVITY IS DOWN

- (8) a. 대한민국의 영광을 다시한번 드높입니다. (Dae-Jung Kim)

- ‘Let’s make the glory of Korea higher once again.’
 b. 정의가 *최고의 가치*로 강조되는 정신혁명 말입니다. (Dae-Jung Kim)
 ‘It is the revolution of spirit in which justice is emphasized as the highest value.’

The metaphors of the vertical orientation which we have seen until now are organized as the following:

<Figure 1> Metaphor of Vertical Orientation

Concept	UP	DOWN
English & Korean	MORE	LESS
	HAPPY	SAD
	GOOD	BAD
	HIGH STATUS	LOW STATUS
English	HAVING CONTROL	BEING SUBJECT TO CONTROL
Korean	PROGRESSION	RETROGRESSION
	VIRTUE	DEPRAVITY

3.2 Metaphors of horizontal orientation

- **PROGRESSION/ADVANCE IS FORWARD; RETROGRESSION/RETREAT IS BACK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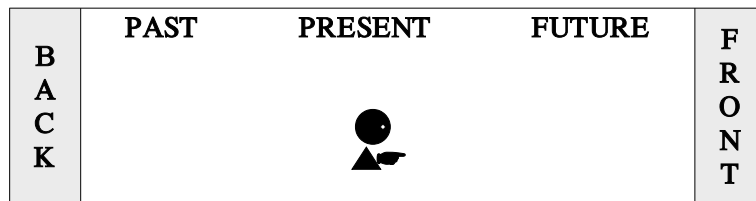
- (9) a. We have known divisions, which must be healed *to move forward* in great purposes - and I will strive in good faith to heal them. (Bush)
 b.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Moo-Hyun Rho)
 ‘Let’s go forward to the society where people trying fair and square succeed.’

- **FUTURE IS FORWARD (FRONT); PAST IS BACKWARD (BACK)**

- (10) a. My fellow Americans, as we *look back at* this remarkable century, we may ask, can we hope not just to follow, but even to surpass the achievements of the 20th century in America...? (Clinton)
 b.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 냉철하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Dae-Jung Kim)
 ‘we should look back at why we become like this.’

<Figure 2> Understanding Time Based on

FUTURE IS FORWARD(FRONT); PAST IS BACKWARD(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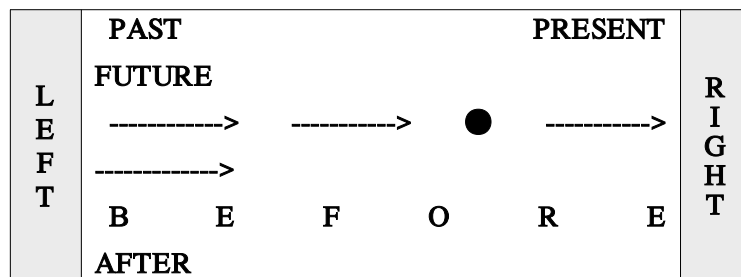
The following metaphors are also orientational metaphors related with time, but they are shown in American presidents' inaugural addresses only.

• **FUTURE IS AFTER; PAST IS BEFORE**

- (11) Americans move forward in every generation by reaffirming *all that is good and true that came before* - ideals of justice and conduct that are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Bush)

<Figure 3> Understanding Time Based on

FUTURE IS AFTER; PAST IS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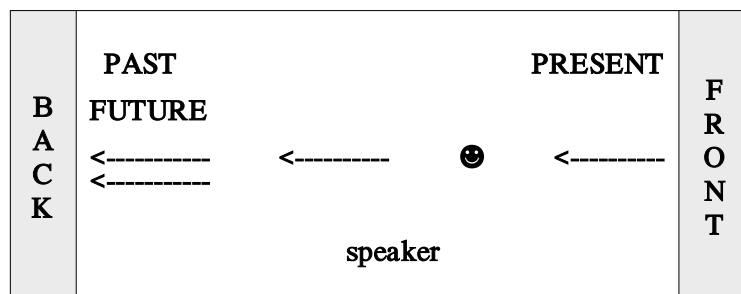


• **FUTURE IS APPROACHING; PAST IS PASSING**

- (12) *Posterity is the world to come* - the world for whom we hold our ideals, from whom we have borrowed our planet, and to whom we bear sacred responsibility. (Clinton)

<Figure 4> Understanding Time Based on

FUTURE IS APPROACHING; PAST IS PASSING



4. Findings and conclusion

So far, I have examined orientational metaphors used in presidents' inaugural addresses and their rationale. Only two types of orientational metaphor are found in presidents' addresses: vertical orientation (up-down) and horizontal orientation (front-back, right-left, approaching-passing). Analyzing the data, I can find an external systematicity among various orientational metaphors, which Lakoff and Johnson argued (1980/2003: 17-18)⁴; an UP orientation is accord with general well-being, and this orientation is coherent with HAPPY IS UP, GOOD IS UP, MORE IS UP, HIGH STATUS IS UP etc.⁵ In addition, especially in vertical orientation, I could derive the cognitive stages of these orientational metaphors based on the data used in presidents' inaugural addresses.

<Figure 6> The cognitive stage of up-down metaphor

1st stage	- MORE IS UP; LESS IS DOWN [preceding metaphor]
2nd stage	- HAPPY IS UP; SAD IS DOWN (emotion) - GOOD IS UP; BAD IS DOWN (reason)
3rd stage	- CONTROL IS UP; BEING CONTROLLED IS DOWN/ HIGH STATUS IS UP; LOW STATUS IS DOWN (power) - PROGRESSION IS UP; RETROGRESSION IS DOWN (degree of development) - VIRTUE IS UP; DEPRAVITY IS DOWN (morality)

4) Among metaphorical concepts, there are an internal and external systematicity. The internal systematicity defines a coherent system in each spatialization metaphor as illustrated below.

- (i) HAPPY IS UP
 - a. I'm feeling *up*
 - b. That *boosted* my spirits.
 - c. You're in *high* spirit.

However, the external systematicity defines a coherent system among the different spatialization metaphors as in (ii).

- (ii) GOOD IS UP
 - a. HEALTH IS UP
 - b. ALIVE IS UP
 - c. HAPPY IS UP

5) Kovecses(2002: 36) argues that it would perhaps be more appropriate to call this type of conceptual metaphor "coherent metaphor", which would be more in line with the cognitive function these metaphors perform.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find the cognitive stages among horizontal metaphors. Unlike vertical orientation metaphor, the same target concepts are conceptualized differently in horizontal orientation metaphor depending on the view points (i.e. the target concept FUTURE is conceptualized as FORWARD, RIGHT or APPROACHING). In vertical orientation, English has a tendency to show a high proportion of GOOD IS UP; BAD IS DOWN metaphor while Korean shows a high proportion of MORE IS UP; LESS IS DOWN metaphor. In horizontal metaphor, both English and Korean show PROGRESSION/ADVANCE IS FORWARD; RETROGRESSION/RETREAT IS BACKWARD a lot, and in English, orientational metaphors related with a concept of 'time' are more variously observed. Nevertheless, presidents who speak even different language share almost the same orientational metaphors in the presidents' addresses. The reason seems that despite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e, presidents share the same basic physical and cultural experiences and conceptualize the target domains in a similar way based on their experience.

References

- Barcelona, A. 2000. *Metaphor and Metonymy at the Crossroads: A Cognitive Perspective*,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 Clark, H. H. and E. V. Clark. 1997. *Language and Thought, Psychology and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Jovanovich.
- Evans, V. 2004. *The Structure of Time: Language, Meaning and Temporal Cogni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Fauconnier, G. 1997. *Mappings and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bbs, R. W. 1994.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m, S. 2003. "Metaphor of Motion in English and Korean", *Studies in Modern Grammar* 33, 131-147.
- Knowles, M. and R. Moon. 2006. *Introducing Metaphor*, London: Routledge.
- Kövecses, Z. 2002/2010.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koff, G. and M. Johnson. 1980/2003. *Metaphor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and M. Turner. 1989.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m, J.-R. 2006. "On Conceptual Metaphor", *Korean Semantics* 20, 29-60.
- Lim, S.-J. 2013. *Conceptual Metaphors in Political Speech: With Focus on Presidents' Inaugural Addresses*, Ph.D.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Sarkar, B. 2010. *Orientational metaphor in media: A cognitive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Taylor, J. R. 1989.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 Tse, C. and J. Altarriba. 2012. "Recognizing the directionality of an arrow affects subsequent judgements of a temporal statement: The role of directionality in spatial metaphors", *The Psychological Record* 62, 497-506.
- Ungerer, F. and H. Schmid. 199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지중해연안의 링구아프랑카의 접촉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고찰

최 은 순

(한국해양대학교)

서론

19세기 근대 국민국가형성 이후 단일언어주의 이데올로기가 오랫동안 국가통일을 위한 정치 원리로 작용해왔다. 정치적 국경은 언어적 국경이라는 인식이 일반사람들에게도 은연중에 편견으로 자리잡았다. 학문적으로는 언어학이 언어와 방언을 구분하면서 언어의 순수주의와 정체성을 결부시켰고, 방언을 귀족이 아닌 서민층, 도시가 아닌 시골, 문명이 아닌 야만의 언어로 정의하는 반면, 언어langue는 국가를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계적 언어관에서 사람들은 흔히 바벨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다언어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에드워드 글리상의 '보편다양성diversite' 혹은 '투몽드tout-monde' 개념처럼, 보편성 속에 다양성의 공존, 메티사주 속에 차이의 공존이라는 문화현상은 오늘날만의 특수한 현상인가? 19세기 국가주의 개념이 확립되기 이전에 국경을 넘어 공동의 문화, 공동의 언어를 지향한 시대는 없었는가? 우리는 그 역사적 흔적을 19세기 이전에 지중해연안에서 발달한 링구아프랑카Lingua Franca에서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세 말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중해의 혼종어가 의사소통의 목적을 위해 출현하여 시대별로 교역주체들이 변하면서 언어적 혼성의 특징도 다르게 진화하였고, 또 동일한 이유로 결국 소멸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윌러스틴이 말하는 문명의 충돌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중해 문명의 이질성과 동시에 동질성을 만든 문화교류의 모델로서 링구아프랑카를 예시함으로써 오늘날 다양하고 역동적인 문화교섭 현상을 이해하는 한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1. 링구아 프랑카의 정의와 문제제기

링구아 프랑카가 지중해연안에 위치한 해항도시들이 공유했던 언어였고, 한 특정 언어에서 유래하지 않고 여러 다른 언어들의 혼성어였다는 점에서 이 혼종어를 가리키는 어휘는 다양하다. 이탈리아어로 *Lingua Franca*는 프랑스어로는 *langue franque* 혹은 *le franco*로 사용되며, 19세기부터 *sabir*가 앞선 *Lingua Franca*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학술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프랑스어 사전에서는 링구아프랑카나 프랑크어라는 어휘항목보다는 사비르어의 어휘항목에서 지중해의 혼종어에 대한 정의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사비르어의 정의가 프랑크어라는 표현으로 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은 두 용어의 동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사비르어의 항목에서 프랑크어의 일차적 의미를 살펴보자.

프랑스어 사전에 나타난 사비르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언어적 혼합의 정도와 관련하여서 사비르어는 크게 로만어들과 아랍어를 혼합한 자곤jargon에 해당한다. 로만어들의 혼합어로만 정의하는 Littré 사전을 제외하면, 주로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의 혼합으로 정의된다.

둘째, 사비르어의 사용 지역은 주로 레반트와 북아프리카 특히 알제리 지역이다. 각각 동지중해와 서지중해에 해당한다.

셋째, 사용자와 관련하여서, 사비르어는 북아프리카의 토착민들이 유럽인들과 대화하고자 할 때 사용한 언어(어원사전) 아니면 프랑크인들이 사용한 언어였다(Littré, Grand Larousse).

넷째, 사비르어는 지중해연안의 유럽인들간 혹은 아랍인과 유럽인 사이에 사용된 매개어의 기능을 갖는다.

2. 근대 초기 지중해연안의 사회언어학적 상황

링구아 프랑카는 흔히 15세기 혹은 16세기부터 1830년 프랑스의 알제리 정복시기까지 지중해연안에서 사용되었던 교류언어로 이해된다 이때 16세기라는 시기는 언어사용자들이 링구아프랑카를 공통어로 인지하기 시작했던 시기(Aslanov)이며 또 활발하게 이 언어가 발달하던 전성기(16-17세기)를 의미한다. 링구아프랑카가 출현하게 되는 시기는 지중해연안에서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가 처음으로 충돌하게 되는 십자군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십자군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독교도들의 이동은 다양한 출신의 유럽인을 의미하며 따라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유럽인들이 동지중해의 레반트지역에서 전쟁과 체류, 교역을 통해서 장시간 머물게 되면서 의사소통의 필요가 생겼다. 십자군 병사들은 우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간의 소통 방법을 찾아야 했고, 이어 그들이 무역하기 시작한 아랍인들과의 소통도 필요하였다(Martinez Diaz(224).

서지중해연안은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오스만제국간의 활발한 해상교역(물품은 물론 해적활동과 노예매매)을 통하여 링구아프랑카가 진화할 수 있는 다언어사용상황의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동서지중해를 망라하여 이탈리아상인의 해상무역의 주도권은 이탈리아어의 영향력과 비례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16세기초부터 니스, 알제, 살레(오늘날의 모로코)에서 스페인어가 우세한 언어로 등장하고 링구아프랑카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다. 더욱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포로로 있던 터키인이나 기독교 영토에서 있었던 개종자와 유대인들은 이 링구아프랑카를 배울 수 있었다(Martinez Diaz(225). 당시 링구아프랑카가 가장 번성한 해항도시인 알제Alger와 튀니스Tunis의 사회언어학적 상황을 살펴보자.

Bannouar에 의하면, 알제 전성기인 16-18세기에 알제에는 주민수가 80만명에 달했고 이중 25000-35000명의 포로들과 외지에서 온 수천명의 배교자, 무역상, 중개상들을 합하면 알제주민의 절반 이상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이었다. 알제는 모든 거래에서 터키인, 무어인, 기독교도들간의 모든 관계에서 링구아프랑카를 사용하였다.(시블로) 다른 한편 튀니스는 북아프리카에서 접촉과 교류의 결절점 역할을 하였다. 광장, 거리, 카페가 무역 동향과 출항소식을 듣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무역상들의 거점이었고, 주로 리보르

노인, 코르시카인, 제노바인, 프랑스인, 플랑드르인, 영국인, 유대인, 베네치아인, 터키인, 무어인 등 다양한 지역의 상인들이 체류하였다.

이와 같이, 언어적으로는 이중언어사용자 혹은 이 두 언어의 혼종형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세계로 들어오면서 복잡한 언어상황을 만들게 된다.

19세기 오스만제국의 해상력이 쇠퇴하고 1825년에 마그레브에서 터키에 저항하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는 틈을 이용해 1830년 프랑스가 알제를 정복하였다. 당시 알제리의 사회언어학적 상황은 아랍어, 베르베르어, 링구아프랑카, 터키어가 사용되고 있었다(Approche historique MAhafoud Mahtout et al.) 이후 프랑스어는 알제리 식민지의 공식어가 된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어는 군대와 행정기관의 업무어나 식민자와 토착민 간의 소통언어가 되었다. 토착민들은 학교교육으로서 프랑스어를 배워야 했다. 따라서 이전에 행정과 군대에 의해서만 사용되었던 터키어는 프랑스어로 대체되었고, 아랍어와 베르베르어는 식민지 이후 점점 가정에서 사용하는 토착어가 된다(Approche historique MAhafoud Mahtout et al.) 링구아프랑카는 빠른 속도로 정복이후 사라진다.

19세기부터 알제리의 식민화로 인해 그때까지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에 기반한 링구아프랑카가 프랑스어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달리 말하면 이 링구아프랑카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쇠퇴하고 결국 소멸하게 되는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다. 이전의 언어적 생태환경에 또다른 변화가 일어난다. Martinez의 표현으로는 프랑스어 피진어 혹은 프랑스어의 변이형이라는 형태라 출현한다. 학술적 용어로는 19세기 이전 링구아프랑카와 동일한 의미에서 사비르어라 아닌 유사사비르어 혹은 근대사비르어라 불리는 혼종형태가 출현한 것이다. 정복자의 언어인 프랑스어를 현지 화자들이 배우고 소통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상황은 지배와 피지배의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두 계층간의 교류는 상호적이지 않고 일방적인 관계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아랍어나 베르베르어를 말하는 토착민들은 프랑스어를 배울 때 아랍어 단어를 섞어 사용하는 중간언어를 말하게 된다. 바로 이 불안정한 언어가 유사사비르어인 것이다.(시블로)

3. 언어적 특징으로서 혼종성

지중해 연안에서 사용된 링구아프랑카는 언어적으로 보면 혼합어 혹은 사비르어(초보적 단계의 피진어라는 의미)로 정의된다. 이때 혼합어라는 의미는 간단한 의미가 아니다. 공통어의 사용은 결국 자아와 타자의 언어가 아닌 공동의 언어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에서 기인한다고 보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에 빠르고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한 언어의 형태를 찾게 된다. 링구아프랑카의 언어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차원, 즉 언어의 단순화simplification 현상과 언어의 차용emprunt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1장에서 제시된 사전적 정의에서 보면 주로 jargon mele, parler composite라는 표현으로 언어의 형태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자곤은 원래 은어라는 의미를 내포하듯이, 한정된 그룹이나 사회공동체에서 사용되는 공동어이다. 자곤은 기초적인 수준의 피진어 혹은 단순한 섞임으로 이해되는 바라구앵, 샤라비아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된다. 장 뒤부아 정의도 사비르어가 제 2언어지만 피진어보다 훨씬 더 제한된 소통 필요를 충족시키면, 따라서 더 빈약한 통사와 어휘를 가진 말이다. 형태면에서 링구아프랑카는 매개어의 특징을

설명해준다. 칼베(1993, 455)는 매개어의 사회적 기능이 형태의 단순화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칼베에 따르면, 단순화된 문법형태가 주로 매개어가 된다.

두 번째 어떤 언어들간의 혼성인가, 즉 언어들간 차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링구아 프랑카라는 명칭이 이탈리아어에서, 사비르어라는 명칭이 스페인어에서 유래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포르투갈어의 기여를 인정하더라도,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가 기반언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면 조슬린에 의하면,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비율로 기여하지만 19세기까지도 아랍어와 터키어의 기여는 미미하다. 어휘차원에서는 아랍어 어원의 어휘는 최대 15%에 불과하다. 링구아프랑카는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로방살어의 혼합어이며, 몰타어, 터키어, 아랍어의 기여는 미미하다. 그리스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가령 <프랑크어사전>에서는 한 페이지 반 정도만 아랍기원의 단어와 어구를 찾아볼 수 있다.

3. 언어적 기능으로서 매개성

앞장에서 보았듯이, 링구아프랑카는 다언어사용상황에서 지중해연안에서 만나게 된 다른 언어들 사용하는 사람들간의 소통언어였다. 언어학적 용어로는 링구아프랑카는 매개어에 해당한다. 링구아프랑카의 매개성은 링구아의 출현, 진화, 소멸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칼베는 매개어가 가능한 상황은 화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소통수단이 필요할 때이다. 그렇다면 어떤 언어가 매개어가 되는가? 장 뒤부아(504)는 상호소통에서 보다 우세하게 사용되는 언어가 매개어langue vehiculaire 혹은 초지역어langue supralocale가 된다고 정의한다. 칼베는 우세한 언어가 다언어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들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들 언어 중 어느 것도 아닌 삼자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도 아니라면 기존언어들을 혼합하는 혼종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1993, 451). 이 두 정의에 의거해볼 때, 링구아 프랑카는 당시 사용되던 로망스어와 비로망스어들 중에서 우세한 언어인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를 기반언어로 하여 만들어진 혼종어가 매개어 역할을 하게 된 경우이다.

칼베가 제시하는 매개어가 되는 언어외적 조건(지리, 경제, 도시, 권위, 역사, 언어, 종교, 권위)을 통하여 링구아프랑카의 매개성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링구아 프랑카의 경우, 해항도시의 지리적 입지는 상업적 교류라는 경제적 필요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바닷길은 해상교통로의 역할을 하였다. 바닷길은 항구로 귀착하고 이 항구들을 중심으로 상업축이 형성되었다. 즉 해항도시들은 이미 타문화(기독교도는 이슬람문화에, 이슬람교도는 기독교문화)을 경험한 경계인들이 이주하여 정착하거나 교역을 위해 접촉하는 공간이었다. 이런 해항도시의 공간은 인구의 브라사주를 가능하게 만들고 경제적 유인의 장소가 되었다. 항구는 언어의 확산의 결절점이 되었다. 도시는 매개어의 지위를 강화하고 또다른 매개형태를 출현가능케 한다.

첫째, 경제적 요인의 변화이다. 매개어가 의사소통의 필요에서 사용되는 언어라는 점에서 정체성개념이 없는 도구적 수단이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상업적 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링구아프랑카는 바로 이 상업적 이유가 사라지면 소멸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링구아프랑카의 소멸시기는 19세기 프랑스의 알제리 점령 이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고려할 수 있다. 상업교류에서 특히 노예무역의 중단으로 설명가능하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후 유럽에서 자유주의사상이 확산되고, 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노예제도를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해졌기 때문에 노예무역의 중단을 초래하였다(2013: 165,166).

둘째, 정치적 요인의 변화이다. 링구아프랑카는 말레이어처럼 국가어로 승격되는 언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당시의 상업적 매개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던 말레이어가 공식어로 삼았다. 반대로 링구아 프랑카는 이와는 다른 상황이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링구아프랑카는 인도네시아의 말레이어처럼 하나의 국가단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매개어가 아니었다. 서로 다른 문명과 국가들을 초월하여 사용되었고, 하나의 정치단위의 형성은 없었기 때문에 언어정책에 의해 단일화되거나 표준화될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말레이어가 항구의 매개어에서 국가 전체의 국가어의 지위로 발전한 반면, 링구아프랑카가 19세기 이후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때부터 화자들의 언어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정치사회적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셋째, 언어의 지위와 화자들의 언어에 대한 태도와 관련있다. 알제리에는 이미 프랑스의 정복 이전에 아랍어, 터키어, 프랑크어, 프랑스어가 사용되고 있는 다언어사용상황이었다. 여기에서 아랍어와 베르베르어가 프랑스어에 저항하는 언어는 토착어였다(언어와 식민주의 95). 반면 터키어와 링구아프랑카는 앞서 말했듯이, 각각 알제리에서 오스만제국에 충성하는 지배계층의 일부언어와 상업적 매개어라는 점에서 지배자가 사용을 강요하는 지배언어에 저항할 피정복민들의 언어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특정 민족집단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언어는 아니었다.

링구아프랑카는 구어체 매개어였다는 점에서 문어로 표준화되거나 문학어가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링구아프랑카는 16-17세기 언어의 순수주의 논리와 반대되는 잡종어라는 경멸의 대상이었다. 사비르어라고 불리듯이, 언어적 지위가 낮은 언어였다.

넷째, 링구아프랑카가 알제리프랑스어의 한 변이형으로 발전하였는가? 새로운 변이형으로 재탄생하였는가의 문제이다. 여전히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링구아 프랑카는 프랑스 식민정복이후 유사사비르어로 발전하여 피에누아르어라는 변이형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쌍방적인 언어였던 링구아프랑카는 사라지고 일방향적인 언어로서 유사사비르어가 생겨났다. 알제리 토착민(주로 식민지배자와 협력하는 일부 토착세력, 군인, 매춘부)이 프랑스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일방향적 언어에 해당한다. 즉 이들은 지배자의 언어인 프랑스어를 흉내내어 말하려고 하고, 그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며, 프랑스어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더 이상 링구아프랑카 혹은 사비르어라고 말할 수 없으며, 페레고는 이를 유사사비르어 혹은 근대사비르어라고 구분하여 사용한다.

4. 메티사주와 차이의 공존 : 경계어

근대 국가 이전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쪽의 언어가 아닌 공동의 언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링구아프랑카는 탈경계의 언어이자 교섭어(langue d'interaction)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링구아프랑카의 문화접촉의 성격은 무엇이었을까? 조슬린은 문화연구의 용어를 빌어 문화전이 혹은 문화교섭(interaction culturelle(문화차용의 의미))으로 당시의 접촉을 설명하고자 한다.

브로델에 따르면, 문명간 접촉 혹은 문화전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브로델은 이를 짐가방이라는 비유로 설명한다. 출신 문화는 경계가 분명한 고정된 문화라면 이 고정된 양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만이 짐가방을 들고 접촉하고 브라사주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링구아프랑카가 주로 연안지역 특히 항구에서 발달하였다는 점에서 접촉공간 및 브라사주의 공간의 제한된 장소와 관련이 된다. 바커의 접촉지대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접촉공간 이외의 다른 공간들은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공간임을 전제한다. 즉 두 문화 공간의 경계는 영속적으로 유지되는 동시에, 이 경계의 중간지대 혹은 접촉지대에서만 문화의 역동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링구아 프랑카는 상대적 의미로 순수한 사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즉, 순수한 사회라는 핵과 분리된 브라사주와 융합의 장소가 항구가 되며, 여기서 사용되는 링구아프랑카는 접촉지대, 중간지대, 탈중심적 공간의 소통언어로 사용되었다. 링구아프랑카를 사용하는 화자들은 역사적으로는 세파라드유대인, 무어인, 양쪽 사회의 포로와 노예, 개종자들이었다. 즉 링구아프랑카의 화자들은 두 세계의 경계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경계없이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고 극단적으로는 그가 누구인지를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조슬린)

링구아 프랑카는 조슬린 마카리아가 말하듯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지만 이 생성은 강제라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보다는 상호적 성격의 중립지대를 만든 경우이다. 물론 링구아프랑카의 성격이 로망스어들을 기반으로 하고 이슬람언어들이 추가되는 구조였음을 보면 분명 헤게모니의 작용이 기저에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크레올어의 생성은 불평등한 관계, 식민지 관계하에서 저항의 한 형태로 억압에 대한 반응으로서 만들어진 언어로 이해 할 수 있다. 반면 링구아 프랑카는 크레올어 같이 메티사주의 방식이 아닌 보다 동등한 힘의 쌍방적 관계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론을 대신하여

십자군전쟁은 문명충돌의 역사적 사건이지만 언어적 관점에서 보면 공통의 소통방식을 만들어낸 탈경계적 교섭의 역사였다. 조슬린의 관점에서 링구아프랑카는 정치적 영토적 공간이 없는 언어다. 따라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정체성에 구애받지 않는다. 링구아프랑카는 경계와 경계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지대에 위치한다. 이는 지중해 연안에서 공통의 언어를 통하여 기독교문명이 이슬람문명을 만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중간지대는 갈등 보다는 만남 교환, 협력, 수렴을 보장하는 공간이며, 언제든지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출발선이기도 하다. Paul siblot가 말하는

“영토적, 제도적, 사회적 정착이 없는 디아시스템”으로 링구아프랑카를 이해한다면 접촉하는 사람들은 언어경계를 넘어 월경하지만 언제나 타자와의 분리선을 알고 있다.

언어적으로는 완전한 융합어가 아닌 언어들간의 간섭과 단순한 섞임으로 이해되는 링구아프랑카는 19세기 이전까지는 적어도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탈영토화된 언어로 유지되었으며,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지 정복 이후 근대국가 개념이 식민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었을 때 더 이상 공존의 미학이 아닌 수직적 힘의 관계 속에서 프랑스어의 변이형이라는 모습으로 새로운 진화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다.

영어 명령에 대한 완곡어법의 정도성

박 인 진

(부산외국어대학교)

Park, Injin (2014), Euphemistic Gradualness of Command in English. Linguists have to grammatically study diversity of euphemistic command in English reflecting nonlinguistic information, because the aim of linguistics is to understand human mind. Semantic and syntactic differences of various command-expressions are, then, used for representing not only euphemistic degrees but also the same message and usage. Euphemism is a generally innocuous word or expression used in place of one that may be found offensive or suggest something unpleasant. That is, it's aim is to alleviate hearers' offensive and unpleasant feelings of something, and it's way, to express those indirectly. Thus, degrees of euphemism from speakers' attitudes can not but be expressed in differences of indirect expressions. Syntactic differences show that euphemistic degrees are gradually lowered in accordance with indirect expressions of the same message: questions > statements > directives. And speakers' attitudes also produce the euphemistic degrees of tense and mood: past > future > present, and subjunctive > indicative > imperative, respectively.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command, euphemistic degrees, message, usage, in-directiveness, attitude

1. 서론

언어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심성에 대한 이해이므로 언어연구의 과정은 언어수행의 기술(description)이지만 언어연구의 결과는 언어능력의 규명이다. 언어능력은 화용론적 능력과 문법적 능력으로 나뉜다. 화용론적 능력은 언어를 사용하고 해석할 때 필요한 비언어학적 정보의 활용에 대한 지식이다. 반면에 문법적 능력은 해당언어를 구성하는 구조에 대한 지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학적 정보가 반영된 완곡어법(euphemism)의 차이를 문법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2. 완곡어법의 연구과제

명령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표현의 의미와 구조는 아주 다양할 뿐만 아니라 완곡어법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 (1) a. Open the window.
b. I want you to open the window.
c. Can you open the window?
d. Would you open the window?
e. Could you open the window?

따라서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 (2) 첫째, 상이한 표현들인데도 왜 완곡어법에서는 등급(grade)이 달라지는가?
둘째, 상이한 문장의미들이 왜 동일한 명령의 전언(message)으로 사용되는가?
셋째, 상이한 문장구조들이 왜 동일한 명령의 용법(usage)으로 사용되는가?

이제 이러한 명령표현에 대한 완곡어법의 가변성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3. 완곡어법의 가변성

3.1. 상황적 가변성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언어는 용법, 의미, 그리고 구조가 상호 일정한 규칙 또는 원리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어의 용법, 의미, 구조가 서로 조화롭지 못하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완곡어법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 (3) a. The substitution of a non-committal, more pleasant or vague expression for one with unpleasant connotations or less prestige (Hartmann and Stork 1972:79).
b. A euphemism is a generally innocuous word or expression used in place of one that may be found offensive or suggest something unpleasant (<http://en.wikipedia.org/wiki/Euphemism>).

따라서 완곡어법의 목적은 청자가 느끼게 될 공격성이나 불쾌감의 완화이고, 완곡어법의 방법은 간접적 언어표현이다. 그렇다면 언어사용자간의 심리상태를 고려해야 하는데 먼저 욕구는 행위의 유발자이고, 가치는 행위의 안내자이고, 믿음은 행위의 진실성 또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자이며 그리고 태도는 행위의 선호성에 대한 결정권자이다(Klopf and Park 1994:11-25).

그리고 문체형성의 요소와 그 정도성의 차이는 다음처럼 설명될 수 있다(Blundell, Higgins and Middlemiss 1982:vii).

(4) 문체형성과 그 요소

SETTING	pub	bus stop; shop	boardroom; ceremonial reception
	+	+	+
TOPIC	the latest football match; a TV comedy programme	weather; travel	important business deal
	+	+	+
SOCIAL RELATIONSHIP	friend; child; close colleague	stranger in street; taxi-driver; customs officer	senior colleague
	+	+	+
PSYCHOLOGICAL ATTITUDE	relaxed; light-hearted	no strong feelings either way	very serious
	↓	↓	↓
	INFORMAL LANGUAGE	NEUTRAL LANGUAGE	FORMAL LANGUAGE

3.2. 의미적 가변성

의미의 독립적 연구는 Chomsky(1965:16)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Colorless green ideas sleep furiously.

이처럼 통사론적으로 문법적이더라도 의미적 문법성은 언어가 사용되는 실제 사실에 부합되는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Frege가 단어의 지시의(reference)와 언어의(sense)를 구분하였듯이(김진우 1985:212) 언어의 문법적 의미는 사용된 화용적 의미, 즉 언어사용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인 전언(message)과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제로 (1)의 전언은 모두 '(YOU) OPEN THE WINDOW.'인 명령이므로 화자는 특정 행위를 이행할 의지와 권한을 청자에게 위임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전달을 하게 된다.

(6) 의미에 따른 완곡어법의 정도
간접적 사용의미 > 직접적 표현의미

3.3. 구조적 가변성

모든 연구의 시작인 언어범주의 변별적 차이는 구성성분의 결합방식인 구조로 설명된다. 따라서 (1)에 대한 완곡어법의 정도는 다음처럼 정리된다.

(7) 구조에 따른 완곡어법의 정도
의문문 > 진술문 > 명령문

또 다른 차이는 시제(tense)인데 (1a, b, c)는 현재이고, (1d, e)는 과거이므로 다음과 같은 정도의 순으로 정리된다.

- (8) 시제에 따른 완곡어법의 정도
과거 > 현재

그런데 (1)은 다음의 상황을 전제한다.

- (9) A window is closed in the room where an addressor and addressees stay together.

또한 창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추의(implicature)가 가능하다.

- (10) a. It's a fug, a real fug, in this room.
b. This room is stuffy because of bad ventilation.

그런데 (1b)는 (1a)의 명령과 달리 청자가 창문을 열어주기 바라는 화자의 진술이다. 반면에 (1c)는 창문을 여는 동작에 대한 허락을 요청하는 것이다. “can”을 “You can go there.” 처럼 허락의 의미로 보면 (1)의 전언은 (11)의 문장이 되고, 화자가 먼저 허락을 요청하려면 청자의 의사를 물어보는 (1c)처럼 의문문의 구조를 택할 수밖에 없다.

- (11) You can open the window.

그렇다면 (1d, e)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들을 (1c)와 비교하면 시제의 차이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실마리를 가정법에서 찾아보자. 단지 (1c)는 현재 시점에서의 의문문이고 (1d, e)는 다음과 같은 가정법의 주절을 의문문으로 표현한 것이다.

- (12) a. If it was stuffy/a fug in this room, you would open the window.
b. If it was stuffy/a fug in this room, you could open the window.

그런데 가정법이 실제 사실보다 한 시제 앞서기 때문에 (12a)를 가정법 현재로 바꾸면 (13)이 된다.

- (13) (If it's stuffy/a fug in the room,) you will open the window.

(1d, e)처럼 (13)의 주절을 의문문으로 바꾼다면 “Will you open the door?”가 된다.

그러나 (10)의 조건을 “In case that...”과 “on condition that...”으로 구별한다면 가정법과는 다른 단순조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in case (of/that...)”은 일어날지도 혹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의 조건을 명시하지만 “on condition that...”은 동의해야 할 조건을 명시하거나 규정하기 때문이다(Leech and Svartvik 1975:96). 이처럼 (10)의 조건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단순 미래를 사용한 “Will you open the window?”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시제에 따른 완곡어법의 정도는 다음처럼 수정되어야 한다.

- (14) 시제에 따른 완곡어법의 정도
과거 > 미래 > 현재

그런데 미래와 과거시제에 따른 완곡어법의 정도차이는 (12)와 (13)에서 보듯이 가정법에 의한 것이므로 서법에 따른 완곡어법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 (15) 서법에 따른 완곡어법의 정도
가정법 > 직설법 > 명령법

Jespersen(1924:313)은 '문장의 내용에 대해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형태'를 서법으로 본다. 그렇다면 (14)는 단순한 시제가 아니라 화자의 심리적 태도, 즉 수령자에 대한 명령자의 심리적 태도를 반영하는 표현이다. 또한 명령법은 2인칭에게 어떤 행위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직설법은 어떤 사실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지만 가정법은 어떤 가상의 상황에서 어떤 사실을 서술하기 때문에 명령법과 직설법보다 간접적 표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완곡어법의 정의에서처럼 간접적 표현인 가정법이 청자에게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감소시키는 언어의 용법이 될 수 있다.

4. 결론

언어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심성에 대한 이해이므로 언어학자는 비언어학적 정보가 반영된 완곡한 표현들의 다양성을 문법적으로 규명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명령표현의 의미와 구조의 차이는 완곡어법의 정도를 나타내면서도 전언과 용법이 동일한 현상을 살펴보았다. 완곡어법은 청자에게 공격성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다시 말하면 완곡어법의 목적은 청자가 느끼게 될 공격성이나 불쾌감의 완화이고, 완곡어법의 방법은 간접적 언어표현이다. 따라서 화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완곡어법의 정도는 간접적 언어표현의 구조적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구조의 변별적 차이는 화자가 청자에게 보내는 전언의 간접성에 따라 '의문문 > 진술문 > 명령문'의 순서로 완곡어법의 정도가 낮아진다. 그리고 화자의 심리적 태도에 따라 서법이 달라지는데 특히 가정법은 명령이 성립되는 현재사실보다 한 시제 앞서는 간접적 표현이기 때문에 시제는 '과거 > 미래 > 현재'의 순서로, 그리고 서법은 '가정법 > 직설법 > 명령법'의 순서로 완곡어법의 정도가 낮아진다.

주제어: 명령, 완곡어법의 정도, 전언, 용법, 간접성, 태도

참고문헌

- 김진우. 1985. 「언어: 그 이론과 응용」. 서울: 탐출판사.
 조성식 (편). 1990. 「영어학사전」. 서울: 신아사.
 Alston, William P. 1964. *Philosophy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Ayto, John. 2000. *Dictionary of Euphemisms*, Revised edition. London: Bloomsbury.
 Blundell, Jon, Jonathan Higgins and Nigel Middlemiss. 1982. *Function of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arnap, R. 1948. *Introduction to Semantics*.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_____. 1956. *Meaning and Necessity*, 2nd ed. Chicago,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omsky, Noam. 1957. *Syntactic Structure*. The Hague: Mouton & Co.

- _____. 1965. *Aspects of Syntactic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1972.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77. *Essays on Form and Interpretation*. New York: North-Holland.
- Hartmann, R. R. K. and F. C. Stork. 1972.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London: Applied Science Publishers Ltd.
- Jespersen, Ott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Klopf, Donald W. and Myung-Seok. 1994. *Communicating with Americans*.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Leech, Geoffrey and Jan Svartvik. 1975.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Harlow, Essex: Longman.
- Morris, C. 1964. *Signification and Significance: A Study of the Relations of Signs and Values*.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O'grady, W. and M. Dobrovolsky. 1996. *Contemporary Linguistic Analysis: An Introduction*, third edition. Toronto: Copp Clark Ltd.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adford, Andrew. 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ttp://en.wikipedia.org/wiki/Euphemism>

법률어의 화용론적 의미구조

김 준 홍

(경북대학교)

1. 서론

1.1 과학에서 언어학의 위치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이 언어학이다. 현대 과학에 있어서 언어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과학을 크게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양분하였을 때, 언어학은 양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문학이고, 인간의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이며,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성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학문을 일컬어 인문학이라 칭한다. 근래 새롭게 부는 인문학의 바람에는 짙은 언어의 향기가 서려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문학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학, 경제학, 법학 등의 실용학문으로 발전해 나아가 사회과학의 뿌리가 된다. 동시에, 언어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음성학은 인간의 구강 및 인후 구조의 연구를 학문의 바탕으로 언어가 어떤 소리로 표현되는가를 탐구한다. 음성학의 연구방법은 해부학 혹은 생물학과 연관되어있으며 근래 연구되고 있는 인공지능 역시 언어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듯 언어학은 인문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도 끈끈한 연결고리로 닿아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의 모든 과학은 사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한다. 이 세상에 사람과 관련이 없는 학문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과학은 인간생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없는 언어, 혹은 그 반대로 언어 없는 인간 역시 상상할 수 없으며, 그렇게 본다면 굳이 Chomsky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언어는 생득적인 요소로서 이미 인간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문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활동은 언어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한다.

1.2 언어와 법률

인간의 활동 중에서 규범으로 그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법과 도덕이며, 최소한의 규범을 언어로 표현해 문서화한 것이 현대의 보편적인 법이다. 법조문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체계¹⁾에서 언어로 표현된 실정법(實定法)²⁾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법 적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법률³⁾은 규범적인 언어의 집합이다. 자연법적인 의무를 사회의 실정에 맞게 최소한의

1) 법체계는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누어진다. 대륙법계는 성문화(成文化)된 법전(法典) 중심으로, 영미법계는 개개 사건인 판례(判例)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한다.
2) 법철학적으로 법은 크게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누어진다. 자연법이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인간이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법원칙을 말하며 실정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을 말한다.

언어로 규정해 놓은 것이 법조문이 된다. 영미법계에서는 법조문보다 판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례에 적용을 한다. 반면에 대륙법계에서는 규범을 문서화하여 미리 규정해 놓은 후 사례별로 적합한 조항을 적용하는 해석법학이 주류를 이룬다. 법률은 구체적이며 명확할 것을 요구받으므로 법률가들, 특히 대륙법계 법률가들의 주된 임무는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법률의 해석은 언어로 표현된 문장 속에 나열된 어휘의 해석이므로 법학적 해석에 앞서 언어적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다. 언어적 해석은 단편적이고 나열적인 법률적 해석에 언어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여 법조문 해석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법조문에 규정된 단어의 의미는 사건의 전후관계 즉, 맥락(context)에 따라 해석이 되어야 하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화용론적 해석이 된다. 기존의 법철학, 언어철학 혹은 일반철학에서 다른 화용론의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성문법 조문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화용론 요소를 형법 살인죄 조항 중심으로 살펴본다.⁴⁾

2. 화용론의 내용과 연구범위

화용론은 언어사용에 관한 이론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어학과, 철학 혹은 사회학 간의 경계에 위치한다. 따라서 화용론은 언어학자들뿐만 아니라 철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법학자(법철학자)들의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화용론의 연구대상은 기본적으로 언어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화용론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발화가 가지는 맥락 속의 의미연구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맥락이란 발화에 있어서 참여자 및 시간과 장소의 매개변인 일치성, 그리고 동일한 발화에 있어 참여자의 믿음, 지식 그리고 의도의 일치성에 관한 논의를 말하며(Levinson 1983: 5), 화용론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들에는 직시(deixis), 전제(presupposition), 함축(implicature), 그리고 화행(speech act) 등의 개념이 있다. 화용론(pragmatics)라는 용어는 미국의 기호학자인 Charles Morris가 1938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나(Levinson 1983: 1), 그 개념은 이미 Saussure의 파롤(parole)이라는 용어에서 시작되어 초기 구조주의에서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Wittgenstein은 ‘철학적 탐구(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Philosophical Investigation)’로 대변되는 그의 후기 철학에서 ‘의미는 사용(meaning is use)’이라고 주장하며 언어와 인간과의 관계 핵심은 언어사용에 있다고 하여 화용론적 관점의 언어를 철학의 중심요소로 보았다(Levinson 1983: 227). 이후, Austin과 그의 제자 Searle에 의해서 화행(speech act)이론이 정립되었다. Austin에 의하면 화행은 크게 언표적 행위(言表的 行爲, locutionary act), 언표내적 행위(言表內的 行爲, illocutionary act), 그리고 언향적 행위(言響的 行爲, perlocutionary act)로 3분 되며 이 중 문맥에 따른 화자의 발화의도를 나타내는 언표내적 행위가 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Levinson 1983: 236).

3) ‘법률’의 의미는 첫째, 법체계에서 헌법의 하위에 위치하는 법규범을 말하거나, 둘째, 인간이 규정해 놓은 규범의 총칭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 의미로 쓰였다.

4) 대륙법체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헌법 이하 많은 법률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률 중에서 개별 법조문에 행위,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가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나타나는 법률이 형법이다.

20세기 후반에 와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화용론 연구가 활발해졌는데 그 중 대표적인 학자가 Habermas이다. Habermas가 주창한 보편적 화용론⁵⁾에 의하면 의사를 교환함에 있어 합리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의사교환의 합리성으로 사회이론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삼열 1999: 60). Habermas가 말하는 의사교환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담화 혹은 텍스트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화용론의 주된 관심 연구 분야가 된다.

이렇듯 화용론은 언어학과 철학을 넘나들며 20세기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인간은 언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언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해간다. 언어와 행위와의 관계는 언어와 규범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규범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인간관계를 규범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법이고 법은 언어로써 그 규범의 형식을 표현하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법조문에서 규정된 법률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언어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생기게 된다.

3. 형법의 화용론적 의미구조

법조문은 규범을 명시적 언어로써 규정해 놓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이하 민법, 형법을 기본 3법으로 하여 많은 성문(成文)법률이 존재하며 각각의 법률은 그 제정 목적과 내용 그리고 구성에 따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법률 중에서 형법은 개인, 사회 또는 국가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언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전은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총론에서는 형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등을 나타내고 있고, 각론에서는 개개 범죄행위 성립의 요건과 그에 따른 형벌의 종류 및 형량을 적시(摘示)하고 있다.

법과 언어의 관계 속에서의 화용론은 법철학계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으며 포괄적, 혹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화용론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⁶⁾. 이와는 달리, 본 글에서는 미시적인 접근방법으로 개개 법률조항 의미구조의 화용론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많은 법률 중에서 특히 형법조문에서 나타나는 어휘들은 화용론적 의미형태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형법 내의 모든 사례를 다루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므로 논의를 제한하여 살인의 죄를 중심으로 법률어의 화용론적 의미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살인죄와 화용론

우리나라 형법은 제250조 ①항에서 살인죄⁷⁾를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후(後)에 Habermas는 형식적 화용론(formal pragmatic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그 의미에 있어 보편적 화용론(universal pragmatics)이라는 용어와 차이가 없다는 견해가 존재한다(김동규 2009: 35).

6) 이상돈 2000: 361-393 참조.

7) 우리나라 형법은 살인죄로서 제250조 ①항에 보통살인죄, 동조(同條) ②항에 존속살해죄, 제251조에 영아살해죄, 제252조 ①항에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동조 ②항에 자살 교사(教唆), 방조(幫助)죄, 제253조에 위계(偽計), 위력(威力)에 의한 살인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글에서 말하는 살인죄는 보통살인죄를 말한다.

위 (1)에서 나타나는 어휘의 법률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은 행위의 객체, '살해'는 행위, '자(者)'는 행위의 주체, '사형', '무기', 그리고 '징역'은 형벌, '5년 이상'은 양형(量刑)에 해당한다. 특정의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 '살해', 그리고 '자'라는 단어들의 의미를 확정지어야 한다. 이때, 이러한 단어들의 법률적 의미는 사전적, 단편적인 해석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으며 특히 살해 행위를 한 '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개개의 사건에 따라 다른 해석이 요구된다. 이것은 살해 행위를 한 모든 '자'가 살인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추가적 해석을 위하여 형법에는 관련 법조문들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그 해석의 내용을 결정짓게 된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법학적 해석의 관점이 아닌 언어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화용론의 영역이 된다.

이제 항을 바꾸어 형법의 살인조항에서 나타나는 어휘들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살인죄에 대한 설명을 조금 곁들인다.

3.2 살인죄의 성립

대륙법체계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i) 구성요건 해당성, ii) 위법성, 그리고 iii) 책임성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⁸⁾ 대륙법계에서 형법조문이란 인류역사를 통틀어, 혹은 동시대의 사회가 요구하는 추상적인 당위성을 요약, 집적(集積)하여 현실의 언어로 표현한 요체(要諦)이므로, 법률적인 해석에 앞서 언어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면 법해석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형법 살인죄 조항에서 나타나는 화용론적 의미구조를 탐구해보기로 한다. 위 (1)에서 나타나는 '사람'과 '자'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화용론적 요소는 직시와 전제이다. 항을 바꾸어 차례로 살펴본다.

3.3 직시에 의한 화용론적 해석

화용론에서 논의되는 직시의 종류에는 인칭, 시간, 장소, 담화, 그리고 사회적 직시 등이 있으며(Levinson 1983: 62), 이때, 살인조항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행위의 주체인 '자'라는 인칭 직시 표현이다. '자'의 사전적 의미는 동(同) 조항에 행위의 객체로서 나타나는 '사람'의 의미와 같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뿐만 아니라 언어학적으로도 양자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때의 '자'는 사람을 살해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리된다. 즉, 사람을 살해하였으나 맥락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 '자'가 존재하게 된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성립의 3가지 요건 즉,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그리고 책임성이 모두 존재하여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 제25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살해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며 비록 형법 제250조의 살해 행위를 한 '자'일지라도 위법성 혹은 책임성의 요소가 결여된 살해 행위를 한 '자'는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것은 맥락에 따라 '자'의 의미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때 '자'는 인칭 직시에 해당된다.

8) 영미법계의 범죄성립요건은 대륙법계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범죄의 객관적 요건'과 '범죄의 주관적 요건'을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이경재 2012: 345).

형법 제250조의 '사람을 살해한 자'이지만 상황적 맥락에 의하여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적 맥락에 의하여 '자'가 되지 않는 경우와 책임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적 맥락에 의하여 '자'가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진다.⁹⁾ 각각의 경우를 차례로 살펴보자.

(2)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적 맥락

- a. 정당방위(형법 제21조 ①항)
- b.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란,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되나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위법성뿐만 아니라 책임성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게 된다.

먼저, '사람을 살해 한 자'에 해당이 될 지라도 그 행위가 위 (2)처럼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되면 형법 제250조의 '자'에는 포함되지 않게 된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형법 제21조 ①항)로서, 본인의 생명을 위법하게 공격하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비록 사람을 살해하였으나 형법 제250조에서 말하는 사람을 살해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형법 제20조)이다. 여기에는 공무집행행위,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 등이 있다. 사형 집행행위,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행위, 군인의 전투행위 등이 공무집행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비록 사람을 살해하여도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맥락에 따라 형법 제250조 '자'의 의미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책임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적 맥락을 살펴본다. 아래의 (3)을 보자.

(3) 책임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적 맥락

- a. 형사 미성년자(형법 제9조)
- b. 심신장애자(형법 제10조 ①항)
- c.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책임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적 맥락은 범죄의 성립요건 중,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존재하지만 책임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의 책임성은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3a)에서 보듯이 우리 형법은 형사미성년자 즉, 14세 미만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않으므로 14세 미만의 '자'는 형법 제250조의 '자'에는 해당되지 않게 된다. 또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자¹⁰⁾에 의한 범죄행위는 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심신장애자는 심신상실자(心身喪失者)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자 등이 있다(김일수 · 서보학 2008: 377). 이러한 사람들에 의한 사람의 살해행위도 처벌할 수 없으며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된 '자'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

9) 법률적 표현으로는 '위법성 조각사유(阻却事由)'와 '책임성 조각사유(阻却事由)'라고 한다.

10) 우리 형법에서 인정하는 심신장애자로는 심신상실자(제10조 ①항), 심신미약자(제10조 ②항), 농아자(제11조)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김일수 · 서보학 2008: 376).

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강요된 행위의 책임성을 묻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형법 제12조에서 의미하는 '강요된 행위'에 의하여 형법 제250조의 살해 행위를 한 사람 역시 동 조항의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3.4 전제에 의한 화용론적 해석

살인죄 조항에는 범죄행위의 주체로 나타나는 '자'라는 대명사 외에 범죄행위의 객체로서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대명사도 나타난다. 사전적 의미로, '사람'과 '자'의 의미는 유사하다. 그러나 살인조항에서 '사람'은 행위의 객체로, '자'는 행위의 주체로 해석이 되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항에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행위의 주체로 해석이 되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화용론적 의미를 살펴본다.

먼저, '사람'이라는 어휘의 사전적 해석은 포괄적이다. 즉, 그냥 '사람'이라고만 지칭을 하면 시간적, 생물학적 상황을 포함한 많은 경우의 사람¹¹⁾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살인조항에서 규정된 '사람'은 i)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하며¹²⁾, ii) 타인(他人)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은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에서 살인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화용론적 전제가 된다. 즉, 살인죄에서 살인의 객체는 '사람'으로만 명기하고 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에 대하여 살인죄는 성립될 수 없고¹³⁾, 자신을 살해하는 행위 즉, 자살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¹⁴⁾ 형법 제250조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전제적 의미로서의 사람만이 살인의 객체가 된다.

4. 결론

법률가들이 법조문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장으로 표현된 법조문 어휘 하나하나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규정은 사전적 해석이 아닌 법률적 해석에 의하게 되며, 법률적 해석의 바탕은 화용론에 기반을 둔 언어학적 해석에 있게 된다. 헌법을 포함한 다른 법률들과 달리 형법의 법률조문은 화용론적 의미를 가진 어휘들의 거대한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용론적 해석은 형법 조문에서 나타나는 범죄 행위의 주체 또는 객체인 '사람' 혹은 '자'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할 수 있다.

법학자들이 행하는 기본적인 법학적 해석은 나열식의 해석이다. 법학적 해석은 법조문 속에 나타나는 어휘의 의미를 하나하나 규정짓는다. 여기에 언어적 요소를 결합하면 그러한 해석의 토대를 이론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게 되며 그 바탕은 맥락의 인식이 된다. 법률어의 화용론적 의미구조는 기존의 법학적 접근법인 거시적인 관점에서뿐만 아

11) '죽은 사람', '옛날 사람', '미래의 사람', '태어나지 않은 사람' 등 시간적, 생물학적 상황이 더해진 수많은 종류의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

12) 태아의 경우 형법상 '사람'으로 볼 수 없으며 단지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70조)의 객체가 된다.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는 분만 시 진통이 시작된 시점으로 보는 진통설이 통설(通說)이고 판례이다(김일수·서보학 2009: 20).

13) '죽은' 사람 즉, 사체에 대하여는 사체 등의 오욕에 관한 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형법 제159조, 제161조, 제163조 참조).

14) 자살의 스스로에 대한 '살해'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여야 할 법익(法益)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살인죄의 미수는 처벌을 하나 자살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 언어적 방법에 의한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의 약속이 언어로 표현된, 법률의 해석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문서화된 규범으로서의 법의 권위에 신뢰를 더하는 방편이 된다.

참고문헌

- 김동규. 2009. “하버마스의 형식 화용론 연구 - 입장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제17호, 35-64, 사회와 철학 연구회.
- 김일수 · 서보학. 2008. 『형법총론』, 박영사.
- 김일수 · 서보학. 2009. 『형법각론』, 박영사.
- 김재원. 2006. “법과 언어-비트겐슈타인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30권, 29-44, 법과사회 이론학회.
- 오연주. 2011. “비트겐슈타인 철학: 방법론으로 읽기”, 『인문과학연구』 제37호, 41-66,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경재. 2012. “미국형법상 범죄조각사유-정당화사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345-387,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삼열. 1999. “하버마스의 삶과 철학의 도정”, 『현대 철학 강좌』 제2권 1호, 89-113.
- 이상돈. 2010. 『기초법학』, 법문사.
- 장병기. 1983. “소쉬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 『한글』 제181호, 119-142, 한글학회.
- 최용호. 2000. “소쉬르와 일반 언어학 강의 - 텍스트와 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8권, 249-269, 한국기호학회.
- 한상우. 2004. “하버마스의 보편화용론 - 말행위이론의 수용과정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38집, 489-510, 새한철학회.
-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nn, K.T. 1969. *Wittgenstein's Conception of Philosophy*, Oxford: Basil Blackwell. (황경식 · 이운형 옮김. 1989.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서광사.)
- Harris, Roy. 1988. *Language, Saussure and Wittgenstein - How to Play Games with Words*, Routledge. (고석주 옮김. 1999.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보고사.)

영어 합성 명사 nose candy의 의미 구성 분석: 개념적 혼성 이론을 중심으로

조 은 정

(경상대학교)

Cho, Eun Jung. 2014. The Analysis of Meaning Construction of the English Compound Noun *Nose Candy* based on Conceptual Blending Theory.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the meanings of a newly-coined compound noun *nose candy* in English, whose first use dates back to 1925-1930, are constructed in the cognitive framework, especially focusing on conceptual blending theor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onceptual blending theory can be a powerful analytic tool for not only the word formation and the meaning construction of *nose candy* but also for the semantic shifts of this compound noun. It also suggests that the evolving aspects of the semantic shifts of nose candy over time gives us the insight into how cultures can affect our language use and vice versa.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04 words).

Key words: conceptual metaphor, conceptual metonymy, conceptual blending, compound words, meaning construction, semantic shifts, *nose candy*

1. 서론

오늘날 사회에서는 혁신적인 제품, 새로 선보이는 서비스, 새로 나타난 사회 현상 등으로 인해 이들을 명명하는 새로운 단어들 등장하고 있다. 신조어들은 생소하고 이전 텍스트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지만, 기존의 단어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의 어휘를 사용하여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방식 중 ‘합성어 조어법(compounding)’은 상당히 생산적이고, 특히 합성어 내에서 [명사 + 명사] 합성어가 생산성이 가장 높다(Bauer 1983: 204, Bauer, Lieber and Plag 2013: 451). 합성어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개념적 혼성 이론(Conceptual Blending Theory)’에 기반을 둔 논의 위주로 선행연구를 소개하자면, Fauconnier (1997), Fauconnier and Turner(1994, 1998, 2002)과 Benczes(2006)가 대표적이며, 국내 연구 중에서 관련 논의로는 이종열(2003), 임지룡(2008), 정수진·송현주(2012), 김동환(2013), 이미영·임성출(2014) 등이 있다. 이들 논의는 모두 개념적 혼성이론이 합성어의 의미 구성을 분석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됨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들 논의와 궤를 같이 하여 개념적 혼성 이론에 기초해서 ‘nose candy’라는 신어 합성어의 의미 구성과 의미 변화에 작용하고 있는 인지적 기제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장에는 인지 언어학의 기본 개념 중 개념적 혼성 이론을 소개하고, 개념적 통합 연결망의 유형을 소개할 것이다. 3장에서는 개념적 혼성 이론을 사용하여 1925년~1930년에 등장한 합성어 ‘nose candy’의 의미 구성과 의미 변화를 설명함으로써 개념적 혼성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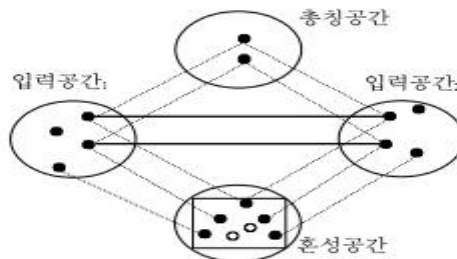
의 개념적 통합 연결망이 합성어의 의미 구성뿐만 아니라 의미 변화(의미 확대)까지 설명하는데 훌륭한 도구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4장에서는 ‘candy’ 합성어 부류 연구에 대한 함의를 언급하면서 연구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nose candy’와 같이 비유가 작용하는 합성어에 나타나는 비유적 의미는 단순히 언어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인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념화의 문제임을 보이기 위해 인지언어학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개념적 은유 이론 (conceptual metaphor theory)¹⁾, 개념적 환유 이론(conceptual metonymy theory)²⁾, 개념적 혼성 이론 중에서 개념적 혼성 이론과 개념적 통합 연결망을 소개할 것이다.

2.1. 개념적 혼성 이론(Conceptual Blending Theory)

개념적 혼성 이론은 ‘정신공간 이론(Mental Space Theory)’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신공간 이론에서는 다른 많은 정신공간이 있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 중 ‘혼성공간(blended space/blend)’이라고 불리는 정신공간이 ‘의미 구성(meaning construction)’과 관련된다. 혼성 공간은 입력공간₁과 입력공간₂의 ‘선택적 투사(selective projection)’로 형성되는 공간이지만 입력공간에 없는 구조, 즉 ‘발현구조(emergent structure)’가 여기서 형성될 수 있다(Fauconnier 1997: 150).



<그림 1> 개념적 통합 연결망(Fauconnier 1997: 151)

- 1) Lakoff & Johnson(1980) 이후로 개념적 은유는 ‘한 개념 영역을 다른 개념 영역에 의해 인지하는 개념화 장치’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때 우리가 인지하고자 하는 개념영역을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라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영역을 ‘근원영역(source domain)’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영어 사용자가 ‘육망’에 대해 [육망은 식욕]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면, 이는 ‘육망’이라는 개념을 ‘식욕’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으로 본다. [A는 B이다]의 형식을 가진 이 개념화에서, ‘식욕’이라는 구체적인 경험과 개념이 ‘육망’을 이해하기 위한 근원영역이 되고, ‘육망’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언어 사용자가 인지하고자 하는 목표영역이 되는 것이다.
- 2) 고전적 관점에서 환유는 사고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 수사학적 언어 표현으로, 주된 기능은 어휘적 대치를 통한 지시적 전이 현상이 강조되는 반면, 인지적 관점에서 환유는 개념 현상의 하나로, 동일한 영역에 있는 두 개의 실체가 인접성 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정신적 실체(매체, source)’가 또 하나의 ‘정신적 실체(목표, target)’에 접근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여겨진다(Lakoff & Johnson 1980, Geerarts 2010). 환유를 개념적인 현상으로 보면, ‘지시 전이’ 기능 외에 환유의 ‘이해’ 기능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We need some new blood in the organization’에서 ‘new blood’는 ‘새로운 구성원(new people)’을 지시하지만, 신체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생명력을 주는 ‘혈액(blood)’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조직에 활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단일한 ‘이상적 인지 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s: ICMs)’ 내에서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화자가 특정한 하위의 측면에 초점을 두거나 전체 ICM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환유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청자가 지시물을 이해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Lakoff 1987).

<그림 1>에 ‘개념적 통합 연결망(integration network)’에서의 네 가지 정신공간의 관계가 나타나 있다. 입력공간₁, 입력공간₂, 혼성공간 외에 상단에 총칭공간이 있는데, 이는 두 입력공간이 공유하는 추상적인 구조와 조직을 반영하는 포괄구조이며, 두 입력공간 사이의 공간 횡단 사상을 한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Fauconnier 1997:150). 개념적 은유 이론을 <그림 1>의 정신공간 이론으로 설명하자면, ‘한 개념 영역(=목표영역)을 다른 개념 영역(=근원영역)에 의해 인지하는 개념화 장치’라는 은유의 정의에 따라 두 개의 정신공간 (근원영역으로서의 입력공간, 목표영역으로서의 입력공간)이 있고, 근원과 목표의 두 영역 사이가 체계적인 ‘사상(mapping)’의 관계로 기술되는 ‘두 영역 모형(two-domain model)’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개념적 혼성 이론은 입력공간₁, 입력공간₂ 이외에 총칭공간과 혼성공간을 포함한 네 개의 공간, 또는 그 이상으로 이루어진 ‘네 공간 모형(four-space model)’ 혹은 ‘다공간 모형(many-spaces model)’으로 이 네 가지 공간들이 의미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2. 개념적 통합 연결망의 유형

Fauconnier & Turner(2002)는 개념적 혼성 작용의 결과로 생기는 개념적 통합 연결망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데, 모든 정신공간이 공통된 개념들을 공유하는지, 그리고 두 입력공간 모두가 혼성공간의 발현구조 형성에 참여하는가가 분류의 기준이 된다. 첫째, 단순 연결망은 하나의 입력공간에만 틀이 있고 다른 입력공간에는 특정 요소만 있는 가장 단순한 통합 유형이다. 예를 들면 ‘John is the son of Mary’라는 문장에서 입력공간₁은 ‘가족 틀’을 포함하며 그 안에는 ‘MOTHER’, ‘SON’ 등과 같은 역할이 있고, 입력공간₂는 그 틀의 각 역할에 상응하는 ‘값(value)’, 여기서는 ‘Mary’, ‘John’을 포함한다. 이 밖에 남자, 여자라는 추상적 범주를 가진 총칭공간이 각 입력공간에 사상되며, 혼성공간은 두 입력공간에는 없는 발현구조를 생성한다. 둘째, 거울 연결망은 두 입력공간, 총칭공간, 혼성공간 모두 하나의 공통된 틀을 공유하는 통합망으로, 특정한 활동, 사건, 그리고 참여자를 명세화한다. 입력공간은 그들이 총칭공간과 같은 틀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울쌍 관계에 있으며, 혼성공간에서 같거나 혹은 더 풍부한 틀이 생성될 수 있다. 셋째, 단일범위 연결망은 두 입력공간이 서로 다른 틀을 가지고, 혼성공간에는 둘 중 하나만 그대로 계승되는 통합망이다. 넷째, 이중범위 연결망 역시 서로 다른 틀에 의해 조직되지만, 두 입력공간이 혼성공간을 조직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투사되는 연결망이다. 마지막으로 다중범위 연결망은 입력공간이 세 개 이상인 연결망이다(Fauconnier & Turner 2002: 119-135).

3. ‘Nose candy’의 의미 구성 분석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합성어 ‘nose candy’가 각각 코카인, 향기 스프레이, smarties 사탕의 의미를 가지는 과정을 개념적 혼성 이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1. 코카인을 지칭하는 ‘nose candy’ 합성어

‘Nose candy’는 속어 사전인 『The New Partridge Dictionary of Slang and Unconventional English』 (Victor, Partridge, & Dalzell 2006)에 따르면, ‘일반 코카인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드물게 코로 흡입할 수 있는 가루형태의 마약을 지칭한다(Nose candy

refers to cocaine or rarely, another powdered drug that can be snorted). 코카인을 지칭하는 경우 ‘nose candy’는 하위문화에서는 그냥 ‘candy’라고 부르기도 한다.

연구자는 합성어 ‘nose candy’의 뒤에 나오는 명사 ‘candy’에 개념적 은유가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nose candy’가 마약 복용자들 사이에 사용된 속어라는 점에서 그 개념적 은유를 [욕망은 식욕이다](DESIRE IS APPETITE)³⁾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근원영역(입력공간₂)으로 ‘candy’를 섹취 대상으로 하는 ‘사탕 섹취틀’을, 목표영역(입력공간₁)으로 먼저 일반적 단계로 ‘마약 복용틀’을 구축하였다. 총칭공간에 대한 설명은 행위자, 대상물질, 섹취 후 느낌 등을 공통된 자질로 공유한다. 근원영역 입력공간의 ‘사탕 섹취틀’은 혼성공간에 그 구조를 부여하며, 근원영역 ‘사탕 섹취 틀’의 역할을 목표영역 입력공간의 ‘마약 복용틀’의 요소들이 채우는 단일범위 연결망으로 분석하였다.

단어 ‘candy’가 환기시키는 개념틀 안에는 섹취 수단(신체 부위)가 있는데, ‘nose candy’의 경우, ‘nose’라는 단어가 섹취 부위가 ‘코’라는 것을 환기시켜 준다. 이는 단어 ‘nose’에 [전체 복용 행위를 대신하는 수단](INSTRUMENT FOR ACTION)이라는 개념적 환유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nose’에 작용하는 개념적 환유 때문에 단어 ‘candy’가 환기시킨 근원영역 입력공간인 ‘사탕 섹취 틀’에 대응하는 목표영역 입력공간은 일반적인 ‘마약 복용 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코카인 복용 틀’로 제한된다. 즉, ‘nose’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마약 중에서도 ‘코카인’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마약을 복용/흡입하는 방법이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대마초(마리화나)’의 경우, 말린 대마 잎을 말아서 입에 물고 담배처럼 피우는 방식이 제일 보편적이며, ‘코카인’의 경우, 코카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를 분말로 정제한 것인데, 이 하얀 가루를 보통 지폐나 종이를 말아서 코로 흡입 먹는 것보다는 코로 흡입함으로써 코의 점막을 통해 복용하는 것이 효과가 더 강하고 빠르기 때문이라고 한다(Ritter & Lampkin 2011: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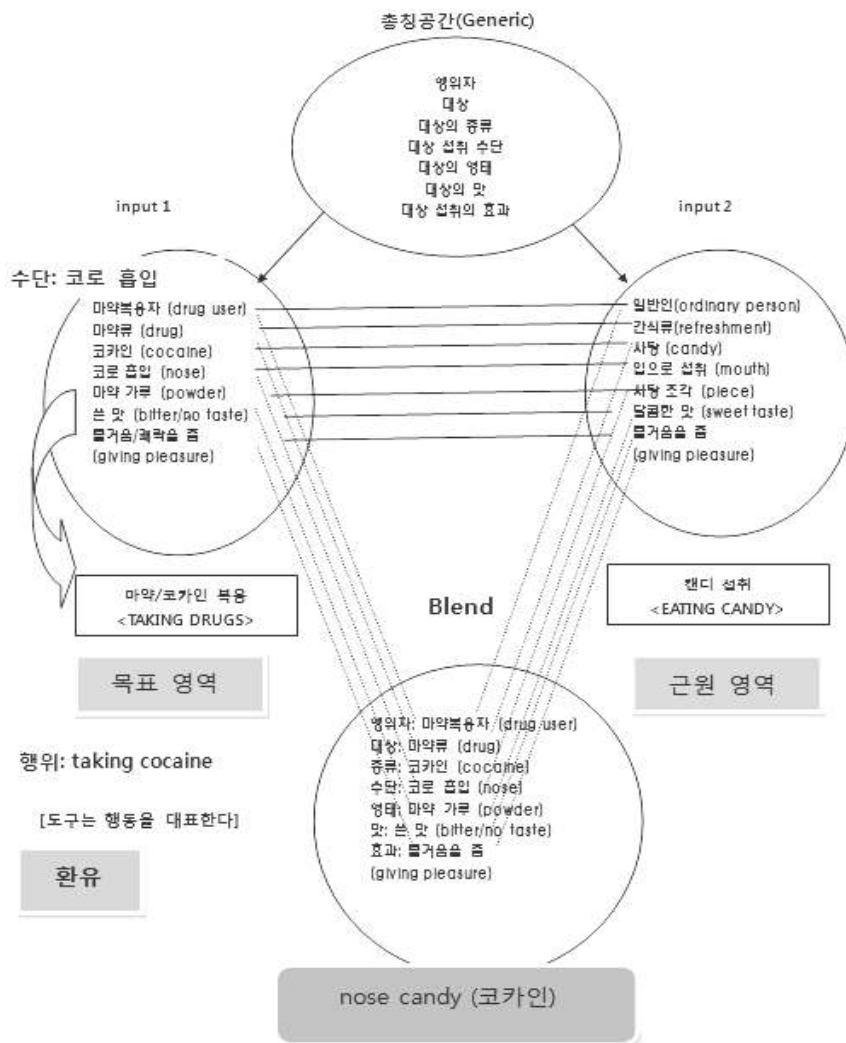
<그림 2>는 단어 ‘candy’와 단어 ‘nose’가 활성화시키는 정신공간들이 상호 작용하는 개념적 통합 연결망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왼쪽의 입력공간₁을 근원영역으로 표기하고 오른쪽의 입력공간₂를 목표영역으로 표기하지만, 합성어 ‘nose candy’의 어순에 따라 왼쪽의 입력공간₁을 목표영역으로 하고 오른쪽의 입력공간₂를 근원영역으로 하여 분석⁴⁾하였다. 이러한 두 입력공간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공간 횡단 사상에 의해 근원영역 입력공간의 ‘일반인’, ‘간식류’, ‘사탕’, ‘입으로 섹취’, ‘사탕 조각’, ‘달콤한 맛’, ‘즐거움을 줌’ 등의 요소와, 목표영역 입력공간의 ‘마약복용자’, ‘마약류’, ‘코카인’, ‘코로 흡입’, ‘마약 가루’, ‘쓴 맛’, ‘즐거움을 줌’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형성된다.

게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새로운 혁신과 변화로 인해 등장하는 신조어가 많으

3) 마치 우리가 좋아하고 아끼는 대상을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표현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일 것이다. [인간은 음식](HUMAN IS FOOD) 개념적 은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honey’는 ‘pleasant person’을, ‘sugar’는 ‘person you are fond of’, ‘sweetie’는 ‘pleasant, kind person’을 나타낸다(Goatly, 2007:90). 이 개념적 은유의 상위 단계는 [욕망은 식욕이다](DESIRE IS APPETITE)이라는 개념적 은유인데, 여기서 욕망의 대상인 코카인을 다른 음식 은유와 같은 맥락에서 ‘candy’ 이론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다. 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코카인(cocaine)’의 철자 c로 시작하는 /k/ 발음과 ‘사탕(candy)’의 철자 c로 시작하는 /k/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근원영역과 목표 영역 사이의 음운론적 유사성이 두 번째 구성요소 ‘candy’에 작용하고 있다.

4) 출처 실제로 어순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구자가 아는 범위에서 개념적 혼성 이론은 왼쪽에 나타나는 입력공간₁과 오른쪽에 나타나는 입력공간₂에 대한 별도의 제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분석하는 연구자에 따라 임의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강병창(2013)은 이를 개념적 혼성 이론 이론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한다.

므로, 'nose candy'가 일반적인 비유가 아닌 사전적 의미로 등장한 1925년-1930년대를 살펴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속어로 코카인을 뜻하는 'nose candy'는 『The New Partridge Dictionary of Slang and Unconventional English』 (Victor, Partridge, & Dalzell, 2006)에 따르면 1925년에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Online Etymology Dictionary』에 따르면 1930)년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1930년에는 연방마약청이 탄생되어 마약 판매, 배포, 및 사용을 강력하게 단속하던 시기였다(Goldberg, 2006: 74).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볼 때, 금지된 코카인을 대신 명명할 단어가 필요했을 것이고, 코카인을 간접 지시하는 일은 마약 암거래에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림 2> nose candy(코카인)의 개념적 혼성 분석

5) 출처 Online etymology dictionary. Retrieved July 20, 2006, from http://www.etymonline.com/index.php?allowed_in_frame=0&search=nose+candy&searchmode=none

3.2. 아로마 향 스프레이를 지칭하는 ‘nose candy’ 합성어

연구자가 ‘nose candy’를 검색어로 하여 COCA (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⁶⁾에서의 빈도수를 살펴보니, 지금까지 5번의 빈도수를 보여주었고, 그 중 한 번은 잡지에 등장하고 나머지는 소설에 등장하였다. 소설 속에 나타난 ‘nose candy’는 코카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인공이 마약을 복용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등장하고 있는 반면,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에는 밤에 불면증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향기 요법 중 하나로 좋은 향기를 지닌 에어스프레이를 소개할 때 ‘nose candy’란 합성어가 사용됨을 보여준다⁷⁾.

- (1) Still counting sheep? Try the ultimate nose candy: Origins’ Slumber Party Sensory Therapy Airspray. (\$15/3.4 fluid ounces), a heavenly blend of star anise, tansy, bergamot and honey myrtle, scents, ...

(COCA/1997/MAG/Shape/Overnight sensations)

연구자의 견해로는 비록 ‘nose candy’가 처음에는 일종의 속어로서 하위문화에서만 통용되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마약 복용자와 암거래상들 사이에서 ‘코카인’이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70년 가까이 꾸준히 사용되면서 어느 정도 신어 합성어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회성 표현도 아니고, 단순한 구(phrase)도 아닌 어느 정도 굳어진 표현으로서 속어 사전에 실릴 만큼 어휘적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본다. 이제, 마약을 복용하지 않는 일반 대중들에게 ‘nose candy’가 어떻게 해서 ‘코’를 즐겁게 주는 향기 제품을 지칭하는 의미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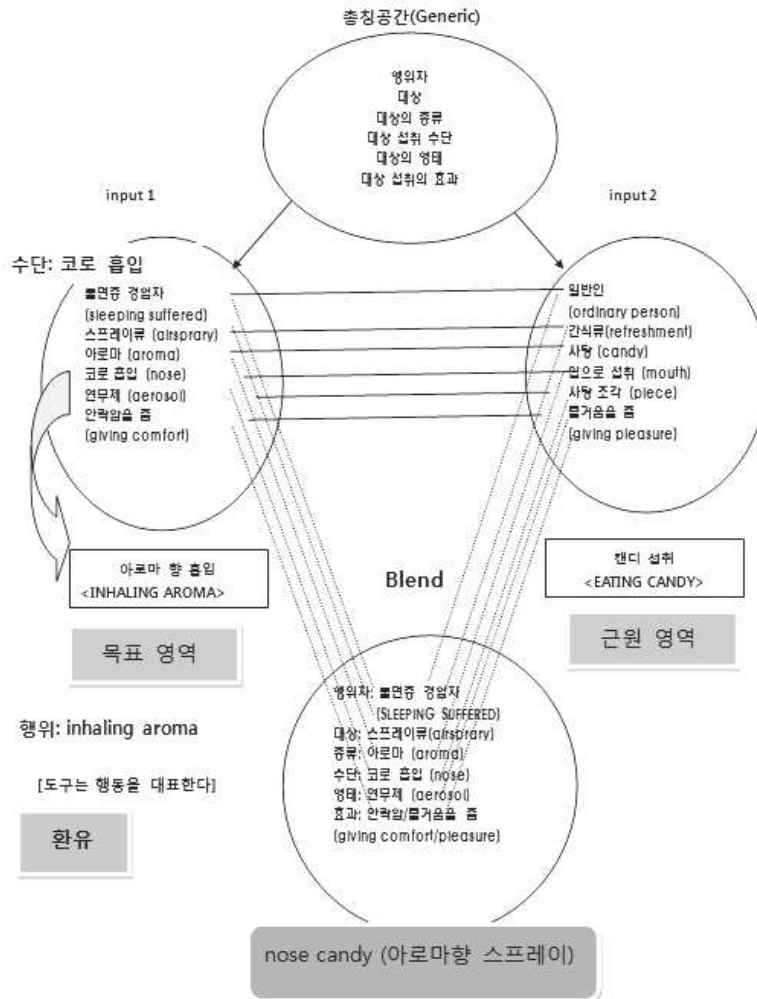
<그림 3>에서 먼저, ‘아로마향 흡입 틀’과 ‘사탕 섭취 틀’에 입각하여 두 입력공간이 구축되는데, 여기서 입력공간₁은 목표영역 입력공간이며, 입력공간₂는 근원영역 입력공간이 된다. 두 입력공간의 연결을 살펴보면 공간 횡단 사상에 의해 근원영역 입력공간의 ‘일반인’, ‘간식류’, ‘사탕’, ‘입으로 섭취’, ‘사탕 조각’, ‘달콤한 맛’, ‘즐거움을 줌’ 등의 요소와, 목표영역 입력공간의 ‘불면증 경험자’, ‘스프레이류’, ‘아로마’, ‘코로 흡입’, ‘연무제’, ‘안락함을 줌’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형성된다. 총칭공간은 ‘행위자’, ‘대상’, ‘대상의 종류’, ‘대상 섭취 수단’, ‘대상의 형태’, ‘대상 섭취의 효과’로 구성된다.

같은 근원영역에 대한 다른 목표영역의 대응, 각기 다른 개념들의 구축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비유가 지니는 잠재력을 엿볼 수 있다.

즉, 언어 사용자가 비유를 포함하는 단어, 여기서는 ‘nose candy’를 듣고 이해하는 한편, 동시에 언어 사용자는 다른 유사한 경우에 같은 표현, 같은 비유를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6) COCA는 미국 Brigham Young University의 Mark Davies 교수가 구축한 것으로 현재 그 규모가 약 4억 5천만 단어에 이르는 대규모의 미국 영어 코퍼스이다. 구어(spoken), 소설(fiction), 대중잡지(popular magazine), 신문(newspapers), 학술저널(academic journals)를 포함하는 5개의 주요 장르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대 미국 영어의 실제 모습을 주요 장르별로 보여주며, 통시적으로도 언어 사용을 관찰할 수 있는 코퍼스이다.

7) ‘Nose candy’라는 표현은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1930년대 이후에도 하위문화가 아닌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음을 COCA의 빈도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가 약 70년이 지난 1997년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에 ‘nose candy’는 ‘코카인’이라는 마약이 아닌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의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1930년대 당시 코카인을 지칭하던 ‘nose candy’는 속어로만 사용되고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표현, 즉 거의 사용되지 않았거나, 마약복용자나 판매자가 아닌 일반 대중들이 사용했다면 ‘코카인’이 아닌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 nose candy(아로마향 스프레이)의 개념적 혼성 분석

비록 다른 문맥에서 ‘candy’가 각각 코카인과 향기 스프레이로 다른 사물을 지칭하고 있지만, 이들 사물에 대한 개념의 기저에는 동일한 개념적 은유와 동일한 개념적 환유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의 예는 하위문화에서만 사용되는 언어가 비유적 표현의 특성으로 인해 전체 대중문화 속으로 그 사용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의미의 확대/변화는 목표영역 입력공간에 해당하는 정신공간이 수정/변경된 경우로, 이런 표현이 관습화되면 새로운 어휘로 어휘범주에 자리잡게 되는데, 그 과정을 개념적 혼성 이론이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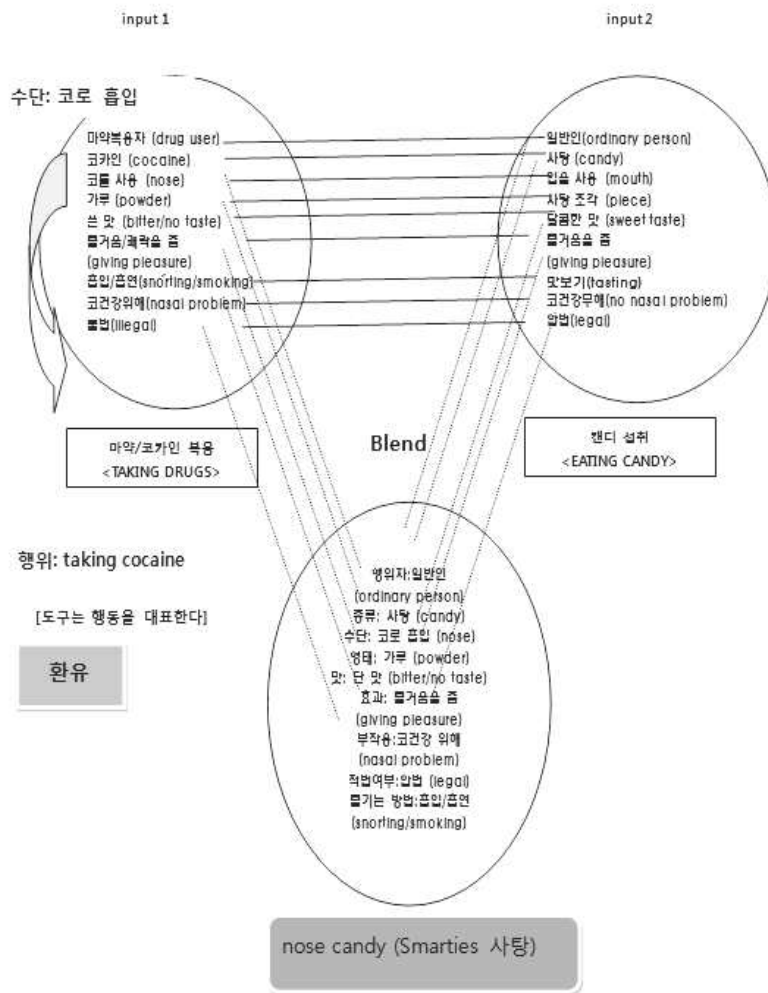
3.3. 사탕제품 ‘Smarties candy’ 를 갈아서 흡입하는 의미의 ‘nose candy’ 합성어

아주 흥미로운 점은 지금 이 ‘nose candy’가 더 이상 은유적인 표현이 아닌 실제 ‘사탕(candy)’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Smarties candy’⁸⁾의 기괴한

8) 미국 ‘Smarties Candy Company’에서 1949년 선보인 이후로 오래 동안 사랑받아 온 사탕 제품인 ‘Smarties candy’ (from [http://en.wikipedia.org/wiki/Smarties_\(wafer_candy\)](http://en.wikipedia.org/wiki/Smarties_(wafer_candy)).)가 현재 미국 아동 및 청소년들의 기괴한

소비 행태를 소개한 신문 기사 내용인데, 본문 중에 ‘nose candy’라는 용어가 사용됨을 볼 수 있다.

- (2) Parents across the country have been put on alert for a dangerous new trend that brings a new meaning to the term “nose candy.” Kids and teens are snorting the candy Smarties. Experts say that there are real dangers associated with snorting the crushed up candies, aside from the fact kids are mimicking hardcore drug use. (<http://thesource.com/2014/01/22/candy-crush-youll-never-believe-what-kids-are-snorting/>)



<그림 4> nose candy(Smarties 사탕)의 개념적 혼성 분석

소비 행태로 인해 ‘nose candy’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Smarties candy’의 포장형태를 보면 작고 둥근 알약 같은 다양한 사탕을 모아 하나의 비닐랩에 싸서 출시되는 데, 포장된 형태는 분필을 비닐로 포장해서 양쪽 끝을 묶은 형태와 같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알약이나 작은 사탕처럼 입에서 녹여 먹는 것이 아니라, 병이나 다른 기구를 이용하여 알약을 가루로 낸 후 빨대를 이용하거나 종이를 말아서 그 가루를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소비하거나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흡입한다. 아동들의 이런 행태 때문에 부모님과 학교 교사들은 상당히 놀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코카인 같은 마약을 흡입하는 행위와 유사할 뿐 아니라, 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사탕을 갈아서 코에 넣으면, 날카로운 사탕 결정이 코 안에 상처를 줄 수 있으며, 폐에 흡입이 되면 좋지 않고, 코 안에 구더기가 기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이 같은 ‘nose candy’ 합성어 의미의 변화 현상도 개념적 혼성 이론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사탕 섭취 방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사탕 섭취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범주 변형에 따른 범주의 구조가 바뀌는 ‘이중범위 연결망’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중범위 연결망은 입력공간의 조직 틀이 서로 다르고, 두 입력공간의 틀 모두 혼성공간에 중요하게 기여한다. 틀이 다르기 때문에 혼성공간에서 둘의 차이에 의한 충돌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이런 충돌은 연결망의 구성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상상력에 도전하며 실제 만들어지는 혼성공간은 매우 창조적일 수 있다. 어떤 점에서 개념적 혼성은 영구적인 범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Fauconnier & Turner 2002:269-271).

‘Nose candy’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nose’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통적인 사탕 복용 방법인 입으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 흡입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수단이며, 구체적으로 환기하는 행동 ICM은 1925년-1930년 이후 속어로 사용된 맥락에서처럼 코카인을 흡입하는 행위를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핵어 ‘candy’는 전통적인 사탕 섭취 행위와 관계있으므로 두 개의 입력공간은 ‘전통적인 사탕 섭취 행위틀’과 ‘마약/코카인을 복용하는 행위 틀’로 구성된다. 공간횡단 사상은 ‘합법적-불법적’, ‘코카인-사탕’, ‘코-입’, ‘가루-조각’, ‘쓴 맛 - 단 맛’, ‘코 건강 문제 - 코 건강 무해’, ‘코로 흡입- 입으로 맛보기’ 등으로 두 입력공간을 연결한다.

혼성공간은 입력공간으로부터의 선택적 투사로 이루어지는데, ‘마약복용’ 입력공간으로부터 ‘코로 흡입’, ‘가루’, ‘코 건강 문제’를 취하고, ‘사탕 섭취’ 입력공간으로부터는 ‘일반인’, ‘합법적’, ‘사탕’, ‘달콤한 맛’을 취한다. 혼성공간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탕 소비 구조가 발현적 특징이 되며, 이러한 범주 변형은 범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구조에는 ‘전통적인 사탕 섭취’ 입력공간에 있는 ‘입으로 맛보는 것’이 없으며, ‘전통적인 사탕 섭취’ 입력공간에는 없는 ‘코’에 작용하는 건강 문제가 있다. 또한 ‘마약 복용’ 입력공간에는 없는 ‘진짜 사탕 제품’을 흡입하는 것이 있으며, 마약 복용자가 아닌 일반 학교 학생들이 행위자가 되는 등 혼성공간에는 두 입력공간에 없는 새로운 구조가 발현되어 나온다.

4. 결론

이제까지 논의한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nose candy’가 코카인을 지칭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념적 환유가 ‘코로 냄새를 맡는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수단을 나타내는 첫 번째 구성요소인 ‘nose’에 작용하고 있고, [욕망은 식욕이다]와 같은 개념적 은유가 두 번째 구성요소인 ‘candy’에 작용함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nose candy’가 코카인을 의미하게 되는 의미 구성 방식을 개념적 혼성 이론의 단일범위 연결망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코카인이라는 기존의 표현이 있지만, ‘nose candy’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1930년에 등장하여 사용되게 된 배경에는 당시 미정부가 연방마약청을 설립해서 마약 판매, 배포, 마약 복용을 강력하게 단속한 사회문화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셋째, ‘nose candy’의 원래의 비유적 의미가 코카인에서 다른 대상, 여기서는 ‘aromatic airspray’을 확대 지칭하는 과정을 개념적 혼성 이론의 단일범위 연결망으로 설명하였다. 개념적 혼성 이론에서 같은 근원영역에 대해 다른 목표영역이 대응되면서 같은 언어적 표현이 다른 의미로 전환되어 사용될 수 있는 데 기여하는 기제는 단일 연결망에서의 총칭공간의 역할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총칭공간의 ‘행위자’, ‘대상’, ‘대상의 종류’, ‘대상 섭취 수단’, ‘대상의 형태’, ‘대상 섭취의 효과’와 같은 공통 자질로 인해 근원영역의 ‘candy’가 목표영역의 코카인, 향기 스프레이를 지칭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넷째, ‘nose candy’가 비유의 단계를 벗어나 실제 사탕인 Smarties candy라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개념적 혼성 이론의 이중범위 연결망으로 설명하였다. 앞에서는 단일 연결망에서의 총칭공간이 같은 표현이 다른 의미로 확대/전환되어 사용되는 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하였는데, Smarties candy의 의미구성은 이중범위 연결망에 해당하며, 선택적 투사로 인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의미가 발현되는 혼성공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째, ‘nose candy’의 분석과 관련하여 개념적 은유 이론은 ‘코카인’, ‘향기 스프레이’의 의미 구성만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개념적 혼성 이론은 단일범위 연결망으로는 ‘코카인’, ‘향기 스프레이’의 의미 구성 뿐만 아니라 이중범위 연결망으로 Smarties candy의 의미구성까지도 다 설명할 수 있으며, ‘nose candy’가 문자 그대로 ‘candy’를 지칭하는 경우와 비유적으로 코카인이나 향기스프레이를 지칭하는 경우 모두를 다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고에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 않고 있지만, ‘nose candy’를 시작으로 이후 등장한 ‘eye candy (보기에 매력적이거나 진지하지 않거나 크게 흥미롭지 않은 사람 또는 사물)’, ‘ear candy (듣기에 좋지만 깊이가 없는 음악)’, ‘arm candy (외모가 아주 출중해서 행사나 모임에 대동하지만 연인 관계는 아닌 파트너)’, ‘thumb candy (고도의 전술이 필요한 전략/전술 게임이 아닌 손과 눈, ‘eye candy’의 유추에서 나온 ‘eye broccoli(못 생긴 사람 또는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도 연구 대상에 함께 포함시켜서, ‘candy’ 합성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며, ‘candy’의 미각적 요소가 eye (시각), ear (청각) 등의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소위 ‘공감각 현상’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창. 2013. 은유적 합성명사의 의미구성 유형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고찰. *인문연구*. 125-152.
- 김동환. 2013. 개념적 혼성에 입각한 은유적 합성어의 의미구성. *언어과학연구* 64, 1-24.
- 이미영·임성출. 2014. 환유적 합성어의 의미구조 분석. *언어과학연구* 68, 265-286.
- 이종열. 2003. 비유와 인지. 한국문화사.
- 임지룡. 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정수진·송현주. 2012. 개념적 혼성 이론에 기초한 한국어 의미구성. *어문학* 116, 81-102.
- Bauer, Laurie. 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uer, Laurie, Rochelle Lieber and Ingo Plag. 2013. *The Oxford reference guide to English morp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nczes, Réka. 2006. *Creative compounding in English: the semantics of metaphorical and metonymical noun-noun combination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 Co.
- Fauconnier, Gilles. 1997. *Mappings in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uconnier, Gilles and Mark Turner. 1994. *Conceptual projection and middle spaces*. UCSD Cognitive Science Technical Report 9401.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_____. 1998. Conceptual integration networks. *Cognitive science*, 22(2), 133-187.
- _____. 2002. *The way we think: conceptual blending and the mind's hidden complexities*. New York: Basic Books.
- Geraerts, Dirk. 2010. *Theories of lexical seman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atly, Andrew. 2007. *Washing the brain: metaphor and hidden ideology*. Amsterdam: John Benjamins Pub. Co.
- Goldberg, Raymond. 2006. *Drugs across the spectrum*, (5th ed.). Canberra : Thomson/Wadsworth.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eorge.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tter, Lois. and Shirley Lampkin. 2011. *Community mental health*. Burlington: Jones & Bartlett.
- Victor, Terry, Eric Partridge, and Tom Dalzell. 2006. *The new partridge dictionary of slang and unconventional English*. New York: Routledge.

Internet sources

-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n.d.). In Wikipedia. Retrieved February 13, 2014, from <http://en.wikipedia.org/wiki/>
- Davis, Mark. (2014, February 13). <http://corpus.byu.edu/coca/>.
- Dawn, April. (2014, January 22). Candy crush: you'll never believe what kids are snoring. The Source. Retrieved from <http://thesource.com/2014/01/22/candy-crush-youll-never-believe-what-kids-are-snorting/>
- Harper, Douglas. (2014, February 10). <http://www.etymonline.com>.
- McFedries, Paul. (2014, February 14). <http://www.wordspy.com/>.
- Smarties (wafer candy). In Wikipedia. Retrieved February 13, 2014, from [http://en.wikipedia.org/wiki/Smarties_\(wafer_candy\)](http://en.wikipedia.org/wiki/Smarties_(wafer_candy)).

분리동사의 의미 분석과 의미 확장

- {빠다}, {뺏다}를 중심으로

황 순 희

(부산대학교)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분리동사¹⁾ 중 유의성이 강한 {빠다}, {뺏다}의 의미사용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퍼스 분석을 통해 두 유의어 변별을 위한 기술과 자주 공기하는 논항명사의 의미부류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분리동사 사용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빠다}, {뺏다}는 대표적 다의동사로 중첩되는 의미가 많아 사전적 정의와 기술만으로는 그 용법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유의어 기술, 유의어의 변별을 연구 목표로 코퍼스를 활용하여 수행한 연구는 이미 많다. 유현경·강현화(2002), 봉미경(2005), 최준(2011)은 유의어 변별을 위해 코퍼스에 나타난 고빈도 언어, 조사 결합 관계 등을 기초자료로 제시하였고 도재학·강범모(2012)는 대용량 코퍼스에 나타난 관련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의어 사용 양상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남길임(2014)는 코퍼스에 나타난 인내동사의 사용 경향성을 논항 정보, 문법 범주의 공기관계에서 분석하였다.

한편 유의어 연구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 방법은 인지언어학적 접근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어 다의동사의 확장 의미와 의미구조를 분석한 연구에 주목할 수 있다. 김송원(1986), 신현숙(1995), 이건환(2002), 변영수(2007), 장영숙(2007), 정병철(2007), 오현정(2010), 김옥녀(2012) 등을 비롯하여 역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다의동사의 원형의미(prototypical meaning)와 확장의미(extension meaning)를 분석하여 두 의미 간의 상호관련성을 설명하고, 다의어 생성 및 해석과 관련된 어휘 의미의 유연성을 인지의미론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유의관계의 증거를 코퍼스에서 찾는 데는 점에서는 선행 연구와 공통점이 있지만 {빠다}, {뺏다}와 같은 분리동사를 분석한 연구가 없고, ① {빠다}, {뺏다}의 유사의미가 공기하는 논항명사의 의미부류를 분석하여 두 동사 간 유의성을 파악하고, ② 의미 확장 양상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빠다}, {뺏다} 사용 시 용법의 혼동과 잦은 오류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적 성격의 연구이다. 참고로 {빠다}, {뺏다} 용법의 혼동과 잦은 오류는 동작 개념 습득의 미숙함과 어휘 습득 발달기를 거치고 있는 아동군(황순희·최진남, 2014)과 어휘의미 해체(degradation)를 겪고 있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군(황순희·최진남, 2013)에서 관찰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빠다}, {뺏다}의 유의성 분석을 통해 용법상의 혼동과 오류를 설명할 수

1) 이 연구에서 분리동사(separation verbs)는 [분리], [절단], [분할], [제거], [분쇄]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총칭적 동사를 의미한다. [분리], [절단] 등의 표기는 '분리', '절단' 등의 구체적 동작, 행위와 관련된 개별 동사의미를 포괄하는 상위언어(meta-language)을 의미하며 개별 동사의 표시는 집합 표시({ })를 사용한다.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세부 목표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빼다}, {뽑다}의 사전적 정의와 기술을 1차 자료로 분석하여 원형의미, 기본의미를 추출해보고 두 동사 간의 의미 구조와 연관성을 분석한다. 둘째, 21세기 세종계획 현대국어 문어 형태분석말뭉치(이하 <세종 문어>) 1,000만 어절에 추출된 {빼다}, {뽑다}의 용례를 전수 검토하여 ① 빈도에 따른 개별의미 사용 양상을 추출하고, ② 유사의미를 추출하여 공기명사 의미부류를 분석해보며, ③ {빼다}, {뽑다}의 확장의미를 분석하여 의미 확장의 양상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빼다}, {뽑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변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세종 문어>에서 추출한 {빼다}, {뽑다}의 용례로 {빼다} 1,462개, {뽑다} 1,301개 문장이다.

2. {빼다}, {뽑다}의 의미 비교

2.1. {빼다}, {뽑다}의 사전적 의미

{빼다}, {뽑다}의 의미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과 <연세한국어사전(이하, 연세)>는 세부적인 의미 기술과 다의 분할에 차이가 있으나 큰 틀은 유사하다. {빼다}에 대해 <표준>은 3개의 의미항목 아래 12개 세부의미와 2개의 관용구로 구분하였고, <연세>는 3개의 의미항목 아래 20개 세부의미와 9개의 관용구로 구분하였다. <연세>가 <표준>보다 더욱 세밀하게 의미를 구분하고 있으며 <연세>에만 등재된 개별의미도 있다. {뽑다}에 대해 <표준>은 2개의 의미항목 아래 10개 세부의미로 구분하였고, <연세>는 1개의 의미항목 아래 17개 세부의미와 1개의 관용구로 구분하였다. 역시 <연세>가 <표준>보다 더욱 세밀하게 의미를 구분하였다. 두 사전의 의미 기술을 공통의미와 개별의미로 나눠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지면 관계상 관용적 의미는 생략한다.

<표 1> {빼다}, {뽑다}의 사전적 의미기술

의미	번호	빼다	번호	뽑다
공통의미	1	속에 들어있거나 끼여있거나, 박혀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게 하다.	1	박힌 것을 잡아당기어 빼내다.
	2	전체에서 일부를 제외하거나 덜어내다.	2	속에 들어있는 기체나 액체를 밖으로 나오게하다.
	3	긴 형태의 물건을 뽑아내다.	3	원료나 재료로 길게 생긴 물건을 만든다.
	4	저금이나 보증금 따위를 찾다.	4	무엇에 들인 돈이나 밑천 따위를 도로 거두어들이다.
	5	셋방 따위를 비우다.	5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내다.
	6	일정한 공간 속에 갇혀있는 공기나 물·바람 따위를 밖으로 나오게 하다.	6	길게 늘리어 솟구다.
	7	때나 얼룩 따위를 물이나 약품 따위로 빨거나 씻어 없애다.	7	소리를 길게 내다.
	8	힘이나 기운 따위를 몸에서 없어지게 하다.	8	나쁜 생각이나 버릇을 털어 없애다.
	9	살 따위를 줄이다.		
	10	목을 길게 뽑아 늘이다.		
	11	목소리를 길게 늘이다.		
	12	꼭 그대로 물려받다.		

개 별 의 미	표 준		9	힘이나 기운 따위를 드러내어 쓰다.	
			10	운동 경기 따위에서 점수를 얻다.	
	연 세	13	(일정한 값이 될 만한 돈을)남기다.	11	(안에 있는 음식물을) 밖으로 나오게 하다.
		14	(몸을) 여러 사람 사이에서 뒤쪽으로 옮기다.	12	(계산서를) 만들다.
		15	(무엇을) 뒤쪽으로 자리를 옮기다.	13	'아이를 낳다'의 속된말.
		16	무엇을 몰래 훔치다, 가로채다.	14	인화하거나 인쇄하다.
		17	(어떤 집단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다.	15	누구를 그대로 닮다.
		18	[주로 '빠지않고'의 꼴로 쓰이어] 거르거나 그냥 넘기다.	16	(차를) 새로 사다.
		19	어떠한 태도를 취하다.	17	[주로 '뺨아'의 꼴로 쓰이어] 옷차림을 말쑥하고 반지르르 하게 하다.
		20	옷차림을 말쑥하고 반지르르하게 하다.		
		21	(무슨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참가하지 않다.		
		22	(다른 곳으로)도망가다.		

‘…에서 …을’을 논항으로 취하는 {빠다}, {뺨다}는 기본의미만 놓고 보면 {빠다}는 ‘속에 들어 있거나 끼여 있거나, 박혀 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게 하다’<표준>, ‘(박혀 있거나 끼워 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게 하다’<연세>를 뜻한다. 또한, {뺨다}는 ‘박힌 것을 잡아당기어 빼내다’<표준>, ‘(박혀 있거나 꽂혀 있는 것을) 잡아당기어 나오게 하다’<연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빠다, 뺨다}의 기본의미는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을 대상에 가하여 안에서 밖으로 이동시킴’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의미가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출발점(source)을 표시하는 ‘에서’ 명사구와 공기할 수 있다.

다의동사 {빠다}, {뺨다}를 <표준>, <연세>의 의미기술을 바탕으로 뜻풀이 구성 방식 특징과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은 격률정보와 통사적 패턴을 제공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의미를 구분한 반면 <연세>는 통사적 패턴과 관계없이 의미를 분류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사전 의미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미는 첫 번째 실린 의미이다. 사전에 실린 첫 번째 의미를 ‘중심 뜻’으로 보며 나머지 의미는 ‘변두리 뜻’으로 본다(허웅, 1981, 207; 신현숙, 1995: 188에서 재인용). 또한, 사전의 의미 기술 순서는 일반적인 것, 어원에 가까운 것부터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익환, 1992). 따라서 우리는 두 사전이 제시하는 첫 번째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빠다}는 ‘속에 들어있거나 박혀있는 것을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다’, {뺨다}는 ‘박힌 것을 잡아당겨 빼내다’로 기술한다. 그리고 {빠다}, {뺨다}에 대해 두 사전이 제시한 원형의미에 대한 기술과 해석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동사 모두 첫 번째 의미에 {사람}이나 {동물}이 동작의 주체, 행위주로 실렸다.

그러나 사전 의미만으로는 다양한 문맥에 사용된 동사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의미 확장 과정을 밝히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코퍼스를 기초로 다양한 다의 용법을 확인하고 원형의미를 설정할 것이다. 원형의미란 문맥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핵심 의미를 뜻한다. 따라서 위 사전정의를 기초로 두 동사의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의미, 원형적 문맥에 사용된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의미 확장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두 동사의 의미를 변별하고자 한다.

2.2. 용례 분석과 의미 분포

{빠다}, {뺏다}의 의미 분포를 편의상 고빈도 순으로 상위 10위까지 보면 <표 2>와 같다.

{빠다} 의미 중 가장 높은 출현 빈도 의미는 ② ‘전체에서 일부를 제외하거나 덜어내다’로 원형의미로 보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동작과 이동의 단계를 거쳐 추상적 행위(제외하다, 제거하다)의 뜻으로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뺏다}는 ⑤ ‘여럿 가운데 골라내다’가 고빈도 1위 의미로 구체적 행위에서 직접 추상적 행위로 확장된 의미(고르다, 선택하다)의 뜻이다.

<표 2> {빠다}, {뺏다}의 고빈도 출현 의미

순위	{빠다}			{뺏다}		
	의미번호	빈도	백분율	의미번호	빈도	백분율
1	2	616	42.13	5	524	40.27
2	1	194	13.26	1	409	31.43
3	6	100	6.83	2	65	4.99
4	14	84	5.74	10	62	4.76
5	9	58	3.96	7	60	4.61
6	8	56	3.83	8	47	3.61
7	10	51	3.48	3	33	2.53
8	26	31	2.12	11	31	2.38
9	11	28	1.91	4	20	1.53
10	4	24	1.64	6	12	0.92

{빠다}를 고빈도 상위 5개 의미만 다시 살펴보면 1위는 ②로, 논항명사로 [+구체성], [+추상성]을 가진 다양한 속성의 명사가 올 수 있다. 2위인 ①은 {빠다}의 구체적 이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원형의미로 볼 수 있다. 코퍼스 분석 결과 단 1건의 용례를 제외한 모든 예에서 [+구체성]인 논항명사만 출현하였다. 3위인 ⑥은 ‘일정한 공간 속에 갇혀있는 액체, 기체를 밖으로 이동’시키는 뜻으로 [+액체]인 명사가 대부분 공기하였다.

4위는 ⑭로 ‘몸을 뒤쪽으로 옮기다’로 이는 동작의 대상이 {구체물}에서 {몸}으로 의미가 확장된 경우이다. 목적어로 주로 [+신체]인 논항명사가 공기하며 {몸}을 비롯하여 {엉덩이, 다리, 손, 발, 손목, 발목, 상체, 하체, 얼굴, 몸뚱이, 허리} 등이 출현하였다. 5위는 ⑨로 ‘살 따위를 줄이다’의 의미로 논항명사로 {살, 군살, 뱃살, 볼살, 체중, 몸무게}가 출현하였다. 이상의 용례 분석을 통해 {빠다}의 의미는 물체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동과 관련이 있고 이를 기초로 의미 확장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뺏다}의 의미도 고빈도 상위 5개만 살펴보면 1위는 ⑤로 [선택]의 의미이다. 이것은 두 사전에 실린 첫 번째 의미와 맞지 않으며 원형의미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⑤에 사용된 논항명사의 상당수가 {사람}(76.33%)인 것을 감안하면 {구체물}에서 {사람}으로 의미 확장이 일어난 단계라 할 수 있다. 2위인 ①은 ‘박힌 것을 잡아당기어 빼내다’로 원형의미에 해당한다. 논항명사는 {구체물}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다음으로 {추상물}이다. 3위는 ②로 ‘속에 들어있는 기체나 액체를 밖으로 이동시키다’를 의미한다. 특징적으로 논항명사의 상당수는 액체 중 {피}인 논항명사를 선호한다. 4위는 ⑩으로 ‘운동경기 따위에서 점수를 얻다’를 의미한다. 논항명사로 {점, 골, 결승골, 동점골, 선취점, 선제골, 최다골, 만회골, 추가점, 결승점, 안타} 등이 출현하였다. 역시 대상명사가 {추상물}로 의미

가 확장된 경우이다. 5위인 ⑦은 ‘소리를 길게 내다’이다. 논항명사로 소리와 관련된 {노래, 유행가, 가락, 곡, 고함, 소리, 목청, 곡조} 등을 비롯하여 {울음, 언성, 비명소리, 한숨, 하품} 등이 출현하였다. 이처럼 용례 분석을 통해 {뿔다}의 의미 역시 ‘실체가 공간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물체의 이동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빠다}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실제로 관련 예문에서 {빠다}, {뿔다} 간 상호치환이 의미 변화 없이 가능하다.

2.3. 유사의미와 의미적 선호

본 절에서는 {빠다}, {뿔다}의 의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두 사전에 기술된 의미 중 유사의미로 보이는 의미와 용례를 대상으로 공기명사의 의미부류를 분석한다. {빠다}, {뿔다}의 의미 중 유사의미로 판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표 3> {빠다}, {뿔다}의 유사 의미

번호	{빠다}	번호	{뿔다}
1	속에 들어 있거나 끼여 있거나, 박혀 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게 하다.	1	박힌 것을 잡아당기어 빼내다.
3	긴 형태의 물건을 뿔아내다.	3	원료나 재료로 길게 생긴 물건을 만든다.
4	저금이나 보증금 따위를 찾다.	4	무엇에 들인 돈이나 밀친 따위를 도로 거두어들이다.
6	일정한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공기나 물·바람 따위를 밖으로 나오게 하다.	2	속에 들어있는 기체나 액체를 밖으로 나오게 하다.
8	힘이나 기운 따위를 몸에서 없애지게 하다.	9	힘이나 기운 따위를 드러내어 쓰다.
10	목을 길게 뿔아 늘이다.	6	길게 늘리어 솟구다.
11	목소리를 길게 늘이다.	7	소리를 길게 내다.

<표 4>는 위의 의미에 해당하는 용례를 대상으로 논항명사의 의미부류를 분류해 본 결과이다.

<표 4> {빠다}, {뿔다}의 공기명사 의미부류

빈도(백분율%)

의미 번호	동사	공기명사 의미부류					
		구체명사				추상명사	
		일반 명사	액체	기체	신체 부위	추상 명사	소리
1	{빠다}	193(99.48)				1(0.51)	
1	{뿔다}	402(98.28)				7(1.71)	
3	{빠다}	3(100)					
3	{뿔다}	33(100)					
6	{빠다}		75(70.75)	31(29.24)			
2	{뿔다}		62(95.38)	3(4.61)			
10	{빠다}				51(100)		
6	{뿔다}				12(100)		
11	{빠다}						28(100)
7	{뿔다}						60(100)

{빠다}①과 {뿔다}①의 공기명사는 대부분 [+구체성]인 구체물이다. {빠다}, {뿔다}의 원형의미는 ‘속에 들어있거나 박힌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구체적 이동과 관련이 있기 때

문에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빼다}①의 공기명사는 대부분 구체물({기저귀, 책, 사진...}), 신체부위({손, 손톱, 손가락, 혀...}), {내장(음식물), 이빨, 알갱이, 알맹이, 씨} 등이 출현하며, 특히 길쭉한 형태의 구체물({못, 침, 칼, 총, 화살, 플러그, 코드, 실, 실밥, 담배, 담뱃대, 기둥, 비너...}) 등의 다양한 의미 속성을 갖는 명사가 출현한다. 한편 {빼다}①에서 {사람}이 대상인 경우도 있다.

- (1) a. 신고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서에서 빼오지도 않았어.
 b. 들관길이나 산모퉁이 길이나 버스 속 같은 데에서 **아기**를 빼서 내던져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그 사람을 붙들어와야겠다고 그녀는 이를 물었다.

위 예는 {경찰서, 버스, 국회}에서 {사람}을 나오게 하다는 의미로 은유를 통한 의미 확장이 일어난 예이다. 이 경우 {뽑다}①과의 치환은 불가능하다. 다음 예는 대상이 [+추상성]인 추상명사이다.

- (2) 사관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 대학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교과서를 외우고 있는 동안 그들은 생피가 뚝뚝 떨어지는 **삶의 이력**을 아무 갈피에서나 빼 들었다.

한편 {뽑다}①의 용례에서도 대상은 대부분 [+구체성]인 구체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뽑다}①이 {빼다}①과 모든 경우 치환이 가능할 것 같으나 {뽑다}하고만 공기하는 명사 부류가 따로 있다. ㉠ {잡초, 풀, 꽃, 뿌리, 배추, 인삼, 모, 무, 나무, 줄기} 등의 식물류, 나무류, ㉡ {털, 머리카락, 새치, 수염} 등의 털, ㉢ 일반명사로 {활자, 돈, 신문}, ㉣ 추상명사 {향기, 세포조직, 역주, 에네르기, 시선, 정통의 맥}, ㉤ {빼, 불길} 등이다. 이를 통해 {뽑다}의 의미영역이 더 넓음을 알 수 있다. {뽑다}① 만이 공기할 수 있는 ㉠, ㉡ 류는 특정 지점에 '박힌 것' 중에서도 [+자연물]이다.

- (3) a.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농부의 생각을 들어보자.
 b. 쪽집게로 **앞머리**를 뽑았다.
 c. 얼굴은 골주름이 뚜렷했고 등은 **활자**를 뽑느라 휘우듬히 굽었다.
 d. 그러나 그는 여전히 노트북에 박은 **시선**을 뽑지 않는다.

{빼다}③과 {뽑다}③은 '긴 형태의 물건을 뽑아서 무언가를 만들다'로 공기명사는 대부분 길쭉한 형태를 지닌 원료, 재료가 되는 물건인 명사이다. 사용 빈도만 놓고 보면 {뽑다}의 용례가 훨씬 많으며 {빼다}③ 용례에는 {국수}가 단 3번 사용된 반면, {뽑다}③은 {국수, 면, 떡}과 특히 {실}이 사용된 용례가 많다. 반면 {실}과 공기한 {빼다}③의 용례는 없다. 이를 통해 {뽑다}의 의미영역이 더 넓음을 알 수 있다.

- (4) 간디 선생은 언제나 저 물레로 **실**을 뽑아 천을 짜 입었다는 것이다.

{빼다}⑥과 {뽑다}② 간에는 상당한 의미중첩이 있다. {빼다}⑥은 대부분 [+액체]인 경우와 공기하며 {뽑다}② 역시 [+액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징적으로 {뽑다}②는 {피}를 공기명사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빼다}⑥은 {물, 피, 눈물, 땀, 육수, 휘발유, 가래}, {바람, 김, 스프레이, 에어, 공기, 김}과, {뽑다}②는 {피, 윤활유, 양수, 육수, 석유, 바닷물,

진액, 수분, 수액, 즙, 물, 눈물} 등과 공기한다. 다음 예에서 '피를 뿔다', '땀을 빠다'는 각각 은유를 통해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경우이다.

- (5) 구차한 사람의 **피를 뿔다** 잘 사는 사람의 비대한 몸뚱이에 보혈을 하려고 발버둥치는 모리배가 공존하는 세상...
- (6) 아이들을 조용하게 하느라고 선생들이 **땀을 뿔다**.

{빠다}⑩과 {뿔다}⑥은 주로 신체 기관을 '안에서 밖으로 길게 늘여 이동'시킴을 의미한다. 빈도만 보면 {빠다}의 사용 빈도가 더 높다. {빠다}⑩의 공기명사는 {목}을 비롯하여 {모가지, 고개, 머리, 대가리, 얼굴, 코, 혀} 등으로 주로 목 위쪽 신체기관 명사이다. 반면 {뿔다}⑥은 {고개, 목, 허리} 등의 다양한 부류의 명사가 추출되었다. 이로서 {뿔다}의 의미 영역이 더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 (7) 나는 개찰구에서부터 **목을** 길게 빼고 두리번거리며 마중 나와 있을 큰땃 식구들을 찾았다.
- (8) 오드바이는 **허리를** 쪽 뿔더니만 '혹!'하고 단번에 개천을 뛰어 건넜다.

{빠다}⑪과 {뿔다}⑦은 역시 구체물을 안에서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에서 착안하여 '소리를 몸속에서 밖으로 길게 늘여 이동시키다'를 뜻한다. 빈도는 {뿔다}⑦이 더 높으며 두 동사 모두 {소리}와 관련된 명사를 선호한다. {빠다}⑪의 공기명사는 {목소리, 소리, 목청, 음성, 말, 말꼬리, 노래, 어조, 후렴구, 게트림} 등, {뿔다}⑦은 {노래, 고함소리, 울음, 곡조, 곡, 리듬, 유행가, 가락, 염불, 목소리, 목청, 언성, 비명, 한숨, 하품, 한숨, 배기음} 등을 허용한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나 {뿔다}⑦은 {울음, 언성, 비명소리, 한숨, 하품} 등의 좀 더 다양한 명사부류까지 허용한다는 점에서 {뿔다}⑦의 의미영역이 더 넓다.

3. {빠다}, {뿔다}의 의미 확장

3.1. 의미구조와 원형의미

분리동사가 포함된 분리동사 구문에는 최소한의 필수 성분들이 필요하다. 분리동사는 타동사이므로 주어와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문장에 따라 도구(instrument)는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빠다}, {뿔다}를 구성하는 구문에서 주어는 행위를 일으키는 행위자(agent),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을 받는 대상(patient) 역할을 하며 동작이 일어나기 전의 기점인 출발점(source)이 실현되기도 한다. {빠다}, {뿔다}가 구성하는 구문은 행위자, 대상, 출발점, 도구 등이 참여자(participant)¹⁾가 되어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산출하게 된다. {빠다}, {뿔다}의 의미 구성요소는 ① 이동하기 전 부착된 출발점(X), ② 주어 기능을 하는 항(S), ③ 이동되는 대상(O)의 세 가지 요소이다. {빠다}, {뿔다}의 기본적인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참여자의 역할은 Taylor(2002: 467-469)에 근거한다. 참여자로는 행위자(agent), 대상(patient), 도구(instrument), 출발점(source: 장소, 근원, 목표, 경로 등), 경험자(experience), 자극(stimulus) 등이 제시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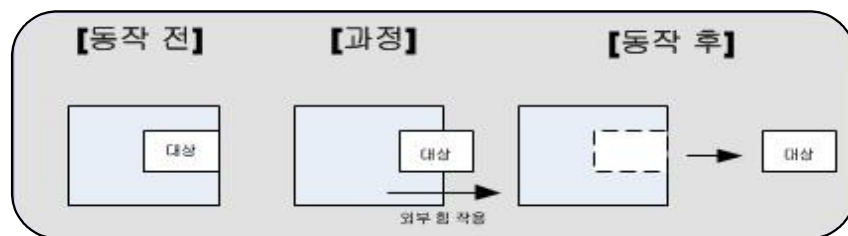
(9) 주어 (S)는 출발점 (X)-에서 대상 (O)을 {빼다, 뺏다}

어휘는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개별적인 문맥 또는 상황에 사용되면서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 원형의미는 특정 어휘의 가장 원형적인 문장에서 파악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의미를 말한다. 반면 확장 의미는 원형의미의 인접성, 유사성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의미를 뜻한다. 이러한 근거들과 사전 정의문 기술순서를 고려할 때 {빼다}, {뺏다}의 원형의미 역시 {사람}에서 출발한다. 사전의 의미기술 시 어원에 가까운 것 즉 기본 의미를 첫 번째 항목으로 선정하여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형은 그 범주를 대표할 만한 가장 '전형적이고, 적절하며, 중심적이고, 이상적인' 좋은 보기를 의미한다. 즉 원형은 한 범주의 가장 좋은 본보기이다(임지룡, 1997: 64-65). 일반적으로 행위를 야기시키는 행위자로는 {사람}이 올 때 가장 전형적이며, 행위자의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구체적인 {사물}일 때가 가장 전형적이다. 따라서 {빼다}, {뺏다}의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은 행위자가 대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한 후 대상이 어떤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것으로 원형의미가 실현된 예는 다음과 같다.

(10) 치과에서 사랑니를 {뺐다, 뽑았다}.

그런데 {빼다}, {뺏다} 공히 출현빈도수가 가장 높은 의미는 사전에 기술된 첫 번째 의미가 아니다. 이점은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의 빈도적 비대칭성, 즉 언어사용에서 원형의미는 확장 의미보다 더 자주 사용된다는 논의(임지룡, 1998)와는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사전 의미기술에서 '속에 들어 있거나 끼워있는 것, 박혀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게 하다'는 의미를 첫 번째 항목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분명 {빼다}, {뺏다}의 원형의미를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반면 구체적인 용례를 분석한 결과 의미 빈도수는 다의어 의미 확장 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유의관계를 변별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빼다}는 '외부로부터 힘을 가하여 물체를 안에서 밖으로 이동'시키는 동작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물체의 '이동'은 공간과 움직이는 개체 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개념으로 이동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실체가 공간속에서 나오는 것(출발), 둘째는 실체가 공간속으로 들어가는 것(도달), 셋째, 실체가 어떤 공간을 통과하는 것(통과), 넷째, 실체가 어떤 공간을 여러 번 왕복하는 것(왕복) 등이다(이수련, 2001: 53). 이중 {빼다}는 첫 번째 유형인 실체가 공간속에서 나오는 것에 해당된다. <그림 1>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빼다}, {뺏다}의 의미도식

한편 {뺏다}의 의미 역시 '실체가 공간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동과 긴밀한 관련이 있

다. 이러한 특징은 {빼다}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실제로 관련 예문에서 {빼다}, {뽑다} 간 상호치환이 의미 변화 없이 가능하다. {뽑다}의 의미개념 도식 역시 {빼다}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의미 확장 양상

본 절은 {빼다}, {뽑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고찰한다. 앞에서 원형의미로 설정한 {빼다}①, {뽑다}②를 제외하고 각각의 다의의미를 살펴본다.

{빼다}②는 '전체 중 일부를 밖으로 이동시키다'의 의미로 {제거하다, 감소하다, 제외하다}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빼다}⑤는 방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밖으로 이동시켜 공간에 변화를 가져온다. 원형의미와 관련이 있다. {빼다}⑦은 {때, 얼룩}을 없애기 위해 외부의 직접적인 힘을 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류 성분에 포함된 이물질이 분리되게 얼룩이나 때를 이동시킨다는 의미이다. 확장 의미 ②와 관련이 있다. {빼다}⑨는 역시 외부의 힘이 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살을 몸 밖으로 이동시킨다는 연상의미를 이용하여 {체중을 줄이다, 감량하다}를 의미한다. 확장 의미 ②와 관련이 있다. {빼다}⑮는 '사물을 뒤로 이동시키다'의 의미로 대상이 또 다른 대상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을 바깥쪽, 특히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의미이다. 원형의미와 관련이 있다. {빼다}⑯은 {물건, 돈} 등을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의미로 {훔치다, 가로채다}를 뜻한다. 이러한 이동은 소유의 변화로 이어지며 대개 이러한 이동이 타인 몰래 이루어진다. 원형의미와 관련이 있다.

한편 {뽑다}의 의미 확장 양상은 다음과 같다. {뽑다}④는 {돈, 밀친}을 투자한 곳으로부터 이동시켜 {거두다, 거두어 들이다}를 의미한다. {뽑다}⑤는 여러 대상 중 {선택하다, 고르다}를 의미한다. {뽑다}⑧은 주로 '부정적인 개념, 버릇, 생각' 등을 밖으로 이동시켜 {없애다, 제거하다}를 의미한다. {빼다}②의 확장 의미와 관련이 있다. {뽑다}⑩은 운동경기와 관련하여 점수를 {얻다}로 '이동'이라는 원형의미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확장 의미이다. {뽑다}⑪은 기계 안쪽에 있는 음식물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의미이다. 원형의미와 관련이 있다. {뽑다}⑭는 사진을 {인화하다, 인쇄하다}는 필름 또는 콘텐츠를 밖으로 이동시켜 사진 형태로 만든다는 확장 의미이다. {뽑다}⑯은 신차를 {구매하다}로 안(자동차 회사)에서 밖으로 자동차를 이동시킨다는 확장 의미이다.

4. 결론

이 연구는 분리동사 유의어인 {빼다}, {뽑다}의 의미적 경향성과 변별을 목적어 논항의 의미적 선호와 의미 확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말뭉치를 활용한 언어 관계 분석, 유의어군의 의미 변별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또한, 다의동사의 의미 확장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여러 연구가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같은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나, 논항 명사의 의미부류와 의미 확장 등을 활용하여 {빼다}, {뽑다}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Selected References

- 김송원. 1986. 동사 '풀다'의 의미 고찰-기본 의미와 변화의 모습. 「한글」 193, 121-138.
- 김옥녀. 2013. 「LCCM 이론에 입각한 국어 다의동사의 의미 분석과 의미구성 탐색」.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남길임. 2014. 언어 사용의 경향성과 유의어의 기술: 인내동사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3, 59-82.
- 도재학, 강범모. 2012. 관련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의어 분석: '책, 서적, 도서'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7, 131-157.
- 변영수. 2007. '오르다'의 의미 확장 연구. 「겨레어문학」 39, 5-39.
- 봉미경. 2005. 국어 형용사의 유의관계 유형. 「언어사실과 관점」 14, 99-135.
- 신현숙. 1995. 동사 {앉다/서다/눕다}의 쓰임과 의미 확장. 「한글」 227, 185-214.
- 오현정. 2010. 동사 '걸다'의 인지의미 연구. 「한국어 의미학」 32, 141-168.
- 유현경, 강현화. 2002. 유사관계 어휘 정보를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 244-246.
- 이건환. 2002. 동사 '잡다'의 의미확장. 「언어과학연구」 22, 159-184.
- 이수련. 2001. 「한국어와 인지」. 서울: 박이정.
- 이익환. 1992. 국어사전 뜻풀이와 용례. 「새국어생활」 2.1, 30-54.
- 임지룡. 1998. 다의어의 비대칭 양상 연구. 「언어과학연구」 15, 309-331.
- 장영숙. 2007. '놓다' 구문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한국어 의미학」 24, 215-241.
- 정병철. 2007. 다의동사 '잡다'의 인지적 접근에 의한 사전 처리 연구. 「한국어 의미학」 24, 243-273.
- 최준. 2011. 경험동사의 의미적 운율 연구. 「한국사전학」 18, 209-226.
- 황순희, 최진남. 2013.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의 동사 사용 양상 분석. 「언어과학」 20.3, 143-173.
- 황순희, 최진남. 2014. 한국어-프랑스어 이중언어 아동과 한국어 단일언어 아동의 동사 사용 사례. 이중언어학회 발표논문집.
- Taylor, John R. 2002. Cognitive Grammar[임지룡, 김동환 옮김. 2005. 「인지문법」. 서울: 한국문화사].

Marked Constructions and GbF Model

Byeongkil Ahn
(GN tech)

Questions?

To account for marked/non-canonical constructions through Ground-before-Figure Model.

- a. Turn left on Brinbridge. Then right on your left will be a church. Just buzz.
- b. It is John that has been working on the project for five years

- c. What I did was lose the keys.
- d. The mayor's present term of office expires Jan. 1. He will be succeeded by Ivan Allen Jr...
- e. A : Do you watch football?
B : Yeah. Baseball I like a lot better.

Theoretical Framework

? Rong Chen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http://mirror.enha.kr/wiki/%EC%B0%A9%EC%8B%9C>

? <http://raycat.net/1758>

? http://carmel.kr/Car_Story/8995

? <http://www.koreata.or.kr/technote7/board.php?board=kkkta&command=body&no=7>

? Basis : Gestalt of figure and ground



? Basis : Gestalt of figure and ground



? Basis : Gestalt of figure and ground



? **Conditions :**

A. Ground is anchorable

(1) You can see trees, clouds, a building and a lightning rod.

Right above the rod is a cloud looking like a rabbit

ground

figure

(2) The ground is anchorable with a landmark that is established "most often in the previous linguistic context or sometimes in the discourse context.

☞ Linguistic context : refer to what has been said before

☞ Discourse context : Shared knowledge

ex. *In the yellow plateau of **China** live a million Chinese.*

Marked Constructions by GbF Model

A. Inversion

- (1) This appendix lists pieces excluded by Auden from his Collected shorter Poems, although published in his earlier volumes. Not listed are poems published only in periodicals, ...
- (2) *Listed are not poems published only in periodicals, or in privately printed pamphlets such as the 1928 Poems printed by Steven Spender

B. It-cleft

- (3) a. In Matthew's account, it is John himself who raises the issues and makes clear that he knows.
- b. It is in the nature of biology that the same disease process will cause different problems in different people.

C. Wh-cleft

- (4) a. I didn't invite anybody else from The Sopranos' cast. What I did is invite two people that I think would be thrilled to march.
- b. Well, I think what he means is that there would be an entity, a regulatory unit that would have the authority to sort of do...

D. Passivation

- (5) a. Susan Hamilton had been strangled and brutally beaten in her bathroom. Her naked body was discovered by her husband, John.
- b. He said that as God listened to even the meanest sort of person when they prayed, the king's prayers were given special attention by God and so James would not withhold them from his people.

E. Topicalization

- (6) A : You know this album?
B : This song I know.
- (7) a. Someone broke into garage last night. *My father I need to talk to.
b. I'm really tired tonight. *Maybe a movie I'll rent.

Conclusion

제4발표

**2014 Summer Conference Co-hos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Language Sciences
and The Linguistic Science Society**

Correlation between Reference and Non-reference Approaches to Identifying Significant Technical Vocabulary

August 21, 2014

**Sungmin Lee & Se-Eun Jhang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Pusan National University

1

1. Introduction

1.1 The purpose of this study

- To examine quantitative methods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there is any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reference and non-reference approaches to identify technical vocabulary in a specialized for developing a vocabulary service list for learners of Maritime English.
- First, to compare a reference approach to keyword networks in corpus linguistics (e.g., Scott (1997)) with non-reference approach to keyword networks which incorporates corpus data into SNA (e.g., Brin and Page (1998)), in the top 20 ranked keywords.
- Second, to look at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reference and non-reference including a traditional approach (e.g., Coxhead (2000)) in the whole vocabulary lists.

1.2 Research Questions

- In the two different keyword analyses, how do we obtain keywords and their collocates from the Maritime English Corpus built for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
- What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results of log-likelihood as a reference method and those of PageRank algorithms as a non-reference method?
- Is there any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reference and non-reference approaches including a traditional approach identifying technical vocabulary?

3

2. Previous Studies

2.1 Vocabulary Studies

- Stevens (1991): Using a small corpus of physics textbook, the students were tested on vocabulary knowledge by either a traditional text gap-fill or four gapped concordance lines.
- Mparutsa et al.(1991): using a corpus compiled from economics, geology, and philosophy, let students type key vocabularies and students read and find conceptual meaning of specialist terminology. The study uses computers for students who had never worked with computers. The learners show active and reflective in learning reading.
- Aston (1997): Investigated how students learn with electric articles such as *New Scientist* for translation students. Using a MicroConcord tool, learners seek to find generalised language rules in corpus data.

2.2 Language Networks

- In corpus linguistics, McEnery's (2006) networks of keywords linked through common collocates; Beavan's (2008) collocate clouds; Williams' (1998) collocational network visualization in a dictionary; Stuart and Botella's (2009) knowledge networks using keywords and clusters. More recently Jhang and Lee (2013)'s visualization of collocational networks of near-synonyms in Maritime English.
- In the field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Mihalcea and Tarau (2004)'s graph-bas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information retrieval to extract keywords and key sentences. Litvak and Last (2008)'s a graph-based approach for keyword extraction. They applied the HITS algorithm using the unsupervised way

3. Data and Methodology

3.1 (1) Statistical Data of the Two Corpora

Statistics		MECO	BNC Baby
Text file		98	182
Tokens (running words) in text		1,527,703	4,009,235
Standardised type/token ratio		35.9	41.5
Sub-corpora (token)	Academic prose	551,120	1,031,436
	Periodicals	276,211	984,102
	Documents	573,824	1,035,914
	Spoken	126,546	957,783

(2) Statistical Data of Technical Vocabulary Extraction

N	text file	file size	tokens (running words) in text	tokens used for word list	types (distinct)	type/token ratio (TTR)	standardised TTR
1	Overall	24,310,912	4,002,258	3,811,269	28,715	0.75	34.28
2	1_IMO.txt	12,093,600	2,019,001	1,876,073	10,320	0.55	28.77
3	2_Academic.txt	3,830,614	601,824	581,252	11,619	2.00	38.38
4	3_MEDIA.txt	4,794,147	770,912	757,123	14,208	1.88	43.11
5	4_Text Book.txt	2,235,219	372,206	360,568	12,544	3.48	38.36
6	5_SPOKEN.txt	1,357,331	238,315	236,253	8,544	3.62	35.76

7

3.2 Methodology

3.2.1 Methodology for Keywords Extraction

- The statistics we used for keywords extraction is from Dunning's (1993) log-likelihood test.

$$-2 \ln \lambda = 2 \sum_i O_i \ln \left(\frac{O_i}{E_i} \right)$$

- The keywords are identified by comparing the patterns of frequency: a positive keyword (indicating plus) which occurs more often than would be expected by chance in comparison with the reference corpus, a negative keyword (indicating minus) which occurs less often than would be expected by chance in comparison with the reference corpus.

3.2.2 Methodology for Collocate Extraction

- For finding statistical collocations of each of the individual keywords, we decided to use Mutual Information (MI) 3 as a statistical measure based on information theory. MI3 is computed as follows: MI3 formula (Oakes 1998).

$$I(x, y) = \log^2 \frac{P(x, y)^3}{P(x)P(y)}$$

- Fifty collocates were selected to each keywords to create collocational networks and compare the orders between reference and non-reference methods.

3.2.3 Correlation coefficient

- We computed their relationship by using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r = \frac{\sum_{i=1}^n ((x_i - \bar{x})(y_i - \bar{y}))}{\sqrt{\sum_{i=1}^n (x_i - \bar{x})^2 \sum_{i=1}^n (y_i - \bar{y})^2}}$$

- The null hypothesis: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order of keyness and PageRank.
- The alternative hypothesi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order of keyness and PageR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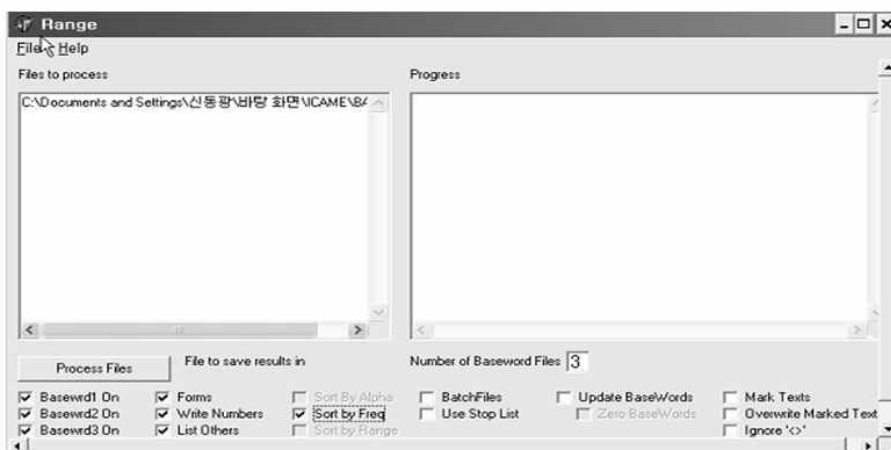
3.2.4 PageRank Algorithm

PageRank is identified by Brin and Page(1998). This is random surfer model, where a user clicks on links at random with a probability d . Parameter V is the score of a vertex and d is a damping factor which is set between 0-1. It is usually set to 0.85.

$$S(V_i) = (1 - d) + d * \sum_{j \in In(V_i)} \frac{1}{|Out(V_j)|} S(V_j)$$

3.2.5 Range Program

- RANGE provides a range or distribution figure, a headword frequency figure a family frequency figure, and a frequency figure for each of the texts the word occurs in (Nation 2005).



4. Result and Discussion

4.1 Keyword Extraction

- 2,888 plus keywords (69%) and 1,241 minus keywords (31%) on the list. Minus keywords start from 2,898 with a -23.96 keyness value.
- a relatively low p-value threshold, 0.000001 (1 in one million), keyness 24.0, to produce more reliable raw data and obtained 4,129 significant keywords

13

The Keyword List Showing 4,129 Lexical Items

N	Key word	Keyness	Freq.
1	SHIP	11280.21	4944
2	SHIPS	8922.49	3632
3	VESSEL	8412.64	3397
4	MARITIME	8370.77	3296
5	SHALL	6061.78	4050
6	CARGO	5907.97	2406
7	PORT	5470.50	2428
8	VESSELS	5089.23	2087
9	SHIPPING	4764.50	1946
10	IMO	4271.16	1668
11	INTERNATIONAL	4222.23	2539
12	CONVENTION	4134.37	1859
13	OF	3988.16	54378
14	OIL	3507.66	1914
15	SAFETY	3320.39	1836
16	THE	3273.43	100263
17	REGULATION	3175.48	1359
18	MARINE	3048.53	1459
19	TRANSPORT	2688.99	1456
20	CODE	2651.14	1287
21	REQUIREMENTS	2528.05	1262
22	NAVIGATION	2486.06	1019
23	SEA	2349.86	1778
...
2888	ENVISAGED	24.08	31
2898	EMOTIONAL	-23.96	12
...
4128	YOU	-12263.68	3296
4129	I	-13172.79	3492

14

The new keyword's order extracted by PageRank algorithm

Keyword	PageRank	Centrality	In-Degree	Out-Degree	Sum
SAFETY	0.106152		50	13	63
REQUIREMENTS	0.094663		50	1	51
REGULATION	0.08845		50	1	51
INTERNATIONAL	0.059295		50	8	58
CARGO	0.046531		50	7	57
VESSEL	0.041956		50	4	54
IMO	0.041004		50	4	54
MARITIME	0.040288		50	6	56
MARINE	0.035153		50	3	53
CODE	0.034552		50	4	54
SHIPPING	0.033214		50	3	53
SEA	0.030276		50	2	52
SHIP	0.029353		50	4	54
VESSELS	0.02863		50	2	52
CONVENTION	0.02802		50	5	55
NAVIGATION	0.027944		50	1	51
TRANSPORT	0.025257		50	2	52
PORT	0.023204		50	2	52
SHIPS	0.020849		50	18	68
OIL	0.019755		50	3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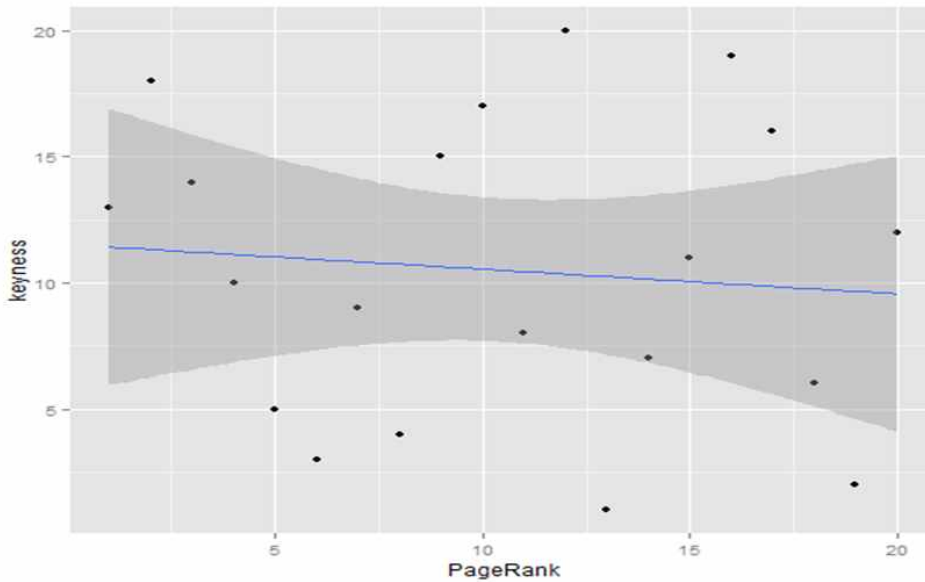
15

4.2 Correlation coefficient

-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ference and non-reference methods in terms of the top 20 ranks.
- Use of a statistical R program (R Core Team , 2012). First, a ggplot2 module for their visualization.

```
library(ggplot2)
data1<-read.delim(file="s.txt", header=T)
ggplot(data1,aes(PageRank,keyness))+geom_point()+geom_smooth(
method = 'lm')
```

Correlation coefficient visualization of orders between the two methods



17

The statistical result of correlation coefficient

Data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Keyness and PageR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 -0.4167$, d.f. = 18, <u>p-value = 0.6818</u> - H_a : true correlation is not equal to 0 -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0.5178 , 0.3603) - sample estimates: <u>cor -0.09</u>

18

- Little correlation coefficient because of approximately -0.09 between the order of **Keyness** and **PageRank**.
- Moreover, p-value (0.6818) mean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may not be significant.
- Since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0.5178 , 0.3603) include 0, the correlation coefficient may be 0.

19

4.3 Comparison of three approaches identifying technical vocabulary

- (1) Coxhead (2000)'s traditional approach to frequency basis
- (2) Scott (1997)'s reference approach to keyness
- (3) Brin and Page (1998)'s non-reference approach to pagerank

Use of **Maritime English Corpus**: 4 million tokens including five sub-genres such as **IMO document**, **academic prose**, **news**, **textbook**, **spoken**.

Two criteria:

- (1) **Selection**: cut-off of the first five thousand vocabulary in each list
- (2) **Range**: words which appear at least three different texts

20

4.3.1 Coxhead (2000)'s Approach

Coxhead (2000) extracted academic word list (AWL) using academic corpus. The study used its criteria such as both frequency and the number of ranges such as 15 out of 28 texts.

WORDLIST	TOKENS/%	TYPES/%	FAMILIES
one	2121/42.37	2110/42.26	888
two	716/14.30	716/14.34	386
three	1097/21.91	1097/21.97	481
not in the lists	1072/21.41	<u>1070/21.43</u>	?????
Total	5006	4993	1755

21

4.3.2 Scott (1997)'s Approach

Scott and Tribble (2006) said that keyword is an ordinary word which happens to be key in a particular text, on the other hand key key word is key in a number of texts.

WORDLIST	TOKENS/%	TYPES/%	FAMILIES
one	1868/37.26	1846/37.02	877
two	659/13.14	659/13.22	411
three	916/18.27	916/18.37	432
not in the lists	1571/31.33	<u>1565/31.39</u>	?????
Total	5014	4986	1720

22

4.3.3 PageRank Approach

Brin and Page (1998)

WORDLIST	TOKENS/%	TYPES/%	FAMILIES
one	1833/36.48	1800/36.16	821
two	595/11.84	595/11.95	343
three	943/18.77	940/18.88	441
not in the lists	1654/32.92	<u>1643/33.01</u>	?????
Total	5025	4978	1605

23

4.4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reference and non-reference in the whole vocabulary lists

4.4.1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oxhead and Keyness

Data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xhead and Key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 13.3546, df = 7082, p\text{-value} = 2.2e-16$ • H_a: true correlation is not equal to 0 •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0.1339, 0.1793) • sample estimates: <u>cor 0.15</u>

24

4.4.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oxhead and PageRank

Data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xhead and PageR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 10.1387$, $df = 7082$, <u>p-value = 2.2e-16</u> • H_a: true correlation is not equal to 0 •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0.09659, 0.1425) • sample estimates: <u>cor 0.11</u>

25

4.4.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Keynes and PageRank

Data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Keyness and PageR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 -6.3733$, $df = 7082$, <u>p-value = 1.966e-10</u> • H_a: true correlation is not equal to 0 •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0.0986, 0.0523) • sample estimates: <u>cor -0.07</u>

26

4.4 A summary of three approaches and their correlation and coefficient

- Coxhead (Traditional Approach)
 - Keynes (Reference Approach)
 - PageRank (Non-reference Approach)
- $\text{cor}(\text{Coxhead}, \text{Keynes}) \quad 0.15$
- $\text{cor}(\text{Coxhead}, \text{PageRank}) \quad 0.11$
- $\text{Cor}(\text{Keyness}, \text{PageRank}) \quad -0.07$

>

27

5. Conclusion

- We examined quantitative methods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there is any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reference (Scott, 1997) and non-reference (Brin and Page, 1998) approaches including a traditional approach (Coxhead, 2000) in the whole vocabulary lists for learners of Maritime English.
- The order of Keynes and PageRank showed little correlation coefficient because of approximately -0.09 . Moreover, p-value (0.6818) mean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may not be significant.
- There were littl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xhead and Keynes], [Coxhead and PageRank], and [Keyness and PageRank].

28

References

- Aston, G. (1997). Involving learners in developing learning methods: Exploiting text corpora in self-access. In *Autonomy and Independence in Language Learning*, P. Benson & P. Voller (eds), 204-214. London: Longman.
- Beavan, D. (2008). Glimpses through the clouds: Collocates in a new light. In *Proceedings of Digital Humanities*, University of Oulu.
- Brin, S. and Page, L. (1998). The anatomy of a large-scale hypertextual web search engine. *Computer Networks and ISDN Systems* 30, 107-117
- Church, K.W. and Hanks, P. (1990). Word association norms, mutual information and lexicography. *Computational Linguistics* 16(1), 22-29.
- Coxhead, A. 2000. A new academic word list. *TESOL Quarterly* 34/2: 213-38.
- Dunning, T. (1993). Accurate methods for the statistics of surprise and coincidence. *Computational Linguistics* 19(1)61-74.
- Jhang, S. E. and Lee, S. M. (2013). Visualization of collocational networks: Maritime English keywords. *Language Research* 49(3), 781-802.
- Liang, W., Shi, Y., Tse, C.K., Liu, J, Wang, Y. and Cui, X. (2009). Comparison of co-occurrence networks of the Chinese and English languages. *Physica A* 388, 4901-4909.
- Litvak, M and Last, M. (2008). Graph-based keyword extraction for single-document summarization. In *Proceedings of the Workshop on Multi-source Multilingual Information Extraction and Summarization*. PA, USA. 17-24.
- McEnery, T. (2006). *Swearing in English: Bad language, purity and power from 1586 to the Present*. London: Routledge.
- Mihalcea, R and Tarau, P. (2004). TextRank: Bringing order into texts, In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Barcelona, Spain. 1-7.
- Mparutsa, C., Love, A. and Morrison, A. (1991). Teaching and language corpora. *ReCALL* 9(1):5-14.
- Oakes, M. P. (1998). *Statistics for corpus linguistic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R Core Team (2012).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ISBN 3-900051-07-0, URL <http://www.R-project.org/>
- Scott, M. and Tribble, C., 2006, *Textual Patterns: keyword and corpus analysis in language education*, Amsterdam: Benjamins.
- Scott, M. (2013). *WordSmith Tools help manual. Version 6*. Liverpool: Lexical Analysis Software.
- Stevens, V. (1991). Concordance-based vocabulary exercises: A viable alternative to gap-filling. In *Classroom Concordancing*, T. Johns and P. King (eds). *ELR Journal* 4:47-61.
- Stuart, K. and Botella, A. (2009). Corpus linguistics, network analysis and co-occurrence matr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Studies, Special Issue*, 1-28.
- Williams, G. (1998). Collocational Networks: Interlocking patterns of lexis in a corpus of plant biology research articl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3(1), 151-171.
- Zhou, S., Hu, G., Zhang, Z. and Guan, J. (2008). An empirical study of Chinese language networks. *Physica A* 387, 3039-3047.

**2014 Summer Conference Co-hos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Language Sciences
and The Linguistic Science Society**

A Corpus Approach to Stylistic Analysis in Moby Dick

August 21, 2014

**Se-Eun Jhang & Sungmin Lee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Pusan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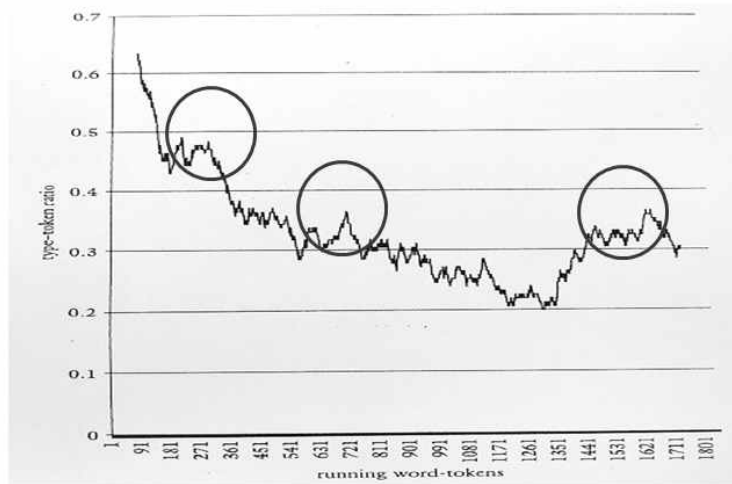
- The study investigates several corpus linguistic techniques to analyze fiction texts: type and token ratio (TTR), keywords, clusters, key clusters, and key semantic domains, to make useful contributions to reveal meanings and structural features in Herman Melville's Moby Dick.

2. Previous Studies

2.1 Stubbs (2001)

Type-Token Ratio (TTR): TTR means the ratio of type and token.

- *Eveline* is a short story (chapter 4) in a collection of short stories, *Dubliners* (1941) by James Joyce.



Literary critical interpretation vs. TTR

	First Part	Second Part	Third Part
Hart (1969)	Eveline thinks about the past and possible future	Brief interlude in which she reasserts her decision to choose life	Third part ends in her psychological failure
Stubbs (2001)	<p>Up-slope: High TTR means that a group of new vocabulary is introduced to make a new turn in the story.</p> <p>“These three parts correspond astonishingly closely to the troughs and peaks identified by the program”</p> <p>“The literary critic’s impressions are quite correct, but they can now be given an objective textual basis.”</p>		

2.2. Starcke (2009)

- The analysis of the keywords and most frequent phrases of Jane Austen's novel *Pride and Prejudice* uncovered meanings that are not discussed in literary critical secondary sources

Table 1. Data

Corpus / Text	Content	Size
<i>Austen</i>	Austen's six novels	about 725,000 tokens
<i>Austen5P&P</i>	Five of Austen's six novels; <i>Pride and Prejudice</i> is Austen's only novel that is excluded from the corpus	about 602,000 tokens
<i>contempLit</i>	30 novels by various authors, published between 1740 and 1859 to be roughly contemporary with Austen's life (cf. Fischer-Starcke forthcoming for details)	about 4,370,000 tokens
<i>P&P</i>	Austen's novel <i>Pride and Prejudice</i>	about 122,000 tokens

5

Austen P&P vs ContempLit

Table 3. Keyword patterns *P&P* — *contempLit*

Pattern	Realisations
Thirty-seven words describe mental concepts and emotions	e.g. <i>feelings, attention, happiness, hope</i>
Fourteen words explicitly refer to women	e.g. <i>her, she, sister, herself</i>
Thirteen words describe love, courtship and marriage	e.g. <i>marriage, affection, engagement, attachment</i>
Twelve words describe family and family relationships	e.g. <i>family, sister, cousin, connections</i>
Twelve words describe communication	e.g. <i>inquiries, talking, letter, conversation</i>
Seven words explicitly refer to men	e.g. <i>mr, colonel, officers, gentleman</i>

6

Comparison of top 25 five-word clusters between Dickens and 19C

Rank	Dickens			19C		
		Freq.	Texts		Freq.	Texts
1	as if he had been	90	20	a quarter of an hour	106	25
2	his hands in his pockets	90	20	at the end of the	83	24
3	in the course of the	88	18	the other side of the	81	21
4	what do you mean by	73	18	in the middle of the	79	21
5	as if it were a	72	18	in the course of the	72	20
6	the opposite side of the	70	19	in the direction of the	72	15
7	a quarter of an hour	66	17	on the other side of	56	21
8	at the bottom of the	66	19	the other end of the	55	19
9	on the part of the	65	17	as if it had been	54	17
10	what do you think of	64	16	i should like to know	53	19
11	in the middle of the	62	19	at the back of the	51	16
12	with his hands in his	60	20	for the first time in	50	16
13	as if it had been	58	18	what do you think of	50	17
14	at the top of the	56	18	as if he had been	49	18
15	i beg your pardon sir	56	16	as a matter of course	47	12
16	on the opposite side of	54	17	as if she had been	46	13
17	on the other side of	53	17	at the bottom of the	45	20
18	at the end of the	52	15	up and down the room	43	16
19	as a matter of course	51	15	at the door of the	40	17
20	as much as to say	50	16	at the top of the	39	15
21	the other side of the	50	17	by the side of the	38	16
22	up and down the room	48	13	for a minute or two	36	12
23	with the air of a	46	14	i am sorry to say	36	18
24	as if he were a	45	16	and at the same time	35	14
25	the father of the marshalsea	45	1	for the first time since	35	14

8

2.3 Mahlberg(2007)

- Clusters, key clusters and local textual functions in Dickens
- Charles Dickens' novel corpus containing 4,500,000 tokens with twenty-three texts.
- Other writer's works in 19C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Dickens' works
- Five word clusters : 4,904 in Dickens/ 3,409 in 19C writers.
- WordSmith tools to extract key clusters and found 66 positive and 7 negative key clusters

Top 25 five-word key clusters based on a comparison of the Dickens corpus with 19C

Rank	Cluster	D Freq.	D Texts	19C Freq.	19C Texts	Keyness
1	his hands in his pockets	90	20	13	8	65.07
2	the father of the marshalsea	45	1	0	0	62.60
3	the person of the house	37	3	0	0	51.47
4	do me the favour to	32	12	0	0	44.52
5	as if he would have	41	15	2	2	43.62
6	what do you mean by	73	18	15	11	41.92
7	with his hands in his	60	20	12	7	35.17
8	go so far as to	24	13	0	0	33.39
9	i beg your pardon sir	56	16	11	9	33.27
10	how do you find yourself	23	11	0	0	31.00
11	as if he were a	45	16	7	4	31.19
12	hands in his pockets and	40	17	5	4	31.16
13	with his hand to his	31	10	2	2	30.80
14	on the part of mr	34	11	3	3	30.62
15	who had by this time	22	10	0	0	30.61
16	the lady of the caravan	22	1	0	0	30.61
17	on the top of his	21	12	0	0	29.21
18	the old man with a	21	6	0	0	29.21
19	on the part of the	65	17	18	13	28.49
20	how do you do mr	29	11	2	2	28.28
21	as if he were going	32	12	3	2	28.19
22	captain gills said mr toots	20	1	0	0	27.82
23	upon my word and honour	25	8	1	1	27.68
24	beg your pardon sir said	25	6	1	1	27.68
25	as if it were a	72	18	23	12	26.77

9

Findings

Five distinctive patterns used in the Dickens

- Labels (e.g. *Mr. Pickwick and his friends*)
- Speech clusters (e.g. *what do you mean by*)
- As If clusters (e.g. *as if he would have*)
- Body Part clusters (e.g. *his hands in his pockets*)
- Time and Place clusters (e.g. *on the top of his*)

10

2.4 Wmatrix (Rayson 2003)

Archer, Culpeper, and Rayson (2005)

- Using the UCREL Semantic Annotation Scheme to study the concept of *love* in Shakespeare's tragedies and comedies

Rayson (2008)

- Using automatic tagging software which permits the extraction of key domains by applying the keyness calculation to tag frequency lists

3. Data and Methodology

3.1 Four Corpora

Corpora	Contents	Size
Melville	Melville's 10 novels	1,234,629
Melville 9 novels	Melville's 9 novels; <i>Moby Dick</i> is Melville's only novel that is excluded from the corpus	1,022,473
<i>Moby Dick</i>	Melville's novel <i>Moby Dick</i>	212,156
ContempLit	37 novels by various authors, published between 1846 and 1869 to be roughly contemporary with Melville's life (1819~1891)	2,183,536

3.2 Methodology

3.2.1 TTR

- $TTR = (\text{number of type} / \text{number of token}) \times 100$
- The way to get the TTR is the number of types over the number of tokens multiplied by 100.
- For example, the TTR of texts used by native speakers is 22.67. On the other hand, the TTR of texts by non-native speakers is 13.48. This shows that native speakers use a greater variety of vocabulary than non-native speakers.

Python Coding For Customized TTR Analysis

```

7% *split-file - sungmin.py - C:\Python32\split-file - sungmin.py*
File Edit Format Run Options Windows Help
import re
import sys, getopt
import os.path
import math

def split_files(inputfile, size):
    text = open(inputfile, 'r', encoding='utf-8').read()
    text = re.sub('<.*?>', '', text)
    text = re.sub('[ \t]+', ' ', text)
    words = re.findall("['\w]+", text)
    for i in range(0, len(words), size):
        outputfile = 'abc{0:03d}.txt'.format(int(i/size))
        fout = open(outputfile, 'w', encoding='utf-8')
        for w in words[i:i+size]:
            print (w, file=fout)
        fout.close()

def main(argv):
    # defaults
    inputfile = 'Moby Dick.txt'
    size = 10000

    # program name
    this_script = argv.pop(0)
    if argv:
        try:
            opts, args = getopt.getopt(argv, "h:is:", ["ifile=", "size="])
        except getopt.GetoptError:

```

14

3.2.2 Methodology for Keywords Extraction

- Keyness was computed by using Dunning's (1993) log-likelihood test

$$-2 \ln \lambda = 2 \sum_i O_i \ln \left(\frac{O_i}{E_i} \right)$$

- Log-likelihood uses observed frequency (O_i) and expected frequency (E_i) for comparing word frequencies appeared in the two corpora.
- by setting p-value threshold of 0.000001 (1 in one million) (critical value = 15.13) when the word occurs more than at least 5 times.

▶ Log-likelihood Calculator

<http://ucrel.lancs.ac.uk/llwizard.html>

	Corpus 1	Corpus 2	Total
Frequency of word	a	b	a+b
Frequency of other words	c-a	d-b	c+d-a-b
Total	c	d	c+d

To use this wizard, type in frequencies for one word and the corpus sizes and press the calculate button.

	Corpus 1	Corpus 2
Frequency of word	41	139
Corpus size	9805	15054

Calculate LL Clear form

The higher the G2 value, the more significant is the difference between two frequency scores. For these tables, a G2 of 3.8 or higher is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 < 0.05$ and a G2 of 6.6 or higher is significant at $p < 0.01$.

- 95th percentile; 5% level; $p < 0.05$; critical value = 3.84
- 99th percentile; 1% level; $p < 0.01$; critical value = 6.63
- 99.9th percentile; 0.1% level; $p < 0.001$; critical value = 10.83
- 99.99th percentile; 0.01% level; $p < 0.0001$; critical value = 15.13

one, and 'd' corresponds to the number of words in corpus 1 and corpus 2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following formula:

$$E_i = \frac{N_i \sum_j O_j}{\sum_i N_i}$$

and $E_2 = d * (a+b) / (c+d)$. The calculation for the expected frequency in corpus 2 according to this form

$$-2 \ln \lambda = 2 \sum_i O_i \ln \left(\frac{O_i}{E_i} \right)$$

3.2.3 Extraction Methods for Clusters

- Clusters are defined as “lexical bundles” as a recurring sequence of three or more words (Biber et al. 1999).
- Clusters are words which are found repeatedly together in each others' company, in sequence. (Scott 2013).
- A Way to Extract Clusters:
 - (1) Using a Wordlist tool, create index lists for Moby Dick and 19C corpus respectively
 - (2) Click cluster option and set for window-spans to create four-word clusters for both corpora.
 - (3) Save each cluster-list in the folder

3.2.4 Extraction Methods for Key Clusters

- The term “key clusters” is the same concept as that of key words statistically significant words extracted from a target corpus by using a log-likelihood test compared to a reference corpus (Baker, 2006).
- A Way to Extract Key Clusters:
 - (1) Using a Keywords tool, select Moby Dick as a target corpus and 19C corpus as a reference corpus
 - (2) Click make a keyword list to generate a key cluster list
 - (3) Save the key cluster list

3.2.5 Key Semantic Tagging

- Use of a Wmatrix web interface program for the UCREL semantic analysis system (USAS) based on McArthur (1981)'s Longman Lexicon of Contemporary English (cf. <http://ucrel.lancs.ac.uk/wmatrix3.html>)

A General and abstract terms (15)	B The body and the individual (5)	C Arts and crafts (1)	E Emotion (6)
F Food and farming (4)	G Government and public (3)	H Architecture, housing and the home (5)	I Money and commerce in industry (4)
K Entertainment, sports and games (6)	L Life and living things (3)	M Movement, location, travel and transport (8)	N Numbers and measurement (6)
O Substances, materials, objects and equipment (4)	P Education (1)	Q Language and communication (4)	S Social actions, states and processes (9)
T Time (4)	W World and environment (5)	X Psychological actions, states and processes (9)	Y Science and technology (2)
Z Names and grammar (9)			

- a multi-tier structure with 21 major discourse fields subdivided, and with the possibility of further fine-grained subdivision.
- subdivision of semantic domains for detailed semantic sub-categories for each of the major 21 kinds
- parenthesis means the number of semantic sub-categories for major 21 groups. The total 113 subgroups are found.

Wmatrix Key semantic domain settings

Key:

O1 is observed frequency in moby_dick/file.raw.pos.sem.sem.fql

O2 is observed frequency in 19century/file.raw.pos.sem.sem.fql

%1 and %2 values show relative frequencies in the texts.

+ indicates overuse in O1 relative to O2,

- indicates underuse in O1 relative to O2

The table is sorted on log-likelihood (LL) value to show key items at the top.

The List links on the left of the table show a list of words from the files with the given tag.

The Concordance links on the left show a concordance from the first file (O1) for the given word or tag.

See the help introduction section on frequency comparison for more information.

Please note that the default filter includes only overused items excludes zeros in O1.

See the word clouds at the bottom of this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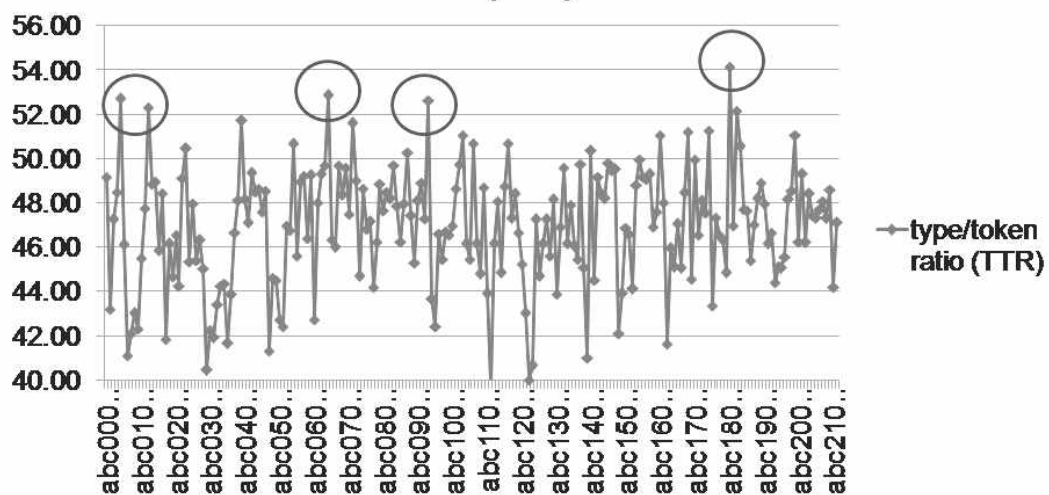
<p>Simple filters:</p> <p>What to include:</p> <p>Overused items</p> <p>What to exclude:</p> <p>Zeros in column one</p> <p>How much of the table to show:</p> <p>LL cut-off: 6.63</p> <p>Frequency cut-off: 10</p> <p>Refresh table</p>	<p>Regular expression filters:</p> <p>What to include:</p> <p>\+</p> <p>(enter . or nothing for complete list)</p> <p>What to exclude:</p> <p>0 0.00 [^+]</p> <p>(enter !! or nothing for complete list)</p> <p>How much of the table to show:</p> <p>LL cut-off: 6.63</p> <p>Frequency cut-off: 5</p> <p>Refresh table</p>
--	--

21

4. Result and Discussion

4.1 Type and Token Ratio (TTR)

(TTR)



22

4.2 Keywords

Keywords (positive)

N	Key word	Freq.	%	Texts	RC.	f	RC. %	t	P	Lemmas	Set
1	WHALE	1,028	0.48	1	1,062	0.05	2,286.8	0.0000000000			
2	THE	14,173	6.67	1	100,587	4.60	1,646.3	0.0000000000			
3	AHAB	511	0.24	1	511	0.02	1,155.8	0.0000000000			
4	SHIP	465	0.22	1	607	0.03	900.03	0.0000000000			
5	YE	466	0.22	1	774	0.04	761.36	0.0000000000			
6	SEA	367	0.17	1	586	0.03	617.70	0.0000000000			
7	STUBB	257	0.12	1	253	0.01	585.92	0.0000000000			
8	QUEEQUEG	252	0.12	1	251	0.01	570.98	0.0000000000			
9	WHALES	246	0.12	1	258	0.01	542.08	0.0000000000			
10	SPERM	233	0.11	1	233	0.01	526.80	0.0000000000			
11	BOAT	286	0.13	1	451	0.02	485.78	0.0000000000			
12	STARBUCK	198	0.09	1	198		447.64	0.0000000000			
13	PEQUOD	173	0.08	1	172		392.31	0.0000000000			
14	DECK	163	0.08	1	210		317.99	0.0000000000			
15	CAPTAIN	323	0.15	1	932	0.04	307.38	0.0000000000			

Keywords (negative)

N	Key word	Freq.	%	Texts	RC.	f	RC. %	t	P	Lemmas	Set
631	HOUSE	34	0.02	1	2,124	0.10	-209.35	0.0000000000			
632	MY	587	0.28	1	10,789	0.49	-224.96	0.0000000000			
633	HERSELF	7		1	1,732	0.08	-264.24	0.0000000000			
634	HE	1,876	0.88	1	27,912	1.28	-270.09	0.0000000000			
635	T	287	0.14	1	7,283	0.33	-301.92	0.0000000000			
636	LADY	8		1	1,982	0.09	-302.46	0.0000000000			
637	MOTHER	17		1	2,340	0.11	-315.23	0.0000000000			
638	TO	4,511	2.12	1	62,071	2.84	-397.65	0.0000000000			
639	WAS	1,627	0.77	1	28,575	1.31	-524.08	0.0000000000			
640	YOU	884	0.42	1	18,514	0.85	-536.37	0.0000000000			
641	SAID	300	0.14	1	10,365	0.47	-645.53	0.0000000000			
642	MRS	13		1	4,166	0.19	-660.64	0.0000000000			
643	I	2,114	1.00	1	39,279	1.80	-853.50	0.0000000000			
644	HAD	767	0.36	1	19,895	0.91	-857.77	0.0000000000			
645	MR	61	0.03	1	7,146	0.33	-919.72	0.0000000000			
646	HER	330	0.16	1	24,549	1.12	-2,664.4	0.0000000000			
647	SHE	114	0.05	1	19,812	0.91	-2,838.1	0.0000000000			

4.3 Clusters

N	Word	Freq.	%	Texts	%
1	OF THE SPERM WHALE	42	0.02	1	100.00
2	THE SPERM WHALE S	27	0.01	1	100.00
3	AT THE SAME TIME	20		1	100.00
4	OF THE WHALE S	18		1	100.00
5	THE BOTTOM OF THE	17		1	100.00
6	THE OLD MAN S	16		1	100.00
7	IN THE ACT OF	12		1	100.00
8	THE WHITE WHALE S	12		1	100.00
9	AND AT THE SAME	11		1	100.00
10	AS IF IT WERE	11		1	100.00
11	I DON T KNOW	11		1	100.00
12	IN THE CASE OF	11		1	100.00
13	OF THE WHITE WHALE	11		1	100.00
14	SPERM WHALE S HEAD	11		1	100.00
15	BE IT SAID THAT	10		1	100.00

4.4 Key Clusters against 19C ContempLit

N	Key word	Freq.	%	Texts	RC.	f	RC. %	t	P Lemmas	Set
1	OF THE SPERM WHALE	42	0.02	1	42		94.93	0.00000		
2	THE SPERM WHALE S	27	0.01	1	27		61.03	0.00000		
3	OF THE WHALE S	18		1	18		40.68	0.00000		
4	THE WHITE WHALE S	12		1	12		27.12	0.00000		
5	SPERM WHALE S HEAD	11		1	11		24.86	0.00000		
6	OF THE WHITE WHALE	11		1	11		24.86	0.00000		
7	THE OLD MAN S	16		1	30		23.68	0.00000		
8	THE GREAT SPERM WHALE	10		1	10		22.60	0.00000		
9	BE IT SAID THAT	10		1	11		21.45	0.00000		
10	ON BOARD THE PEQUOD	9		1	9		20.34	0.00000		
11	OF THE PEQUOD S	9		1	9		20.34	0.00000		
12	OF THE SEA AND	9		1	11		18.14	0.00002		
13	BOTTOM OF THE SEA	9		1	11		18.14	0.00002		
14	THE RIGHT WHALE S	8		1	8		18.08	0.00002		
15	THE SPERM WHALE IS	8		1	8		18.08	0.00002		

4.5 The Result of Key Semantic Domains

	Item	O1	#1	O2	#2	LL		
1	List1 List2 Concordance	M4	2374	1.17	3897	0.19 +	3888.26	Sailing, swimming, etc.
2	List1 List2 Concordance	L2	2474	1.22	7296	0.35 +	2269.39	Living creatures: animals, birds, et
3	List1 List2 Concordance	W3	1399	0.69	4240	0.20 +	1238.69	Geographical terms
4	List1 List2 Concordance	M6	4674	2.30	28105	1.35 +	994.01	Location and direction
5	List1 List2 Concordance	O2	2354	1.16	11251	0.54 +	949.64	Objects generally
6	List1 List2 Concordance	Z99	6587	3.24	45103	2.17 +	835.90	Unmatched
7	List1 List2 Concordance	B1	3533	1.74	22868	1.10 +	571.70	Anatomy and physiology
8	List1 List2 Concordance	O4.4	843	0.42	3555	0.17 +	442.15	Shape
9	List1 List2 Concordance	G3	667	0.33	2558	0.12 +	415.40	Warfare, defence and the army; weapo
10	List1 List2 Concordance	N5.1+	2207	1.09	15326	0.74 +	262.05	Entire; maximum
11	List1 List2 Concordance	A6.2-	511	0.25	2269	0.11 +	241.88	Comparing: Unusual
12	List1 List2 Concordance	M5	204	0.10	518	0.02 +	223.56	Flying and aircraft
13	List1 List2 Concordance	O1.2	429	0.21	1834	0.09 +	219.13	Substances and materials: Liquid
14	List1 List2 Concordance	S9	1219	0.60	7686	0.37 +	218.53	Religion and the supernatural
15	List1 List2 Concordance	W4	444	0.22	1943	0.09 +	216.50	Weather
16	List1 List2 Concordance	Z2	1165	0.57	7357	0.35 +	207.62	Geographical names
17	List1 List2 Concordance	N1	1717	0.85	12006	0.58 +	197.12	Numbers
18	List1 List2 Concordance	O1.1	655	0.32	3638	0.18 +	179.11	Substances and materials: Solid
19	List1 List2 Concordance	L1-	553	0.27	2902	0.14 +	177.18	Dead
20	List1 List2 Concordance	A4.1	870	0.43	5493	0.26 +	155.16	Generally kinds, groups, examples

27

Word List for Flying and aircraft

Word	Semtag	Frequency	Relative Frequency	
jet	M5	31	0.02	Concordance
flying	M5	27	0.01	Concordance
flew	M5	21	0.01	Concordance
pilot	M5	20	0.01	Concordance
steward	M5	17	0.01	Concordance
gliding	M5	14	0.01	Concordance
fly	M5	11	0.01	Concordance
flight	M5	9	0.00	Concordance
jets	M5	9	0.00	Concordance
plane	M5	7	0.00	Concordance
sooty	M5	3	0.00	Concordance
pilot-cloth	M5	3	0.00	Concordance
flights	M5	3	0.00	Concordance
flying-fish	M5	3	0.00	Concordance
flies	M5	3	0.00	Concordance
sea-going	M5	2	0.00	Concordance
pilots	M5	2	0.00	Concordance
bale_out	M5	2	0.00	Concordance
jettted	M5	2	0.00	Concordance
cockpits	M5	1	0.00	Concordance
flew_back	M5	1	0.00	Concordance

28

Concordances for flying

	27 occurrences.	Extend context
rch . Ha ! thought I , ha , as the	flying particles almost choked me , are th	1 More Full
break it for him , " said I , now	flying into a passion again at this unacco	2 More Full
nowy breakers . But high above the	flying scud and dark-rolling clouds , ther	3 More Full
, and the tremendous boom was now	flying from side to side , completely swee	4 More Full
ghast at the close vicinity of the	flying harpoon , had retreated towards the	5 More Full
forerunning couriers and detached	flying outriders . All four boats were now	6 More Full
ppose then , that going plump on a	flying whale with your sail set in a foggy	7 More Full
e utmost stretch of Hydrus and the	Flying Fish . With a frigate 's anchors fo	8 More Full
m-engine in full play , when every	flying beam , and shaft , and wheel , is g	9 More Full
, darted dart after dart into the	flying fish ; at the word of command , the	10 More Full
out , and sailed over by the three	flying keels . " Do n't be afraid , my but	11 More Full
It became imperative to lance the	flying whale , or be content to lose him .	12 More Full
s upright in the tossed bow of the	flying boat ; wrapt in fleecy foam , the t	13 More Full
here ? " roared the Guernseyman ,	flying into a sudden passion . " Oh ! keep	14 More Full
in time to prevent the vessel from	flying up into the wind , and very probabl	15 More Full
oat 's head , and take good aim at	flying whales ; this would seem somewhat i	16 More Full
he leaves , the great sun seemed a	flying shuttle weaving the unwearied verdu	17 More Full
words that are inaudible among the	flying spindles ; those same words are pla	18 More Full
chickens , Perth ? they are always	flying in thy wake ; birds of good omen ,	19 More Full
ns , and jacks of all colours were	flying from her rigging , on every side .	20 More Full

29

5. Conclusion

- Stylistic Analysis in Moby Dick

- Type and Token Ratio (TTR) : At least **three** parts to make a new turn in the story.
- **Keywords:** Keywords patterns found in the top positive 15 and negative 15 words

Top positive 15 keywords	Top negative 15 keywords
Living creatures: <i>whale(s), sperm</i>	Personal titles: <i>lady, mother, Mrs., Mr.</i>
Maritime terms: <i>ship, sea, boat, deck, captain</i>	Report verbs: <i>said</i>
Proper Names: <i>Ahab, Stubb, Queequeg, Starbuck, Pequod</i>	Common nouns: <i>house</i>
Grammatical Aspects (Definite Article and 2nd Pronoun): <i>the, ye</i>	Grammatical Aspects (person pronouns, reflexive pronouns): <i>my, he, you, I, her, she, herself</i>

30

5. Conclusion (Cont')

- Clusters and key clusters:
 - There are 8 general clusters in the top 15 (most frequent) clusters:
at the same time, the bottom of the, in the act of, and at the same, as if it were, I do not know, in the case of, be it said that
 - The rest are all the key clusters (7):
of the sperm whale, the sperm whale's, of the whale's, the white whale's, sperm whale's head, of the white whale, the old man's
- Key semantic domains:
 - Semantic categories with the highest keyness values: **Sailing and swimming** (*ship, boat(s), crew, sail*), **Living creatures** (*whale(s), fish, tail, sharks*), **Geographical terms** (*sea(s), land, earth, coast*), etc.
 - Interesting semantic category: **Flying and aircraft**
the flying particle, the flying scud, the flying harpoon, the flying whale, the flying fish, etc.

31

References

- Archer, D. and Culpeper, J. and Rayson, P. 2005. *Love – a familiar or a devil? An exploration of key domains in Shakespeare's Comedies and Tragedies*. In: AHRC ICT Methods Network Expert Seminar on Linguistics, 2005-09-08, Lancaster University.
- Baker, P. 2006. *Using Corpora in Discourse Analysis*. London: Continuum.
- Biber, D., Conrad, S. and Cortes, V. 2004. If You Look at ... : Lexical Bundles in University Teaching and Textbooks. *Applied Linguistics* 25.3, 371-405.
- Dunning, T. 1993. Accurate Methods for the Statistics of Surprise and Coincidence. *Computational Linguistics* 19.1, 61-74.
- Mahlberg, M. 2007. Clusters, key clusters and local textual functions in Dickens. *Corpora* 2.1, 1-31.
- McArthur, Tom. 1981. *Longman Lexicon of Contemporary English*. Longman London .
- Oakes, M. P. 1998. *Statistics for Corpus Linguistic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Rayson, P. 2003. *Matrix: A statistical method and software tool for linguistic analysis through corpus comparison*. Ph.D. thesis, Lancaster University. <http://www.comp.lancs.ac.uk/ucrel/wmatrix/>
- Rayson, P. 2008. *From key words to key semantic domai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3 (4). pp. 519-549.
- Scott, M. 1997. PC Analysis of Key Words and Key Key Words. *System* 25.2, 233-245.
- Scott, M. 2013. *WordSmith Tools Version 6.0*. Liverpool: Lexical Analysis Software.
- Starcke. 2009. Keywords and frequent phrases of Jane Austen's *Pride and Prejudice*: A corpus-stylistic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4.4, 492-523
- Stubbs. M. 2001. *Words and Phrases – Corpus Studies Lexical Semantic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Text Analysis with R: with *Moby Dick*

Mi-Lim Ry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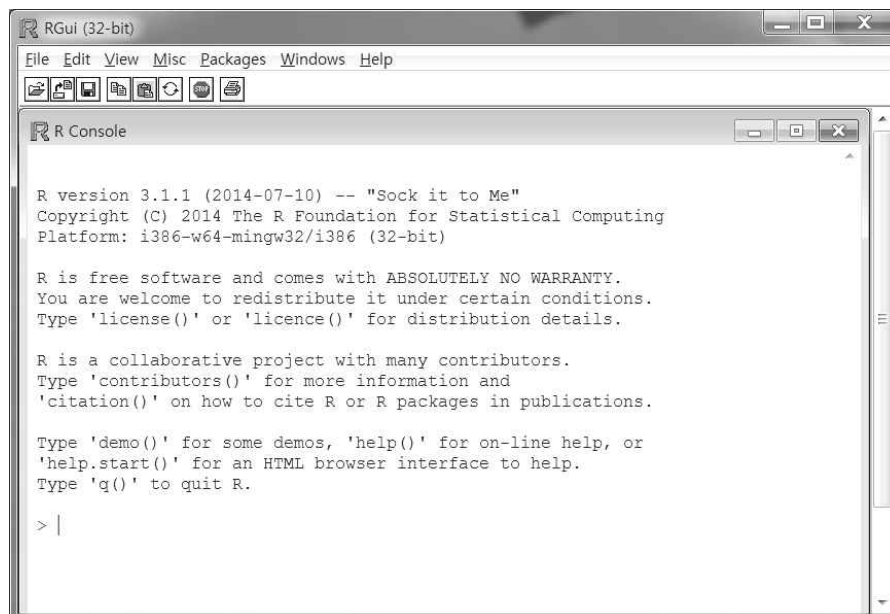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R(<http://www.r-project.org>) is an open source programming language that is widely used for developing statistical software and data analysis. It is such a full-fledged programming language that it allows one to perform just about all corpus-linguistic tasks within only one programming environment: one can do data processing, data retrieval, annotation, statistical evaluation, graphical representation. In short, R is a very powerful tool. The current presentation aims to introduce some simple programming in R to students or scholars in the humanities who are wishing to extend their methodological toolkit to embrace quantitative and computation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text.

I . Introduction

Install R from <http://www.r-project.org>

Figure 1 The R GUI console



```
RGui (32-bit)
File Edit View Misc Packages Windows Help
R Console
R version 3.1.1 (2014-07-10) -- "Sock it to Me"
Copyright (C) 2014 The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Platform: i386-w64-mingw32/i386 (32-bit)

R is free software and comes with ABSOLUTELY NO WARRANTY.
You are welcome to redistribute it under certain conditions.
Type 'license()' or 'licence()' for distribution details.

R is a collaborative project with many contributors.
Type 'contributors()' for more information and
'citation()' on how to cite R or R packages in publications.

Type 'demo()' for some demos, 'help()' for on-line help, or
'help.start()' for an HTML browser interface to help.
Type 'q()' to quit R.

> |
```

II. Write in R

Load a text file

```
#load Moby Dick from the Project Gutenberg site
(http://www.gutenberg.org/ebooks/2701)
mobydick.text <- scan("http://www.gutenberg.org/cache/epub/2701/pg2701.txt",
what="char", sep="\n")
head(mobydick.text)
tail(mobydick.text)
```

Separate content from metadata

```
begin <- which(mobydick.text == "CHAPTER 1. Loomings.")
end <- which(mobydick.text == "orphan.")
mobydick <- mobydick.text[begin:end]
```

Now we have the content of Moby Dick

```
mobydick.lower <- tolower(mobydick)
mobydick1 <- strsplit(mobydick.lower, "\\W")
mobydick <- unlist(mobydick1)
head(mobydick)
```

Delete all the flank("") in the data

```
mobydick2 <- which(mobydick!="")
mobydick <- mobydick[mobydick2]
mobydick[1:10]
```

Find the word *whale* in the novel

```
mobydick[which(mobydick=="whale")]
whale.f <- length(mobydick[which(mobydick=="whale")])
total.word <- length(mobydick)
```

% of whale occurrences in the novel

```
whale.f/total.word
```

word frequency of mobydick

```
word.freq <- table(mobydick)
sorted.word.freq <- sort(word.freq, decreasing=T)
```

```

yourenglishman      1      yourhat             1      yourknives          1
      yourmost        1      yourneighbour       1      yourroars           1
      yourtaffrail    1      yourtrue            1      yourtrump           1
      yourutility     1      yourway             1      yourshortly         1
      youshuddered    1      youstand            1      youthat             1
      youthe           1      youthrough          1      youtry              1
      youwould        1      zag                 1      zay                 1
      zealanders      1      zephyr             1      zig                 1
      zogranda         1      zoroaster           1
      1
> sorted.word.freq[1:10]
moby1
the of and a to in that it his i
12235 5673 5670 4071 4031 3667 2689 2280 2142 1991
> |

```

Frequency of *he* and *she* in the novel

```

sorted.word.freq["he"]
sorted.word.freq["she"]
sorted.word.freq["his"]
sorted.word.freq["her"]
sorted.word.freq["him"]

```

Ratio of *he* and *she* in the novel

```

he.she <- sorted.word.freq["he"]/sorted.word.freq["she"]

```

Relative frequency percentage of words in the novel

```

relative.freq.perc <- 100*(sorted.word.freq/sum(sorted.word.fareq))

```

```

worryings           1      worryings          1      wounding            1
0.0004653479      0.0004653479      0.0004653479      0.0004653479
wrestling           1      wrestlings         1      wretchedly          1
0.0004653479      0.0004653479      0.0004653479      0.0004653479
wrinkling           1      writhed            1      wrung                1
0.0004653479      0.0004653479      0.0004653479      0.0004653479
xxxix               1      yankee             1      yawed                1
0.0004653479      0.0004653479      0.0004653479      0.0004653479
yearly              1      yell              1      yoking               1
0.0004653479      0.0004653479      0.0004653479      0.0004653479
youngest            1      younglish          1      yourselbs            1
0.0004653479      0.0004653479      0.0004653479      0.0004653479
zealanders          1      zephyr            1      zeuglodon            1
0.0004653479      0.0004653479      0.0004653479      0.0004653479
zoroaster           1
0.0004653479
> relative.freq.perc["the"]
the
6.596306
> relative.freq.perc[1:10]
moby1
the of and a to in that it his
6.5963061 3.0103354 2.9433253 2.1578181 2.1122140 1.8976886 1.4169843 1.1615083 1.1610429
> |

```

Relative frequency percentage of *the* word the in the novel

```
relative.freq.perc["th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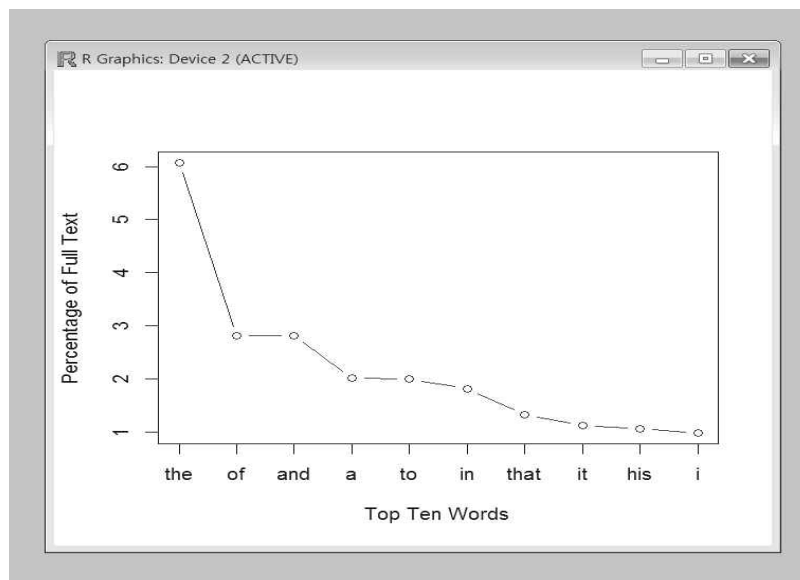
Relative frequency percentage of top ten word in the novel

```
relative.freq.perc[1:10]
```

Plot the relative frequency percentage of top ten word

```
plot(relative.freq.perc[1:10], type="b", xlab="Top Ten Words", ylab="Percentage of Full Text", col="blue", xaxt="n")
```

```
axis(1,1:10, labels=names(relative.freq.perc[1: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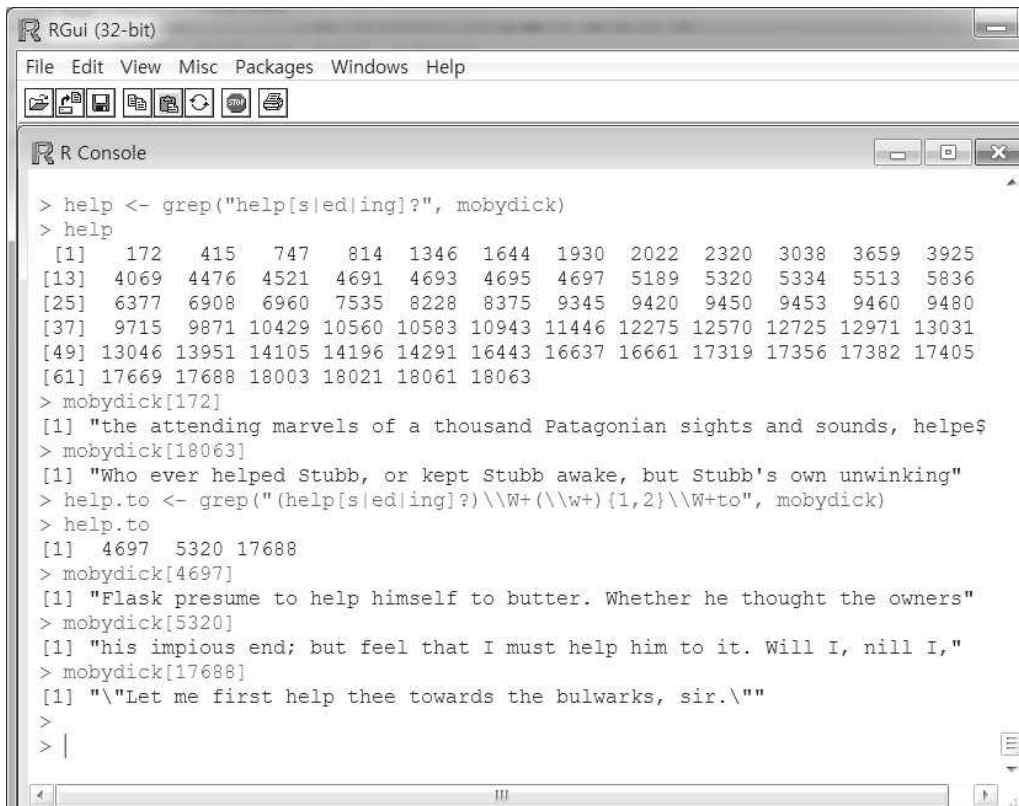
Save

```
setwd("~/")
getwd()
[1] "c:/users/documents"
png(filename="relative.freq.perc.png")
plot(relative,freq.perc)
dev.off()
```

Find patterns

```
rm(list=ls()) # cleaning the work history
mobydick.text <- scan("http://www.gutenberg.org/cache/epub/2701/pg2701.txt",
what="char", sep="\n")
begin <- which(mobydick.text == "CHAPTER 1. Loomings.")
end <- which(mobydick.text == "orphan.")
```

```
mobydick <- mobydick.text[begin:end]
help <- grep("help[s|ed|ing]?", mobydick)
help.to <- grep("\\b(help[ed|s|ing]?)(\\W+(\\w+){1,2})\\W+to\\b", mobydick)
```



```
RGui (32-bit)
File Edit View Misc Packages Windows Help
R Console
> help <- grep("help[s|ed|ing]?", mobydick)
> help
 [1] 172 415 747 814 1346 1644 1930 2022 2320 3038 3659 3925
 [13] 4069 4476 4521 4691 4693 4695 4697 5189 5320 5334 5513 5836
 [25] 6377 6908 6960 7535 8228 8375 9345 9420 9450 9453 9460 9480
 [37] 9715 9871 10429 10560 10583 10943 11446 12275 12570 12725 12971 13031
 [49] 13046 13951 14105 14196 14291 16443 16637 16661 17319 17356 17382 17405
 [61] 17669 17688 18003 18021 18061 18063
> mobydick[172]
 [1] "the attending marvels of a thousand Patagonian sights and sounds, helps
> mobydick[18063]
 [1] "Who ever helped Stubb, or kept Stubb awake, but Stubb's own unwinking"
> help.to <- grep("(help[s|ed|ing]?)(\\W+(\\w+){1,2})\\W+to", mobydick)
> help.to
 [1] 4697 5320 17688
> mobydick[4697]
 [1] "Flask presume to help himself to butter. Whether he thought the owners"
> mobydick[5320]
 [1] "his impious end; but feel that I must help him to it. Will I, nill I,"
> mobydick[17688]
 [1] "\"Let me first help thee towards the bulwarks, sir.\""
>
> |
```

R을 이용한 t.test - 학생들의 중간고사점수와 기말고사점수를 비교하는 t.test 실험

```
exam<-read.csv(file.choose())
```

```
exam
```

```
mid<-exam[, 4]
```

```
final<-exam[, 5]
```

```
t.test(mid, final)
```

R을 이용해 graph 만들기 - 학생들의 총점의 분포형태를 그래프화

```
Ss <-exam[, 1]
```

```
plot(Ss, ylim=c(0, 35), xlab="Names", ylab="Scor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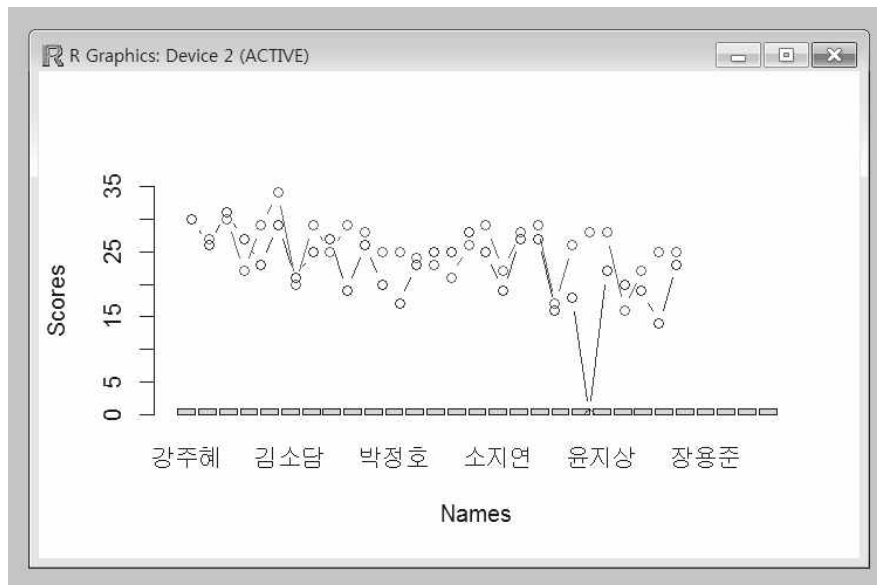
```
lines(mid, type="b", col="red")
```

```
lines(final, type="b", col="blue")
```

```
sum<-exam[, 8]
```

```
sum<-sort(sum, decreasing=T)
```

```
barplot(sum, main="Sum", xlab="Students", ylab="Scores", ylim=c(0,100), col="red", )
```



Save

```
setwd("~/")
getwd()
[1] "c:/users/documents"
png(filename="sum.png")
barplot(sum)
dev.off()
```

Resources for Further Reading

Books

- Baayen, R. Harald (2008). *Analyzing linguistic data: a practical introduction to statistics using R*.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lgaard, Peter (2008). *Introductory statistics with R*. New York: Springer.
- Gries, Stefan Th. (2009). *Quantitative corpus linguistics with R: a practical introduction*. New York, NY: Routledge.
- Gries, Stefan Th. (2013). *Statistics for linguistics with R: A practical introduction*. De Gruyter Mouton
- Jockers Matthew L. (2014). *Text analysis with R for students of literature. Quantitative Method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ew York: Springer.
- Teetor, Paul (2011). *R cookbook* Beijing: O'Reilly.

Online

- Cookbook for R >> Cookbook for R. URL: <http://www.cookbook-r.com/>
- Fridolin, Wild. CRAN Task View: Natural Language Processing. URL: <http://cran.r-project.org/web/views/NaturalLanguageProcessing.html>

Newest 'r' Questions - Stack Overflow. URL: <http://stackoverflow.com/questions/tagged/r>

Quick-R: Home Page. URL: <http://www.statmethods.net/>

R 1.1 - Initial Setup and Navigation - YouTube. URL: <http://www.youtube.com/watch?v=iffR3fWv4xw>

R: Mailing Lists. URL: <http://www.r-project.org/mail.html>

R Programming - Wikibooks, open books for an open world. URL: http://en.wikibooks.org/wiki/R_Programming

The Arbitrariness of Metaphor: Viewed from Vagueness

Kang, Hyunjee · Oh, Myung-Ki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me metaphors are arbitrary in conveying their metaphoric meanings because they do not fully yield to particular metaphoric rules, so that they leave much room for vagueness inside the structure. Fogged by this vagueness, interpreters try to read alternative messages possibly lying behind the structure, but they fail to do so because, to their surprise, they find the original message from the coiner is often way over their expectation. Simply put, the intended message is imposed on the metaphoric structure by the coiner, regardless of lexical or non-lexic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metaphor. Such arbitrariness is the typicality of a metaphor.

Quite plausibly, an effort to catch the metaphoric meaning is equal to an attempt to clear off vagueness from a metaphoric structure. To lift off vagueness, interpreters employ frames and extralinguistic information, such as individual accomplishment, encyclopaedic knowledge, including spacio(of place) and temporal(of time), and other contextual information. However, all these work well only with some limitation. In the matter of frames, for instance, Lakoff's conceptual frame explains not all but a restricted number of examples. This means that with counter-examples, Lakoff's frame creates only vagueness. The same is true of extralinguistic information. Though some counter-examples against Lakoff's are complemented by extralinguistic explanation, such explanation does not clear off vagueness from each and every metaphor. Ultimately, then, the rest part of the vagueness is explained by the arbitrariness of a metaphor.

해운대의 도시 기호

이 한 숙

(고려대학교)



1. 『해운대(海雲臺)』의 명명(naming)

(1) 해운대의 명명

해운대라는 이름은 신라시대 학자 최 치원이 퇴직 후 가야산 해인사로 유람 가던 중 지금의 해운대 동백섬에 들려 아름다움에 반해 자신의 호 海雲을 따서 동백섬의 바위에 새겨둔 것이 연원이 라고 한다. 해운대라는 이름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이름이 아니라 경치를 감상하기 좋은 동백섬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이후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지명으로 제유(提喻)된 것이다. 이때가 서기 약 900년 전후 일 것이다.



<해운 최치원>

(2) 도시명의 기호학

1) 승유 사상(崇儒 思想)

최 치원은 해운 외에 孤雲이라는 호도 사용하였는데 바다와 구름을 무척 좋아 하였던 것 같다. 그는 부산의 해운대외에도 전국의 많은 명소에 자신의 자취를 남기고 있지만 자신의 호를 본떠 작명한 곳은 해운대뿐이고 그 이름이 약 11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바다가 아름다운 곳>이라는 자연적인 조건의 제약으로 인해 개명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약 1100년 동안 그 이름을 사용해 온다는 것은 대학자에 대한 신뢰와 그런 대학자가 직접 하사한 이름이라는 자부심이 결합되어 있는 승유(崇儒)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신라시대에는 아직 유교가 도입되기 전이었지만 큰 어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 가르침을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승유 사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천년 사이에 한양이 서울로, 제물포가 인천으로 지명이 바뀌지 않았는가. 다른 많은 예를 비추어 보면 이런 추측이 무리가 아닐 것이다. 지난 1100년 동안 해운대의 바다와 구름,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른에 대한 존경심 또한 간직하고자 하는 곳이 해운대라고 할 수 있다.

2) 미래 도시의 배태

해운대의 기존 도심은 바다에서 떨어진 반송, 반여 지역이다. 이 지역은 해운대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장산의 서편 지역에 있으며 1740년 편찬된 『동래부지』에 동래부 동면 지경리(地境里)로, 『동래부읍지(1871)』의 방리조에도 반송리의 기록이 나올 정도로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바다와 구름을 의미하는 『해운』이라는 명명이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그곳은 바다라는 의식을 주입하게 되고 마침내 해운대의 중심을 내지(內地)에서 바닷가로 당겨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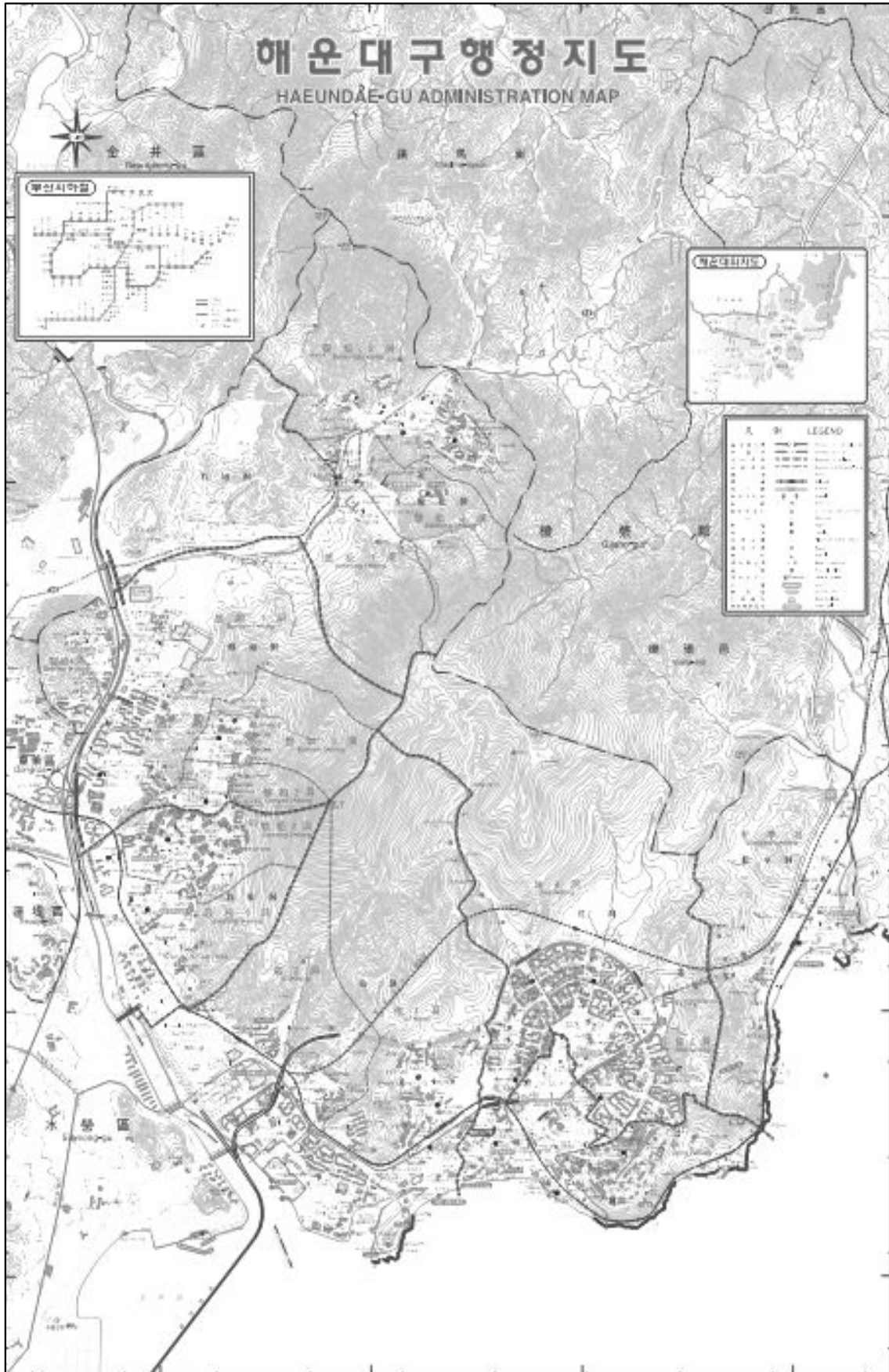
지금의 해운대는 이심적(binary) 모델의 전형이 되어 있다. 이심적 도시 모델은 공히 인공적인 기도(企圖)에 의해 발생하지만 해운대의 경우는 기존의 동심적 모델인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이름으로 인해서 중심에서 멀어지는 양상이 벌어진 것이다. 자신에게 부여된 이름이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는데서 나아가 미래의 도시 모델을 배태하고 스스로를 소외시켰다는 점에서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해운대의 공간적 기호들

(1) 지형적 분포

해운대는 634M 높이의 장산을 한가운데 두고 장산의 좌측 산 아래부터 수영강을 경계로 하면서 남쪽으로 돌아 내려오는 C 자 형태의 도시 공간을 이루고 있다. 장산 좌측(서쪽)의 주거지는 남쪽으로 산을 마주보고 있으니 산을 피하려면 서향이 되고, 장산 남쪽 지역은 장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바다를 보는 임해배산의 좋은 풍수지리(Fengshui)를 가지고 있다.

풍수 지리적으로는 서쪽 지역보다는 단연 남쪽 지역이 좋으며 따라서 주거비용의 차이도 많이 나고 교육 환경의 차이 또한 현저하다. 이런 C자 모양의 도시 공간에서 장산의 왼쪽지역(서편)에 9개동 21만 명, 장산의 앞쪽(남쪽)지역에 9개동 21만 명의 인구가 반반씩 나누어 거주하고 있다. 해운대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자 재미있는 일도 발생한다.



위의 지도상에서 수영강의 경계를 넘어 인접한 동래구에 포함된 반여4동의 경우 초기에는 생활의 불편을 들어 동래구로 이전을 요구하다가 해운대가 뜨자(유명해지자) 해운대구로 남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장산 남쪽 지역 즉 우동, 중동, 좌동이 바닷가에 면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논밭으로 되어 있고 군부대가 주둔하던 시절에 반송, 반여, 재송동으로 이루어진 장산의 서쪽 지역은 해운대의 기존 도심이었다. 이 지역은 1968년 부산시 정책이주지역으로 시내의 수재민과 철도연변 철거민들이 이주하면서 동세가 신장되기 시작하여 1975년 반송1,2동으로 분동되었고, 1978년 반송3동이 분동하여 1995년까지 해운대의 도심이었다. 1996년 장산의 남쪽 지역 중에서 좌동(지도상에서 동그랗게 만들어진 구역)에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입주를 시작하면서 해운대의 중심이 기존 도심에서 신흥 도심으로 이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좌동과 서쪽 지역 중간에 위치한 우동에 있던 군사 비행장(수영 비행장)과 앞쪽의 매립지(수영만 매립지)가 개발되면서 기존 도심이었던 서쪽 지역은 역사도 없는 신흥 매립지에 그 영광을 내어주고 말았다.

(2) 1996년 ~ 2010년 사이의 지형적 변화

장산 서편의 구도심인 반송지역은 1740년 편찬된 『동래부지』, 『동래부읍지(1871)』의 방리조에서 기록이 나온다고 앞에서 말한바 있듯이 반송의 지명이 사용된 시기는 1871년 이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역사성으로 장산 서편은 해운대 신시가지(Haundae New Town)가 완공되어 입주하기 전까지 해운대의 도심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해운대의 신도심이 된 좌동의 해운대 신시가지(Haungae New Town)는 1996년 완공 후 이주가 시작되면서 형성된 신흥 도심이다. 도시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에 있기에 통시적(Diachronic)이면서 동시에 공시적인(Synchronic) 공간이다. 그러나 해운대에 있어서 1996년의 의미는 일종의 시간적 공간적 분절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계획도시를 건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적 이주를 하였고 공간적 분절이요 2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구도심을 한순간 주변으로 바꾸어 버렸기에 시간적 분절이 일어난 것이다.



이심적(binary) 모델의 인공 도시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콤플렉스는 역사성의 부재이다. 해운대 신시가지 역시 25층의 높다란 아파트로 기존의 도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미지 기호를 생산해 내며 시대의 중심으로 등장하였지만 일천한 역사성은 한 줄의 텍스트로 묘사 가능하다. “예전에는 이곳이 논밭이었다.” 스스로 몇몇 신화를 생산해내었지만 열림과 해체 그리고 문화적 접촉을 통한 새로운 지평을 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다. 10년도 못되어 <해운대신시가지> 되어 자신 또한 구도심이 되어 버린 것이다.

약 백만 평방미터 밖에 되지 않는 좌동의 해운대 신시가지(Haundae New Town)가 13

만명의 이주자를 내세워 장산 서편의 기존 도심을 밀어내고 해운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영만 매립지에 건설되는 신항 타운에 그 영광의 자리를 물려주어야 한다. 이 매립지는 마린시티(Marin City)라 불리며 해운대 신시가지의 25층 규모 아파트를 훌쩍 뛰어넘는 80층,60층 짜리 아파트들이 즐비하다. 전국에서 고층 건물이 가장 밀집한 지역으로 통계에 잡히는 그곳이다. 이제 해운대 신시가지에 사는 남자들은 마린시티로 이주하는 것이 로망이 되었으며 마린시티의 야경은 홍콩의 그것과 비교된다. 주거비용은 좌동의 신시가지와 비교할 때 차이가 많이 난다.



<요트 경기장에서 바라본 마린시티 전경>

마린시티의 개발과 동시에 마린시티 뒤편에 있는 수영 비행장이 센텀시티(Centum City)로 명명되어 개발되었으며 전시 컨벤션 센터인 Bexco(서울의 삼성동 Coex보다 10,000㎡ 이상 크다), 세계 1위 규모를 자랑하는 신세계백화점, 멋진 건축물인 영화의 전당 그리고 그 외 많은 건물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낯설지만 멋진 디자인을 선보이며 건축되었고 건설 중에 있다. 이로서 마린시티, 센텀시티와 연계된 신항 도시에 좌동의 New Town은 중심에서 멀어지면서 밀려 나갔다. 250년 역사의 구도심을 밀어낸 지 채 10년도 안 되는 시간이다.

2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구도심을 주변으로 내몰았던 해운대 신시가지는 이제 자신이 주변으로 내몰리는 처지가 된 것이다. 25층 건물의 아파트로는 80층,60층의 초고층에 현대적 디자인을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이 신기하고 놀라울 만큼 아름답지만 낯선, 매립지위의 건설된 마린시티에게 한마디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권위는 <역사성>만이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 자신(해운대 신시가지)이 역사 없는 신항도시인데 어쩔 것인가! 그렇다면 만행적인 장산 서편의 구도심이 자랑스러운 역사성을 가지고 한마디 충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변증법적 도시 발전의 전범을 보여주려는 찰나에 구도심은 그만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센텀시티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고 말았다. 센텀시티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구도심의 기존의 아파트는 자신의 이름을 센텀 oo 아파트라고 개명하는등 신항도시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기에 급급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센텀시티전경>

센텀시티, 마린시티가 해운대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마린시티, 센텀시티로 명명되는 신항 도심은 기존의 문법으로 바라보기에 낯선 이미지(기호)를 생산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요청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상의 거리는 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심리적 문화적 거리는 단절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만큼 멀다. 넓은 러시아에서 역사도시 모스크바와 인공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간의 괴리와 (규모의 차이를 빼고 나면)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들 신항 도심이 생산해 내는 기호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도심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호 해석의 문법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 그것은 초현대적 건물들 속에서의 삶을 통해 세계 일류 도시가 되는 것이 그 지향점일 것이다.

(3) 문화적 단절

기호의 해석은 그가 속한 문화적 틀의 산물이라는 에코(Umberto Eco)의 지적이 옳다면 『해운대』에서는 지난 15년 사이 두 번의 문화적 분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장산 서편의 역사적인 구도심, 좌동의 Haeundae NewTown, 그리고 마린시티와 센텀시티가 그것이다. 역사적 도심인 장산 서편의 5~12층의 아파트가 NewTown에서는 25층으로 올라갔으며 마린시티, 센텀시티에서 80층,60층으로 올라갔다는 단순한 높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시간의 지속적인 변화에 단절을 불러왔다는 충격이 있다. 이러한 낯선 기호들이 생산하는 이질감 외에 문화적 심리적으로 단절을 부추기는 그 무엇이 은폐되어 있는 것이다. 현상되는 기호가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것은 이데올로기인가 신화인가?

마린시티와 센텀시티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시선을 돌려보자. 그들 자신 또한 기존의 문화권에서 이전해 온 사람들로서 스스로 공간적 시간적으로 분절된 기호들이 범람하는

새로운 기호계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시공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 새로운 공간에 적응해야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공간 내에서 이방인이 되는 경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리 미하일로비치 로트만(Юрий Михайлович Лотман)이 생트페테르부르크를 기호학의 도구로 분석할 때 극장성(연극성)이란 개념을 사용했다.



이에 따르면 적응할 때 까지 그들은 극장의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듯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생생하고 진정한 자신의 삶에 몰입하지 못하고 경계밖에 있는 사람들(관객)을 끝없이 의식하는 일상의 연극화가 나타나게 된다. 인간의 자연적 행위는 학습의 행위를 거쳐야 하며 이것은 이심적 공간모델의 필연적 결과일 것이다.

<마린시티 야경>

(4) 도시 공간의 기호학

이러한 부자유스러움 속에서도 열립과 해체 그리고 경계 밖의 세계와 문화적 접촉에 무관심한 것은 스스로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의 신화는 누군가 물어봐야만 살아나는 기괴한 신화이다. “어디에 사세요?” 이 질문을 받을 때 그들의 신화는 살아서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이다. 경계밖에 사는 것에 비해 몇 배의 경제적 대가를 치루고 입성한 그들의 성(城)안에서 스스로 신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이심적 도시 모델은 인공적이기에 기존의 구조(의식)의 해체이며 문화적 접촉을 통한 개방을 필요로 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높지위에 건설된 유령의 도시라면 마린시티 역시 바다를 매립한 물위의 도시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마린시티는 다만 안개 잦은 바닷가에 우뚝 솟은 초현대적 이미지(텍스트)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몽환적이며 비현실적인 실루엣일 뿐이다.

바다를 매운 자리에 세워진 마린시티에 적응하지 못하는 낙오자(?)들이 더러 구도심으로 복귀하곤 한다. 바다를 얻었지만 대신 하늘을 내주는 고층 빌딩 숲속에 들어선 큰장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취소하고 다시 하늘을 찾고 옛날 옷(문법)을 찾아서 입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초현대적인 이미지로 삶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 같던 새로운 기호세계가 삶의 지향점을 과거로 환원시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통시적 고찰이 불가능한 공간에서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은 계산되지 않은 기능일 것이다. 당대(contemporary) 텍스트만 난무하는 기호계안에서도 통시적(diachronic) 고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일부의 과거 복귀자들을 제외하면 마린시티의 대부분 사람들은 새로운 기호계에 순응하고 적응한다. 이러한 적응은 그들의 해석체계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에코의 백과사전이 더욱 부피가 커졌다는 것이다. 기호는 어떤 문화의 틀속에서 조용히 해석되어지길 기다리고만 있는 수줍은 숫처녀가 아니라 당당히 해석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문화의 스펙트럼을 확장할 것을 요구하며 문화에 질(quality)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새로운 기호

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경험하는 ‘적응’이란 바로 새로운 기호를 해석해 내게 되었다는 것이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문화를 변형시켰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3. 도시 공간과 이데올로기

광고 속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지명은 <강남>일 것이다. 아파트 광고에서 학원 광고에 이르기까지 <강남>이란 단어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강남>은 이 시대를 사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부의 상징이요 자식 교육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며 명문대 입학에 위한 최고의 학군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것이 강남 신화라고 불린다. 구체적 지표에서 주택 가격이 타 지역보다 높으며 명문대 입학률도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어디에 사느냐고 물을 때 “해운대”라고 대답하면 “좋은데” 산다는 반응이 돌아온다. 여기서 서로 간에 이해하고 있는 “해운대”는 지금까지 살펴본 센텀시티와 마린시티를 일컫는 것일 것이다. 현대의 신화는 가장된(disguised) 이데올로기다. 현대 사회의 온갖 현상들 중에서 자명하고 자연스러운 체 짐짓 가장하는 이데올로기와 수사학의 교묘한 결합이 은폐되고 있다(R. Barthes). 이 장에서는 도시의 공간과 관련된 이데올로기를 기호학적으로 살펴보고 감춰진 것이 있다면 드러내 보이는 것이 기호학의 실용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장산에서 본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단지>



<신시가지 63평형 아파트 평면도>

(1) 지표로 살펴 본 해운대

지표의 대비 기간을 1995년~2010년 사이로 잡은 것은 앞에서 언급한 해운대 신시가지의 입주가 1996년부터 시작되었으니 그 직전 년도인 1995년을 비교의 시작점으로 잡은 것이다.

<출처:부산시 통계 연감>

구분		1995년	2010년	증감
주민수	해운대구	305,917	429,477	123,560 명
	부산시 전체	3,892,972	3,600,381	-292,591 명
예산	해운대구	65,303 백만	324,819백만	497%
	부산시 전체	4,677,939백만	12,351,993백만	264%
면적	해운대구	51.43	51.46	+0%
	부산시 전체	748.92	767.35	+2.4%
해안선 길이	해운대구	13.10	12.20	-6.8%
	부산시 전체	197.70	306.21	+54.9%
건축허가면적	해운대구		692,690 m ²	타구의 2.3배
	부산시 전체		299,106 m ²	-
범죄발생건수	해운대구		18,456	타구의 2배
	부산시 전체		9,041	-
외국인 범죄	해운대구	15	114	7.6 배
	부산시 전체	205	1,061	5.2 배

위 지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15년간 부산시 전체의 인구가 7.5% 줄어들 때 해운대는 40%가량 증가하였다. 이 기간 부산시의 면적은 늘어났지만 해운대의 면적은 그대로다. 예산은 부산시 증가율의 1.9배에 달한다. 이것은 지방세 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이며 주민 수와 재산이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건축 허가는 부산시 전체 평균의 2.3배에 달한다. 해운대가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하다는 지표이다. 반면 범죄 발생 건수도 부산시 전체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외국인 범죄도 1.5배가량 높다.

지표상으로 보면 해운대는 부산시 전체보다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 항목과 부정적 항목 모두에서 -더 높게 나온다. 『해운대가 살기 좋은 동네다.(또는 부자 동네다)』라는 이데올로기가 나오려면 다른 곳과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야만 타당한 추론이 되고 도시 계획이라는 과학에서는 어느 만큼의 차이가 나야 고려할 만한 차이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데올로기란 부분적인 세계관 또는 현실 세계에 대한 특정한 관점이라는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의 이데올로기관(觀)을 따른다면 『해운대가 살기 좋은 동네다.(또는 부자 동네다)』라는 언명(메시지)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한 사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공유한 믿음, 가치체계, 신념은 사회적 관계와 생의 주어진 조건들을 위한 -과학적 객관성을 위장한- 이론적 가장(disguise)으로서 태어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특정한 기호의 의미 일부분을 억누르는 동시에 특수한 이해 집단의 목적을 위해 다른 일부분에게 특전적 지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공간의 은폐된 의미

센텀시티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이 2009년 6월 26일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 백화점으로 등재되었다.



부산의 랜드마크 '황금빛 바다' - 경관조명

대한민국 제1의 해양도시인 부산의 아이콘 바다에서 영감을 얻어 전체 경관조명의 컨셉을 '빛의 바다'로 하여 점포 곳곳에서 바다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빛을 연출합니다.

오늘날 중년 여성들에게는 백화점은 성전(聖殿)이다. 나를 위해 베푸는 점원들의 서비스는 나를 여왕으로 만들어 주기에 손색이 없다. 백화점에 들어가면 그 안의 공간은 모두 나를 위한 공간처럼 느끼게 된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건축은 모든 예술의 어머니이자, 출발점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에 없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국 캘리슨(Callison)사, 이태리 클라우디오 실베스트린(Claudio Silvestrin) 등 전 세계 건축, 인테리어 대가들이 모여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완성하였습니다. 신세계간의 클래식한 전통미, 해안도시 부산의 역동성, 복합공간의 다양성을 담아낸 센텀시티의 건축미는 밤이 되면 절정을 이룹니다. '황금빛 바다'를 표현한 외관 조명이 건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빛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 그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 고객은 문화인이 된듯하다. 음악을 듣기 위해 콘서트장을 찾지 않아도, 미술관에 들러 그림을 감상하는 노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백화점안에 머무르기만 해도(물론 쇼핑하면서) 문화적 소양이 갖춰지는 듯하다. 위 사진 속에 앤디 워홀의 작품 마를린 먼로가 보인다. 소위 말하는 팝아트다. 팝아트란 앤디 워홀이 아이디어를 내면 밑의 직원들이 인쇄를 무수히 해낸다. 그 후 앤디 워홀이 그 위에 사인을 하면 <작품>이 되고 비싼 가격에 팔린다. 앤디 워홀은 살아서 큰 재산을 모은 몇 안 되는 화가들 중 한 명이다. 팝아트란 장르의 예술의 대중화를 기치로 탄생하였다.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그림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탄생한 pop(대중) 아트(art)의 본래 의도를 생각하고 있자니, 수백억에 팔려서 어느 회장님 거실에 걸려있는 팝아트 작가인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짐작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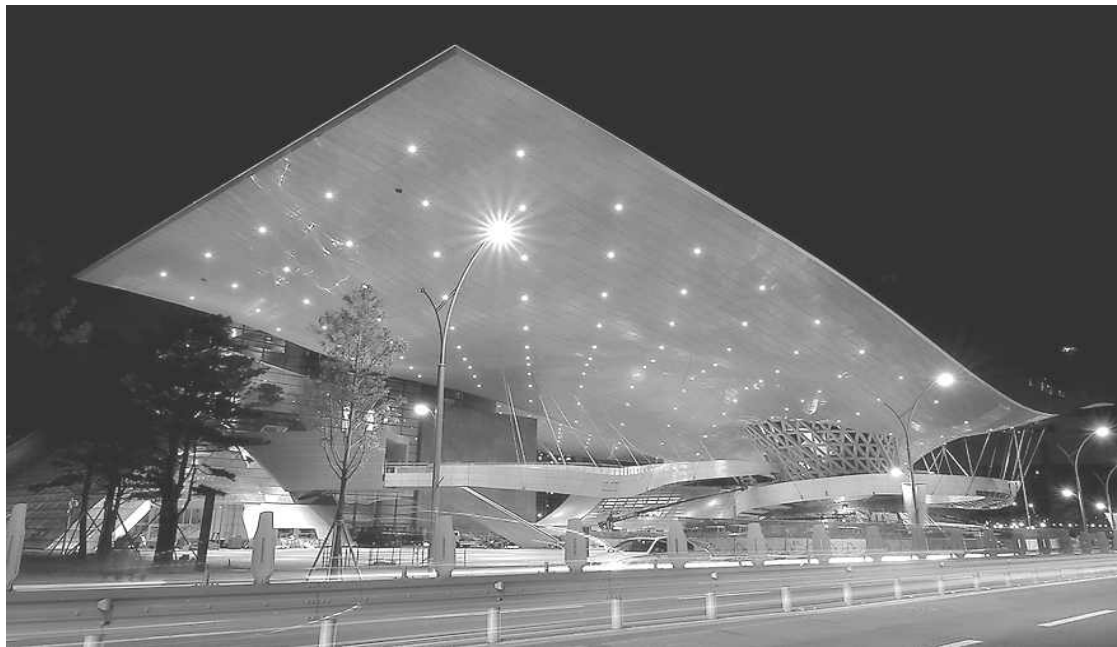


비움의 미학 - 보이드 'VOID'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3곳의 보이드(Void)입니다. 먼저 8층까지 시원하게 뚫린 중앙 센텀광장 보이드는 자연채광이 들어오는 곳으로, 세계적인 쇼핑몰에서 볼 수 있는 아트 리움을 만들어 광장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동쪽 보이드에 설치된 박선기 작가의 아트워크는 쏟아지는 폭포수를 연상시키며 주변 시선을 압도합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그 엄청난 규모에 비해 너무나 작은 출입구를 가지고 있다. 위의 사진은 비움을 얘기하고 있다. 기호학의 매력에 빠진 사람이라면 백화점이 의도하는 것을 정확히 읽어 내어야 할 것이다. 세계 최대 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빈 공간을 남겨두겠는가? 그들이 비워둔 자리에 채우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미지>다. 외형적 형태를 지우고 마음 속에 영원히 남는 이미지로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이다. 그러면 신세계백화점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 형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신기루 같은 존재가 된다. 이것이 곧 신화의 생산 과정이다. 뉴욕에 있는 프라다(PRADA) 매장은 간판도 없이 어느 건물 지하 깊숙이 들어 앉아 있다. 그래도 사람들은 악착같이 찾아 간다. 굳이 간판을 달 필요가 없다. 찾기 힘들다고 투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대답은 이렇다. "It's PRADA"

수백 년 전 물자가 귀할 때는 생산자가 소비자의 우위에 있었다.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생산자의 우위에 서는 시대로 옮겨왔다가 이제 명품이 사람 우위에 서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신의 지배를 지나고 왕의 지배를 지나서 이제 똑똑한 인간들은 명품의 지배를 받는 시대를 맞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일 년에 수백 개의 축제를 열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가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BIFF)>이다(정부 발표). 초기에는 광복동 극장가에서 열리다가 해운대로 무대를 옮겨왔다. 해운대로 옮겨와서 처음에는 수영만에서 레드 카펫을 깔았다가 센텀시티에 영화의 전당(두레라움)이 완공된 후 2011년부터 이곳에서 레드카펫을 깔고 있다. 영화의 전당은 4000석의 야외극장을 덮고 있는 지붕이 기둥하나에 떠 받쳐지고 있다. 건축 기술상으로 지붕하나를 없애는데 100억원의 비용이 더 든다고 한다. 투자한 만큼 많은 관심을 끌어 들었다. 대성공이라고 자축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은폐된 이데올로기가 있다.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포스트는 그 해의 주제에 맞게 해마다 디자인이 바뀌지만 변치

않는 ICON은 <영화의 바다>이다. 매년 가을이면 전국의 수많은 영화팬들이 몰려들어 하룻밤에 몇 편씩 잠 안자고 영화를 본다.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영화의 바다라는 메타포가 나왔을 것이라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초창기 BIFF의 주무대였던 광복동의 극장 거리는 그리 넓지 않았다. 수많은 팬들이 영화를 찾아서 해매는 그 모습이 거리를 가득 메운 물결 같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人山人海였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는 성공했다. <영화의 바다>에서 말하는 바다는 자연의 바다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바다를 은유한 것이다. 이제 해운대의 더 넓고 더 멋진 공간(영화의 전당)에서 별리는 축제, <영화의 바다>란 ICON은 단지 자연의 바다만 은유할 뿐이다. 인간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엄청난 자본과 자연의 바다에 인간은 수몰(水沒)되었다.



왼쪽 사진은 바벨탑이 아니다. 신에 대한 도전의 상징도 아니고 숭배의 유적도 아니다. 이것은 집이다. 바다를 매립한 곳에 세워진 인공의 도시, 마린 시티에 세워진 80층 높이의 인간 거주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집은 아직 없다. 이곳은 많은 사람이 살아보기를 열망하는 집이다. 집값은 경계 밖의 집들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이곳에 사는 이들은 그들의 신화를 생산하면서 또 스스로 소비한다.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곳은 우주의 중심(Gaston achelard)이고 문 밖의 요란함을 차단하는 아늑한 소굴(Pierre Albert -Biro)이다. 그러나 아는가? 80층 집에 사는 어머니는 가족의 저녁을 준비하기 위하여 센텀시티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이

아니라 경계밖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장을 보러 간다는 것을. 가스통 바슐라르의 집은 꿈의 집으로,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또는 한 거주지에서 다른 거주지로 꿈이 오간다. 대저택에 살 때에 오두막을 꿈꾸고 오두막에 살 때는 궁전을 꿈꾸는 집의 변증법이 여기서도 나타난다.

파리의 심볼인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한 만국박람회를 위하여 기획된 건축물이다. 300m 높이에 당시로는 없었던 신기술을 사용하여 건축 초기부터 많은 논란과 회의를 불러 일으켰으나 결국 경이로운 미학적 자태로 오늘 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은폐된 이데올로기가 있다. 당시 프랑스는 획기적인 제강 기술로 엄청난 양의 철강을 생산해 낼 수 있게 되었는데 마땅한 소비처를 찾을 수 없었다. 에펠탑은 모든 소재가 철 한가지로만 만들어졌다. 또 1889년의 만국박람회는 전 세계에 프랑스의 기술력을 과시하기에 절호의 기회였으며 프랑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국가의 허영이 에펠탑 위에서 휘날리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사적 국가 심리학적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변함없이 에펠탑에게 미적 찬사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왜 80층의 집을 지었을까? 왜 80층 집에 살면서 재래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는가?

(4) 기호학의 실용적 활용

움베르토 에코는 “기호학 이론의 발견 학습적이고 실천적인 힘은 의사소통행위가 문화

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호 체계의 현실적인 복잡성을 드러내거나 비켜가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5년간 두 번의 중심 이동을 경험한 격동의 <해운대>를 기호학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비판해 봄으로서 중심으로 진입하려는 열망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 시켜 보여주기도 하고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좀 더 깊이 논의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다.

기호는 자기 생성적 본성(self generating nature of sign)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기호가 해석체를 무한히 많이 가질 수 있다는 무한 기호 작용(unlimited semiosis)을 한다는 것이다. 윗글에서 일부 단락의 끝부분에 질문을 하고 대답은 하지 않은 몇 군데가 있는 것은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Reference

- 연희원, (2011), 에코의 기호학:미학과 대중 문화로 풀어내다. 한국학술정보, 내일을 여는 지식 철학-28.
- Mark Gottdiener, (1986), The City And The Sign: An introduction to Urban Semiotics. Columbia Univ. Pr.
- Yuri M. Lotman, (2001), Universe of the Mind: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Translated by Ann Shakman. Indiana Univ. Pr
- Gaston Bachelard, (1994), The Poetics of Space, Beacon Press, Boston.
- Malcolm Barnad, (2005), Graphic Design as communication, Routledge.
- 이윤기역 움베르토 에코, (1986), 장미의 이름, (주) 열린책들.
- 김수환, 연구 논문, 1.유리 로트만 기호학에 있어서 ‘공간’의 문제
2.로트만의 문화 기호학: 구조적 ‘대립’에서 비대칭적 ‘대화’로

A Corpus-based Comparison of Uses in Context between *safe(ty)* and *secur(-ity)* by Means of 'Binary Opposition Strategy'

Doo-Shick Ki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Many corpus-based studies of words have depended simply on collocation and lexico-grammatical patterns. This can lead to distort the truth of words researched without providing a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words. This study attempts to distinguish confusingly similar meanings of 'safe/safety' and 'secure/security' in the cognitive frame of 'danger/safety', consisting of elements such as harms, victims(or objects), and processes of 'safety/security'. It demonstrates that one pair of words 'safe/safety' and 'secure/security' is primarily differentiated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causativity' and this concept supports the statistical and lexico-gramma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pair in COCA. For the pedagogical purpose, it provides oppositional meanings between the pair for each element of the 'safety/danger' frame, using the "Binary Opposition Strategy" suggested by Kim(2013).

I. Introduction

1.1. Relevant Data & Confusions

- (1) a. The birds' nests are high up, safe/secure from predators.
- b. These elephants are relatively secure/safe from poachers.
- c. Make sure you keep these documents safe/secure
- d. Keep your credit cards in a safe/secure place.
 (<http://forum.wordreference.com/showthread.php?t=2430896>)

- (2) safety와 security의 우리말의 (불편한) 다양성
 - a. safety tips(안전수칙) vs. safety deposit box(귀중품 보관함)
 - b. a safe facility(안전한시설) vs. a secure facility (보안이 철저한 시설)
 - c. a safety deposit(안전보관) vs. security deposit(보증(예치)금)
 - d. National Security Organization((군사) 국가안전보장 기구)
 - e. security of the country(국가의 안보)
 - f. security forces(보안대)

- g. Presidential **Security** Act(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h. Joint **Security** Area(공동경비구역)
 - I. Health **Security** System(의료보장제도)
 - j. The National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Chinese: 国家核安全局) vs.
The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US: 국가원자력안전국)
 - k.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OSPA) (安全行政部):
 - l. th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국가 안전 기획부)
 - m. **security** camera(방범/감시/보안용/비밀/무인/ 카메라)
- (3) a. **Security** is a primary focus in most nursing homes.
(안전/?보안은 대부분 요양원의 주요 초점이다.)
- b. food security vs. food safety (음식안전/음식안전보장(?)/음식안보(?))

1.2. Previous Accounts and their Problems

- A. Burns et al's(1992: 3-4) distinction between safety-critical and security-critical systems
- the distinction of safety and security in terms of the nature of the harm caused and the nature of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events leading to a safety or security 'incident'. (Burns *et al* 1992: 3)
 - A system is not safe if it can harm us(i.e., immediate, direct harm); it is not secure if it gives others the means of harming us. (Burns *et al* 1992: 4)
 - Limited to specific fields
 - Not corpus-based
- B. Kim's(2013) Distinction of uses in context between 'afraid of' and 'afraid to' by means of Binary Opposition Strategy

1.3. The Purposes of the Study

- (1) to argue that the confusingly similar meaning of 'safe/safety' and 'secure/security' can be distinguished by (non-)causativity involved between elements such as harms, victims(or objects), and processes of safety/security comprising the cognitive frame of 'danger/safety',
- (2) to show that these distinct uses of 'safe/safety' and 'secure/security' are evidenced by comparing semantic and syntactic properties of the pairs of words in terms of lexico-grammatical profile(O'Keeffe et al 2007), using the COCA,
- (3) to suggest the distinct contextual uses of 'safe/safety' and 'secure/security' for their effective acquisition and learning, in terms of Kim's (2013c) 'Binary Opposition Strategy' suggested as a principle of Motivational Iconicity, and

2. Causativity distinguishes between 'safe' and 'secure'

2.1. Definitions and Origins of the pair 'safe' and 'secure'

- A. Origins of 'safe'(Adj.)
- B. Definitions of 'safe'(Adj.)
- C. Origins of 'secure'(Adj.) & 'secure'(Vt.) & 'security'
- D. Definitions of 'secure'(Adj.) & 'secure'(Vt.) & 'security'

2.2. Causative/Inchoative Alternations

- A. Levin's(1993-27-28) Alternation of Vt. & Vi.(Vt. ⇔ Vi.)

1) Verbs of Change of State Zero-Related to Adjective:

b. ZERO-RELATED TO ADJECTIVE: blunt, clear, clean, cool, crisp, dim, dirty, double, dry, dull, empty, even, firm, level, loose, mellow, muddy, narrow, open, pale, quiet, round, shut, slack, slim, slow, smooth, sober, sour, steady, tame, tense, thin, triple, warm

c. CHANGE OF COLOR: blacken, brown, crimson, gray, green, purple, redden, silver, tan, whiten, yellow

2) Difference of Multiple GF(Adj./Vt./Vi.): [Adj./Vt./Vi. vs. Adj./Vt./Vi.]

'clear/clean/double/dry/open/shut/slow/smooth/tan/triple/warm/yellow'
vs. 'free/secure' (No Mention in Levin 1993)

- B. Four Questions: (1)"Why multiple GF?" + (2)"Which GF was used first?" + (3)"Why Adjectives 'free/secure' **disallow** Intransitives?" + (4)"What properties involved in these types of words?"

- Ans to Q4: a) yellow(Vt.) <= "**made** something '**yellow**(Adj.)'
b) Transition from Adj. to Vt.
c) The verbs zero-related to adjectives in the above box imply '**change of state**' => **causativity**
d) Successful alternation of Transitives to Intransitives has been suggested to depend on 'de-agentiveness'(Haspelmath 1993) or '**spontaneity** (of the occurrence)'(Dixon 2005, Kim 2009, among others)

- Ans to Q3:
'Spontaneity' and verbs(e.g., *be, get, feel, keep, stay* 등) appearing before 'free/secure' might affect the alternation(i.e., ergative alternation: ▶ 2.3.A). (○)

동/온도/색깔 변화와 같은 물리현상은 자연발생이 가능하나 'feel *secure/free*' 같은 안전감/안정감/자유로움과 같은 감정은 그 변화는 가능하나 없는 것이 생기거나 생긴 것이 없어지는 등의 변화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

- (4) a. Be sure to keep warm when you go outside. (Adj.)
 b. He warmed his hands in front of the fire. (Vt.)
 c. Add the sausage, shrimp, and leftover veggies (if desired) to the bean mixture, and heat until all elements are warmed, about 10 minutes.
 d. Air rises when it warms. (Vi.)
- (5) a. The children were safe and secure in their beds. (Adj.)
 b. We must secure the country's borders. (Vt.)
 c. I noticed that the cabinet was secured with a small brass lock.
 d. And the way forward is to make sure that Americans believe and feel comfortable that their border is secured/**secures*. (**Vi*)
- (6) a. The animal struggled to get free of the trap. (Adj.)
 b. The gunman freed two of the hostages. (Vt.)
 c. The animals were freed from their cages.
 d. ~~*The animals freed from their cages.~~ (**Vi*)

2.3. Causativity and the meanings of 'secure/security'

A. Change of state & Causativity: 'safe' vs. 'secure'

1) Critical Features of Ergative/Causative Alternations:

break/roll/increase/develop/freeze(Vt.) ↔ (Vi.)

2) safe: [? → safe]; secure: [dangerous/unsafe → safe]

3) "*safe* with 'non-causative' reading" vs. "*secure* with causative rea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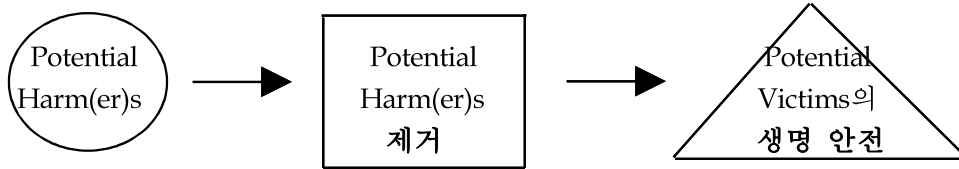
3. Cognitive Frame of 'Safety/Security'

... consists of harm(er)s, victims (i.e. targets) of Safety/Security, and processes of Safety/Secu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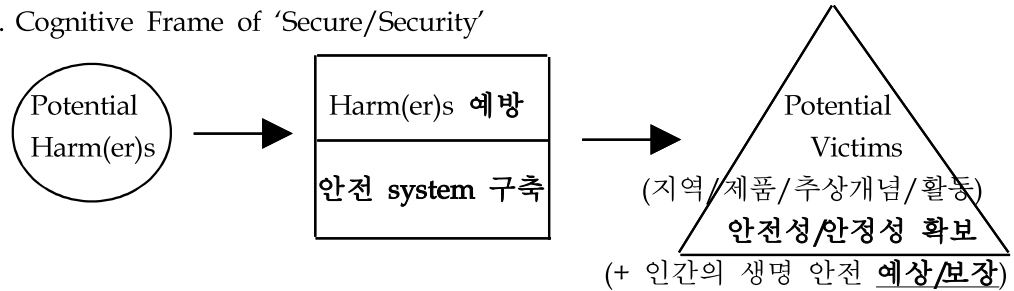
3.1. Comparison of Cognitive Frames of 'Safe/Safety' and 'Secure/Security'

(7) 'Safe/Safety' vs. 'Secure/Security'

a. Cognitive Frame of 'Safe/Safety'



b. Cognitive Frame of 'Secure/Security'



[Linguistic Realization of the Frame]

- (8) a. "X is **safe for** Y" (X = 잠재적 가해자; Y = 잠재적 피해자)
 b. The drug is safe for healthy people.
- (9) a. "X is **safe from** Y" (X = 잠재적 피해자; Y = 잠재적 가해자)
 b. But now no place is safe from American bombs.
- (10) a. "X **makes** Y **secure**" (X = 안전 시스템; Y = 잠재적 피해자)
 b. Financial support is always needed for the programs that make life secure, joyful and safe for these vulnerable children.

3.2. Harm(er)s(가해자):

Elements/Agents of Danger/Risk/Hazard (위험 요소)

3.3. Victims(피해자)

... Targets/Patients of Safety/Security (안전 취약/보호/보안 대상)

3.4. Natures of the notions 'Safety/Security'

- (11) a. ... safety features, such as seat belts, airbags, anti-lock braking system
 b. Document security features such as holograms, watermarks, micro-print etc. ...

3.5. Processes of Safety/Security

A. Difference in protector/remover of Harm:

B. Ways of Protection from/Removal of harmers:

- a. 'Safety' involves protection from/removal of Harmer 'on the spot'
 b. 'Security' involves protection from/removal of Harmer 'in advance'

4. Corpus-based Analysis of 'Safety/Security'

4.1. Comparison of 'Potential Harm(er)s' & 'Potential Victims' :

- Potential Harms(잠재적 가해자) = Elements/Agents of Danger/Risk/Hazard (X: 위험 요소)
- Potential Victims(잠재적 피해자) = Targets/Patients of Safety/Security ('피해가능성(안전 취약)이 높아 안전 보호(보안)/보호 안전(안보)가 필요한 대상')

- A. "SAFE/SECURE from + NP as Harm(er)s"
- B. "SAFE/SECURE against + NP as Harm(er)s"
- C. "NP as Harm(er)s or Victims + [V*] + SAFE/SECURE"
- C.1. "[Person' NP(996/330: 33%) as Victims + [V*] + SAFE": [NP= 생명이 보호된 사람]
- C.2. "[Non-Person' NP(666/67%) as Harm(er)s + [V*] + SAFE":
[NP = 위험이 제거된 제품/지역 등]
- C.3. "[NP(총222) as Victims + [V*] + SECURE": [NP= 잠재적 피해자;
'비생명 보호' → '생명보호']
- D. "[NP as Harm(er)s or Victims + V + SAFE/SECURE(1160/2) to V"]
- D.1. "[NP(1160) as Harm(er)s + V + SAFE to V" = [NP는 '잠재적 가해자'로서 V의 Tough-Moved Object]
- D.2. "[NP(2) as Victims + V + SECURE to V" = ['secure' ≙ 'secured']
- E. "[NP as Harm(er)s is SAFE/SECURE for 'Person']"
- E.1. "[NP as Harm(er)s + V + SAFE(103) for + Person]"
- E.2. "NP + V + SECURE(1) for + Person" (단지 1개의 자료 출현)
- F. "SAFE/SECURE + N as Harms or Victims":
- F.1. "SAFE + N(총 8908) as Harms or Victims"
- F.2. "SECURE + N(총 1661) as Victims"
- G. "[N as Harm(er)s or Victims + SAFETY/SECURITY]"
- G.1. "[Person' NP(5490/638:10%) as Victims + SAFETY]"
- G.2. "[Non-Person' NP(5490/5302: 90%) as Harm(er)s + [V*] + SAFE":
- G.3. "[N(5863) as Victims + SECURITY]"
- H. "SAFETY/SECURITY" of NP as Harm(er)s or Victims"
- H.1. "SAFETY" of [Person' NP(1290/637: 49%) as Victims]"
- H.2. "SAFETY" of [Non-Person' NP(653/51%) as Harm(er)s]:
- H.3. "SECURITY" of [NP(총749) as Victims]"

4.3. Comparison of Processes of 'Safety/Security'

- A. Different Natures of Harms between 'Safety' and 'Security'
- 1) **Safety**: 물리적/우연적/비의도적 위험 (+ 비체계적인 인간에 의한 위험)
 - 2) **Security**: 비물리적/체계적/의도적 위험

B. How to get 'Safety' vs. 'Security' = "Removal of vs. Prevention from" Harm(er)s
(Agentive) vs. (Causative)

- 1) **Safety:** a) 물리적/우연적/비의도적 위험 (+ 비체계적인 인간에 의한 위험)
b) 위험/피해에서 '구조' 또는 위험/피해의 '제거'와 연관된 '안전' (실제 위험하니까/피해를 보니까 Agent로서 안전하게 하려함);
- 2) **Security:** a) '보안/안보' = 체계적/의도적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하기('Causative')
위한 '예방(조치)'과 연관된 '안전/안정' (위험안하도록/피해를 안보도록 사전에 안전하게 하려 함);
b) 수반 조치 = 예방책/방지벽(프로그램, 시스템, 지식)

C. Comparison of Two Cognitive Frames of 'Safety/Security'

D. Corpus-based Evidence of [Agentive vs. Causative] Frames

<Direct agent of saving> (= saver(직접구조자): 위험 제거 장치/장비)

- (11) safety/~~*security~~ + pin(s)/equipment/valve(s)/harness(es)/glass(es)/

<Direct agent of leading to Harm/Danger>

- (12) safety/~~*security~~ + margin

<Precautionary steps> for prevention of Harm/Danger(위험 사전예방 조치/장비)

- (13) security/~~*safety~~ + arrangement(s)(태세)/camera(s)/apparatus(es)

<**Causee** of removing Harm/Danger> (= delegated agent(위임자))

- (14) security/~~*safety~~ + council(s)/force(s)/adviser(s)/correspondent(s)

<Causative Way>: Confidential(신상보호를 위한 기밀유지)

- (15) security/~~*safety~~ + number(s)/clearance(비밀취급인가)

E. Comparison of Natures & Processes of "Safety/Security"

... "X + features/services/issues/measures/tips + such as + Y" 의 pattern 이용

- (16) safety >>> security +
net(s)/standard(s)/rule(s)/regulation(s)/law(s)/violation(s)/guard(s)/
record(s)/feature(s)/commission(s)/training(s)/belt(s)/device(s)/factor(s)/
tip(s)/procedure

- (17) security >> safety +
system(s)/issue(s)/expert(s)/officer(s)/agency(ies)/personnel/chief/
measure(s)/concern(s)/service(s)/benefit(s)/policy(ies)/interest(s)/
official(s)/threat(s)/check(s)/team(s)/act(s)

[**safety** vs. **security** features]

- (18) a. ... **safety features**, such as seat belts, airbags, anti-lock braking system
 b. Document **security features** such as holograms, watermarks, micro-print etc. ...

[**safety** vs. **security** services]

- (19) a. # 1. Roads and traffic management. # 2. Parks. # 3. **Safety services** (police, fire, EMS). (직접적 구조와 관련된 안전 봉사업무)
 b. Sound identification and authorization mechanisms are often a necessary prerequisite for mitigating threats to other key **security services** such as confidentiality, non-repudiation, data integrity, and data availability. (안전을 위한 보안 업무)

[**safety** vs. **security** measures]

- 1) 공통점: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안전하지 못함
 2) 차이점: a) safety: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직접 피해를 봄 ('**현장/당면 조치**')
 b) security: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피해의 가능성에 노출됨(''**예방 조치**'')
- (20) a. Our stairlifts are fitted with a range of **safety measures** such as a seat belt and integral safety sensors. (물리적/비체계적/현장적 조치)
 b. ... **security measures** such as software programs like anti-virus suites, firewalls, ... (의도적/체계적/예장적 조치)

5. Conclusion

안전		
	safe/safety	secure/security
사역성	비사역적 (‘safe’: effect only)	사역적 (‘make safe’: cause & effect)
안전/위험의 성격	(있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서의) 자연적 안전/위험	(사전안전조치를 해놓은 상태로서의) 인위적 안전(보안/안보/안정)
	우연적 (accidental) (자연 재해, 사고, 우연한 피해 등)	의도적/고의적 (intentional) (전쟁/침략/파괴/절도/인질/살해/상해)
안전 상태의 성격	물리적 상태 (안전한)	물리적 및 정신적 상태 (안전한; 안정된/확실한)
안전 대상	인간 생활과 긴밀한 것 (생명/건물/지역/재산/생필품)	인간의 중요 보호 대상 (국가/지역/생명/신분/비밀/직업/건물/재산/생필품)
안전을 위한 수단	잠재적 위험 제거(조치) (현장적 : 안전 수칙/처리/조치)	잠재적 위험 방지/예방 (사전적 : 감시, 경비, 보안, 경호 등)
안전조치의 직접성 여부	직접적 조치	간접적 조치
피해의 성격	개인적 피해 (사망, 상해, 질병, 질환 등)	사회적 피해/피해 (인명/신분/정보/재산/건물 피해)

'푸른 하늘' 은하수인가 '파란 하늘' 은하수인가?

Kim Kyung Sook

(충실대학교)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sage of Korean color terms 'phalan' and 'phuleun'. As in Chinese and also in Japanese, Korean indigenous color terms have been claimed to have no distinction between green and blue, hence often referred to as grue as a blend of green and blue. The study analyzes collocation patterns of 'phalan' and 'phuleun' and perception patterns on the 24-color wheel by young-male, young-female, old-male, old-female groups. It is argued that 'phalan' was developed as a focal color of 'phuleun' in the past and that more recently 'phalan' came to be used for blue and 'phuleun' for green. Now, it seems that the younger generation treats 'phalan' as blue while treating 'phuleun' as grue with its focal color being 'cholak'/green. The suggested color-term change remains to be verified in the coming years.

1. 문제

'푸른'

- 1)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반달>, 1924/1926, 윤극영)
- 2) '푸른 밥 종현입니다' (MBC FM4U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2014)
- 3) '푸른 신호등'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27년간 방송 후 2005년 폐지)
- 4) '900명 서명이 켜 신호등 파란불: ... 다음달 1일부터 이곳 네거리엔 점멸등 대신 푸른 신호등이 작동될 예정이다. '교통 흐름'보다 '약자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시민들이 노력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나 푸른 신호등은 앞으로도 오후 2~5시 사이에만 켜진다.' (한겨레 인터넷 판 2014-7-17)
- 5) 구글 검색: '파란 신호등': 157,000
 '푸른 신호등': 82,600
 '녹색 신호등': 93,500
 '초록 신호등': 31,100

(참고: '파란불': 486,000, '푸른불': 70,800, '녹색불': 61,300, '초록불': 241,000.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색 신호(등)', '녹색 신호(등)', '황색 신호(등)'을 사용함)

'파란'

- 6)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랗 거여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아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 1954, 어효선).
- 7)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x 2), 파란 하늘 빛 물이 들지요, 어여쁜 초록빛 손이 되지요. 초록빛 여울물에 두발을 담그면, 물결이 살랑 어루만져요 (x 2).' (<초록빛

바다>, 1950년대, 박경중)

‘청(靑)’

8) ‘청산리(靑山-)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청산리 벽계수>, 16세기, 황진이)

9) ‘청운(靑雲)의 푸른 꿈’

‘녹(綠)’

10) ‘녹음(綠陰) 방초 승화시’ (<춘향전>, 18~19세기)

2. 전통적인 설명 (위키백과: ‘초록불’과 ‘파란불’ 신호등)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 등 동양 국가들은 초록색과 파란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푸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대한민국에서의 청색, 즉 ‘푸른 색’은 청(靑), 녹(綠), 남(藍), 벽(碧) 등 넓은 의미의 색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녹색 빛이 감도는 과일을 청과(靑果)라고 하며, 초록 숲이 우거진 산을 청산(靑山)이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두 가지 색의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문화적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 들어서 초록색과 파란색이 일부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신호등에서는 관념에 따라 이를 구분하지 않고 여전히 ‘푸르다’와 ‘파란색’을 ‘초록색’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EC%8B%A0%ED%98%B8%EB%93%B1>)

3. 실험

1) 색상 용어의 연어 패턴: 대학 남학생 20명 + 여학생 20명 (개방형 질문)

초록 --: 잎 > 잔디 > 나무 > 신호등 > 숲(산) > 펜 > 구두 > 가방 > 채소 > 바다

파란 --: 바다 > 하늘 > 옷 > 눈 > 불(신호등) > 펜 > 가방 > 구두 > 명 > 종이

푸른 --: 바다 > 하늘 > 숲 > 옷 > 눈 > 들(판) > 명 > 나무 > 신호등 > 강(호수)

=> 상위 5위까지의 ‘자연물’ 연어 패턴을 보면, ‘초록’은 ‘식물’만을 가리키며, ‘파란’과 ‘푸른’을 비교하면 ‘푸른’이 ‘파란’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지시물을 가지고 있다.

2) 색상 용어의 연어 패턴: 20대 남녀 각 20명, 60대 남녀 각 20명, 총80명 (선택형 질문)

<도표1. 색상 용어 연어 패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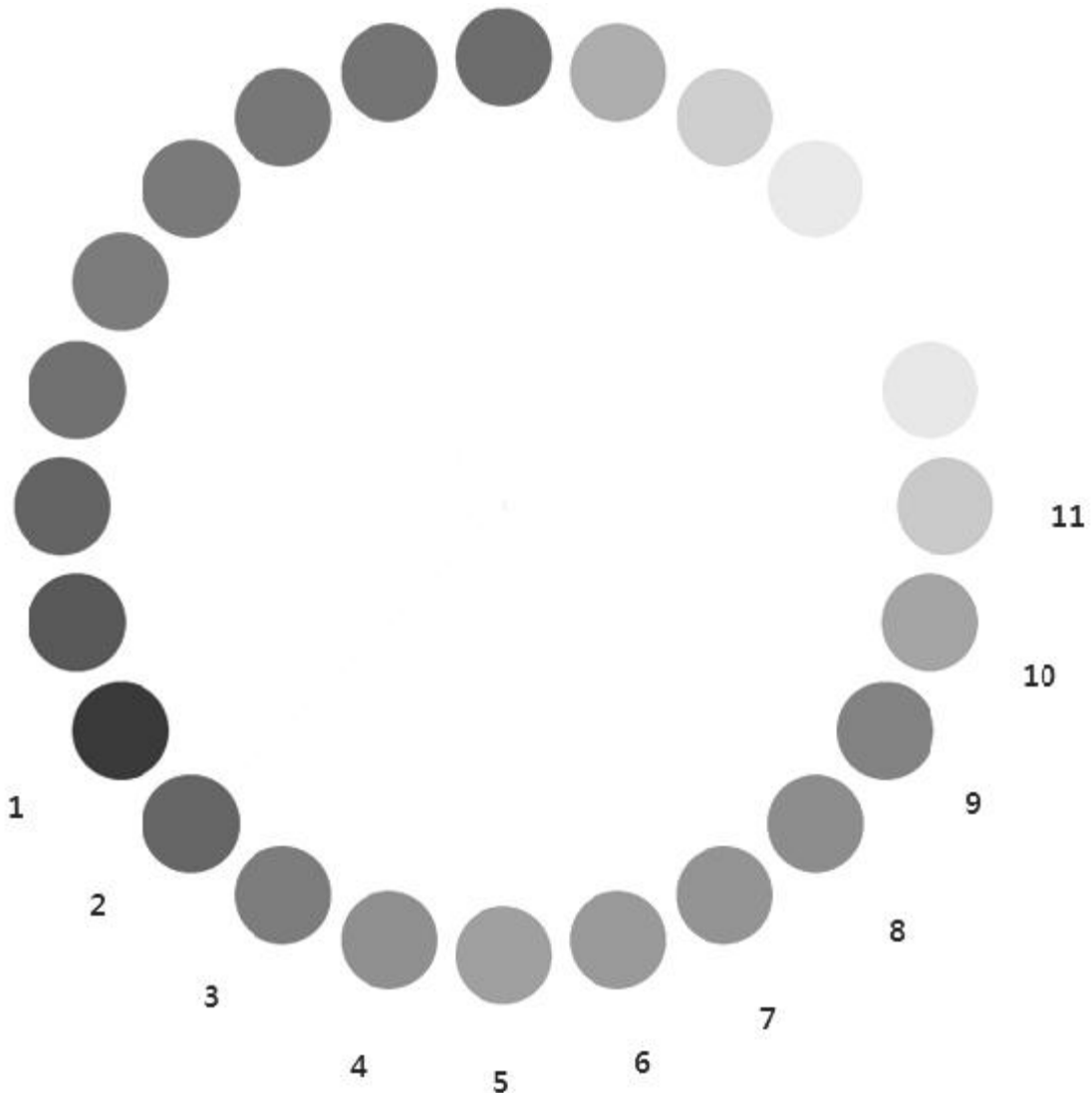
설문번호 (결합단어)	‘푸른’만				‘파란’만				‘푸른/파란’ 똑같이				‘푸른’이 더				‘파란’이 더			
	20대		60대		20대		60대		20대		60대		20대		60대		20대		60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바다	0	5	30	10	0	0	10	15	20	25	40	25	75	70	15	45	5	0	5	5
2. 하늘	5	0	10	15	0	0	25	10	65	60	45	35	10	15	5	25	20	25	15	15
3. 신호등	0	0	10	5	45	45	20	15	10	10	25	40	5	5	15	20	40	40	30	20
4. 명	10	10	0	10	30	15	25	25	0	20	30	50	40	40	20	10	20	15	25	5
5. 숲	35	40	30	30	5	0	0	5	5	5	15	15	50	55	50	40	5	0	5	10
6. 소나무	30	50	25	35	0	0	0	0	10	0	15	10	60	45	60	50	0	5	0	5
7. 강	5	15	10	15	0	5	5	0	20	25	35	50	75	40	30	15	0	15	20	20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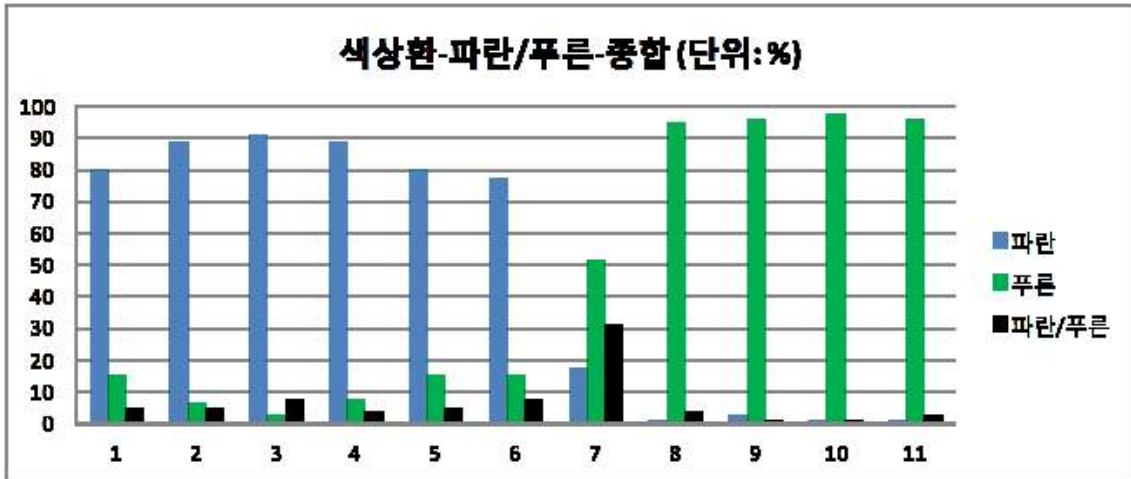
- => '푸른 바다'가 '파란 바다'보다 더 자연스럽다(20대).
- => '푸른 하늘'과 '파란 하늘'이 거의 비슷하게 어울린다(20대).
- => '파란 신호등'이 '푸른 신호등'보다 더 자연스럽다(공통).
- => '파란 숲'이나 '파란 소나무'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공통).
- => '푸른 강'이 '파란 강'보다 더 자연스럽다(공통).
- => => '푸른'이 '파란'보다 더 넓은 범위의 지시물을 가지고 있다.

- 3) 24 색상환(24-color wheel) 설문: 20대 남녀 각 20명, 60대 남녀 각 20명, 총 80명
* 다음과 같은 24 색상환을 보고 <파란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파>, <푸른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푸>라고 표시하시오.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곳에는 중복 표시해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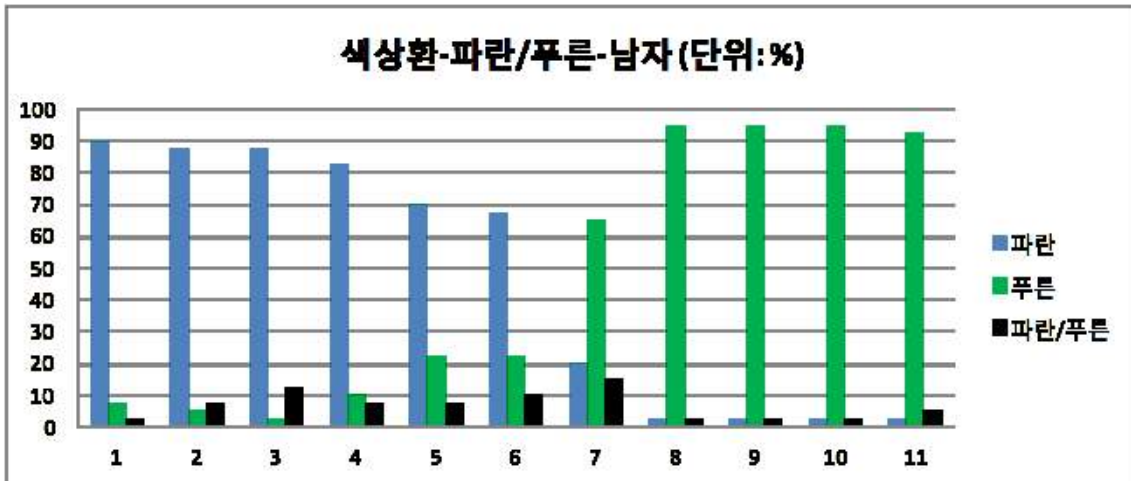
<도표2. 24색상환>



<도표 3. 24색상환 반응: 종합: 8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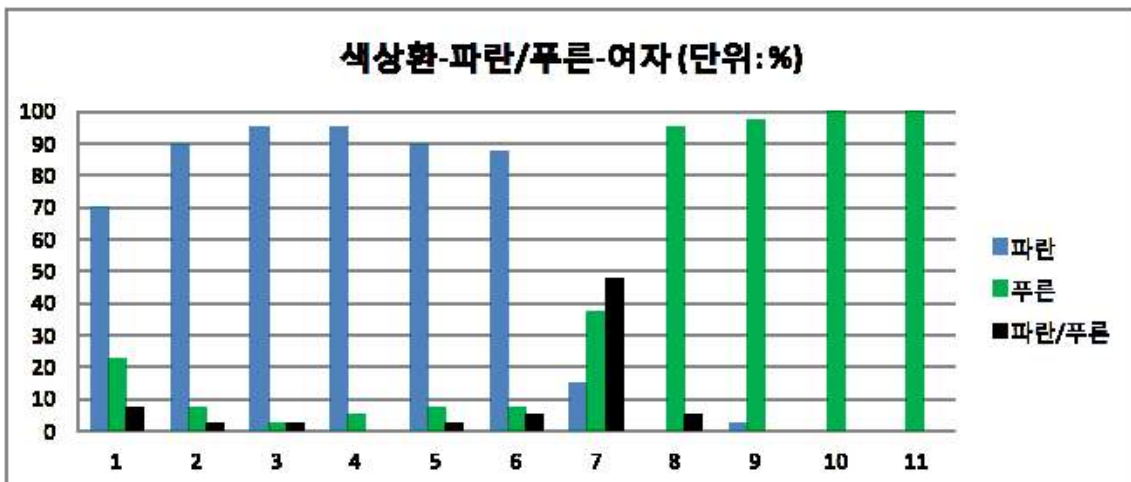


<도표 4. 24색상환 반응: 남자: 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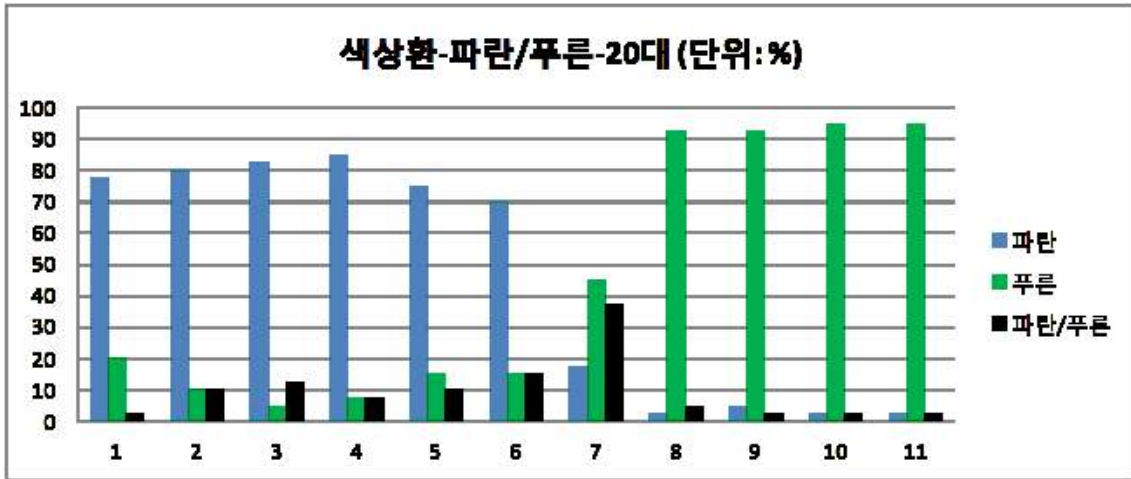
=> '푸른'이 '파란'에 비해 더 넓은 분포를 보임.

<도표 5. 24색상환 반응: 여자: 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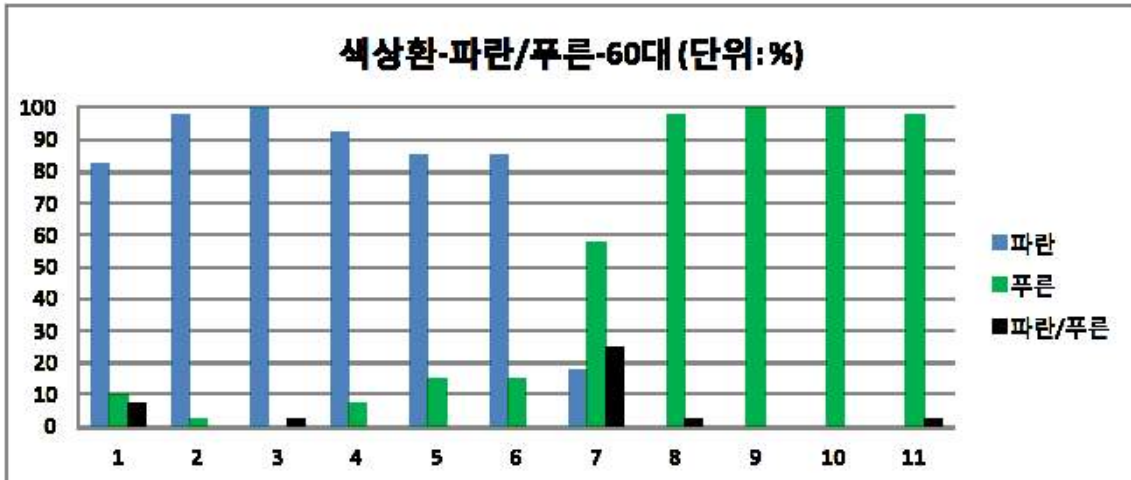
=> 7번 색상을 제외하고 비교적 '파란'과 '푸른'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반응. 1번이 '푸른'으로 선택된 것이 특이함.

<도표 6. 24색상환 반응: 20대: 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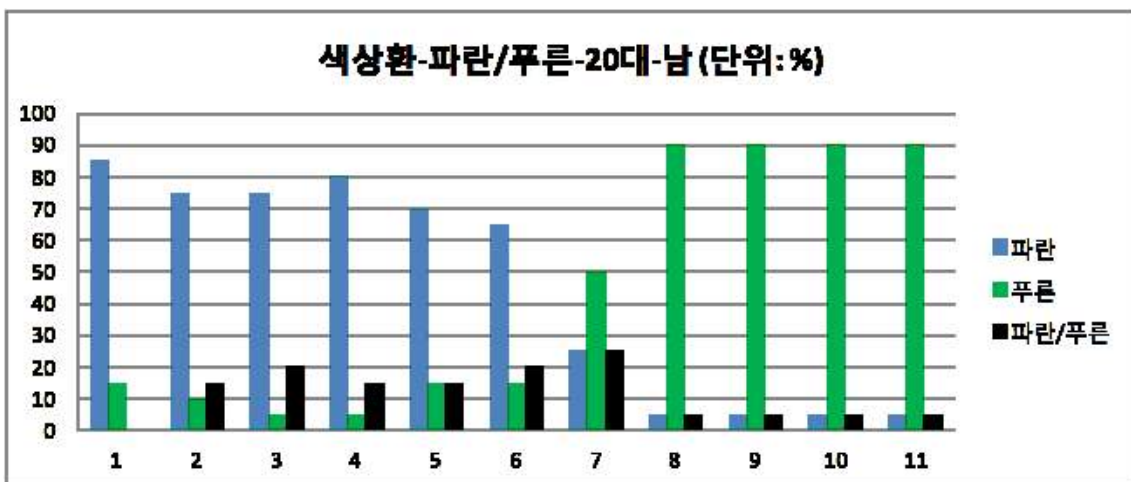
=> '푸른'이 '파란'에 비해 더 넓은 분포를 보임.

<도표 7. 24색상환 반응: 6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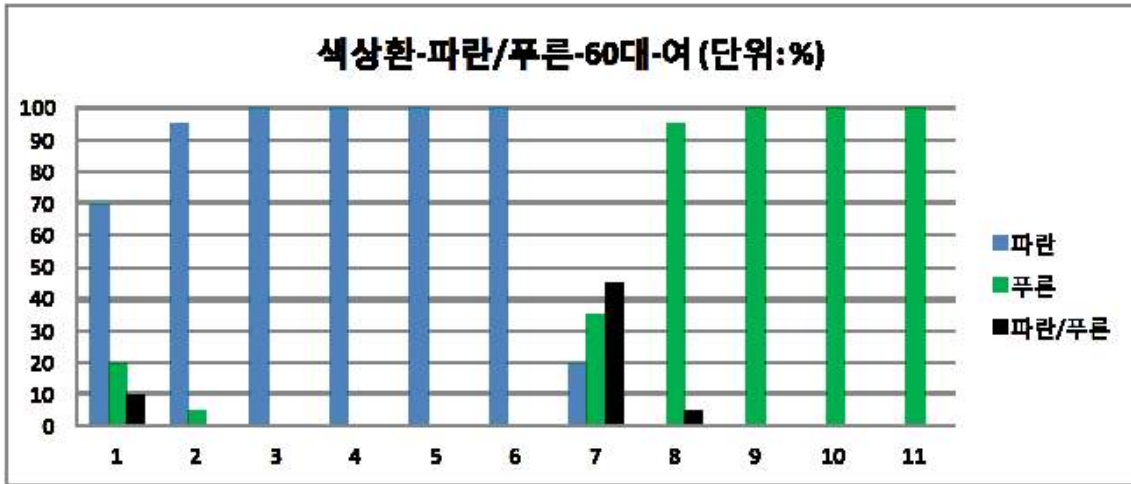
=> 7번 색상을 제외하고 비교적 '파란'과 '푸른'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반응.

<도표 8. 24색상환 반응: 20대 남자>



=> '푸른'이 '파란'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중복의 경우도 다수 존재.

<도표 9. 24색상환 반응: 60대 여자>



=> 7번 색상을 제외하고 '파란'과 '푸른'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반응.

4. 논의

1) 한국어의 (고유) 색상어(손용주, 1997)

형용사1: 희다 - 검다 - 붉다 - 누르다 - 푸르다

관형형1: 흰 - 검은 - 붉은 - 누른 - 푸른

명사형1: 흰 - 검음 - 붉음 - 누름 - 푸름(푸르름)

형용사2: 하얗다 - 까맣다/거멓다 - 빨갳다(발갳다) - 노랗다(누렇다) - 파랗다

관형형2: 하얀 - 까만 - 빨간 - 노란 - 파란

명사형2: 하양 - 까망 - 빨강 - 노랑 - 파랑

참고1. 오방색(五方色: 동서남북, 중앙): 동청(靑)룡 - 서백(白)호 - 남주(朱)작 - 북현(玄)무 - 황(黃)룡

참고2. 천자문: 흰-白, 검은-玄, 붉을-丹, 누를-黃, 푸를-靑

=> 형용사1이 형용사2보다 더 원형이다. (빨갳다 <= 빨가하다 <= 발가하다 <= 밝+하다 <= 붉+하다 <= 붉다)(김민수, 1998): 형용사2는 형용사1의 강조형('하'의 첨가와 '경음화'의 적용)이다. (손용주, 1997)

=> 형용사1이 넓은 범위, 형용사2가 좁은 범위의 지시물과 연어 패턴을 보인다. (세종 코퍼스)

붉은 빛: 24회

빨간 빛: 0회

붉은 색: 75회

빨간 색: 59회

흰 빛: 36회

하얀 빛: 2회

흰 색: 142회

하얀 색: 27회

(누런 빛: 1

노란 빛: 3회)

(누른/런 색: 3회 노란 색: 69회)

검은 빛: 21회

까만 빛: 0회

검은 색: 97회

까만 색: 6회

푸른 빛: 31회

파란 빛: 4회

푸른 색: 79회

파란 색: 49회

=> 주변적인 의미를 가진 접미사는 형용사1과 잘 어울린다: '하야스름하다', '거무스름하

다, '불그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푸르스름하다'.(손용주, 1997)

=> 강조의 의미를 덧붙이는 접두사 '새-'는 형용사2와 잘 어울린다: '새까맣다', '새하얗다', '새빨갳다', '새노랗다', '새파랗다'.(김기찬, 2000)

2) 원형(Prototype) 이론의 초점 색상 (focal color)

- Berlin & Kay(1969)의 색상 용어 연구: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색상 용어(basic color terms)의 위계체계가 있다. (Wardhaugh. 2010)

2-용어 체계: white - black (bright - dark)

3-용어 체계: white - black - red

4-용어 체계: white - black - red - yellow or green

5-용어 체계: white - black - red - yellow - green

6-용어 체계: white - black - red - yellow - green - blue

-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에서는 (전통적으로) 靑이 blue와 green을 모두 의미하였다. 이렇게 green과 blue의 통합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를 혼성어(blend)로 grue라고 한다.

- 최근에는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여 blue와 green을 용이하게 구분하고 있다: 중국어(藍/blue, 綠/green), 일본어(ao/blue, midori/green, gurin/green), 한국어('푸른'/? , '파란'/? , '초록'/green, '녹색'/green, '청색'/blue). (위키백과)

(참고: 중국어의 무지개 색깔: 紅色, 橙色, 黃色, 綠色/초록, 靑色/하늘색, 藍色/blue, 紫色)

5. 결론

- 1) '빨간'이 '붉은'의 focal color이듯이 '파란'은 원래 '푸른'/grue의 focal color이었다: '깊고 푸른 밤', '푸른 하늘 은하수' vs '파란 하늘'.
- 2) 한자 어휘 '청색'/blue과 '녹색'/'초록'/green의 일반적인 보급과 함께 이 두 색상에 대한 구분이 일반화되어 한국어 고유 색상어인 '파란'과 '푸른'에 독립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여, focal color인 '파란'은 '청색'/blue, 일반적인 색상인 '푸른'은 '녹색'/'초록'/green으로 재개편되었다.
- 3) 위의 2)의 상황이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그룹은 60대 여성이고, 가장 불안정화되어 있는 그룹은 20대 남성이다. 한자에 대한 지식이 있고 색상에 대해 민감한 집단이 전자이고, 한자에 대한 지식도 약하고 색상에 대해서도 둔감한 집단이 후자이다. => 일반적인 언어변화 패턴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색상 인식 패턴이 새로운 언어 사용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4) 위의 3과 같은 상황이 진전되면, '파란'은 blue로 고정되고, '푸른'은 '파란'을 포함하는 grue의 의미를 가지되 '푸른'의 focal color는 '초록'/green이 될 것이다.

6. 남은 문제

- 1) 설문 대상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 2) 언어 변화는 추정시간 변화(apparent-time change)가 실시간 변화(real-time change)로 이어지기도 하고, 일시적인 연령상의 특징(age-grading)으로 판명되기도 하므로 그 변

화의 추이를 확증할 수 없다. 특히, 문법적인 변화가 아닌 어휘적인 변화의 양상에서 는 현재의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 김기찬. 2000. 영어와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의 비교분석. 「언어과학」 18, 21-48.
- 김민수. 1998. 「우리말 어원사전」. 서울: 태학사.
- 손용주. 1997. *현대 국어 색상어의 형태·의미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Berlin, B. and Kay, P. 1969. *Basic Color Term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ardhaugh, R. 2010.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Wiley-Blackwell.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부사 사용: Actually와 in fact를 중심으로

박 혜 선

(계명대학교)

Park, Hyeson. 2014. Adverbs in L2 English: Focusing on *actually* and *in fact*. This paper examines the distribution and functions of *actually* and *in fact* in the writings of Korean learners of L2 English. Narrative and argumentative essays (342,818 words) written by learners at two proficiency levels (A2 and B2) were selected from YELC for an analysis. The functions and positions of the two adverbs were analyzed using a taxonomy constructed based on Aijmer (2013).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L2 learners produced more tokens of the two adverbs than native writers as reported in previous research. 2) L2 proficiency was shown to interact with the use of the two adverbs; the higher level learners (B2) produced more tokens of *actually* and *in fact*, and selected the medial position more frequently than the lower level learners. The most frequent function of the two adverbs in the learner data was an emphazier, a pattern inconsistent with native usage, in which *actually* was observed to be preferred as an adversative marker and *in fact* as an elaborative marker.

1. 서론

본 연구는 영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actually*와 그것의 유의어 *in fact*의 빈도와 기능을 분석하고 학습자의 영어 능숙도와 글의 종류가 이 두 표현의 사용 양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ctually*와 *in fact*의 기능과 의미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 두 어휘가 실제(realness/reality/actuality), 예상하지 못함(unexpectedness), 모순(contradiction), 강조(emphasis), 재구성(reformulation) 등의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Aijmer, 2013; Cheng & Warren, 2001; Clift, 2001; Gray, 2012; Greenbaum, 1969; Mortier & Degand, 2009; Oh, 2000; Taglicht, 2001). 특히, Aijmer(2013)는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actually*와 *in fact*의 의미/기능을 종합하여 역접(adversative), 부연/첨언(elaboration), 그리고 공손함(politeness)의 세 가지 상위 범주로 나누고 각각의 하위 범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ijmer(2013)에 기초하여 *actually*와 *in fact*의 분석틀을 만들고 한국어 학습자의 영어 작문에 나타난 이 두 표현의 빈도와 기능을 분석한다. 또한 학습자의 작문에서 관찰된 *actually*와 *in fact*의 사용 양상을 Oh(2000)와 Aijmer(2013)가 제시한 원어민 화자의 사용 양상과 비교하여 영어 학습자의 부사 사용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2. 영어학습자 말뭉치

본 연구에서 분석할 자료는 <연세 영어학습자 코퍼스:YELC>(이석재, 정채관, 2011)이다. YELC는 연세대학교 입학대상자 3,286명이 각각 2개의 주제에 대해 작성한 6572편의 글을 모아 구축한 100만 단어의 문어 학습자 코퍼스이다. 작성된 글은 평가결과 9등급으로 구분되었다(A1, A1+, A2, B1, B1+, B2, B2+, C1, C2). 이 중 A2과 B2 수준의 학습자들이 작성한 서술문(narrative essay)과 논설문(argumentative essay)을 선택하여 이에 나타난 actually와 in fact를 분석하였다. 전체 말뭉치 크기는 342,818 단어이며, 각 수준 별 단어 수는 다음과 같다.

A2(1) 서술문: 62,333 words, A2(2) 논설문: 133,481 words
 B2(1) 서술문: 38,586 words, B2(2) 논설문: 108,418 words

3. 분석틀 (Taxonomy)

1) 실재 혹은 실재의 강조(actuality/ emphasis of reality)

Actually와 in fact는 부사로서 명제가 표현하는 사건이나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하였음을 표현한다. 상황에 따라 강조의 의미가 수반되기도 하며, 문중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I actually got them back. (Gray, 2012, p. 152)

His work, in fact, is full of seeds which the future brought to fruition.

2) 역접관계 (adversative)

선행 명제/발화와 상반되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또는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표현된 화자의 기대와 어긋나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 actually/in fact를 사용할 수 있다. Aijmer(2013)는 역접관계를 반대(opposition)와 기대에 어긋남(counter-expectation)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Grant called it prompt, skillful and brilliant. Halleck described it as the most brilliant of the war. Actually, the Atlanta campaign was a military failure.

(Oh, 2000, p 251)

3) 첨가/부연 (elaboration)

화자/글쓴이가 선행하는 명제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거나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첨가하고자 할 때 in fact/actually를 사용한다. ①단순히 내용 첨가 (elaboration-additional comment), ② 좀 더 강도나 중요성이 높은 내용 첨가(upgrade), ③명확히 하기 (clarification), ④인과관계 표현(causality) 등의 하위 범주로 구분된다.

- ① if we have to take small or big fight with other country and have a small military, we cannot avoid losing. In fact, Korea also has system that can avoid completing military service (B2(2))
- ② I think all Korean men should be forced to complete military service. In fact, I think not only all Korean men, but also all Korean women should be forced to complete military service (B2(2))
- ③ The most interesting thing that happened to me-actually it didn't 'happened' to me (B2(1))
- ④ Because our family really likes to take pictures when we go to trip or go outside, actually numerous pictures have been accumulated in our family album.

4) 헤지(hedging)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담화표지 well의 기능과 유사하게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혹은 명제의 확실성의 정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actually/in fact를 사용하기도 한다.

Actually, National Defence is very important thing (A2(2))
 Actually I think I have two best friends (A2(1))

4. 결과 및 논의

학습자 말뭉치에서 발견된 actually와 in fact의 빈도를 표1에 제시하였다.

표1: 학습자 수준별 및 장르별 actually와 in fact의 빈도

	words	actually	in fact	LL*
A2(1)	62333	17(0.027)**	4(0.006)	8.66
A2(2)	133481	32(0.024)	18(0.013)	3.97
B2(1)	38586	16(0.041)	7(0.018)	3.62
B2(2)	108418	43(0.040)	28(0.026)	3.19

* Log Likelihood (LL) 검정에서 3.84 (1 d.f.)보다 높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raw frequency(%)

A2그룹의 경우 서술문과 논설문에서 actually를 in fact보다 더 높은 빈도로 사용하였으며 log-likelihood 검증 결과 그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B2그룹도 actually를 in fact보다 높은 빈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영어 능숙도에 비례하여 actually와 in fact의 사용 빈도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Aijmer(2013)와 Oh(2000)가 영국영어와 미국영어 문어 말뭉치에서 조사한 actually와 in fact의 빈도를 표2에 제시하였다.

표2: 원어민 말뭉치에 나타난 actually와 in fact의 빈도

	words	actually	in fact
ICE-GB*	423581	220(0.022)	184(0.018)
BNC	87903571	144(0.014)	151(0.015)
student exam (ICE-GB)	21225	376(0.038)	235(0.024)
Brown corpus	1014312	164(0.016)	148(0.015)

*ICE-GB: the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British English
 BNC: British National Corpus

원어민의 actually 사용빈도는 0.014-0.022%로 전반적으로 한국인 학습자의 사용빈도보다 낮았다. Aijmer(2013)가 분석한 원어민의 자료에서 특이한 점은 학생들이 시험 답안으로 작성한 글에서 actually의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0.038%). 즉, 학습자의 경우 원어민과 비원어민 모두 actually의 사용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홍콩의 비원어민 영어 화자의 actually 사용빈도를 조사한 Cheng과 Warren (2001)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In fact의 경우 B2그룹의 논설문과 원어민 학생의 시험 답안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고, A2그룹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낮아 actually의 사용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A2와 B2그룹 각각의 서술문과 논설문에서 사용된 actually와 in fact의 사용빈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A2그룹의 경우 actually는 서술문에서, in fact는 논설문에서 사용빈도가 조금 높았다. B2그룹의 경우 actually는 서술문과 논설문에서 거의 유사하였으며, in fact는 논설문에서 사용빈도가 높았다. Log-likelihood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3).

표3: 글의 종류와 actually/in fact 빈도

	A2(2)	A2(1)	LL	B2(2)	B2(1)	LL
actually	0.024	0.027	0.18	0.040	0.041	0.02
in fact	0.013	0.006	1.4	0.026	0.018	0.75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actually와 in fact의 사용빈도가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른지 살펴 보았다(표4). 서술문과 논설문 모두에서 B2그룹이 A2그룹에 비해 actually와 in fact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논설문에서의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actually LL= 4.72, p<.05, in fact LL=6.29, p<.05). 영어능숙도가 높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 두 표현을 논설문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표4: 영어능숙도와 actually/in fact 빈도

	A2(1)	B2(1)	LL	A2(2)	B2(2)	LL
actually	0.027	0.041	1.43	0.024	0.040	4.72
in fact	0.006	0.018	2.89	0.013	0.026	6.29

Actually와 in fact가 문장에서 나타나는 위치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5와 6에 정리하였다. 먼저, actually의 위치를 살펴보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actually를 문두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였는데, 영어 능숙도가 낮은 A2그룹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78.1%, 88.2%). 예외적으로 B2그룹의 논설문에서는 문중에 위치하는 비율(53.5%)이 문두(46.5%)보다 조금 더 높았다. Oh(2000)의 Brown Corpus 분석에 의하면 미국 문어체 영어에서 actually가 문두에 나타나는 비율은 26%, 문중은 74%로 문중 위치가 일반적이었다.

표5: Actually의 위치

	initial	mid	final	total
A2(1)	15(88.2)	1(5.9)	1(5.9)	17
A2(2)	25(78.1)	5(15.6)	2(6.3)	32
B2(1)	11(68.8)	5(31.3)	0	16
B2(2)	20(46.5)	23(53.5)	0	43

In fact의 경우 B2그룹의 논설문에서 2회 문중에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문두에 위치하였다. Oh(2000)의 미국영어 문어체 자료에서는 43%가 문두, 55%가 문중, 2%가 문미였다. 원어민의 경우 비록 actually보다 높지는 않으나 여전히 문중이 가장 선호되는 위치였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문두 위치 선호는 제한된 영어 능숙도와 모국어의 영향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표6: In fact의 위치

	initial	mid	final	total
A2(1)	4	0	0	4
A2(2)	16	0	0	16
B2(1)	7	0	0	7
B2(2)	26(92.9)	2(7.1)	0	28

각 그룹별로 actually의 기능과 문장 안에서의 위치를 분석하였다. 표7에서 볼 수 있듯이 A2그룹에서는 49회의 actually 중 24(49%)회가 강조의 부사로 사용 되었으며, 15회(30.6%)가 역접관계, 5회(10.2%)가 헤지, 그리고 첨가/부연 용법으로 5회(10.2%) 사용되었다.

B2그룹은 영어 능숙도가 낮은 A2그룹보다 actually를 강조의 부사로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았으며(35/59), 이 중 74.3%를 문중에 사용하여 문중 사용 빈도가 20.8%에 불과한 A2그룹과 차이를 보였다. Actually를 강조의 부사로 사용하는 비율이 영어 능숙도에 따라 감소되지는 않지만 수식받는 표현과 인접한 곳에 actually를 위치시키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14회(23.7%)의 역접관계, 10회(16.9%)의 첨가/부연의 용법도 이 그룹에서 관찰되었다.

표7: Actually의 기능별 분포

	문두				문중				문미				total	
	A2(1)	B2(1)	A2(2)	B2(2)	A2(1)	B2(1)	A2(2)	B2(2)	A2(1)	B2(1)	A2(2)	B2(2)	A2	B2
emp-reality	6	1	10	8	1	4	4	22	1		2		24	35
counter-expect	2	3	2	2		1	1						5	6
opposition	3	3	7	5									10	8
elaboration(add comment)	1												1	
clarification	1	1	1										2	1
upgrading		2	2	4				1					2	7
causality		1		1										2
hedging	2		3										5	
total	15	11	25	20	1	5	5	23	1		2		49	59

Aijmer(2013)가 원어민의 구어 말뭉치에서 사용된 200회의 actually를 분석한 결과 66회가 역접, 24회가 강조, 21회가 헤지, 그리고 13회가 첨가/부연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Aijmer는 actually의 주요 기능은 역접관계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강조의 부사를 주요 기능으로 사용하였고, 역접관계는 비교적 사용빈도가 낮았다. 이것이 문어와 구어의 차이, 혹은 원어민과 학습자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표8에서 A2그룹의 in fact의 사용 분포를 살펴보면 총 22회 중 7회(31.8%)가 강조의 부사, 7회가 역접관계, 7회가 첨가, 1회가 헤지로 사용되었다. 이 그룹의 경우 in fact의 뚜렷한 용법상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

표8: In fact의 기능별 분포

in fact	문두				문중	total	
	A2 (1)	B2 (1)	A2 (2)	B2 (2)	B2 (2)	A2	B2
reality	1	2	6	14	2	7	18
counter-expect			2			2	
opposition	1	1	4	4		5	5
elaboration(add comment)	2			3		2	3
clarification							
upgrading		4	5	2		5	6
causality				3			3
hedging			1			1	
total	4	7	18	26	2	22	35

B2 그룹의 경우 35회의 in fact 중 18회(51.4%)를 강조부사로 사용하였고, 12회(34.3%)를 첨가/부연, 8회를 역접관계(22.9%)의 용법으로 사용하였다. 문중에 위치한 2회는 모두 강조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Aijmer(2013)의 원어민 구어 말뭉치 분석에서는 첨가/부연의 용법으로 사용된 in fact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28/68회), 이를 통해 Aijmer는 역접관계가 기본 용법인 actually와 달리 in fact는 첨가/부연의 의미가 기본 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actually와 in fact는 모두 강조의 부사로 사용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아직 두 표현의 다양한 용법, 특히 원어민 화자가 많이 사용하는 담화표지 용법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actually와 in fact의 문장에서의 위치와 의미의 상관관계도 교수를 통한 학습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인다.

References

- 이석재, 정채관 (2011). *연세영어학습자코퍼스:YELC*. 서울: 연세대학교 영어코퍼스 연구실.
- Aijmer, K. (2013). *Understanding pragmatic markers: A variational pragmatic approach*. Edinburgh, UK: Edinburgh University Press.
- Cheng, W., & Warren, M. (2001). The functions of actually in a corpus of intercultural convers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6, 257-280.
- Clift, R. (2001). Meaning in interaction: The case of *actually*. *Language* 77, 245-291.

- Gray, M. (2012). On the interchangeability of actually and really in spoken Englis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idence from corpora.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6, 151-170.
- Greenbaum, S. (1969). *Studies in English adverbial usage*. London: Longman.
- Lenk, U. (1998). *Marking discourse coherence: Functions of discourse markers in spoken English*.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 Mortier, L. & Degand, L. (2009). Adversative discourse markers in contrast.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4, 339-366.
- Oh, S-Y. (2000). Actually and in fact in American English: A data-based analysis.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4, 243-268.
- Taglicht, J. (2001). Actually, there's more to it than meets the eye.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5, 1-16.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코퍼스 기반 어휘기준 비교분석

이 정 민 · 현 태 덕

(안동대학교)

Lee, Jeong Min & Hyun, Taeduck. (2014). **A corpus-based comparative analysis of vocabulary in a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 This study analyzed the vocabulary in a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 for the 1st year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vocabulary control on the Current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and to investigate the vocabulary level in the textbook. For this, the vocabulary in the textbooks was analyzed in comparison with the basic vocabulary list presented by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o investigate the vocabulary level in the textbooks using the British National Corpus(BNC) List 14000. The results show that the vocabulary of three textbooks complied with 95% of the text coverage compared with the standard of the basic vocabulary list, but the vocabulary of two textbooks did not. In addition, the BNC 3000 level vocabulary offered 95% text coverage but failed to cover 98% except for E1 textbook.

1. 서론

어휘의 난이도는 영어 교과서의 난이도 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석 기준이 된다. 이는 어휘의 수, 어휘의 사용빈도, 어휘의 수준에 따라 읽기의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혜원(2009)은 어휘는 언어의 재료로서 교과서 및 각종 교수 학습 자료의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난이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또, 장경숙 외(2007)은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어휘 관련 지침과 기본 어휘 목록은 교육과정의 다른 요소 즉, 소재, 의사소통 기능, 언어 형식, 성취 기준 등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개발되는 교과서의 내용과 성격을 좌우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는 기본적으로 영어과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기본 어휘 관련지침 및 어휘목록을 바탕으로 교과서 집필진들이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존 교육과정에서 편찬되었던 교과서들은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목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학년의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임찬빈 외(2011)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 연구에서는 2009개정 기본 어휘목록¹⁾이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교과서별 어휘를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어휘 목록과 비교하였다. 나아가서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의 수준을 원어민이 사용한 코퍼스 어휘의 수준과 비교하여 그 난이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1)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어휘 목록의 어휘는 단어군(word family)을 기준으로 한다. 2009개정 영어과 기본어휘 목록의 어휘 수는 2988개이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영어교과서 1학년 교과서 중 5종을 선택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각 교과서는 A(김성곤 외 10인, 2013), B(이병민 외 10인, 2013), C(김진완 외 9인, 2013), D(이재영 외 10인, 2013), E(정사열 외 7인, 2013)으로 표기하였다. 먼저, 분석 대상 1학년 영어 교과서 5종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여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코퍼스를 분석하여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어휘 반영 비율을 파악하였다. 이 반영비율을 도출하기 위하여 교과서 어휘 분석 도구인 어휘 검색 프로그램 2009RV-KBEWL을 이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신동광과 주현우(2008)가 교육과정에 명시된 어휘 지침을 바탕으로 개발된 기본어휘 목록(KBEWFL)을 GSL-RANGE Program에 탑재하여 개발하였다.²⁾ 또한,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영어코퍼스 중 하나인 British National Corpus(BNC) 어휘 목록과 교과서의 어휘를 비교해본다.³⁾ 어휘 분석의 도구로는 BNC Range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교과서별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본어휘 목록 반영 분석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어휘 목록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어휘 통제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어휘 통제가 기술적인 문제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장경숙과 정규태(2005)에 의하면, 어휘통제와 관련된 어휘 분석 연구는 컴퓨터 관련 기술 및 컴퓨터를 이용한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의 발전과 대용량 코퍼스의 등장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기존에는 언어 직관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어휘 자료에 의존하였으나 이제는 실제 사용되는 용례를 통한 어휘 통제가 가능해졌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어휘 수의 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로 교육과정 기본어휘 목록을 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윤현숙(2009)은 학습자들의 연령 및 수준, 학습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어휘를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장경숙(2007)은 어휘 통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부자연스런 표현 양산, 교재의 획일성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어휘와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기본 지침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2011)가 발표한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어휘 개정 내용에 따르면, 어휘 개정 내용은 어휘 수준, 즉 각 학년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 수와 기본어휘관련 지침 및 기본어휘 목록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기본어휘 수준과 내용을 정비하여 기본 어휘의 수를 2315개(2007 개정 기본어휘 수)에서 2988개로 늘였으며, 학교 급 별 권장학습 어휘는 기본어휘 대 기본어휘 외 사용 비율을 75% 대 25%(2007개정)에서 80% 대 20%로 조정하였다. 이는 기본어휘 목록의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인정 교과서 간의 신출 어휘의 격차를 줄이려고 한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권장학습 어휘 수를 누계로 제시하고 +/- 5% 범위에서 어휘를 사용하여 교과서를 집필하게 하였다.

2) 이 프로그램은 신동광의 홈페이지(<http://cafe.daum.net/sdhera>)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3) Oxford 대학 출판부의 주도 아래 여러 기관의 공동연구와 작업으로 1991년에 시작되어 1994년에 완성된 BNC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현대 영국 영어 코퍼스로서 구어체와 문어체 영어가 각각 10%와 90%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광윤, 백주현(2010), p.8.)

그러나 이의갑 외(2010)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 교과서 기본어휘 지침에 교과서에 사용해야하는 기본어휘를 80%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나머지 20%는 기본어휘 외 단어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으며, 한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도 전 학년에 사용된 기출어휘 20%는 기본어휘의 범위 밖에 포함된다. 그 결과, 출판사별로 매 학년마다 약 20% 정도의 새로운 어휘가 추가되다보니 여러 출판사의 자율적인 어휘 20%의 사용어휘를 모두 집계하면 기본어휘 목록의 어휘 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휘 수가 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⁴⁾ 교과서 기본어휘 지침에 따라 교과서에 사용해야하는 기본 어휘 기준 비율 80%는 교과서 인정기준에 근거한 것인데, 그 기준이 출판사의 전 학년도의 신출어휘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어휘 사용 비율 80%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분석, 적용하기 곤란하다.

그렇다면, 교과서의 읽기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어휘를 학습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Nation(2006)에 따르면, 학습자가 텍스트의 95% 이상의 어휘를 알아야만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가 기본어휘 사용비율 80%가 아닌, 절대적인 기준에서 설명 가능한 텍스트 이해 어휘 수준 95%에 얼마나 근접하거나 벗어나는 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려고 한다.⁵⁾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예외 어휘의 수를 제외하고 교육과정 기본어휘의 비율이 아닌 교육과정 기본어휘 외 비율을 기준(즉, 5%)으로, 그 비율이 5%이내이면 기준범위 95%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서의 어휘가 교육과정의 기본어휘를 95%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 1은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반영된 기본어휘 반영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2009RV-KBEWL이라는 어휘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1> 1학년 교과서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어휘 반영비율(기준: 단어군(family))⁶⁾

구분	A1	B1	C1	D1	E1
교육과정 내 어휘 수	422	412	415	394	371
교육과정 외 어휘 수	28	20	36	20	17
예외 어휘 수	25	21	28	26	25
총 어휘 수	475	453	479	440	412
교육과정 기본어휘 비율	88.84%	90.95%	86.64%	89.55%	90.05%
교육과정 기본어휘 외 비율	5.89%	4.42%	7.52%	4.55%	4.13%

위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1학년 교과서는 교육과정 기본어휘를 약 86~91% 정도 반영하고 있고 기본어휘 외 단어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기본어휘 사용 비율이 80%인 것을 감안할 때, 대체적으로 높은 비율의 교육과정 기본어휘를 포함하고

4) 이의갑 외(2010)는 기본어휘 외 반영비율 20%는 각 출판사별로 매 학년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어 실제 초등 학교에서 고등학교 선택과정까지 모든 영어 교과서를 분석하면 약 7,700여 개의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5) Nation(2006)의 연구를 통하여 입증된 결과를 살펴보면 최소 주어진 텍스트의 어휘 중 95%는 학습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교과서의 어휘가 기본어휘를 95% 적용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6) 교육과정 기본어휘가 대체로 단어 군 단위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어휘 수는 단어 군을 기준으로 한다. 물론, 교육과정 어휘로 분석하여 전체 토큰(token) 수의 95%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단어군(family) 기준의 분석은 기본어휘 2988개 가운데 구체적으로 몇 개의 어휘가 기본어휘 목록에서 제외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그 비율을 산정하면 결과적으로 값은 같게 된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서의 어휘가 기본어휘를 95% 적용하였는지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 기본어휘 비율이 가장 높고 텍스트 이해 수준인 95% 어휘 수준에 근접한 교과서는 E1, B1과 D1 교과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본어휘 비율을 가장 낮고 텍스트 이해 수준인 95%를 벗어난 교과서는 C1과 A1 교과서로 나타났다.

4. 원어민 코퍼스 BNC 14000 목록과 비교

다음에서는 2009개정 영어 교과서에 사용된 영어 어휘의 수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원어민 코퍼스인 BNC 14000 목록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7) BNC 14000 목록은 1,000개 단어씩 총 14개 등급으로, 14,000개의 단어 수준까지 분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Paul Nation(2012)의 BNC Range Program을 이용하여 BNC 14000 어휘목록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영어 교과서와 원어민 영어 코퍼스를 분석하였을 때 교과서의 어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텍스트를 읽으며 문맥상 추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어휘의 수준이 95%이었지만 원어민 코퍼스와 비교 시 외부의 도움 없이 문맥에서 단어의 뜻을 유추하며 독립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어휘 수준인 98%를 기준으로 정하여 분석하였다.8)

다음 표 3은 A1 교과서의 BNC 14개 등급별 분석결과이다. 표 3의 (A)는 BNC 14개 등급별 해당 토큰 비율을 산출한 결과이다.9) 표 3의 (B)는 not in the lists의 단어를 제외하고 해당 토큰 비율을 산출한 결과이다. 이때, not in the lists의 단어는 대부분 감탄사, 고유명사 등의 예외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난이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어로 간주한다. 따라서, 텍스트 포괄범위(text coverage)는 not in the lists의 단어를 제외하고 보면 각 어휘수준에 해당되는 토큰의 비율(%)이 높아진다. 표 3의 (C)는 이를 누적시켜 산출한 결과이다.

<표 3> A1 교과서의 BNC 14개 등급별 분석결과

BNC LEVEL	Family	Type	Token	(A) Token %	(B) Token %	(C) 누적 Token %
(1)1 st 1000	322	421	1502	80.06	84.4%	84.4%
(2)2 nd 1000	83	93	162	8.64	9.1%	93.5%
(3)3 rd 1000	19	20	33	1.76	1.9%	95.4%
(4)4 th 1000	13	15	24	1.28	1.3%	96.7%
(5)5 th 1000	7	9	13	0.69	0.7%	97.5%
(6)6 th 1000	4	4	6	0.32	0.3%	97.8%

7) BNC 14000 단어군 목록(word family lists)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00만 단어의 영국 대용량 코퍼스인 BNC(British National Corpus)의 어휘를 빈도수(frequency)를 기준으로 정리한 어휘 목록이다.

8) 조근호(2013)는 Nation(2000)의 실험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95% 수준의 어휘를 알고 있어도 많은 수가 텍스트의 내용을 묻는 질문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Hu와 Nation(2000)은 어떠한 글을 읽던지 간에 최소로 알아야 할 기본 어휘 양을 80%로 제시하고 98%이상을 알면 사전이나 별다른 외부의 도움 없이 문맥에서 단어의 뜻을 유추하며 독립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West(1926) 역시 학습자가 98%의 어휘를 알 때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9) 텍스트 포괄범위(text coverage)는 토큰의 비율로 나타낸다.(Nation(2001), p.147-8.)

(7)7 th 1000	4	5	8	0.43	0.4%	98.3%
(8)8 th 1000	3	3	15	0.8	0.8%	99.1%
(9)9 th 1000	2	3	4	0.21	0.2%	99.3%
(10)10 th 1000	2	2	4	0.21	0.2%	99.6%
(11)11 th 1000	0	0	0	0.0	0.0%	99.6%
(12)12 th 1000	0	0	0	0.0	0.0%	99.6%
(13)13 th 1000	0	0	0	0.0	0.0%	99.6%
(14)14 th 1000	2	2	8	0.43	0.4%	100.0%
not in the lists	??? ¹⁰⁾	46	97	5.17		
(1)+(2)+...+(14)			1779		100.0%	
Total		623	1876			

이를 살펴보면 텍스트 이해 가능 수준인 95.4%에 해당되는 BNC의 등급은 3,000 단어 정도의 단어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매 20 단어마다 1 단어 정도 모르는 어휘가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텍스트 포괄 범위 97.8%에 해당되는 BNC의 등급은 6,000 단어 정도의 단어군으로, 이는 매 50 단어마다 1 단어 정도 모르는 어휘가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BNC에서 추출한 14,000개의 어휘 군 중에서 텍스트 포괄범위 98%의 어휘 수준을 만족하는 BNC 어휘 목록의 어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 4는 BNC Rang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학년 영어교과서 5종의 BNC 기반 어휘 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4> 1학년 교과서 5종의 BNC 기반 어휘 수준 비교 분석

BNC LEVEL	A1 (Token/%)	B1 (Token/%)	C1 (Token/%)	D1 (Token/%)	E1 (Token/%)
(1)1 st 1000	1502/84.4	1707/88.2	1553/86.6	1575/88.3	1793/90.2
(2)2 nd 1000	162/93.5	144/95.7	130/93.9	114/94.7	135/97.0
(3)3 rd 1000	33/95.4	39/97.7	38/96.0	47/97.3	20/ 98.0
(4)4 th 1000	24/96.7	5/ 97.9	25/ 97.4	12/ 98.0	7/98.3
(5)5 th 1000	13/97.5	24/99.2	27/98.9	10/98.5	19/99.3
(6)6 th 1000	6/ 97.8	10/99.7	9/99.4	8/99.0	6/99.6
(7)7 th 1000	8/98.3	3/99.8	3/99.6	1/99.0	4/99.8
(8)8 th 1000	15/99.1	2/99.9	2/99.7	2/99.2	1/99.8
(9)9 th 1000	4/99.3	0/99.9	2/99.8	6/99.5	0/99.8
(10)10 th 1000	4/99.6	1/100.0	0/99.8	7/99.9	2/99.9
(11)11 th 1000	0/99.6	0/100.0	2/99.9	1/99.9	1/100.0
(12)12 th 1000	0/99.6	0/100.0	0/99.9	1/100.0	0/100.0
(13)13 th 1000	0/99.6	0/100.0	0/99.9	0/100.0	0/100.0
(14)14 th 1000	8/100.0	0/100.0	2/100.0	0/100.0	0/100.0
Total (%)	1779/100.0	1935/100.0	1793/100.0	1784/100.0	1988/100.0

10) Range Program에서 not in the lists에 단어군(family)은 계산되지 않는다.(Nation(2006), p.64.)

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 교과서 대부분이 BNC 3000 범위에서 모두 텍스트 포괄범위 9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외부의 도움 없이 문맥에서 단어의 뜻을 유추하며 독립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어휘 수준인 98%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E1 교과서는 BNC 수준 3000 단어, D1, B1, C1 교과서는 4,000 단어, A1 교과서는 6,000 단어까지 알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대상 1학년 영어교과서 5종 중, E1 교과서의 어휘 수준이 가장 평이하다고 볼 수 있다. 또, D1, B1, C1 교과서의 어휘수준은 대체로 유사하며, A1 교과서는 어휘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5. 결론

이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5종을 대상으로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의 교육과정 기본어휘 반영비율과 어휘수준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1학년 교과서는 교육과정 기본어휘를 약 86~91% 정도 반영하고 있고 기본어휘 외 단어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텍스트 이해 어휘 수준 95%를 기준으로 교과서의 어휘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 기본어휘 비율이 가장 높고 어휘 수준 95%에 근접한 교과서는 E1, B1와 D1 교과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1, A1 교과서는 어휘 수준 95%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 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교과서의 어휘와 BNC 어휘 목록을 비교하여 어휘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BNC 수준 3000 수준에서는 모든 교과서가 텍스트 이해 어휘 수준 95%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의 도움 없이 문맥에서 단어의 뜻을 유추하며 독립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어휘 수준인 98%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E1 교과서는 BNC 수준 3000 단어수준, D1, B1, C1 교과서는 4,000 단어수준, A1 교과서는 6,000 단어수준까지 알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분석대상 1학년 영어 교과서 5종 중, E1 교과서의 어휘 수준이 가장 평이하고, D1, B1, C1 교과서의 어휘수준은 대체로 유사하며, A1 교과서는 어휘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학년 영어교과서 5종 중 일부 교과서의 어휘는 텍스트 이해 어휘 수준 95%를 만족시킬 만큼 기본어휘 목록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BNC 3000 단어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교육과정 기본어휘 목록의 어휘 수를 늘이고, 기본어휘 사용비율 또한 현재 80%보다 늘인다면, 명시적인 어휘 제시로 인해 학습자의 학습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성곤, 윤정미, 강은경, 이희경, 유원호, 윤여경, 장성욱, 주혜연, 박성민, 손지선, Johanna L. Haas. (2013).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두산동아.
- 김진완, 안병규, 오준일, 김순천, 박성근, 신수진, 조성옥, 조현정, 김보라, Judy Yin. (2013).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천재.
- 신동광, 주현우. (2008). 영어과 교과서 검정용 어휘 목록 개발: 어휘 검색 프로그램 및 기본 어휘 목록에 대한 고찰.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11(3), 93-111.
- 윤현숙.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어휘의 코퍼스 기반 분

- 석. *현대영어교육학회*, 10(2), 87-107.
- 이병민, 박기화, 문영인, Christian H. Kim, 고미라, 김남윤, 김수연, 박수진, 배윤경, 이정은. (2013).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두산동아.
- 이재엽, 서성기, 문안나, 배태일, 오영일, 조수경, 김지민, 이유미, 안혜정, 이소현, Jay Robert Fraser. (2013).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천재.
- 이의갑, 이병천, 신동광. (2010).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어휘 개선연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0-18.)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임찬빈, 진경애, 이문복, 장경숙, 김미경, 이병천, 김성혜, 권오량, 김인석, 이현우, 오준일, 김영숙, 이성희, 이병민, 박한준, 한정희, 백인환. (2011).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시안)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장경숙. (2007).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 *영어교육*, 62(2), 331-353.
- 정사열, 이성림, 홍숙한, 강윤희, 이현주, 성현영, 박유진, 윤현정. (2013).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천재.
- 조근호. (2013). *EBS 수능 연계교재와 교교 영어교과서 어휘수준에 대한 코퍼스 기반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Nation, I. S. P. (2006). How large a vocabulary is needed for reading and listening.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63(1), 59-81.

한·미 신문사설의 평가어 비교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신 진 원

(부산대학교)

1. 서론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불균형한 일면을 보여주는 대형재난사고로서 사고발생지인 우리 사회는 물론 이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제 사회의 언론으로부터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이 사고에 대한 각 기관이나 사회의 시각을 담은 사설들이 국내외적으로 쏟아져 나오므로써 일각에서는 이 사고와 우리사회를 다양한 각도에서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었다.

사실 사설과 같은 뉴스텍스트는 사회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 텍스트생산자인 저널리스트나 언론사, 더 나아가서는 그 사회의 관점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텍스트로서 줄곧 사회언어학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어왔다(van Dijk, 1995, Katajamäki & Koskelela 2006, Pak & Acevedo 2008, 김용진 1999). 뉴스텍스트의 이런 사회언어학적인 활용을 감안해 보면, 각기 다른 의사소통상황 하에서 세월호라는 특정 사건에 대한 입장들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구성되는지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그 사회의 언어적 문화적 관습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한국과 미국신문 사설 비교분석을 통해 상이한 문화적 상황적 맥락 하에서 특정이슈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언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조사해 볼 것이다. 또한 뉴스보도와 사설과 같은 뉴스텍스트의 분석 틀로서 최근에 영어권에서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평가어 체계(Appraisal Theory)를 분석 프레임으로 이용하여 상이한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영·한대조분석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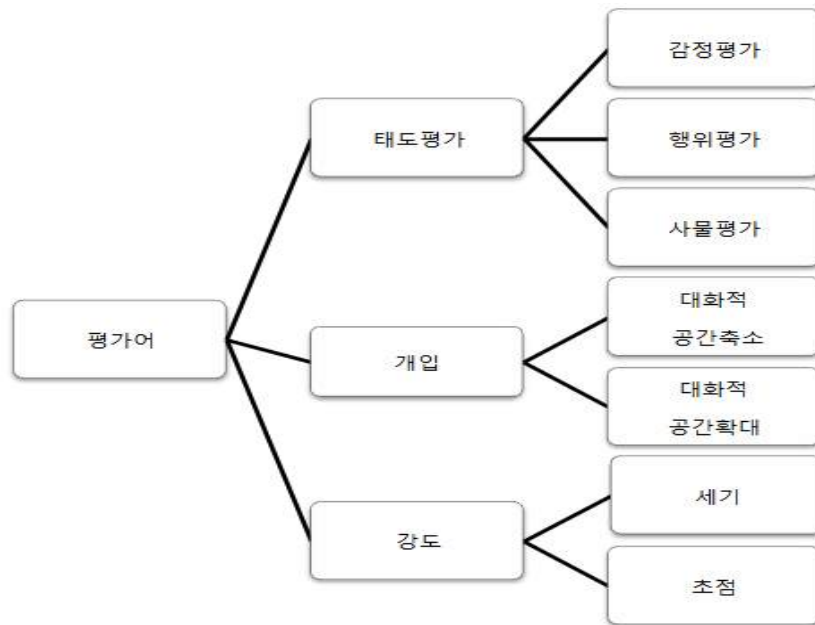
2. 평가어 체계 개요

Biber & Finegan(1988:1)는 저자나 화자가 메시지에 대해 갖는 태도나 느낌, 확신에 대한 언어적 표현들을 '입장(Stance)'으로 정의하였다. 이런 '입장'에 대한 연구는 연구목적과 방향에 따라 평가(Evaluation), 근거성(Evidentiality), 헤지표현(Hedge), 평가어체계(Appraisal Theory), 메타담화(Metadiscourse)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접근되어왔는데, 이 가운데 평가어 체계는 Halliday의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안에서 상호작용적 의미(Interpersonal meaning)에 대한 확장된 통찰로써 소개된 개념이다.

Martin & White (2005:1)는 평가어를 저자 또는 화자가 사람, 사물, 사건, 행위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담화나 텍스트에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자원로 설명한다. 이 평가어는 저자 또는 화자가 특정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고 독자 또는 청자와의 관계를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그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되고, 의사소통참여자들 간에 상호작용적 기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자 또는 화자와 독자 또는 청자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됨으로써 담화가 체계적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Thompson & Hunston 2000).

이 평가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크게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각 요소들은 평가 대상이나 방식에 따라 각각의 하부요소를 갖는다.



<그림 1> 평가어체계 (Martin & White 2005: 38)

이 구성요소 중 태도평가(Attitude)는 사물, 사람, 행동, 사건, 상황에 대해 저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언어적 자원으로, 개입(Engagement)은 기술된 입장에 대한 저자의 포지션을 보여주는 언어자원으로 설명된다. 반면 강도(Graduation)는 태도의 강도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적 자원이다. 본 논문에서는 명제에 대한 태도실현 방식을 보여주는 태도평가와 이 태도를 보여주는 저자의 포지션이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개입을 위주로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태도평가와 개입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을 위한 틀을 구성해 본다.

먼저, 태도평가는 사람,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평가로, 사람의 감정적 반응에 관한 감정평가(Affect)와 사람이나 단체의 행동을 평가하는 행위평가(Judgement), 사물의 모양, 구조, 가치를 평가하는 사물평가(Appreciation)로 구분된다. 각 평가들은 보통 형용사구나 부사구와 같은 상황어, 관용구 등 다양한 언어자원을 통해 나타나며, 명시적인 표현 또는 암시적인 표현으로도 나타난다.

감정평가는 다시 불행과 행복에 관한 평가(Un/Happiness), 불안과 안전(In/Security), 불만족과 만족(Dis/Satisfaction)에 대한 평가로 구분되며, 분석텍스트에 나타나는 미국과 한국신문에서 추출한 영어와 한국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1> 감정평가 예시

유형	정의	영어예시	한국어예시
Un/Happiness	기쁨 또는 슬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ll Koreans, not just distraught family members, have a right to ques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종자 가족뿐 아니라 온 국민의 가슴이 미어진다.
In/Security	평온과 걱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Koreans are anxious about 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들의 애가 탔다
Dis/Satisfaction	만족 또는 불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Families were furious when police started film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들은 분노를 내비쳤다.

행동평가는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에 대한 평가로 크게 사회적 존경(Social Esteem)과 사회적 비난(Social Sanction)으로 나뉜다. 사회적 존경이란 그 행위에 대한 평가가 존경이나 무시에 관한 것으로, 정상성(Normality), 능력(Capacity), 성실성(Tenacity)이란 속성에 의해 평가되는 언어자원들이다. 반면 사회적 비난은 윤리적 차원의 평가로 행위를 비난이나 칭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표현이며 진실성(Veracity), 윤리성(Propriety)이란 속성으로 평가되는 언어자원이다. 분석텍스트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2> 행위평가 예시

유형	정의와 하부유형	영어예시	한국어예시
Social-Esteem	정상과 비정상 (Norm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sident Park's astonishing outbur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행부와 해양경찰이 서로 주관할 것을 미루는 불쌍사나운 모습까지 보였다.
	능력과 무능력 (Capa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s skills at crisis management have looked disturbingly wea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백 명이 대낮에 바닷물 속에 잠겨가는 것을 뻔히 보고도 구하지 못했다.
	성실과 태만 (Tena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 would have taken courage to stay behind and fight to save the young l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장과 승무원, 해운사, 재난당국 중 한 곳만이라도 말은 바 일에 충실했으면 끔찍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Social-Sanction	진실과 거짓 (Vera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is seems dubio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윤리와 비윤리 (Propr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conduct of some of the ferry's crew is akin to mur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장과 일부 선원은 승객 탈출을 돕기는커녕 자신들이 먼저 탈출했다.

사물평가는 사물 및 현상에 대한 평가로 긍정적 부정적 반응(Reaction), 사물의 비율이나 상세함과 같은 구성과 구조에 대한 평가인 구성(Composition), 사물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가치(Valuation)로 구분된다.

<표 3> 사물평가 예시

유형	정의	영어예시	한국어예시
Reaction	긍정적 부정적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reme or unexpected weather events typically precede a catastrophic ferry accid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의 모습은 실종자 가족뿐 아니라 온 국민의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Composition	균형과 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sequences of a broken regulatory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악의 순간에 가동됐어야 할 구명 장비도 먹통이었다.
Valuation	가치와 무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ich has encouraged acceptance of poor safety standar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된 안내방송으로 많은 승객이 대피 기회를 놓쳤다.

이런 태도평가들은 평가어 체계의 세 가지 요소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언어학적 연구에 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입장을 탐구하는 다른 이름의 연구들에 비해 뉴스텍스트를 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우선 White(2005)는 영어권 신문의 사건보도와 관련하여 객관적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평가어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태도평가에 대한 문화 간 대조연구로는 Liu & Stevenson (2013)이 중국 시천지역의 지지에 대한 호주와 중국의 뉴스보도 방식에 연구가 존재하며, 영어, 일본어, 인도네시아, 불어의 뉴스보도 방식을 비교 분석한 연구도 있다(Thomson, White, Kitley 2008)다.

개입은 기술된 입장에 대한 저자의 포지션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독자와의 입장을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언어자원을 일컫는다. 이런 개입은 모든 의사소통을 '대화적'이라고 보는 Bakhtin이나 Voloshinov의 전통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다른 화자나 저자에 대한 공간 그리고 청자나 잠재적 독자의 공간을 축소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로 구분된다.

먼저, 대화적 공간축소(Dialogic Contraction)는 저자와는 다른 입장이나 목소리를 갖는 사람의 글이나 말, 그리고 잠재적 독자에 대한 공간을 거절하거나 배제해 버리는 언어자원이다. 이 대화적 공간축소는 부인(Disclaim)과 선언(Proclaim)이란 하부유형을 통해 구현되는데, 부인은 다른 입장에 대한 거절이나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 선언은 저자가 제시하는 명제를 확신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여 다른 입장에 대해 눌러버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종류와 예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대화 공간축소의 예시

유형	정의와 하부유형	영어 언어자원예시	한국어 언어자원예시
Disclaim	부정(Deny)	no, never, not 등	없다. 아니다. 앓다. 등
	반대(Counter)	yet, although, surprisingly, however, nevertheless, only 등	그러나, 하지만, 비록, 단지, 놀랍게도, 반면 등
Proclaim	동조(Concur)	Of course, Admittedly, yes, 수사의문문(답변이 예측되는) 등	당연히, 물론, 명백하게도, 당연하다. 수사의문문(답변이 예측되는) 등
	승인(Endorsement)	show, prove, demonstrate, find, point out	증명해 준다. 보여준다. 등
	공표(Pronounce)	The fact of the matter, Actually, we can conclude, IS/Do(동사강조), really	사실상, 정말, 결론짓는다. 등

대화적 공간확대는 제시되는 명제에 대해 여전히 논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저자와는 다른 입장이나 목소리를 갖는 사람의 글이나 말, 그리고 잠재적 독자에 대한 공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언어자원이다. 이 대화적 공간확대는 저자의 목소리가 자신의 입장은 여러 가지 가능한 입장 중 하나일 뿐으로 다른 입장에 대한 공간을 열어두는 주체화(Entertain)와 명제를 텍스트외부에서 가져왔음을 밝힘으로써 저자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지 않는 객체화(Attribute)로 구성된다.

<표 5> 대화 공간확대의 예시

유형	정의와 하부유형	영어 언어자원예시	한국어 언어자원예시
Entertain		may, can (양태조동사), Perhaps(양태부사), is likely to(양태동사), in my view, I think, if(가정) 등	아마도, 인 셈이다. 만약(조건), 수사의문문 등
Attribute	인정(Acknowledge)	S(3인칭) believe, argue, according to 등	전한다. 밝히다. 따르면, 라고 한다 등
	거리(Distance)	claim, it is rumoured	라는 소문이 떠돈다

개입에 대한 연구는 태도평가에 비해 뉴스텍스트를 위한 분석 프레임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뉴스텍스트보다는 학술텍스트(Swain 2010)와 EFL의 에세이를 비교하는 연구(Kim 2011)에서 더 많이 채택되었다. 뉴스텍스트 대상의 연구로는 Martin & White(2005)가 뉴스텍스트의 세부 장르를 구별하고 장르별로 개입을 구성하는 언어자원의 특징이 달리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다.

3. 텍스트 분석

3.1 분석대상과 방법

분석 자료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4년 5월30일까지 미국과 한국 신문에 실린 세월호 사건에 관한 신문사설이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미국 신문 가운데 The New York Times(NYT)와 Wall Street Journal(WSJ) 등에서 추출한 10개의 사설이, 한국 신문 가운데 『중앙일보』, 『동아일보』 및 『한겨레신문』 등에서 추출한 10개의 사설이 채택되었다. 미국 신문의 분석 자료는 상기 기간에 발행된 신문의 사설란에서 ‘Korean Ferry’ ‘Ferry Disaster’라는 키워드를 갖은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한국 신문의 분석 자료는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신문의 사설에서 ‘세월호’란 키워드를 갖은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분석 방법은 한국과 미국 신문 자료에서 먼저 주요 평가 대상을 조사하고 그 종류와 출현빈도를 비교한다. 그런 다음 평가를 위해 사용된 평가어의 종류와 빈도를 태도평가와 개입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한다. 평가어의 종류와 빈도에 대한 판단은 주분석자인 본 연구자의 결정과 한 명의 영어원어민 강사와 두 명의 박사과정생의 검토와 제안을 통해 이루어진다.

3.2 분석결과와 논의

뉴스텍스트의 입장이나 시각은 ‘선택’과 ‘표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치와 신념이 내

포된 이념적 관점이 각기 다른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Fowler 1991). 이것은 신문사들이 우선 어떤 사건을 다룰 것인가 또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리고 어떤 언어적 자원을 가지고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신문사의 시각이나 입장이나 들어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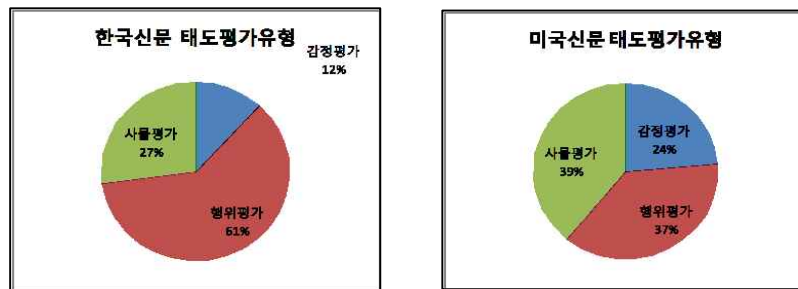
이런 관점에서 한·미신문에서 세월호라는 사건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고 어떤 점에 평가의 초점이 두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은 ‘선택’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며 어떤 언어적 자원으로 어떤 목소리로 이야기 하는가는 ‘표현’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항목이 될 것이다.

먼저 ‘선택’이란 항목에서는 세월호 사건에서 무엇이 평가대상이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으로 두 문화의 관점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태도평가의 세 가지 하부 유형 각각의 평가대상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평가대상 비교

	한국신문	미국신문
감정평가	유가족, 한국사람, 필자	유가족
행동평가	사고유발자, 정부 또는 해경, 자원봉사자	사고유발자, 대통령, 한국국민
사물평가	기후, 한국사회	한국문화(유교, 자아성찰/비판)

한국신문은 유가족, 사고유발자에 해당하는 선장이나 선원 그리고 선사나 한국정부의 행위를 주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신문은 한국문화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한국신문이 사건이 발생한 사회 안의 내부관찰자로서 한국신문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상에 대해 평가를 한 반면 미국신문은 사건의 밖에서 사고를 바라보는 외부관찰자로서 사고를 둘러싼 전체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태도평가 출현빈도비교

Martin & White(2005)은 뉴스텍스트를 주도하는 목소리가 사실과 보도와 같이 장르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이 갖는 특징은 보도에 비해 감정, 행동, 사물평가 등 다양한 평가가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사실이 갖는 이런 목소리의 특징을 놓고 두 신문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신문의 경우는 감정, 행위 사물평가 중에서 행위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미국신문의 경우는 사물평가와 행위평가가 비슷한 수치로 높았다. 이것은 미국신문이 다양한 유형의 태도평가를 균형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어신문사설의 특징이 분석대상의 텍스트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 신문사설은 미국사설에 비해 행위평가의 비율이 높는데, 이것은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의 행위에 평가의 초점이 맞추어 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표현'의 항목으로는 각 하부요소들에서 평가의 속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태도평가의 하부요소 비교

	한국신문	미국신문
감정평가	불행, 불만족	불안정
행동평가	비윤리, 불성실	무능력
사물평가	무가치	부조화

한국신문의 감정평가 대상은 주로 사고의 유가족이었으며, 이들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 평가가 일반적인 반면 미국신문의 평가대상은 한국사람으로 이들의 감정은 불안정함으로 평가된다. 행동평가의 경우 두 언어의 사설에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행위평가대상이 되는 사고유발자들에 대한 평가가 한국 신문은 비윤리적인 것에 맞추어졌다면, 미국신문의 경우 무능력함에 맞추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사물평가에 대상인 한국문화나 한국사회를 한국어신문에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면 미국신문은 부조화에 초점을 두어 평가했다는 것이다.

저자의 메시지 전달 태도를 볼 수 있는 개입의 언어자원 분석 결과는 다른 의견에 대한 공간이 있는가 없는가와 공간 축소와 확대의 방식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다른 의견에 대해 열려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개입 하부유형 출현빈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개입 하부유형 출현빈도 비교

	한국신문	미국신문
대화적 공간축소	66%	48%
대화적 공간확대	34%	52%

한국신문의 경우는 대화적 공간축소의 방식이 대화적 공간확대 방식보다 거의 두 배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태도를 나타내는 방식에 있어 저자는 저자와는 다른 의견의 공간을 배제해 버리면서 글을 전개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미국신문은 대화적 공간축소와 공간확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이것은 한국신문보다는 다양한 보이스를 인정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신문의 공간확장이나 축소의 방식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개입 하부유형 패턴 비교

	한국신문	미국신문
대화적 공간축소 방식	부인: 92%, 선언: 8%	부인: 73%, 선언: 27%
대화적 공간확대 방식	entertain:58%, attribute: 42%	entertain: 59%, attribute: 41%

대화적 공간 확대나 축소의 방식은 한·미 신문 둘 다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대화적 공간축소의 방식은 한·미 신문모두에서 부인의 방식이 선언의 방식보다 선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신문에서 부인의 방식이 선언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제시되는 평가에 대해 강한 확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다른 의견에 대한 거절을 통해 저자의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화적 공간확대의 방식은 자신의 의견이 다른 의견 중 하나임을 나타내는 주체화 방식과 판단이 본인이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왔음을 밝히는 객체화 방식이 골고루 이용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평가어 체계를 분석 프레임으로 한·미 두 신문사설의 비교분석한 결과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점, 즉 내부관찰자나 외부관찰자이냐에 따라 평가대상이나 평가방식이 차이가 발생함을 보여준다. 내부 관찰자로서 한국신문은 사건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평가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미국신문은 외부관찰자 시점으로 보다 큰 맥락에서 한국사회와 문화 같은 대상의 부조화를 평가하고 있다. 저자의 평가에 대한 독자나 다른 의견에 대한 공간을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사회안의 신문들은 대화적 공간축소의 방식으로 평가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반면 미국신문들은 다른 입장에 대한 여지를 허락하는 대화적 공간확대방식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들은 영어와는 상이한 한국어에 대한 평가어 분석에 Martin & White(2005)의 평가어 체계가 타당한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어와 한국어 대조 분석을 위해 효율적인 분석 프레임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용진. (1999). 「한국과 미국의 신문사설 텍스트 비교: '근거성' 표현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7(1), 119-149.
- Biber, D. and Finegan, E.(1988). "Adverbial Stance Types in English." *Discourse Processes* 11, pp.1-34.
- Kim, C. K.(2011) A Corpus-based Comparison of British Professional Writers' L1 and Korean University Students' L2 Argumentative Texts on Environmental Issues in Terms of Heteroglossic ENGAGEMENT in Appraisal.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7(2) pp. 203-230
- Fowler, R. (1991). *Language in the News: Discourse and Ideology in the Press*. London: Routledge.
- Hunston, S. and Thompson, G. (2000). Evaluation: an introduction. In S. Hunston and G. Thompson (eds.), *Evaluation in Text : Authorial Stance and the Construction of Discour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atajamäki, H., & Koskela, M. (2006). The rhetorical structure of editorials of English, Swedish and Finnish business newspapers. In M. C. Pérez-Llantada Auria, R. Plo

- Alastrué, & C. P. Neumann (Eds.), Proceedings of the 5th International AELFE Conference pp.215-219. Zaragoza, Spain: Prensas Universitarias de Zaragoza.
- Liu, L. & Stevenson, M. (2013). A cross-cultural analysis of stance in disaster news reports. *Australian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6(2), pp197-220.
- Martin, J. R. & White, Peter R. R. *The Language of Evaluation, Appraisal in English*. New York: Pal Grave McMillan. 2005.
- Pak, C., & Avecedo, R.(2008). Spanish-language newspaper editorials from Mexico, Spain, and the U.S. In U. Connor, E. Nagelhout, & W. V. Rozycki (Eds.), *Contrastive rhetoric: Reaching to intercultural rhetoric* pp.123-146. Philadelphia, PA: John Benjamins.
- Swain, E. (2010) Getting engaged: dialogistic positioning in novice academic discussion writing, in Swain E., (Ed): "Thresholds and Potentialities of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Multilingual, Multimodal and Other Specialised Discourses", Trieste, EUT Edizioni Università di Trieste, pp. 291-317
- van Dijk. (1995). Opinions and ideologies in editorials. Paper presented at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anguage, Social Life and Critical Thought, Athens.

Abstract

A Cross-cultural Analysis between Korean and English Editorials on the Korean Ferry Disaster

Jin-won Shi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stances in cross-cultural editorials covering the Korean ferry disaster by using Martin & White's Appraisal framework(2005). This study mainly aims at not only how different stances Korean and English editorials respectively from Korean newspapers and US newspapers have but also how Appraisal framework can be used for Korean and English comparative studi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stance patterns on the different editorials varied by viewing angles as well as cultures. Also, the study found that the framework could be of much use for identifying different stances between two contrast cultures when a particular news event take places.

제5발표

표준어에 대한 언어교육 및 사회언어학적 접근

송 경 숙

(동의대학교)

대부분의 사회와 언어공동체에서 언어에서의 표준(standard)이란 개념은 존재하고, 의사소통에서 표준의 문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다수 개인의 말은 특정 지역 방언이나 개인의 사회적 배경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언어 상황의 형식과 격식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Tottie 2002: 206). 표준어(standard language)를 Swann *et al*(2004)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 standard language is usually identified as a relatively uniform variety of a language which does not show regional variation, and which is used in a wide range of communicative functions (e.g. official language, medium of instruction, literary language, scientific language, etc.). Standard varieties tend to observe prescriptive written norms, which are codified in grammar and dictionaries. (Swann *et al* 2004: 295).

곧 표준어는 지역적 변이를 보이지 않고, 공식어, 교육 매개어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적 기능으로 사용되는, 비교적 획일화된 언어형이다. 표준어형은 문법과 사전에 기록되는 규범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경향이 있다.

표준어에 대한 언어 사용자 및 학습자의 언어 태도와 인식은 중요하다. 언어 태도(language attitude)는 본인의 언어 또는 타인의 언어에 대해 갖는 감정으로 설명된다(Crystal 1997 등). Fasold(1987)에 따르면, 언어 태도에 대한 일부 연구는 언어 그 자체에 대한 태도에만 주로 초점을 둔다. 하지만 언어 태도는 좀 더 포괄적으로, 특정 언어형이나 방언 사용자들에 대한 태도를, 언어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 예를 들어 언어 보존(language maintenance)과 언어 계획(language planning)을 포함하고, 언어 교육 및 학습(language education and learning) 까지 포함한다. 결국 학습자의 언어 태도 및 인식은 학습 동기와 결과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표준어에 대한 언어 태도 및 인식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의사소통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영어가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로, 제1의 국제어·세계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지위를 확보하게 된 오늘날, 언어교육 및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표준 한국어 및 표준 영어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언어 태도 및 인식에 대한 다년 간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언어교육 및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Crystal, D. (1997).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sold, R. (1987/1984). *The Sociolinguistics of Society*. Oxford: Blackwell Ltd.
- Swann, J. A. Deumert, T. Lillis, and Mesthrie, R. (2004). *A Dictionary of Sociolinguistics*.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Tottie, G. (2002). *An Introduction to American English*. New York/London: Blackwell Ltd.

아시아 성인 영어학습자들의 학습동기 요인

배 대 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 영어학습의 동기

영어란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잘하고는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 '뜨거운 감자'와 같았던 영어를 잘하고자 하는 동기는 그 감자보다 더 뜨거웠을 것이다. 영어를 잘해보고자 마음을 먹고 무언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 하지만, 그 결과는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왜 그런 것일까? 원하는 것은 하지만 실천력이 부족해서일까? 학습에 대한 동기가 좀처럼 원하는 만큼 유지가 되지 못한 것 같다. 학습에 대한 동기는 매우 다양할 것이며, 심지어는 각 개인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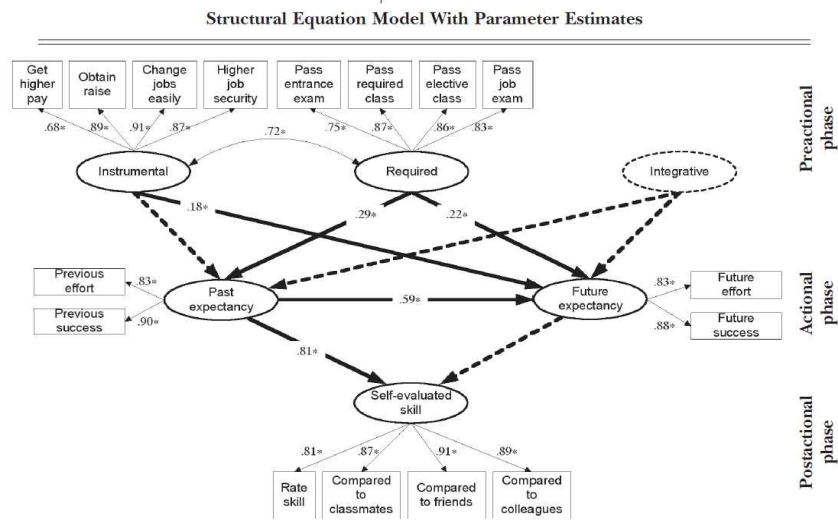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현실은 이러한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주변국들에서는 영어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우리처럼 취업을 하는 데 영어가 필수과목이면서 스펙의 중요한 요인일까? 일본이나 중국, 아니면 태국과 같은 영어가 외국어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어떤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영어실력 향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다양한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등장한다. 금번 학술대회의 발표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그간 관심 있게 모아 온 자료들을 정리하고, 최근 일본과 한국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모아 본 동기요인과 관련한 자료의 분석결과를 공유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학습에 보다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성실한 태도로 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2. 동양적 환경 하의 영어학습동기

영어학습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동기는 항상 존재하지만,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만큼 동기가 우리를 지탱해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학습자 자신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찾고자 할 때 지나간 역사를 되돌이켜 보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한다. 영어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후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되고,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많은 성공스토리들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 현재의 대한민국 영어교육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제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은 교사들에게 갖추어져 있고, 우리가 만든 영어교재가 수출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면이 있다면 주된 학습자료나 학습동기요인을 고려할 때 기반으로 삼는 정보들이 대개 서양권의 것들이란 사실이다.

Kachru(1994)는 영어권에 대해 inner circle, outer circle, expanding circle의 분류를 우

리에게 제시하여 주었으며, 영어학습에 관한 서양권 위주의 편견이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경고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무언가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행위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문화적 산물이다. 동양권의 교육은 지식의 전달, 암기와 이해 등의 활동이 많은 편이며, 서양권의 교육은 체험과 토론 등에 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 두 경우 중 어느 한 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으며, 각 방법은 각 문화권에 맞게 발전해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어교육에 관한 이론적 토대가 미약했던 초창기의 영어교육 시기에는 서양권의 연구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최근에는 국내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이론적 토대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동기에 관한 연구도 김태형(2013)에서는 서양권의 도구적 또는 통합적 논의를 벗어난 한국적 동기의 재조명에 관한 논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Chen, Warden, & Chang(2005)에서는 China Imperative 라는 신조어를 제시하면서, 중국의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영어학습의 요구에 더 적절하게 반응하며, 특히 통합적 동기의 요인은 대만의 567명의 학생들의 경우엔 영어학습동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없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들의 연구는 Dornyei의 choice, executive, retrospective의 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의 동기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도구적인 동기와 통합적인 동기 또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등의 널리 알려진 동기의 틀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동시대적인 동기요인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과업이 될 수도 있다. 김성애(2010)는 영어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수학습과정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주변적인 다양한 변수들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람직한 영어교육의 구현을 위해서는 영어교수법 외에도 교육심리학, 사회학, 교사양성제도, 입시제도, 여론의 형성 등 다양한 교수학습 외적 요인들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들을 포함하는 것은 사회전반적인 범위를 다루게 되는 것이며, 문화적인 요인들이나 구성원들의 관념적인 동의를 구하는 부분도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학습동기의 중국 내의 연구결과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주어지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유발되는 영어학습의 필요성, 영어시험 고득점의 획득에 대한 기

대, 필수과목을 잘 이수하고자 하는 필요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동기요인의 작용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주장이 많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에 영어에의 능통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대한민국의 경우와는 다소 반대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접한 후, 본 연구자는 동일한 설문항목을 한국 학생들에게 적용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고, 대학교 1학년 학생들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일본학생들에 비해 한국학생들의 동기요인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문화적 학습동기

전술한 내용을 통해 교육이란 것은 문화적인 산물임을 언급한 바 있다. 문화적인 산물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효용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선진문물을 도입할 때 자국내에 전혀 없던 것들인 경우 그대로 흡수, 용인되면서 초기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자국의 상황이나 문화적인 요소들이 고려되면서 대개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어교육의 현주소를 돌아보면 그간 할인보다는 문화적 프리미엄(cultural premium)이 주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Chen, Warden, & Chang(2005)은 EFL 환경 하에서는 영어의 입력이나 영어권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기회가 아주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적인 요인이 불리하다고는 하나, 그로 인해 한국이나 중국의 영어학습자들의 학습욕구가 저하되거나 동기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환경적 요인이 불리하다는 점이 학습 과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인 것이다. Lonccope(2009)는 EFL 국가 내에서 행해지는 입력이 ESL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입력에 비해 그 학습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고 우리의 문화적 환경에서 수용되기 쉬운 학습모델과 동기요인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가 도구적으로 유용하다는 사실은 영어권의 문화에 동화하고자 하는 통합적 동기에 비해 결코 효율이 낮은 동기요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부모의 기대나 높은 영어점수에 대한 주변이 선망 등도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현대의 학습자들에게 추상적인 방향성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인의 제시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enson, J. J. (1991). Attitudes and motivation toward English: A survey of Japanese freshmen. *RELC Journal* 21(1), 34-48.
-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NY: Addison Wesley Longman.
- Chen, J. F., Warden, C. A., & Chang, H. T. (2005). Motivators that do not motivate: The case of Chinese EFL learners and the influence of culture on motivation. *TESOL Quarterly*, 39(4), 609-632.
- Dornyei, Z. (2009).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In Z. Dornyei & E. Ushioda

-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pp. 9-42).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 Gardner, R. C., & Masgoret, A. M. (2003). Attitudes, motiva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A meta-analysis of studies conducted by Gardner and associates. *Language Learning*, 53(1), 123-163.
- Kachru, Y. (1994). Monolingual bias in SLA research. *TESOL Quarterly*, 28, 795-800.
- Longcope, D. P. (2009). Differences between EFL and the ESL language learning contexts. *Studies in Language and Culture*, 32(2), 303-320.
- 권오량, 김정렬. (2010). *한국영어교육사*. 서울: 한국문화사.
- 김성애. (2010). *영어 교수 기술 연구*. 서울: 신아사.
- 김태영. (2013). *영어학습 동기연구의 최근 경향*. 서울: 한국문화사.
- 배대권, 안병길, 이명헌. (2013). 뇌친화적 교수학습 방안: 영자신문을 활용한 EFL 영어 수업. *영어영문학* 18(3), 141-168.

The Interface between Input and Output in an English Writing Course

Younghwa Lee

(Sun Moon University)

I. INTRODUCTION

Writing in English is a challenging task for many EFL Korean students. Such 'literate acts' or individual constructive acts, are, according to Flower (1994):

"... sites of construction, tension, divergence, and conflict. They happen at the intersection of diverse goals, values and assumptions, where social roles interact with personal images of one's self and one's situation...[they] are often sites of negotiation where the meaning that emerges may reflect resolution, abiding contradiction, or perhaps just a temporary stay against uncertainty." (p. 19)

To understand learning as a "site of negotiation" (McMillan, 2000, p. 149) is a useful way of exploring students' written products in higher education. This is particularly so in students' writing task in the classrooms in this study, where most of the students negotiate their meaning-making in the recontextualized position of their writing tasks. Students' meaning-making can be a means to examine their active process of writing, their sophisticated cultural and conventionalized knowledge, and their practices that constitute current EFL writing in Korea. In this study, I will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put provided by a teacher in a writing classroom and her students' writing products, pursuing a qualitative approach. Based on this speculation, the research quest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What are the features of a teacher's input and her students' output in a writing classroom in the Korean context?

II. THEORETICAL BACKGROUND

Meaning-making in a Context

Thesen (1994) believes that we need to ask ourselves where we think meaning can be found and believes a discourse approach should be concerned with the interactions between people in a given context rather than with relationships to text. This then

allows for meaning to be located in the user or individual rather than in the system. What is important is to understand that students are continuously making decisions in their learning. In particular, she argues that:

“... this perspective makes it easier to track and understand the way discourses rub against one another, and what individuals do about this. Locating meaning in the individual does not mean that I am downplaying the social, but trying to find a starting point that is more profoundly social, in that it deals with human action, which must surely be at the heart of the social (p. 56)...”

In a given context, students rise to the active negotiation of meaning, thereby creating meaning in the intersection of alternatives,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For Flower (1994), a literate act is “an individual constructive act...[which] can call for the orchestration of diverse, seemingly incompatible practices...[these] also reflect the complex, even contradictory, goals and purposes that often drive meaning making” (p. 18). This implies, following Clark and Ivanic (1997),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riting and social context. In this sense, students’ written products from a writing course can be a barometer which can reveal the domain of cultural and social contexts as the circumstances around the learning of writing in English.

Input and the Recontextualization

Teaching personal opinion writing within education can often be based on unreal tasks with inappropriate, exercise-based content. This is particularly true at the EFL university level. However, in the distorted world of autonomous university writing practices it is possible for personal opinions to be the source of real, meaningful writing activities in an EFL context. In the practices of opinion writing in English in an EFL setting like the classroom in this study, “recontextualization” (Barton & Hall, 2000, P. 9) takes place when personal opinions are moved into other arenas and used for different purposes. Shifting an opinion from its location in social practices into a textbook or other educational materials is an example of the recontextualization of a text. In the assessment of a writing course, personal opinions have been recontextualized as educational material, and this transition can lead to a different genre. The imagined social processes of opinion writing are recontextualized in the assessment into another social context, the classroom. This can be a chance for even inexperienced letter/personal opinion writers to make appropriate social moves and generate effective social strategies given the exam writing context. All the students can respond with a form and content that is appropriate to opinion writing in English whether they actually contain all the associated conventional forms or not.

Opinion Writing

In general, the purpose of a personal opinion paragraph is to express the writer's opinion. However, as Kitao, S. and Kitao, K. (1992) argue, the writer must do more than just express an opinion. The writer must also give support for the opinion; that is, reasons for holding that opinion. One way of writing a personal opinion paragraph is to state the opinion in the introduction, and possibly mention the number of reasons that will be discussed. Then, in the discussion, the writer gives facts, arguments or supportive data for that opinion. In the conclusion, the writer restates the opinion or summarizes the arguments or facts. Another way of writing a personal opinion paragraph is to mention the opinions of other people or groups and then agree or disagree with those opinions in the introduction. Again, in the discussion, the writer gives support for his or her opinion and in the conclusion restates the opinion or summarizes the supporting data.

III. METHODS

Participants, Procedure, and Material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a teacher and thirty students in a writing classroom at a Korean university. The teacher had three and a half years of experience in teaching writing in English and her main research area included pragmatics and semantics. The thirty students came from a variety of disciplines and English proficiency levels at the university, and their ages varied from twenty to twenty-six. Their previous experience of learning writing in English were also different from one another.

Classroom observations and interviews with the teacher were establish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teacher, from which the teacher's pedagogic practices as the input can be explored. Interviews with students were also constructed. A total of ten examples of students' written products were collected from three different groups - high, intermediate, and low - according to the scores from mid exam and assignments. The students were asked to respond to one of two options: writing opinions about (i) a cartoon or (ii) a newspaper article provided by the teacher.

A Framework for Data Analysis

A synthetic framework, 'Claim-Reason pattern' was adopted in order to analyze the ten students' writing products. The 'Claim-Reason pattern' was developed from Hoey's (2001) 'Claim-Response' pattern. This model seems to be useful to examine the students' output because the students' opinion writing may be a reaction to one of the two writing tasks, including their claims or opinions and reasons for them. Hoey uses the Claim-Response pattern to analyze a variety of textual patterns such as letters,

articles, and newspaper. Hoey's pattern is not defined, in marked contrast to the sequence patterns he considers elsewhere. For this reason, the research here built up the 'Claim-Reason pattern', on the basis of the ten examples of the students' opinion writing, since their pieces clearly had a Situation, a(an) Claim or Opinion required, Reasons for the Claim or Opinion, and Support for the Reasons.

In analyzing the students' writing, the cartoon and the article, are referred to as Situation. The clauses/phrases *'I think', 'I believe', 'I am in favor of', 'I agree/disagree that', 'in my opinion', 'in my view'*, can be the signals of Claim/Opinion that personal opinions are being expressed. The list-order transition signals such as *'first, second, third, and finally'* can identify Reasons. The opening expressions *'for these reasons', 'therefore', or 'in conclusion'* can be categorized as Affirmations which take the role of Supports for the Reasons, as exemplified in Extract 1.

Extract 1: An example of analysis for student A

(S1) I am in favor of capital punishment <Claim: agreement>. (S2) First of all, murderer who killed other people has to be punished equally <Reason 1>. (S3) When they commit a crime, they already have had a(n) intention of killing others. (S4) And they plan(n)ed...<Support for Reason 1>. (S5) Second, the family of victim are very sad, if the murderer is alive <Reason 2>. (S6) For example, ... (S7) It might be terrible and... (S8) It is the same thing...<Support for Reason 2>. (S9) Third, capital punishment can reduce the crime <Reason 3>. (S10) If it isn't in our society, ...<Support for Reason 3>. (S11) Finally, it needs much money to live them in prison <Reason 4>. (S12) We shouldn't waste money, because... (S13) The murderer doesn't ... <Support for Reason 4>. (S14) In conclusion, I am in favor of capital punishment <Affirmation>

Note) S: Sentence

IV. FINDINGS AND DISCUSSION

Accommodation in the Output

There are few differences among the students' writing, except two pieces of writing, since they all share the key elements of Claims or Opinions, Reasons, and Supports for the Reasons, which originate from the textbook. This indicates that the discourse approaches of the students are concerned with their relationships to text in a given context, an examination, rather than within interactions between people. This can be related to the EFL writing pedagogy in which the writer needs to access meaning-making in an artificial system. Because eight students adopt a similar rhetorical patterns, we can conclude that a central part of the learning process for students is concerned with 'ways of knowing' which evolved from the writing practices in the classroom. In this respect, the eight students interweave their prior knowledge and ways of writing, derive from the same classroom, to deal with the assessment requirements. These findings reflect that the students tend to have what the researcher calls a 'strategy of accommodation' in a given context.

On the contrary, the other two students' writing are situated in the domain which is concerned with their individual knowledge bases, rather than constructing the patterns of the textbook. Here the two approaches which the researcher calls "reformulation and challenge" can be applied to the two students. The former approach is one whereby the eight students try and reproduce course materials, thereby attempting to succeed in gaining high scores, using the same rhetorical patterns as the course materials, while the latter appears to be an attempt on the part of the two students to relate their texts to their own life-world context.

The Output and Purposes for Writing

Nine students out of the ten chose the newspaper article as their writing tasks. Those students adopted similar or the same organization and content to those of the model paragraphs in the textbook rather than attempting their own strategies. Expressions such as *'in my opinion'*, *'I am in favor of'*, *'first of all'*, *'second'*, *'third'*, *'indeed'*, etc., are repeated in their pieces, and this suggests that all of those perceptions originated from the textbook. The three students who got the highest mark, the full score, included at least three reasons to support their Claims or Opinions, and signals of conclusion as an Affirmation, and these seemed to affect their marks. Five students put a title, and two of them adopted the same title, *'Capital punishment'*, as the model paragraphs in the textbook. Two students chose the cartoon as their writing task. One student adopted the organization from the textbook to generate her new ideas whereas one did not.

The overall picture shows that the students used the order-listing transition signals in their pieces of work. Only three students, on the other hand, reveal their own understanding about writing in English which seems to be derived from their experiences, thoughts, imagination, creativity and style rather than knowledge derived from the writing classroom. They produced very different types of texts in which the content was embedded in their own world of interpretation. That is, the seven students all share similar "strategy knowledge" (Victori, 1999, P. 544) which includes the same planning of ideas, organization of ideas, and use of resources in their written texts. This indicates that Korean students tend not to think critically, and this implies that critical thinking instruction to them is not easy (Atkinson, 1997; Fox, 1994; Ramanathan & Kaplan, 1996). Under the Korean education system, learning is equated with the memorization of factual information rather than with the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or individual creativity (Lee, 2003). These findings appeared that it was a problem for the students to generate and formulate ideas into sound and cogent arguments.

On the other hand, the following comments from three students can be strongly related to the students' purposes for writing and their perspectives on their writing in English as output:

I'm learning writing in English to prepare for TOEFL because I'm planning to study on a graduate course. I wish to learn English itself through writing as well. That's why I'm attending this course. So I'm always thinking about what I write in English in my daily life through the writing assignment.

(Interview data from Student A)

I wish to learn how to write and speak in the English way of thinking. We, all Korean people, are normally able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lthough an argument is sometimes vague and not clear-cut. But I don't think this works for people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In this sense, this writing task is useful to express my argument in a persuasive approach, which is the English way. .

(Interview data from Student B)

First of all, I want to improve my general English proficiency. Thus, the writing task will be very helpful for me. After this semester, I would like to learn how to write an academic essay further.

(Interview data from Student C)

V. CONCLUSION

The written products of the students in this study demonstrated the pattern of 'accommodation', because eight students out of then constructed similar rhetorical patterns and content adopted from the textbook in their opinion writing. This reflects that those students perceive what higher education learning is about and how they construct what they need to do in order to succeed in the assessment. These perceptions are strongly visible in the teacher's and students' accounts. That is, the teacher focused on content and creativity in writing through her pedagogic practices of writing which included free paragraph writing tasks with other components of the textbook. However the students made reference to the role that their course materials played in their writing tasks as well as the recontextualized nature of the evaluation.

Here, the ways in which students construct approaches to writing and learning to write, and the contexts within which learning takes place are crucial to understanding recontextualization. Recontextualization in turn needs to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negotiation and meaning-making. From students' writing products, we can understand that both life-world and learning experience inside/outside instructional settings impact on opportunities for the EFL writing of the students. This reflects the claim that EFL writing in one context will not necessarily guarantee success across a range of other learning contexts. Therefore,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how the teacher's input and students' output impact students' output in the context given, and this should be considered in curriculum and pedagogic practices in the classroom.

REFERENCES

- Atkinson, D. (1997). A critical approach to critical thinking in TESOL, *TESOL Quarterly*, 31, 71-94.
- Barton, D. & Hall, N. (2000). *Letter writing as a social practic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Clark, R. & Ivancic, R. (1997). *The politics of writi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Flower, L. (1994). *The construction of negotiated meaning: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writing*.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Press.
- Fox, H. (1994). *Listening to the world: Cultural issues in academic writing*. Urbana, IL: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 Hoey, M. (2001). *Textual interaction: An introduction to written discourse analysi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itao, S. & Kitao, K. (1992). *Basic English paragraphs: Improving reading and writing skills*. Tokyo: Eichosha.
- Lee, Y. (2003). Alignments and detachments in writing pedagogy: Interface between teachers' practices and students' purposes in two EFL writing courses in Korea. Unpublished PhD thesis. Lancaster University, UK.
- McMillan, J. (2000). Writing for success in higher education, in M. R. Lea & B. Stierer (Eds.) *Student writing in higher education: New context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Ramanathan, V. & Kaplan, R. B. (1996). Some problematic "channels" in the teaching of critical thinking in current L1 composition textbooks: Implications for L2 student writers, *Issues in Applied Linguistics*, 7, 225-249.
- Thesen, L. (1994). Voices in discourse: Re-thinking shared meaning in academic writing. Unpublished MPhi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pe Town.
- Victori, M. (1999). An analysis of writing knowledge in EFL composing: A case study of two effective and two less effective writers, *System*, 27 (4), 537-55.

문단을 활용한 모둠 글쓰기 지도 방안

서 종 훈

(대구가톨릭대)

1. 문제제기

다양한 전자 매체의 발달로 인해 학교 현장의 작문 교육, 즉 학습자들의 작문 환경이 예전에 비해 더욱 연성화 되어 가고 있다. 아울러 이런 환경은 기존의 고립된 필자 중심의 작문에서 벗어나 필자 간 다양한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이른바 모둠 글쓰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른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모둠 글쓰기가 예전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가 정작 학습자들의 작문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있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학습자들로 하여금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토막글 산출에만 그치게 하고, 완성도 높은 한 편의 글을 구성하는 능력은 오히려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개인의 인지적 틀을 넘어서 당대 사회, 문화적 맥락의 반영을 중시하는 최근 작문 경향에 비추어 보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런 교육 환경에서 소통 기반의 협동 관계가 작문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방법의 모색이나 고민은 부족한 듯하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협동 학습의 범주 아래에서 모둠 작문, 쓰기 워크숍, 모둠 글쓰기 등으로 다양하게 그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효과는 미미한 듯하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둠 글쓰기의 실질적인 구현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문단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그것의 모둠 글쓰기에의 필요성과 그 교육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모둠 글쓰기의 연구 현황과 문제점

대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모둠 글쓰기는 전통적 모둠 학습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모둠 글쓰기를 기존의 전통적인 소모둠 학습과 차별성 없는 맥락에서 파악하고, 이를 교수·학습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는 결국 모둠 글쓰기의 교육적 유용성에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모둠 글쓰기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몇몇 주요한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이재기(1997)에서 제기된 소집단 작문 활동의 유형을 동료 반응(평가)활동, 협동적 쓰기 활동, 동료 협의 활동을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각 활동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수·학습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문혜경(2000), 정미현(2003), 송재림(2008), 황재웅(2008)에서도 명칭만 달리했을 뿐 비슷

한 맥락에서 모둠 글쓰기가 논의된다. 즉 대다수 연구가 모두 모둠 글쓰기에서 대화와 협의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인 쓰기 과정이 개인과 모둠을 구분해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불충분하다.

신헌재 외(2003)은 국어과 협동 학습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협동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교수·학습을 제시하고 있어 참고가 되며, 최현섭 외(2003)은 쓰기 중심의 워크숍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학습 현장에서 측면에서 부각시키고 있어 참고가 된다. 다만 두 논의는 개괄적인 측면에서 모둠 글쓰기의 단면만을 고찰하고 있어 향후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한계를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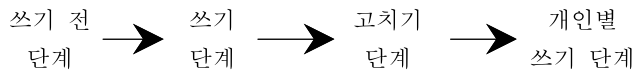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는 교수·학습 운용 부분의 소집단 협동 학습에서 모둠 글쓰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기(1997)에 제시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고쳐쓰기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동료 비평 활동, 내용 생성을 협동적으로 진행하는 모둠 글쓰기 활동, 작문의 어려움을 대화하면서 해결을 시도하는 협의 활동이 그것이다. 제시된 세 가지 유형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실질적인 작문 단계 이전인 계획하기 및 내용 생성하기, 그리고 쓰기 이후 단계인 고쳐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성숙자(2003)에서는 앞선 연구들에 비해 모둠 글쓰기의 보다 심층적인 탐색에 이른다. 특히 모둠 글쓰기의 종류를 세분화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의 의의가 높다. 모둠 글쓰기 범주의 논의를 위해 성숙자(2003, p173)에서 제시된 내용을 인용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모둠 글쓰기의 종류(○:협동학습, ×:개별학습)

쓰기 전 단계	쓰기 단계		고치기 단계	유형
○	×	개인별 쓰기	×	1
○	×	"	○	2
○	○	대표 1인 쓰기	×	3
○	○	여럿이 나누어 쓰기	×	4
○	○	대표 1인 쓰기	○	5
○	○	여럿이 나누어 쓰기	○	6
×	○	대표 1인 쓰기	×	7
×	○	여럿이 나누어 쓰기	×	8
×	○	대표 1인 쓰기	○	9
×	○	여럿이 나누어 쓰기	○	10
×	×	개인별 쓰기	○	11

아울러 성숙자(2003)에서는 <표 1>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 글쓰기가 학습자 쓰기 교육에 제대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 개인별 쓰기 과정이 모둠 글쓰기 과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성숙자(2003)에서 제시된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은데, 고치기 단계 이후에 '개인별 쓰기 단계'가 추가된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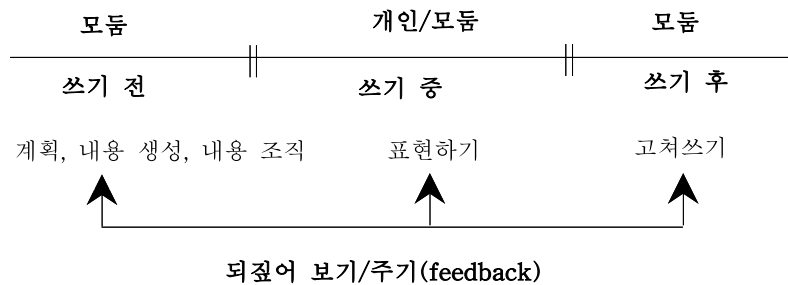


<그림 1> 모둠 글쓰기의 단계

이 논의에서 제기되는 실질적인 개인 작문 과정이 모둠 글쓰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림 1>에서와 같이 개인 작문은 모둠 글쓰기에서 고쳐 쓰기 과정이 모두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개인 작문의 결과물이 모둠 글쓰기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대화와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적 작문로 마무리 짓는 통상의 모둠 글쓰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3. 모둠 글쓰기의 개념과 범주

본고는 모둠 글쓰기를 개인 필자와 공동 필자가 모두 쓰기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 되, 최종적으로는 각 구성원의 개별적인 글이 아닌 모둠 구성원 모두의 생각이 반영된 공동의 쓰기 결과물을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즉 모둠 구성원의 개인별 쓰기 과정이 포함되지만, 최종적인 쓰기 구성물은 반드시 모둠 혹은 공동의 견해와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이다. 이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실질적 쓰기 주체에 따른 모둠 글쓰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 쓰기 주체로서 개인과 모둠이 모두 관여된다. 특히 개인 쓰기 결과를 두고 고쳐쓰기 과정에서 모둠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개인별 쓰기 결과물이 반드시 재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별 쓰기 과정과 모둠별 쓰기 과정을 학습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특히 쓰기 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내용이 차별성 없이 그대로 개인별 작문 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모둠별 작문 과정에서 개인별 작문의 결과를 어떻게 공동의 작문 결과물로 이끌어 낼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문단이라는 단위를 활용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개인 작문과 모둠 작문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4. 문단을 활용한 모둠 글쓰기 지도 방안

모둠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이 쓰기 과정의 각 국면에서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음을 감안한 쓰기 방법이다. 특히 복수의 필자가 작문 전 과정에 모두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 이는 글의 실제 작성 과정에서 복수의 필자가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야만 모둠 글쓰기로서의 실질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런 점에서 문단은 모둠 글쓰기에서의 매우 유의미한 사용 단위가 될 수 있다.

본고는 이를 위해 우선 문단 이어 쓰기와 문단 나누어 쓰기로 구분해서 각 문단 중심의 모둠 글쓰기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였다.¹⁾ 문단 이어 쓰기와 나누어 쓰기는 문단을 중심으로 한 모둠 글쓰기지만 쓰기 과정에서 협동의 과정이 차별화된 양상으로 접근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모둠 글쓰기의 결과에 일정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본고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단 이어 쓰기와 나누어 쓰기가 교육·학습 현장에 보다 더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특히 학습자들의 협동 과정이 실제 쓰기 과정에서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의미의 연결 정도와 위계를 고려한 문단 이어 쓰기와 나누어 쓰기를 제시하였다.²⁾

4.1 문단 이어쓰기

문단 이어 쓰기는 인접 문단 간 의미연결에만, 문단 나누어 쓰기는 전체 문단 간의 개략적인 의미 관계에만 인식의 초점이 주어질 수 있다. 이른바 부분과 전체의 부조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두 가지 문단 중심 모둠 글쓰기는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일정한 보완을 필요로 한다.

우선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가령 5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문단 이어 쓰기의 형태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이는 통상 문단 중심 모둠 글쓰기에서 학습자들이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을 직관적으로 도식화 한 것이다.

$$P_1 \rightarrow P_2 \rightarrow P_3 \rightarrow P_4 \rightarrow P_5$$

<그림 3> 문단 이어 쓰기

<그림 3>에서와 같이 문단 이어 쓰기에서 학습자들은 전체글에 대한 자각 없이 인접 문단 간 의미연결에 초점을 두면서 각자의 문단을 구성할 것이다. 즉 전체를 보지 못한 채 부분적인 의미연결에만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그림 4]와 같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각 학습자들이 자신의 문단을 구성하고, 되짚어보기(feedback) 과정에서 다른 학습자들의 문단을 재구성하는 양상이다.

- 1) 이미 이러한 생각의 단초들은 정희모(2006)이나 이재기(1997)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작 문단 중심의 실질적인 모둠 글쓰기 방법론이 논의된 경우는 찾기 어렵다. 기존의 모둠 글쓰기 사례가 모둠의 1인 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쓰기 전후 과정의 대화나 협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고는 문단 중심의 실질적인 모둠 글쓰기 방안 연구로 의의가 있다.
- 2) 본고는 문단 중심 모둠 글쓰기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경남의 한 특목고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문단 중심 모둠 글쓰기를 한 학기 수행 평가 과제로 실시한 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애초에 학습자들의 문단 중심 모둠 글쓰기의 결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에 초점을 두려고 했지만,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증적인 검토 대신에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열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있었다. 따라서 이런 이론적인 열개는 학습자들의 문단 중심 모둠 글쓰기를 바탕으로 일부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차후 연구에서 이의 실증적 검토에 기반한 연구가 이어질 계획이다.

$$P_1 \Leftrightarrow P_2 \Leftrightarrow P_3 \Leftrightarrow P_4 \Leftrightarrow P_5$$

<그림 4> 되짚어 보기 과정이 반영된 문단 이어 쓰기

<그림 4>의 경우에는 문단을 중심으로 전·후 맥락을 모두 고려하는 형태인데, 실제 쓰기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의 수준이나 시간적 제약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점이 따른다. 따라서 문단 이어 쓰기 모둠 글쓰기에서 학습자들 간의 보다 유의미한 협력을 이끌어 내고 글의 맥락에 대해 더 민감하게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인접 문단 간에 의미 연결의 정도 혹은 강도를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다. 즉 사전에 문단 간에 의미 연결의 정도를 학습자들에게 사전에 논의하게 함으로써 글의 맥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그림 5>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P_1 \rightarrow P_2 \Rightarrow P_3 \Rightarrow P_4 \rightarrow P_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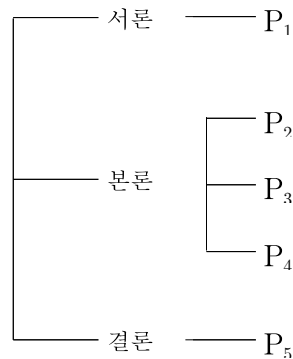
<그림 5> 의미 연결 정도를 고려한 문단 이어 쓰기

<그림 5>는 문단 간 의미연결 정도 혹은 강도를 높거나 낮게 설정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보다 역동적으로 글의 전개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화살표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가령 ‘→’는 의미의 전환으로, ‘⇒’는 의미의 유지로, ‘⇨’는 의미의 연속으로 간주된다.³⁾ 즉 의미가 전환되는 과정은 서론과 본론, 본론과 결론 간의 의미 관계로 그리고 의미의 유지와 연속은 본론 내에서의 문단 간 의미 관계에 상정할 수 있다.

4.2. 문단 나누어 쓰기

문단 나누어 쓰기는 일반적으로 <그림 6>에서와 같이 학습자들이 평면적인 개요 하에서 각자의 문단을 구성하게 된다. 즉 전체 개요가 문단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학습자들은 실제 쓰기 과정에서 실제로 자신이 맡은 부분에서의 문단 내용 구성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문단 이어 쓰기에서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오히려 문단 이어 쓰기에서 보다 더 심각한 문단 간 의미연결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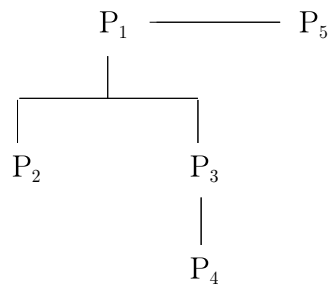
3) 이는 Walker 외(1998)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심화 이론(centering theory)과 관련된다. 이는 명사구 선택이 화자의 의식 상태 및 발화 문장 간의 지엽적 의미 연결(local coherence)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대명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담화 구조 내에서의 담화 현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다. 그 기반은 전산 언어학의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영역에서 ‘언어 해석에 있어서 효과적인 맥락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으며, 담화 분절상에서 발화간의 지엽적 의미 연결을 다루는 데 있다. 아울러 이 이론에서는 중심의 전이 유형을 중심 연속 전이(continue), 중심 유지 전이(retain), 완만한 중심 이동 전이(smooth-shift), 급격한 중심 이동 전이(rough-shift)의 순서로 매겨진다.’이다. 본고에서는 의미의 연속, 유지, 그리고 완만한 중심 이동과 급격한 중심 이동은 의미의 전환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6> 개요 중심 나누어

<그림 6>에서와 같은 글의 개요는 개인적인 쓰기 과정에서는 매우 유효한 전체글의 도식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모둠 글쓰기에서는 문단 간, 혹은 글의 구조 간에 의미나 형식의 단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쳐쓰기 과정에서 심도 있는 대화나 협의의 과정이 뒤따라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그림 6]과 같은 개요 중심의 모둠 글쓰기가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단 중심의 글의 의미 위계가 반영된 형태의 개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문단 중심 개요 작성 시에 평면적인 접근이 아닌 거시구조적 관점에서 의미의 위계적 혹은 입체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한편의 글을 구성하는 문단들이 병렬적으로 나란하게만 놓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의미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면서 구성된다는 점을 가장 단순하게 표상해 놓는 방식이다.⁴⁾ 가령 문단 간 의미 위계를 고려한 문단 나누어 쓰기는 형태는 [그림 7]과 같이 개요를 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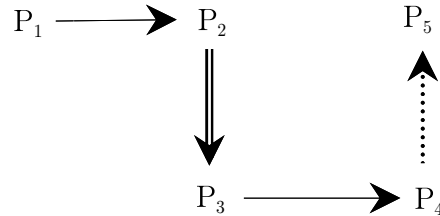
<그림 7> 의미 위계를 고려한 문단 나누어 쓰기

[그림 7]에서 문단 P₁과 P₅는 최상위 의미 위계 문단에, P₄는 최하위 의미 위계 문단으로 설정되었다. 앞서 [그림 6]에서 제시된 평면적인 개요 대신에 이와 같이 의미 위계를 고려한 문단 중심 개요를 구성함으로써 학습자들은 문단 간 의미 관계를 보다 전체글의 관점에서 밀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인접한 문단 간의 의미 관계에 대한 인식도 심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문단 간 연결 관계를 Grosz와 Sidner(1998, p47)에서의 담화 분절(DS) 간 중심화 전이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는 문단 간 의미 위계와 인접 문단 간 의미 관계를 모

4) 문장이 접속과 내포만으로 그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문단 간에도 적용한 것이다.

두 고려한 것이다. 가령 문단 간 관계를 ‘병렬 관계’, ‘심화 진전 관계’, ‘도로 빠져나옴 관계’로 상징할 수 있다. <그림 8>과 같이 간략하게 도식화 시킬 수 있다.



<그림 8> 의미 연결 정도와 위계를 고려한 문단 나누어 쓰기

<그림 8>에서 P₁과 P₂, P₃과 P₄는 의미의 ‘병렬 관계’로, P₂와 P₄는 ‘심화 진전 관계’로, P₄와 P₅는 ‘도로 빠져나옴 관계’로 상징하여 글 전체의 개요를 문단을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다.⁵⁾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앞에서 제시된 평면적인 개요나 의미 위계만을 고려한 개요보다 한 단계 나아간 개요라고 할 수 있다.

5. 남은 문제

본고는 문단 중심의 모둠 글쓰기에 대한 이론 중심의 검토 및 고찰에 그쳤다. 향후 학교 현장에서 보다 면밀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문단 중심의 모둠 글쓰기가 기존의 모둠 글쓰기에 비해 어떤 점이 나은지, 아울러 어떤 면을 보완해야 할지를 현장 교육의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남겼다.

A Study on the Method of Cooperative Writing Focusing on Paragraph

Suh Jong Hoon

This paper argued the notion, range and educational way of cooperative writing focusing on paragraph. The existing cooperative writing has been mainstreamed one representative writing focusing on group or individual writing by dialogue or discussion. Especially it showed that paragraph was needed to participate individual and group all together in writing process with four reasons.

Also it classified cooperative writing with subsequent and divided writing focusing on paragraph. Subsequent writing of paragraph was fit for context. And it was proper in the middle and after of writing focusing on coherence. Sharing writing of paragraph was focused on outline. It was suitable in the before and after of writing focusing on cohesion. And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ed the more meaningful cooperative writing way in terms of coherence and hierarchy between paragraphs.

5) <그림 8>의 도식 양상은 가장 간략하게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접근할 수 있다. 주장글을 예로 든다면 서론에서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본론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고, 결론에서는 재차 주제를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ionship between Korean EFL Learners' Anxiety and Brain Dominance

Jong-Duk Ja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 lot of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learning style as well as student anxie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learning a second language. The present study aimed to direct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anxiety and brain dominance (learning style), with 184 EFL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left-brain dominant EFL students were more anxious in their English classes than right-brain dominant students. Regarding proficiency levels, beginners showed strong relationship ($r=.755$), and intermediate students showed moderate relationship ($r=.566$), whereas advanced students showed relatively weak, but still significant relationship ($r=.342$).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ore than 50% of the variance in the beginning students' anxiety is associated with their left- or right-brain dominance. Of the four factors of foreign language anxiety, the highest correlation was found in native speaker anxiety ($r=.566$), while the lowest correlation was found in low self-confidence ($r=.368$).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eft-brain dominant beginning ESL students are very anxious when speaking with native speaker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learning style, left- or right-brain dominance, foreign language anxiety, proficiency level

1. Introduction

Student anxiety in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class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learning English (Lightbown & Spada 2006). In general, anxiety has a curvilinear effect on performance: low levels help, whereas high levels hurt. Too much concern about failure can get in the way of success (Gass & Selinker, 2008). Much research exists investigating the sources of foreign language anxiety (Bailey et al. 1999; Daly 1991; Jang 2004; Young 1991). Identifying the sources may suggest the ways teachers can reduce their students' anxiety in learning a second language. One of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ource of student anxiety in ESL classes.

Most studies on foreign language anxiety have deal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anxiety and proficiency levels (Backman 1976; Chen & Chang 2004; Mills 2006; Onwuegbuzie, Bailey, & Daley 2000; Saito & Samimy 1996; Young 1986). In these

studies, low anxiety students demonstrated superior language proficiency to high anxiety students. Young (1986), for exampl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foreign language oral performance, and confirmed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tudent anxiety and proficiency level. However, significant correlation does not mean cause and effect (Borich 2011). With strong correlation between student anxiety and proficiency level in ESL classes, we cannot say that a student is poor at English because of high levels of anxiety. The student can be very anxious because of poor English.

Most studies investigating the sources of foreign language anxiety have considered personality as one of the sources (Bailey et al. 1999; Daly 1991; Young 1991). Daly (1991), for example, presented five explan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genetics (personality), bad communication skills, one's history of reinforcements and punishments, random and unpredictable patterns of rewards and punishments, and inadequate communication models. In addition, Young (1991) examined the sources of language anxiety from an in-depth review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She identified a number of sources of language anxiety and classified them into 5 categories with 22 sub-components: personal and interpersonal anxieties (personality), anxiety stemming from role-related beliefs about language teaching, anxiety stemming from instructor-learner interactions, anxiety stemming from classroom procedures, and anxiety stemming from aspects of language testing. The present study will also try to identify personality as one of the anxiety sources.

The term *learning style* is often used interchangeably with personality (Gass & Selinker 2008). According to Reid (1995), the term 'learning style' has been used to describe an individual's natural, habitual, and preferred way of absorbing, processing, and retaining new information and skills. Second language students' learning styles have much to do with success in their second language achievement (Castro & Peck, 2005), and the learning styles can even affect language learners' anxiety levels (Bailey & Daley, 1999). Brown (2008) suggested that individual learners were characterized with 5 learning style dimensions: (1) Field dependence vs. field independence, (2) Left- vs. right-brain dominance, (3) Ambiguity tolerance vs. ambiguity intolerance, (4) Reflectivity vs. Impulsivity, and (5) Visual vs. auditory vs. kinesthetic. The present study will focus on one domain of the 5 learning styles, left- or right-brain dominance, and will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language anxiety and brain dominance. As mentioned above, significant correlation does not mean causation. However, learning style belongs to cognitive factors while anxiety belongs to affective factors, although both of them belong to learner characteristics. Cognitive factors are less changeable than affective factors (Horwitz, 2008). With strong correlation, therefore, we can say that left-brain dominance causes high levels of anxiety. It cannot be said that high levels of anxiety cause left-brain dominance.

At present, "the only learning style that has been extensively investigated is the field independence/dependence (FI/D) distinction" (Lightbown & Spada, 2006, p.58). Many studies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D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howed evidence of a positive correlation (Gan, Humphreys & Hamp-Lyons, 2004; Hoffman, 1997; Macaro, 2006). Dornyei and Skehan (2003) suggested the following generalization, after reviewing and analyzing several studies related to FI/D contrast (Chapelle & Green, 1992; Ehrman, 1996; Griffiths & Sheen, 1992; Reid, 1995; Skehan, 1989, 1998): Coefficients obtained have usually indicated a low correlation between FI/D and language learning achievement, with a value of around .30 being typical. According to them, despite the claims that each different style has its advantages, th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re always in favor of the FI style. It is possible that grammar focus and traditional tests in language classes favor the abilities associated with FI learners. Horwitz (2008) says that "this finding has been frustrating to many language teachers who feel intuitively that the ability to discern interpersonal cues should be a great advantage in learning to communicate effectively in a second language" (p.13). The present study will reveal some advantages associated with FD learners, hypothesizing that FI learners are more anxious than FD learners. It should be noticed that Jang (2011) found that all of the FI students in his study were left-brain dominant, while FD students were right-brain dominant.

Horwitz et al. (1986) described three components of foreign language anxiety: communication apprehension, test anxiety,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Further, Ando (1999) conducted Factor analyses and identified 4 major factors of foreign language anxiety: speaking anxiety, low self-confidence about foreign language ability, test anxiety, and native speaker anxiety. The present study will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anxiety and left- or right-brain dominance in terms of the above 4 factors in addition to overall anxiety. It is difficult to find a study directl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research question addressed in the present study is: Is there a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anxiety and brain dominance?

2. Method

2.1 Participants

Surveys were conducted with 184 EFL students (80 males and 104 females) enrolled in the English language institute at a university in Korea, during spring semester, 2013. The English conversation course was composed of 8 proficiency levels. Level 1 students were excluded from the survey because some bilingual teachers whose mother tongue was Korean taught the students. All other level students were taught by native speakers of English. Level 2 and 3 were classified into beginner students, level 4 and 5 were classified into intermediate students, and level 6, 7 and 8 were classified into advanced students.

2.2 Instruments

Both the scales of brain dominance and those of foreign language anxiety needed to be measur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of the present study. In the case of brain dominance, a formal test devised by Brown (2002) measuring left- or right-brain dominance is selected (See Appendix A). A high score on this instrument means right-brain dominance and a low score indicates left-brain dominance. It consists of 8 items, each answered on a 4-point Likert-scale. The resulting range of left/right brain dominance is from 8 to 32. According to Brown (2007), the scores between 28 and 32 indicate high right-brain preference, the scores between 23 and 27 indicate moderate right-brain preference, the scores between 18 and 22 indicate no particular preference for either side, the scores between 13 and 17 indicate moderate left-brain preference, and the scores between 8 and 12 indicate high left-brain preference.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 4-point scale questionnaire was changed to 5-point scale questionnaire, in order to match the anxiety questionnaire.

The short form of the RELAXT (Reconstructed Language Anxiety Test) from Ando (1999) was used to measure student anxiety (See Appendix B). It consists of 24 items, each of which is answered on a 5-point Likert scale. There are four factors in this instrument, and each factor includes 6 items. In detail, items 1, 5, 9, 13, 17, and 21 belong to the factor *speaking anxiety*. Items 2, 6, 10, 14, 18, and 22 belong to the factor *low self-confidence on English ability*. Items 3, 7, 11, 15, 19, and 23 belong to the factor *native speaker anxiety*. Finally, items 4, 8, 12, 16, 20, and 24 belong to the factor *English test anxiety*. The four factors are considered separately in analysis, in addition to the total overall score that represents each student's individual anxiety score. In order to score the anxiety level, a student's response of *strongly disagree* was coded as a numerical value of one, *disagree* was two, *neither agree nor disagree* was three, *agree* was four, and *strongly agree* was five. For each student, the resulting sum of the 24 items was coded as his or her anxiety score. Thirteen items (items 2, 6, 7, 10, 12, 13, 14, 16, 17, 18, 19, 22, and 23) were negatively worded, and therefore the responses were reversed and recoded, so that a high score reflected high anxiety. The resulting range of this anxiety was from 24 to 120.

2.3 Data collection and analyses

Surveys measuring left/right brain dominance and measuring student anxiety had been conducted for two weeks (the first and second weeks of May, 2013). With the director's permission and the teachers' help, the researcher gave detail explanations to the students in their regular classes. The students needed to rate each statement by marking one of the numbers on the Likert-scale. The subjects were 201 students enrolled in the English classes, but 11 students were absent from the class and 6 students returned their questionnaires answered incompletely.

The scores from the surveys were computed to answer the before-mentioned

research question. As mentioned above, the four factors of student anxiety were analyzed separately in addition to the overall anxiety. As a result, the research hypotheses (RH)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 RH 1.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brain dominance and speaking anxiety.
- RH 2.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brain dominance and low self-confidence on English ability.
- RH 3.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brain dominance and native speaker anxiety.
- RH 4.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brain dominance and English test anxiety.
- RH 5.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brain dominance and overall anxiety.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 above hypotheses were also examined by three proficiency levels, beginner, intermediate and advanced, and therefore total 20 hypotheses were examin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All of the research hypotheses were tested by computing correlation coefficient (Pearson r)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01, using SPSS 12.

3. Results and Discussion

3.1 Research Hypothesis 1

The first research hypothesis is concerned with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brain dominance and speaking anxiety. Table 1 and 2 show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brain dominance and speaking anxiety, respectively.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Left/Right-brain Dominance

	N	lowest	highest	mean	SD
beginner	63	9	32	22.76	6.27
intermediate	61	9	32	22.49	6.25
advanced	60	9	31	22.98	4.38
total	184	9	32	22.74	5.69

According to the above table, the means indicate no particular preference for either left-brain dominance or right-brain dominance (the mean score of 24 exactly indicates no preference), irrespective of proficiency levels. Statistically, the mean difference between advanced and intermediate students ($22.98 - 22.49 = 0.49$) is not significant, $t = -.500$, $p = .618$. This result provides evidence that left- or right-brain dominance as a

learning style is stable or less changeable than anxiety.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Speaking Anxiety

	N	lowest	highest	mean	SD
beginner	63	8	24	16.73	5.22
intermediate	61	7	24	15.27	4.76
advanced	60	8	25	14.17	5.67
total	184	7	25	15.41	5.31

As seen in the above table, in the case of speaking anxiety, the means are sure to be different among the three proficiency levels. Statistically, the mean score of beginner students (16.73)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advanced students (14.17), $t = 2.610$, $p = .01$. This result provides evidence that higher levels of proficiency correspond to lower levels of speaking anxiet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to examine whether there were relationships between the brain dominance scores and speaking anxiety scores. Table 3 shows the results.

Table 3. Pearson r between Brain Dominance and Speaking Anxiety

	N	r	p	r^2
beginner	63	-.678 (high-moderate)	.000	.46
intermediate	61	-.487 (moderate)	.000	.24
advanced	60	-.274 (not significant)	.034	
total	184	-.482 (moderate)	.000	.23

* r^2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ith regard to each of the three proficiency levels, Pearson's r was separately calculated to examine each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As seen in the above table, there is a relatively strong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the case of beginner students. In general, a correlation coefficient higher than .7 is considered to be a strong or high correlation. This result indicates that beginning ESL students who are left-brain dominant tend to be very anxious when speaking English in their English classes, while right-brain dominant students are not.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as also calculated by squaring Pearson's r ($r^2 = .46$). This value is the proportion of variance in the beginning students' speaking anxiety scores that can be explained by their left- or right-brain dominance scores, and vice versa. Thus, it is concluded that approximately 46% of the variance in the beginning students' speaking anxiety is associated with their left- or right-brain dominance. With respect to the advanced students, on the other h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weak and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r = -.274$, $p > .01$).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ven left-brain dominant beginning students become less anxious as their proficiency levels increase.

3.2 Research Hypothesis 2

The second research hypothesis considers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FL students' left- or right-brain dominance and low self-confidence on English ability. Table 4 show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low self-confidence on English ability.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Low Self-confidence on English Ability

	N	lowest	highest	mean	SD
beginner	63	10	23	18.11	2.91
intermediate	61	10	23	17.84	2.79
advanced	60	10	23	15.55	3.95
total	184	10	23	17.18	3.43

As seen in Table 4, the anxiety level decreases as the proficiency level goes up. Statistically, the mean score of beginner students (18.11)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advanced students (15.55), $t = 4.103$, $p = .000$.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to examine whether there were relationships between the brain dominance scores (See Table 1) and low self-confidence scores. Table 5 shows the results.

Table 5. Pearson r between Brain Dominance and Low Self-confidence

	N	r	p	r^2
beginner	63	-.575 (moderate)	.000	.33
intermediate	61	-.369 (moderate)	.003	.14
advanced	60	-.241 (not significant)	.064	
total	184	-.368 (moderate)	.000	.14

* r^2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ith regard to each of the three proficiency levels, Pearson's r was separately calculated to examine each relationship between brain dominance and low self-confidence on English ability. As seen in Table 5, there are moderat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the case of beginner and intermediate students. In general, a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7 and .3 is considered to be a moderate correlation. This finding indicates that a majority of beginning and intermediate ESL students who are left-brain dominant tend to be anxious about their English abilities, while right-brain dominant students are not. On the other hand, the advanced ESL students do not show any significant correlation coefficient ($r = -.241$, $p = .064$). These results indicate that not only right-brain dominant students but also left-brain dominant students are not anxious about their English abilities if they become highly proficient at English.

3.3 Research Hypothesis 3

The third research hypothesis is concerned with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FL students' brain dominance and their native speaker anxiety. Table 6 show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native speaker anxiety.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Native Speaker Anxiety

	N	lowest	highest	mean	SD
beginner	63	8	25	17.95	4.83
intermediate	61	8	25	16.49	4.32
advanced	60	7	25	15.72	4.59
total	184	7	25	16.74	4.66

Table 6 shows that the means are different among the three proficiency levels. Statistically, the mean score of beginner students (17.95)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advanced students (15.72), $t = 2.629$, $p = .01$. This result provides evidence that native speaker anxiety decreases as proficiency level increase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to examine whether there were relationships between the brain dominance scores and native speaker anxiety scores. Table 7 shows the results.

Table 7. Pearson r between Brain Dominance and Native Speaker Anxiety

	N	r	p	r^2
beginner	63	-.693 (high-moderate)	.000	.48
intermediate	61	-.584 (moderate)	.000	.34
advanced	60	-.409 (moderate)	.001	.17
total	184	-.566 (moderate)	.000	.32

* r^2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ith regard to each of the three proficiency levels, Pearson's r was separately calculated to examine each relationship between brain dominance and native speaker anxiety. As seen in Table 7, there is a high-moderat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the case of beginner students. This result indicates that a majority of beginning EFL students who are left-brain dominant tend to be very anxious when speaking English with native speakers, while right-brain dominant students are not.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as also calculated by squaring Pearson's r ($r^2 = .48$). Thus, it is concluded that approximately 48% of the variance in the beginning students' native speaker anxiety is associated with their left- or right-brain dominance. With respect to the intermediate and advanced students,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are still moderate although the r value decreases as the proficiency level increas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 majority of EFL students who are left-brain dominant tend to feel anxious when speaking with native speakers in English, irrespective of proficiency levels.

3.4 Research Hypothesis 4

The fourth research hypothesis considers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FL students' left- or right-brain dominance and their English test anxiety. Table 8 show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English test anxiety.

Table 8. Descriptive Statistics: English Test Anxiety

	N	lowest	highest	mean	SD
beginner	63	10	24	17.05	4.34
intermediate	61	9	25	16.80	4.20
advanced	60	9	24	14.77	4.71
total	184	9	25	16.22	4.51

As seen in Table 8, English test anxiety decreases as proficiency level goes up. Statistically, the mean score of beginner students (17.05)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advanced students (14.77), $t = 2.796$, $p = .006$.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to examine whether there were relationships between the brain dominance scores (See Table 1) and native speaker anxiety scores. Table 9 shows the results.

Table 9. Pearson r between Brain Dominance and English Test Anxiety

	N	r	p	r^2
beginner	63	-.695 (high-moderate)	.000	.48
intermediate	61	-.493 (moderate)	.000	.24
advanced	60	-.295 (not significant)	.022	
total	184	-.498 (moderate)	.000	.25

* r^2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ith regard to each of the three proficiency levels, Person's r was separately calculated to examine each relationship between brain dominance and English test anxiety. As seen in Table 9, there are high-moderate and moderat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the case of beginner and intermediate students. This finding indicates that beginning and intermediate EFL students who are left-brain dominant tend to get annoyed by their uncomfortable feelings during English tests, while right-brain dominant students do not. On the other hand, the advanced EFL students do not show any significant correlation coefficient ($r = -.295$, $p = .022$). These results indicate that not only right-brain dominant students but also left-brain dominant students are not anxious about their English tests when they become highly proficient in English.

3.5 Research Hypothesis 5

The final research hypothesis considers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FL students' brain dominance and their overall anxiety. Table 10 show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overall anxiety.

Table 10. Descriptive Statistics: Overall Anxiety

	N	lowest	highest	mean	SD
beginner	63	42	93	69.84	15.33
intermediate	61	42	93	66.41	14.04
advanced	60	39	92	60.20	16.90
total	184	39	93	65.56	15.88

A majority of students reported moderately low levels of overall anxiety ($n = 184$, $M = 65.56$, $SD = 15.88$). When a student neither disagreed nor agreed with all of the 24 items, he or she received a score of 72. In addition, as seen in the above table, overall anxiety decreases as proficiency level increases. Statistically, the mean score of beginner students (69.84)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advanced students (60.20), $t = 3.317$, $p = .001$.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to examine whether there were relationships between the brain dominance scores (See Table 1) and overall anxiety scores. Table 11 shows the results.

Table 11. Pearson r between Brain Dominance and Overall Anxiety

	N	r	p	r^2
beginner	63	-.755 (strong)	.000	.57
intermediate	61	-.566 (moderate)	.000	.32
advanced	60	-.342 (moderate)	.008	.12
total	184	-.548 (moderate)	.000	.30

* r^2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ith regard to each of the three proficiency levels, Pearson's r was separately calculated to examine each relationship between brain dominance and overall anxiety. As seen in Table 11, there is a strong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the case of beginner students. This result indicates that beginning EFL students who are left-brain dominant tend to be very anxious, in general, while right-brain dominant students do not.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as also calculated by squaring Pearson's r ($r^2 = .57$). Thus, it is concluded that approximately 57% of the variance in the beginning students' overall anxiety is associated with their left- or right-brain dominance. With respect to the advanced students, on the other h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relatively weak but still moderate. As a result, even advanced students make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left- or right-brain dominance and overall anxiet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 majority of left-brain dominant EFL students do not feel comfortable when using English.

4.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ft- or right-brain dominance and foreign language anxiety with regard to EFL students. Here, foreign language anxiety was analyzed by four factors and overall anxiety, respectively. Generally, the data from the present study provided evidence tha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brain dominance, $r = .548$, $p = .000$. With the moderate relationship, it is concluded that more than 30% ($r^2 = .3003$) of the variance in EFL students' anxiety is associated with their left- or right-brain dominance. Of the four factors, native speaker anxiety showed the stronges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r = .566$, $p = .000$. These results provided evidence that left-brain dominant EFL students tend to be more anxious in their English classes than right-brain dominant students.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considering three proficiency levels, beginner, intermediate and advanced. Of the three groups, the strongest relationship was found in the case of beginning EFL students ($r = -.755$, $p = .000$), which means that more than 50% ($r^2 = .57$) of the variance in beginning students' anxiety is associated with their left- or right-brain dominance. This result indicates that beginners' brain dominance is critical for their levels of foreign language anxiety. Left-brain dominant beginners are more anxious in English classes than right-brain dominant beginners. A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find a source of foreign language anxiety. In general, correlation does not mean cause and effect. However, th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indicates that left-brain dominance causes high levels of anxiety, especially in regard to beginning EFL students.

References

- Ando, M. 1999. *Distinctive Language Anxiety Factors among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UNY at Buffalo.
- Backman, N. 1976. "Two Measures of Affective Factors as They Relate to Progress in Adult Second Language Learning", *Working Papers in Bilingualism* 10, 100-122.
- Bailey, P., A. Onwuegbuzie & C. Daley. 1999. "Foreign Language Anxiety and Learning Style", *Foreign Language Annals* 32 (1), 63-76.
- Borich, G. 2011. *Fundamentals of Statistical Inference*, NY: Linus.
- Brown, D. 2002. *Strategies for Success: A Practical Guide to Learning English*, NY: Pearson Education.
- Brown, D. 2007. *Teaching by Principles*, NY: Pearson Education.
- Brown, D. 2008.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Y: Pearson Education.
- Castro, O. & V. Peck. 2005. "Learning Styles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Difficulties", *Foreign Language Annals* 38 (3), 401-409.

- Chapelle, C. & P. Green. 1992. "Field independence/dependen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Language Learning* 42, 47-83.
- Chen, T. & G. Chang. 2004. "The Relation between Foreign Language Anxiety and Learning Difficulties", *Foreign Language Annals* 37, 279-289.
- Daly, J. 1991. "Understanding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 Introduction for Language Educators", In Horwitz, E. & D. Young (eds), *Language Anxiety*, 211-263, NJ: Prentice hall.
- Dornyei, Z. & P. Skehan.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In Doughty, C. & M. Long (eds), *The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589-630, MA: Blackwell.
- Ehrman, M. E. 1996.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Difficulties*. CA: Sage.
- Gan, Z., G. Humphreys & L. Hamp-Lyons. 2004. "Understanding Successful and Unsuccessful EFL Students in Chinese Universities", *Modern Language Journal* 88 (2), 229-244.
- Gass, S. & L. Selinker. 2008.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 Introductory Course* NY: Routledge.
- Griffiths, R. & R. Sheen. 1992. "Disembedded figures in the landscape: a reappraisal of L2 research on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Applied Linguistics*, 13, 133-48.
- Horwitz, E. 2008. *Becoming a Language Teacher: A Practical Guide to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MA: Pearson.
- Hoffman, S. 1997.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Implications for Educators and Instructional Designers", *Foreign Language Annals* 30 (2), 222-234.
- Jang, J. 2004. "An Experimental Study: Recasts to Alleviate Learner Anxiety",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29, 267-288.
- Jang, J. 2011.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s and Reading Abilities",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58, 191-210.
- Lightbown, P. & N. Spada. 2006. *How Languages Are Learn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caro, E. 2006. "Strategies for Language Learning and for Language Use: Revis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Modern Language Journal* 90 (3), 320-337.
- Mills, N. 2006. "A Reevaluation of the Role of Anxiety: Self-Efficacy, Anxiety, and Their Relation to Reading and Listening Proficiency", *Foreign Language Annals* 39, 257-273.
- Onwuegbuzie, A., P. Bailey & C. Daley. 2000. "Cognitive, Affective, Personality, and Demographic Predictors of Foreign Language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4, 3-15.
- Reid, J. M. 1995. *Learning Styles in the ESL/EFL Classroom* MA: Heinle and Heinle.
- Saito, Y. & K. Samimy. 1996. "Foreign Language Anxiety and Language Performance", *Foreign Language Annals* 29, 239-252.
- Skehan, P. 1989.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London: Edward Arnold.

- Skehan, P. 1998. *A Cognitive Approach to Language Lear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Young, D.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Foreign Language Oral Proficiency Ratings", *Foreign Language Annals* 19, 439-448.
- Young, D. 1991. "Creating a Low-Anxiety Classroom Environment: What Does the Language Anxiety Research Suggest", *Modern Language Journal* 75, 426-437.

Appendix A. The Short Form of RELAXT

1. I get nervous and confused when I am speaking in my English class.
2. I think that I have a reasonably high ability in learning English.
3. Speaking English with native speakers would make me feel tense.
4. Thoughts of doing poorly interfere with my performance on English tests.
5. I feel uneasy when I'm going to be called on in English class.
6. I am better at English than many of my classmates.
7. I would probably feel comfortable speaking with native speakers in English.
8. Nervousness while taking an English test hinders me from doing well.
9. I may have a tendency to avoid speaking English in my class.
10. I think my English class will improve my GPA or keep it where it is now.
11. If I had to talk with native speakers in English, I would get apprehensive.
12. I don't usually get annoyed by my uncomfortable feeling during English tests.
13. I don't mind being called on in my English class.
14. I understand English grammar reasonably well.
15. I fear that actual communication with native speakers in English would involve a lot of confusion I cannot handle.
16. When taking an English test, my emotional feelings do not interfere with my performance.
17. It does not bother me at all to speak English in front of the class.
18. I can grasp what is in my English textbook fairly quickly.
19. I would be relaxed if I were to talk with native speakers in English.
20. During English tests, I can get so nervous that I forgot things I know.
21. I get apprehensive when I know I am going to be called on in English class.
22. I think that I am a fairly successful learner of English.
23. I have no particular fear of speaking English with native speakers.
24. I sometimes do less well than I can really do on English tests because of my anxiety.

Appendix B. Left/right-brain Dominance Questionnaire

Circle the number that best describes you. Circle only one number for each item.
Use the following scale:

1. The sentence on the left describes you well.
2. The sentence on the left somewhat describes you.
3. The sentence on the right somewhat describes you.
4. The sentence on the right describes you well.

1. I try to make decisions based on facts.	1	2	3	4	I make decisions based on my feelings.
2. I like rules and exact information.	1	2	3	4	I like general guidelines and uncertain information.
3. I like to solve a problem by looking at all its parts.	1	2	3	4	I like to solve a problem by first looking at the whole problem.
4. I read slowly and try to analyze what I am reading.	1	2	3	4	I read fast and try to get the carefully general meaning of what I am reading.
5. I like teachers to tell me exactly what to do.	1	2	3	4	I like teachers to give me a lot of freedom to choose what I can do.
6. I like mathematics and science.	1	2	3	4	I like literature and art.
7. When I listen, I pay attention to people's exact words.	1	2	3	4	When I listen, I pay attention to the overall message.
8. I like multiple-choice tests.	1	2	3	4	I like open-ended essay tests.

외국어 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활용 연구

김 태 진* · 이 희 숙**

(배재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교)

I.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외국어 교육의 목적은 언어의 4가지 기능¹⁾을 학습자가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있다. 학습자들이 이 4가지 기능을 갖추었을 때 언어를 습득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지도하는 교육자들은 어떻게 하면 언어의 4가지 기능을 학습자에게 잘 습득시킬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 설계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위한 다양한 교수법과 학습도구 사용에 대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즉,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에 적응해온 학습자들에게 어울리면서도 효과적인 학습 도구에 대한 개발이나 발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학습능력 향상과 수업에 대한 태도와 흥미를 미약하게나마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 도구의 발견과 개발 및 활용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교재의 연습문제 학습보다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학습 도구가 학습자들에게 언어의 4가지 기능을 습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습문제를 교수자는 손쉽게 제작할 수 있고, 학습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 도구 가운데 구글 드라이브와 핫 포테이토스와 같이 다양한 연습문제를 제작할 수 있고, 이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들에게 학습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흥미를 조금이나마 유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어 교과의 교수 목표나 방법은 결국 학습자의 형성평가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형성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학습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도구의 발견이나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은 인문학을 하는 우리 교수자들이 직접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개발되어진 학습도구를 발견하고, 그 도구를 활용해 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어를 교육하는 교수자에게는 손쉽게 연습문제를 제작할 수 있게 해주고, 학습자들에게는 전통적인 교재위주의 연습문제보다 보다 흥미롭게 접근하여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문제를 제공할 수 있는 학습 도구를 소개하고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 주저자: 배재대학교 기초교양교육부 부교수

** 교신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러시아어과 교수

1) 언어의 4가지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학습자에게 개발시켜 외국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목적이다(교육부, 1995).

이러한 학습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던 교수자들에게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본론

1. 외국어 교육과 연습문제

외국어 학습이 일반학습보다는 기능 또는 능력학습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연습문제의 활용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습 없이는 효과적인 학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외국어에 대한 연습과 실습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래서 외국어 학습에 있어 연습문제의 개발과 활용은 학습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송정희(1986: 49~69)는 연습 문제를 동반하지 않는 외국어교재는 거의 없으며, 어떤 언어이론을 근거로 제작하던 언어습득을 위한 교재들은 특히 문법규칙이나 구조를 익히기 위한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전통적인 교재 방식의 연습문제 풀이는 일회성이 강해 학습자들에게 다양성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학습에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차피 학습자 입장에서 연습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다양한 유형의 연습문제가 학생들의 흥미를 조금이나마 끌어올릴 수 있고, 연습문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결여된 교재의 연습문제보다는 웹상이나 스마트기기에서 평가도 받고, 외국어 연습도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학습 환경과 다양한 연습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본다.

2.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도구이자 파일저장 및 공유 서비스이다.²⁾ 구글 문서도구(Google Docs)의 최신 이름이기도 하며,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연습문제를 제작할 수 있고, 학습자들이 푼 연습문제의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와 양식 기능에 주목을 하고자 하고, 이들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언급하기로 하겠다.

2.1. 교육적 활용

1) 구글 드라이브 양식 기능

양식기능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일부 연습문제의 유형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식기능은 설문의 목적으로 개발되어 자주 사용했었는데, 질문 유형 가운데 일부 유형들이 학습자를 위한 연습문제 제작에도 적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수자들에게 연습문제 제작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 질문의 유형은 모두 9개로 구성되어 있고, 9가지 질문 유형 가운데 연습문제를 만들 수 있는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텍스트와 단락 텍스트로 주관식 연습문제들을 제작할 수 있다. 금종해, 이만근(1995: 189)은 주관식

2) 위키 백과(<http://ko.wikipedia.org> 검색일: 2014.0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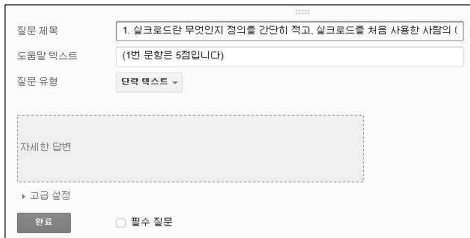


<그림 1> 양식의 질문유형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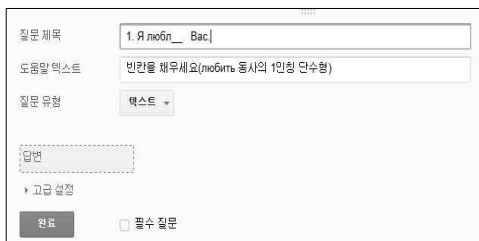
는 화면과 제작된 결과 화면이다. 결과 화면은 컴퓨터나 스마트기기에서 보이는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평가는 교과학습을 통하여 길러진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박희정, 강원석(2003: 208-210)은 주관식 문항이 분석력과 종합력의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을 측정할 수 있고, 학습자는 다른 어떤 형태의 시험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관식 문항들이 교육적 가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또한 방법에 따라서 빈칸 넣기 문항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문법 능력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아래 그림 3은 양식기능을 이용해 주관식 문항과 빈칸 넣기 문항을 제작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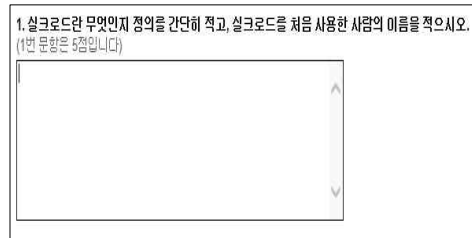
(주관식 문항 제작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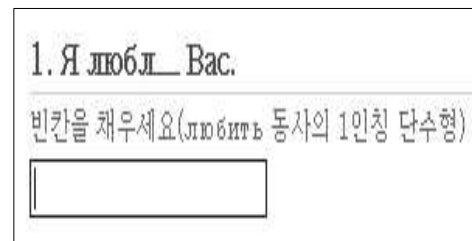
(빈칸 넣기 문항 제작 화면)



(결과 화면)



(결과 화면)



<그림 3> 단락텍스트와 텍스트 기능을 이용한 주관식 문항(위)과 빈칸 넣기 문항(아래) 제작과 결과 화면

최재철(2000: 550-551)은 빈칸 메우기 평가가 교수자 입장에서는 준비하기 용이하고, 점수화하기 쉬워 주로 애용되는 평가 방법이며, 학습자 측면에서는 문맥과 문장의 여러 요소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능력을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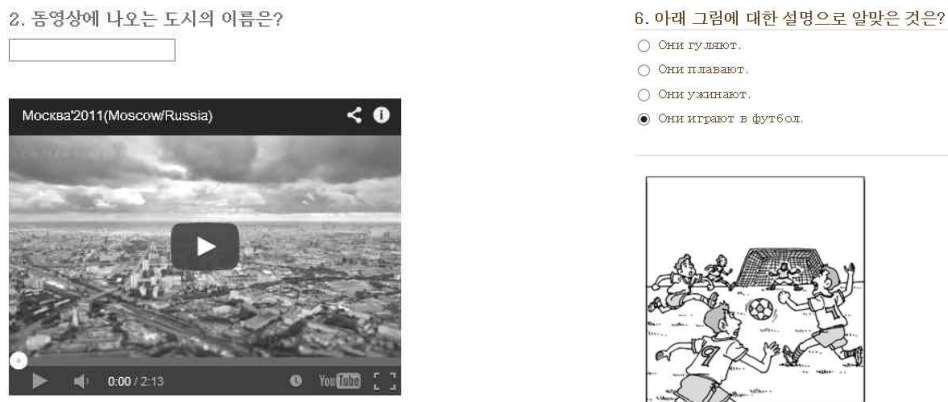
주관식 문항과 빈칸 넣기 문항을 제외하고 객관식 문항도 손쉽게 제작 할 수 있다. 객관식 문항 평가가 채점 결과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항 제작의 어려움과 학습자의 오류를 검증하기 쉽지 않고, 상황을 통한 사고력을 요구하기 보다는 추측하여 답을 선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외국어 및 제2외국어 과목의 문제들이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박정은(2002: 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다형 시험을 친 학습자들이 독해에서 반복해서 읽기, 의역하기, 배경 지식 이용

하기 등의 전략들을 더 자주 사용하여 문제를 풀었다고 언급하고 있듯이 객관식 문항들에 대해 위에 열거한 단점만을 고려해 우려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림 4> 객관식 문항 제작과 결과 화면

일반적인 텍스트 위주의 연습문제 제작뿐 아니라 동영상과 이미지를 삽입한 문항도 제작할 수 있어 교수자의 의도에 따라 효율적인 문항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영상과 이미지 같은 보조 자료는 요즘 학습자들에게 자기 표현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위해 필수적인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 학습자들이 관심을 갖는 자료들을 활용한 수업이나 평가는 보다 능률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림 5> 동영상과 삽화를 활용한 문항제작 결과 화면

이와 같이 구글 드라이브의 양식기능을 통해 전통적인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연습문제들을 제작할 수 있고, 학습자들은 자신의 스마트기기를 만져가며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유가 있어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수업에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하다.

2) 스프레드시트 기능

학교 수업과정에서 수업의 설계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마지막에 놓여있는 것이 형성평가단계이다. 이 형성평가단계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정도와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박인학(2005: 94)은 평가의 목적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판정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와 동시에 수업과정의 질적인 관리를 통제하는데 투입될 자료

를 얻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형성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습자들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스프레드시트가 이러한 결과를 얻고, 분석하는 기능을 한다. 형성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형성평가는 의미가 없듯이 학습자의 피드백을 위해서도 이 기능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fx	1.	A	B	C	D	E	F
1	타임스탬프	성명:	학번:	1. Я любл_ Вас.	2. 동영상에 나오는 도시의 이름은?	3. читать의 완료형을 적으시오.	
2	2014. 6. 12 오후 5:39:51	김	8101536	ю	Москва	Прочитать	
3	2014. 6. 12 오후 5:39:55	최	9103482	ю	Москва	прочитать	
4	2014. 6. 12 오후 5:41:18	송	10102781	люблю	Москва	прочитать	
5	2014. 6. 12 오후 5:42:16	김	10102766	ю	Москва	прочитать	
6	2014. 6. 13 오전 9:27:23	김	10102675	ю	Москва	Прочитать	

<그림 6> 평가 결과를 스프레드시트로 얻은 화면

스프레드시트로 얻은 결과를 ‘응답요약’메뉴를 통해 각 문항별로 특정 분석이 가능하다. 정답률이나 오답률 또는 정답의 단어 빈도수까지 측정을 할 수 있어 교수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수업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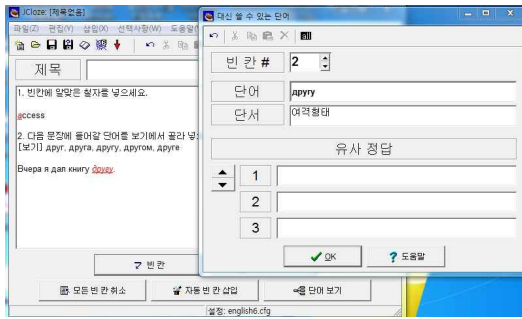
3. 외국어 학습과 형성 평가를 위한 핫 포테이토스 프로그램³⁾

멀티미디어 학습 환경과 외국어 교육과 학습에 있어 연습문제의 중요성을 앞에서 지적했듯이 다양한 연습문제의 개발과 활용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핫 포테이토스 프로그램은 문법 구문 연습과 의사소통 활동을 위한 연습문제들을 상황에 맞게 쉽게 제작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도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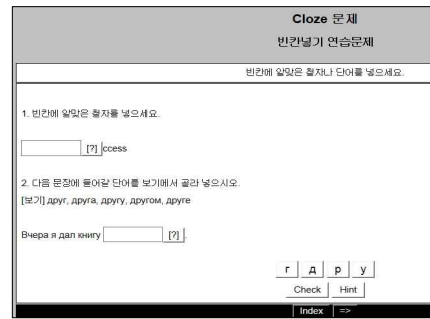
구글 드라이브의 양식기능을 이용해 제작할 수 있는 연습문제 유형에 다소 한계가 있다. 즉 단답형 및 서술형 주관식과 텍스트 위주의 객관식문제, 동영상과 사진이 들어간 주, 객관식 문제위주로 제작이 가능하다면, 핫 포테이토스는 그 이상의 유형을 제작할 수 있다. 앞서 열거한 문제 유형뿐만 아니라 크로스워드, 매치와 믹스형 문제들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래서 핫 포테이토스 프로그램은 총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JCloze 모듈은 빈칸 넣는 연습문제를 제작할 수 있는 모듈로 두 가지 유형을 제작할 수 있다. 글상자에 답을 직접 입력하는 단순 빈칸 넣기와 보기에서 답을 고를 수 있는 필침형 문제가 있다. JCloze는 학습자의 문법 능력을 파악하는데 좋은 유형이다.

3)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는 공식적으로 <http://web.uvic.ca/hrd/jotpot> 이며, 국내 일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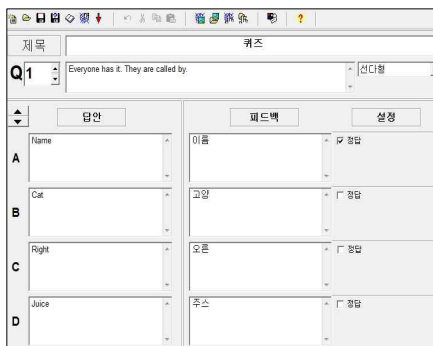


JCloze 모듈 문제 제작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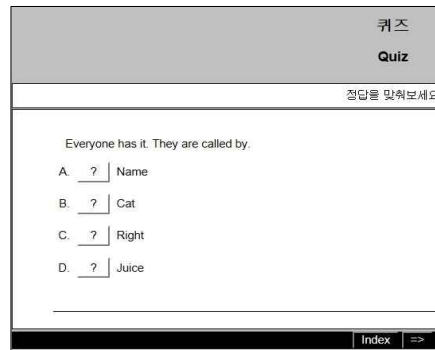


제작 결과

JQuiz 모듈은 다양한 유형의 퀴즈문제를 제작할 수 있다. 선택지의 수를 무한대로 지원할 해주어 획일적이지 않는 퀴즈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는 최선 답형,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는 정답형, 여러 개의 정답을 고르는 다답형, 일부에 정답을 제시해 주고 나머지는 학습자가 풀게 하는 미완성 예제형과 주관식 등 총 5가지 유형의 퀴즈 문제를 제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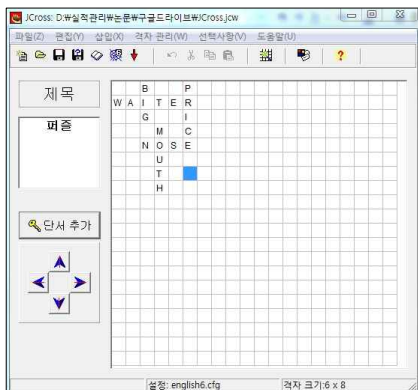


Quiz 모듈 문제 제작 화면



제작 결과

JCross 모듈은 소위 퍼즐을 맞추는 문제들을 제작할 수 있다. 크로스워드 퍼즐은 대부분 풀어 본적 있고, 낯설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학습에 적용하면 어느 정도의 흥미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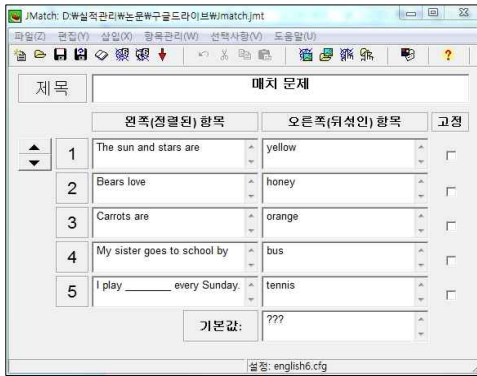


JCross 모듈 문제 제작 화면



제작 결과

JMatch 모듈은 화면상에서 문항과 정답을 연결해주는 유형의 문제를 제작할 수 있는 모듈이다. 화면에서 정답에 해당하는 문장을 고른 다음에 마우스로 drag해 해당 문장에 연결시켜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게임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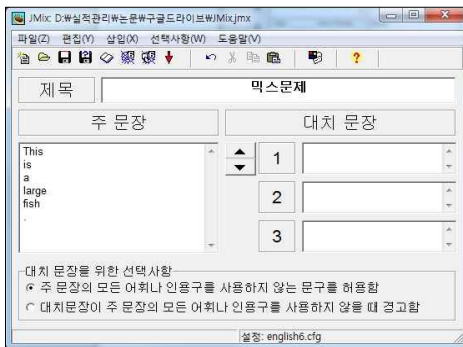


JMatch 모듈 문제 제작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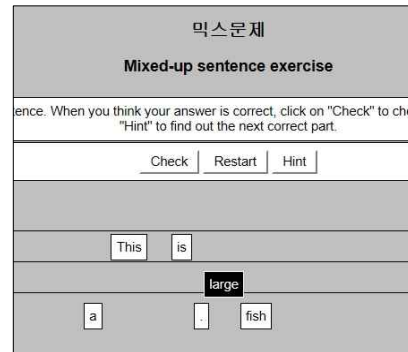


제작 결과

마지막으로 JMix 모듈은 어순을 학습시키는데 유용한 모듈이다. 표준 어순으로만 학습시키는 것이 비효율적인 어순이 자유로운 일부 외국어를 위해 아주 유용한 모듈이라 할 수 있다. 화면에 구두점을 포함한 문장을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가 비순차적으로 배열되어지며, 학습자는 마우스로 마침표 하나까지 드레그해 어순을 배열 할 수 있다.



JMix 모듈 문제 제작 화면



제작 결과

4. 학생 실태 조사 결과

구글 드라이브와 핫 포테이토스로 제작한 연습문제를 웹이나 스마트기기에서 풀어 본 학생들이 느낀 점을 조사했다. 본 연구를 위한 학생 실태 조사는 2013년 12월과 2014년 6월에 실시하였으며, 구글 드라이브와 핫 포테이토스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일부 문제들을 대구가톨릭대학교(대가대) 학생과 배재대학교 학생에게 제공해 온라인상이나 스마트기기에서 풀게 하고 그 반응을 조사했다. 대가대 학생은 전공학생 위주로 실시했으며, 배재대 학생은 교양학생⁴⁾이 설문에 참여했다. 교양학생에게 실시한 설문은 외국어 과목이 아니

4) '신 실�크로드의 사회와 문화' 과목 수강생 30명 중 27명, '현대러시아의 이해' 과목 수강생 61명 중 54명, 두 과

고 순수 교양과목이라는 것을 밝힌다. 3가지 항목으로 실시했으며 각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기기에서 구글 드라이브와 핫 포테이토스를 이용한 문제풀기 방식은 어땠습니까?
2. 평소 문제 풀기 방식의 수업 방식보다 어땠나요?
3. 수업 중에 구글 드라이브와 핫 포테이토스를 이용한 문제풀기를 적용하면 어땠습니까?

모든 항목은 객관식으로 진행했고, 답변유형은 발표문 마지막 설문 조사 결과에 제시된 유형과 같다. 학생들에게 제시된 핫 포테이토스로 제작한 문항은 모든 모듈에서 제작한 문항이 아니라 단지 일부 JCross 모듈만으로 제작한 퍼즐만을 제공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핫 포테이토스 프로그램 전체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설문 결과를 보면 구글 드라이브와 핫 포테이토스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연습문제를 웹상이나 스마트 기기에서 풀었을 때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학생과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설문결과를 비교해 보면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반응이 좀 더 좋았다. '매우 좋았다'의 비율이 전공학생보다 교양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도 교양학생의 비율이 낮게 나왔다. 설문조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설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설문의 결과로 보아 최소 과반 수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만족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만족을 시켜줄 수는 없겠지만 수업에서 충분히 활용해 볼만 하다.

Ⅲ. 결론

본고에서 논의된 구글 드라이브와 핫 포테이토스 프로그램은 외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다양한 유형의 연습문제를 제작 할 수 있게 해주고, 각 도구별로 기능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멀티미디어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어 인터넷이 가능한 디바이스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교수자가 제공한 연습문제들을 풀 수 있다. 다만 구글 드라이브는 온라인상에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핫 포테이토스 프로그램의 경우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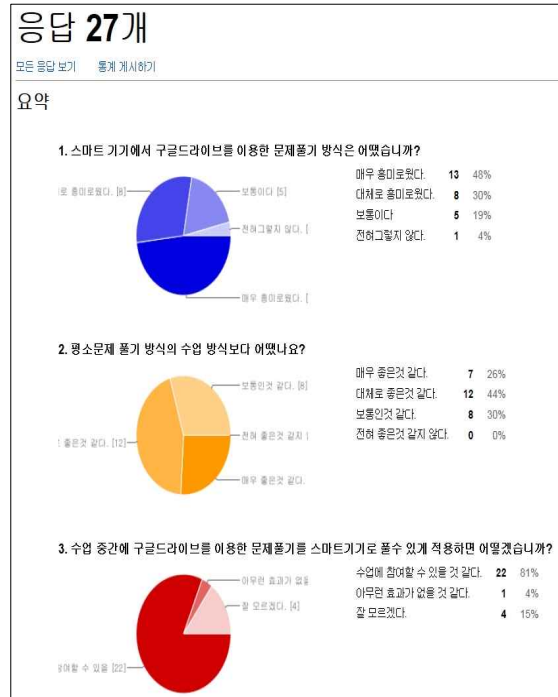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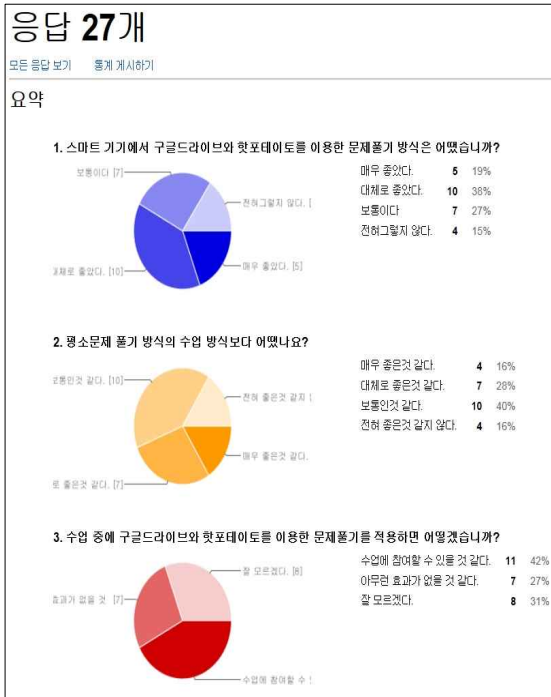
교수자는 연습문제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형성평가의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하기 때문에 연습문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교수자들은 연습문제를 교재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지만 교수자가 꼭 원하는 연습문제를 전통적인 교재나 전문 교재에서 찾기도 쉽지만은 않다. 운 좋게 찾더라도 양적 혹은 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다보니 학습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연습문제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교수자가 필요한 연습문제를 직접 제작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사실상 연습문제를 제작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생긴다. 학습과정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어울리는 연습문제들을 직접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교실수업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 무언가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 학습도구들이 학습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싶다.

목 합쳐 81명이 설문에 참여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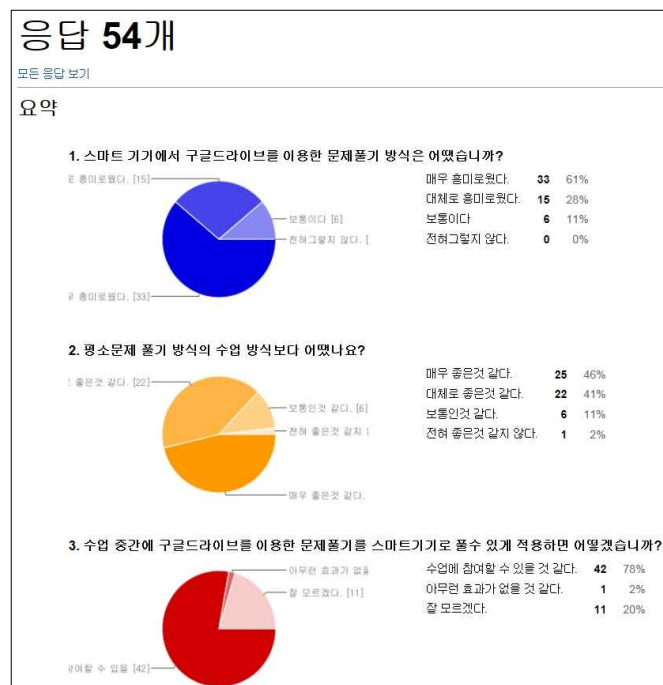
참고문헌

- 김종해, 이만근. 1995. "사고력 증진을 위한 주관식 평가모형 제작 및 평가방안", 제 5권, 제 2호, 대한수학교육학회 논문집.
- 박인학. 2005. 「교재연구 및 지도법의 이해」, 서울 대왕사.
- 박정은. 2002. "객관식 문항 유형이 읽기 책략 활용에 미치는 효과",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박희정, 강원석. 2003. "유의어 사전을 이용한 주관식 문제 채점 시스템 설계 및 구현", Vol.6 No.3,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 최재철. 2000. "빈칸 메우기 평가를 통한 스페인어 문법 능력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제 11집, 이베로아메리카연구.
- Hinofotis F. A. B. 1980. "Cloze as an alternative method of ESL placement and proficiency testing", In J. W. Jr. Oller and Perkins(Eds), *Research in language testing(pp. 121-128)*. Rowley. Mass: Newbury House.
- Jonz, J. 1976. "Improving on the basic egg: MC cloze", *Language Learning* 26, 255-265.
- Kalyuga, S., Chandler, P., & Sweller, J. 2000. "Incorporating learner experience into the design of multimedia instruc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1), 126-136.
- Mayer, R. E. 1997. "Multimedia learning: Are we asking the right questions?", *Educational Psychologist* 32, 1-19.
- Moreno, R., & Mayer, R. E. 2000. "A coherence effect in multimedia instructional messag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1), 117-125.
- Oller, J.W. 1972. "Scoring methods and difficulty levels for cloze tests of proficiency in ESL", *Modern Language Journal* 56, 151-158.
- Stubbs, J. B., & Tucker, G. R. 1974. "The cloze test as a measure of English proficiency", *Modern Language Journal* 58, 239-242.

설문조사 결과



<그림 7> 대가대 러시아어과 전공학생(27명) 설문 결과 <그림 8> 배재대 교양학생(27명) 설문 결과



<그림 9> 배재대 교양학생(54명) 설문 결과

Metacognitive Approach to Task-based Vocabulary Learning Strategy Use in Reading

Yang Jae Suk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Given the significance of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it becomes significant to investigate ESL speakers' cognitive and metacognitive process of learning vocabulary when tied to specific types of reading task. Generally, the empirical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more successful learners often employ task-specific strategies while less successful learners tend to use strategies in an impulsive way regardless of a given task. The proposed study aims to fill the gap in understanding 8 ESL learners' task-specific VLS use in academic reading, and their strategic differences among the learners who have different vocabulary proficiency (VP) level (e.g., low or high VP) and frequency of their VLS use (e.g., active or inactive use of VLS). The qualitative analysis is based on the data from VLS survey, VST scores, pre-/post semi-structured interviews, observation, and think-aloud protocols. The key findings revealed the participants in reading frequently used look-up strategies and cognitive-mediated strategies. Overall, high active VLS users consciously tried to improve vocabulary knowledge consistently investing time and effort into learning vocabulary. Additionally, they tended to orchestrate multiple strategies in combined or sequential ways depending on the tasks, needs, and prior knowledge, whereas the low active VLS users with low VP tended to employ isolated and non-sequential strategy in L2 reading task. The implications for vocabulary instruction include low active VLS users should broaden their repertoire of VLS while also learning to use VLS in sequential ways to compensate for their lower vocabulary knowledge in L2 academic reading.

Metacognitive Approach to Task-based Vocabulary Learning Strategy Use in Reading


양재석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troduction

- ▶ Most L2 learners believe vocabulary learning as the most important but challenging part of language learning (Horwitz, 1999).
- ▶ Learners are left to use their best endeavors to develop their own approaches to learning vocabulary in a strategic way.
- ▶ Learners' voice has a crucial role in vocabulary learning strategy research (Nyikos & Fan, 2007)




Introduction




- ▶ Tetrahedral model of person, task, context, and strategies (Gu, 2003)
 - ▶ Choice, use, and effectiveness of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VLS) depend on the task, the learner, and the learning context
- ▶ Inclusion of specific language tasks in the process of eliciting learners' use of VLS can:
 - ▶ More truly reflect the learners' actual use of VLS (Nation, 2001)
 - ▶ Deeply explore learners' skill-specific VLS use in different tasks.

Research Ques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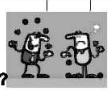
- ▶ What are the PATTERNS in the actual use of VLS among selected ESL university students from four groups according to their frequency of VLS use and self-reported vocabulary proficiency (VP)?
 - ▶ High active VLS + High VP
 - ▶ High active VLS + Low VP
 - ▶ Low active VLS + High VP
 - ▶ Low active VLS + Low VP
- ▶ How differently do groups seek the meaning and forms of unknown words in L2 academic reading?

Literature Review- VLS?



- ▶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LLS)**
 - ▶ conscious or semi-conscious thoughts and behaviors used by learners with the explicit goal of improving thei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a target language (Cohen, 2003)
- ▶ **Vocabulary learning strategy (VLS)**
 - ▶ a series of specific thoughts and behaviors that vocabulary learners make consciously or semi-consciously to improve knowledge, to understand a target word, and to facilitate the completion of a task for vocabulary learning.

Literature Review- Good learners?



- ▶ Ahmed (1989), Sanaoui (1995)
 - ▶ **Good learners:** use more strategies in diverse ways; clearly aware of what they could learn about new words; use structured approach by actively monitoring and reviewing the vocabulary
 - ▶ **Underachieving learners:** apply less strategies; unaware of what to learn about new words; not using their previous word knowledge; unstructured approach, less motivated

Literature Review- Good learners?

► Fan (2003)

- **high VP group** used more diverse strategies frequently than the middle- and low-groups (e.g., management, sources, guessing, dictionary, known words, and analysis strategy); focused on planning their vocabulary learning and encountering new words both inside and outside class.
- **middle-/low-VP groups** relied on memory strategies frequently such as repetition, grouping, and association strategies

Process of vocabulary learning

► Brown and Payne's (1994) model:

- 1) Having sources for encountering new words
- 2) Getting a clear image, either visual or auditory or both, for the forms of the new words
- 3) Learning the meaning of the words
- 4) Making a strong memory connection between the forms and meanings of the words
- 5) Using the words

Theoretical Framework

► Cognitive framework Macaro (2006)

- learner's goal-oriented VLS use in reading task.
- a strategy "comprises a goal, a situation, and a mental action" and it "conforms to the algorithm: if in a learning situation/task X, and when the learning goal is Y, then try mental action Z" (p. 329).
- if the processes of ESL participants' VLS use are situated in reading and writing tasks, their goals and actions for learning vocabulary are then presumed to be anchored in their knowledge sources for the tasks (e.g., prior lexical knowledge, contextually given knowledge, and external sources).

Research Design

► Case Selection (N=8)

- Clustering based on vocabulary proficiency level and VLS frequency (K-means Cluster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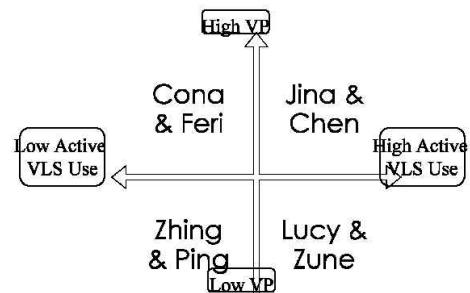
► Data Collection

- VST
- Observation of tasks
- Think-alouds
- Semi-structured interview

Research Design-TASKS

- **Measurement of pre-existing vocabulary knowledge for text:** Vocabulary Knowledge Scale (VKS) (Wesche & Paribakht, 1996)
- **Reading Task:**
 - TEXT: Geology, Landscape
 - Think-aloud
 - Post-reading interview
- **No time limit; accessible to any sources**

Clustered Participant Profiles



Participant Profiles

	Name	Country	Gender	Age	Academic Level/ Major	Vocabulary Size	English Proficiency
Low VP/ Low Active VLS	Ping	Taiwan	F	29	Graduate/ Health	8800	248, CBT
	Zhing	China	M	25	Graduate/ Physics	9200	87, IBT
Low VP/ High Active VLS	Lucy	China	F	21	Undergraduate/ Journalism	7500	62, IBT
	Zune	Turkey	M	29	Graduate/ Education	9000	74, IBT
High VP/ Low Active VLS	Cona	India	F	35	Graduate/ Journalism	13400	120, IBT
	Feri	India	F	20	Undergraduate/ Journalism	11900	650 (R), 710 (W), SAT
High VP/ High Active VLS	Jina	Korea	F	20	Undergraduate/ Business	11100	114, IBT
	Chen	China	F	26	Graduate/ Education	10000	105, IBT

VLS Use in a Reading Task



Zhing & Ping's VLS Use in Rea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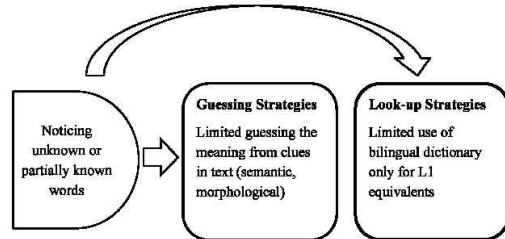
Zhing and Ping

- Limited strategy use (Frequency and diversity)
- Highly relied on either a bilingual dictionary or contextual guessing
- Unskillful use of strategies (L1 equivalents, incorrect guessing, less morphological awareness)
- Personal belief (e.g., guessing without look-up)
- Single strategy use

Low VP

Zhing & Ping's VLS Use in Reading

Sequential Process of Using VLS in Reading Task



Lucy & Zune's VLS Use in Rea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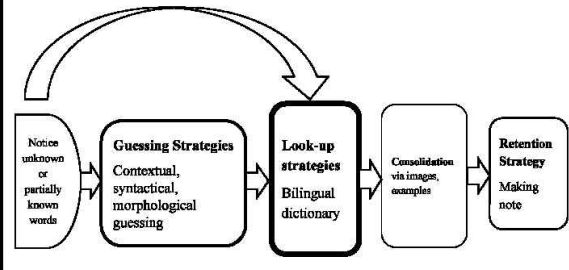
Lucy and Zune

- Used strategies frequently and diversely
- Highly relied on Look-up strategy (bilingual dictionary) and contextual guessing
- Skillful use of strategies (guessing from linguistic clues, more attentive to lexical information in dictionary)
- Incorrect guessing from context but confirming correct meaning by looking-up strategy
- Sequentially clustered strategy use

Low VP

Lucy & Zune's VLS Use in Reading

Sequential Process of Using VLS in Reading Ta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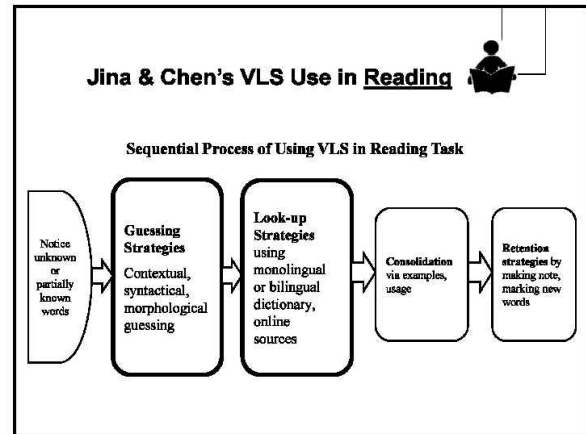


Jina & Chen's VLS Use in Reading

Jina and Chen

High VP

- ❑ Used strategies frequently and diversely
- ❑ Highly relied on Look-up strategy (bilingual dictionary) and guessing strategies
- ❑ More skillful use of strategies (using multiple sources, guessing meaning from contextual and linguistic clues)
- ❑ Guessing meaning of word with follow-up verification of meaning by looking-up strategy
- ❑ Orchestration of VLS use flexibly and sequenti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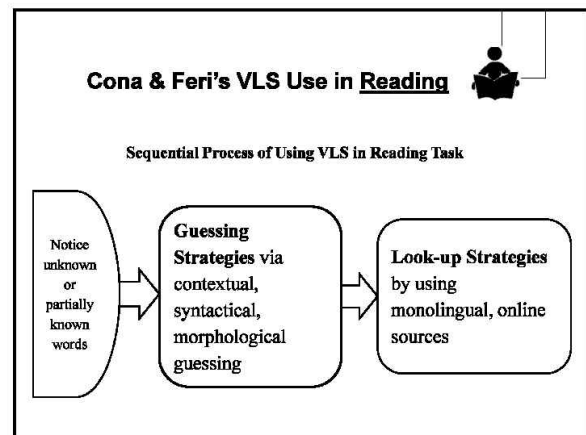


Cona & Feri's VLS Use in Reading

Cona and Feri

High VP

- ❑ Used fewer number of strategies in total (Frequency and diversity), but used as many strategies per word as high active VLS groups
- ❑ Highly relied on Look-up strategy (monolingual dictionary) and contextual guessing
- ❑ Skillful use of strategies (monolingual, thesaurus), guessing meaning from contextual and linguistic clues (syntactical, morphological clues)
- ❑ Guessing meaning of word with follow-up verification of meaning by looking-up strategy
- ❑ Sequential but simplified VLS use



Discussion

- ▶ **VLS Use in Reading Task**
 - ▶ **Sequential VLS use**
 - ▶ Guessing strategies=> Look-up strategies
 - ▶ **Multiple sources**
 - ▶ bilingual, monolingual dictionary, or online sources for content word
 - ▶ **Focusing on lexical information**
 - ▶ L1 equivalents, collocational usage, register, examples, origins, synonyms, or content specific information
 - ▶ **Metacognition**
 - ▶ morphological awareness, syntactic awareness, word consciousness

Pedagogical Implications

- ▶ Low VP and low active VLS users should be given guidance on how to effectively use a range of resources that are appropriate to language task (bilingual, monolingual dictionaries, thesaurus, collocation dictionaries)
- ▶ Guide clustered or sequential ways of using strategies to effectively access dictionaries to supplement their limited understanding of target words.

Pedagogical Implications

- ▶ Choose appropriate dictionaries based on learners' vocabulary size levels and provide guided practice to develop dictionary look-up strategies that are appropriate to the task.
- ▶ Foster conscious attentiveness to multiple pieces of contextual and metalinguistic information to develop strategies to guide vocabulary knowledge building.

Future Research

- ▶ The four profiled cluster quadrants might imply developmental phases on a continuum towards proficient vocabulary learners.
- ▶ What are some long-term changes in VLS use and vocabulary proficiency over time with and without strategy training.

Thank you!

초등영어 영재교육의 두 사례

김 영 숙

(대구교육대학교)

Kim, Yongsuk. 2014. Two Cases of Special Education for Gifted English Learners at Elementary Schools.

The presenter analyzes two cases of special education for gifted English learners with the intention of finding out where it should be directed. One is for getting the students read an English fiction speedily and do several language learning activities concerned with the book-reading, and the other is for getting the students do drama activities with several well-known stories. She discusses the strong points and the weak points of the two cases and on the basis of the discussion makes suggestions for the objectives, the content, the method and the assessment for special education for gifted English learners as well as for selection of gifted English learners.

I. 초등영어 영재교육의 대두

영재들을 위한 특별 교육에 대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8년 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전국 8개 대학에 설치된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본격적인 영재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영재교육 중장기종합 발전 방안이 수립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단위 학교마다 영재 담당 업무가 별도로 마련되고 있을 만큼 영재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영재 교육은 이처럼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였다. 수학·과학 중심으로 출발한 영재 교육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김소연(2007)에 의하면 여전히 영재교육 대상자의 87%가 수학·과학 분야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13%의 학생들은 정보, 예능, 영어 등의 영역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영어 영재교육은 13% 가운데서도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재성은 비록 타고난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계발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영재의 조기 발굴이 필요하고, 따라서 영어 영재 교육에서도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재를 발굴하고 그 재능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영어 몰입 교육을 비롯한 영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들이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음은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의 상당 수는 사립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칫하면 소수의 영재를 위한 배타적인 장치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영재의 개념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오늘 날의 추세에 비추어 초등영어 영재교육의 확산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공교육 기관에 적용 가능한 초등영어 영재 교육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발표자는 초등영어 영재교육의 두 사

례를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바탕으로 초등영어 영재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초등영어 영재교육의 두 사례

1. 영어 원서 읽기를 활용한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¹⁾

대구광역시 소재 C초등학교의 A교사는 교내 영어 영재를 대상으로 영어 원서 읽기를 활용한 방과 후 특별 교육을 1년간 실시하였다.

① 영어 영재 선발

A교사는 1, 2, 3차의 선발 과정을 거쳐 영어 영재성을 판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재 교육 대상자로 4, 5학년 중 18명을 선발하였다. 1차에서는 학생이 작성한 지원서를 심사하고, 2차에서 창의 영재성 검사를, 그리고 마지막 3차에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남학생 7명과 여학생 11명, 학년별로는 4학년 6명, 5학년 12명이 선발되었다. 3차례에 걸친 선발 과정으로부터 A교사는 현재의 영어 능력보다 학습 동기, 흥미, 과제 집착력 등의 정의적인 영역에 중점을 두었고, 영재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뿐 아니라 학생 자신의 주관적 평가에도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목표

A교사는 2개의 장을 10시간에 걸쳐 읽는 것을 한 주기로 하여 어휘 학습, 원서 읽기, 듣기 학습, 토론하기 등의 언어 기능을 익히도록 하고, 한 주기가 끝나면 새로운 주기에서 같은 과정이 반복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에 비해 영재 교육의 중요 요소라 할 수 있는 창의성,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토론하기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고 있기는 하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고, 저널 쓰기에서 자기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쓰기 연습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③ 내용

A교사는 영어 원서 읽기 수업이 읽기의 기능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고 학생들의 흥미와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허구적 상상력이 가미된 소설류의 이야기가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설을 읽기 자료로 선택하였다. 구체적인 도서 선정을 위해서는 신호상과 이수영(2007)의 스피드 리딩을 위한 원서 고르기 원칙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영어 텍스트를 보고 바로 머릿 속에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쉬운 이야기,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영화화된 이야기, 또 한 작가의 책을 연달아 읽을 수 있도록 많은 작품을 가진 작가의 작품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해 Lexile 지수 600L, 82쪽 분량의 *Fantastic Mr. Fox*가 채택되었다.

④ 방법

프로그램은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적용되었다. 선정 도서의 두 장

1) 프로그램의 개요는 김형준(2011)에 소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chapter)을 읽는 데 한 주기에 해당하는 10시간이 할애되었고, 한 주기가 끝나면 같은 패턴으로 다시 한 주기가 반복되는 방식으로 1년 동안 총 100시간 수업이 실시되었다. 한 주기 중 2시간은 그 부분을 읽는 데 필요한 단어 공부 및 그 단어를 활용한 말하기 연습에 사용되고, 4시간은 영어 원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할애되었으며, 2시간은 괄호 채우기, 받아쓰기 등을 활용한 듣기 학습에 할애되었다. 또 1시간은 학습한 내용에 대해 원어민 교사와 함께 이야기해보기로 구성되고, 마지막 1시간은 배운 내용을 중간 점검하는 평가 시간으로 설계되었다. 쓰기는 학생들이 수업 후 집에서 저널을 쓰게 하는 방법으로 지도되었다. 학생들은 매 수업 후 수업 내용과 방법, 수업 중 있었던 일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을 영어로 짧게 써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사에게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⑤ 평가

공식적으로 부과된 시험은 없었다. 대신 A교사는 수업 중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고 수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일지로 기록하였고,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 지면 인터뷰를 통해 각 단계별 수업, 즉 어휘 학습 및 말하기 연습, 원서 읽기, 듣기 활동, 원어민 토론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매 수업 후 학생들이 수업 내용과 방법, 수업 중 있었던 일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을 쓴 저널을 분석하여 학생의 쓰기 능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저널은 교사에게 학생 평가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학생들에게 자기 성찰 및 평가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2. 영어 드라마 프로젝트²⁾

경상남도 소재 J초등학교의 B교사는 교내 영어 영재를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영어 드라마 프로젝트를 적용하였다.

① 영어 영재 선발

B교사 역시 3단계의 영재성 판별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년에 상관없이 12명을 영어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1단계에서는 담임 교사로 하여금 영재성을 나타내는 행동 평가척도에 따라 영재를 판별, 추천하게 하고, 2단계에서 영어 능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단계에서 구두 면접을 하였다. 학년 구성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A교사가 6학년울 배제한 것과 달리 4, 5, 6학년생들 가운데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② 목표

영어드라마 프로젝트를 Renzulli(1977)의 3부 심화학습 모형에 따라 구성하고 각 단계별로 중점을 두는 사고 기능을 설정하고 있다. 제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상황, 문제, 논쟁점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활동, 아이디어를 비교·대조하는 활동, 구체적인 자료로부터 일반화 하는 활동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 기능을 신장하고자 하였고, 제 2단계에서는 논쟁거리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사고하기, 생각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 탐구, 개방성, 상상력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정교화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 기능을 길러주고자 하였다. 제 3단계에서는 이 두 유형

2) 프로그램의 개요는 강혜영(2010)에 소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의 활동을 활용하여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기능을 통합적으로 신장하도록 하였다.

③ 내용

영어드라마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 *The Frog Prince*, *The Golden Fish*, *Pocahontas*의 3개 작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작품 선정 이유는 잘 알려진 소재를 다루고 있고, 극화하기에 적합한 작품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수업에 투입된 자료는 세 작품 모두 A4 용지 한 장 정도의 짧은 분량으로 각색된 것이었다. 어휘 및 문장 구조는 중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정규 영어 수업에 비해 심화 및 속진 학습을 추구하였음을 가늠하게 해준다.

④ 방법

프로그램은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선발된 학생들에게 매 2주마다 주말에 3시간씩 집중 수업 형태로 제공되었다. 주별 학습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신장에 도움을 주면서 Renzulli(1977) 모형에 부합하는 활동들로 구성되었다. 즉, 1주는 3부 심화 모형의 1단계인 일반 탐색 활동으로 구성되고 이를 위해 드라마 탐구하기가 주 활동으로 설정되었고, 2주와 3주는 2단계의 심화 그룹 훈련 활동으로 구성되고 주요 활동은 주제 정하기, 역할 정하기, 토론, 대본 완성하기로 설정되었다. 4, 5주는 3단계에 해당하는 실제 문제 연구 활동 및 산출물 발표 활동으로 구성되고, 이를 위해 프로젝트 완성하기, 시연하기, 문제점 분석 및 보완하기가 주요 학습 활동으로 설정되었다.

⑤ 평가

이 프로젝트에서도 시험은 부과되지 않고, 수업 관찰과 소감문 작성 등의 평가 기법이 활용되었다. 수업 관찰과 관련하여 B교사의 경우에는 다른 교사가 수업을 담당할 교사와 학생을 관찰하고 평가하였다. 즉, 2명의 교사가 College of William & Mary의 영재교육 센터에서 개발한 교실관찰 도구인 COS-R(Classroom Observation Scale-Revised)을 활용하여 교수 활동의 효과성과 교수 활동에 대한 학생 반응을 관찰, 분석하였다. 수업 내부자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자기 평가가 이루어졌다. 학생들로 하여금 드라마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학습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III. 초등영어 영재교육의 방향

영어원서 읽기와 영어드라마 프로젝트의 두 사례는 각각 단점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 원서 읽기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영재 프로그램으로서의 한계는 영어드라마 프로젝트의 장점에 의해, 드라마 프로젝트의 단점인 영어 학습 프로그램으로서의 한계는 영어 원서 읽기의 잘 조직된 학습 활동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발표자는 영어 심화 교육적 측면과 영재 교육적 측면을 통합하는 것을 초등영어 영재교육의 큰 틀로 삼아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영어 영재아 선정

A교사와 B교사 모두 3차례의 선발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판별 기준은 상이하다. A교사의 경우 영어 능력보다 비인지적 특성에 더 큰 비중을 둔 데 비해 B교사는 상대적으로 영어 능력을 중시하여 영어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영어 능력보다 영어 과제 집착력,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 등의 비인지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초등영어 영재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재의 특성을 다양하게 정의하는 것이 영재 교육의 최근 동향이고, 학생의 영어 능력은 사교육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며, 영어 능력을 강조할 경우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 사례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차이는 영어원서 읽기의 경우 6학년을 제외하고 있음에 비해 영어드라마 프로젝트에서는 6학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3개 학년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3학년을 영재 교육 대상자에 포함시킬 경우 사교육을 통한 선행 학습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A교사의 경우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영어 원서 읽기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변인 통제 차원에서 사교육 비중이 높은 6학년을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실제 교수·학습용으로 설계할 경우에는 6학년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② 목표

본 연구에서는 초등영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목표와 영재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고 일상적인 영어 사용에 자신감을 갖는다.
- ▶ 친숙하고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 언어 네 기능의 균형적 발달을 추구한다.
- ▶ 어휘력을 신장한다.
- ▶ 진정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 ▶ 외국의 문화와 정보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 ▶ 나눔과 배려의 인성을 길러 시민 의식,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 ▶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사고 능력을 신장한다.
- ▶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신장한다.
- ▶ 자기 이해 능력을 계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배양한다.

③ 내용

내용 선정 과정에서는 교사의 합리적 판단과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탐색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주도적 탐색 태도 및 능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영재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언급된 바 있지만 초등학교 단계의 영재는 아직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온전히 자기주도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교사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를 보완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본 연구에 소개된 두 사례에서는 내용 선정이

교사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교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복수의 도서를 추천하고 학생들이 토론을 거쳐 그 중에서 어떤 책을 읽고 활용할 것인지 선택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탐색 태도, 비판적 사고 능력과 논쟁 기술을 계발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방법

영재 학급은 전일제로 운영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겠으나, 현재의 교육 환경에서는 일반 교육 과정 운영에 더해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특별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학기 중 방과 후 시간 활용과 방학 중 집중 캠프 형태의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와 주말이 가능하겠으나 내용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는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주 2~3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말 학습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학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방학 중에는 주 5회, 회당 3시간씩 1주일 정도 캠프 형태로 운영하면서 직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과 연계하여 심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도록 한다.

⑤ 평가

앞서 논의된 초등영어 영재 교육에서의 평가 원리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평가 주체는 영재 자신과 외부자로 구성하도록 한다. 영재는 자기 평가를 통해 자신의 학습 과정, 즉 읽기 단계에서의 도서 선택, 어휘 학습, 책 읽기, 토론 등에 대해서, 그리고 극화하기 단계에서의 역할 선택, 역할 수행 등에 대해 성찰하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다음 학습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자 평가는 친구, 교사, 학부모 등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의 수행 결과가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받게 되면 영재들의 학습 동기는 더 강화될 것이다. 경연 대회에 참가하거나 학내 발표회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해 학교 밖의 청중들에게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혜영. (2010). *초등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 박사학위 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김소연. (2007). *초등학교 영어·과학 통합 영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창원.
- 김형준. (2011). *영어 원서 읽기를 활용한 초등 영어 영재학급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석사학위 논문.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 신효상, 이수영. (2007). *스피드 리딩*. 파주: 북하우스.
- Renzulli, J. (1977). *The enrichment triad model: A guide for developing defensible programs for the gifted and talented*. Mansfield, CT: Creative Learning Press.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김 동 국 · 이 상 륜
(영산대학교)

1. 서론

외국인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등에 대한 기능 교육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발음교육, 어휘교육, 문화교육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말뭉치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말뭉치 연구의 한 분야인 관용표현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김동국·이상륜(2013)에서 언급된 관용표현 (1) 살펴보자.

- (1) a. 시치미를 떼다 /*이름표를 떼다 /*시치미를 잘라내다
b. 미역국을 먹다 /*시락국을 먹다 /*미역국을 마시다

(1a)의 시치미를 떼다의 시치미는 매의 꼬리 윗부분에 매다는 소뿔로 만든 명패로서 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물건이다. 그런데 잘 길들여진 매를 다른 사람이 훔치거나 서로 뒤바꾼 후 시치미를 떼면 누구의 매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알고도 모르는 척하다’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편 (1b)의 미역국을 먹다는 여자가 아이를 낳은 뒤 미역국을 먹는 것은, 배 안에서 아직 빠져 나오지 못한 태반 등이 미역처럼 쉽게 미끄러져 나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미역의 미끈미끈한 촉감이 주는 선입견에 의해 시험을 볼 때 미역국을 먹는 것이 ‘시험에서 낙방하거나 탈락하다’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김동국·이상륜(2013)에서, 연어와 자유표현 그리고 관용표현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바 있다.

(2)

	의미적 선택제한	의미의 투명성	공기 제한성	생산성	문화/관습 적 반영
자유표현	+	+	자유 결합	+	-
관용표현	-	-	고정 결합	-	+
연어	+/-	+/-	고정 결합	+/-	+/-

그러나 한국어 교사 또한 외국인 학습자에게 (3)과 같은 동물을 포함하는 관용표현 및

속담들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기가 쉽지 않다.

- (3) a. 개밥에 도토리
 b. 물 찬 제비 같다
 c.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d. 쇠귀에 경 읽기
 e.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랴?
 f.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모국어 사용자 학습자들로 구성된 국내 교실환경에서 한국어 교사가 한국어 관용표현 특히, 동물명과 관련된 (3)과 같은 관용표현 및 속담들¹⁾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는 동물의 분포와 인식이 언어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동물은 사람의 일상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로서 언어권의 경계를 뛰어넘어 보편적인 인식의 가치를 가질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물명이 포함된 한국어 관용어 표현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이것을 현재 영산대학교 한국어 중급반에 재학 중인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및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관용표현에 대한 개념과 그 교육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3장은 동물을 포함한 관용표현에 대한 교육방안을 제안하고 제 4장은 교육 후 결과 분석 및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으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관용표현의 개념과 교육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2.1 관용표현의 개념

먼저, 구소련의 러시아어 학자 비노그라도프(V. V. Виноградов 1986)는 두 개 이상의 어휘가 결합하여 공기(共起)하는 언어 단위를 성구소(фразеологическая единица)라고²⁾ 칭하고, 이를 구성요소의 관용성 정도에 따라 (4)와 같이 분류하였다.

- (4) a. 비유연적 관용어(фразеологическое сращение),
 b. 유연적 관용어(фразеологическое единство),
 c. 관용적 결합(фразеологическое сочетание)으로 분류하였다.

1) 본고에서는 속담을 관용표현에 포함하여 연구를 전개할 것이다. 비록 속담이 관용표현과 비교하여 교호적 의미를 지니고 있거나 인용문으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속담 또한 관용표현과 같이 구성요소의 의미가 불투명하고 비유성이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서상규 외 2006)'에는 관용구와 속담을 같은 범주에서 다루고 있으며, 심재기(1982)에서도 속담은 '어떤 사실을 비유로 서술하는데 쓰이는 관용어구'라고 정의했다. 조경태(2005)에서는 속담은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갖추고 독립된 의미 기능을 지니며, 관용구는 문맥 속에서 다른 문장성분이 보완되어야 의미가 실현되고 비유성을 지니지만, 관용구와 속담의 경계는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2) 고대(高代)러시아문화연구소에서 편찬한 러·한사전(1987)에 러시아어 'Фразеология'가 성구론으로 번역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ая единица'를 성구소로 번역한다.

(5) a. 한국어 ; ‘미역국을 먹다’, ‘콩밥을 먹다’,

b. 러시아어 ;

‘уй ти с головой в работу(머리를 가지고 일터로 돌아가다→일에 매달리다),

‘взять себя в руки(자신을 손안으로 잡아넣다→마음을 다잡다)’

독일어 언어학자 구명철(2006)은 다음 (6)과 같이 도식화 하고 있다

(6) a. 자유결합 : ‘f(a+b)=A+B’

b. 연어 : ‘f(a+b)=A+C/B’

c. 관용어 : ‘f(a+b)=C’

그리고 관용어(Idiom)는 ‘kalter Kaffee(차가운 커피→한 물 값다)’, ‘lange Finger machen (긴 손가락을 만들다→흠치다)’와 같이 구성요소들의 의미가 결과물에 남아있지 않고 독립성을 잃게 되어 전체가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기능하고 제3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로 도식화 하였다.

국내의 국어학 분야에서 연어와 관용표현에 대해 연구한 문금현(1999)에 의하면, 성구소와 유사한 개념으로 광의의 관용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것은 ‘습관적으로 굳어져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서 상용구절, 격언, 금기담, 순수 은유 표현, 순수 직유 표현, 간접 화행 표현, 인사말, 상투적 표현, 비논리적 표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편 협의의 관용표현으로는 관용어, 관용구, 관용절, 관용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관용구절을 일반구절, 연어, 상용구절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a. 일반구절: 밥을 먹다/ 학교에 가다/ 바람이 분다

b. 연어: 김을 매다/ 땀을 쓰다/ 미역을 감다/ 소름이 끼치다/ 실을 감다

c. 상용구절: 손이 크다/ 쭉대발이 되다/ 속이 없다

(선행요소의 다의화)

기선을 잡다/ 마음을 놓다/ 마음을 잡다

(후행요소의 다의화)

d. 관용구절: 눈을 감다/ 미역국을 먹다/ 손을 떼다

/시치미를 떼다/ 주름을 잡다

박현정(2006), 김선효(2010) 및 김원경(2010)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개가 짓다’, ‘머리를 감다’, ‘배탈이 나다’와 같이 극히 제한된 수의 어휘와 결합할 수 있고 특정한 어휘를 선택하는 결합을 연어라고 하고, ‘미역국을 먹다(시험에 낙방하다)’, ‘입이 무겁다(비밀을 잘 지키다)’, ‘발을 꿩다(거래를 꿩다)’와 같이 새로운 제3의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결합을 관용표현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언어별로 두 단어가 통사적으로 결합하여 소위 구(phrase)를 구성할 때, 거의 동일한 제약³⁾을 근거로 3가지 형태, 즉 자유결합, 연어, 관용표현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고, 관용어에 대한 개념 또한 거의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관용표현을 정의하고자 한다.

(8) 관용표현

2개 이상의 단어로 결합되어 구나 문장을 이루는 어휘군으로서 제3의 의미를 창출하고 구성요소들의 분포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관용표현의 구성요소 의미를 알고 있어도 그 관용표현과 관련된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전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학습 후에도 의사소통에 사용하기 어려운 표현을 말한다4).

2.2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

문금현(1998)에서는 관용표현의 형식적인 유형, 한국인의 사용빈도, 의미의 투명성 여부에 따른 난이도, 외국인의 인지도등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문어체와 구어체 관용표현을 초급(8개), 중급(19개), 고급(39개)으로 분류하였다. 관련된 몇 가지 관용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학습단계별 관용표현 목록5)

		초급(8개)	중급(19개)	고급(39개)
구어	이해 I 듣기용	열받다(1)	꼴 때리다 김이 새다 등(8)	오리발을 내밀다 우물 안 개구리 등(11)
	표현 I 말하기용	기가 막히다 마음에 들다 등 (5)	바가지를 쓰다 시집을 가다 등(8)	손을 대다 히트를 치다 등(18)
문어	이해 II 읽기용	하늘의 별따기 그림의 떡(2)	불똥이 튀다 등(3)	황금알을 낳는 거위 판도라의 상자 등(10)
	표현 II 쓰기용			

조현용(2007)은 각 대학의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제시된 속담 251개를 전문 선정위원회에 의뢰하여 (10)과 같이 학습자들이 이해만 하면 되는 이해용 속담 99개와 학습자들이 표현까지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표현용 속담 111개를 선정하고, 학습자의 언어권에 따른 속담과의 비교를 통한 교육과 속담에 나타난 문화요소를 학습자의 문화와 연관시켜 교육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속담을 이해용 속담과 표현용 속담으로 구분하는 데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본 논문의 (2)에 제시된 도표 참고.
4) 김동국·이상률(2013) 참조.
5) 문금현(1998)의 (표 10)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 (10) a. 표현용 속담: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꿩 먹고 알 먹고. 우물안 개구리 등
 b. 이해용 속담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암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등

배규범(2010)은 관용표현을 설문조사에 의한 관용표현의 인지정도, 한국어능력시험 기출 여부, 중국 내 한국어 교재 수록 여부, 문화교육 요소 등을 기준으로 총 150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관용표현은 학습자의 학습단계에 따라 제2학기에 20개, 제3학기에 50개, 제4,5학기에 100개를 배치하였다. 배규범(2010)은 관용표현을 설문조사에 의한 관용표현의 인지정도, 한국어능력시험 기출 여부, 중국 내 한국어 교재 수록 여부, 문화교육 요소 등을 기준으로 총 150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관용표현은 학습자의 학습단계에 따라 제2학기에 20개, 제3학기에 50개, 제4,5학기에 100개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관용어 학습사전 편찬과 활용을 통한 교육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의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관용표현의 단계별 목록 선정이나 대조연구를 통한 교육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정된 관용표현에 대한 목록별 교육 방안을 모색하거나 다국적 학습자를 고려한 교육 방안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에 제시된 관용표현 중에서 동물명과 관련된 관용표현 51 개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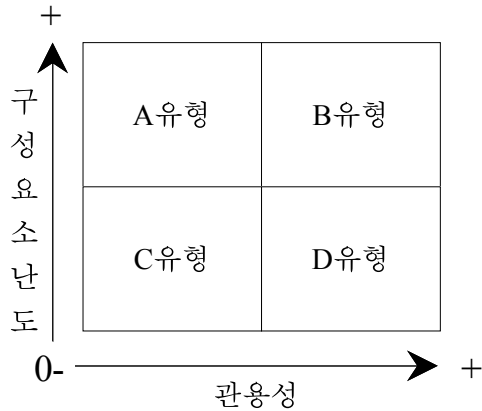
3. 제안 : 관용표현 교육방안

본장에서는 제2장에서 추출한 관용표현의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다만, 특정 관용표현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적용하고자 할 때, 관용표현 1 개에 교육 방안 1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범용으로 적용 가능한 3.1의 유형별 교육 방안을 우선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3.2와 3.3에서 제안한 교육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3.1 관용표현 유형별 교육방안

선행연구에서의 관용표현 목록은 사용빈도, 학습자의 인지정도, 투명성 정도 등에 의해 선정되었다. 관용표현의 이해는 관용표현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정도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구성요소가 관용표현 의미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요소는 관용표현 이해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관용표현의 관용성과 구성요소의 난도를 기준으로 관용표현을 4가지 유형으로 (11) 과 같이 분류하여 각 유형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사용빈도에 의한 초·중·고급으로의 분류보다 관용성과 구성요소의 난도를 고려한 입체적 목록 작성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사가 가르칠 때나 학습자가 배울 때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11)



다음은 동물명이 포함된 몇 가지 관용표현에 대한 교육의 예를 살펴보자.

(12) 소 귀에 경 읽기

- (13) 1단계: 경-불교의 경전(기독교의 성경, 이슬람교의 코란과 함께 제시)
 2단계: 소에게 불경을 가르치다
 3단계: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 하다

(14)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라?

- (15) 1단계: 방앗간-쌀이나 밀 등의 곡식을 빻는 곳, 지나라? - 르까? 대치
 2단계: 쌀이나 밀은 참새의 밥이다. 방앗간에 쌀이나 밀이 많다.
 3단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4단계: 자기가 좋아하는 곳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16)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17) 1단계: 대화를 사람이 듣고 대화를 사람이 듣는다
 낮말-대화, 새-사람, 밤말-대화, 쥐-사람
 2단계: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 데서 비밀히 한 말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
 가게 되니 항상 말조심해야 한다.

(18)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 (19) 1단계: 현재는 사람이 담배를 피운다. 그러나 아주 먼 옛날에는 호랑이가 담배를
 피웠다.
 2단계: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때
 3단계: 아주 먼 옛날

3.2 구성요소의 은유적 의미관계 교육방안

관용표현은 다수의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어떤 행위, 상황, 사물 등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비유적 표현 중에서 특히 은유적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구성요소의 은유적 의미와 구성요소간의 의미관계에 대한 이해가 관용표현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관용표현은 구성요소의 은유적 의미 이해와 구성요소 간의 의미관계를 단계별로 이해시켜 학습자로 하여금 전체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20) 새발의 피다

- (21) 1단계: 구성요소 '새발'은 작다 - 구성요소 '피'는 적은 양이다
 2단계: '새발의 피'는 작은 것 안에 있는 적은 양이다
 3단계: 매우 적은 양이다

(22)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 (23) 1단계: 구성요소 '똥'은 많은 잘못이다 - 구성요소 '겨'는 약간의 잘못이다
 2단계: '똥 묻은 개'는 많은 잘못을 한 사람이다 - '겨 묻은 개'는 약간의 잘못을 한 사람이다
 3단계: 많이 잘못된 사람이 조금 잘못된 사람을 야단친다

3.3 의미유추 교육방안

(24)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25) 1단계: 소는 집에서 매우 소중하고 비싼 것이다
 2단계: 소는 외양간에서 기른다
 3단계: 외양간이 넓고 허술하지만 수리하지 않았다
 4단계: 소가 도망갔다
 5단계: 집에서 매우 소중하고 비싼 것을 잃었다
 6단계: 넓고 허술한 외양간을 수리한다
 7단계: 그래도 소는 돌아오지 않는다
 8단계: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
 9단계: 어떤 일이 잘못 되고 난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4. 향후 연구계획

본고에서 제안한 교육방안이 실제 교실환경에 적용할 경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9월 개학을 맞아 영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중 중급 이상의 수준을 갖춘 중국 및 인도네시아 그리고 기타 국가 학생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교육시킨 후 본고에서 제안한 교육방안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관용표현 의미 이해정도 설문조사
- 2) 제시한 교육방안 적용여부에 따른 실험집단 A반 및 B반 교육
A반-교육방안 미적용, B반-교육방안 적용
- 3) 1)과 2)에 대한 결과 분석

5. 결론

본고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 기재된 관용표현 중 동물과 관련된 관용표현을 외국인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기존의 연구가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관용표현에 대해 사용빈도 조사를 통한 학습단계별 목록 선정이나 학습자 모국어와의 대조연구에 기여한 반면, 본 연구는 이미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선정한 관용표현을 관용성과 구성요소의 난도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강현화 2004. 한국어학습을 위한 프레지올러지 유형에 대한 연구(1)-강조 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4, 40-66
- 구명철 2006. 자유결합, 연어 그리고 관용어 -독일어 연어의 특성과 사전에서의 처리를 중심으로-. 「독어교육」 37, 117-142
- 김동국·이상률 2013. 초급 한국어학습자를 위한 연어교육방안 연구. 「언어과학」 20.4, 19-34
- 김선효 2010.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적 연어 학습방안. 「이중언어학」 44, 25-47
- 김원경 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어 교육방안. 「한성어문논집」 29, 211-231
- 김진해 1999. 연어(collocation)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 「언어과학」 한국어의미학 4 239-279
- 문금현 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15, 207-233
- 박현정 200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문창어문집」 97-124
- 배규범 2010. 중국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관용어 교육의 실상과 방향, -목록선정과 단계별 배치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77-104
- 사와다 히로유키 2011. 학습 단계별 한국어 관용표현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2, 405-431
- 서상규 외 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 신자영 2005. 한국어 연어의 다국어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 28, 185-203
- 유승만 2005. 한국어-러시아어 연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 「노어노문학」 17.3, 17-42
- 전혜영 2001.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방안. 「한국어 교육」 12.2, 181-199
- 조경태 2005. 한·독 속담 비교 연구 -장르의 개념과 비교 자료의 등가성에 관하여-. 「독어교육」 33, 409-431
- 조현용 2007. 한국어 속담 교육 연구. 「한국어 교육」 18.2, 423-458
- 황미연 2006.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관용표현 대조연구. 「비교문화연구」 10.1, 171-192
- V. V. Виноградов(1986), *Русский Язык(Грамматическое учение слов)* издание третье. 「Москва: Высшая Школа」 27-33

채점자 특징이 구술 인터뷰와 컴퓨터 구술시험 상에서의 채점자 신뢰성과 편향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

주 미 진

(강원대학교)

Joo, Mi-jin (2014). Effects of rater characteristics on rater reliability and bias in scoring English speaking performance on an interview and a computerized oral test

This study first investigated inter- and intra- rater reliability in an interview and a computerized oral test. And it was examined whether rater characteristics influenced on their reliability and biases. For the study, the data from 21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18 Korean or native speakers of English raters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were collected.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rater sever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each test, but each rater consistently graded on both tests suggesting lower inter-rater reliability and higher intra-rater reliability. Secondly, rater severity was impacted by the rater characteristics such as mother tongue, gender, age, and major.

Key words: 채점자 신뢰성(rater reliability), 편향성(bias), 구술 인터뷰(oral interview), 컴퓨터 구술시험(computerized oral test)

1. 서론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중점으로 한 영어교육이 중요시되면서 전통적인 지필시험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험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수행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Canale & Swain, 1980; Weir, 1990). 특히, 말하기 능력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OEIC(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등의 영어 공인 인증시험에 말하기 평가를 포함시키고 있고 각종 채용 기관과 기업 그리고 대학 진학 시에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다양한 말하기 능력 시험은 평가 및 채점 방식도 다양한데 IELTS Speaking은 시험관과 1대 1 직접 인터뷰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시험관이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채점하며 재채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인터뷰는 녹음된다. 국내 많은 채용 기관도 유사한 방식으로 일대일 인터뷰를 통하여 시험관은 수험자가 영어로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에 반해, TOEFL, TOEIC, TEPS는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컴퓨터를 통해 말하기 시험이 진행된다. 이들 시험 모두 화면의 문제를 보고 헤드셋을 사용하여 직접 음성 답안을 녹음하고 녹음된 파일은 훈련된 채점자에게 전달되어 평가된다. 계획이

무산되긴 하였지만 2016년에 수능 영어를 대체할 예정이었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NEAT(National English Ability Test)도 위의 세 시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며 차이점은 평가 결과의 신뢰 및 편차에 대한 우려로 원어민은 채점자에 포함시키지 않고자 하였다. 또한 NEAT는 수능영어로 대체될 경우 대규모 수험자들로 인하여 채점자 확보의 어려움 및 비용을 고려하여 사람과 함께 컴퓨터 채점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2011 PKETA International Conference). 마지막으로,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전적으로 컴퓨터 자동 채점만을 행하는 버슨트(Versant)(구 PhonePass)가 있는데 이 시험은 시험 당일에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탁월한 실용성으로 인해 빠른 시간에 다수의 수험자를 평가하기에 용이하여 많은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요약하면, 현재 사용되는 말하기 시험의 채점 방식은 직접 인터뷰를 통한 채점, 컴퓨터를 통하여 녹음된 파일을 채점, 그리고 컴퓨터 자동채점 방식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있다. 직접 말하기 평가는 시험의 타당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채점자의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채점이 일관되지 못하게 변화하거나 편향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언어능력을 공정하게 측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신동일, 2001 최인철, 2000). 그러므로 다른 채점방식 및 환경이 채점자의 채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은 수험자의 언어능력에 대한 지표로서 채점자에 의해 부여된 점수가 정당히 해석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곧 그 시험의 타당성 검사와 연결된다. 채점자 특성이 수험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점수에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그 시험의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말하기 시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점자의 점수가 얼마나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채점자 특성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채점자에게 평가를 받는 것인데 대규모 수험자 집 단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여러 다른 채점자가 수험자들을 평가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면대면 구술) 인터뷰와 컴퓨터 (구술) 시험상에서의 채점자 신뢰성은 어떠하며 차이점은 있는지 그리고 채점자들은 모국어(비/원어민), 성별(남/여), 연령(20-50대), 학력(학사-박사), 전공(비/영어전공) 등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각 시험에서의 채점자의 신뢰성과 편향성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비교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인터뷰와 컴퓨터 시험 상에서의 채점자간/내 신뢰성은 어떠한가?
- 2) 채점자 특성이 인터뷰와 컴퓨터 시험 상에서의 채점자 신뢰성과 편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및 실험 절차

본 연구에는 강원도 K대학 영어과 2학년생 25명이 참여하였지만, 세 가지 유형의 시험 중 한 가지 시험이라도 미응시된 학생은 자료 분석에서 제외시켜 총 21명(여학생 7명, 남학생 14명, 평균 토익성적 512점)의 수행능력 결과만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각 시험

상에서의 수행능력을 다양한 특성을 가진 18명의 채점자가 채점토록 하였다. 채점자 구성은 표1과 같다.

<표 1> 채점자 구성

배경	항목	N	%
모국어	한국어	8	44.4%
	영어	10	55.6%
성별	남성	8	55.6%
	여성	10	44.4%
연령	20대	8	44.4%
	30대	2	11.1%
	40대	7	38.9%
	50대	1	5.6%
학력	학사	8	44.4%
	석사과정	5	27.8%
	석사	0	0.0%
	박사과정	3	16.7%
	박사	2	11.1%
전공	영어전공	11	61.1%
	비전공	7	38.9%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 학생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그룹은 인터뷰, 버슨트, 컴퓨터 시험 순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그룹은 버슨트, 컴퓨터 시험, 인터뷰 순으로, 마지막 그룹은 컴퓨터 시험, 인터뷰, 버슨트 순으로 각 14일 간격으로 치르도록 하여 가능한 시험 순서로 인하여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두 시험은 실행 후 녹음된 파일을 즉시 채점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채점자들은 사전에 평가방법에 대한 1일 집중 채점자 훈련을 거쳤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채점자들도 두 그룹으로 나뉘어 첫 번째 그룹은 인터뷰, 컴퓨터 시험 순으로 두 번째 그룹은 컴퓨터 시험, 인터뷰 순으로 채점토록 하여 채점 순서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잠재 변수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각 채점자는 총 42개(21개의 인터뷰 비디오 녹음과 21개의 컴퓨터 시험 음성 녹음)의 녹음 파일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은 O'Loughlin(2001: 217-219)의 평가 기준표를 일부 수정하여 분석적(analytic)방법과 전체적(holistic)방법을 함께한 각 6척도 평가항목(발음, 유창성, 문법, 어휘, 응집력, 전체 본 논문에서 "전체"는 전체적/총체적(holistic)평가를 의미한다.)의 평가표를 바탕으로 채점토록 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인터뷰

인터뷰는 외부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교실을 선택하여 연구자가 1대 1로 지정된 문제를 순서대로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21명의 학생 모두에게 인터뷰를 실행하여 면접관의 특성이 학생들의 수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시험 중에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여 다른 두 시험에는 없는 상호작용이라는 변수로 인하여 난이도 조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학생 수행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각 인터뷰 시간은 20-25분 정도로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되어 추후 평가에 이용되었다.

2.2.2. 컴퓨터 시험

연구에 사용된 컴퓨터 시험은 미국의 OWL Testing Software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였다(www.owlhosted.com). 본 사이트 3개월 이용료는 1,383,760원(\$1,200)이었으며, 시험 제작을 위하여 약 한 달간의 온라인 지도를 받았다. 다른 종류의 컴퓨터 구술 시험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이 가능하며, 교사가 직접 문제를 만들고 녹음하고 인터넷 상에서 채점하고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충분한 준비시간과 응답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시간부족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초조감 또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각 시험은 25-30분으로 수험자의 발화는 컴퓨터에 자동 저장되어 추후 평가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적인 시험문제 제작이 가능한 인터뷰와 컴퓨터 시험에서는 같은 문제유형을 이용하여 최대한 난이도가 같도록 출제하였다. 시험 문제는 워밍업 질문(warming-up question), 묻고 답하기(question and answer), 요약하기(summary), 그림 묘사하기(picture description), 일련의 그림을 통해 스토리 만들기(making up a story), 그리고 역할극(role play)으로 구성되었다.

2.3. 분석방법

분석을 위하여 FACETS(Linacre, 1989)을 이용한 다국면 래쉬 모델(Multi-faceted Rasch mode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되는 기본적인 3가지 국면(facets)은 수험자, 채점자, 평가 영역이었으며, 채점자 국면은 다시 채점자 특성별로 나누어서 조사되었다. 설정된 국면들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는 전체 채점자간/내의 신뢰성(또는 엄격성)의 정도를 말해 주며, 각 채점자 특성에 따른 채점 성향과 채점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려 주며, 마지막으로 각 채점자의 채점 편향의 유무를 편향분석(bias analysis)의 결과를 통해 보여준다.

3. 결론

본 논문은 영어 말하기 평가의 채점자 신뢰성과 채점자 특성이 신뢰성과 편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터뷰, 컴퓨터 시험의 비교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점자간 신뢰성은 인터뷰, 컴퓨터 시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채점자 내 신뢰성은 컴퓨터 시험 채점시가 인터뷰 채점시 보다는 일관성이 다소 부족했다. 채점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 중 하나는 평가 기준표이지만, 두 시험 모두에서 동일한 채점자가 동일한 기준표를 사용하여 채점하였으므로 평가 기준표가 컴퓨터 시험상의 채

점 일관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채점시 두 시험의 차이점은 인터뷰는 비디오 녹음 파일, 컴퓨터 시험은 목소리 녹음 파일로 채점을 하였다는 점이다. 추측컨대, 컴퓨터 시험 채점은 채점을 위하여 각 문항의 파일을 일일이 열어서 듣고 평가해야 했으므로 피로도 증가 및 집중력 저하 등이 발생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각 문항의 파일을 열어서 듣고 평가해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몇 문항은 건너 띄고 채점하여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Wolcott와 Legg(1988)는 채점자의 집중력 저하는 점수를 지나치게 높게 주거나 낮게 주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컴퓨터 시험 채점시 채점자 일관성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가능한 사용자 편리에 맞추어 피로감이나 번거로움이 적도록 채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 그룹을 제외하고는 인터뷰, 컴퓨터 시험 채점시 원어민, 젊은층, 학사, 비전공자 채점자 그룹이 관대한 점수를 준 반면, 한국인, 나이든층, 박사과정, 전공자 그룹이 엄격한 점수를 주었다. 하지만, 학력은 그 엄격성의 정도가 순차적이지 않았으므로 채점자의 학력이 엄격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단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성별 그룹 간에는 인터뷰 채점에서는 유의한 엄격성의 차이가 없었고, 컴퓨터 시험 채점에서는 여성이 좀 더 엄격한 점수를 주었으므로 컴퓨터 시험의 어떤 특징이 성별 그룹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원어민이 좀 더 엄격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지만(Shohamy, Gordon, & Kramer, 1992), 채점자의 연령, 전공, 성별이 채점 엄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새로운 결과로 보여진다. 그리고 성별 그룹을 제외하고는 시험 유형이 특정 채점자 그룹의 엄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점자 선별 시 모국어, 연령, 전공, 성별 등의 채점자 특성에 따라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또는 불리한 점수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편향분석에서는 박사, 박사과정, 석사과정 채점자 그룹이 "응집력" 또는 "발음"에서 편향적으로 관대하거나 또는 엄격한 점수를 주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컴퓨터 채점시에도 박사과정, 석사과정 채점자 그룹은 "발음", "응집력"에서 편향적으로 관대 또는 엄격한 점수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채점자의 학력에 따른 채점 편향성이라기 보다는 평가항목 "응집력"과 "발음"의 평가 기준표가 채점자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 때로는 너무 엄격하게 또는 관대하게 채점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편향성도 어떤 채점자 그룹은 일관되게 또 어떤 그룹은 일관되지 않게 채점하여 채점자 내 일관성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채점자마다 해석을 달리 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분명한 평가 기준 제시와 함께 채점자 훈련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신동일. (2001). 채점 경향 분석을 위한 Rasch 측정 모형 적용 연구. *외국어 교육*, 8(1), 249-272.
- 최인철. (2000).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모의 구술 면접시험 방식 양상 타당성 검증. *응용언어학*, 16(1), 215-246.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i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O'Loughlin, K. (2001). The equivalence of direct and semi-direct speaking tests-Studies in language testing 1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ohamy, E., Gordon, C, & Kraemer, R. (1992). The effect of ratings background and training on the reliability of direct writing tests. *Modern Language Journal*, 76, 27-33.
- Weir, C. J. (1990). *Communicative language testing*. New York: Prentice Hall.
- Wolcott, W., & Legg, S. M. (1988). *An overview of writing assess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Urbana, Ill: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